

차례

저자의 말: 본 주석이 어떻게 독자를 도울 것인가	i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안내: 검증할 수 있는 진리를 위한 개인적인 연구	iii
이 주석에서 사용한 약어들	ix
주석:	
중요한 서론적 글(왜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아주 많은 종류의 교리적 해석을 하는가?)	1
구약의 예언에 대한 서론	6
요한계시록 서론	10
요한계시록 1 장	19
요한계시록 2-3 장	41
요한계시록 4-5 장	73
요한계시록 6-7 장	86
요한계시록 8-9 장	98
요한계시록 10-11 장	106
요한계시록 12-14 장	121
요한계시록 15-16 장	147
요한계시록 17-18 장	160
요한계시록 19 장	169
요한계시록 20 장	183
요한계시록 21-22 장	192
부록 1: 헬라어 문법 구문의 간략한 정의	207
부록 2: 본문비평	214
부록 3: 용어해설	217
부록 4: 교리적 진술	224
부록 5: 천년왕국에 대한 도표	225
요한계시록에 대한 시	228

요한계시록의 특별주제 목차

메시아, 1:1	20
곧 오심, 1:3	21
성경에서 사용한 상징적 수, 1:4	23
교회(<i>에클레시아</i>), 1:4	24
일곱 영, 1:4	25
장자, 1:5	25
초대교회의 <i>케리그마</i> , 1:5	26
기독교 공동체, 1:6	27
영원히(<i>헬라어 관용어</i>), 1:6	27
영원히(<i>올람</i>), 1:6	27
아멘, 1:6	29
구름을 타고 오심, 1:7	30
슬픔의 의식, 1:7	31
하나님의 이름, 1:8	31
하나님의 왕국, 1:9	34
이스라엘이 사용한 쌀, 1:10	35
죽은 자는 어디에 있는가?, 1:18	38
인간으로 묘사된 하나님(신인동형적 표현), 2:1	46
알다, 2:2	47
인내의 필요, 2:2	47
“시험”을 나타내는 헬라 용어, 2:2	49
환란, 2:9	51
상과 벌의 정도, 2:10	53
주님의 이름, 2:13	55
믿음, 2:13	55
이스라엘(이름), 2:14	57
하나님의 아들, 2:18	58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2:20	60
마음, 2:23	62
고백, 3:5	65
신약에서의 “문”의 용법, 3:7	66
<i>아르케</i> , 3:14	68
부, 3:17	69
밥의 복음적 편견, 4:1	74
하늘들, 4:1	75

장로, 4:4	77
그룹들, 4:6	77
성도, 5:8	81
속량하다/구속하다, 5:9	82
하나님의 왕국에서 다스림, 5:10	84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한 동전들, 6:6	88
인, 7:2	93
열둘, 7:4	94
신비, 10:7	109
구약의 예언, 10:7	110
마흔두달, 11:2	114
성경에 나오는 영, 11:11	116
그 날, 11:18	119
사탄, 12:3	124
하늘에서의 전쟁, 12:7	126
개인적 악, 12:9	127
언제라도 일어날 예수의 재림과 아직은 아닌 재림(신약의 역설), 12:12	130
그리스도인과 정부, 13 장의 서론	131
흠없는, 무죄한, 죄없는, 책망할 것 없는, 14:5	139
그 때, 14:7	141
술과 술취함, 14:10	142
영광, 15:8	151
신약의 예언, 16:6	152
불, 16:8	154
귀신(더러운 영), 16:13	156
재림을 나타내는 용어들, 16:14	157
멸망시키다, 파괴하다, 부패하다(<i>프쎄이로</i>), 19:2	170
구약에서의 믿다, 신뢰하다, 믿음, 충성됨, 19:4	171
요한의 글에서 말하는 진리(개념), 19:11	176
요한의 글에서 말하는 참(용어), 19:11	177
의, 19:11	178
로고스의 배경, 19:13	180
나사렛 예수, 22:16	203
삼위일체, 22:17	204
마라나타, 22:20	205

저자의 말: 본 주석이 어떻게 독자를 도울 것인가?

성경적인 해석은 고대의 감동받은 저자를 이해하여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를 깨닫고 이를 현대에 적용하도록 하려는 이성적이고 영적인 과정이다.

해석의 영적인 과정은 중요하지만 이를 규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굴복과 기대를 포함한다. 거기에는 반드시 (1) 그를 위한 (2) 그를 알기 위한 (3) 그를 섬기기 위한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 영적인 과정은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와 죄의 고백과 순종하려는 자세가 포함된다. 해석의 과정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중대하다. 그럼에도 진실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신비스럽다.

해석의 이성적인 과정은 설명하기에 좀 더 쉽다. 우리는 반드시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정당하게 본문을 다루어야 하며 우리의 개인적이고 교파적인 편견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역사적 흐름의 영향을 받는다. 아무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해석가가 될 수 없다. 이 주석은 우리의 편견을 뛰어 넘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구조화된 세 해석원리를 포함한 조심스럽고도 이성적인 과정을 제공한다.

제 1 원리

첫 번째 원리는 성경책이 쓰인 역사적 배경과 저자와 연관된 특별한 역사적 사건에 주목한다. 원저자는 전달하려는 내용과 목적을 가졌다. 본문은 고대의 감동받은 원저자가 결코 의미하지 않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의미할 수 없다. 그의 의도는 우리의 역사적, 감정적, 문화적, 개인적, 또는 교파적인 필요가 아니라는 것이 열쇠이다. 적용은 해석의 총체적인 동반자이지만 적절한 해석은 반드시 적용에 선행되어야 한다. 모든 성경본문은 오직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 이 의미는 원래 성경저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시대에 전달하고자 했던 것을 의미한다. 이 하나의 의미는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적용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적용은 반드시 원저자의 중심 진리에 상응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안내주석은 성경의 각 책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었다.

제 2 원리

두 번째 원리는 문학적 단위를 확정짓는 것이다. 성경의 각 책은 각각 통일적인 문서이다. 해석자들은 진리의 한 면을 위해 다른 면들을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문학적 단락을 해석하기 전에 반드시 전체의 목적을 이해하려고 애써야만 한다. 각 장, 단락, 절은 전체 성경이 의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 없다. 해석은 반드시 전체에 대한 연역적인 접근으로 시작하여 각 부분에 대한 귀납적 방법으로 가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안내주석은 독자가 문단으로 이루어진 각 문학적 단위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장의 구분과 마찬가지로 단락구분도 감동 되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구분들은 우리에게 단락의 범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한 문장, 절, 구나 단어 수준이 아닌 문단 수준에서의 해석은 성경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따르는 열쇠이다. 문단들은 자주 주제나 중심 문장으로 불리는 하나의 통일된 논제를 가지고 있다. 문단속의 각 단어, 구, 절과 문장은 어찌되었건 이 통일된 주제와 관련이 있다. 그들은 이 주제를 한정하고 확장하고 설명하고 질문한다. 적절한 해석을 위한 실제적인 열쇠는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각 문학적 단위 안에서 각 문단을 기초로 한 원저자의 생각을 따르는데 있다. 본 연구안내주석은 독자가 현대 영어 번역판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번역판들은 그들이 다른 번역이론을 사용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1. 신약 헬라이어 본문은 네 번째 개정판이다(UBS⁴). 이 책은 현대 원문 연구학자에 의해 단락으로 나누어졌다.
2. 뉴킹제임스역(NKJV)은 공인 본문으로 알려져 있는 헬라이어 원문 전통을 기초로 축어 적으로 번역되었다. 이 책의 단락 구분은 다른 번역판 보다 길게 되었다. 이렇게 긴 단락들은 학생들이 통일된 논제를 보는데 도움을 준다.
3. 신개정표준역(NRSV)은 수정된 축어역이다. 이것은 다음에 열거된 두 현대번역본의 중간 지점에 있다. 이것의 단락 구분은 주제들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4. 현대영어성경(TEV)은 미국성서공회에서 출판한 등가 번역본이다. 이것은 현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헬라이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시도했다. 신국제역(NIV)에서와 같이, 복음서 안에서 특별히 자주 주제보다는 화자를 중심으로 문단을 나누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해석자의 목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신약 헬라이어 본문(UBS⁴) 과 현대영어성경(TEV)을 같은 출판사에서 출판하였지만 그들의 단락 구분이 다르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5. 신예루살렘성경(NJB)은 프랑스 천주교역을 기초로 한 등가 번역본이다. 이것은 유럽인의 시각으로 단락 짓는 것을 비교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6. 본 주석에서 사용한 본문은 1995년에 개정된 신미국표준역(NASB)으로서 축어적인 번역본이다. 각 절의 주석은 이 번역본의 구분을 따르고 있다(본 주석에서 역자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신미국표준역 개정판 본문을 개역개정판 한글 성경으로 대신하였다).

제 3 원리

세 번째 원리는 성경의 단어나 구절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넓은 범위의 의미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헬라어의 단어나 구절들은 자주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는 것은 헬라어 본문에 나타난 상이점들을 이해하고 가능한 해석들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작업은 교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입은 저자의 원문대로 이해하도록 독자를 도와준다.

본 주석은 독자가 자신의 해석을 손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확정된 답을 주기보다 정보를 제공하고 생각할 기회를 준다는 뜻이다. 다른 가능한 해석들은 우리가 편협하고 독단적이며 교과 중심으로 빠지지 않도록 종종 도와준다. 해석가들은 옛문서의 해석이 얼마나 애매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고 폭넓은 해석의 범주를 가져야 한다. 성경을 진리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거의 동의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제 4 원리

네 번째 원리는 문학적 장르를 확인하는 것이다. 영감받은 원저자들은 자신들의 메시지를 다른 양식을 사용하여 기록했다(예를 들면 역사적 이야기체, 역사적 드라마, 시, 예언, 복음서[비유], 서신, 묵시). 이러한 서로 다른 양식은 해석을 위한 특별한 열쇠를 제공한다(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D 브렌트 샌디와 로날드 L. 기즈의 *구약코드해독*, 또는 로버트 스타인의 *규칙에 따른 놀이*를 보라).

본 주석은 독자가 자신의 해석을 손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확정된 답을 주기보다 정보를 제공하고 생각할 기회를 준다는 뜻이다. 다른 가능한 해석들은 우리가 편협하고 독단적이며 교과 중심으로 빠지지 않도록 종종 도와준다. 해석가들은 옛문서의 해석이 얼마나 애매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고 폭넓은 해석의 범주를 가져야 한다. 성경을 진리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거의 동의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위의 원리들은 옛 본문을 다룸에 있어서 역사적인 제한들을 극복하도록 내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나는 본 주석을 읽는 모든 독자들도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한다.

밥 어틀리
동텍사스침례대학
1996년 6월 27일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안내 검증할 수 있는 진리를 위한 개인적인 연구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는가? 어디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가? 그것에 궁극적인 권위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절대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가? 그것이 삶에 의미를 주는가? 왜 우리는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은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모든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계속 되었다(전 1:13-18; 3:9-11).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고 씨름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어릴 때 몇몇 식구들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 몸이 성장하는 만큼 나 자신과 내 주위의 세계에 대한 질문도 커졌다. 익숙한 문화와 진부한 종교생활은 내가 읽거나 경험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했다. 그때에 나는 답답하고 둔감한 나만의 세계 속에서 혼동과 좌절, 기다림, 그리고 자주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궁극적인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들의 대답은 (1) 개인적인 철학 (2) 고대의 신비 (3) 개인적인 경험이나 (4) 심리적 투영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세상을 보는 나의 눈과, 내게 왜 사는지에 대해 일관성 있게 답할 수 있는 검증이 가능하고 증거가 충분할 뿐 아니라 이성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했다.

나는 이 대답을 개인적인 성경공부를 통해 발견했다. 나는 증거들을 찾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고 내가 발견한 믿을 만한 증거들은 (1) 고고학으로 확실하게 증명되는 성경의 역사적 신빙성 (2) 구약성경의 예언들의 정확성 (3)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1,600년이 넘도록 일관성이 있는 성경의 메시지와 (4) 성경을 통해 확실하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간증들이다. 믿음의 일관된 체계인 기독교는 인류의 복잡한 질문을 답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는 이성적인 면뿐 아니라 성경을 신뢰하게 되는 데서 오는 경험적인 면을 통해 나에게 감정적인 기쁨과 안정을 주었다.

나는 성경을 통해 내 삶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것은 강렬하면서도 내적 자유를 맛보는 경험이었다. 그러나 나는 성경의 매우 다른 해석들이 주장되어지고 때로는 같은 교회나 학교에서조차도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놀라움을 기억한다. 성경의 영감과 신뢰하는 확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 난해한 구절들에 대하여 성경의 권위와 옳음을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반되는 해석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거나 거부할 것인가?

이 일은 내 인생의 목표와 믿음의 여정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나에게 무한한 평화와 기쁨을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마음은 (1) 포스트 모던시대의 상대주의; (2) 모순된 종교 체제들의 독단주의(세계 종교들); 그리고 (3) 교파적인 우월감 안에서 무엇인가 절대적인 것을 바랬다. 고문서의 바른 해석을 위한 연구를 하면서 나 자신이 역사적, 문화적, 교파적, 경험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놀랐다. 나의 견해를 견지하기 위해 종종 성경을 읽었다. 나는 나 자신의 불안함과 부당함을 발견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했다.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

비록 나는 철저히 객관적일 수 없었지만 성경을 좀 더 빠르게 읽게 되었다.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함으로써 그 영향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나에게 편견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편견이 나에게 있어서 약점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었다. 바른 성경읽기를 함에 있어서 번역가 자신이 종종 가장 커다란 장애가 된다!

성경연구를 위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점검할 전제들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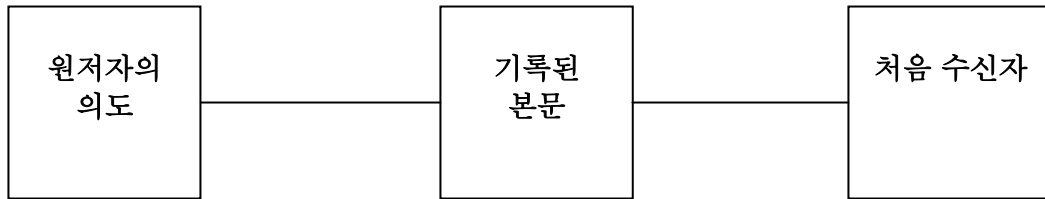
I. 전제들

- (1)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유일한 계시임을 믿는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 저자의 역사적 상황과 원저자인 성령의 의도하심 안에서 해석되어져만 한다.
- (2) 나는 성경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쓰인 것임을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님 스스로를 역사적, 문화적 상황 안에서 우리에게 맞추신다. 하나님은 진리를 감추시지 않는다. 그는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성경은 반드시 우리시대의 관점이 아닌 성경시대의 관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성경은 처음 그 말씀을 읽고 들은 사람에게 의미하지 않았던 내용을 현재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 성경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일상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한다.
- (3) 나는 성경이 통일된 메시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비록 성경에 어렵고 역설적인 구절들이 있지만 그 구절들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장 좋은 해석가는 성경 바로 그 자체다.
- (4) 나는 모든 말씀(예언을 제외하고)이 감동된 원저자의 의도에서 오로지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비록 우리는 원저자의 의도를 완전하게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이해하도록 돕는 여러 가지의 지침들이 있다:
 1.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된 장르(문학의 유형)
 2.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나 특별한 사건
 3. 각 단락 및 전체 책의 문학적 배경
 4. 전체 메시지와와의 연관성에서의 문학적 단락의 개요
 5.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특별한 문법적인 요소
 6.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 선택된 용어들
 7. 대구(평행) 구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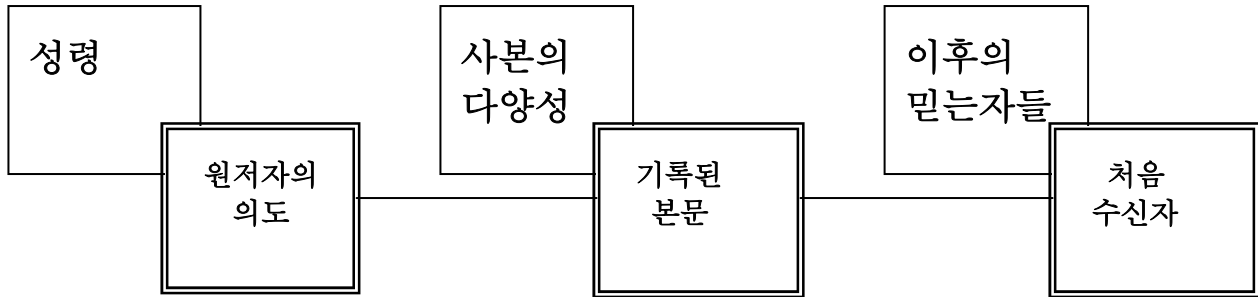
이와 같은 영역의 연구는 성경구절을 연구하는 우리의 목표다.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나의 방법론을 설명하기에 앞서, 해석상 지나친 다양성을 일으키므로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몇 가지 부적절한 방법을 말하고자 한다.

II. 부적절한 방법들

- 가. 성경의 책들의 문학적 상황을 무시하고 모든 문장, 구, 심지어 각각의 단어들을 저자의 의도나 전체 상황과 관계없이 진리의 진술로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종 “자신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한 본문사용”(proof-texting)으로 불린다.
- 나. 본문이 거의 또는 전혀 지지하지 않는 상상적인 역사적 상황을 대용하여 책들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다.
- 다. 책들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고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초점을 맞춘 조건 신문정도로 생각하며 성경을 읽는 것이다.
- 라. 성경을 처음의 청취자와 원저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철학적, 신학적 메시지로 우화화 하여 책들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다.
- 마. 원저자의 목적과 그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신학적 체계, 선호하는 교리나 현대 논쟁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원래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성경을 다룰 때 설교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종종 행해진다. 이것은 “독자 중심”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 하는가”)해석이라고 종종 불려진다. 인간의 글을 통한 의사소통과 관련된 최소한의 세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과거에는 다른 독서법들이 세 요소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성경의 독특한 감동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수정된 아래의 도표가 좀 더 적절하다:



실제로 세 가지 요소 모두가 해석하는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검증을 위해 나의 해석은 첫 두 요소에 중점을 두었다: 원저자의 의도와 본문. 이제까지 잘못 사용되어 온 것으로서 (1) 우화화나 영해하는 본문과 (2) “독자 중심” 해석(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 하는가)에 대해 나는 반대한다. 이러한 잘못은 모든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동기, 편견, 방법, 적용을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해석의 범주나 한계 그리고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들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저자의 의도와 본문의 구조는 바른 해석의 범주를 갖도록 기준을 제시한다.

이러한 부적절한 독서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일관성 있는 바른 성경읽기나 해석이 되도록 돕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겠는가?

III.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가능한 방법들

지금 나는 특별한 문학 형태에 대한 독특한 해석 기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해석원리가 모든 형태의 성경본문에 적용된다는 것을 논하고자 한다.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성서유니온)는 특별한 문학형태에 따라 접근하기에 좋은 책이다.

나의 방법은 네 가지 개인적인 읽는 단계를 통해 성령께서 성경을 조명하시도록 우선적으로 독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 본문, 그리고 독자에 우선권을 두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주석가에 의해 지나치게 영향 받을 수 있는 독자를 보호한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성경은 주석가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 준다.” 이것은 연구를 돕는 주해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적절한 때에 사용하라는 뜻이다.

본문 자체가 우리의 해석을 뒷받침해야 한다. 정당성을 부여하는 최소한의 다섯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원저자의
 - ㄱ. 역사적 배경
 - ㄴ. 문학적 배경
2. 원저자가 선택한
 - ㄱ. 문법적 구조(구문법)
 - ㄴ. 당시의 용법
 - ㄷ. 문학적 형태
3. 우리의 적절한 이해
 - ㄱ. 관계된 대구(평행)구절
 - ㄴ. 문서 간의 관계(역설)

우리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논리와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과 적용을 위한 유일한 원천이다. 슬프게도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가르치거나 주장하는 것에 관하여 자주 의견이 맞지 않는다. 믿는 자들이 성경이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서로 동의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다!

네 가지 읽는 단계는 아래의 해석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도록 구성되었다.

가. 독서의 첫 번째 단계

1. 단번에 그 책을 읽으라. 다른 번역을 읽되 가능하면 다른 번역이론에 속한 번역본을 읽으라.
 - ㄱ. 축어적 역본(뉴킹제임스역, 신미국표준역, 신개정표준역)
 - ㄴ. 등가적 역본(현대영어성경, 예루살렘역)
 - ㄷ. 풀어쓴 역본(리빙 바이블, 확대번역성경)
2. 전체본문의 중심 목적을 찾아라. 주제를 찾아라
3. (가능하면)문학적 단위, 장, 문단, 혹은 중심목적이나 주제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문장을 파악하라.
4. 뚜렷한 문학적 유형을 파악하라.
 - ㄱ. 구약
 - 1) 이야기체
 - 2) 시(지혜문학, 시편)
 - 3) 예언서(산문, 시)
 - 4) 법률
 - ㄴ. 신약
 - 1) 이야기체(복음서, 사도행전)
 - 2) 예화(복음서)
 - 3) 편지/서신서
 - 4) 계시 문학

나. 독서의 두 번째 단계

1. 책 전체를 다시 읽고 중요한 논제나 주제를 찾으라.
2. 중요한 논제를 말하고 간단하게 그 내용을 진술하라.
3. 목적 진술문을 점검하고,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사용하여 개요를 넓혀라.

다. 독서의 세 번째 단계

1. 책 전체를 다시 읽고 성경에서 역사적인 상황과 특별한 사건을 확인하라.
2. 성경에 언급된 역사적인 내용들을 열거하라.
 - ㄱ. 저자
 - ㄴ. 날짜
 - ㄷ. 수신자
 - ㄹ. 글을 쓴 특별한 이유
 - ㅁ. 저술의 목적과 관련된 문화적 배경의 요소
 - ㅂ.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한 언급
3. 해석할 성경본문의 단락별 개요를 만들라. 문학의 단위에 항상 유념하라. 문학적 단위는 여러 장이나 문단에 걸쳐 있을 수 있다. 이과정은 원저자의 논리와 본문의 구조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4.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활용하여 역사적 배경을 점검하라.

라. 독서의 네 번째 단계

1. 본문의 특별한 문학적 단위를 여러 번역본을 사용하여 다시 읽으라.
 - ㄱ. 축어적 역본(뉴킹제임스역, 신미국표준역, 신개정표준역)
 - ㄴ. 등가적 역본(현대영어성경, 예루살렘역)
 - ㄷ. 풀어 쓴 역본(리빙 바이블, 확대번역성경)

2. 문학적 또는 문법적 구조를 확인하라.
 - ㄱ. 반복적인 표현, 엡 1:6, 12, 13
 - ㄴ. 반복되는 문법적 구조, 롬 8:31
 - ㄷ. 대조되는 개념들
3. 다음의 항목들을 파악하라.
 - ㄱ. 중요 용어
 - ㄴ. 자주 사용되지 않는 용어
 - ㄷ. 문법적으로 중요한 구조
 - ㄹ. 어려운 단어, 절, 문장
4. 평행되는 구절들을 확인하라.
 - ㄱ. 해당되는 주제를 가장 명확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을 찾아라
 - 1) “조직신학”책
 - 2) 참조성경
 - 3) 성구사건
 - ㄴ. 당신의 주제에서 역설적인 짝을 이루는 것을 찾아라. 성경의 여러 가지 진리는 서로 대립적인 짝으로 나타난다; 많은 교파적 대립은 자신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한 반쪽 본문사용에 기인한다. 모든 성경은 영감에 의해 쓰였다. 우리의 해석은 성경의 취지에 입각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성경의 완전한 메시지를 찾아내야만 한다.
 - ㄷ. 같은 책, 같은 저자, 같은 문학형태 안에서 평행되는 구절들을 찾아라;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 한분이시므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5. 역사적 배경과 사건에 대한 당신의 연구를 도울 수 있는 자료들을 사용하라
 - ㄱ. 해설이 있는 성경
 - ㄴ. 성경백과사전, 성경핸드북, 성경사전
 - ㄷ. 성경개론서
 - ㄹ. 성경주석(고금을 막론하고 개인 성경연구를 바르게 도울 수 있는 주석을 사용하라.)

IV. 성경해석의 적용

이제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자. 당신은 지금까지 성경의 원래의 상황 안에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을 당신의 삶과 문화에 적용하여야 한다. 나는 성경의 권위를 “원저자가 그의 시대에 말하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진리를 우리시대에 적용하는 것” 이라고 정의한다.

적용은 반드시 원저자가 시간과 논리 안에서 의도한 바를 따라야 한다. 성경이 그 시대에 말하고자 한 것을 알기 전에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다! 성경 본문은 그것이 의미하지 않았던 것을 결코 의미할 수 없다!

당신의 세분화된 단락 수준(독서의 세 번째 단계)의 개요는 당신의 안내자가 될 것이다. 적용은 단어 수준에서가 아니라 단락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어들은 단지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구들은 단지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문장들은 단지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해석의 과정에서 영감 받은 사람은 오직 원저자뿐이다. 우리는 단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원저자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조명은 영감이 아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원저자의 의도안에 머물러야만 한다. 적용은 전체 글, 각 문학적 단위, 문단에 나타난 일반적인 의도에 특별하게 연결되어야만 한다.

오늘날의 쟁점이 성경을 해석하게 말고; 성경이 말하게 하라! 이것을 위해서는 성경본문으로 부터 원리를 이끌어 내야 한다. 만약 본문이 원리를 뒷받침한다면 그것은 타당하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원리들은 자주 본문의 원리가 아닌 “우리의” 것이 되고 있다.

성경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본문(예언은 제외)에는 단지 하나의 의미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의미는 그 시대의 위기나 필요에 대해 말하고 있는 원저자의 의도와 연관이 있다. 하나의 의미에서 다양한 적용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적용은 수신자의 필요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은 원저자가 의미했던 의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V. 해석의 영적인 면

지금까지 나는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논리적이고 본문중심의 과정을 언급하였다. 여기에서는 해석의 영적인 면을 간단하게 논하고자 한다. 다음은 나에게 도움을 준 점검목록이다:

- 가.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라(참조 고전 1:26-2:16).
- 나. 개인이 알고 있는 죄에 대한 용서와 깨끗이 해주심을 위해 기도하라(참조 요일 1:9).
- 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갈망하도록 기도하라(참조 시 19:1-14; 42:1 이하; 119:1 이하).
- 라. 허락하신 새로운 깨달음을 당신의 삶에 즉각 적용하라.
- 마. 겸손함과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유지하라.

성령의 영적인 인도와 논리적인 방법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음에 인용된 내용은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갖도록 내게 도움을 주었다:

가. 제임스 W. 사이어, 왜곡된 성경(*Scripture Twisting*), 17-18 쪽에서:

“성령의 감동은 영적 엘리트에게만이 아닌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다. 성경적인 기독교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기위한 전문적 강제도, 그것을 터득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또한 모든 타당한 해석이 자신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성령께서 지혜, 지식, 영적분별의 특별한 은사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이런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성경을 권위있게 해석하도록 하지는 않으셨다. 성경은 최종권위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신 사람들에게도 권위를 갖는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배우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책임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다. 결론적으로 이 책 전체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참된 계시라는 것이라는 점과, 또한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성경이 궁극적인 권위라는 점과, 성경은 결코 신비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의 평범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 키에르케가드의 글, 버나드 램, *성경해석학*, 75 쪽에서:

키에르케가드에 의하면, 성경의 문법적, 사전적, 역사적 연구는 필요할 뿐 아니라 바른 성경읽기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위해서는 사람의 입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과의 대화를 열망하며 진심으로 읽어야 한다. 부주의하게 무의식적으로 또는 학적이나 직업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사랑의 편지(love letter)로 읽을 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 라울리, *성경의 계시*, 19 쪽에서:

“성경의 단순한 지적인 이해는 그것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모든 보화를 소유하지 못한다. 단순한 지적이해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이해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지적 이해가 영적 이해(영적 보화)에 이르러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영적인 이해를 위해 지적인 깨달음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시키려는 열정과 영적수용성을 가져야 한다. 그 결과 그는 과학적 연구방법을 뛰어 넘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성경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VI. 본 주석의 체계

본 *연구안내주석*은 당신의 해석과정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가. 각 책의 간단한 역사적 개요를 소개한다. 독서의 세 번째 단계를 실시한 후 이 안내를 보라.

나. 각 장의 처음 부분에 문맥적 통찰력 난을 넣었다. 이것은 문학적 단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다. 각 장 혹은 주요 문학 단위가 시작될 때마다 여러 가지 현대 번역본의 문단분할과 그 제목을 제시했다:

1. 세계성서공회 헬라어 본문, 제 4 개정판(UBS⁴)
2. 신미국표준역, 1995 개정판(NASB)
3. 뉴킹제임스역(NKJV)
4. 신개정표준역(NRSV)
5. 현대영어성경(TEV)
6. 예루살렘역(JB)

문단구분은 영감 되지 않았다. 그것은 문맥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다른 번역이론과 다른 신학적인 관점을 가진 여러 현대어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원저자가 가졌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각각의 문단은 하나의 중심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주제 문장” 또는 “본문의 중심 생각” 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통일된 생각이 역사적, 문법적으로 적절한 해석의 열쇠이다. 문단보다 작은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거나 설교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 또한 각 문단은 앞뒤의 문단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책 전체의 문단 개요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반드시 영감 된 원저자가 주장하는 주제의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야 한다.

라. 밥(Bob)의 설명은 한 절씩 해석하는 방법을 취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원저자의 생각을 따르도록 도와준다. 그의 설명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정보를 제공한다:

1. 문학적 상황
2. 역사적, 문화적 통찰력
3. 문법적 지식
4. 단어 연구
5. 관계된 대구(평행)구절

마. 때에 따라 신미국표준역, 1995 개정판 대신에 다른 여러 현대 번역본도 보충적으로 사용되었다:

1. “공인본문”으로 알려진 뉴킹제임스역
2. 개정표준역 전국교회협의회 축어적 개정판인 신개정표준역
3. 미국성서공회의 등가번역본인 현대영어성경
4. 프랑스 천주교역을 기초로 한 영어 등가 번역본인 예루살렘역

- 바. 헬라어에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여러 영어번역본을 비교하는 것이 본문의 문제점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1. 사본의 다양성
 2. 대체할 수 있는 단어의 뜻
 3. 문법적으로 어려운 본문이나 구조
 4. 애매한 본문
- 영어번역본이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좀 더 깊고 철저한 연구가 되도록 도와준다.
- 사.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장의 중요한 해석상의 문제들에 대한 생각할 질문들을 제시했다.

이 주석에서 사용한 약어

AB	앵커 바이블 주석, 윌리엄 폭스웰 올브라이트, 데이빗 노엘 프리드먼 편저
ABD	앵커 바이블 사전 (6 권), 데이빗 노엘 프리드먼 편저
AKOT	구약의 분석 열쇄, 존 조셉 오웬스
ANET	고대 근동 본문, 제임스 B. 프릿처드
BAGD	신약과 초기 기독교 문학의 헬라어-영어 사전, 월터 바우어, F. W. 킹리치와 프레드릭 당커, 제 2 판
BDB	히브리어 영어 구약사전, 프란시스 브라운, S. R. 드라이버, C. A. 브릭스 공저
BHS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투트가르텐지아, GBS, 1997
IDB	인터프리터스 성경사전 (4 권), 조지 A. 버트립
ISBE	국제 표준 성경 백과사전 (5 권), 제임스 오르
JB	예루살렘 성경
JPSOA	맛소라 본문에 따른 성경: 새 번역 (미국 유대인 출판협회)
KB	히브리어 아람어 구약사전, 루드빅 켈러, 왈커 바움가르트너
LAM	성경의 고대 동방 사본 (페쉬타), 조지 M. 램사
LXX	칠십인역 (헬라어-영어), 존더반 출판사, 1970
MOF	제임스 모팻의 새 번역 성경
MT	맛소라 히브리어 본문
NAB	새 미국 성경 본문
NASB	새 미국 표준 성경
NEB	새 영어 성경
NET	성경: 새 영어역, 제 2 베타역
NIDNTT	새 국제 신약신학 사전 (4 권), 콜린 브라운 편저
NIDOTTE	새 국제 구약 신학과 석의 사전 (5 권), 윌렘 A. 반게머른 편저
NRSV	새 개정 표준역
NIV	새 국제역
NJB	새 예루살렘 성경
OTPG	구약성경 분해 가이드, 토드 S. 빌, 윌리엄 A. 뱅크스, 콜린 스미스

REB	개정 영어 성경
RSV	개정 표준역
SEPT	칠십인역 (헬라어-영어), 존더반, 1970
TCNT	20 세기 신약성경
TEV	세계성서공회의 오늘의 영어역
YLT	영의 문자적 번역 성경, 로버트 영
ZPBE	존더반 그림 성경 백과사전 (5 권), 메릴 C. 텐니 편저

중요한 서론적 글

“왜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아주 많은 종류의 교리적 해석을 하는가”

내가 여러 해 동안 종말론을 연구하면서 알게된 사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적으로 잘 정리된 마지막 때에 대한 연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 그것을 바라지도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 영역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적 심리적 또는 교단적 이유에서 그렇게 한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지만 복음전도의 긴급성에 대하여는 놓치고 있다! 신자들이 종말론적(마지막 때) 사항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복음전파의 대위임에는 참여할 수 있다(참조, 마 28:19-20; 눅 24:47; 행 1:8).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과 하나님의 약속이 마지막 때에 완성됨을 받아들인다. 이 일이 완성되는 시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따르는 해석적 어려움은 성경에 있는 여러 개의 역설에 기인한다.

1. 구약 언약의 예언적 모델과 신약 언약의 사도적 모델 사이의 긴장
2. 성경의 유일신론(모든 이에게 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선택(특별한 한 민족) 사이의 긴장
3. 성경에 있는 언약과 약속의 조건적인 면(“만일...그때에는”)과 범죄한 인간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신실하심 사이의 긴장
4. 근동 문학의 장르와 현대 서구 문학적 모델 사이의 긴장
5. 하나님의 왕국의 현재와 ‘아직 미래’ 사이의 긴장
6.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믿음과 어떤 일들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믿음 사이의 긴장.

이 긴장의 내용을 한 번에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처음 긴장(구약의 인종적 국가적 지역적 영역 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한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의 왕국이 다시 세워져, 그곳으로 지구 위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의 후손을 섬기고 찬양하려고 모일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하지만 예수님과 신약의 사도들은 이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구약이 영감받지 않은 책인가(참조, 마 5:17-19)? 신약의 저자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중요한 사건들을 생략하고 있는 것인가?

세상의 끝에 관하여 알려 주는 여러 자료가 있다:

1. 구약의 예언서(이사야, 미가, 말라기)
2. 구약의 묵시적 글(참조, 겔 37-39 장; 단 7-12 장; 스가라)
3. 신구약 중간기의 정경이 아닌 유대의 묵시적 글(예눅 1 서의 경우 유다서에서 암시함)
4. 예수님 자신(참조, 마 24 장; 막 13 장; 눅 21 장)
5. 바울의 글(참조, 고전 15 장; 고후 5 장; 살전 4-5 장; 살후 2 장)
6. 요한의 글(요한일서와 계시록)

이 자료들은 마지막 때와 관련된 사항(사건, 시간적 순서, 인물들)을 분명하게 제시하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러한가? 그들은 다 영감을 받았는가(신구약 중간기에 속하는 유대인의 글을 제외하고는 그렇다)?

성령은 구약의 저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범위에서 진리를 그들에게 계시하였다. 그러나 점진적인 계시를 통하여 성령께서 구약의 이러한 종말론적 개념을 세계적인 것으로 확장하셨다(“그리스도의 신비,” 참조, 엡 2:11-3:13. 10:7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와 관련을 가진 예를 여기서 일부 제시하려고 한다:

1. 구약에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되었다(시온). 그러나 신약에서는 회개하고 믿는 자 모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심을 제시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계 21-22 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 문자적이고 물질적인 의미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새 백성(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뜻하는 것’으로 신학적으로 확장된 의미를 가지는 일이 창 3:15 에서 예시하듯이 범죄한 인간을 속량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보여졌다. 그 때는 유대인도, 유대인의 수도도 전혀 없었던 시기였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경우에도(참조, 창 12:1-3)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었다(참조, 창 12:3; 출 19:5).
2.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은 고대 근동에 있는 주변나라들이었는데, 신약에서는 그 개념이 믿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하며 사탄의 조종을 받는 모든 자들로 확대되었다. 국지적 개념의 싸움이 전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싸움으로 바뀌었다(참조, 골로새서).
3. 구약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땅의 약속’(창세기에서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들, 참조, 창 12:7; 13:15; 15:7,15; 17:8)은 이제 전세계에 대한 내용이 되었다. ‘근동의 한 지역에 위치 하거나 혹은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장소가 아닌 새 예루살렘이 재창조된 지구로 내려온다(참조, 계 21-22 장)
4. 구약의 예언적 요소가 확장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ㄱ. 아브라함의 씨가 이제는 영적으로 할례받은 자들을 가리킨다(참조, 롬 2:28-29)
 - ㄴ. 언약백성이 이제는 이방인들을 포함한다(참조, 롬 9:24-26 에서 인용한 호 1:10; 2:23; 또한 고후 6:16-18 에서 인용한 레 26:12; 출 29:45; 딤후 2:14 에서 인용한 출 19:5; 신 14:2)
 - ㄷ. 성전이 이제는 예수(참조, 마 26:61; 27:40; 요 2:19-21)를 또 예수를 통하여 지역교회(참조, 고전 3:16)와 각 신자(참조, 고전 6:19)를 가리킨다
 - ㄹ.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구약의 특징적인 표현들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즉, “이스라엘,” 참조, 롬 9:6; 갈 6:16; 즉, “제사장 나라,” 참조, 뱀전 2:5,9-10; 계 1:6)

예언의 모델(즉, D. 브렌트 샌디, *보습과 전정가위*)이 성취되었고 확장되어 상당히 포괄적이 되었다. 예수님과 사도인 저자들은 구약의 예언서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마지막 때를 제시하지 않았다(참조, 마틴 원가덴, *예언에 나타난 왕국의 미래와 성취*). 구약의 모델을 문자적이고 규범적으로 해석하려는 자들은 계시록을 상당히 유대적인 책으로 왜곡시키며, 예수님과 바울이 사용한 모호하면서도 따로 떨어져 있는 구에 자신들이 원하는 의미를 나타내도록 강요한다!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의 예언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 예언들이 궁극적으로 우주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제시한 것이다. 예수님과 바울은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체계로 종말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구원적이고 목회적인 목적을 가졌다(참조, 고전 15:58; 살전 4:18).

한편, 신약 저자들 사이에도 긴장이 나타난다. 그들은 종말적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분명히 제시하지 않는다. 여러 면에서 볼 때, 놀랍게도 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묘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가르침 대신에(참조, 마 24 장; 막 13 장; 또는 바울의 글) 구약의 암시를 사용한다! 처음에 에스겔, 다니엘, 스가라가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신구약 중간기(유대인의 묵시문학)에 발전된 문학적 장르를 계시록이 따르고 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요한이 사용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오랜 기간에 걸쳐 하나님께 반역을 함과 인간을 속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헌신하심을 드러낸다! 비록 계시록이 구약의 표현, 인물, 사건들을 암시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1 세기 로마의 상황에 비추어 재해석하였음을 기억해야만 한다(참조, 계 1:7).

두 번째 긴장(유일신론 대 선택된 한 백성)

성경의 강조점은 한 분 곧 영이시며 창조자요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강조점을 둔다(참조, 출 8:10; 사 44:24; 45:5-7,14,18,21-22); 46:9; 렘 10:6-7). 구약의 독특성은 바로 유일신론에 있다.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는 다신론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한 분 이심이 구약의 계시에서 핵심을 이룬다(참조, 신 6:4). 창조는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를 누리는 장이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존재였다(참조, 창 1:26-27).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도력과 목적을 거스르고 반역하였다(참조, 창 3 장)!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이 아주 강력하고 분명하여, 타락한 인류를 속량하시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다(참조, 창 3:15)!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가족, 한 나라를 택하시어 인류 전체를 속량하려고 결정하셨을 때 긴장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유대인을 제사장들의 나라로 택하신 일은(참조, 출 19:4-6) 섬김이 아니라 교만을, 포함시킴이 아니라 배제시킴이 일어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모든 인류를 축복할 의도에서 행해진 일이었다(참조, 창 12:3). 구약에서 선택이 섬김을 위한 것이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님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던 적도 없고(즉, 롬 9:6), 그들의 출생에 근거하여 자동적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은 적도 없다(참조, 요 8:31-59; 마 3:9). 오직 믿음과 순종에 의하여 각 사람이 그러한 관계와 구원을 누린 것이다(참조, 창 15:6; 롬 4:3,9,22; 갈 3:6 에서 인용함. 이스라엘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잃어버려(이제는 교회가 제사장의 나라이다, 참조, 1:6; 뱀후 2:5,9), 의무를 특권으로 또 봉사를 특별한 지위로 바꾸어 놓았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를 선택하시려고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

세 번째 긴장(조건적 언약 대 무조건적 언약)

조건적 언약과 무조건적 언약 사이에 신학적 긴장 혹은 역설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구속 목적/계획은 무조건적인 것이 사실이다(참조, 창 15:12-21; 또 메시아께서 오심). 그러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응답은 항상 조건적이다!

“만일... 그 때에는”의 형식이 구약과 신약에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인간은 신실하지 않다. 이러한 긴장은 많은 혼동을 일으켰다. 해석가들은 “진퇴양난의 경우”에서 단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가졌다—하나님의 신실하심 또는 인간의 노력, 하나님의 주권 또는 인간의 자유의지. 두 가지 모두 성경적이며 또 함께 가야 한다. 지 않았다

이것은 종말론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구약의 약속과 관련이 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 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에 묶여 계시다; 하나님의 명성이 이 일에 달려 있다(참조, 겔 36:22-38). 무조건적 언약과 조건적 언약이 이스라엘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되었다(참조, 사 53 장)! 하나님의 지고한 신실하심이 회개하여 믿는 모든 자들의 구원에 나타나는 것이지, 누가 당신의 아버지요 어머니인가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언약과 약속의 열쇠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신학적으로 볼 때 성경에서 팔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다(참조, 행 7 장 및 갈 3 장).

복음 선포를 통한 세계선교가 교회에게 전해졌다(참조, 마 28:19-20; 눅 24:47; 행 1:8). 이것은 여전히 조건적인 언약에 속한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거부하셨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참조, 롬 9-11 장). 마지막 때에 믿는 이스라엘이 설 장소가 있으며 그들을 향한 목적이 있다(참조, 스펴 12:10).

네 번째 긴장(근동 문학의 장르 대 서구의 문학적 모델)

장르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교회는 서구(헬라)의 문화적 배경에서 발전했다. 동양의 문학은 오늘날 서구문화의 문학 양식에 비하여 상당히 회화적이고 은유적이며 상징적이다. 이것은 분명한 명제적 진리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만남, 사건에 관심을 둔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예언(구약과 신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역사 및 문학적 모델을 사용’하는 잘못을 범한다.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각각 자신의 시대와 지역적 배경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와 문학을 가지고 접근한다. 그들 모두 잘못되었다! 성경의 예언을 이해함에 있어서 오늘날의 서구 문화가 중심에 있다라는 생각은 건방진 견해이다!

영감을 받은 원저자가 선택하여 사용한 장르는 ‘독자와 맺은 하나의 문학적 협약’이다. 요한계시록은 역사를 서술하고 있지 않다. 이 책은 편지(1-3 장)와 예언과 묵시문학(주로 이 형태임)이 결합된 형태이다. ‘성경의 원저자가 의도했던 것 보다 더 많은 내용을 성경이 말하게 하는 일’은 ‘성경의 원저자가 의도했던 것 보다 더 적은 내용을 성경이

말하게 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잘못이다! 계시록과 같은 종류의 책을 다룸에 있어서 해석가들의 거만함과 교조주의는 더 더욱 부적합하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하여 일지된 견해를 교회가 결코 가지지 않았다. 내가 소망하는 바는 어떤 일부분을 취사선택하여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들고 다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성경은 '긴장으로 가득찬 짝을 이루는 진리'를 동양적인 사고에 기초하여 제시한다. 우리 서구인이 가진 바 명제적 진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쓸모없다는 뜻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계시록이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만나는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계시록을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이 책의 장르에 비추어 해석해야만 한다'는 것을 여러 해석가들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피와 스튜어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249-264 쪽). 계시록에 대한 역사적 접근은 반드시 처음 독자가 무엇을 이해했고 또 무엇을 이해할 수 있었는지를 다루어야만 한다(즉, 존 L. 브레이, *성취된 마태복음 24 장*). 여러 면에서 볼 때, 서구의 해석가들은 이 책에 수 많이 있는 상징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계시록의 주요한 취지는 박해받는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나타낸다(구약의 예언서도 마찬가지다); 이 책은 역사가 정해진 끝(심판과 축복)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구약의 예언서도 마찬가지다). 이 책은 1 세기 유대인의 묵시문학적 어휘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와 능력과 통치를 확증해 준다!

이 책은 신학적으로 같은 방법으로써 각 시대의 신자들에게 말한다. 이 책은 선과 악의 우주적 대결을 묘사한다. 1 세기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책이 증거하는 강력한 진리를 안다. 오늘날 서구의 해석가들이 계시록의 세부적인 내용을 자신들의 현재 역사에 대한 것이 되도록 강요함으로써, 잘못된 해석의 패턴이 지속되고 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지도자(참조, 살후 2 장)와 그러한 문화에서 죽임을 당하는 '마지막 세대를 사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책의 세부적인 내용이 놀랍도록 실제적인 일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관련된 구약의 본문도 마찬가지였다). 예수님의 말씀(참조, 마 24 장; 막 13 장; 눅 21 장)과 바울의 가르침(참조, 고전 15 장; 살전 4-5 장; 살후 2 장)이 역사적으로 드러나기 이전에는 누구도 이 계시록의 문자적 성취 여부를 알 수 없다. 추측과 짐작과 교리적 주장은 모두 부적합하다. 묵시문학은 이러한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 기술을 뛰어 넘는 이미지와 상징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오신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주석은 장르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 오늘날 서구의 해석가들은 종종 유대인의 묵시문학적 장르가 가진 '모호하고 상징적이며 드라마적인 면'을 다룸에 있어서 빈약한 접근을 하는 반면, 명백하고 논리적인 신학적 구조를 추구한다. 이러한 모습을 랄프 P. 마틴이 *신약의 해석*(I. 하워드 마샬 편저)에 실린 "신약 석의를 위한 접근"이라는 자신의 글에서 잘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이 책의 드라마적 요소를 인식하지 못하고 또 언어적 표현이 종교적 진리를 나타내는 도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묵시록을 이해함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되며, 또 환상이 마치 문자적 의미를 가지는 산문으로 기록된 책인양 이 책을 해석할 뿐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여 그 시기를 말할 수 있는 역사상의 사건으로 파악하려는' 잘못된 시도를 하게 된다. 특별히 마지막에 언급한 오류는 해석에 있어서 모든 종류의 문제를 낳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접근은 묵시적 본문의 핵심적 의미를 변형시켜 신약에서 이 부분이 가진 중요한 가치를 놓치게 만든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남'을 신화적이고 시적인 언어로 제시한 드라마적인 주장 및 '하나님의 통치를 힘과 사랑으로 제시하는 역설'을 놓치게 만든다(참조, 5:5,6; 사자가 어린양이시다)" (235 쪽).

W. 랜돌프 테이트는 자신의 책 *성경 해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경을 열정적으로 읽지만 그 어떤 장르도 '묵시'(특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경우)처럼 암담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이 장르의 문학적 형태와 구조와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 기인하여 이 장르는 재난적인 잘못된 해석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동안 고통을 당하여 왔다. 묵시가 곧 일어날 일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인하여 많은 이들은 이것을 미래에 대한 청사진으로 이끄는 지도라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의 비극적인 결점은 이 책이 저자 당시의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독자의 시대에 대한 것이라는 확고한 가정에 따른 것이다. 묵시, 특별히 계시록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접근은 '본문의 상징을 해석함으로써 오늘날의 사건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암호'를 얻을 수 있는 것 처럼 임하게 한다. ... 첫째로, 해석가는 묵시가 상징주의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임을 반드시 인식하여야 한다. 상징이 형이상학적인 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일은 잘못된 해석을 낳을 뿐이다. 문제의 핵심은 묵시적 책에 기록된 사건들이 역사적인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 사건들은 역사상에 일어날 수 있다: 그 일들은 실제로 일어났거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러나 저자는 사건을 제시하되 이미지와 암호를 통하여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137 쪽).

리켄이 편집한 *성경의 이미지 사전*에서 월호스트와 롱맨 III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날의 독자들은 이 장르에 의해 종종 당황하고 당혹해 한다. 예상치 못했던 이미지 및 이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경험들은 이상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성경 본문과도 잘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학적 내용을 글자 그대로 받아 들이는 일은 많은 독자로 하여금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무질서한 상태에 처하게 하고 결국 이 묵시적 메시지의 의도를 놓치게 만든다" (35 쪽).

다섯 번째 긴장(하나님의 왕국이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이다)

하나님의 왕국이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이다. 이 신학적 역설은 종말론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다. 만일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구약의 모든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을 예상한다면, 주로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 그곳에 회복되는 것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성취됨을 찾게 될 것이며, 또 그러한 신학적 강조점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5 장에서 교회의 비밀스런 휴거가 일어남을 또 나머지 장들은 이스라엘과 관련을 가짐을 필요로 한다(그러나 계 22:16의 설명을 보라).

한편, 만일 초점이 약속된 구약의 메시아에 의해 왕국이 시작됨에 있다면, 그 경우에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더불어 임하고 따라서 초점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삶과 가르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놓이게 된다. 또 신학적 강조점 현재의 구원에 두게 된다. 왕국이 임하였고,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어떤 이들을 다스리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구원을 제공하심’에서 구약이 성취된다!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두 번 오심을 말씀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어디에 그 강조점이 놓여 있는가? 나는 구약의 대부분의 예언은 초림 즉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짐(참조, 단 2 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본다. 여러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같은 내용이다(참조, 단 7 장). 구약에서는 초점을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두지만,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메시아의 사역을 통하여서다(참조, 고전 15:26-27).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진리인가는 옳은 질문이 아니다. 둘 다 진리이기 때문이다. 바른 질문은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다. 다음 사실을 분명히 해 두어야만 하겠다: 어떤 해석자들은 메시아께서 천년 동안 다스리시는 것(참조, 계 20 장)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성부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심을 말하는 성경의 강조점을 놓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심은 선행적인 사건이다. 구약에서 ‘그리스도께서 두 번 오심’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듯이, 메시아의 통치가 일시적인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도 명확히 않게 나타나고 있다!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치심에서 그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 이것은 현재적(구원과 섬김에 있어서)이며 동시에 미래적(견고함과 능력의 면에서)이다. 만일 계시록이 메시아의 천년왕국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면(참조, 계 20 장), 그 왕국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선행적인 것이다(참조, 계 21-22 장). 구약에서 일시적인 통치를 필요로 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사실상 단 7 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통치는 영원한 것이지 천년의 통치에 대한 것이 아니다.

여섯 번째 긴장(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 대 지연된 *파루시아*)

많은 신자들은 예수의 재림이 곧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있을 것임을 배웠다(참조, 마 10:23; 24:27,34,44; 막 9:1; 13:30; 계 1:1,3; 2:16; 3:11; 22:7,10,12,20).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한 기대를 가진 신자들의 세대는 빗나갔다! 곧 있을 (즉시) 예수의 재림은 모든 세대에게 강력한 약속의 소망이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오직 한 세대(박해를 받는 한 세대)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신자들은 반드시 ‘마치 예수께서 내일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하지만, 만일 그의 오심이 지체된다면 대위임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이를 수행하며 살아야 한다(참조, 마 28:19-20).

복음서(참조, 막 13:10; 눅 17:2; 18:8)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어떤 본문은 지연된 재림(*파루시아*)에 기초한 본문이다. 어떤 일들이 반드시 역사적 사건으로 먼저 일어날 것이다:

1. 전세계적 복음전도(참조, 마 24:14; 막 13:10)
2. “죄의 사람”이 드러남(참조, 마 24:15; 살후 2 장; 계 13 장)
3. 대박해(참조, 마 24:21,24; 계 13 장)

의도적인 모호함이 있다(참조, 마 24:42-51; 막 13:32-36)! 매일 매일이 마치 당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되, 미래의 사역을 위해 계획하고 또 훈련을 받아야 한다!

지속성과 균형

오늘날 종말론적 해석을 하는 모든 종류의 학파는 ‘반쪽 진리’만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어떤 본문에 대하여 그들은 잘 설명하고 또 잘 해석한다. 문제는 지속성 및 균형이라는 면에서 생긴다. 종종 미리 가진 여러 전제를 사용함으로써 성경의 본문을 미리 설정한 신학적 주형에 짜 맞춘다. 성경은 논리적이고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제시되는 조직적인 종말론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것은 가족 앨범과 같다. 사진들이 모두 진짜지만, 시간적 순서나 문맥이나 어떤 논리적 틀에 항상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진들은 앨범의 원래 자리에서 떨어졌는데, 나중 세대에 속하는 가족이 그것이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는 원저자가 선택하여 사용한 문학적 장르를 통해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다. 많은 해석자들은 신약의 다른 장르를 해석하는데 사용한 자신의 도구와 절차를 가져와 계시록을 해석하려고 시도한다. 그들은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신학적 구조를 파악하고 또 계시록으로 하여금 회화적인 내용이 되게 하는 대신에’ 구약에 집중한다.

내가 이 주석을 저술함에 있어서 계 22:18-19 에 나오는 저주를 인하여서가 아니라, 이 책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당한 논란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었고 또 그 논란이 계속됨을 인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임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사랑한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인 경우에도 이것은 진실되다(참조, 롬 3:4)! 이 주석이 당신에게 어떤 분명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을 촉구하는 것이 되고, 약도가 아니라 교통표지판이 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만일 그렇다면 무엇을...”이 되기를 바란다. 나 자신이 부적합하며 편견을 가지고 있고 신학적인 의도를 추구하는 자임을 나는 계속하여 직면하고 있다. 나 또한 그러한 면을 다른 해석가들의 경우에서 보았다. 사람들이 계시록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들이 발견하기를 기대했던 바로 그것’으로 여겨진다. 장르 자체가 남용을 받는다! 그러나 이 장르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에 들어 있다. 이 장르가 성경의 결론적인 “말씀”에 들어있는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다. 이것은 모든 세대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책을 이해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자신의 진영을 구축하지 말고 서로 손을 잡자; ‘어떤 것이 아마 그럴 것이다,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 아마 사실일 것이다’라고 말하지 말고, 분명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증하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신다!

이 공간을 이용하여 요한계시록을 당신이 해석함에 있어서 당신이 전제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말해보라. 우리는 모두 편견을 가지고 이 책의 해석에 임한다.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영향을 극복하고 또 우리가 가진 교조주의를 제한시키는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

- 1.
- 2.
- 3.
- 4.

구약의 예언에 대한 서론

I. 서론

가. 서론적 진술

1. 예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믿음의 공동체가 일치하지 않는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수 세기를 거치면서 정통적인 입장이 정립되었지만 이 주제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2. 구약의 예언을 구분하는 잘 정의된 여러 시기가 있다
 - ㄱ. 왕정 이전(사울왕 이전)
 - 1) 선지자로 불려진 개인들
 - (ㄱ) 아브라함 - 창 20:7
 - (ㄴ) 모세 - 민 12:6-8; 신 18:15; 34:10
 - (ㄷ) 아론 - 출 7:1(모세의 대변인)
 - (ㄹ) 미리암 - 출 15:20
 - (ㅁ) 메닷과 엘닷 - 민 11:24-30
 - (ㅂ) 드보라 - 삿 4:4
 - (ㅅ)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 - 삿 6:7-10
 - (ㅇ) 사무엘 - 삼상 3:20
 - 2) 선지자 그룹에 대한 언급 - 신 13:1-5; 18:20-22
 - 3) 선지자 그룹 혹은 길드 - 삼상 10:5-13; 19:20; 왕상 20:35, 41; 22:6, 10-13; 왕하 2:3,7; 4:1,38; 5:22; 6:1 등
 - ㄴ. 글을 남기지 않은 왕정시기의 선지자(그들은 왕에게 말했다)
 - 1) 갓 - 삼상 7:2; 12:25; 삼하 24:11; 대상 29:29
 - 2) 나단 - 삼하 7:2; 12:25; 왕상 1:22
 - 3) 아히야 - 왕상 11:29
 - 4) 예후 - 왕상 16:1,7,12
 - 5)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 - 왕상 18:4, 13; 20:13,22
 - 6) 엘리야 - 왕상 18 장; 왕하 2 장
 - 7) 미가야 - 왕상 22 장
 - 8) 엘리사 - 왕하 2:8,13
 - ㄷ. 글을 남긴 고전적 선지자들(그들은 왕에게는 물론 국가에 대하여 말했다): 이사야—말라기 (다니엘은 예외)

나. 성경의 용어

1. *로예* = 보는 자, 삼상 9:9. 이것은 *나비*라는 용어로 바뀌어 사용된다. 후자는 “선지자”를 뜻하며 “부르다”라는 어근에서 나왔다. *로예*는 “보다”를 뜻하는 일반적인 히브리어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길과 계획을 이해했고, 어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사람들이 이들로부터 자문을 구했다.
2. *호제* = 보는 자, 삼하 24:11. 이것은 근본적으로 *로예*의 동의어이다. 이것은 드물게 사용되는 용어인 “환상을 보다”에서 나왔다. 주로 분사형이 선지자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다.
3. 나비 = 선지자, 아카디아 동사 *나부* = “부르다”와 아랍어의 *나바아* = “선언하다”와 같은 어원을 갖는다. 이것은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로서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것은 300 번 이상 사용된다. 정확한 어원적 의미는 불확실하지만 현재로서는 “부르다”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한 가장 좋은 이해는 모세가 아론을 통해 바로에게 말하도록 야웨께서 모세의 역할을 설명한 것에서 취할 수 있다(참조, 출 4:10-16; 7:1; 신 5:5).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는 자이다(참조, 암 3:8; 렘 1:7,17; 겔 3:4).
4. 대상 29:29에서는 선지자직과 관련된 이 세 가지 용어가 모두 사용된다: 사무엘 - *로예*; 나단 - *나비*; 갓 - *호제*.
5. *이쉬 하-엘로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대변인을 뜻하는 광범위한 표현이다. 이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라는 의미로서 대략 76 회 사용된다.
6. 영어의 “선지자”는 헬라어에서 왔다. 이것은 (1) *프로* = “앞” 또는 “위해서” (2) *헤미* = “말하다”에서 왔다.

II. 예언의 정의

- 가. “예언”이라는 용어는 영어보다 히브리어에서 더 광범위한 어원적 영역을 갖는다. 유대인들은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서(룻기는 제외)까지의 역사적 책들을 “전기 예언서”로 부른다. 아브라함(창 20:7; 시 105:5)과

모세(신 18:18) 모두 선지자로 불린다(또한 미리암도, 출 15:20). 따라서 영어의 뜻에 기초하여 추정하는 것은 조심을 요한다!

- 나.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참여의 관점에서만 역사가 의미가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예언주의의 합법적 정의이다”(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제 3 권 896 쪽).
- 다. “선지자는 철학자도 조직신학자도 아니었다. 그들은 언약의 증제자로서 백성들의 현재 삶을 개혁함으로써 그들의 미래를 형성하도록 하기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다”(“선지자와 예언,” 유대 백과사전 제 13 권 1152 쪽).

III. 예언의 목적

- 가. 예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었다. 이것으로 그들의 처한 상황에서 지침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관하심을 인해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의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일치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꾸짖고, 격려하고, 믿음과 회개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그의 계획이 어떠하신지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 종종 예언은 하나님께서 대변자를 선택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신 13:1-3; 18:20-22). 이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가리킬 것이다.
- 나. 종종 선지자들은 당시의 역사적 혹은 신학적 위기를 취하여 그것을 종말론적 상황으로 제시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러한 역사적(목적론적) 관점은 이스라엘에게 독특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언약적 약속을 주셨다는 독특한 생각을 가져왔다.
- 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으로서 선지자 직은 대제사장 직과 균형을 이루고(렘 18:18) 이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대언자에 의해 우림과 둠뎀은 말로 표현된 메시지가 되었다. 선지자 직은 말라기(혹은 역대기 저작)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사라진 것으로 여겨진다. 400 년 후에 침례(세례)요한이 나타나기까지 이 직은 없었다. 신약에서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구약과 연결시키는지 확실하지 않다. 신약의 예언자들(행 11:27-28; 13:1; 14:29, 32, 37; 15:32; 고전 12:10, 28-29; 엡 4:11)은 새로운 계시의 계시자들이 아니라 어떤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거나 그것을 미리 말하는 자들이었다.
- 라. 예언은 전적으로 혹은 주로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언은 그들의 직분과 메시지를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다. 하지만 구약의 예언 가운데 . . . “2% 미만이 메시아와 관련이 있다. 5% 미만의 내용이 새언약의 시대를 특별하게 설명한다. 1% 미만의 내용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다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피 & 스투어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66 쪽).
- 마. 선지자는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대해 백성을 대표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진술이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하박국서 처럼 예외가 있다.
- 바. 선지서를 이해하기 어려운 한 가지 이유는 그 책들이 어떤 구조로 되어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 책들은 연대적인 순서로 되어있지 않다. 주제별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우리가 예상하는 방법을 따르지는 않는다. 종종 분명한 역사적 상황이나 시간의 지침 혹은 신적 예언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말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1) 어떤 책을 한 가지 배경에서 이해하여 읽는 것이 어렵고 (2) 그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하는 것이 어려우며 (3) 각 예언의 중심진리나 혹은 저자의 의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IV. 예언의 특성

- 가. 구약에서 “선지자”와 “예언”의 개념이 발전되어 나간 것으로 보인다. 초기의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이들은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았다. 때때로 “선지자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이 그룹의 사람들을 가리킨다(왕하 2 장). 선지자들은 때로 황홀경적 형태에 의해 구별되어졌다(삼상 10:10-13; 19:18-24).
- 나. 그러나 이러한 시대는 급하게 개인 선지자들의 시기로 이어졌다. 그들은(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모두) 왕과 관계하여 일했고, 왕궁에서 살았다(갓, 나단). 또한 독립적으로 일했던 선지자들도 있었는데 때로는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와 철저히 관련을 끊은 경우도 있었다(아모스, 미가). 남자와 여자 둘 다 선지자가 될 수 있었다(왕하 22:14).
- 다. 선지자는 종종 미래를 드러내는 사람이었는데, 그 미래는 개인이나 국민의 즉각적인 반응에 따라 다르게 되었다. 종종 선지자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우주적 계획을 드러내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인간의 반응에 의해 하등 영향을 받지 않았다. 고대 근동에서 이러한 우주적인 종말론적 계획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갖는 독특한 내용이다. 선지자들의 메시지에서 예언과 언약적 충성은 두 가지 초점을 이룬다(참조, 피와 스투어트, 150 쪽). 이것은 선지자들의 주된 관심사가 공동체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대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에 말씀을 전했다.
- 라. 대부분의 예언적 자료는 구두로 전해졌다. 이것은 후에 주제나 연대 혹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근동 문화의 다른 양식을 따라서 함쳐졌다. 구두로 전해진 것이기에 글로 쓰여진 산문의 구조를 갖지 않는다. 이 점은 예언서를 쭉 읽는 것과, 특별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지식없이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 마. 선지자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들의 말씀을 전했다
 1. 재판 장면 -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법정에 서게 하신다; 종종 이것은 야웨께서 자기의 아내(이스라엘)를 그녀의 충성되지 않음을 인해(호세아 4 장; 미가 6 장) 거절하시는 이혼소송으로 나타난다.
 2. 장례식의 만가 - 이런 양식의 메시지에 사용되는 특별한 운율과 특징적인 단어인 “화 있을진저”라는 용어는 이것을 따로 구별짓는다(이사야 5 장; 하박국 2 장).
 3. 언약적 축복의 선언 - 언약의 조건적인 면이 강조되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미래에 나타날 결과가 선언된다(신명기 27-29 장).

V. 성경이 말하는 참 선지자의 자격요건

- 가. 신명기 13:1-5(예언/기적이 순전한 유일신 신앙과 일치함)
- 나. 신명기 18:9-22(거짓 선지자/참 선지자)
- 다. 남녀 모두 선지자 혹은 여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임명받았다
 1. 미리암 - 출애굽기 15 장
 2. 드보라 - 사사기 4:4-6
 3. 홀다 - 열왕기하 22:14-20; 역대하 34:22-28
- 라. 주위의 문화에서는 점을 통해 그들이 선지자임을 확인했다. 이스라엘에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그들이 선지자임을 확인했다
 1. 신학적 시험 - 야웨의 이름을 사용
 2. 역사적 시험 - 예언의 정확한 성취

VI. 예언서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침

- 가. 각 예언의 역사적 상황과 문학적 문맥을 살펴서 원래의 선지자(편집자)가 의도했던 바를 확인하라. 이것은 보통 이스라엘이 모세의 언약을 어떤 모습으로든 깨뜨리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 나. 예언의 일부분이 아닌 전체를 읽고 해석하라; 내용에 따라 대지를 잡으라. 이것이 주위의 예언들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보라. 예언서 전체(문학적 단위와 문단에 따른 구분에 의해)의 대지를 파악하려고 시도하라.
- 다. 해당 본문이 상징적 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 본문의 문자적 해석을 취하라; 상징적 용법인 경우에는 그것을 산문으로 표현하려고 시도하라.
- 라. 상징적 행동은 역사적 상황과 병행귀절에 비추어 분석하라. 이것이 고대 근동의 문학에 속하는 것인지 서구나 현대의 문학에 속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라.
- 마. 예언의 내용을 신중하게 다루라
 1. 그것이 전적으로 저자의 시대에만 해당하는가?
 2. 그 내용이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루어졌는가?
 3. 그 내용이 아직도 미래적인가?
 4. 당시에 성취되었으면서도 아직 미래적 성취에 속하는가?
 5. 현대 저자들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들이 당신에게 답하게 하라.
- 바. 특별한 주의점
 1. 예언의 내용이 어떤 반응의 조건에 의존적인가?
 2. 누구에게 이 예언이 말해지는지(또한 왜) 분명한가?
 3. 성경적으로 혹은/또한 역사적으로 다중적 성취의 가능성이 있는가?
 4. 영감을 받은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은 메시아에 대한 많은 귀절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모형론 혹은 언어유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영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방법을 그들의 것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

VII. 유용한 도서

D. 브렌트 샌디의 *쟁기와 전정 낮: 성경의 예언과 묵시의 언어를 다시 생각함*

칼 E. 알머딩과 W. 와드 개스큐의 *성경 예언 안내*

고돈 피와 더글라스 스튜아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에드워드 J. 영의 *나의 종 선지자들*

엑스포지터스 성경주석, 제 6 권, “이사야-에스겔,” 존더반

J. A. 알렉산더의 *이사야의 예언*, 1976, 존더반

H. C. 류폴드의 *이사야서 강해*, 1971, 베이커

요한계시록 서론

들어가는 말

가. 나는 성인이 된 이후 학문적/신학적 연구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전체를 줄곧 가졌었다: 성경을 믿는 자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이러한 주장은 역사적 기록에 대하여는 사실이다). 한편, 예언서, 시로된 본문, 비유, 묵시적 문학으로 기록된 내용을 문자적으로 취하는 것은 영감된 본문의 초점을 놓치게 만든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문자적인 정확성이 아니라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일이 성경 해석에 필요한 열쇠이다. 영감받은 원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바를 말하도록 성경에 강요하는 일(교리적으로 특이한 내용을 주장함)은 원저자가 의도한 바를 말하지 못하게 강요하는 것과 똑같이 위험을 초래하며 해석을 그릇되게 한다. 항상 더 큰 문맥, 역사적 배경, 저자가 의도한 바에 초점을 두어야만 한다. 저자의 의도는 본문 자체를 통해 또 그가 사용한 장르를 통해 표현된다. 장르는 저자와 독자 사이를 잇는 문학적 접촉점이다. 이러한 힌트를 알아채지 못함으로 본문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

참으로 요한계시록이 진실을 말하고 있지만 역사적 기록에 속하지 않기에 이 책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귀를 막고 있어서 ‘장르 자체가 이러한 사실을 외치고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은 이 책이 영감으로 된 책이 아니거나 이 책의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이 책이 회화적, 신비적, 상징적, 은유적, 상상적 표현으로 되었음을 뜻할 뿐이다. 1 세기의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종류의 문학 장르에 익숙해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반지의 제왕* 혹은 *나니아 이야기*는 기독교의 상징법을 보여주는 현대의 작품일 것이다.

나. 요한계시록은 독특한 유대적 문학 장르인 묵시문학에 속한다. 이 책은 종종 긴장으로 가득찬 시대를 나타내어(즉, 이방인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함),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자신의 백성을 구출하시기 위해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제시한다. 이러한 종류의 문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심에 대한 강한 확신(유일신 주의 및 결정론)
2. 선과 악, 오는 의의 세대 및 이 악한 세대의 갈등(이원론)
3. 비밀스런 부호가 되는 단어의 사용(대개의 경우 구약 혹은 신구약 중간시대의 유대 묵시문학에서 취한 용어임)
4. 색, 짐승 혹은 짐승들/사람들을 언급함
5. 상징적인 수의 사용(즉, 4, 6, 7, 10, 12)
6. 천사가 환상이나 꿈을 중재함, 대개의 경우 천사가 이러한 것들을 해석해 줌
7. 곧 일어나며 절정을 이루게 될 마지막 때의 사건들에 주로 초점을 둠(새 시대)
8. 어떤 실재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사용된 여러 상징으로써 나타냄
9. 이러한 종류의 장르에 속하는 본문은 다음과 같다:
 - 가. 구약
 - (1) 사 13-14 장; 24-27 장; 56-66 장
 - (2) 겔 1 장; 26-28 장; 33-48 장
 - (3) 단 7-12 장
 - (4) 욥 2:28-3:21
 - (5) 슥 1-6 장; 12-14 장
 - 나. 신약
 - (1) 마 24 장; 막 13 장; 눅 21 장; 고전 15 장(어떤 면에서)
 - (2) 살후 2 장(대부분)
 - (3) 계시록(4-22 장)
 - 다. 단 7-12 장 및 계 4-22 장은 성경에서 사용된 이 종류의 장르에 속하는 대표적 본문이다
10. 정경에 속하지 않은 책 D. S. 러셀, *유대 묵시문학의 방법과 메시지*, 37-38 쪽에서 인용함)
 - 가. 에녹 1 서, 에녹 2 서(에녹의 비밀)
 - 나. 주빌리
 - 다. 시빌린의 계시, III, IV, V
 - 르. 열두 족장의 증언
 - 코. 솔로몬의 시편
 - 비. 모세의 승천
 - 스. 이사야의 순교
 - 오. 모세의 묵시(아담과 이브의 삶)
 - 즈. 아브라함의 묵시
 - 츠. 아브라함의 증언
 - 키. 에스드라 2 서(IV Esdras)
 - 티. 바룩 2 서, 바룩 3 서

11. 이 장르에는 이원론적 개념이 나타난다. 이 장르는 다음의 내용을 이원론적으로 제시하고, 대조시키며, 긴장의 연속으로 나타내어 실재를 제시한다(요한의 글에서 이것은 공통점을 이룬다):

- ㄱ. 하늘 - 땅
- ㄴ. 악한 세대(악한 인간들과 악한 천사들) - 의의 새 세대(경건한 인간과 경건한 천사들)
- ㄷ. 현재적 실존 - 미래적 실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세상이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신 친밀한 교제의 회복을 위한 자신의 계획과 사역과 일을 계속하여 진행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분깃점을 이루지만, 그리스도께서 두 번 오심은 현재를 이원론적으로 제시한다.

다. 이 묵시문학은 구전이 아니라 기록된 글로써 항상 제시되었다. 이 종류의 책은 매우 짜임새 있는 구조를 가진 문학작품에 속한다. 그 구조를 이해하는 일이 해석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요한계시록은 일곱 가지 문학적 단위로 된 구조를 가지는데, 각 단위는 서로 약간의 평행을 이룬다(즉,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각 단계가 진행되면서 심판의 강도가 강화된다: 인, 1/4 의 파괴; 나팔, 1/3 의 파괴; 대접, 전체의 파괴. 각 문학 단위에 그리스도의 재림 혹은 어떤 종말적 사건이 일어난다: (1) 여섯 인, 6:12-17 (2) 일곱 나팔, 11:15-18; 마지막 때에 있을 천사에 대한 심판, 14:14-20 (3) 일곱 접시, 16:17-21 과 19:11-21 과 22:6-16 (또한 1:4,8 에서 하나님께 대해 사용하고 1:17,18 에서 그리스도께 대해 사용한 3 중적인 호칭인 “지금 계시며, 이전에 계셨으며, 또 오실 이,” 11:17 및 16:5 에서는 미래에 대한 부분이 배제되어 나타난다. 즉 미래[즉, 재림]가 도래하였다). 이 사실은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 이 책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같은 시기에 일어날 구약적 심판 주제를 점진적으로 또 예시적으로 나타내는 일련의 드라마로서 제시한다(참조, 제임스 블레빈스, *드라마로서의 요한계시록* 및 *Review and Expositor*, 1980년 9월 호의 393-408 쪽에 실린 “요한계시록의 장르”). 일곱 개의 문학적 단락 및 서론과 후기가 나온다

1. 서론, 1:1-8
2. 1:9-3 (그리스도와 일곱 교회)
3. 4 장-8:1 (하늘과 일곱 인[2:1-17 은 6 번째 인과 7 번째 인 사이에 위치한다])
4. 8:2-11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10:1-11:13 은 6 번째 나팔과 7 번째 나팔 사이에 위치한다])
5. 12-14 장 (두 공동체와 그들의 지도자들)
6. 15-16 장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7. 17-19 장 (바벨론에 대한 심판)
8. 20-22:5 (심판 및 새 하늘과 새 땅)
9. 후기, 22:6-21

이 책에서 같은 주제가 반복된다고 믿는 사람 가운데 윌리엄 헨드릭슨이 있다. 그는 자신의 책(*정복자들보다 더*)에서 이 책의 개요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1-3 장 (그리스도께서 일곱 등잔대 가운데 계심)
 2. 4-7 장 (일곱 인이 있는 책)
 3. 8-11 장 (일곱 나팔의 심판)
 4. 12-14 장 (용과 용을 돕는 자들[짐승과 음녀]에게 여자와 사내 아이가 핍박을 받음)
 5. 15-16 장 (일곱 대접의 진노)
 6. 17-19 장 (큰 음녀와 짐승의 멸망)
 7. 20-22 장 (용[사탄]에 대한 심판이 있을 후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타남), 28 쪽
- 헨드릭슨은 ‘요한계시록이 일곱 단락으로 되어 있으며(1-3 장; 4-7 장; 8-11 장; 12-14 장; 15-16 장; 20-22 장) 각 단락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과 평행을 이루며 또 그 기간에 대한 것’이라고 *정복자들보다 더*에서 주장한다. 각 단락이 심판 및 재림과 어느 정도 관련을 가진다(22-31 쪽).

내가 비록 ‘인과 나팔과 대접이 서로 놀라운 평행을 이룬다는 주장’에 동의하며 또 ‘17-19 장이 20-22 장과 서로 평행을 이룬다는 주장’에 내 마음이 이끌리기는 하지만. 나는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7 단락이 모두 *파루시아*로 끝나쳐진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특별히 1-3 장에서, 심판의 요소를 종말적인 사건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더욱 그러하다(참조, 2:5,7,11,16-17,25-26; 3:5,10,12,18-21). 한편, 같은 주제가 일곱 번 반복된다는 주장은 내가 이 책 전체에서 평행을 이루는 구조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라. “일곱”이라는 수가 이 책의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7 교회, 7 인, 7 나팔, 7 대접에서 보듯이 명백히 알 수 있다. “일곱”과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예로는 다음의 내용이 있다:

1. 7 축복, 1:3; 14:13; 16:15; 19:9; 20:6; 22:7,14
2. 7 촛대, 1:12
3. 하나님의 일곱 영, 1:4; 3:1; 4:5; 5:6
4. 7 별, 1:16,20; 2:1
5. 7 등불, 4:5
6. 두루마리의 7 인, 5:1

7. 양의 7 뿔과 7 눈
8. 예수를 7 번 찬양함, 5:12
9. 자연에 나타난 7 가지 표적, 6:12-14
10. 7 종류의 사람, 6:15
11. 하나님의 7 속성을 찬양함, 7:12
12. 하나님 앞에 있는 7 영, 8:2,6
13. 일곱 천사가 든 7 나팔, 8:6(15:1,6,7,8; 17:1; 21:9)
14. 7 표적, 12:1,3; 13:13,14; 15:1; 16:14; 19:20
15. 7 면류관을 쓴 붉은 용의 7 머리, 12:3
16. 바다 짐승의 7 머리, 13:1; 17:3,7
17. 7 천사, 14:6-20
18. 7 재앙, 15:1; 21:9
19. 7 언덕, 17:9
20. 7 왕, 17:10
21. 21-22 장에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말하는 7 가지 것(21:1,4[네 번]; 21:25; 22:3)

마. 이 책의 해석은 신학적 편견을 가지게 하기가 매우 쉽다. 우리가 가진 전체가 모호한 내용을 해석하는데 작용한다. 이러한 신학적 전제는 여러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1. 상징의 기원
 - ㄱ. 구약에 대한 암시
 - (1) 창조, 타락, 홍수, 출애굽, 예루살렘의 회복과 같은 구약의 주제
 - (2) 구약의 예언서에서 취한 수 백 가지의 암시(직접 인용이 아님)
 - ㄴ. 신구약 중간기의 유대 문학(에녹 1 서, 바룩 2 서, 시빌린 예언, 에스드라 2 서)
 - ㄷ. 제 1 세기의 헬라-로마 세계
 - ㄹ. 고대 근동의 우주의 기원-창조에 대한 기록(특히, 계 12 장)
2. 이 책의 시간적 구조
 - ㄱ. 제 1 세기
 - ㄴ. 모든 세기
 - ㄷ. 마지막 세대
3. 조직신학적 틀(14 쪽에 있는 정의를 보라, “해석에 대한 역사적 이론,” 다항; 좋은 설명이 C. 마빈 페이트가 편집한 *요한계시록에 대한 네 가지 견해*에 나옴)
 - ㄱ.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
 - ㄴ. 실증주의자
 - ㄷ. 미래주의자
 - ㄹ. 이상주의자
4. 20 장에 대한 신학적 입장(193 쪽에 있는 도표를 보라; 이에 대한 좋은 요약은: (1) *천년의 의미: 네 견해*, 로버트 G. 클라우스 편저 및 *천년과 그 이후에 대한 세 견해*, 다렐 L. 북 편저)
 - ㄱ. 무천년설
 - ㄴ. 후천년설
 - ㄷ. 전천년설
 - ㄹ.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해석의 다양성(해석을 위한 다른 접근법)과 교리적 접근의 부적합성(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태도)을 고려할 때, 해석가가 어떻게 본문을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인가?

 1. 제 1 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장르 및 역사적 암시를 오늘날의 서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2. 그리스도인의 모든 세대가 요한계시록을 자신의 개인적 역사적 상황에 집어 넣음으로써 이 책을 잘못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자.
 3. 조직신학 책을 읽기 전에 성경을 읽자. 각 환상/예언이 속한 문학적 문맥을 살펴보고, 한 서술문으로써 중심진리를 진술하라. 중심진리는 모든 시대에 속한 신자들에게 동일하지만, 세부적 내용은 처음 시대와 마지막 시대에 속한 신자들에게만 적합하게 의미를 갖는 내용이다. 신학에 의해서가 아니라 역사에 의해 그 세부적 내용이 모두 성취될 것이다.
 4.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 박해를 받고 있는 신자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을 이 책이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자. 이 책은 모든 시대의 신자들이 가진 호기심을 채우거나 또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의 자세한 개요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5. 타락한 인간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부딪힘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처음에는 세상이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갈보리 사건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에서 승리를 거둔다!

- 바. 이 책의 해석에 따르는 어려움과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영감으로 된 책으로서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속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이 특별한 책을 연구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노고를 들일 가치가 충분히 있다. 신약 정경에서 이 책이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는 이 책이 제시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대변한다. 알란 존슨은 *강해가의 성경 주석*, 제 12 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사실상 복음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인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 교리와 제자도에 대한 가장 심오하면서도 가슴에 와 닿는 가르침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언에만 관심을 둔 어떤 광신적 믿음’ 혹은 다양한 해석적 관점도 이 놀라운 책에 나타난 기독교의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서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399 쪽).
- 이러한 내용은 바로 예수께서 자신의 교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었음을 기억하라! 오늘날의 교회는 그 가르침을 감히 무시하거나 약화시키지 못한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유일신 주의), 악한 자의 실재(제한된 이원론), 타락의 지속적인 결과(인간의 반역), 인류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무조건적 언약, 참조, 창 3:15; 12:1-3; 출 19:5-6; 요 3:16; 고후 5:21)을 확인해 주어 신자를 박해와 갈등에 대해 준비시킨다.

저자

- 가. 사도 요한이 저자임에 대한 내적 증거
1. 저자가 자신을 네 번이나 요한으로 밝힘(참조, 1:1,4,9; 22:8)
 2. 그가 자신을 다음과 같이 부르기도 하였다
 - ㄱ. 종된 자(참조, 1:1; 22:6)
 - ㄴ. 형제요 함께 환란에 참여한 자(참조, 1:9)
 - ㄷ. 선지자(참조, 22:9), 또 자신의 책을 예언의 책으로 부름(참조, 1:3; 22:7,10,18,19)
 3. 그는 구약(70 인역을 사용하지 않고 탈군역을 사용함)을 알고 있었으며, 광야 방랑시기, 장막, 당시의 회당예배의 순서에 대해 알고 있었다.
- 나. 사도 요한이 저자임에 대해 말하는 외적 증거인 초기의 기독교 저자
1. 세베대의 아들인 사도 요한
 - ㄱ. 순교자 저스틴(로마, 주후 110-165 년)의 *트리포와의 대화* 81.4
 - ㄴ. 이레니우스(리용, 주후 120-202 년)의 *이단에 대항하여* IV. 14.2; 17.6; 21.3; V.161; 28.2; 30.3; 34.6; 35.2
 - ㄷ. 터툴리안(북 아프리카, 주후 145-220 년)의 *프락세아스에 대항하여* 27
 - ㄹ. 오리겐(알렉산드리아, 주후 181-252)의
 - (1) *영혼에 대하여*, L:8:1
 - (2) *말시온에 대항하여*, II:5
 - (3) *이단에 대항하여*, III:14,25
 - (4) *켈서스에 대항하여*, VI:6,32; VIII:17
 - ㅁ. 무라토리안 정경(로마, 주후 180-200 년)
 2. 다른 인물
 - ㄱ. 마가 요한 - 이 주장은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주후 247-264 년)가 최초로 언급한 내용이다. 그는 사도 요한이 이 책의 저자임을 부인하였지만 이 책의 정경성을 여전히 받아들였다. 그는 이 책의 어휘와 스타일 및 요한이 다른 책을 기록할 때 보여준 익명성에 기초하여 요한의 저작설을 부인하였다. 그는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로 하여금 자신의 주장을 따르도록 설득시켰다.
 - ㄴ. 장로 요한 - 이 주장은 유세비우스가 취한 파피아스의 인용문에서 왔다(*교회사* 3.39.1-7). 한편, 파피아스의 인용문에 있는 이 호칭은 다른 저자를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 ㄷ. 침례(세례)요한 - (후기에 속하는 편집자가 추가한 내용과 더불어) J. 마싱베르데 포드가 *앵커 성경 주석*에서 제안한 내용으로서, 예수님을 “양”으로 말한 침례(세례)요한의 말에 주로 의존하는 설이다. 이 호칭은 복음서와 계시록에서만 나온다.
- 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고 오리겐의 제자였던 디오니시우스(주후 247-264 년)는 사도 요한이 이 책의 저자임에 대해 다음에 근거하여 의심한 최초의 사람이었다(그의 책은 분실되었지만, 그에게 동의하는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가 인용한 글을 통해)
1.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서에서 자신을 요한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반면, 계시록에서는 “요한”이라고 말한다
 2. 계시록의 구조가 요한복음 및 요한 서신서와 다르다
 3. 계시록의 어휘가 요한복음 및 요한 서신서와 다르다

4. 계시록의 문법적 스타일이 요한복음 및 요한 서신서보다 떨어진다

- 라. 아마도 요한의 저작설에 대한 현대의 가장 강력한 반대는 R. H. 찰스가 쓴 *성 요한*, 제 1 권 xxxix 쪽 이하에 있는 내용일 것이다.
- 마.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신약의 많은 책에 대한 전통적인 저작설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요한의 책에 대해 저명한 가톨릭 학자인 레이몬드 E. 브라운이 계시록의 저자에 대해 말하는 내용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앵커 바이블 주석 시리즈의 서론인 책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요한으로 불린 유대인 기독교 예언자는 세베대의 아들도 아니요, 요한복음의 저자도 아니며 요한 서신의 저자도 아닌 인물이다”(774 쪽).
- 바. 여러 면에서 저자를 알 수 없다. 사도 요한의 다른 책과 이 책 사이에 뚜렷이 있는 평행구절에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이 책을 이해하는 열쇠는 인간 저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적 저자에 있다! 저자는 자신이 영감을 받은 선지자임을 굳게 믿었다(참조, 1:3; 22:7,10,18,19).

시기

- 가. 이 사항은 저자 및 해석적 관점과 긴밀한 관련을 가진다(참조, 역사적 이론 다항)
- 나. 가능한 시기
 - 1. 전통적으로 제시되는 저작시기는 도미티안의 통치기간(주후 81-96 년)인데, 그 이유는 이 기간이 박해에 대한 내적 증거에 들어맞기 때문이다
 - ㄱ. 이레니우스(유세비우스가 인용한 내용에 의하면)는 *이단에 대항하여*, 5.30.3 에서 “이것(이 박해)이 매우 오래전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세대인 도미티안의 통치기간이 마쳐질 무렵에 일어난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말함
 - 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 ㄷ.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
 - ㄹ.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 *교회사*, iii.23.1
 - ㅁ. 빅토리누스, *목시*, x.11
 - ㅂ. 제롬
 - 2. 제 3 세기에 속하는 저자인 에피파니우스는 *하열*, 51.12, 32 에서 클라우디우스의 통치기간(주후 41-54 년) 동안 요한이 밧모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후 이 책을 기록했다고 말한다.
 - 3. 다른 이들은 이 책이 네로의 통치기간(주후 54-68 년)에 기록되었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ㄱ. 황제 숭배로 인한 박해의 분명한 증거
 - ㄴ. 히브리어로 *가이사 네로*라고 썼을 때 그의 이름이 짐승의 수인 666 에 정확히 일치함
 - ㄷ. 만일 ‘요한계시록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킨다고 말하면서 그 계시록의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의 말이 정확하다면, 예언인 이 책은 반드시 주후 70 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수신자

- 가. 1:4 에 비추어 볼 때 원래의 수신자들은 로마 제국의 아시아도에 있는 일곱 교회였다. 이 교회들은 이 서신을 지닌 자가 여행했을 경로와 관련을 가진다.
- 나.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타락한 세계의 조직체로부터 박해를 받는 모든 교회와 신자들과 특별히 관련이 있다.
- 다. 신약의 마지막 책인 이 책은 모든 시대에 속한 모든 신자들에게 예언이 완성됨에 대하여 말한다.

상황

- 가. 법적으로 로마의 보호를 받은 유대교에서 분리됨으로써 지역교회가 박해를 받았다. 이러한 분리는 주후 70 년대에 공식적으로 일어났다. 았니아에서 온 랍비들은 당시에 각 지역에 있는 회당에 속한 구성원에게 나사렛 예수를 저주하는 내용인 맹세의 선언을 하도록 강요했다.
- 나. 로마의 자료는 네로(주후 54-68 년)부터 도미티안(주후 81-96 년) 통치시기에 황제숭배가 교회와 커다란 갈등에 놓여 있었음을 나타낸다. 한편, 제국 전체에 걸친 공식적인 박해에 대하여는 전혀 기록이 없다. 계시록의 내용은 로마제국의 동쪽에 있는 여러 도에서 행해진 과열된 황제숭배의 양상을 반영한다(참조, “Biblical Archaeology Review,” 5 월/6 월호 1993, 29-37 쪽).

구문

- 가. 헬라이어 본문에 문법적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 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가능성 있는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요한이 가진 아랍어적 사고 경향
 2. 그를 위해 기록해 줄 서기관이 밝모섬에 없었다
 3. 환상으로 인해 줄곧 들떠 있었다
 4. 그러한 문제들은 효과를 위해 의도적으로 있게 한 것이다
 5. 장르(묵시)가 매우 회화적이기 때문이다
- 다. 비슷한 문법적 특이성이 유대인이 쓴 다른 묵시적 글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계시록은 형편없는 문법적 형태로 기록된 글이 아니라, 장르 및 문법적 독특성이 함께 나타나는 책이다.

정경성

- 가. 이 책의 정경성을 동방의 교회가 일찌기 거부했다; 이 책은 페쉬타역에 들어 있지 않다(5 세기에 속하는 시리아역).
- 나. 4 세기 초에 유세비우스(3 세기 후반에 속하는 알렉산드리아의 디오니시우스를 따라서)는 계시록이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책을 “논란이 있는” 책의 하나로 제시하였지만 이 책을 영감받은 책들의 하나로 포함시켰다(참조, 교회사, III.24.18; III.25.4; III.39.6).
- 다. 라오디게아 회의(주후 360 년 경)에서는 이 책을 정경에 넣지 않았다. 제롬이 이 책의 정경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카르타고 회의(주후 397 년)에서는 이를 정경에 포함시켰다. 계시록은 동방과 서방의 교회들이 히브리서와 계시록을 신약의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됨에 있어서 타협점을 이룬 책이었다.
- 라. ‘기독교의 정경이 확립되는 과정을 성령께서 인도하셨음’을 우리 신자들이 믿음으로써 받아들여야만 한다.
- 마. 신교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주요 인물인 두 신학자는 이 책을 기독교의 진리에서 다루기를 거부했다
 1. 마틴 루터는 이 책이 예언서도 아니며 사도가 쓴 글도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이 책의 영감을 사실상 부인했다.
 2. 존 칼빈은 계시록을 제외한 신약의 모든 책에 대한 주석을 씌우으로써 이 책의 계시성을 사실상 부인했다.

해석에 대한 역사상의 이론

- 가. 이 책을 해석하는 일이 상당히 어려웠다; 따라서 교리적 접근은 접합지 않다!
- 나. 여러 곳에 나온 상징들을 사용했다
 1. 구약의 묵시적 본문
 - ㄱ. 다니엘서
 - ㄴ. 에스겔서
 - ㄷ. 스가랴서
 - ㄹ. 이사야서
 2. 신구약 중간기에 속하는 유대인의 묵시문학
 3. 제 1 세기의 헬라-로마의 역사적 상황(특히 계 17 장)
 4. 고대 근동의 신비적인 창조 기록(특히 계 12 장)
- 다. 일반적으로 해석을 위한 네 가지 틀이나 전제가 있다
 1.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자**(Preterist) - 이 그룹의 사람들은 이 책이 로마의 아시아도에 있던 1 세기의 교회들에게 전적으로(혹은 주로) 해당된다고 이해한다. 모든 세세한 내용 및 예언이 1 세기에 성취되었다(요한 L. 브레이, *성취된 마 24* 장을 보라).
 2. **실증주의자**(Historicist) - 이 그룹의 사람들은 이 책이 역사 전반, 즉 주로 서구의 문명 및 어떤 면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한다. 종종 2 장과 3 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어떤 특정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한다. 어떤 이들은 이 편지가 같은 시기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이것이 시대적 순서를 반영한다고 말한다.

3. **미래주의자(Futurist)** - 이 그룹의 사람들은 이 책이 *파루시아*(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과 직후에 일어날 사건으로서, 문자적으로 역사에서 성취될 내용이라고 주장한다(*점진적 세대주의*, 크랙 A. 블레이징 및 대럴 L. 북).
4. **이상주의자(Idealist)** - 이 그룹의 사람들은 이 책이 ‘선과 악의 갈등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역사적 사건과 하등 관련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레이 섬머스, *여린 양이 합당하시도다*; 윌리엄 헨드릭슨, *정복자 이상의*).

이 주장들이 각각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지만, 그들 모두 요한이 사용한 장르와 상징적 표현을 통해 나타낸 의도적인 애매성을 간과하고 있다. 어느 주장이 옳다가 아니라 주장에 균형을 맞추는 일이 중요하다.

저작 목적

- 가. 계시록의 저작 목적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과 모든 일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 안에서 완성됨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 오는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자들이 소망을 갖고 신실하게 남아있게 된다. 이 책의 초점은 1 세기와 모든 시대(참조, 2:10)에 있는 믿는 자들이 받을 박해(동쪽의 도에서 행해진 황제숭배)와 그들의 신실함(거짓 교사와 문화적 타협에 직면하여서)에 있다. 현재의 상황을 개혁하기 위하여 선지자들이 미래에 대하여 말하였음을 기억하라. 계시록은 어떻게 종말이 있을 것인가 뿐 아니라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나타낸다. 로버트 L. 샌시는 엑스포지터스 성경 주석 제 1 권에 있는 그의 글 “성경의 종말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성경의 예언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의 시대적 순서와 시기에 있지 않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당시의 영적 상태가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불의에 대한 심판과 경건한 자에 대한 축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종말적으로 방문하시는 일은 그들의 윤리적 측면에 영향을 주기 위함이었다” (104 쪽).
- 나. 일반적 목적이 TEV 와 NJB 역의 간략한 서론에서 잘 제시되고 있다
1. TEV, 1122 쪽, “요한 계시록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때문에 박해를 받는 시기에 기록되었다. 저자의 주된 관점은 자신의 독자들에게 소망과 격려를 주어, 고통과 박해의 시기에 그들이 신실하게 남아있기를 권면하기 위함이었다.”
 2. NJB, 1416 쪽, “성경은 이 책에 있는 바 소망의 메시지와 풍부한 상징으로 마쳐진다. 이 책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시련으로부터 그들이 구출됨에 대한 비전이며 또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약속이다. 그 메시지가 성경 전반에 걸쳐 사용된 회화적인 방법으로 표현되었기에 모든 종류의 묘사와 짐승 및 색과 수는 구약에 친숙한 독자들로 하여금 감흥과 색채를 가득 떠올리게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책에서 사용한 방법은 장차 일어날 일을 비밀스럽고 암시적으로 제시한다. 한편, 장엄한 예배 행위 및 거룩한 도시에 나타날 메시아의 광채에 대한 마지막 환상이 매우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 유대교에서는 다니엘서 이후로 이러한 종류의 저작이 하나의 전통을 이루어 사용되어 박해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인 구원과 승리를 확신하게 도왔다.”
- 다. 해석가가 구속의 주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일이 중요하다.
- 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와 우주적 구원을 이루셨다.
- 나. 하나님의 구속은 영적이며 물질적인 면을 가진다. 교회가 구원받았지만 안전하지는 않다! 어느 날 교회는 안전하게 될 것이다!
- 다. 하나님은 ‘타락하여 반역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인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 인과 나팔들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구속을 위한 것이다(참조, 9:20-21; 14:6-7; 16:9,11; 21:6b-7; 22:17).
- 라.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 뿐 아니라 타락한 피조물까지 회복시키신다(참조, 롬 8:18-25). 모든 종류의 악이 제거될 것이다!
- 잃어버려진 인류를 향해 복음으로 접근하시는 하나님의 반복적인 시도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을 잘 드러낸다. 대접의 심판은 완강하게 반항하는 악함의 결과이지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심의 결과가 아니다. 악한 사람들이 거둬서 회개하기를 거부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 심판을 행하시며 그것을 격리시키실 뿐이다. 여러 면에서 볼 때, 이 책은 타락하고 화해될 수 없는 인류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정당화 시킨다! 이 책은 복음적인 초청으로 끝맺는다(참조, 22:17).
- 라. 이 책이 재림시 일어날 일들과 그 때와 방법을 시간적 도표로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결코 안된다. 이 책은 종종 서양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비밀”스러운 내용으로 종종 해석되었다(일곱 교회를 일곱 시대로 봄). 각 세대가 그 시기들을 묵시적 상징으로 이해했다; 각 사람이 상당히 잘못되었다.
- 이 예언의 세부적 내용은 적그리스도를 인해 고통받는 마지막 세대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문자적인 해석은 어떤 이들로 하여금 이 책을 무시하게 하였고(갈빈), 어떤 이들로 하여금 그 가치를 절하시키게 했으며(루터, “사도가 쓰지도 않았고 예언도 아니다”), 또 어떤 이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하였다(천년주의자들).

답이 제시하는 해석을 위한 열쇠

- 가. 우리는 구약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1. 구약의 묵시적 장르는 상당히 상징적인 문학형태이다.
 2. 많은 암시가 구약에서 온 것이다(어떤 이들은 404 절 가운데 275 절이 구약 본문을 암시하고 있다고 제시한다); 이러한 상징들이 나타내는 의미는 제 1 세기 로마의 상황에 비추어 재해석해야 한다.
 3. 예언적인 암시의 내용은 당시의 사건들을 사용하여 종말적인 사건들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1 세기에 일어난 역사적 성취는 종종 마지막 때에 일어날 궁극적인 역사적 성취를 가리킨다.
- 나. 이 책의 전체적 구조를 살피는 일은 저자의 목적을 볼 수 있게 돕는다
1.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은 기본적으로 같은 시기에 대한 내용이다(6-16 장). 계시록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드라마이다.
 2. 17-19 장이 20-22 장과 평행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함이 가능하다. 19 장의 일부(즉, 19:11-21) 내용이 20:7-10 에서 다시 다루어 진다.
 3. 들어가는 말의 다항에 있는 일곱 개의 문학 단위를 보라.
- 다. 이 책을 해석함에 있어서 반드시 역사적 문맥을 고려해야 한다
1. 황제숭배의 실재
 2. 동쪽에 있는 지역에서 일어난 박해
 3. 성경의 본문이 결코 의미하지 않았던 내용을 성경이 나타내지 않는다. 계시록의 해석은 반드시 요한의 시대와 우선적으로 관련을 가진다. 이 책의 내용이 다중적인 성취나 적용을 나타내는 경우라도 반드시 제 1 세기의 상황에 기초하여 이를 다루어야 한다.
- 라. 신비적 용어가 지닌 어떤 의미는 우리의 문화적, 언어적, 실존적 환경을 인해 상실되었다. 아마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 자체가 이 상징들을 적합하게 해석할 수 있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 묵시적 드라마의 내용을 모두 세세히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의 해석가들은 각 환상의 주요진리를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 마. 해석의 핵심적 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상징의 역사적 기원
 - ㄱ. 구약의 주제, 구약의 암시
 - ㄴ. 고대 근동의 신화
 - ㄷ. 신구약 중간시대의 묵시문학
 - ㄹ. 1 세기의 헬라-로마적 배경
 2. 저자가 자신이 사용한 상징을 정의하는 방법
 - ㄱ. 도움을 주는 천사와의 대화
 - ㄴ. 천상의 찬송
 - ㄷ. 저자 자신이 그 의미를 설명함
 3. 이 책의 구조(평행을 이루는 드라마)
- 바. 추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
1. 내가 즐겨 사용하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은 조지 엘돈 라드와 알란 F. 존슨의 주석이다. 두 사람의 견해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경건하면서도 학적으로 잘 준비된 신실한 학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불일치는 우리에게 적절한 경고를 준다. 나는 알란 존슨이 존더반 출판사에서 발행한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한 말을 인용하고자 한다:
“요한계시록의 4:1 에서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나오는 회화적 표현과 환상의 정교한 사용 및 이러한 자료들이 1-3 장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가에 대한 질문에 비추어 볼 때, 이 장들을 다룸에 있어서 주석가들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에 놀라지 않게 한다. 한편으로는 해석학적 문제와 관련을 가진다: 이 회화적 표현과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른 한편으로는 시대적 순서와 관련을 가진다: 언제 이 일들이 일어나는가? 요한이 자주 사용하는 이 구약의 표현들을 각 구약 본문과 정확히 일치하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표현들을 임의로 재해석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무엇이 상징적인 것이고 무엇이 문자적인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해석가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질문의 극히 일부분에 대하여만 교리적 답이 가능하기에, 상이한 접근을 용납할 필요성을 가진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께서 우리의 열린 대화를 사용하사 묵시의 의미를 잘 이해하도록 인도하시리라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69 쪽).

2. 나는요한계시록과 구약의 일반적 관계에 대하여는 요한 P. 밀톤의 *해석된 예언* 및 존 브라이트의 *구약의 권위*를 추천한다. 요한계시록과 바울의 관계에 대하여는 제임스 S. 스튜어트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추천한다.

독서의 첫 번째 단계 (v 쪽을 보라)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성경의 한 책인 이 책을 단번에 읽으라. 주요 주제(들)를 파악하고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

1. 책 전체의 주제
2. 문학적 종류(장르)

독서의 두 번째 단계 (v 쪽을 보라)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성경의 한 책을 단번에 읽으라. 주요 주제(들)를 파악하고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

1. 첫 번째 문단의 주제
2. 두 번째 문단의 주제
3. 세 번째 문단의 주제
4. 기타

요한계시록 1:1-20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⁴)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	서언	자신의 아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성
1:1-4	1:1-4	1:1-4	1:1-3	1:1-4
성자가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천사보다 높은 성자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심 (1:5-2:18)	하나님의 성자의 위대성 1:4-13	성자가 천사보다 위대하시다 (1:5-2:18)
1:5-14	1:5-14	1:5-14	1:14	1:13 1:14

독서의 세 번째 단계 (v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단의 분할이 영감된 것은 않았지만 원저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따르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각 현대 번역본이 문단을 나누고 문단의 요약해 놓았다. 각 문단은 하나의 중심 주제, 진리, 생각을 나타낸다. 각 번역본은 독특한 방법으로 주제를 제시한다.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번역본이 주제와 문단 나누기에 있어서 당신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확인해보라.

매 장에서 우리는 성경을 먼저 읽고 주제(문단)를 찾은 다음, 우리가 이해한 것을 현대 번역본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원저자의 논리와 표현을 따라 그의 의도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을 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로지 원저자만이 영감을 받았다—따라서 독자들은 그 메시지를 바꾸거나 수정할 수 없다. 성경의 독자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영감된 진리를 적용할 책임이 있다.

부록 1, 2, 3 에 자세히 설명해 놓은 전문 용어와 약어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라.

1:1-3:22 에 대한 문맥적 통찰

- 가. 1-8 절은 전체 예언에 대한 서언이다. 처음 세 절은 저자, 저작시기, 장르 및 축복의 내용을 제시한다.
 - 1. 저자는 요한이다(이것은 흔하게 사용된 유대 이름임).
 - 2. 그 시기는 곧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다(1b, 3c 절).
 - 3. 이 메시지는 환상과 천사의 중개에 의한 내용으로서 예언으로 불린다(3 절). 처음 세 장은 1 세기의 일반적 편지 양식과 상당히 일치한다.
 - 4. 박해 가운데 있지만, 이 내용을 듣고 이 권고를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있다.
- 나. 다음에 나오는 네 절(4-7 절)은 일곱 교회(1:11)와 그 교회들의 일곱 영으로써 수신자를 제시한다(참조, 1:4,20; 3:1; 4:5; 5:6). 이 단락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1. 야웨께 대해 말한다(4 절)
 - 2. 예수께 대해 말한다(5,6b,7 절)
 - 3. 신자들에 대해 말한다(6a 절)
 - 4. 야웨께서 말씀하신다(8 절)
- 다. 1:9-3:22 은 예수께서 자신의 교회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다. 1:9-20 및 각 일곱 교회에 하시는 말씀의 첫 부분에서 야웨를 나타내는 구약의 호칭이 예수님께 사용되었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1:1-3
¹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²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³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1:1 “계시” “*아포칼립스*”라는 이 헬라어 용어는 이 책에서는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숨는 곳에서”와 “드러내다, 가려진 것을 드러내다”라는 뜻을 가진 두 헬라어에서 왔다. 이 단어는 여러 의미를 가진다(BAGD, 92 쪽).

- 1. 진리의 계시 - 눅 2:32; 롬 16:25; 고전 14:6,26; 갈 1:12; 엡 1:17
- 2. 비밀을 알게 함 - 엡 2:11-3:13
- 3. 환상/꿈을 통해 계시함 - 고후 12:1,7; 갈 2:2
- 4. 마지막 때와 관련된 비밀 - 눅 17:30; 고전 1:7; 살후 1:7; 벧후 1:7,13; 4:13; 5:1

이 책에서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진리가 환상과 천사의 해석을 통하여 왔음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현재의 악 및 오는 의의 승리에 초점을 두는데 후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을 통하여 이루어 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을 바로 되게 하실 것이다!

▣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은 **목적적 소유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참조, 갈 1:12) 혹은 **주격 소유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메시지를 뜻한다.

▣ **“예수”** 이 히브리 이름은 “야웨께서 구원하신다,” “야웨는 구원이다,” “야웨께서 구원을 가지고 오신다”를 뜻한다. 이것은 “여호수아”라는 구약의 이름과 같은 이름이다. “예수”는 구원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인 “호세아”에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을 뜻하는 “야웨”에서 유래한 어미가 합하여 된 이름이다(골 1:13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라). 이 이름은 주의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었다(참조, 마 1:21).

▣ **“그리스도”** 이것은 “메시아”라는 히브리 용어에 상응하는 단어로서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가리킨다. 이 단어는 “어떤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준비된 자”를 가리킨다. 구약에서는 세 종류의 지도자들이 기름부음을 받았다: 제사장, 왕, 선지자. 예수께서는 기름부음을 받은 이 세 직임을 모두 성취하셨다(참조, 히 1:2-3).

특별주제: 메시아
 이것은 다니엘 9:6에 대해 내가 쓴 주석에서 가져 온 내용이다. 이 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갖는 어려움은 메시아 혹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BDB 603)라는 용어가 가지는 여러 의미를 인함이다.

- 1. 유대인의 왕들에 대해 사용됨(예, 삼상 2:10; 12:3)
- 2. 유대인의 제사장들에 대해 사용됨(예, 레 4:3,5)
- 3. 고레스에 대해 사용됨(참조, 사 45:1)

4. 시 110 편과 속 4 장에서는 1 항과 2 항이 결합되어 나타남
5.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오는 다윗 계보의 왕이 의의 새 시대를 가지고 옴을 나타냄
 - ㄱ. 유다 지파에서(참조, 창 49:10)
 - ㄴ. 이새의 가정에서(참조, 삼하 7 장)
 - ㄷ. 전 세계를 다스리는 자로서(참조, 시 2 편; 사 9:6; 11:1-5; 미 5:1-4 이하)

나는 개인적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나사렛 예수이심을 드러내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1. 단 2 장에서 네 번째 제국인 영원한 왕국을 제시하기 때문이고
2. 단 7:13 에서 “인자”에게 영원한 왕국을 주심을 말하기 때문이고
3. 단 9:24 에 있는 구속에 대한 구절이 범죄한 세계 역사의 귀결점을 가리키기 때문이고
4.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다니엘서를 사용하시기 때문이다(참조, 마 24:15; 막 13:14)

▣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성부의 계시나 허락 없이는 예수께서 아무 것도 가르치거나 행하시지 않으셨다(참조, 요 3:11-13,31-36; 4:34; 5:19-23,30; 6:38; 7:16; 8:26,28-29,40; 12:49-50; 14:10,24; 15:15). 신학적으로 이것은 요한의 글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앞쪽에 있는 이 문단이 22:6-21 의 내용과 이루는 대칭을 주목하라. 이것은 1 세기에 사용한 문학적 기교였다.

▣	
NASB, NKJV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NRSV	“반드시 곧 일어날 것을”
TEV	“반드시 아주 속히 일어날 것을”
NJB	“이제 아주 속히 일어날 것을”

이 책 전체를 해석함에 있어서 시간적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요한의 메시지가 미래는 물론 그 당시에 상관이 있는 것으로 말해지기 때문이다. “반드시”(때)라는 용어는 “뒹여 있는 것, 도덕적으로 볼 때 필요한 것, 적절한 것, 혹은 피할 수 없는 것”을 뜻한다(참조, 계 22:6).

특별주제: 곧 오심

“때가 가까움”의 개념에 대하여는 계 1:3; 2:16; 3:11; 22:7,10,12,20 의 본문을 비교하라. 이것은 구약의 단 2:28,29,45 절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 요한이 구약을 한 번도 인용하고 있지 않지만 구약에 대한 암시를 여러 곳에서 나타낸다. 전체 404 절 가운데 275 절은 구약적 배경을 가진다. 번역가들은 요한계시록의 목적에 대한 자신들의 신학적 전체를 인해 이 구를 해석함에 있어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 가. 갑자기
- 나. 한 번 시작된 일이 신속히 일어날 것이다
- 다. 곧 시작됨
- 라. 반드시 일어난다
- 마. 임박하여

계 22:7,12,20 에 나타난 이 용어의 용법은 요한이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이 일들이 신속히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음을 나타낸다(3 절 및 10:6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라). 이 책을 기록한 시기와 우리가 사는 시대 사이에 2,000 년의 간격이 있기에 많은 이들은 요한이 틀렸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일이 신속히 일어날 것으로 제시하는 것은 구약 예언의 전형적인 용법으로서, 현재의 사건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시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사야와 에스겔이 회복된(포로기 이후의) 유다로써 또 다니엘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IV 세를 언급함으로써 종말(마지막 날들)을 묘사하였듯이 요한은 제 1 세기의 로마를 사용하여 종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의의 새 시대가 도래함은 모든 세대에 있는 신자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준다. 22:6 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

또한 D. 브렌트 샌디의 책(쟁기의 날과 전쟁용 낫, 101-102 쪽)을 보라. 예언서에서 심각성과 예상치 못함을 나타내는 상징적 용어에 대하여는 173-175 쪽을 보라.

▣ “알게 하신 것이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중요한”(세마이노)을 뜻한다(참조, NKJV). 요한복음에서 “표”는 요한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문학적 용어 가운데 하나였다(세마이온, 참조, 12:33; 18:32; 21:19). 이 단어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관련을 가지는 구약적 용어일 것이다(참조, 사 7:11,14; 8:18; 19:20; 20:3; 37:30; 38:7,22; 55:13; 66:19; 렘 10:2; 32:20-21; 44:29; 겔 4:3; 14:8; 20:12,20). 이 책이 “표”와 “예언”을 통한 계시로 불리는 사실은 이 책의 문학적

장르를 이해함에 있어 우리에게 힌트를 제공한다. 한 장르에 대한 설명으로서 오늘날 사용하는 “묵시”라는 문학 용어는 요한에게 알려지지 않은 장르의 이름이었다.

▣ **“그 중”** 책의 앞쪽에 있는 이 절에 나오는 이 구는 이 책의 사도적 저자를 가리킨다. 이 책의 다른 곳에서는 **복수형**이 사용되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사자들/설교자들을 가리킨다(참조, 10:7; 11:18; 22:6).

한편, 이 책의 다른 곳에서는 이 호칭이 모든 신자들에 대해 사용되었다(참조, 7:3; 19:2,5; 22:3). 이 사실은 모든 신자가 증인이 되어야 함을 뜻한다(참조, 마 28:18-20; 골 4:6; 딤후 2:24-25; 벰전 3:15). 예수께서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본이시다(참조, 1:5; 3:14; 요 20:21)!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셨듯이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참조, 6:9; 12:17; 17:6; 18:24; 20:4). 이 책의 주제가 죽음에 이르러서도 신실하여야 함인 것을 기억하라! 내(예수)가 이겼노라!

▣ **“요한에게”** 다른 묵시서의 저자들과는 달리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고 일곱 편지의 형태(1-3 장)를 사용하여 자신의 예언적 증거로 구성된 서론을 제시한다. 어떤 이들은 요한이 다른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에 근거하여 그가 계시록의 사도적 저자임을 부인하지만(그는 자신을 “사랑받는 제자”로 그의 복음서에서 부르며, 요한 2 서와 3 서에서는 “장로”로 부른다), 그의 이름이 계 1:4,9; 22:8 에 나온다.

1:2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1 절에서와 같이 이것은 **목적적 소유격**(예수께 대한 증거) 혹은 **주어적 소유격**(예수께서 주신 증거)을 나타낸다. 때로 요한의 글에는 의도적인 모호성이 사용되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나타낸다.

1:3 **“복이 있나니”** 이것은 이 책에 나오는 일곱가지 축복의 첫 내용이다(참조, 1:3; 14:13; 16:15; 19:9; 20:6; 22:7,14). 이것을 읽는 자들이 복되도다라는 사실은 이것이 영감으로 된 것뿐 아니라 그 때 및 모든 때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적합한 말씀임을 나타낸다.

▣ **“읽는 자와”** NRSV 역은 “큰 소리로”를 추가하여 공공적으로 읽는 것을 나타낸다(참조, 딤편 4:13). 회중이 성경을 읽는 일은 원래 회당의 경우와 같이(낭독자) 특별히 훈련받은 교회의 회원이 감당한 일이었다. 교회는 초기의 회당에서 행해진 예배형식을 수용하였다(참조, 눅 4:16; 행 13:15; 골 4:16; 살전 5:27). 성경을 공공적으로 읽는 일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우리는 순교자 저스틴(주후 167 년)의 언급 - 교회가 복음서와 예언서를 읽었다 - 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 **“듣는 자와 ... 지키는 자는”** 듣는 일과 지키는 일(둘 다 **현재 능동 분사**)은 “*שמע*”로 불리는 히브리 용어의 핵심개념이다(참조, 신 5:1; 6:4-6; 9:1; 20:3; 27:9-10; 눅 11:28). 축복의 조건적 측면을 주목하라. 듣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만일 ... 그 때에는”으로 표현되는 이 언약의 형식은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다. 축복이 지식뿐 아니라 삶의 양식과 관련을 가진다.

▣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용어는 이 책의 신적 내용 및 문학적 장르를 동시에 나타낸다. 이 책은 편지(1-3 장)와 묵시적 표현(인, 나팔, 대접)과 예언(참조, 22:7,10,18,19)의 결합체이다. “예언”에 두 가지 함축적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1)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의 청중에게 말하는 일과 (2) 현재의 믿음이 어떻게 미래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나타내는 일. 이 두 의미는 선포와 예언을 말한다. 서론에 있는 글을 보라.

▣ **“때가 가까움이라”** 이것은 예언이 당시에 적합한 것임을 또 다시 나타낸다(참조, 22:10, 이러한 예가 롬 16:20 에 나온다). 1 절의 특별주제: 곧 오심을 보라.

개역개정 1:4-7

⁴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⁵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⁶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⁷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1:4 **“일곱 교회에”** 왜 일곱 교회에만 편지를 주셨는지 알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이론이 제기되었다:

1. 그 교회들은 요한이 사역했던 교회들을 특별히 나타내는 것이라고 어떤 이들은 주장한다
2. 그 교회들은 로마의 아시아도에 있는 우편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어떤 이들은 주장한다
3. 일곱이라는 수가 유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수였는데, 특히 친구약 중간시대의 묵시문학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 수는 창세기 1 장에서 보듯이 완전수였다. 따라서 이 수는 문자적 의미—요한이 로마의 아시아도에 있는 우편로에 위치한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썼다—및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모든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

특별주제: 성경에서 사용한 상징적 수

- 가. 어떤 숫자는 수와 상징 양쪽을 다 나타낸다:
1. 하나 - 하나님(예, 신 6:4; 열 4:4-6)
 2. 넷 - 지구 전체(즉, 네 모퉁이, 네 바람)
 3. 여섯 - 인간의 불안전성(7에서 하나 적음, 예, 계 13:18)
 4. 일곱 - 하나님의 완전성(7일 간의 창조). 계시록에서의 상징적 용법을 주목하라.
 - ㄱ. 일곱 촛대, 1:13,20; 2:1
 - ㄴ. 일곱 별, 1:16,20; 2:1
 - ㄷ. 일곱 교회, 1:20
 - ㄹ. 하나님의 일곱 영, 3:1; 4:5; 5:6
 - ㅁ. 일곱 등잔, 4:5
 - ㅂ. 일곱 인, 5:1,5
 - ㅅ. 일곱 빨과 일곱 눈, 5:6
 - ㅇ. 일곱 천사, 8:2,6; 15:1,6,7,8; 16:1; 17:1
 - ㅈ. 일곱 나팔, 8:2,6
 - ㅊ. 일곱 우뢰, 10:3,4
 - ㅋ. 칠천, 11:13
 - ㅌ. 일곱 머리, 13:1; 17:3,7,9
 - ㅍ. 일곱 재앙, 15:1,6,8; 21:9
 - ㅎ. 일곱 접시, 15:7
 - ㄱ. 일곱 왕, 17:10
 5. 십 - 완전성
 - ㄱ. 복음서에서의 용법:
 - (1) 마 20:24; 25:1,28
 - (2) 막 10:41
 - (3) 눅 14:31; 15:8; 17:12,17; 19:13,16,17,24,25
 - ㄴ. 계시록에서의 용법:
 - (1) 2:10, 십일 간의 환란
 - (2) 12:3; 17:3,7,12,16, 열 빨
 - (3) 13:1, 열 면류관
 - ㄷ. 계시록에서의 10의 배수:
 - (1) 144,000 = 12x12x10, 참조, 7:4; 14:1,3
 - (2) 1,000 = 10x10x10, 참조, 20:2,3,6
 6. 열둘 - 인간의 조직
 - ㄱ. 야곱의 열 두 아들(즉,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 창 35:22; 49:28)
 - ㄴ. 열 두 기둥, 출 24:4
 - ㄷ. 대체사장의 예뵈에 있는 열 두 보석, 출 28:21; 39:14
 - ㄹ. 빵 열 두 덩이, 성소 안에 있는 상에 놓임(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열 두 지파의 필요를 공급하심을 나타냄), 레 24:5; 출 25:30
 - ㅁ. 열 두 정탐군, 신 1:23; 수 3:22; 4:2,3,4,8,9,20
 - ㅂ. 열 두 사도, 마 10:1
 - ㅅ. 계시록에서의 용법:
 - (1) 인침을 받은 만 이천명, 7:5-8
 - (2) 열 두 별, 12:1
 - (3) 열 두 문, 열 두 천사, 열 두 지파, 21:12
 - (4) 열 두 사도의 이름을 딴 열 두 기초석, 21:14
 - (5) 새 예루살렘은 사방이 만 이천 스타디온이었다, 21:16
 - (6) 열 두 진주로 만든 열 두 문, 21:12
 - (7) 열 두 가지 과일을 맺는 생명나무, 22:2

- 7. 사십 - 시간의 길이를 뜻하는 숫자
 - ㄱ. 어떤 때는 문자적으로(출애굽과 광야 방랑시기, 예, 출 16:35); 신 2:7; 8:2
 - ㄴ. 문자적 혹은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경우로써
 - (1) 홍수, 창 7:4,17; 8:6
 - (2) 시내산에서의 모세, 출 24:18; 34:28; 신 9:9,11,18,25
 - (3) 모세의 삶의 구분
 - (ㄱ) 이집트에서의 40 년
 - (ㄴ) 광야에서의 40 년
 - (ㄷ) 이스라엘을 인도한 40 년
 - (4) 예수께서 40 일을 금식하심, 마 4:2; 막 1:13; 눅 4:2
 - ㄷ. 성경에서(성구사전에 의하면) 많은 경우 이 수는 시간의 명칭으로 나타남을 주목하라!
- 7. 칠십 - 사람들에게 대해 사용한 어림 수:
 - ㄱ. 이스라엘, 출 1:5
 - ㄴ. 칠십 장로, 출 24:1,9
 - ㄷ. 종말론적 의미, 단 9:2,24
 - ㄹ. 선교 팀, 눅 10:1,17
 - ㅁ. 용서함(70x7), 마 18:22
- 나. 좋은 참고 자료
 - 1. 존 J. 데이비스, *성경의 수*
 - 2. D. 브렌트 샌디, *보습과 전정용 갈고리*

특별주제: 교회(에클레시아)

헬라이어인 *에클레시아*는 “~로 부터”와 “부르심을 입은”의 두 단어에서 왔다. 따라서 이 단어는 하나님이 불러 내신 사람들을 뜻한다. 초대교회는 세속적 용법(참조, 행 19:32,39,41)에서 이 용어를 가져와 사용하였는데, 70 인역에서 이스라엘의 “회중”을 말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카할*, BDB 874, 참조, 민 16:3; 20:4). 초대교회는 이 용어를 하나님의 구약 백성의 연속으로서 자신들에게 사용했다. 그들은 새 이스라엘이었고(참조, 롬 2:28-29; 갈 6:16; 뱀전 2:5,9; 계 1:6), 전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의 성취였다(참조, 창 3:15; 12:3; 출 19:5-6; 마 28:18-20; 눅 24:47; 행 1:8).

이 용어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되었다.

- 1. 도시에서 가진 세속적 모임, 행 19:32,39,41
- 2.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우주적 백성, 마 16:18 과 에베소서
- 3.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역 교회의 믿는 회중, 마 18:17; 행 5:11(이 절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 4. 집합적인 이스라엘 백성, 행 7:38, 스테반의 설교에서
- 5.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행 8:3(유대와 팔레스타인)

▣ “아시아에 있는” 이것은 오늘날 터키의 서쪽에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서, 옛 브리기아 왕국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후자는 로마에 편입되어 “소아시아”가 되었다.

▣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전통적인 인사말로써 바울서신에서 아주 자주 사용된 표현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의 전통적 문학작품에서 사용한 인사말인 “*카레인*”(참조, 약 1:1)을 이와 비슷한 소리를 가진 기독교의 *카리스*(이 단어는 “은혜”를 뜻함)로 바꾸었다고 많은 이들이 주장한다. “평강”은 “샬롬”이라는 히브리어를 가리킨다. 따라서 헬라이어와 히브리어적 배경을 가진 두 용어는 교회 안에 있는 두 그룹과 관련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추측에 불과하다.

▣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것은 변함이 없으신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칭호임이 분명하다(참조, 시 102:7; 말 3:6; 약 1:17). 헬라이어에서 이 구의 문법적 형태는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이 표현은 아람어적 배경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문자적으로 이것은 “이제 계시는 분으로부터, 전에 계시 분으로부터, 또 오시는 분”이다(참조, 4:8). 이 구는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구약의 언약적 호칭을 나타낸다(야웨, 참조, 출 3:14. 1:8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라). 이 구는 4 절과 8 절에서 성부 하나님께 대해 사용되었고 17 절과 18 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 사용되었다(참조, 히 13:8). 의도적으로 야웨께 대한 호칭을 예수께 사용한 일은 신약의 저자들이 예수의 신성을 주장하는 한 방법이었다.

하나님께 대한 삼중적 호칭(과거, 현재, 미래)이 나팔제앙의 끝에 있을 재림에 대한 본문인 11:17 및 16:5 에서는 현재와 과거에 대한 것만 말하는 것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그 이유는 미래(마지막 때)가 밝아오기 때문이다.

▣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아래에 있는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일곱 영

이 일곱 영에 대한 설명으로서 여러 이론이 제기되었다.

1. 이 구가 성부 하나님과 메시아이신 예수 사이에 사용되었기에 많은 주석가들은 이 구가 성령을 가리킴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구가 3:1; 4:5; 5:6 에서도 나온다. 이러한 구절의 경우 속 4 장에 대한 암시를 뜻하지 않는 한 이 구는 결코 성령을 가리키지 않는다.
2. 다른 이들은 이것이 70 인역의 사 11:2 에 대한 암시라고 생각한다. 그곳에서는 성령의 7 개의 선물을 언급한다. 그러나 맛소라 본문에서는 단지 6 개의 선물만을 언급하고 있다.
3. 신구약 중간시대의 유대적 배경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천사장이 나타난 것으로 이 영들의 존재를 해석할 것이다.
4. 다른 이들은 1:20 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곱 교회의 천사들 혹은 사자들과 관련하여 이 영들을 이해한다.

1:5 “또 충성된 증인으로 ...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은 예수를 메시아로서 설명하는 세 구 가운데 처음 것이다. 이 본문은 20:6-21 과 평행을 이룬다. 구약에서 “충성된”은 충성되고 진실하며 믿을 수 있는 자를 나타낸다(참조, 사 55:3-5).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성경)이 신실하듯이, 하나님의 최종적 계시이며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께서도 신실하시다(참조, 3:14).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할 메시지’와 ‘우리가 영접하여야 할 분’과 ‘우리가 본받아 살아야 할 그 분을 본받는 삶’이다.

“충성된 증인”이라는 헬라어 구는 다음을 뜻할 수 있다

1. “내 증인, 나의 신실한 자” - 두 개의 구, 2:13 을 보라(인칭대명사를 추가시킴)
2. “신실하며 참된 증인” - 3:14 을 보라(“그리고 참된”이 추가됨)

▣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특별주제: 장자

“장자”(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되었다:

1. 이것의 구약적 배경은 가족의 장자가 갖는 뛰어난 가리킨다(참조, 시 89:27; 눅 2:7; 롬 8:29; 히 11:28)
2. 골 1:15 에서 이 단어는 예수께서 창조의 처음이 되심을 말하는데 이는 아마도 잠 8:22-31 에 대한 암시 혹은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이심을 말할 것이다(참조, 요 1:3; 고전 8:6; 골 1:15-16; 히 1:2)
3. 골 1:18; 고전 15:20(또한 이곳)에서 이 단어는 예수께서 죽은 자들의 장자됨을 가리킨다
4. 이것은 구약에서 메시아의 칭호로 사용되었다(참조, 시 89:27; 히 1:6; 12:23). 이것은 예수의 중요성과 그의 중심되심과 관련된 여러 모습을 묶어 제시하는 칭호였다. 이 문맥에서 3 항과 4 항의 설명이 잘 맞는다.

▣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 구는 앞에서 다룬 구와 마찬가지로 시 89:27 에 대한 암시이다(참조, 시 72:11; 사 48:23). 이 구는 예수께서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나타낸다. 이 구는 다음에 대한 요한의 반응도 될 것이다

1. 로마제국의 동쪽에 있는 도에서 행해진 황제숭배
2. 왕을 일컫기 위해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한 “왕중의 왕”이라는 구의 사용(참조, 계 11:15; 17:14; 19:16)

▣ “우리를 사랑하사” 이것은 현재 능동 분사로서 “예수께서 계속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이다. 이 내용은 일곱 교회 가운데 다섯 교회가 보여준 연약함과 실패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중요한 확인이다(참조, 2-3 장).

▣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분사이다. 별게이트와 콕틱역들, 일부 소문자체 헬라어 사본, 흠정역에서는 “씻으셨다”(ϋω)는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발음이 “해방하셨다”(ϋω)와 상당히 비슷하다. 고대의 서기관들은 한 사람이 소리내어 본문을 읽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를 듣고 받아 적어 신약의 본문을 필사하였다.

“해방하시고”(추가시킨 내용과 더불어)라는 용어는 고대 헬라어 사본인 P¹⁸, κ* (전치사와 더불어), κ², C 에 나오며, “씻으시고”는 후기의 대문자체 사본—P(6 세기)와 046 및 후기에 속하는 일부 소문자체(초서체 헬라어 사본)—에서만 발견된다. 따라서 “해방하시고” 혹은 “자유롭게 하시고”가 적합한 본문에 속한다. UBS⁴ 는 “해방하시고”에 “확실함”이라는 등급을 주고 있다. 부록 2: 본문비평을 보라.

▣ “그의 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적으로 행하신 제사(참조, 레 1-7 장)에 대한 명백한 암시이다(참조, 5:9; 7:14; 12:11; 막 10:45; 고후 5:21; 사 52:13-53:12). “그의 피로”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복음진리이다(참조, 롬 3:25; 엡 1:7; 2:13; 골 1:20; 뱀전 1:18-19). 분명한 사실은, 타락한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 및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따라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 안에서 서로 만나고 있다는 점이다(참조, 히 9:11-28).

특별주제: 초대교회의 케리그마

1. 구약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현재 성취되었다(행 2:30; 3:19,24; 10:43; 26:6-7,22; 롬 1:2-4; 딤후전 3:16; 히 1:1-2; 뱀전 1:10-12; 뱀후 1:18-19).
2. 예수님은 침례(세례)받으실 때 메시아로서 기름부음을 받으셨다(행 10:38).
3. 예수님은 침례(세례)받으신 후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행 10:37).
4.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일과 능력의 일을 행하신 것으로 특성지워진다(막 10:45; 행 2:22; 10:38).
5. 메시아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십자가에 못박히셨다(막, 10:45; 요 3:16; 행 2:23; 3:13-15,18; 4:11; 10:39; 26:23; 롬 8:34; 고전 1:17-18; 15:3; 갈 1:4; 히 1:3; 뱀전 1:2,19; 3:18; 요일 4:10).
6. 그는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행 2:24, 31-32; 3:15,26; 10:40-41; 17:31; 26:23; 롬 8:34; 10:9; 고전 15:4-7,12 이하; 살전 1:10; 딤후전 3:16; 뱀전 1:2; 3:18,21).
7.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높임을 받으셨고 그에게 “주”라는 이름이 주어졌다(행 2:25-29,33-36; 3:13; 10:36; 롬 8:34; 10:9; 딤후전 3:16; 히 1:3; 뱀전 3:22).
8. 그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성령을 주셨다(행 1:8; 2:14-18,38-39; 10:44-47; 뱀전 1:12).
9. 그는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며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다(행 3:20-21; 10:42; 17:31; 고전 15:20-28; 살전 1:10).
10. 이 소식을 들은 자들은 모두 회개하고 침례(세례)받아야 한다(행 2:21,38; 3:19; 10:43,47-48; 17:30; 26:20; 롬 1:17; 10:9; 뱀전 3:21).

비록 신약의 다른 저자들이 그들의 설교를 통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것을 남기고 다른 특징을 강조했다지만, 위의 개요는 초대교회의 선포에서 필수적인 내용을 이루었다. 마가복음 전체는 사도베드로의 케리그마와 근접한다. 전통적으로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선포했던 베드로의 설교에 기초하여 기록한 복음서로 보여진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모두 마가복음의 기본적 골격을 따른다.

1:6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이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고(5 절), 또 자신을 대표하는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삼으셨다!

▣	NASB	“나라로, 그의 하나님께 제사장들로”
	NKJV	“그의 하나님께 왕들과 제사장들로”
	NRSV	“나라로, 그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TEV, NJB	“그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제사장들의 나라로”

이것은 출 19:6 과 사 61:6 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사용한 구약 용어에 대한 암시이다. 이 두 본문에서는 국가를 제사장들의 나라로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려진 세상을 택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참조, 창 3:15; 12:3). 이스라엘은 증인이 되는 나라이어야 함에도(즉, 제사장들) 불구하고 그들에게 맡겨진 복음전도적 과제를 이행함에 있어서 실패했다(참조, 겔 36:22-28).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선택하사 세상에 이르기 원하신다(참조, 마 28:19-20; 눅 24:47; 행 1:8). 이스라엘에게 사용된 것과 똑같은 구가 이제는 교회에게 사용되었다(참조, 갈 3:29; 6:16; 빌 3:3; 뱀전 2:5,9; 계 1:6; 5:10; 20:6).

“제사장인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공동체적 개념에 대한 성경의 강조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구의 기독교는 개인의 위치와 역할은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공동체에 대한 성경의 강조점은 지나치게 약화시켰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신약의 은유적 표현(참조, 고전 12 장)은 유사한 은유적 표현이다. 구약의 호칭은 결코 신자들이 자신의 개인적 자유를 주장하도록 빌미를 주지 않는다. 이러한 강조는 마틴 루터와 당시의 카톨릭 교회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문맥의 강조점은 복음전도에 있다(참조, 7 절).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나 잃어버려지고 불쌍한 상태에 있으며 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각 사람들에게 나아가기 위해 각 신자가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여 나타낸다(참조, 요 3:16; 딤후전 2:4; 뱀후 3:9; 요일 2:2; 4:14).

특별주제: 기독교는 공동체이다

- 가. 바울과 베드로가 사용한 복수형의 은유적 표현
 - 1. 몸
 - 2. 발
 - 3. 건물
- 나. “성도”는 항상 **복수형**으로 사용되었다(빌 4:21 은 예외지만, 그것도 역시 공동체이다)
- 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믿는 자의 제사장직”에 대한 강조점은 정확히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의 제사장직을 말한다(참조, 출 19:6; 뱀전 2:5,9; 계 1:6).
- 라. 공동의 유익을 위해 각 믿는 자에게 은사를 주셨다(참조, 고전 12:7)
- 마. 오직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된다. 사역은 집합적 개념이다(참조, 엡 4:11-12).

▣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 구는 성자의 완전한 신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22:17의 특별주제: 삼위일체를 보라). 하지만 이 구는 실제로는 성육신 하셨을 때 예수께서 순종하심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구를 바울이 롬 15:6에서 사용하였다. 성자께서 성부와 동등하심에 대한 내용을 3:21; 14:1에서 볼 수 있다.

▣ “그에게 영광과 능력” “영광”이라는 용어는 구약의 상업적 용어로서(물건을 사기 위해 저울을 사용함) “무게가 나감”을 뜻한다. 무거운 것(즉, 금)이 값이 있었다. 이 용어는 출애굽기에서 영광의 구름인 *שֶׁכֶׁנִּית*에서 하나님의 빛나심, 위엄, 거룩하심을 뜻하는 표현이 되었다. 영광은 종종 신약에서 성부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참조, 롬 11:36; 16:27; 엡 3:21; 빌 4:20; 딤후 1:17; 딤후 4:18; 뱀전 4:11; 5:11; 뱀후 3:18; 유 25 절; 계 1:6; 5:13; 7:12). 15:8의 특별주제: 영광을 보라.

▣ “세세토록 있기를” 이것은 문자적으로 “세대들에서 세대들로”이다.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인 *아이오노스*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표현은 계시록에 자주 나타난다(참조, 1:18; 4:9,10; 5:13; 7:12; 10:6; 11:15; 15:7; 19:3; 20:10; 22:5). 초기의 헬라어 본문에서 두 번째 것을 생략한 경우는 놀랍게 여겨진다(사본 P¹⁸, A, P). UBS⁴는 어느 쪽이 원래의 본문에 속하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특별주제: 영원히 (헬라어 관용어)

헬라어에서 “영원히”(unto the ages)라는 관용적인 구(참조, 눅 1:33; 롬 1:25; 11:36; 16:27; 갈 1:5; 딤후 1:17)는 히브리어의 *올람*을 나타낸다. 로버트 B. 거들스톤의 *구약의 동의어*, 319-321쪽을 보라. 이와 관련이 있는 또 다른 구로는 “영원히”(unto the age, 참조, 마 21:19 [막 11:14]; 눅 1:55; 요 6:48; 8:35; 12:34; 13:8; 14:16; 고후 9:9) 및 “영원토록”(of the age of the ages, 참조, 엡 1 3:21)이 있다. “영원히”를 뜻하는 이 헬라 관용어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세대들”(ages)이라는 용어는 **복수형**으로서 랍비들이 “장엄한 복수형”으로 일컫는 문법적 구조에 따른 회화적 의미를 가지거나, 유대인들이 말하는 여러 “세대”(ages)의 개념으로서 “악한 세대,” “오는 세대,” “의의 세대”등의 의미를 가진다.

특별주제: 올람(영원히)

히브리 용어인 *올람*(BDB 761, KB 798)의 어원은 분명치 않다(NIDOTTE 제 3 권 345 쪽). 이것은 여러 의미로 사용된다(보통 문맥에 의해 의미가 결정된다). 다음은 오직 몇 가지 예이다.

- 1. 고대의 것
 - ㄱ. 사람, 창 6:4; 삼상 27:8; 렘 5:15; 28:8
 - ㄴ. 장소, 사 58:12; 61:4
 - ㄷ. 하나님, 시 93:2; 잠 8:23; 사 63:16
 - ㄹ. 물건, 창 49:26; 욥 22:15; 시 24:7,9; 사 46:9
 - ㅁ. 시간, 신 32:7; 사 51:9; 63:9,11
- 2. 미래의 시간
 - ㄱ. 사람의 생명, 출 21:6; 신 15:17; 삼상 1:22; 27:12
 - ㄴ. 왕에 대한 과장, 왕상 1:31; 시 61:7; 느 2:3
 - ㄷ. 계속 존재하는 것
 - (1) 지구, 시 78:69; 104:5; 전 1:4

- (2) 하늘, 시 148:6
- ㄹ. 하나님의 존재하심
 - (1) 창 21:33
 - (2) 출 15:18
 - (3) 신 32:40
 - (4) 시 93:2
 - (5) 사 40:28
 - (6) 렘 10:10
 - (7) 단 12:7
- ㅁ. 언약
 - (1) 창 9:12,16; 17:7,13,19
 - (2) 출 31:16
 - (3) 레 24:8
 - (4) 민 18:19
 - (5) 삼하 23:5
 - (6) 시 105:10
 - (7) 사 24:5; 55:3; 61:8
 - (8) 렘 32:40; 50:5
- ㅂ. 다윗과 하신 특별한 약속
 - (1) 삼하 7:13,16,25,29; 22:51; 23:5
 - (2) 왕상 2:33,45; 9:5
 - (3) 대하 13:5
 - (4) 시 18:50; 89:4,28,36,37
 - (5) 사 9:7; 16:5; 37:35; 55:3
- ㅅ. 하나님의 메시아
 - (1) 시 45:2; 72:17; 89:35-36; 110:4
 - (2) 사 9:6
- ㅇ. 하나님의 법
 - (1) 출 29:28; 30:21
 - (2) 레 6:18,22; 7:34; 10:15; 24:9
 - (3) 민 18:8,11,19
 - (4) 시 119:89,160
 - (5) 사 59:21
- ㅈ. 하나님의 약속
 - (1) 삼하 7:13,16,25; 22:51
 - (2) 왕상 9:5
 - (3) 시 18:50
 - (4) 사 40:8
- ㅊ. 아브라함의 후손과 약속의 땅
 - (1) 창 13:15; 17:18; 48:4
 - (2) 출 32:13
 - (3) 대상 16:17
- ㅋ. 언약적 절기
 - (1) 출 12:14,17,24
 - (2) 레 23:14,21,41
 - (3) 민 10:8
- ㅌ. 영원히 계속되는 영원
 - (1) 왕상 8:13
 - (2) 시 61:7-8; 77:8; 90:2; 103:17; 145:13

- (3) 사 26:4; 45:17
- (4) 단 9:24
- 프. 시편이 말하는 믿는 자들이 영원히 할 것
 - (1) 감사하라, 시 30:12; 79:13
 - (2)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라, 시 41:12; 61:4,7
 - (3)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라, 시 52:8
 - (4)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 52:9
 - (5) 찬양하라, 시 61:7; 89:1
 - (6)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라, 시 75:9
 - (7)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라, 시 86:12; 145:2
 - (8)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시 145:1
- 3. 시간적으로 이전과 이후(“영원부터 영원까지”)
 - ㄱ. 시 41:13(하나님을 송축함)
 - ㄴ. 시 90:2(하나님 자신)
 - ㄷ. 시 103:17(여호와의 인자하심)

문맥이 이 용어가 갖는 의미의 한계를 결정짓는 것을 기억하라. 영원한 언약과 약속은 조건적이다(즉, 램 7 장). 이렇게 매우 유동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인데 시간에 대해 당신이 갖고 있는 현대적인 관점이나 당신의 신약적 조직 신학으로 구약에서 사용하는 이 단어를 대하려는 것을 주의하라. 신약은 구약의 약속을 보편화한다.

▣ “아멘” 이것은 “믿음”을 가리키는 구약의 히브리어 용어이다(참조, 합 2:4). 이 단어는 어원적으로 “확실함 혹은 분명함”을 뜻한다. 한편, 이러한 함축적 의미는 확실하다고 말할 내용을 뜻하는 표현으로 바뀌었다(참조, 고후 1:20). 이 단어를 은유적으로 사용하여 어떤 사람이 신실하고 충성되며 믿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이 호칭이 예수께 사용된 경우를 3:14 에서 볼 수 있다(참조, 고후 1:20).

특별주제: 아멘

- I. 구약
 - 가. “아멘”이란 용어는 다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왔다.
 - 1. “진리”(예매쓰, BDB 49)
 - 2. “진실성”(예문, 예무나, BDB 53)
 - 3. “믿음” 또는 “신실함”
 - 4. “신뢰”(야만, BDB 52)
 - 나. 이것의 어원은 사람의 안정된 육체적 자세이다. 이것의 반대는 불안정한, 미끄러지는(참조, 신 28:64-67; 시 40:2; 73:18; 램 23:12) 또는 비틀거리는(참조, 시 73:2) 사람이다. 이 문자적 용법으로부터 신실한, 믿을만한, 충성된, 의지할만한의 뜻을 가지는 은유적 확장이 이루어졌다(참조, 창 15:6; 합 2:4).
 - 다. 특별용법
 - 1. 기둥, 왕하 18:16(딤펢전 3:15)
 - 2. 확신, 출 17:12
 - 3. 견실함, 출 17:12
 - 4. 안정성, 사 33:6; 34:5-7
 - 5. 참, 왕상 10:6; 17:24; 22:16; 잠 12:22
 - 6. 견고한, 대하 20:20; 사 7:9
 - 7. 믿을 수 있는(토라), 시 119:43,142,151,168
 - 라. 구약에서 히브리어의 다른 두 단어가 적극적인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 1. 바타(BDB 105), 신뢰
 - 2. 야라(BDB 431), 두려움, 존경, 예배(참조, 창 22:12)
 - 마. 신뢰 또는 신뢰감이라는 의미가 신뢰나 신뢰감을 나타내는 예식적 용법으로 발전되었다(참조, 신 27:15-26; 느 8:6; 시 41:13; 70:19; 89:52; 106:48).

- 마. 이 단어의 신학적 열쇠는 인간의 신실함이 아니라 야웨의 신실하심이다(참조, 출 34:6; 신 32:4; 시 108:4; 115:1; 117:2; 138:2). 타락한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자비로우시며 신실하신 야웨와 그의 약속의 언약적 성실하심에 있다. 야웨를 아는 사람은 그와 같이 될 것이다(참조, 합 2:4).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참조, 창 1:26-27)을 인간 안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록이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도록 인간의 능력을 회복시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다.
- II. 신약
- 가. 어떤 진술의 신뢰감에 대한 결론적 의식적 확인인 “아멘”이란 단어의 사용은 신약에서 일반적이다(참조, 고전 14:16; 고후 1:20; 계 1:7; 5:14; 7:12).
- 나. 신약에서 기도를 마칠 때 일반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참조, 롬 1:25; 9:5; 11:36; 16:27; 갈 1:5; 6:18; 엡 3:21; 빌 4:20; 살후 3:18; 딤편 1:17; 6:16; 딤후 4:18).
- 다. 중요한 진술을 시작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 분은(요한의 책에서는 종종 중복된다) 오직 예수 한 분 뿐이다(참조, 눅 4:24; 12:37; 18:17,29; 21:32; 23:43).
- 라. 계시록 3:14 에서 이것은 예수님의 칭호로서 사용되었다(사 65:16 에서 야웨의 칭호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 마. 신실함 또는 믿음, 신뢰감 또는 신뢰의 개념이 헬라어로 *피스토스* 또는 *피스티스*로 표현된다. 이것은 영어 성경에서 신뢰하다, 믿음, 믿다로 번역되었다.

1:7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절은 1 절에 나오는 천사가 외친 말일 것이다. 이 내용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명백히 가리킨다.

특별주제: 구름을 타고 오심

이 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한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은 매우 중대한 종말론적 표시이다. 이것은 구약에서 세 가지 특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1.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물리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영광의 *쉐키나* 구름(참조, 출 13:21; 16:10; 민 11:25)
2.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기 위해(참조, 출 33:20; 사 6:5)
3. 하나님의 이동수단으로써(참조, 사 19:1)

단 7:13 에서 구름은 인간이신 하나님의 메시아의 이동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다니엘서의 이 예언은 신약에서 30 번 이상 암시 된다. 메시아와 하늘의 구름이 연관된 같은 내용을 마 24:31; 막 13:26; 눅 21:27; 14:62; 행 1:9,11; 살전 4:17 에서 볼 수 있다.

▣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주적으로 돌아오시되, 비밀스럽게 신자들을 휴거시키심이 아니라 몸을 가지신 상태로 볼 수 있게 오심을 나타낸다.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성경은 비밀스러운 휴거나 재림에 대해 결코 말씀하지 않고 있다. 비밀스러운 휴거를 지지하는 본문으로 자주 사용되는 복음서의 절들(참조, 마 24:37-44; 눅 17:22-37)은 노아의 날과 대조를 하기 위한 문맥에 나타난다. 이 본문들은 그의 재림이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임함을 가리킨다. 노아의 시대에 그 일에 직면한 자들이 멸망을 당하였다! 영감받은 원래의 배경에서 성경의 일부 본문을 끄집어내어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신학적 종말론적 체계를 지지하는 증거본문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이것은 슥 12:10,12 에 대한 암시이다 (참조, 요 19:37). 이 본문은 당시의 로마 상황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요한이 구약 본문을 어떻게 재해석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페서르*로 불리는 유대인의 재해석 방법). 스가랴서 본문은 요한이 새로운 적용점을 갖도록 돕는 도약대의 역할을 하였다. 스가랴서의 이 본문은 “찢린 자”를 인해 슬퍼하는 예루살렘의 주민에 대한 것이지만, 요한은 여기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은 로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참조, 요 19:37). 맞소리 본문에 있는 “그들”이라는 **대명사**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으로 바꾸었다(참조, 마 24:30, 이 구는 70 인역에는 없다). 또한 스가랴서 본문에 있는 “애곡하다”를 로마서 11 장과 종종 관련시켜 해석한다. 로마서에서는 유대인들이 회개하여 예수를 메시아로서 믿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계 1:7 에서는 애곡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족속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함’을 뜻하고 있다(참조, 마 24:30). 스가랴서의 문맥은 “므깃도 평지”에서 민족들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인해 애곡함을 암시하고 있다. 므깃도는 히브리어에서 아마켓돈으로 불린다(참조, 슥 12:11; 대하 35:22; 시 2 편; 계 16:16). 이 장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과 사탄의 백성인 믿지않는 국가들과 더불어 싸우게 될 마지막 때의 전쟁터이다.

특별주제: 슬픔의 의식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또는 자신의 회개와 관련하여 혹은 공동체의 범죄를 인한 슬픔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표현했다.

1. 겹옷을 찢음, 창 37:29,34; 44:13; 사 11:35; 삼하 1:11; 3:31; 왕상 21:27; 욥 1:20
2. 베로 동입, 창 37:34; 삼하 3:31; 왕상 21:27; 렘 48:37
3. 신발을 벗음, 삼하 15:30; 사 20:3
4. 손을 머리에 얹음; 삼하 13:9; 렘 2:37
5. 재를 머리에 뿌림, 수 7:6; 삼상 4:12; 느 9:1
6. 땅에 앉음, 애 2:10; 겔 26:16(땅에 누움, 삼하 12:16); 사 47:1
7. 가슴을 침, 삼상 25:1; 삼하 11:26; 나 2:7
8. 몸을 뺨, 신 14:1; 렘 16:6; 48:37
9. 금식함, 삼하 1:16,22; 왕상 21:27
10. 애가를 부름, 삼하 1:17; 3:31; 대하 35:25
11. 머리를 밟(머리카락을 잡아 뽑거나 면도함), 렘 48:37
12. 수염을 짧게 깎음, 렘 48:37
13. 머리카락이나 얼굴을 가림, 삼하 15:30; 19:4

▣ “그러하리라 아멘” 이것은 확증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나이*)와 확증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아멘*)가 함께 사용되어 강조를 나타내는 형태이다(참조, 22:20).

개역개정 1:8

⁸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1:8 야웨 자신이 이 절을 말씀하시 예수께 대한 이전의 진술이 사실임을 확증하고 계시다. 이 절은 4 개의 칭호를 하나님께 사용하여 다섯 번째 혹은 여섯 번째 내용에 대한 암시를 나타낸다. 8 절은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이름들을 사용하시 이전의 진술을 친히 확증하고 계심을 분명히 나타낸다.

1. “나는 ~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인 야웨(참조, 출 3:14)로서 “~이다”라는 **동사**의 한 형태이다. 예수께서는 이 칭호를 자신에게 사용하셨다(참조, 요 8:56-59). “주”(κυριος)라는 신약의 칭호는 구약의 이 칭호를 가리킨다.
2. “알파와 오메가,” 이것은 헬라어 알파벳의 첫 자와 끝 자로서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낸다(참조, 사 44:6; 계 21:6). 이 칭호는 계 1:17 과 22:13 에서 예수께 대해서도 사용되었다.
3. “주,” 이것은 야웨를 오늘날의 표현으로 나타낸 칭호이다(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4. “하나님,” 창 2:4 에서는 야웨와 엘로힘을 함께 사용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었다(주 하나님). 근동에서 엘은 신을 가리키는 일반적 이름이었다. 그 어근은 “강하다”이다.
5.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이 구는 4 절에서 이미 사용되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며 영존하심을 나타낸다(참조, 시 102:27; 말 3:6; 약 1:17). 4 절과 8 절에서는 성부 하나님, 곧 야웨께 대해 이 구를 사용했으며 17 절, 18 절, 22:13 에서는 성자이신 예수께 대해 사용되었다(참조, 히 13:8).
6. “전능한 자,” 이것은 구약의 용어인 다음의 이름을 가리킨다: (1) “엘 샤택다이,” 족장들이 사용한 하나님의 이름(참조, 출 6:3) 혹은 (2) “야웨 쓰바웃,” 70 인역에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으로 말함. 이 칭호가 이 책에서는 종종 사용되었지만(즉, 판토크라토르, 참조, 4:8; 11:17; 15:3; 16:7,14; 19:6,11; 21:22), 그 외의 책에서는 단 한 번만 사용되었다(즉, 고후 6:18).

이른 시기에 속하는 한 헬라어 사본인 알렉사본(α) 및 후기에 속하는 여러 사본에서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구를 “알파와 오메가”이후에 삽입하여 제시하고 있다. 서기관들이 21:6 에서 이 구를 취하여 삽입한 것이다. 이 구는 영감받은 원래의 헬라어 본문에 속한 것이 아니다. UBS⁴는 이 구가 들어있지 않은 것에 “확실함”이라고 말한다.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

가. 엘(BDB 42, KB 48)

1. 비록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을 일컫는 용어가 아카디아어의 “강하다” 또는 “능하다”라는 어원에서 왔다고 말하지만, 신을 일컫는 이 고대 용어의 고유한 의미는 불확실하다(참조, 창 17:1; 민 23:19; 신 7:21; 시 50:1).
2. 가나안 만신전에서 높은 신은 엘이다(라스 샴라 본문)

3. 성경에서 **엘**은 일반적으로 다른 용어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이 단어가 들어있는 합성어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낸다.
 - ㄱ. **엘-엘론** (“아주 높으신 하나님,” BDB 42 & 751 II), 창 14:18-22; 신 32:8; 사 14:14
 - ㄴ. **엘-로이** (“보시는 하나님” 또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BDB 42 & 909), 창 16:13
 - ㄷ.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또는 “공홀이 많으신 하나님” 또는 “산의 하나님,” BDB 42 & 994), 창 17:1; 35:11; 43:14; 49:25; 출 6:3
 - ㄹ.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BDB 42 & 761), 창 21:33. 이 용어는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관련이 있다. 삼하 7:13,16
 - ㅁ. **엘-베릿** (“언약의 하나님,” BDB 42 & 136), 샛 9:46
4. **엘**은 다음과 동격을 이룬다
 - ㄱ. 야웨, 시 85:8; 사 42:5
 - ㄴ. **엘로힘**, 창 46:3; 욥 5:8, “나는 **엘**이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엘로힘**)이다”
 - ㄷ. **샤다이**, 창 49:25
 - ㄹ. “시기,” 출 34:14; 신 4:24; 5:9; 6:15
 - ㅁ. “자비,” 신 4:31; 느 9:31
 - ㅂ. “신실하신,” 신 7:9; 32:4
 - ㅅ. “크고 두려우신,” 신 7:21; 10:17; 느 1:5; 9:32; 단 9:4
 - ㅇ. “지식,” 삼상 2:3
 - ㅈ. “나의 견고한 피난처,” 삼하 22:33
 - ㅊ. “나의 신원자,” 삼하 22:48
 - ㅋ. “거룩하신 분,” 사 5:16
 - ㅌ. “힘,” 사 10:21
 - ㅍ. “나의 구원,” 사 12:2
 - ㅎ. “크고 능하신,” 렘 32:18
 - ㄱ. “깊으심,” 렘 51:56
5. 수 22:22 에는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두 함께 나온다(**엘**, **엘로힘**, **야웨**가 반복됨)

나. **엘론** (BDB 751, KB 832)

1. 이 이름의 기본적인 뜻은 “높은,” “존귀하신,” 또는 “높이 들리신”이다(참조, 창 40:17; 왕상 9:8; 왕하 18:17; 느 3:25; 렘 20:2; 36:10; 시 18:13).
2. 이 이름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칭호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 ㄱ. **엘로힘** - 시 47:1-2; 73:11; 107:11
 - ㄴ. **야웨** - 창 14:22; 삼하 22:14
 - ㄷ. **엘 샤다이** - 시 91:1,9
 - ㄹ. **엘** - 민 24:16
 - ㅁ. **엘라** - 다니엘 2-6 장, 에스라 4-7 장에서 많이 사용됨; 단 3:26; 4:2; 5:18,21 에서는 **일라이르**(아람어로 “높으신 하나님”)와 연결됨
3. 이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 위해 종종 사용하였다.
 - ㄱ. 벨기세텍, 창 14:18-22
 - ㄴ. 발람, 민 24:16
 - ㄷ. 모세, 신 32:8 에서 나라들에 대해 말함
 - ㄹ.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진 신약의 누가복음은 헬라어로 이와 같은 뜻을 지닌 **ହିσίστοσ**를 사용(참조, 1:32,35,76; 6:35; 8:28; 행 7:48; 16:17)

다. **엘로힘**(복수형) 및 시에서 주로 사용된 **엘로아**(단수형) (BDB 43, KB 52)

1. 이 이름은 구약 이외의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2. 이 용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혹은 이방의 신들을 가리킨다(참조, 출 12:12; 20:3). 아브라함의 가족은 다신교적 신앙을 가졌다(참조, 수 24:2).
3. 이것은 이스라엘의 재판장을 의미할 수 있다(참조, 출 21:6; 시 82:6).
4. **엘로힘**은 다른 영적 존재들(천사, 악령)에게도 사용되었다, 신 32:8(LXX); 시 8:5; 욥 1:6; 38:7.
5. 이것은 성경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호칭/이름이다(참조, 창 1:1). 이 이름은 이 이름과 야웨가 함께 사용된 창 2:4 이전에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이름은 기본적(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이 행성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창조주, 보존자, 공급자로 나타낸다(참조, 시 104 편).

이 이름은 엘의 동의어를 이룬다(참조, 신 32:15-19). 하나님의 이름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시 14 편(엘로힘)이 시 53 편(야웨)과 정확하게 평행을 이루듯이, 이 이름은 야웨와 평행을 이룬다(엘로힘, 1,2,5 절; 야웨, 2,6 절; 심지어 아돈도 4 절).

6. 비록 **복수형**이 이방신들에게 사용되기도 했지만, 이 호칭은 종종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칭한다. 따라서 이 이름은 **단수형 동사**를 가져 유일신적 의미를 나타낸다.
7. 이스라엘의 유일신인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점은 특이하다! 비록 아주 분명하지만 않지만, 여기에는 여러 이론이 있다:
 - ㄱ. 히브리어에는 많은 **복수형**이 있는데 이것은 종종 강조를 나타낸다. 이것은 **복수형**이 어떤 개념을 극대화하는 후기의 히브리어 문법적 특징으로서 “위엄을 나타내는 복수형”의 개념을 가진다.
 - ㄴ. 이것은 천사들의 모임을 일컬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다(참조, 왕상 22:19-23; 욥 1:6; 시 82:1; 89:5,7).
 - ㄷ. 이것은 신약의 계시에서 삼위이신 한 하나님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창 1:1 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창 1:2 에서는 성령의 행하심을 말한다; 신약에서 볼 때, 예수님은 창조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대행자였다(참조, 요 1:3,10; 롬 11:36; 고전 8:6; 골 1:15; 히 1:2; 2:10).

라. 야웨 (BDB 217, KB 394)

1. 이것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하나님은 구원자요 구속자이시다! 인간은 언약을 깨트리지만 하나님은 그의 말씀, 약속,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신다(참조, 시 103 편).
이 이름은 창 2:4 에서 엘로힘과 함께 나타난다. 창 1-2 장은 창조에 대한 두 개의 기록이 아니라 두 강조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1) 하나님은 우주(물질적)의 창조자이시고 (2) 인류의 특별한 창조자이시다. 창 2:4 은 인간의 특권적인 지위와 창조 목적에 대한 특별한 계시로 시작하며, 또한 죄의 문제와 인간의 독특한 지위와 관련된 반역을 다룬다.
2. 창 4:26 에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야웨)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한다. 한편 출 6:3 은 초기에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족장들과 그들의 가족)은 하나님을 오직 **엘 샨다이**로 알았음을 암시한다. 하나님의 이름 야웨는 오직 한 번 출 3:13-16 (특히 14 절)에서 설명된다. 그러나 모세의 글은 종종 어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참조, 창 17:5; 27:36; 29:13-35) 언어유희에 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이름의 뜻에 대하여 여러가지 이론이 있다(IDB 제 2 권 409-11 쪽에서 취함):
 - ㄱ. 아라비아 어원, “뜨거운 사랑을 보임”
 - ㄴ. 아라비아 어원, “불어냄”(폭풍의 신으로서 야웨)
 - ㄷ. 우가릿어(가나안어) 어원, “말하다”
 - ㄹ. 페니키아어 비문에서 **원인을 말하는 분사**, “유지시키는 자” 또는 “세우는 자”
 - ㅁ. 히브리어 **칼**형, “계신 분” 또는 “존재하시는 분”(미래적 의미로는 “앞으로 계실 분”)
 - ㅂ. 히브리어 **히필**형, “있게 하시는 분”
 - ㅅ. 히브리어 어원인 “살다”(예, 창 3:20)로 “항상 계시며 홀로 살아계신 분”
 - ㅇ. 출 3:13-16 의 문맥에서 **미완료형**이 **완료형**의 의미로 쓰인 것, “나는 내가 그래왔듯이 계속해서 그러할 것이다” 또는 “나는 내가 항상 있었듯이 계속 있을 것이다”(참조, 와쉬 왓스의 **구약 문맥 개설** 67 쪽). 야웨란 이름은 종종 축약적으로 혹은 원래의 형태로서
 - (1) **야**(예, 할렐루-야, BDB 219, 참조, 출 15:2; 17:16; 시 89:9; 104:35)
 - (2) **야후**(이름의 끝 자인 “야,” 예, 이사야)
 - (3) **요**(이름의 첫 자인 “요,” 예, 여호수아 혹은 요엘)
3. 후기 유대교에서는 이 언약적 이름을 매우 거룩하게 여겼다(4 자음으로 된 하나님의 이름). 따라서 유대인들은 출 20:7; 신 5:11; 6:13 의 계명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신에 히브리어로 “주인,” 남편,” “주”-**아돈** 혹은 **아도나이**(나의 주)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들은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야웨가 나올 때마다 “주”로 발음했다. 이것이 왜 야웨를 주(LORD)라고 영어 성경에서 사용하는가에 대한 이유이다.
4. 엘처럼 야웨는 종종 다른 용어와 함께 사용되어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특성을 강조한다. 가능한 조합의 여러 경우 가운데 그 일부를 여기에 제시했다.
 - ㄱ. **야웨-이레**(야웨께서 공급하신다, BDB 217 & 906), 창 22:14
 - ㄴ. **야웨-로페카**(야웨는 너의 치료자이시다, BDB 217 & 950, **칼 분사**), 출 15:26
 - ㄷ. **야웨-니시**(야웨는 나의 깃발, BDB 217 & 651), 출 17:15
 - ㄹ. **야웨-메카디스켄**(야웨는 너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BDB 217 & 872, **피엘 분사**), 출 31:13
 - ㅁ. **야웨-살롬**(야웨는 평화이시다, BDB 217 & 1022), 사 6:24

- 바. *야웨-쓰바웃* (만군의 야웨, BDB 217 & 878), 삼상 1:3,11; 4:4; 15:2; 종종 예언서에 쓰임
- 사. *야웨-로이* (야웨는 나의 목자, BDB 217 & 944, *칼 분사*), 시 23:1
- 오. *야웨-치드케누* (야웨는 우리의 의이시다, BDB 217 & 841), 렘 23:6
- 즈. *야웨-삼마* (야웨께서 거기 계시다, BDB 217 & 1027), 겔 48:35

개역개정 1:9-11

⁹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¹⁰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¹¹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예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1:9-20 이것은 부활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요한이 본 내용이다. 이같은 묘사가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용되었다(2-3 장). 요한은 자신과 자신의 독자들을 동일시 하여 말한다: (1) “너희 형제요”라는 용어의 사용을 통하여 또 (2) 그가 직접 고난을 받고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임을 밝힘으로써. 이 핵심 용어들—환난과 나라와 참음—은 요한이 본받았듯이 그의 독자들이 본받아야 할 예수의 삶에 나타난 실례이기도 하다(참조, 요 16:33; 행 14:22; 롬 8:17).

오늘날 서구의 해석가들이 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우리가 제 1 세기 로마 제국에서 행해진 박해와 시련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있다. 요한계시록은 찢리고 죽어가고 위협을 받던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1:9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7:14의 설명을 보라.

▣ “나라”

특별주제: 하나님의 왕국

구약에서 야웨는 이스라엘의 왕(참조, 삼상 8:7; 시 10:16; 24:7-9; 29:10; 44:4; 89:18; 95:3 사 43:15; 44:4, 6)과 이상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참조, 시 2:6; 사 9:6-7; 11:1-5)로 여겨졌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심으로(주전 6-4년), 하나님의 왕국은 새로운 권세와 구속으로 인간의 역사에 들어왔다(새 언약, 참조, 렘 31:31-34; 겔 36:27-35). 침례(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했다(참조, 마 3:2; 막 1:15). 예수님은 자신 안에 또 자신의 가르침 안에 왕국이 임재함을 분명히 가르치셨다(참조, 마 4:17,23; 9:35; 10:7; 11:11-12; 12:28; 16:19; 막 12:34; 눅 10:9,11; 11:20; 12:31-32; 16:16; 17:21). 그럼에도 왕국은 미래적이기도 하다(참조, 마 16:28; 24:14; 26:29; 막 9:1; 눅 21:31; 22:16,18).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구가 공관복음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평행을 이룸을 본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내용의 주된 주제로서 이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현재적 통치로서 어느 날 온 땅 위에서 완성될 것이다. 이것은 마 6:10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 반영이 되고 있다.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구(하늘의 왕국)를 좋아하고, 마가와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것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일반적 표현을 사용한다.

이것은 공관복음에 나타나는 중요한 구이다. 예수님의 처음 설교와 마지막 설교 및 대부분의 비유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것은 현재 인간의 마음의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가리킨다! 요한이 이 구를 단지 두 번만(또한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음) 사용하는 것은 놀랍다. “영생”은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은유적 표현이다.

예수님의 두 번 오심이 이 긴장을 야기한다. 구약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심에—군사적, 재판적, 영광스런 오심—초점을 둔 반면, 신약은 그가 사 53장의 고난받는 종으로서와 속 9:9의 겸손한 왕으로서 처음 오시는 것에 초점을 둔다. 유대인의 두 세대인 악한 세대와 의의 새 세대가 겹쳐진다. 예수는 지금 신자의 마음속에서 다스리고 계신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는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오실 것이다! 신자들은 “이미” 대 “아직”의 면을 갖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고 있다(참조, 고든 D.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31-34 쪽).

▣ “인내” 이 단어가 2:2,3,19; 3:10; 13:10; 14:12에서 사용되었다. 2:2의 특별주제: 인내를 보라.

▣ “**밧모라 하는 섬에**” 로마인들은 정치범들을 소아시아의 작은 섬들로 추방시켰다(참조, 타시투스의 *연대기*, 3.68; 4.30; 15.71). 요한은 밀레도에서 60 km 떨어진 이 작은 섬으로 추방되었음이 확실하다. 이 섬은 동쪽을 향한 초승달 모양의 섬으로서, 섬의 길이는 16 km 이고 폭은 10 km 였다.

▣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 구를 해석함에 있어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1) 요한이 설교한 복음 혹은 (2) 요한이 계시를 받은 일을 가리킨다. 우리는 요한이 정치적인 추방을 당한 것에 대해 여러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있다.

1. 터틀리안, *이단에 대한 처방*, 36
2. 오리겐, *마태복음 설교문*
3.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부자의 구원*, 47
4. 유세비우스, *교회사*, III.20.8-9; (4) 제롬, *실레로 든 남자들에 대해*, 9

1:10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것은 요한이 받은 여러 이상을 나타내는 특별한 구이다(참조, 1:10; 4:2; 17:3; 21:10). 이 구는 계시가 주어진 때의 황홀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행 10:10; 22:17; 고후 12:1 이하). 이것은 유대인의 묵시문학적 특징을 이룬다.

▣ **“주의 날에”** 이것은 성경에서 일요일을 나타내기 위해 이 구를 사용한 유일한 곳이다. 일요일은 요 20:19; 행 20:7; 고전 16:2 에서 “주의 첫 날”로 불리었다.

▣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이 구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상황에서 언급되었다(참조, 출 19:16). 그러나 12a 및 4:1 을 고려할 때 이것은 천사의 목소리를 가리킬 것이다. 천사들이 중간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것은 유대인의 묵시문학적 특징을 이룬다. 계시록은 신약의 다른 어떤 책 보다도 더 많이 천사에 대해 말한다.

특별주제: 이스라엘이 사용한 뿔

히브리어에는 뿔/나팔과 관련된 단어가 4 개 있다.

1. “그 수양의 뿔” (BDB 901) - 소리를 내는 도구로 뿔, 참조, 수 6:5. 같은 단어가 창 22:13 에서 이삭 대신에 아브라함이 사용한 뿔이 걸려 있던 양에 대해 사용되었다.
 2. “나팔” (BDB 1051) - 들 양(야생 염소)을 말하는 아시리아 단어이다. 이것은 출 19:16,19 에 있는 시내산/호렘산에서 사용되었다; 1 항과 2 항은 수 6:5 에서 병행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예배와 전투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였다(즉, 여리고의 경우 두 가지 목적을 가졌다, 참조, 6:4).
 3. “수양의 뿔” (BDB 385) - 수양을 말하는 페니키아어(참조, 6:4,6,8,13). 이것은 또한 희년을 나타냈다(참조, 레 25:13,28,40,50,52,54; 27:17,18,23,24).
- (이 세 가지는 실제로 아무런 구분이 없이 사용되었다. 미쉬나[RH 3.2]는 소의 뿔을 제외하고는 어느 동물의 뿔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양, 염소, 또는 영양)
4. “나팔” (BDB 348) - 아마도 “내뿔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똑바른 뿔(동물의 뿔처럼 굽지 않은 것)를 뜻한다. 은으로 이것을 만들었다(이집트에서 사용하던 것의 모양과 형태를 따라서).
 - ㄱ. 예배 의식에(참조, 민 10:2,8,10)
 - ㄴ. 군사적 목적에(참조, 민 10:9; 31:6; 호 5:8; 스 3:10; 느 12:35,41)
 - ㄷ. 왕의 용도로(참조, 왕하 11:4)

이러한 금속 뿔은 로마의 티투스 개선문에도 나타난다; 또한 요세푸스는 이것에 대해 *유대 고대사*. 3.12.6 에서 설명한다.

1:11 **“두루마리에”** 이것은 *비블리온*이라는 헬라어이다. 이 단어는 작은 책이나 두루마리를 가리킨다. 이 단어는 후에 필사본 혹은 책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용어가 되었다. 요한은 그가 본 환상을 기록하라고 명령을 받았다. 그 환상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일이었다. 그 환상들은 요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묵시문학의 한 특징은 구두에 의한 전달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과 마찬가지로 매우 짜임새 있는 구조를 가진 형태로 기록된 장르에 속한다는 점이다. 미래의 독자에게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유대인의 묵시문학에서는 책이나 두루마리를 종종 사용하였다.

▣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교회들의 순서가 에베소에서 시작하여 에베소에서 끝나는 로마의 우편행로를 따르고 있다. “에베소서”로 알려진 바울의 회람용 책은 이같은 순서를 따라 회람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지 결코 어떤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다!

▣ 흠정역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또 추가시키고 있다. 하지만 어떤고대 헬라어 사본도 이 절에 그러한 구를 삽입시키는 것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개역개정 1:12-16

¹²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 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¹³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¹⁴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¹⁵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¹⁶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12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이것은 회막 안에 있던 메노라(일곱 가지가 있는 촛대, 참조, 출 25:31-40)나 속 4:2 에 나오는 등잔을 가리키지 않는다. 분리되어 있는 각 등잔은 일곱 교회를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었다(참조, 1:20; 2:1).

1:13-18 예수께 대한 이 단락의 묘사는 구약적 배경에서 두 가지와 상당히 관련이 깊다: (1) 야웨 또는 (1) 단 10 장에 나오는 천사.

1:13

NASB	“인자(a son of man) 같은 이”
NKJV	“인자(the Son of Man) 같은 분”
NRSV	“인자(the Son of Man) 같은 이”
TEV	“사람 같이 보이는 이”
NJB	“인자(a Son of Man) 같은 이”

대문자로 된 여부에 주목하라. 이 용어의 용법에 있어서 모호함이 있다. 구약에서 이 용어는 인간을 가리켰다(참조, 시 8:4; 겔 2:1;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한편 이 구는 단 7:13 또는 겔 1:26 에서 인간인 메시아를 가리킨다. 그 메시아의 신성은 다음의 이유에서 추정할 수 있다(참조, 2:18, 그곳에서는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림)

1. 그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심
2. 그가 하늘 구름을 타심
3. 그에게 영원한 왕국을 주심

예수께서는 이 용어를 자신에게 사용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 용어가 랍비적 용법이나 국수적 혹은 군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용어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과 신적 모습을 하나로 합하여 제시한다(참조, 요일 4:1-3; 요 1:1-2,14).

NKJV, NRSV 에서는 “그”로 되어 있지만, NASB, TEV, JB 에서는 “하나의”로 되어 있음을 주목하라. 헬라어 본문에는 **정관사**가 없다(참조, 단 7:13; 히 1:2; 3:6; 5:8; 7:28). 한편, 이것이 하나의 호칭이라는 사실은 그 차이를 크게 만든다. 여기에 나타난 모호성은 의도적인 것이다(요한의 글에 이러한 특징이 있다). 예수께서는 참으로 사람이신 동시에 메시아이신 하나님이다.

▣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구를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1.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표현임(참조, 출 28:4; 29:5; 레 16:4; 속 3:4)
2. 왕이며 부유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임(참조, 삼상 18:24; 24:12; 겔 26:16)
3. 단 10:5-21 에서 해석을 해주는 영광스러운 천사,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예수를 특별히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요세푸스는 그의 책, 유대 고대사 III.7.2,4 에서 대제사장이 금으로 짠 띠를 사용했다고 말한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하늘에 있는 성소(참조, 히 8:1-13; 시 110 편)의 대제사장이시다(참조, 시 110:4-7; 속 3 장).

1:14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이것은 단 7:9 에 있는 바 옛적 시기를 암시한다. 이것은 신약의 저자들이 야웨께 사용한 호칭과 묘사를 예수께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경우에 속한다.

▣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것은 그가 가지신 꿰뚫는 지식을 상징한다(참조, 단 10:6; 계 2:18; 19:12).

1:15

NASB	“풀무불 안에서 빛을 내게 된 빛난 주석 같고”
NKJV	“마치 풀무불에 제련된 정련된 주석 같고”
NRSV	“풀무불에 제련하여 빛난 주석 같고”
TEV	“제련하여 빛낸 주석 같고”
NJB	“풀무불에 제련한 빛난 주석 같고”

여기서 사용한 주석(*카콜리마논*)이라는 단어의 뜻은 분명하지 않다. 주석은 칼코스와 관련된 단어이다(참조, 마 10:9; 고전 13:1; 계 18:22). 이 단어는 겔 1:7 에서 그룹의 발에 대하여, 단 10:6 에서는 천사인 전달자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예수의 발이 같은 단어로써 설명되어(참조, 1:15; 2:18) 그의 천상적 기원 혹은 그의 위엄을 나타낸다.

■ NASB, NKJV, NRSV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TEV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NJB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이것은 다음의 항목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1. 겔 1:24; 43:2 에서 야웨께 대하여
2. 겔 1:24 에서 그룹의 날개에 대하여
3. 단 10:6 에서 천사인 전달자에 대하여(아마도)

이 표현은 천상적 권위를 가진 분의 목소리를 뜻하는 상징임이 분명하다(참조, 14:2; 19:6).

1:16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이 구는 1:16,20; 2:1; 3:1 에서 반복된다. 이 표현은 예수께서 각 지역에 있는 자신의 교회들을 직접 돌보심을 나타낸다.

■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오” *클라우이*는 큰 칼(트라키아 칼)로서 로마 군인들이 지녔던 넓은 폭의 칼을 뜻한다. 이 은유적 표현은 구약의 사 11:4; 49:2 에 나온다. 이 단어는 (1) 전쟁(참조, 2:16; 6:8) (2)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특히 심판의 말씀을 나타낸다(참조, 2:12; 19:15,21; 살후 2:8). 히 4:12 는 다른 종류의 칼 이름(*마카이라*)을 말하지만 같은 개념을 가진다—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단 10:6 과 계 10:1 에서 비슷한 구를 사용하여 천사인 전달자를 묘사한다. 단 12:3(참조, 마 13:43)에서 이 표현은 부활한 의인들을 나타낸다. 변화산 사건시 예수께서 이와 비슷하게 묘사되신다(참조, 마 17:2).

개역개정 1:17-20

¹⁷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¹⁸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¹⁹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²⁰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1:17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이러한 종류의 계시는 항상 그 계시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크게 놀라게 했다(참조, 단 8:17; 10:9; 겔 1:28; 3:23; 마르 2 서 21:26; 에스라 4 서 5:14). 초자연적인 영적 영역이 인간에게 드러나게 되는 일 자체가 두려운 일이다.

■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이 행위는 예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며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나타낸다(참조, 단 8:18; 10:10,18).

■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능동 명령으로서,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추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인간은 초자연적 영역을 두려워한다(참조, 예수님의 말씀, 마 14:27; 17:7; 28:10; 막 6:50; 눅 5:10; 12:32; 요 6:20; 천사의 말, 마 28:5; 눅 1:13,30; 2:10).

■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것은 일반적으로 야웨를 지칭하는 표현이지만(참조, 사 41:4; 44:6; 48:12), 여기서는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께 사용되었다(참조, 8 절; 2:8; 22:13). 이것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구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4 절과 8 절의 설명을 보라.

1:18

NASB, NRSV “살아 있는 분”
 NKJV “나는 살아 계신 그이다”
 TEV “나는 살아 있는 자이다!”
 NJB “나는 살아 계신 분이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인 야웨를 가리키는데, 이 이름은 “~이다”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왔다(참조, 출 3:14).

1:8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라. 그는 항상 살아 계시며, 홀로 살아 계신 분이시다(참조, 단 12:7; 요 5:26). 신약의 저자가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을 예수께 다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예수께서 요 8:58 에서 야웨의 이름을 자신에게 사용하신 용법과 매우 비슷한 경우이다.

■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부활은 다음을 나타낸다:

1. 성부께서 인정하심(참조, 행 2:24; 3:15; 4:10; 5:30; 10:40; 13:30,33,34,37; 17:31; 롬 4:24; 10:9; 고전 6:14; 15:15; 엡 1:20; 골 2:12; 히 13:20; 벧전 1:21)

2. 성령의 능력을 나타냄(참조, 롬 8:11)
 3.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나타냄(참조, 요 10:11,15,17,18)
- 예수의 죽으심에 대한 이 언급은 그의 인성을 부인했던 영지주의 거짓교사들의 주장을 좌절시키는 방법이었다.

▣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유대인들은 죽음을 문이 있는 감옥으로 이해했다(참조, 욥 38:17; 시 9:13; 107:18; 사 38:10; 마 16:19). 열쇠는 권세를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죽으심 및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죽음에 있어서 권세를 가지셨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참조, 5:9-10; 고전 15 장).



NASB, NKJV,

NRSV, NJB

“하데스”

TEV

“죽은 자의 세계”

흠정역은 이것을 “지옥”으로 번역하였는데, 그러한 번역은 *하데스*와 *게헨나*라는 헬라 단어의 혼동에서 생긴 일이다. *하데스*는 구약의 단어인 스올에 해당한다(참조, 6:8; 20:13-14).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땅 속으로 들어가 거기서 가족을 따라 모이는 것으로 묘사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의식을 가졌지만 기쁨이 없는 존재로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사후세계에 대해 조금씩 더 계시하셨다(점진적 계시). 랍비들은 스올이 의로운 자의 장소(낙원)와 악한 자의 장소(탈타루스)로 구분되어 있다고 주장했다(참조, 눅 23:43). 성경은 사후세계에 대해 대략적인 묘사로 제시한다. 성경은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천국(즉, 황금 길, 사방과 높이가 2,400 km 에 이르는 도시, 닫히지 않는 문 등)과 지옥(불, 어두움, 벌레들 등)에 대해 말한다.

특별주제: 죽은 자는 어디에 있는가?

I. 구약

- 가. 모든 인간은 스올(어원이 불확실함, BDB 1066)에 간다. 지혜서와 이사야서에서 이것은 대부분 죽음 또는 무덤을 가리킨다. 구약은 이곳이 그늘진 곳이고 의식을 갖고 있는 곳이지만 기쁨이 있는 상태는 아닌 곳으로 말한다(참조, 욥 10:21-22; 38:17; 시 107:10,14).
- 나. 스올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가 있다(불), 신 32:22
 2. 심판의 날 이전에 있는 형벌과도 관계가 있다, 시 18:4-5
 3.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밭돈*(멸망)과 관계가 있다, 욥 26:6; 시 139:8; 암 9:2
 4. “구덩이”(무덤)와 관계가 있다, 시 16:10; 사 14:15; 겔 31:15-17
 5. 악한 자는 산 채로 스올에 내려간다, 민 16:30,33; 시 55:15
 6. 종종 큰 입을 가진 동물로서 의인화 된다, 민 16:30; 사 5:14; 14:9; 합 2:5
 7. *르피임*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있는 곳, 사 14:9-11

II. 신약

- 가. 히브리어의 스올은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번역된다(보이지 않는 세상)
- 나. *하데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죽음을 가리킨다, 마 16:18
 2. 죽음과 관련이 있다, 계 1:18; 6:8; 20:13-14
 3. 종종 영원한 형벌의 장소(*게헨나*)로 표현된다, 마 11:23(구약의 인용); 눅 10:15; 16:23-24
 4. 종종 무덤으로 표현된다, 눅 16:23
- 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랍비들)
 1. 낙원으로 불리는 의로운 부분(실제적으로 천국에 대한 또 다른 이름, 고후 12:4; 계 2:7), 눅 23:43
 2. *타타루스*라고 불리는 악한 부분, 벤후 2:4, 악한 천사들을 가두어 두는 곳(참조, 창 6 장; 예눅 I 서)
- 라. *게헨나*
 1. 구약의 “히놈의 아들의 골짜기”(예루살렘의 남쪽)를 나타낸다. 이곳은 페니키아의 불의 신인 *몰렉*(BDB 574)에게 어린이를 희생제물로 드린(참조, 왕하 16:3; 21:6; 대하 28:3; 33:6) 장소이다. 이것은 레 18:21; 20:2-5 에서 금지되었다.
 2. 예레미야는 이것을 이방인의 예배장소에서 야웨의 심판 장소로 바꾸었다(참조, 렘 7:32; 19:6-7). 예눅 I 서 90:26-27 과 Sib. 1:103 에서 그곳은 영원한 불 심판의 장소가 되었다.
 3.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어린이를 희생제물로 드린 이방 숭배에 참여한 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곳을 예루살렘의 쓰레기 하치장으로 바꾸었다. 영원한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은유의 많은 부분은 이 쓰레기 하치장에서 왔다(불, 연기, 벌레, 악취. 참조, 막 9:44,46). 오직 예수님만 *게헨나*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다(약 3:6 을 제외하고).

4. 예수께서 사용하신 용어인 *게헨나*
 - ㄱ. 불, 마 5:22; 18:9; 막 9:43
 - ㄴ. 영구적인, 막 9:48(마 25:46)
 - ㄷ. 멸망의 장소(영과 육 모두), 마 10:28
 - ㄹ. 스올과 평행된, 마 5:29-30; 18:9
 - ㅁ. 악한 자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특징짓는, 마 23:15
 - ㅂ. 사법적 판결의 결과, 마 23:33; 눅 12:5
 - ㅅ. *게헨나*의 개념은 두 번째 죽음(참조, 계 2:11; 20:6,14) 또는 불의 못(참조, 마 13:42, 50; 계 19:20; 20:10,14-15; 21:8)과 평행을 이룬다. 불의 못을 인간(스올에서)과 악한 천사(*타타루스*에서, 뱀후 2:4; 유 6 절 또는 지옥, 참조, 눅 8:31; 계 9:1-10; 20:1,3)가 영원히 거할 장소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 . 이것은 사람을 위해 계획된 것이 아니라 사탄이나 그의 천사들을 위한 것이다, 마 25:41
- 마. 스올, *하데스*, *게헨나*의 의미가 중복되므로 다음 설명이 가능하다
 1. 원래 모든 인간은 스올/*하데스*에 갔다
 2. 심판의 날 이후에 그곳에서 갖는 그들의 경험(좋고/나쁜)은 심화될 것이지만, 악한 자의 장소는 그대로 남을 것이다(KJV 역이 *하데스*(무덤)를 *게헨나*(지옥)로 번역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3. 심판 전에 받는 고통에 대해 언급한 신약 본문은 오직 눅 16:19-31의 비유이다 (나사로와 부자). 스올은 또한 현재의 형벌 장소로서 묘사된다(참조, 신 32:22; 시 18:1-5). 그러나 비유에 근거하여 교리를 세울 수는 없다.

III. 죽음과 부활의 중간 상태

- 가. 신약은 죽음 이후에 대한 여러 고대 관점 중의 하나인 “영혼의 불멸”을 가르치지 않는다.
 1. 인간의 영혼이 그들의 육체적 생명이 있기 전에 존재한다
 2. 인간의 영혼은 육체적 죽음 이전과 이후에 영원하다
 3. 종종 육체적 몸은 감옥으로, 죽음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 가는 것으로 말해진다
- 나. 신약은 죽음과 부활 사이를 육체가 분리된 상태로 암시한다.
 1. 예수님은 몸과 영혼을 나누어 말씀하신다, 마 10:28
 2. 아브라함은 지금 몸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막 12:26-27; 눅 16:23
 3. 모세와 엘리야는 변화산상에서 육체적 몸을 가지고 있다, 마 17 장
 4. 재림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영혼들이 그들의 새 몸을 먼저 갖게 된다고 바울은 주장한다, 살전 4:13-18
 5. 부활의 날 믿는 자들이 새로운 영적 몸을 가진다고 바울은 주장한다, 고전 15:23,52
 6. 믿는 자들은 *하데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주장한다, 고후 5:6,8; 빌 1:23.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고, 의로운 자를 하늘로 취하셔서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신다, 뱀전 3:18-22.

IV. 천국

- 가. 이 용어는 성경에서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1. 지구 위의 대기, 창 1:1,8; 사 42:5; 45:18
 2. 하늘의 별, 창 1:14; 신 10:14; 시 148:4; 히 4:14; 7:26
 3. 하나님 보좌의 자리, 신 10:14; 왕상 8:27; 시 148:4; 엡 4:10; 히 9:24(삼층천, 고후 12:2)
- 나. 성경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많은 것을 나타내지 않았다. 아마 타락한 인간이 그것을 이해할 방법도 능력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참조, 고전 2:9).
- 다. 천국은 장소일 뿐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말한다(참조, 고후 5:6,8). 천국은 회복된 에덴동산일 수 있다(창 1-2 장; 계 21-22 장). 땅은 정결하여지고 회복될 것이다(참조, 행 3:21; 롬 8:21; 뱀후 3:10). 하나님의 형상(창 1:26-27)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것이다. 지금 에덴동산의 친밀한 교제는 다시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이 아니라 은유적인 것이다(계 21:9-27의 크고 네모 반듯한 도시인 천국). 고전 15 장은 육의 몸과 영의 몸이 다름을 성장한 식물의 씨로서 묘사한다. 고전 2:9(사 64:6과 65:17에서의 인용)은 참으로 위대한 약속이며 희망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과 같을 것임을 나는 안다(참조, 요일 3:2).

V. 도움이 되는 자료

- 가. 윌리엄 헨드릭슨,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성경말씀*
- 나. 모리스 톨링스, *죽음의 문 너머*

1:19 이 구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이중 혹은 삼중적인 환상이다. 이 헬라이어 구는 현재 일어나는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묘사(즉 이중적인 묘사)를 제시한다. 요한은 자신의 시대에 대하여는 물론 미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 책은 종말론적 사건을 드러내는 현재의 사건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예언자적 메시지가 갖는 두 가지 면을 하나로 모아 제시한다. 이 책은 요한 당시의 박해를 말하며 모든 시대에 있는 박해에 대해 말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에 의해 일어날 박해에 대해 말한다(참조, 단 9:24-27; 살후 2 장).

1:20 “일곱 별의 비밀과” 바울이 비밀(*μυστήριον*)이라는 이 용어를 여러 의미로 사용하였지만, 이 용어는 항상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우며 영원한 계획과 관련을 가진다. 그것은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한 몸으로 연합되는 일이다(참조, 엡 2:11-3:1-13).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께서 2 장과 3 장에서 말씀하시는 일곱 교회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다. 20 절에서 볼 때, 일곱 영, 일곱 별, 일곱 금 촛대, 일곱 천사는 일곱 교회를 나타내는 상징임이 분명하다. 이 용어는 17:7 에서 감추인 의미로서 한 상징을 나타내기 위해 비슷한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10:7 의 설명과 특별주제를 보라.

▣ **“천사들”** 헬라이어의 *앙겔로스*와 히브리어의 *말악이* “사자들” 혹은 “천사들”로 번역된다. 그들의 정체에 관하여 여러 이론이 제시되었다.

1. 어떤 이들은 그들이 4 절에서 언급한 일곱 영이라고 주장한다.
2. 어떤 이들은 그들이 이 교회들의 목회자들이라고 주장한다(참조, 말 2:7).
3. 어떤 이들은 그들이 이 교회들을 지키는 천사들이라고 주장한다(참조, 단 10:13,20,21).

그들이 상징적으로는 목회자나 천사를 나타내지만, 의인법적으로 볼 때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1 장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힌트를 제공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무엇이 그러한 힌트인가?
2. 요한계시록은 주로 그 당시에 대한 책인가 아니면 마지막 때에 대한 책인가? 왜 그러한가?
3. 요한이 구약을 아주 많이 암시하면서도 왜 구약의 본문에 대한 직접적인 인용을 전혀 하지 않았는가?
4. 이 장에는 하나님께 사용된 칭호가 왜 그렇게 다양하고 많은가?
5. 왜 12-20 절의 묘사가 2 장과 3 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와 각기 관련을 갖는가?
6. 영광을 받으신 예수께서 왜 단 10 장에 나오는 천사와 상당히 비슷하게 묘사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2-3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이어 본문 (UBS ⁴)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사랑없는 교회	처음 편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
2:1a	2:1-7	2:1	2:1a	2:1-7
2:1b-7a		2:2-7	2:1b-7a 2:7b	
서머나에 보내는 편지	박해받은 교회	두 번째 편지	서머나에 보내는 편지	서머나
2:8a	2:8-11	2:8	2:8a	2:8-11
2:8b-10		2:9-10	2:8b-10 2:11a 2:11b	
버가몬에 보내는 편지	타협하는 교회	세 번째 편지	버가몬에 보내는 편지	버가몬
2:12a	2:12-17	2:12	2:12a	2:12-13
2:12b-17		2:13-17	2:12b-16 2:17a 2:17b	2:14-17
디아디라에 보내는 편지	타락한 교회	네 번째 편지	디아디라에 보내는 편지	디아디라
2:18a	2:18-29	2:18	2:18a	2:18-29
2:18b-29		2:19-29	2:18b-23 2:24-28 2:29	
사데에 보내는 편지	죽은 교회	다섯 번째 편지	사데에 보내는 편지	사데
3:1a	3:1-6	3:1a	3:1a	3:1-6
3:1b-6		3:1b-6	3:1b-5 3:6	
빌라델비아에 보내는 편지	충성된 교회	여섯 번째 편지	빌라델비아에 보내는 편지	빌라델비아
3:7a	3:7-13	3:7	3:7a	3:7-13
3:7b-13		3:8-1	3:7b-12 3:13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	미지근한 교회	일곱 번째 편지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	라오디게아 편지
3:14	3:14-22	3:14	3:14a	3:14-22
3:14b-22		3:15-22	3:14b-22	
			3:22	

독서의 세 번째 단계 (v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가. 이 문학적 단락(2-3 장)은 야웨께 사용한 구약의 호칭을 메시아에 대해 사용하고 있다(참조, 1:12-20). 이것은 신약의 저자가 예수의 신성을 확증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요한계시록은 야웨께 사용된 호칭과 야웨의 행동을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메시아이신 예수께 사용하고 있다.
- 나. 이 단락의 목적은 1 세기의 교회가 가진 영적 필요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 때의 교회는 유추적으로 말하는 모든 교회를 가리킨다(즉, 일곱이라는 수). 요한은 노년에 소아시아 특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였다. 요한은 이 교회들과 도시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 편지들은 기독교의 윤리적 면을 나타낸다. 그 편지들은 충성됨과 경건함을 요청하고 있다. 교회는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참조, 고후 5:10).
- 다. 요한의 시대에 로마의 도인 소아시아에는 많은 교회가 있었다. 왜 저자는 단지 일곱 교회에만 편지를 쓰고 있는가?
 1. 이 수는 성경에서 완전함을 뜻한다(참조, 창 1 장). 요한의 많은 예언이 일곱으로 구성되었다.
 2. 이 교회들은 에베소에서 시작하여 라오디게아로 마쳐지는 여행코스를 이룬다. 이것은 아마도 로마제국의 우편로였을 것이다.
 3.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교회들은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권에서라도 발견되는 교회들을 대표한다.
- 라. 이 문학 단락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가지는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1. 어떤 해석가들은 이 교회들이 오순절 사건에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의 서구 역사를 예언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 ㄱ. 에베소 = 사도시대, 주후 33-100 년 (오순절부터 요한까지)
 - ㄴ. 서머나 = 박해시대, 주후 100-313 년 (요한에서부터 콘스탄틴까지)
 - ㄷ. 버가모 = 콘스탄틴시대, 주후 313-590 년 (콘스탄틴부터 그레고리까지)
 - ㄹ. 두아디라 = 로마교황, 주후 590-1517 년 (그레고리부터 루터까지)
 - ㅁ. 사데 = 종교개혁, 주후 1517-1792 년 (루터부터 케리까지)
 - ㅂ. 빌라델비아 = 근대 선교 운동, 1792-1914 년 (케리부터 휴거까지)
 - ㅅ. 라오디게아 = 배교의 시대, 주후 1914-파루시아 (제 1 차 세계대전부터 파루시아)

이것은 비교적 최근에 제시된 해석학적 틀로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로 특징된다(일반적으로 이 주지는 마 13 장이 일곱 교회와 평행을 이룬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본문 자체에는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 비록 서구의 역사가 이 구도에 어느 정도 들어맞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가 그러한 것은 아니다. ‘성경이 전적으로 서구 문화에 대한 내용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만한 주장에 속한다. 그러한 구도는 제 1 세기의 청중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2. 어떤 해석가들은 이 교회들을 모든 세대와 모든 문화에 있는 교회들의 대표적 샘플로서 이해한다
 마. 예언서/묵시를 이해함에 있어서 내게 도움을 준 책은 D. 브렌트 샌디, *보습과 전정 고리: 예언과 묵시에 대한 성경의 언어를 다시 생각함*이다. 그는 계 2 장과 3 장에서 신실한 신자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에 대하여 흥미로운 신학적 관점을 제시한다(28-32 쪽). 그는 약속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한다

1. 생명나무
2. 생명의 면류관
3. 흰 돌
4. 열방에 대한 권세
5. 새벽 별
6. 흰 옷을 입음
7.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8. 하나님의 이름
9. 예루살렘의 이름
10. 하나님의 보좌에 앉음

그는 이 약속들이 문자적 내용 혹은 개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21:3 에서 보듯이 공동체에 성취되는 약속의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장르에 대한 그의 해석학적 접근방법이 적합하다고 평가한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가. 많은 주석가들은 대부분의 편지에서 7 가지 요소가 나타난다고 말한다. 그 일곱 요소가 모든 교회마다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1.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_____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참조, 2:1,8,12,18; 3:1,7,14).
 2. 1:12-20 에서 예수를 묘사한 내용이 각 편지에서 사용된다. 이 묘사는 구약에서 야웨의 칭호와 그의 행하심을 나타내는 묘사이다.
 3. 예수께서 각 교회의 형편을 잘 아신다(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내가 아노니...” (참조, 2:2,9,13,19; 3:1,8,15).
 4. 예수께서 각 교회의 문화적 지리적 영적 환경에 대해 말씀하신다.
 5. 예수께서 곧 있을 자신의 급작스러운 오심을 일시적인 심판 혹은 재림으로 언급하신다(참조, 1:1,3; 2:5,16,25; 3:3,11).
 6. 예수께서 영적인 청종과 깨달음을 권고하신다(참조, 2:7,11,17,29; 3:6,13,22). 예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복음서의 표현을 사용하셨다(참조, 마 11:15; 13:9,42; 막 4:24).
 7. 예수께서는 신실한 자들에게 대하여 상을 약속하신다(참조, 2:7,11,17,25-26; 3:4-5,11-12,21).
- 이러한 일곱 단계가 각 편지마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교회의 경우에는 이 순서가 다르고 어떤 요소가 바뀌어져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요한이 사용한 7 중적인 문학적 구조가 드러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편지가 보내진 도시들

가. 에베소

1. 이 도시는 로마의 소아시아도 가운데 가장 큰 도시였다. 이 도시가 도의 수도가 아니었음에도 로마 도지사가 이곳에서 살았다. 이 도시의 천혜의 항구로 인하여 상업적 중심지가 되었다.
2. 이 도시는 자치정부와 많은 자유를 누린 자유도시였다. 로마 군대가 이곳에 주둔하지도 않았다.
3. 이곳은 유일하게 매 2 년 아시안 게임을 열 수 있게 허락받은 도시였다.
4. 이곳에 아테미 신전이 있었다(라틴어로는 다이아나). 이 신전은 당시 세계 7 대 불가사의의 하나였다. 이 신전의 면적은 127 m x 66 m 로서 127 개의 기둥이 있었다. 각 기둥의 높이는 18 m 에 이르렀는데 86 개의 기둥은 금으로 덮여 있었다(플리니의 *Hist. Nat.* 36:95 이하를 보라). 아테미 상의 모습은 많은 수의 유방을 가진 여성을 닮은 유성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그 도시에 신전에서 일하는 많은 수의 창녀가 있었음을 뜻한다(참조, 행 19 장). 이 도시는 상당히 부도덕한 다문화적 환경을 가졌다.
5. 바울은 이 도시에서 3 년 이상을 머물렀다(참조, 행 18:18 이하; 20:13).
6. 전통에 의하면 마리아가 팔레스타인에서 죽은 후에 요한이 이곳에서 살았다.

나. 서머나

1. 이 도시는 서머나로 불리는 여장부(강한 여성 지도자)가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요한이 살던 시대에는 약 20 만 명이 이곳에서 살았다.
2. 이 도시는 에게해 연안에 위치했다. 이상적인 자연항구가 있었기에 소아시아에서는 에베소 다음으로 큰 상업도시를 이루었다. 이 도시는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다.
3. 이곳은 주전 600 년 경에 리디아 사람들에게 멸망당했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계획에 따라 바닷 바람이 모든 거리에 미치는 도시로 리시미커스가 재건하였다.
4. 미스라닷에게 패하여 퇴각하는 로마 군인들을 이 도시의 사람들이 도왔기에, 이 도시도 자유도시가 되었다.
5. 이 도시는 여신 로마(주전 195 년)와 황제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다. 디베리우스 황제의 처음 신전이 이 도시에 세워졌다(주후 26 년).
6. 이곳은 사이벨레 및 호머의 만신전과 관련을 가진 종교적 중심지가 되었다. 호머가 이곳에서 출생하였다는 전통도 등장하였다. 제우스 신전과 사이벨레 신전을 연결하는 황금길에 위치한 파고스 광장에 많은 신전이 있었다.
7. 이곳에 그리스도인들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살았다.
8. 폴리킵(사도 요한의 제자)이 주후 155 년에 바로 이 도시에서 순교당했다.

다. 버가모

1. 이 도시는 주요 무역로에 위치하지 않았음에도 소아시아의 수도(주전 282 년 이후로) 및 가장 부유한 도시였다.
2. 이 도시에는 로마제국에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서관이 있었다. 20 만개의 양피지 사본이 있었다!
3. 가죽종이가 이곳에서 개발되었다. 가죽 위에 글을 기록할 수 있도록 짐승의 가죽을 가공하는 일이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들에게 파피루스 갈대를 팔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기록을 위하여 이러한 종류의 재료가 개발되었다. 그 배경으로는 이 도시의 왕인 유메네스 II 세(주전 197-159 년)가 알렉산드리아의 사서인 아리스토파네스를 고용하려고 한 일에 기인한다. 툴레미 왕조의 왕인 알렉산드리아의 에피파네스(주전 205-182 년)가 이를 알고 사서를 체포하는 한편 버가모에 대하여 파피루스 수출을 금지시켰다. 학적 중심지를 이루는 이 두 도시 사이에 커다란 경쟁의식이 있었다. 후에 안토니는 버가모의 도서관을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선물로 알렉산드리아에 보냈다.
4. 이 도시는 의사 갈렌의 고향이었고 아스클레피오스의 치료를 위한 예술의 중심지였다. 이스클레피오사가 “버가모의 신”이었던 말도 있을 정도였다. 뱀이 이 신을 상징했다.
5. 이 도시에 로마 신전과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전(주후 29 년) 및 황제숭배를 위한 행정중심지(베오코프로스)가 있었다. 이 도시는 로마에 나타난 충성심으로 잘 알려졌다.
6. 이 도시는 헬라의 모든 신을 예배하고 그러한 예배를 옹호한 것으로 유명하다. 전 시내를 내려다 보는 곳에 위치한 광장에 거대한 제우스 신전이 있었다. 그 모습이 보좌의 모습을 가졌다(즉, 사탄의 보좌).

라. 두아디라

1. 이곳은 작은 상업도시였다. 번창한 여러 상업 길드에 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다. 각 길드마다 후원자로 정해진 신이 있었다. 이 도시는 버가모와 사테를 잇는 주요 도로 사이에 위치했는데, 이 도로는 빌라테비아와 라오디게아까지 이어졌다. 이곳은 양모의 생산으로 유명했다. 자주 옷감 장사인 루디아(참조, 행 16:14)는 이 도시 출신이었다.
2. 이 도시를 셀류쿠스 니카테오가 확장시켰다. 그는 이곳에 자신의 마케도니아 군인들을 주둔시켰다.
3. 이곳에는 지역신들을 위한 여러 신전이 있었다
 - ㄱ. 타이립노스(아폴로) - 태양신
 - ㄴ. 아르테미스(다이아나) - 사랑의 여신
 - ㄷ. 시빌 삼바테 - 그 지역의 점장이 여신

마. 사테

1. 이 도시는 크고 부유한 고대 도시였다. 이 도시는 여러 해 동안 리디아 제국의 부유한 수도였는데 그 이유는 이곳이 해발 450 m 의 능선에 위치한 뛰어난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이었다. 고레스 대왕이 이 도시를 점령하였기에 페르시아의 기록에서 이 도시를 언급하고 있다. 이 도시는 오바다 20 절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 도시는 요한 당시에는 많이 쇠퇴하였다.
2. 이 도시는 양모의 염색 산업으로 유명했다. 그 염색 과정이 이곳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했다. 이 도시는 어머니 여신인 사이벨레를 숭배하는 중심지였다. 그 광장에는 이 신전의 잔해가 아직 남아 있다. 지나치게 이 여신을 숭배한다고 로마 제국 전역에 알려졌으며 또 그러한 사실을 인하여 개탄했다.

바. 빌라델비아

1. 이 도시는 고원에 위치했으며 물에 의해 보호를 받았다. 이러한 조건은 이 도시를 매우 이상적인 군사적 요충지로 만들었다. 이 도시는 일곱 도시 가운데 가장 나중에 세워진 도시였다. 이 도시는 앳타루스 II 세(주전 159-138 년)에 의하여 세워졌다.
2. 이 도시는 사테와 연결되는 주요 무역로에 위치하였기에 번창했다.
3. 이 도시는 곡창지대, 특히 포도의 주산지라 끼고 있었다. 바쿠스 혹은 디오니수스는 이들이 섬긴 주요 신들이었다. 이 도시는 지진이 활발히 일어나는 지대에 있어 주후 17년에는 대지진으로 도시가 무너졌다. 이 때 일어난 지진은 10 개의 다른 큰 도시도 무너뜨렸다. 한편, 계속된 여진으로 인구의 상당 수가 주위의 지역으로 이주했다.
4. 이곳이 황제숭배의 중심지였기에(서머나와 버가모도 그러했다), 교회에 대해 이 도에서 일어난 박해의 많은 경우는 이 도시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5. 이 도시는 헬라적인 문화의 주요 중심지로서 적극적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여 나갔다. 바로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미시아, 리디아, 브뤼기아와 인접한 지역에 이 도시가 세워진 것으로 여겨진다.

사. 뤼커스 강에 있는 라오디게아

1. 이 도시는 뤼커스 강의 계곡에 있는 세 도시 가운데 하나이다(다른 두 도시는 골로새와 히에라폴리스이다). 교회들이 이 세 도시에 모두 세워졌는데, 아마도 바울을 통해 믿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되었을 것이다(참조, 골 1:17; 4:12-13).
2. 이 도시를 셀류시드의 왕인 안티오쿠스 II 세가 자기 아내인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서 주전 250 년에 건설했다. 이 도시는 빌라델비아의 경우처럼 군사적인 방어가 가능한 위치에 세워졌다.
3. 이 도시는 동서를 잇는 주된 무역로에 위치했다. 이 도시는 은행업의 중심지로 알려졌다.
4. 이곳은 기름진 농토와 목초지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특히 전세계에 잘 알려진 검은색 양을 기르는 장소로서 유명했다. 이곳에서는 “*트리메타*”로 불리는 검은 외투를 많이 생산했다.
5. 이곳에 많은 유대인이 살았다.
6. 버가모의 경우와 같이 이곳도 여신 아스클레피오스를 예배하는 중심지였다. 이 도시는 귀와 눈에 바르는 고약으로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2:1

¹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2:1 “사자”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천사는 사자(메신저)를 의미할 수 있다. 이 단어는 다음 항목을 가리킬 것이다

1. 목회자(참조, 말 2:7)
2. 교회의 천사(참조, 단 10 장)
3. 각 회중을 위한 독특한 영 혹은 성격

이같은 구가 각 편지의 서두에서 사용되고 있다(참조, 2:1,2,12,18; 3:1,14).

▣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이 헬라어는 “~로 부터”와 “부르다”라는 두 헬라어 단어로 된 합성어이다. 70 인역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 히브리어인 *카할*(“이스라엘의 회중”)을 번역하였다. 초대교회는 이 단어를 다음의 이유에서 자신들에게 대하여 사용하였다

1. 그들이 자신들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
2.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과 사역을 위해 부르신 자들로 여김

1:4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일곱 별을 붙잡고” 이것은 예수께 대한 설명으로서 1:16 에서 취한 내용이다. 일곱 별은 교회들을 가리킨다(참조, 1:20). “붙잡고”(현재 능동 분사)는 굳게 잘 잡고 있음을 나타낸다(참조, 요 10:28). 오직 그들이 회개하기를 스스로 거부하거나 예수를 따르기 거부하는 것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또 어느 누구라도 예수께로부터 이 교회들을 분리시킬 수 없다(참조, 롬 8:31-39)! 불신앙만이 그들을 분리시킬 수 있다.

▣ “오른손에 있는” 이것은 힘과 권세를 나타내는 신인동형적 표현이다(물질적 용어로서 하나님을 묘사하기, 참조, 1:16,17,20; 2:1; 5:1,7).

▣ “거니시는 이가” 이것은 창 3:8 에서서 사용된 신인동형적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계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참조, 레 26:12).

특별주제: 인간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신인동형적 언어)

- I. 이러한 용법은 구약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종류의 표현이다(일부만 예로 들었음)
- 가. 신체의 일부분
1. 눈 - 창 1:4,31; 6:8; 출 33:17; 민 14:14; 신 11:12; 속 4:10
 2. 손 - 출 15:17; 민 11:23; 신 2:15
 3. 팔 - 출 6:6; 15:16; 신 4:34; 5:15; 26:8
 4. 귀 - 민 11:18; 삼상 8:21; 왕하 19:16; 시 5:1; 10:17; 18:6
 5. 얼굴 - 출 33:11; 민 6:25; 12:8; 신 34:10
 6. 손가락 - 출 8:19; 31:18; 신 9:10; 시 8:3
 7. 소리 - 창 3:8,10; 출 15:26; 19:19; 신 26:17; 27:10
 8. 발 - 출 24:10; 겔 43:7
 9. 인간의 모양 - 출 24:9-11; 시 47 편; 사 6:1; 겔 1:26
 10. 하나님의 천사 - 창 16:7-13; 22:11-15; 31:11,13; 48:15-16; 출 3:4,13-21; 14:19; 삿 2:1; 6:22-23; 13:3-22
- 나. 신체적 행동
1. 창조의 방편으로 말씀하심 - 출 1:3,6,9,11,14,20,24,26
 2. 에덴에서 걸으심(즉, 소리) - 창 3:8; 레 26:12; 신 23:14
 3. 노아의 방주 문을 닫으심 - 창 7:16
 4. 번제를 흠향하심 - 창 8:21; 출 29:18,25; 레 26:31
 5. 내려 오심 - 창 11:5; 18:21; 출 3:8; 19:11,18,20
 6. 모세를 묻으심 - 신 34:6
- 다. 인간의 감정(일부만 예로 들었음)
1. 후회하심/회개하심 - 창 6:6,7; 출 32:14; 삿 2:18; 삼상 15:29,35; 암 7:3,6
 2. 화내심 - 출 4:14; 15:7; 민 11:10; 12:9; 22:22; 25:3,4; 32:10,13,14; 신 6:15; 7:4; 29:20
 3. 시기하심 - 출 20:5; 34:14; 신 4:24; 5:9; 6:15; 32:16,21; 수 24:19
 4. 싫어하심/혐오하심 - 레 20:23; 26:30; 신 32:19
- 라. 가족적 용어(일부만 예로 들었음)
1. 아버지
 - ㄱ. 이스라엘의 - 출 4:22; 신 14:1; 사 1:2; 63:16; 64:8
 - ㄴ. 왕의 - 삼하 7:11-16; 시 2:7
 - ㄷ. 아버지의 행동을 은유적으로 - 신 1:31; 8:5; 시 27:10; 잠 3:12; 렘 3:4,12; 31:20; 호 11:1-4; 말 3:17
 2. 부모 - 호 11:1-4
 3. 어머니 - 시 27:10(젓먹이는 어머니에 대한 유추); 사 49:15; 66:9-13
 4. 신실한 젊은 연인 - 호 1-3 장
- II. 이러한 종류의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
- 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을 남성으로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 표현은 신인동형적 표현이다!
- 나. 타락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의미있는 관계를 취하여 말씀하신다(아버지, 어머니, 부모, 연인)
- 다. 비록 그것이 필요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육체적 형태로 제한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참조, 출애굽기 20 장; 신명기 5 장)
- 라. 궁극적인 신인동형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나타난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만진 바 되셨다(참조, 요일 1:1-3).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셨다(참조, 요 1:1-18).

▣ “**금 촛대**” 이것은 회막에 있는 등잔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곱 교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다(참조, 1:12-13).

▣ “**이르시되**” 예수께서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은 마 28:18-20 혹은 행 1:7-11 이 아니라 계 2-3 장의 말씀이다.

개역개정 2:2-7

²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³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⁴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⁵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⁶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콜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⁷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2:3 “아노라” 이것은 *오이디의 완료 능동 직설법*이지만 *현재형*으로 번역된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보시며 이해하시며 돌보신다. 그가 돌아보심은 확증함과 훈련함을 위함이다(이것은 부모의 사랑이 갖는 특징이다). 이같은 구가 일곱 편지에서 반복되어 나타난다(참조, 2:2,4,13,19; 3:1,8,15).

이 단어의 구약적 배경은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낸다(참조, 창 4:1; 램 1:5).

특별주제: 알다(대부분 신명기를 전형적인 예로 사용함)

히브리어의 “알다”(BDB 393)는 *칼 동사형*에서 여러가지 의미(의미의 장)를 나타낸다.

1. 선과 악을 이해하다 - 창 3:22; 신 1:39; 사 7:14-15; 욥 4:11
2. 이해하여 알다 - 신 9:2,3,6; 18:21
3. 경험으로 알다 - 신 3:19; 4:35; 8:2,3,5; 11:2; 20:20; 31:13; 수 23:14
4. 고려하다 - 신 4:39; 11:2; 29:16
5. 개인적으로 알다
 - ㄱ. 사람 - 창 29:5; 출 1:8; 신 22:2; 28:35,36; 33:9
 - ㄴ. 신 - 신 11:29; 13:2,6,13; 28:64; 29:26; 32:17
 - 야웨 - 신 4:35, 39; 7:9; 29:6; 사 1:3; 56:10-11
 - ㄷ. 성적으로 - 창 4:1,17,25; 24:16; 38:26
6. 습득한 기술 또는 지식 - 사 29:11,12; 암 5:16
7. 지혜로움 - 신 29:4; 잠 1:2; 4:1; 사 29:24
8. 하나님께서 아심
 - ㄱ. 모세를 - 신 34:10
 - ㄴ. 이스라엘을 - 신 31:21,27,29

2:2 “네 행위와 수교” 이 교회는 활동적인 교회였지만 그리스도와 교제에 우선권을 두는 것을 잊어버렸다(참조, 2:4). 그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그들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가 버렸다(참조, 갈 3:1).

▣ “인내” 이 단어는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견고한 인내를 뜻한다. 이것은 이 책의 주요 주제이다(참조, 1:9; 2:2,3,19; 3:10; 13:10; 14:12).

인내는 반드시 안전함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참조, 2:7,11,17,26; 3:5,11-12,21). 대부분의 성경진리는 변증법적이고 길으로 보기에 역설적인 쪽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쪽이 다 진리이기에, 어느 한 쪽만 진리로 취하여서는 안된다. 구원은 초기에 갖는 회개와 믿음과 더불어 삶으로 드러나는 회개와 믿음과 순종과 견고히 섬을 의미한다!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인내의 필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계있는 성경의 교리들은 그것이 전형적인 동양의 변증법적 쌍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 쌍은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둘 다 성경적이다. 서양의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한 쪽을 선택하고 그 반대 쪽은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다음의 예를 보라:

1.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기 위한 최초의 결심인가, 아니면 제자도에 대한 전 생애에 걸친 헌신인가?
2. 구원은 주권자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선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제안에 대해 인간이 믿고 회개하는 응답인가?
3.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잃을 수 없는가, 아니면 지속적인 노력이 이에 필요한가?

인내의 주제에 대하여 교회역사를 통해 의견이 분분했다. 명백히 상충되는 신약의 본문을 인해 문제가 생겼다:

1. 확신에 대한 본문
 - ㄱ.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진술(요 6:37; 10:28-29)
 - ㄴ. 바울의 진술(롬 8:35-39; 엡 1:13; 2:5,8-9; 빌 1:6; 2:13; 살전 3:3; 딤후 1:12; 4:18)
 - ㄷ. 베드로의 진술(벧전 1:4-5)
2. 인내의 필요에 대한 본문
 - ㄱ. 공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진술(마 10:22; 13:1-9,24-30; 24:13; 막 13:13; 요 8:31; 15:4-10; 계 2:7,17,20; 3:5,12,21)

- 나. 바울의 진술(롬 11:22; 고전 15:2; 고후 13:5; 갈 1:6; 3:4; 5:4; 6:9; 빌 2:12; 3:18-20; 골 1:23)
- ㄷ. 히브리서 저자의 진술(2:1; 3:6,14; 4:14; 6:11)
- ㄹ. 요한의 진술(요일 2:6; 요이 9 절)
- ㅁ. 성부의 진술(계 21:7)

성경적 구원은 주권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에서 비롯된다. 성령의 시작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참조, 요 6:44,65).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일을 이루시지만, 하나님은 이에 대해 인간이 믿음과 회개로써 처음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응답하기를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언약적인 관계에서 사람들과 일하신다. 이것은 특권이고 또한 책임이 따르는 일이다!

구원은 모든 인간에게 제시되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타락한 피조물의 죄의 문제를 다루셨다! 하나님은 길을 준비해 주셨고 그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하심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

만약 당신이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읽기 원한다면 다음을 보라

1. 대일 무디, *진리의 말씀*, 어드만스, 1981 (348-365 쪽)
2. 하워드 마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됨*, 베다니 펠로우쉽, 1969
3. 로버트 쉐크,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웨스트코트, 1961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문제 곧 (1) 열매 없는 이기적인 삶을 살기 위한 면허증을 갖게 하는 확신 (2) 사역과 개인적인 죄로 씨름하고 있는 사람을 격려 하는 일에 대해 말한다. 잘못된 그룹의 사람들이 메시지를 잘못 취하여 일부 국한된 성경본문 위에 신학적 체계를 세우는 일이 문제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필사적으로 확신의 메시지를 필요로 한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엄격한 경고를 필요로 한다! 당신은 어떤 그룹에 속하는가?

어거스틴 대 펠라기우스 및 칼빈 대 알미니안(반 페라기우스) 사이에 역사적 신학적 논쟁이 있었다. 이 주제는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인내하며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가?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 및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능력에 대해 말하는 성경본문(요 10:27-30; 롬 8:31-39; 요일 5:13,18; 뱀전 1:3-5) 및 엡 2:5,8의 **완료 수동 분사**같은 **동사 시제**를 앞세워 주장한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신자들에게 주는 “견디라,” “지속하라” 혹은 “계속하여 하라”와 같은 경고를 말하는 성경본문을 앞세워 주장한다(마 10:22; 24:9-13; 막 13:13; 요 15:4-6; 고전 15:2; 갈 6:9; 계 2:7,11,17,26; 3:5,12,21; 21:7). 나는 개인적으로 히 6장과 10장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는데, 많은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이 본문들을 배교에 대한 경고로 본다. 마 13장에 나오는 씨뿌리는 자의 비유는 요 8:31-59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 말한다. 칼빈주의자들은 구원을 말하기 위하여 **완료 시제 동사**가 있는 본문을 인용하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고전 1:18; 15:2; 고후 2:15의 경우처럼 **현재 시제**를 갖는 본문을 인용한다.

이것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본문을 사용하는 해석을 신학적 체계가 얼마나 남용하는지를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예이다. 대개의 경우, 모든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신학적 틀로써 어떤 주요 원리나 본문을 사용한다. 이러한 틀이 어떤 자료에서 온 것이든 이것의 사용에 대해 조심하여야 한다. 그것은 계시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서구적 논리에서 온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긴장을 이루는 진리의 양쪽을 받아들이며, 또 그러한 긴장을 유지하고 살아야 한다. 신약은 신자들에게 믿음에 따른 안전함과 더불어 계속적인 믿음과 경건에 대한 요구를 제시한다. 기독교는 최초의 회개와 믿음으로 하는 응답과 더불어 계속되는 회개와 믿음의 응답을 요구한다. 구원은 어떤 산물(천국행 표나 화재보험에 가입함)이 아니라 관계를 말한다. 이것은 결단이요 제자됨이다. 신약은 모든 **동사 시제**를 사용하여 구원을 설명한다:

부정과거(완료된 행위), 행 15:11; 롬 8:24; 딤후 1:9; 딤후 3:5

완료형(계속적인 결과를 낳는 완료된 행위), 엡 2:5,8

현재(계속적 행위), 고전 1:18; 15:2; 고후 2:15

미래(미래의 사건 혹은 어떤 일들), 롬 5:8,10; 10:9; 고전 3:15; 빌 1:28; 살전 5:8-9; 히 1:14; 9:28.



NASB	“악한 자들을”
NKJV	“악한 사람들을”
NRSV	“악을 행하는 자들을”
TEV	“악한 백성들을”
NJB	“사악한 백성들을”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카코스(카코스)로서 종종 “악한 사람들”을 일컫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 단어의 동의어인 포네로스는 악(중성) 혹은 악한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이 단어는 궁극적으로 그 ‘악한 자’를 가리킨다(남성, 참조, 마 5:37; 13:38; 요 17:15). 문맥 및 용법을 통하여 볼 때 이 본문에서는 교회(거짓 교사들) 혹은 공동체 안에 있는 “나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다(참조, 롬 2:9; 13:4).

카코스는 계시록에서 단 두 번만 사용되었다(이곳과 16:2). 16:2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으로 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즉, 중기).

▣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 헬라어 단어(*페이라스*)는 좋거나 나쁜(대부분의 경우) 의도를 가지고 시험함을 뜻한다(참조, 2:2,10; 3:10). 이 단어와 관련이 있는 *페이라스모스*는 멸망시킬 목적으로 시험하는 것을 나타낸다. 요일 4:1 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들의 믿음을 인정해 줄 목적으로 그들을 시험함으로써(*도키마조*) 균형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의 믿음을 신자들이 확인할 것을 구약과 신약에서 함께 요구한다(참조, 신 13:1-5; 18:22; 마 7:15-23; 요일 4:1-6).

신약에서는 신자들이 다른 이를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 긴장을 나타낸다(참조, 마 7:1-5). 한편, 그리스도인들은 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해 서로 평가하도록 요청받고 있다(참조, 마 7:5,6,15; 고전 5:1-12; 딤펴전 3 장; 요일 4:1-6). 적절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태도와 동기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참조, 갈 6:1; 롬 2:1-11; 14:1-23; 약 4:11-12).

특별주제: 헬라어에서 “시험”을 뜻하는 용어들과 그 용어들의 함축적 의미

고의로 사람을 시험함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둘 있다.

1. *도키마조, 도키마온, 도키마시아*

이것은 금속제련과 관련된 용어로서 어떤 물질(은유적으로는 사람)의 순수성을 불로써 알아보는 시험을 가리킨다. 불은 찌꺼기를 태워버림(정화)으로써 순수한 금속을 드러낸다. 이 물리적 과정은 ‘하나님, 사탄, 혹은 사람이 시험함’을 가리키는 강력한 속어가 되었다. 이 시험은 받아들여짐을 뜻하는 긍정적 관점만을 나타낸다. 신약에서 이것은 다음의 내용을 시험하는 것을 나타낸다.

- ㄱ. 소, 눅 14:19
- ㄴ. 우리 자신, 고전 11:28
- ㄷ. 우리의 믿음, 약 1:3
- ㄹ. 심지어 하나님, 히 3:9

이러한 시험은 긍정적 결과를 가정한다(참조, 롬 1:28; 14:22; 16:10; 고후 10:18; 13:3; 빌 2:27; 뱀전 1:7). 따라서 이 용어는 어떤 사람을 시험하여 다음의 내용을 입증함을 뜻한다

- ㄱ. 가치있음
- ㄴ. 좋음
- ㄷ. 진실됨
- ㄹ. 값있음
- ㅁ. 영예로움

2. *페이라스조, 페이라스무스*

이 용어는 잘못을 찾아내거나 거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사한다는 함축적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예수께서 받으신 광야에서의 유혹과 관련되어 종종 사용된다.

- ㄱ. 이것은 예수님을 울무에 걸리게 하려는 시도임을 나타낸다(참조, 마 4:1; 16:1; 19:3; 22:18,35; 막 1:13; 눅 4:38; 히 2:18)
- ㄴ. 이 용어(*페이라스조*)는 마 4:3 과 살전 3:5 에서 사탄의 호칭으로 사용된다.
- ㄷ.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할 때 사용되었다(참조, 마 4:7; 눅 4:12) [그리스도를 시험함에 대하여는, 참조, 고전 10:9]. 이것은 또한 실패한 어떤 일을 하려는 것을 뜻한다(참조, 행 9:20; 20:21; 히 11:29).
- ㄹ. 이것은 신자들이 받는 유혹이나 시험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참조, 고전 7:5; 10:9,13; 갈 6:1; 살전 3:5; 히 2:18; 약 1:2,13,14; 뱀전 4:12; 뱀후 2:9). 하나님께서는 3 종류의 적(즉, 세상, 육신, 악한 자)이 특별한 때와 장소에 인간에게 나타나도록 허락하셨다.

▣ “자칭 사도라 하되” 이것은 “사도들”이라는 용어가 열두 사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광의의 의미로서 사용된 경우이다(참조, 행 14:14; 롬 16:7; 고전 15:7; 갈 1:19; 엡 4:11; 살전 2:6). 신약에서는 종종 거짓 사도 혹은 거짓 교사에 대해 말한다(참조, 마 7:15-16; 24:24; 행 20:29; 고후 11:13-15; 요일 4:1, 또한 목회서신 전반에 걸쳐). 이 교회는 이러한 거짓 사도들을 정확히 알아 보았고 또 그들을 거부했다.

2:3 이 교회는 어려운 상황과 박해에 처해 있었음에도 신실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혹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 것이 아니었다(참조, 갈 6:9; 히 12:3; 약 5:7-8). 2:7의 특별주제를 보라.

2:4

NASB, NKJV
NRSV
TEV
NJB

“네가 너의 처음 사랑을 떠났느니라”
“네가 처음 가졌던 사랑을 네가 버렸느니라”
“네가 처음에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네가 이제는 사랑하지 않느니라”
“네가 이제는 이전보다 덜 사랑하고 있느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여러 이론이 있다.

1. TEV 역과 칼스 윌리암스역은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뜻한다고 추측한다.
2. 제임스 모팻역은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뜻한다고 추측한다.
3. 하셀 홉스는 자신의 주석에서 이것이 잃어버려진 자를 사랑하는 것을 뜻한다고 추측한다.
4. J. B. 필립스는 자신의 번역에서 위의 모든 내용을 합쳐서 말한다.
5. 어떤 이는 이것이 제 2 세대에 속하는 신자들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6. 어떤 이는 이것이 사랑없는 냉혹한 정통주의를 말한다고 본다(참조, 고전 13 장).

2:5 “생각하고”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으로서 “항상 마음에 두라”를 뜻한다. 신자들은 죄 안에 있던 자신의 이전 상태 및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힘입은 새로운 지위를 종종 돌이켜 보도록 권고를 받는다.

▣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이것은 현재 능동 직설법이다. 그들의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이 떨어진 상태로 고착되었다!

▣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은 두 개의 부정과거 능동 명령이다. 전 교회가 명확한 회개(참조, 고후 7:14) 및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각자에 대한 사랑과 잃어버려진 자들에 대한 사랑을 하도록 요청받고 있는 점을 주목하라.

회개는 하나님과의 믿음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참조, 마 3:2; 4:17; 막 1:15; 6:12; 눅 13:3,5; 행 2:38; 3:19; 20:21). 히브리 용어는 행동의 변화를 나타낸다. 반면에 헬라어에서는 마음의 변화를 뜻한다. 회개는 자기중심적 실존에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으며 배우는 삶으로의 변화이다. 이 일은 자아에 둔 우선순위와 속박에서 돌이킴을 요구한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새로운 태도이며 새로운 세계관이고 또 새로운 주인을 모시는 일이다. 회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나 타락한 모든 아담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참조, 겔 18:21,23,32; 벧후 3:9).

신약의 본문 가운데 회개를 나타내는 여러 헬라어 단어를 잘 보여주는 본문은 고후 7:8-12 이다.

1. *퀴페*, “슬픔” 혹은 “슬퍼함,” 8 절(2 회), 9 절(3 회), 10 절(2 회), 11 절
2. *메타벨로마이*, “갱생하다,” 8 절(2 회), 9 절
3. *메타노에오*, “회개하다,” “생각이 바뀌다,” 9 절, 10 절

거짓 회개(*메타벨로마이*, 참조, 유다, 마 27:3 및 에서, 히 12:16-17)와 참된 회개(*메타노에오*, 참조, 베드로, 요 21:15-23; 마 26:75; 막 14:72; 눅 22:62)의 차이가 있다.

참된 회개는 신학적으로 다음과 관련을 가진다

1. 새 언약의 조건에 대한 예수의 설교(참조, 마 4:17; 막 1:15; 눅 13:3,5)
2.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행한 설교(케리그마, 참조, 행 3:16,19; 20:21)
3. 하나님의 주권적 은사(참조, 행 5:31; 11:18; 딤후 2:25)
4. 멸망(참조, 벧후 3:9)

회개는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다!

▣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이것은 이 책의 주요 주제이다;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참조, 1:2,3; 2:5,16,25; 3:3,11). 구약에서 하나님의 오심은 축복 혹은 심판을 가져오시는 것과 관련을 가진다. 이 문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징계하시기 위해 오심을 말한다(참조, 벧전 4:17)! 따라서 이것은 임시적인 오심이며 종말적인 오심이다.

▣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그 교회 전체를 상징적으로 가리킨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축복하심을 없애는 일을 뜻할 것이다. 전 회중이 배교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사역에 있어서 영향력을 잃었다. 이 내용은 버가모(참조, 2:16) 두아디라(참조, 2:22-23), 사데(참조, 3:3), 라오디게아(참조, 3:19) 교회에도 적용된다. 이 교회들이 이방 문화를 수용하는 니콜라 당의 거짓 가르침에 의해 각각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2:6 “네가 니콜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누가 이러한 니콜라 당에 속했고 또 그들이 무엇을 믿었는가에 대해 많은 추측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한 성경의 유일한 자료는 계 2:6,14-15 에 있다. 이들은 행 6:5 에서 “일곱” 집사의 한 명으로 언급된 니콜라를 따르는 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주후 180 년경에 이레니우스와 힐포리투스가 주장했다. 이레니우스는 그의 책인 *이단에 대항하여* 3:11:7 에서 ‘그들은 2 세기에 속하는 구레네 영지주의의 추종자였다’고 추측하여 말한다. 유세비우스는 자신의 책 *교회사* 3:29:1 에서 ‘이 분파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했다’고 언급한다.

2:14-15 에서는 발람의 가르침과 니콜라 당의 가르침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헬라어에서 볼 때 이들의 이름에는 어원론적 연관성이 나타난다: “정복자”와 “사람들”(니고데모의 이름이 가진 의미와 매우 비슷함). 분명한 것은 두 파가 신자들로 하여금 이방인의 예배 행위인 예식에 따른 성행위를 하도록 조장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니콜라 당과 발람의 당(참조, 민 25:1-9; 31:16-18)은 이세벨의 가르침과 상당히 유사하다(참조, 2:20).

2: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훈계의 말씀이 일곱 교회에 주시는 편지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참조, 2:7,11,17,29; 3:6,13,22). 이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서 인용한 구이다(참조, 마 11:15; 13:9,43). 영적 진리에 마음과 손으로 응답해야만 한다. 이것은 히브리 단어인 *שמע*, 행하기 위해 들어라’와 같은 종류에 속하는 표현이다(참조, 신 5:1; 6:4; 9:1; 20:3; 27:9-10).

▣ “교회들” 1:4의 특별주제를 보라.

▣ “이기는 그에게는” 신자가 인내하여야 함에 대한 신학적 강조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참조, 2:7,11,17,25-26; 3:4-5,11-12,21). 이것은 참된 회개에 대한 경험적 증거이다(참조, 마 24:13; 갈 6:9)! 요나단 에드워드는 “그가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점이 그가 선택받은 분명한 증거이다”라고 말했다. W. T. 코너는 “구원받도록 선택받은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 안에서 영원토록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 일은 믿음 즉 인내하고 이겨내는 믿음에 따른 조건적인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2:2의 특별주제를 보라.

▣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에 대한 암시이다(참조, 창 2:9). 사람들이 동산에서 하나님 및 동물들과 교제를 시작하였듯이, 성경은 같은 양식으로 끝마친다(참조, 사 11:6-9; 계 22:2,14,19).

“낙원”이라는 용어는 귀족의 담이 있는 정원을 뜻하는 페르시아어에서 왔는데, 70 인역에서는 에덴 동산을 번역하기 위해 사용하였다(참조, 겔 28:13; 31:8). 이것은 메시아의 시대를 뜻하는 여러 표현 가운데 하나로써 일곱 교회에 쓴 편지 전체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낙원”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1) 눅 23:4에서 이것은 스올/하데스에서 의로운 자의 영역을 가리킨다(1:8의 특별주제를 보라). 예수께서는 회개하는 도적에게 그가 그 날 주님과 함께 그곳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예수께서는 40 동안 하늘로 돌아가지 않으셨다, 참조, 요 20:17) 또한 (2) 고후 12:3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 즉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방(“삼층 천”)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인류(창 1:26-27)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영생이었다. 창 3장 및 성경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타락은 ‘인간의 구속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위한 하나님의 헌신을 보여준다. 완전한 교제와 차이가 있는 이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아니라 인간의 부끄러운 상태를 나타낸다. 하나님은 자신이 목적하신 바 창조세계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개역개정 2:8-11

⁸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⁹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¹⁰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¹¹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2:8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이것은 1:17과 22:13에 나오는 바 예수님께 대해 반복하여 사용한 호칭 가운데 하나이다. 이 호칭은 무엇보다도 야웨를 가리킨다(참조, 사 41:4; 44:6; 48:12). 이 호칭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참조, 1:8; 21:6; 27:13) 및 “처음과 나중”(참조, 21:6; 22:13). 1:8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

▣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이것은 ‘어머니 여신’을 섬기는 자연 종교인 사이벨레에 일격을 가하는 말씀이다. 고대의 여러 풍요숭배적 종교는 자연의 순환(겨울은 죽음을, 봄은 새로운 생명을)을 인격화시킨 세계관에 기초하였다. 문맥에서 이 내용은 신학적으로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지금은 살아 계신 어린 양이신’ 1:18; 5:6과 관련을 가진다. 이 내용은 예수께서 단번에(반복되지 않음) 가지신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여 나타낸다(참조, 히 7:27; 9:12,28; 10:10).

2:9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것은 매우 강력한 의미를 지닌 두 헬라어 단어이다. 이 용어들이 갖는 중요성은 서머나가 매우 번창하는 도시인 사실에 기인한다. 교회가 가난했다라는 사실은 그들에게 있는 경제적인 박해를 의미한다. 계시록에서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악한 자들로부터 “환란”을 받지만,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7:14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 신자들은 언제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인침을 받은, 7:2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환란

이 용어(슬립시스)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바울과 요한의 신학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 I. 바울의 용법(이것은 예수님의 용법을 반영하고 있다)
 - 가. 타락한 세상과 관련된 문제, 고통, 악
 - 1. 마 13:21
 - 2. 롬 5:3
 - 3. 고전 7:28
 - 4. 고후 7:4
 - 5. 엡 3:13

- 나.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오는 문제, 고통, 악
 1. 룬 5:3; 8:35; 12:12
 2. 고후 1:4,8; 6:4; 7:4; 8:2,13
 3. 앵 3:13
 4. 빌 4:14
 5. 살전 1:6
 6. 살후 1:4

- 다. 마지막 때의 문제, 고통, 악
 1. 마 24:21,29
 2. 막 13:19,24
 3. 살후 1:6-9

II. 요한의 용법

가. 요한은 계시록에서 *슬립시스*와 *오르케* 혹은 *쉬모스*(진노)를 분명히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슬립시스*는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대하여 행하는 일을 *오르케*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1. *슬립시스* - 계 1:9; 2:9-10,22; 7:14
2. *오르케* - 계 6:16-17; 11:18; 16:19; 19:15
3. *쉬모스* - 계 12:12; 14:18,10,19; 15:2,7; 16:1; 18:3

나. 요한은 또한 모든 세대의 믿는 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말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한다 - 요 16:33.

▣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지위를 평가할 수는 없다.



NASB, NKJV
NRSV, NJB
TEV

“신성모독”
“중상”
“너에게 대하여 말한 악한 말”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신성모독”을 가리킨다. 즉 구약에서 “비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일반적인 말로써 야웨께 대적하는 것과 관련을 가진다(참조, 레 24:13-23). 이 용어가 구약에서 두 차례 “축복하다”(바라)를 사용하여 신성모독을 나타낸다(참조, 왕상 21:10,13). 문맥상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하나님을 축복하다”) 그렇지 않은 유대 종교인들에 대하여 사용되었다(참조, 마 7:21-23).

▣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3:9 에 매우 비슷한 구가 나온다. 그들이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이 분명하다(참조, 요 8:44; 룬 2:28-29; 갈 3:29; 6:16).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전파에 심각하게 반대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참조, 행 13:50; 14:2,5, 19; 17:5).

계시록 2:13 은 이것이 콘실리아로 불린 지역사회에서의 황제숭배를 가리키는 것임을 암시한다. 그 예식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시저를 “주님”으로 부르며 또 그에게 일 년에 한 번씩 분향 드리기를 강요했다.

▣ “사탄의 회당이라” 요한은 하나님 대 사탄이라는 명확한 대조를 이루는 세계를 보았다. 사탄(12:3 의 특별주제를 보라)은 이 책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참조, 2:9,13; 3:9; 12:9,10; 20:2,7). 그는 신자들을 중상했고 박해자들을 격동시켰다. 영적 영역에 있어서 이러한 갈등과 이원론은 묵시문학을 특징짓는다. 아담의 자손들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기 위한 싸움이 있다.

2:10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중간태 혹은 수동(디포) 명령으로서,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추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 교회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 박해는 그들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에 대한 표이다(참조, 마 5:10-12).

▣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악한 인간 지도자들 뒤에서 초인간적 능력을 가진 악이 숨어 있다(참조, 앵 6:10-19).

사탄이라는 용어는 구약의 배경을 가지는 호칭이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주신 일은 반역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람들에게 제시함으로써 그들이 유혹에 넘어갔을 때에 그들을 정죄하는 일이었다(참조, 창 3 장; 욥 1-2 장; 숙 3 장). 구약에는 악이 발달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사탄은 종으로 지음을 받았고 적으로 되었다(참조, A. B. 데이빗슨, *구약신학*, 300-306 쪽).

이사야 14 장에 있는 매우 회화적인 표현(이것은 교만한 바벨론 왕을 직접적으로 가리킨다)과 에스겔 28 장(이것은 자만한 두로의 왕을 직접적으로 가리킨다)이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영적 교만과 타락을 나타낸다는 견해는 하나의 추정에 속한다. 겔 28 장의 언어는 에덴 동산에 대한 묘사에서 취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방인인 왕에 대한 묘사를 에덴에서 취한 천사적 용어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다(참조, 창 3 장). 한편 에스겔은 31 장에서 이집트 왕에 대하여 이와 매우 비슷한 묘사를 하였다. 그가 에덴 동산에 있는 매우 큰 나무로 묘사된다.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과 천사와 악의 기원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알기 원한다. 우리가 은유적 표현과 예언적 묘사를 교리적 신학으로 바꾸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한다. 오늘날 많은 종류의 신학이 유리시킨 회화적 본문을 오늘날의 개념(신학적이고 문자적인 개념, 단테와 밀톤)과 혼합시켜 형성되었다.

신약에서 사탄을 악마로 부른다(참조, 12:9,12; 20:2,10). 이 헬리어 용어는 “~너머로 던지다” “증상하다” 혹은 “~를 비난하다”를 의미하는 합성어이다. 이것은 다시금 비난하고 유혹하는 그의 일을 반영한다. 이 용어들은 계시록에서 동의어적이다(참조, 12:9; 20:2). 12:9 의 특별주제: 악한 인격체를 보라.

▣ “환난을 받으리라” 이 용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1) 신자들이 가진 참된 믿음을 드러내고 더 강하게 하기 위해 그들이 시험을 받는다(참조, 2:10; 행 14:27; 롬 5:3-4; 8:17-19; 히 5:8; 약 1:2-4; 벰전 4:12-19) 또한 (2) 불신자들이 자신들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불신자들이 시험을 받는다(참조, 3:10). 계시록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으로 불리는 시련을 받지만(2:9 의 특별주제를 보라)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시험하다” “시도하다” 혹은 “유혹하다”로 번역된 헬리어 단어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멸망시킬 목적으로 시험하다”이다(페이사모스, 페이사모). 또 다른 용어는 “승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하다”이다(도키모스, 도키마조). 사탄은 멸망시키려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강하게하려고 시험하신다(참조, 살전 2:4; 벰전 1:7; 창 22:1; 출 16:4; 20:20; 신 8:2,16; 13:3; 사 2:22; 대하 32:31). 2:2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십 일 동안” “십 일”이라는 구에 대해 많은 주석이 제시되었다:

1. 어떤 이는 이것이 문자적 의미인 10 일 동안 요한의 시대에 서머나에서 일어난 박해를 가리킨다고 말한다
2. 어떤 이는 이것이 완전수로서 단순히 ‘박해가 일어난 모든 기간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3. 어떤 이는 이것이 특정하게 말할 수 없는 박해의 기간을 가리킨다고 말한다

그 일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좋은 소식이다. 박해가 끝날 것이다!

한편, 목시적인 책에서 우리는 어떤 숫자가 회화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아니면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는지를 결코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 만일 그 수가 구약과 신구약 중간시대에 속하는 목시적 글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종종 나타내었다면, 그것은 회화적인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많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수로서 자주 사용된 수로는 3, 4, 6, 7, 10, 12 및 이 수들의 배수가 있다(1:4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은 현재 중간태 혹은 수동(디포) 명령으로서 죽음에 처하게 되더라도 신자들이 계속하여 믿음을 유지하여야 함을 강조하여 나타낸다(참조, 마 2:13; 12:11; 10:22; 24:13; 눅 12:4; 갈 6:9). 어떤 신자들은 죽음을 이미 당했고 또 어떤 이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및 타락한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 역설적으로 나타남을 드러낸다.

▣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것은 승리자가 받는 면류관으로서 “스테파노스”로 불린다(참조, 고전 9:25). 이 관을 기독교의 순교자들이 받는다. 우리는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4:15 를 통하여 서머나의 주교인 폴리갑을 비롯하여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음을 안다. 신약에서는 다른 종류의 관(상)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참조, 딤후 4:8; 약 1:12; 벰전 5:4; 계 3:11).

요한은 영생과 부활생명을 가리키기 위하여 조애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참조, 요 1:4; 3:15,36; 4:14,36; 5:24,26,29,39,40; 6:27,33,35,40,47,48,51,53,54,63,68; 8:12; 10:10,28; 11:25; 12:25,50; 14:6; 17:2,3; 20:31; 계 2:7,10; 3:5; 13:8; 17:8; 20:12,15; 21:6,27; 22:1,2,14,17,19). 참 생명은 육체적으로 존재함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특별주제: 상과 벌의 정도

- 가. 하나님께 대한 적절한 반응과 부적절한 반응은 지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지식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는 더욱 무책임한 사람이 된다. 그 반대 또한 사실이다.
- 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두 가지 기본적 방법이 있다
 1. 창조세계(참조, 시편 19 편; 로마서 1-2 장)
 2. 성경(참조, 시편 19 편, 119 편; 복음서)
- 다. 구약의 증거
 1. 상
 - ㄱ. 창 15:1(대개 땅에서의 상급인 땅과 아들)
 - ㄴ. 신 27-28 장(언약을 순종함은 축복을 가져온다)
 - ㄷ. 단 12:3

- 2. 별
 - ㄱ. 신 27-28 장(언약을 불순종함은 저주를 가져온다)
- 3. 구약에서 언약에 따른 개인의 의에 대한 상은 인간의 죄를 인하여 많이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를 욥기와 시 73 편에서 볼 수 있다. 신약에서는 강조점을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옮긴다(참조, 산상설교, 마 5-7 장).
- 라. 신약의 증거
 - 1. 상(구원 이후의)
 - ㄱ. 막 9:41
 - ㄴ. 마 5:12,46; 6:1-4,5-6,6-18; 10:41-42; 16:27; 25:14-23
 - ㄷ. 눅 6:23,35; 19:11-19,25-26
 - 2. 별
 - ㄱ. 막 12:38-40
 - ㄴ. 눅 10:12; 12:47-48; 19:20-24; 20:47
 - ㄷ. 마 5:22,29,30; 7:19; 10:15,28; 11:22-24; 13:49-50; 18:6; 25:14-30
 - ㄹ. 약 3:1
- 마. 나에게 이에 대한 유일한 유추는 오페라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내가 오페라 공연장에 가지 않기에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오페라 대본의 구상, 음악, 춤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고 복잡한 가를 더 잘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그 공연을 더 잘 감상할 수 있게 된다. 나는 하늘이 우리의 컵을 채울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나는 우리가 땅에서 하는 섬김이 그 컵의 크기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반응은 상과 별을 가져온다(참조, 마 16:7; 고전 3:8,14; 9:17,18; 갈 6:7; 딤후 4:14). 영적 진리는 이렇다—우리가 심은 것을 우리가 거둔다! 어떤 이는 더 많이 심어 더 많이 거둔다(참조, 마 13:8,23).
- 바. “의의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 안에서 우리의 것이지만(참조, 딤후 4:8), “생명의 면류관”이 시련을 통과한 인내와 관련이 있음을 주목하라(참조, 약 1:12; 계 2:10; 3:10-11). 그리스도인 지도자를 위한 “영광의 면류관”은 그들의 생활양식과 관련이 있다(참조, 벰전 5:1-4). 바울은 자신이 소멸되지 않는 면류관을 가졌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극도로 자신을 제어했다(참조, 고전 9:24-27).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비는 이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것에 우리가 응답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 안에서 복음을 완전히 거저로 누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능력주심에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과 마찬가지로 초자연적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받아 누려야 하고 또 이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 거저로 주시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모든 비용을 들여야 함을 말하는 이 역설은 상과 씨뿌림/거둠에 나타나는 신비로운 모습이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도록 구원받은 것이다(참조, 엠 2:8-10). 선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이다(참조, 마 7 장).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는 멸망으로 이끌지만 구원의 결과 나타나는 경건한 삶은 상을 가져온다.

2:11 “이기는 자는” 이것은 신실할 것을 권고하는 말로서 반복되는 내용이다(참조, 2:7,17,26; 3:5,12,21; 21:7). 인내함에 강조점이 있음이 분명하다(2:2의 특별주제를 보라).

▣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두 부정 구문과 함께 쓰인 부정과거 수동 가정법으로서 순교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보심을 나타낸다(참조, 12:11). “둘째 사망”은 지옥을 가리키거나(1:18의 특별주제를 보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영원토록 분리됨을 가리킨다(참조, 계 20:6,14; 21:8).

▣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은 영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분별할 것을 권고하는 말로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말이다(참조, 2:7,11,17,29; 3:6,13,22; 13:9).

개역개정 2:12-17

¹²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¹³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서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¹⁴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결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¹⁵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¹⁶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¹⁷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2:12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것은 1:16 에 나오는 바 영광받으신 예수를 가리키는 내용이다. 이것은 야웨를 가리키는 구약의 은유적 표현이다(참조, 사 11:4; 49:2). 신약에서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 꿰뚫는 능력이 있음을 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참조, 2:16; 살후 2:8; 히 4:12).

2:13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사는 것”은 구약에서 “영구와 ~와 함께 살다”를 뜻한다. 이 신자들이 지역 정부와 악한 영으로부터 강력한 핍박을 받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아실 뿐 아니라 그들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알고 계셨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

▣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이 구를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었다:

1. 이것은 버가모에 있던 제우스의 커다란 보좌를 가리킬 수 있다.
2. 이것은 뱀으로서 상징되는 아스클레피오스, 곧 병고침의 신을 가리킬 수 있다.
3. 이것은 광장이 도시보다 100 여 미터 높이에 있었기에 도시 전체가 큰 보좌처럼 보였음을 가리킬 수 있다.
4. 이것은 버가모에서 크게 영향력을 미친 바 황제숭배를 강요하는 지역의 기구인 콘실리아를 가리킬 수 있다.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1 항과 4 항이 가장 적합한 설명으로 보인다.

▣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것은 현재 능동 직설법이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이름의 중요성을 말한다. 신자들은 그 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를 신뢰하여야 하며(참조, 요 1:12; 3:18; 롬 10:9-13) 그 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분께 예배드려야 하고(참조, 창 4:26; 12:8; 26:25) 또 그 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인내하여야 한다(참조, 요 17:11-12).

특별주제: 주님의 이름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임재하심과 역동적 능력을 교회에 나타내심을 표현하는 신약의 중요한 구이다. 이것은 마술적인 주문의 한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함을 나타낸다.

이 구는 종종 예수를 주님으로 나타낸다(참조, 빌 2:11)

1. 침례(세례) 받을 때에 예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참조, 롬 10:9-13; 행 2:38; 8:12,16; 10:48; 19:5; 22:16; 고전 1:13,15; 약 2:7)
2. 귀신을 내어쫓을 때(참조, 7:22; 막 9:38; 눅 9:49; 10:17; 행 19:13)
3. 병을 고칠 때(참조, 행 3:6,16; 4:10; 9:34; 약 5:14)
4. 사역을 할 때(참조, 마 10:42; 18:5; 눅 9:48)
5. 교회에서 징계를 행할 때(참조, 마 18:15-20)
6.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행할 때(참조, 눅 24:47; 행 9:15; 15:17; 롬 1:5)
7. 기도를 할 때(참조, 요 14:13-14; 15:2,16;16:23; 고전 1:2)
8. 기독교를 가리키는 표현으로서(참조, 행 26:9; 고전 1:10; 딤후 2:19; 약 2:7; 벰전 4:14)

우리가 설교가, 사역자, 돕는 자, 병고치는 자, 귀신쫓아내는 자 등 무엇으로 일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의 성품, 주님의 능력, 주님의 공급하심을 힘입어 행한다!

▣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부정과거 중간태(디포) 직설법이다. 기독교의 처음 몇 세기에 걸쳐서 (또한 오늘날에도 어떤 사회에서는) 물리적 혹은 사법적 시련에 직면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릴 경우’에 자신의 소유나 생명을 건지게 되는 실제적인 유혹이 있었다. 교회는 이러한 배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였다.

특별주제: 믿음(피스티스[명사], 피스투오[동사], 피스토스[형용사])

- 가.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용어이다(참조, 히 11:1, 6). 이것은 예수님의 초기 설교의 주제였다(참조, 막 1:15). 새언약의 두 가지 요구조건은 회개와 믿음이다(참조, 1:15; 행 3:16, 19; 20:21).

나. 이 단어의 어원

1. 구약에서 “믿음”이라는 용어는 충성, 충실성, 혹은 신뢰할 수 있음을 뜻하며,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다.

2. 이것은 히브리어(*עמון*, *עמוּנָה*, BDB 53)로서 “확실하거나 안정적인 것”을 뜻한다. 구원하는 믿음은 지적인 동의(진리의 내용), 도덕적 삶(생활양식), 그분에 대한 우선적이고 개인적(그를 환영함)이며 의지적인 헌신(결단)을 말한다.

다. 구약에서의 용법

아브라함의 믿음은 미래의 메시아에 대한 것이 아니었고 그가 아들을 낳고 후손을 갖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이었음이 강조되어야 한다(참조, 창 12:2; 15:2-5; 17:4-8; 18:14).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약속에 반응했다. 그는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13 년이나 기다려야 했던 약속에 대해 아직 의심과 어려움을 가졌다. 하나님은 흠이 있는 인간의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를 위해 기꺼이 일하신다(참조, 마 17:20).

라. 신약에서의 용법

“믿다”라는 용어는 헬라어(피스투오)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믿다,” “믿음,” 혹은 “신뢰하다”로 번역된다. 예를 들면, 명사형은 요한복음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동사형은 자주 사용된다. 요 2:23-25 에서 군중들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서 진실되게 고백했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믿다”라는 용어가 피상적으로 사용되는 또 다른 예들은 요 8:31-59 과 행 8:13, 18-24 에 나온다. 성경적인 믿음은 초기 단계에 나타내는 반응 이상의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제자도의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참조, 마 13:20-22, 31-32).

마. 전치사와 함께 사용된 용법

1. *에이스* 는 “안으로”를 뜻한다. 이것은 믿는 자가 그들의 신뢰/믿음을 예수님 안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는 독특한 구문이다
 - ㄱ. 그의 이름 안에(요 1:12; 2:23; 3:18; 요일 5:13)
 - ㄴ. 그 안에(요 2:11; 3:15, 18; 4:39; 6:40; 7:5, 31, 39, 48; 8:30; 9:36; 10:42; 11:45, 48; 17:37, 42; 마 18:6; 행 10:43; 빌 1:29; 뱀전 1:8)
 - ㄷ. 내 안에(요 6:35; 7:38; 11:25, 26; 12:44, 46; 14:1, 12; 16:9; 17:20)
 - ㄹ. 아들 안에(요 3:36; 9:35; 요일 5:10)
 - ㅁ. 예수 안에(요 12:11; 행 19:4; 갈 2:16)
 - ㅂ. 빛 안에(요 12:36)
 - ㅅ. 하나님 안에(요 14:1)
2. *엔* 은 “안”을 뜻한다, 요 3:15; 막 1:15; 행 5:14.
3. *에피* 는 “안” 또는 위를 뜻한다, 마 27:42; 행 9:42; 11:17; 16:31; 22:19; 롬 4:5, 24; 9:33; 10:11; 딤펴전 1:16; 뱀전 2:6
4. 전치사 없이 쓰인 여격, 갈 3:6; 행 18:8; 27:25; 요일 3:23; 5:10
5. *호티* 는 “믿다”를 뜻하는데, 무엇을 믿는지 그 내용을 밝힌다
 - ㄱ.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다(요 6:69)
 - ㄴ.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요 8:24)
 - ㄷ.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그 안에 계신다(요 10:38)
 - ㄹ. 예수님은 메시아다(요 11:27; 20:31)
 - 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요 11:27; 20:31)
 - ㅂ.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요 11:42; 17:8, 21)
 - ㅅ.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다(요 14:10-11)
 - ㅇ.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왔다(요 16:27, 30)
 - ㅈ.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의 언약적 이름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와 동일시 하였다(요 8:24; 13:19)
 - ㅊ. 우리는 그와 함께 살 것이다(롬 6:8)
 - ㅋ.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살전 4:14)

▣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이것은 5:1 에서 그리스도께 대하여 사용한 것과 같은 호칭이다. “증인”이라는 용어는 “순교자”를 의미할 수 있다(참조, 11:3; 17:6). 안티파스가 청동으로된 황소 위에서 구워져 죽었다라고 터툴리안이 말하는데 이는 단지 후기의 전승일 뿐이다.

2:14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예수께서는 일곱 교회 가운데 여섯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언급을 하셨다. 어떤 영역에 나타나는 의로운 삶은 다른 영역에 있어서 죄를 면하게 하지 못한다!

▣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참조, 민 24:2).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타협하도록 유혹했다(참조, 민 22-25 장; 31:16). 구약과 신약에서 그를 정죄하였다(참조, 민 31:16; 벰후 2:15; 유 11).

발람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백성의 정복자”를 뜻하며 니골라당이라는 명칭이 헬라어로 같은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요 3 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같은 의미를 가짐). 이것은 두 그룹에 속한 자들이 부도덕한 일을 행하였음을 나타낼 것이다(참조, 이세벨, 2:20).

▣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들을 놓아” 발람은 ‘이스라엘 자손을 바알에게 드리는 풍요의 예식에 참여하게 하도록’ 모압의 왕인 발락에게 제안했다(참조, 민 25:1-3). 이교도가 드리는 예배의식인 성행위로 인한 문화적 유혹이 1 세기에 항상 있었다.

특별주제: 이스라엘(이름)

- I. 이 이름의 뜻은 불확실하다(BDB 975)
 - 가. 엘이 집요하시다
 - 나. 엘이 집요하시게 하자(지시형)
 - 다. 엘이 보존하신다
 - 라. 엘이 만족하시게 하자
 - 마. 엘이 다투신다
 - 바. 하나님과 다투는 자(창 32:28)
- II. 구약의 용법
 - 가. 야곱의 이름(대신한 자, 발꿈치를 붙잡은 자, BDB 784, 참조, 창 25:26)은 압북 강가에서 영적 존재와 씨름한 후에 바뀌었다(참조, 창 32:22-32; 출 32:13). 종종 히브리 이름은 소리유희를 나타내지 어원을 나타내지는 않는다(참조, 32:28). 이스라엘이 그의 이름이 되었다(예, 창 35:10).
 - 나. 이 이름은 그의 열 두 아들을 통칭하는 명칭이 되었다(예, 창 32:32; 49:16; 출 1:7; 4:22; 28:11; 신 3:18; 10:6).
 - 다. 이 이름은 출애굽 후에 열 두 지파로 구성된 나라를 가리켰고(참조, 창 47:27; 출 4:22; 5:2) 그 이후의 나라도 가리켰다(참조, 신 1:1; 18:6; 33:10).
 - 라. 사울, 다윗, 솔로몬의 통일 왕국 이후에 르호보암 때에 지파들이 나뉘었다(참조, 왕상 12 장).
 - 1. 공식적인 분리 이전에 구분이 시작되었다(예, 삼하 3:10; 5:5; 20:1; 24:9; 왕상 1:35; 4:20)
 - 2. 주전 722 년에 앗시리아에 의해 사마리아가 함락될 때 까지 북 지파들을 가리켰다(참조, 왕하 17 장)
 - 마. 유다는 일부 경우에만 사용되었다(예, 사 1 장; 미 1:15-16).
 - 바. 앗시리아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후에 이 용어는 다시금 야곱의 모든 자손을 가리키는 집합적 이름이 되었다(예, 사 17:7,9; 렘 2:4; 50:17,19).
 - 사. 제사장에 반대되는 의미에서 평신도를 가리켰다(참조, 대상 9:2; 스 10:25; 느 11:3).

▣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두 가지는 이방인의 예배 행위와 관련을 가진다(참조, 민 25:1-3; 31:16). 우상에게 바친 음식과 관련된 이교도의 음식 뿐 아니라(참조, 고전 8:1-13) 성적 부도덕이 일상적으로 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방인들의 예배 행위였다. 인간의 성행위가 가축과 작물과 사회의 건강과 풍요를 가져오기 위한 방법으로 받아들여 졌다.

2:15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서로 유사성을 가지는 발람과 니골라당(참조, 2:6)과 이세벨(참조, 2:20)의 가르침은 이교도의 우상숭배적 예배 행위를 가리킨다. 신자들은 이교도의 문화로 되돌아가거나 타협해서는 안된다.

2:16 “그러므로 회개하라” 2:5 의 특별주제를 보라.

▣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명령이다. 회개에 관한 지속적인 강조가 나타난다(참조, 2:5,16,22; 3:3,19). ‘오심’이 교회에 대한 심판을 위해 일시적으로 오심을 뜻하거나 혹은 전 세계에 대한 심판을 행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을 뜻한다. 일부가 범한 죄를 인해 교회 전체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심(참조, 3:20; 대하 7:14)이 특이하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공동체에 대한 징계로 나타날 것이다! 1:2 의 특별주제: 곧 오심을 보라.

2:17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만나는 광야유랑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초자연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주신 양식이었다(참조, 출 16:14-15,31; 시 78:17-33, 특히 24 절). 이 신비적 구를 해석함에 있어서 제시된 몇 가지 이론은 다음과 같다:

1. 이것은 예레미야가 느보 산에서 가져와 숨긴 언약궤를 가리킬 것이다(참조, 마카비 2 서 2:4-8).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안에 만나 향아리가 있었기 때문이다(참조, 출 16:32-34; 히 9:4).
2. 이것은 의의 새시대에 주실 양식을 가리킨다(참조, 바룩 2 서 29:8).

이 구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성령의 새 시대에 대한 암시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어떤 이는 요 6:31-35 에 근거하여 감추인 만나가 그리스도 자신을 말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구는 이 책의 어떤 특별한 내용을 세세히 해석함에 있어서 당시의 독자들은 잘 이해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의 정확한 배경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해석에 어려움이 따름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이 돌은 *벧셀라*로 불리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여러 용도를 가졌다.

1. 이것은 특별한 잔치에 입장하기 위한 표였다
2. 이것은 재판장이 무죄선언을 하기 위해 사용한 표였다
3. 이것은 한 운동선수의 승리를 상징하는 표로써 사용되었다
4. 이것은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표로써 사용되었다

이 문맥에서는 1 항의 설명이 가장 적합하다. 즉 이것은 메시아께서 베푸시는 잔치를 가리킨다(이는 유대인의 묵시문학에 자주 나타나는 주제였다).

□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새 이름은 새 시대의 상징 혹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호칭이다(참조, 사 56:5; 62:2; 65:15; 1:1 의 특별주제: 메시아를 보라). 이 새 이름은 계시록에서 종종 언급되고 있다(참조, 3:12; 14:1; 19:12,13,16; 22:4).

개역개정 2:18-29

¹⁸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¹⁹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²⁰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²¹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²²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²³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²⁴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²⁵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²⁶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²⁷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²⁸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²⁹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18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예수님을 “아들”로 일컫는 표현으로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은유적 표현으로 된 호칭 가운데 “인자”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 호칭은 예수께서 자신을 일컫기 위해 직접 선택하여 사용하신 호칭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요한의 글에서 예수께 대하여 사용한 주요 호칭이었다(참조, 요 1:34,49; 5:25; 9:35; 10:36; 11:4,27; 19:7; 20:31; 요일 3:8; 4:15; 5:5,10,12,13,20). 히브리서에서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참조, 1:2; 3:6; 5:8; 7:28) 예수님을 중(즉, 모세, 선지자들)과 대조시켜 나타낸다. 그는 성부와 더불어 가족의 완전한 구성원이 되신다.

이것은 1 장에서 묘사하는 구의 하나가 아니다. “동정녀 탄생”과 마찬가지로 이 용어를 신약의 저자들이 드물게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교도인 청중들이 이 단어의 개념을 오해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개념을 손쉽게 자신들의 이교적 만신론에 즉각적으로 적용하려 들었을 것이다. 호머 시대의 사람들은 남신들과 여신들이 인간과 성적으로 관계를 가져 특별한 자손을 낳는다고 믿었다.

특별주제: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에 대해 사용한 주요한 칭호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께서 하나님을 뜻한다. “아들” 또는 “내 아들”로서의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점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뜻한다. 이 칭호는 신약에서 124 회 이상 사용되었다. 예수님이 자신을 칭하신 용어인 “인자”는 단 7:13-14 에서 하나님을 나타낸다.

구약에서 “아들”이라는 호칭은 다음의 특별한 네 그룹을 지칭할 수 있었다.

1. 천사들(대개 복수형, 참조, 창 6:2; 욥 1:6; 2:1)
2. 이스라엘의 왕(참조, 삼하 7:14; 시 2:7; 89:26-27)

3. 이스라엘 나라 전체(참조, 출 4:22-23; 신 14:1; 호 11:1; 말 2:10)
4.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참조, 시, 82:6)

예수님과 관련된 용법은 바로 두 번째 경우이다. 이 의미에서 “다윗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은 모두 삼하 7 장; 시 2 편, 89 편과 관련이 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기름부음 받은 자들”이 종말론적 왕을 나타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특별히 메시아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 경우가 한 번도 없다. 그러나 사해사본에서는 이 호칭이 일반적으로 메시아적 의미를 나타낸다(예수와 복음서 사전 770 쪽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또한 신구약 중간시대에 속한 유대인의 두 목시적 저작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적 호칭을 나타낸다(참조, 에스드라스 상 7:28; 13:32,37,52; 14:9 과 에녹 1 서 105:2).

이 호칭을 예수께 대해 사용할 때에, 그 신약적 배경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그의 선재하심(참조, 요 1:1-18)
2. 그의 독특한(동정녀) 출생(참조, 마 1:23; 눅 1:31-35)
3. 그의 침례[세례](참조, 마 3:17; 막 1:11; 눅 3:22. 하늘에서의 소리는 시 2 편의 왕의 지위와 사 53 장의 고난받는 종을 하나로 연결한다)
4. 사탄으로부터 받은 시험(참조, 마 4:1-11; 막 1:12,13; 눅 4:1-13. 예수께서는 자신이 아들됨을 의심하도록 혹은 적어도 십자가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유혹받았다)
5.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에 의해 신분을 확인 받음
 - ㄱ. 귀신들(참조, 막 1:23-25; 눅 4:31-37,41; 막 3:11-12; 5:7)
 - ㄴ. 불신자들(참조, 마 27:43; 막 14:61; 요 19:7)
6. 제자들에 의해 신분을 확인 받음
 - ㄱ. 마 14:33; 16:16
 - ㄴ. 요 1:34,49; 6:69; 11:27
7. 예수님 자신의 확인
 - ㄱ. 마 11:25-27
 - ㄴ. 요 10:36
8.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가족적 은유의 사용
 - ㄱ.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심
 - 1) 막 14:36
 - 2) 롬 8:15
 - 3) 갈 4:6
 - ㄴ. 자신의 신성을 설명하기 위해 아버지(*파테르*)를 종종 사용하심

요약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는 구약과 구약의 약속 및 그 내용을 아는 자들에게 신학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가졌다. 하지만 신약의 저자들은 이방인들의 “신들”이 여자를 취하여 그 결과 “타이탄” 혹은 “거인”들을 낳게 되었다는 이교도적 배경을 인하여 이 칭호의 사용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갖고 있다.

▣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것은 예수께 대해 사용한 또 하나의 호칭으로서 1:14,15 에서 취한 내용이다. 이것은 단 10:6 을 암시하여 예수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심을 드러낸다. 두아디라가 주석으로 만든 용기로 유명한 도시였기에 이러한 표현을 이들에게 대하여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인다.

2:19 이 절은 두아디라에 있는 신자들이 한 사역을 예수께서 알고 계심을 나타낸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활발하게 일하였으며, 점점 더 강력하게 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면에 대한 확인은 20 절에 나타난 바 이단성에 대한 면책이 되지 않는다.

2:20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이것은 왕상 16:31-33; 왕하 9:21-22 에 나오는 이세벨에 대한 암시이다. 알렉산드리아 사본(A 사본)에는 이세벨 앞에 “너의”를 삽입하여 그녀가 이 교회 목회자 혹은 활동적인 교회 지도자의 아내였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것은 추정에 불과하다. 그녀의 가르침(참조, 20c 절)은 14b 에 나오는 발람의 당과 15 절에 나오는 니골라 당의 가르침과 비슷한 내용이었다.

이세벨을 거부한 이유는 그녀가 여선지자였기 때문이 아니었다. 성경에서 경건한 여성 지도자들을 많이 볼 수 있다.

1. 미리암, 출 15:20
2. 드보라, 삿 4:4
3. 홀다, 왕하 22:14
4. 안나, 눅 2:36
5. 빌립의 딸들, 행 21:9
6. 비비, 롬 16:1

특별주제: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I. 구약

- 가. 문화적으로는 여자를 재산으로 여겼다
1. 재산 목록에 포함됨(출 20:17)
 2. 노예 여자에 대한 대우(출 21:7-11)
 3. 여자가 한 맹세는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남성에게 의해 취소될 수 있었다(민 30 장)
 4. 전쟁의 전리품인 여자(신 20:10-14; 21:10-14)
- 나. 실제적으로는 남녀 간에 친밀함이 있었다
1.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입음(창 1:26-27)
 2. 부모를 공경함(출 20:12[신 5:16])
 3. 부모에 대한 존경(레 19:3; 20:9)
 4. 남자와 여자가 다 나실인이 될 수 있었다(민 6:1-2)
 5. 딸들도 유산을 받을 권리를 가졌다(민 27:1-11)
 6. 언약백성의 한 구성원이 됨(신 29:10-12)
 7. 부모의 가르침을 지킴(잠 1:8; 6:20)
 8. 헤만(레위 족)의 아들 딸이 성전에서 음악을 지도함(대상 25:5-6)
 9. 새 시대에 아들 딸이 예언할 것임(욘 2:28-29)
- 다. 여자가 지도력을 가짐
1.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여선지자로 불림(출 15:20-21)
 2. 회막을 건설하는 일을 위해 여자들이 하나님께 은사를 받음(출 35:25-26)
 3. 여선지자(참조, 샬 4:4) 드보라도 모든 지파를 이끌음(샬 4:4-5; 5:7)
 4. 요시아 왕이 불러 와 새로 발견한 “율법 책”을 읽고 해석하게 한 홀다가 여선지자였다(왕하 22:14; 대하 34:22-27)
 5. 경건한 여인 롯은 다윗의 조상이었다
 6. 경건한 여인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을 구했다

II. 신약

- 가. 유대교와 헬라-로마 세계의 문화에서 여자들은 인권과 특권을 거의 가지지 않은 이등국민으로 여겨졌다(단, 마게도니아는 예외였음).
- 나. 여성 지도자
1. 경건한 여인으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엘리사벳과 마리아(눅 1-2 장)
 2. 경건한 여인으로서 성전에서 섬긴 안나(눅 2:36)
 3. 신자요 가정 교회의 지도자였던 루디아(행 16:14,40)
 4. 여선지자였던 빌립의 네 딸(행 21:8-9)
 5. 겐그리아 교회의 여집사 비비(롬 16:1)
 6. 바울의 동역자로서 아볼로를 가르친 브리스가(브리시길라) (행 18:26; 롬 16:3)
 7. 바울의 여성 동역자인 마리아, 드루배나, 드루보사, 버시, 네레오의 자매(롬 16:6-16)
 8. 유니아(KJV)는 아마도 여사도였다(롬 16:7)
 9. 유오디아와 순두게(빌 4:2-3)

III. 다양한 성경의 예를 오늘날의 신자가 어떻게 균형있게 취할 것인가?

- 가. 원래의 문맥에서 역사적 혹은 문화적인 진리로부터 어떻게 모든 시대의 교회와 신자들에게 영원히 유효한 진리를 구별해 낼 수 있는가?
1. 우리는 영감받은 원저자의 의도를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믿음과 행함을 위한 유일한 자료이다.
 2. 우리는 명백히 역사적 환경 가운데 영감을 받은 본문을 다룸에 있어서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ㄱ. 이스라엘의 예배(즉, 예식과 의식)
 - ㄴ. 제 1 세기의 유대교
 - ㄷ.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역사적으로 조건적인 바울의 진술
 - (1) 이교도인 로마의 법적 제도
 - (2) 노예로 남아 있는 것(7:20-24)
 - (3) 독신(7:1-35)
 - (4) 처녀(7:36-38)
 - (5) 우상에게 바친 음식(8 장; 10:23-33)
 - (6) 주의 만찬에 있어서 부적합한 행동(11 장)

3. 하나님은 자신을 특정한 문화와 특정한 시대에 완전하고도 분명하게 계시하셨다. 우리는 계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역사적 환경에 맞추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로 기록되었다.

나. 성경 해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그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적절한 해석의 기초요 중요한 면이지만 우리는 또한 이것을 우리 자신의 시대에 적용해야만 한다. 이제 여기에 여자 지도자의 문제가 제기된다(해석에 있어서 실제 문제는 그 용어의 정의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목사외에 또 다른 지도자들이 있었는가? 여집사와 여선지자는 지도자로 여겨졌는가?) 고전 14:34-35 과 딤편 2:9-15 에서 여자는 공공 예배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오늘날에 적용할 것인가? 나는 바울 당시의 문화나 우리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잠잠케 하기를 원한다고 보지 않는다. 바울 당시에는 그것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면 오늘날은 너무 풀어져 있다. 바울의 말과 가르침은 제 1 세기의 지역교회 상황에만 들어맞는 제한적인 내용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나는 상당히 불편하다. 내가 누구라고 내 생각이나 내가 속한 문화로 하여금 영감받은 저자의 가르침을 거부하게 한단 말인가!

한편 성경에 여성 지도자들의 실례가 나오는데(바울서신에서 조차, 참조, 로마서 16 장)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바울이 공공예배에 대해 고전 11-14 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좋은 예가 된다. 바울이 11:5 에서는 여자가 공공예배에서 머리를 가리고 설교나 기도를 하여도 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14:34-35 에서는 그들로 하여금 잠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집사들(참조, 롬 16:1)과 여선지자들(참조, 행 21:9)이 있었다. 바로 이러한 다양성이 나로 하여금 바울의 언급(여자에게 제한을 주는)을 1 세기의 고린도와 에베소에 국한시키게 한다. 두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새롭게 얻은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참조, 브루스 윈터, *바울이 떠난 후의 고린도*). 즉 그 교회들이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문제였다.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자유를 제한하여야 했다.

오늘날은 바울 시대의 상황과 정반대이다. 오늘날 잘 훈련되고 준비된 여성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지도자가 되지 못하게 한다면 복음이 제한을 받을 것이다! 무엇이 공적 예배의 궁극적 목적인가? 바로 복음전도와 제자삼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여성 지도자들을 인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의 사역을 인해 기뻐하시는가? 성경 전체는 이것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한다!

나는 바울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며, 내가 가진 신학도 바울신학이 주된 내용이다. 나는 현대의 여성운동자들로부터 과도하게 영향을 받거나 그들에 의해 조종되기를 원치 않는다! 한편 교회는 노예제도, 인종차별, 편협주의, 성차별 등의 부적절한 관습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진리를 따름에 있어 느렸다고 나는 느낀다. 교회는 현대 사회에서 여성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에 대해서도 적절히 행동함에 있어서도 느렸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와 여성을 자유롭게 하셨다. 문화적으로 묶여져 있는 본문이 그들에게 다시 족쇄를 채워서는 안된다고 나는 담대히 주장한다

한 마디 더: 해석자인 나는 고린도 교회가 매우 어지러운 교회였음을 안다. 은사를 갖고 자랑하고 과시했다. 여자들은 이러한 것들에 마음을 두었을 것이다. 나는 에베소 교회가 거짓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믿는다. 거짓교사들은 여자들을 이용하여 에베소의 가정교회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대리하여 말하게 했다.

다. 추가적인 독서를 위한 제안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61-77 쪽)

고든 피의 *복음과 성령: 신약 해석학의 질문*

왈터 C. 카이저, 피터 H. 데이빗, F. F. 브루스, 맨프렛 T. 브랜치의 *성경의 난해구절*(613-616; 665-667 쪽)

2:21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내하심 및 그의 정의로우심이 21-23 에서 잘 드러난다(참조, 롬 2:5).

2:22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 표현은 그녀가 음행을 행한 침상을 가리키는 비꼬는 표현이다(부도덕함에 대한 가르침).

▣ “큰 환난” 2:9 의 특별주제: 환란 및 7:14 에 있는 대환란에 대한 내용을 보라.

▣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2:23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것은 문자적 의미에서의 자녀가 아니라 그녀의 추종자들을 가리킨다(참조, 2:22; 요이 1 절).

▣ **“모든 교회가 . . . 알지라”** 이것은 일곱 편지가 그 당시와 현재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읽어지고 적용되어야 할 진리임을 나타낸다. “교회”에 대한 내용인 1:4의 특별주제를 보라.

▣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동기와 생각을 아신하고 성경이 말씀한다(참조, 시 7:9; 26:2; 139:1; 잠 24:12; 렘 11:20; 17:10; 눅 16:15; 행 1:24; 히 4:12-13; 8:27).

특별주제: 마음

헬라이어 *카르디아*는 70 인역과 신약에서 히브리어 *렘*(BDB 523)에 상응하는 단어이다. 이것은 여러 의미를 지닌다(참조, 바우어, 아른트, 킹리치, 댕커의 *헬라이어-영어 사전* 403-404 쪽):

1. 인간에 대한 은유로서 육체적 삶의 중심(참조, 행 14:17; 고후 3:2-3; 약 5:5)
2. 영적(도덕적) 삶의 중심
 - ㄱ. 하나님은 중심을 아신다(참조, 눅 16:15; 롬 8:27; 고전 14:25; 살전 2:4; 계 2:23)
 - ㄴ. 인간의 영적 삶을 나타냄(참조, 마 15:18-19; 18:35; 롬 6:17; 딤후 2:22; 벧전 1:22)
3. 생각의 중심(즉, 지력, 참조 마 13:15; 24:48; 행 7:23; 16:14; 28:27; 롬 1:21; 10:6; 16:18; 고후 4:6; 엡 1:18; 4:18; 약 1:26; 벧후 1:19; 계 18:7; 마음은 고후 3:14-15 과 빌 4:7에서 생각과 동의어임)
4. 의지의 중심(즉, 뜻, 참조, 행 5:4; 11:23; 고후 4:5; 7:37; 고후 9:7)
5. 감정의 중심(참조, 마 5:28; 행 2:26,37; 7:54; 21:13; 롬 1:24; 고후 2:4; 7:3; 엡 6:22; 빌 1:7)
6. 성령이 일하시는 독특한 영역(참조, 롬 5:5; 고후 1:22; 갈 4:6[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심, 엡 3:17])
7. 마음은 은유적으로 사람 전체를 가리킨다(참조, 마 22:37, 신 6:5의 인용). 생각, 동기, 행동을 말하는 마음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드러낸다. 구약의 몇가지 특이한 용법은 다음과 같다:
 - ㄱ. 창 6:6; 8:21, “하나님이 그 마음에 슬퍼하셨다” (또한 호세아 11:8-9를 보라)
 - ㄴ. 신 4:29; 6:5,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 ㄷ. 신 10:16, “할례받지 못한 마음”과 롬 2:29
 - ㄹ. 겔 18:31-32, “새 마음”
 - ㅁ. 겔 36:26, “새 마음” 대 “들로 된 마음”

▣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이 영적 진리는 갈 6:7에서 매우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우리가 뿌린 것을 우리가 거둔다. 이 원리는 인간의 노력에 의한 구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참조, 엡 2:8-9),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경건한 삶과 사랑하는 삶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함을 뜻한다(참조, 3:12; 마 25:1-46; 엡 2:10).

이것은 하나의 영적 진리이다. 하나님께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시기에 그가 지으신 피조물도 그러해야 한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기준을 저버렸다. 우리는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둔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와(그러나 구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사실이다(참조, 욥 34:11; 시 28:4; 62:12; 잠 24:12; 전 12:14; 렘 17:10; 32:19; 마 16:27; 25:31-46; 롬 2:6; 14:12; 고전 3:8; 고후 5:10; 갈 6:7-10; 딤후 4:14; 벧전 1:17; 계 2:23; 20:12; 22:12).

2:24 “사탄의 깊은 것을” 이 구와 관련하여 여러 이론이 제기되었다. 이 구는 다음을 뜻할 수 있다

1. 이세벨과 그녀를 추종하는 자들을 통칭함
2. 영지주의의 거짓 교사들이 강조하는 지식
3. 로마제국의 신비적 종교들이 시작된 것과 관련을 가지는 예식들
4. “하나님의 깊은 것”과 반대를 이루는 표현(참조, 롬 11:33; 고전 2:10; 엡 3:18)

▣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것은 두아디라 도시에 있는 참된 신자들을 인정하는 말이다. 행동하는 강력한 믿음을 그들이 가졌다(참조, 19 절).

2:25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박해와 이단과 무관심에 직면하더라도 반드시 인내해야 한다(참조, 20 절). 이것은 명령의 말씀이다(**부정과거 능동 명령**). 예수께서 오시고 계시다; 그가 곧 오실 것이다(참조, 2:16; 22:7,20). 이것은 모든 세대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소망이요 또 그들을 격려하는 내용이다.

2:26-27 이것은 사 30:14 과 렘 19:11 이 추가된 형태로써 시 2:8-9에 대한 암시이다. 예수께서는 메시아이신 왕이시다. 그의 왕국이 전세계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성취되고 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그를 보게 되는 것은 값지다!

2:26 “만국” 이 구약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야웨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을 일컫기 위한 방법이였다(7:9은 예외임). 이 용법은 경건치 않고 사악한 민족들을 가리키는 방법이 되었다(참조, 2:26; 5:9; 10:11; 11:2,9,18; 12:5; 13:7; 14:6,8; 16:19; 17:15; 18:3,23; 19:15; 20:8).

2:27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미 모든 권세를 예수께 주셨다(참조, 시 2 편; 마 28:18; 빌 2:9-11).
 예수의 왕국이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27 절에 있는 구약의 인용문은 시 2:8 에서 가져 온 것으로서 원래는 메시아를 가리켰다(참조, 12:5; 19:15). 그러나
 여기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신자들을 나타낸다. 그들이 그와 함께 다스린다. 5:10 의 특별주제를 보라.

2:28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이 문장의 해석으로서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1. 이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이다(참조, 계 22:16)
2. 이것은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알고 또 그와 교제함을 가리킨다(참조, 벧후 1:19)
3. 이것은 부활을 가리킨다(참조, 단 12:3)
4. 이것은 민 24:17 에 언급된 바 군사적인 메시아를 가리킨다
5.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기쁨을 나타낸다(참조, 욥 38:7)
6. 이것은 사 14:12 에서는 사탄을 가리키지만 여기서서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2:29 2:7 의 설명을 보라.

개역개정 3:1-6

¹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광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²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³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 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를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⁴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⁵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⁶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1 “교회” 1:4 의 특별주제를 보라.

▣ “하나님의 일곱 영광 일곱 별을 가지신 이” 이 구는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암시이다(참조, 1:4,16,20).
 일곱 별은 1:20 에서 교회들과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일곱 영광은 4:5 을 고려할 때 관련을 가지는 은유적 표현일 것이다; 이
 둘은 1:20 에서 언급된 바 교회를 나타내는 일곱 등잔과 관련을 가진다. 하나님의 일곱 영광이 5:6 에서 어린 양에 대한
 묘사로서 언급된다. 1:4 의 특별주제: 일곱 영광을 보라.

▣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예수께서는 그의 교회들이 가진 강점과 약점을 알고 계신다(참조, 2:2,19; 3:1,8,15).

- ▣ NASB, NKJV “내가 살아 있다라는 이름을 내가 가졌으나”
- NRSV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 TEV “내가 살았다는 명성을 가졌으나”
- NJB “내가 살아 있다고는 어떻게 명성을 가졌으나”

이것은 충격적인 계시이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지만(참조, 사 29:13; 롬 2:19-20; 골 2:16-23; 딤후 3:5), 그렇지 못했다!

3:2

- NASB, NRSV
- TEV, NJB “일어나라”
- NKJV “주의하라”

이것은 현재 중간태(디포) 명령으로서(현재 능동 분사와 함께 사용됨) 문자적으로는 “계속하여 보라”이다. 이것은
 2 절과 3 절에 나오는 다섯 개의 현재형 명령 가운데 처음 것이다. 예수께서는 주의하여 보기를 자신의 교회에게 명하신다!

- ▣ NASB, NKJV “그 남아 있는 것들을 굳건하게 하라”
- NRSV “그 남은 것을 굳건하게 하라”
- TEV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건하게 하라”
- NJB “네게 거의 남지 않은 활력에 어떤 조치를 취하라”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명령이다. 죽어가는 그들의 믿음 가운데 남아 있는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그들은 당장 또
 계속하여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처음 동사는 **완료 능동 직설법**이다. 그들은 영적인 사람들처럼 보였지만(참조, 사 29:13), 마 7:21-23 과 골 2:16-23 에서 언급하고 있는 종교적 사람들과 더욱 유사했다.

“온전한”은 **완료 수동 분사**로서 “주어진 과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숙하고, 완전하고, 준비됨”을 뜻한다. 그들은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 온전해 지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참조, 빌 1:6).

3:3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 및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과 함께 쓰인 **현재 능동 명령**이다. 이것은 그들이 들었고 또 계속하여 받은 복음과 관련을 가진다. 기독교는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가지는 관계이다. 이 일은 메시지를 믿음과 그 분을 영접함과 관련을 가진다. 이 일은 회개함으로써 변화되었고 또 변화되는 삶(**부정과거 능동 명령**, 3b 절) 및 순종(**현재 능동 명령**, 3b 절)을 통하여 드러난다.

▣ “지켜”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으로서, 지속적인 명령을 나타낸다.

▣ “회개하라”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명령**으로서, 완료된 회개를 암시한다. 2:5 의 설명을 보라.

▣ “만일 일까지 아니하면” 이것은 2:22 과 마찬가지로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이다. 예수께 대한 그들의 응답에 따라서 그 행동이 취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한 결과를 확실하게 하지는 못한다.

▣ “내가 도둑 같이 이르리니” 이것은 종종 재림에 대해 사용되었다(참조, 마 24:43-44; 눅 12:39-40; 살전 5:2,4; 벧후 3:10; 계 16:15). 한편, 이 문맥에서 볼 때 이것은 이 교회에 대한 일시적인 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3:4 “사태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옷을 입거나 벗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되었다(참조, 엡 4:22,24,25,31; 골 3:8,10,12,14; 히 12:1; 약 1:21; 벧전 2:1). 어떤 신자들은 이교도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았다.

▣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흰 옷은 순결함이나 승리의 상징으로서 4,5,18 절; 6:11; 7:9,13-14; 19:14 에서 사용되었다. “걸다”라는 용어는 종종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되었다(참조, 3:5; 21:24; 요일 1:6,7; 2:6,11; 요삼 3-4 절).

3:5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에게 4 가지가 주어질 것이다.

1. 그들이 메시아와 함께 거닐 것이다, 4 절
2. 그들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3.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4. 메시아께서 그들을 성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임을 시인하실 것이다

인내에 관한 2:2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것은 강력한 **이중 부정**이다. 시민이 죽은 이후에는 그들의 이름이 시의 명부에서 지워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부에서 신자들의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으실 것이다.

“생명책”이라는 은유적 표현이 계 20:12-15 에서도 나오는데, 후자의 본문에서는 두 책이 언급된다:

1.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있는 생명책(참조, 출 32:32-33; 시 69:28; 사 4:3; 단 12:1; 눅 10:20; 빌 4:3; 히 12:23; 계 13:8; 17:8; 20:12,15; 21:27)
2. 악한 자들과 의로운 자들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나 기억의 책’(참조, 시 56:8, 139:16; 사 65:6; 말 3:16)

“책”에 관하여는 5:1 의 설명을 보라.

▣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시인하듯이(“그의 이름을 부르다,” 참조, 롬 10:9-13), 그도 성부 앞에서 그들을 시인하신다(참조, 마 10:32; 눅 12:8).

“시인하다”는 *ὁμολογέω*라는 헬라어에서 왔다. 이 단어는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1.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기(참조, 마 3:6; 막 1:5; 행 19:18; 약 5:16)
2.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기(참조, 빌 2:1; 아마 롬 14:11 도 이에 해당함)
3.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참조, 마 11:25; 눅 10:21; 롬 14:11[사 45:23]; 15:9[시 18:49])

이와 관련이 있는 헬라어 단어인 *ὁμολογέω*도 비슷한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1. 죄를 인정하기(참조, 요일 1:9)
2.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시인하기(참조, 마 10:32; 눅 10:32; 요 9:22[부정적으로, 요 1:20; 12:42])
3.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을 확증하기(참조, 행 23:8; 24:14; 히 11:13)

특별주제: 고백

- 가. 같은 어근에서 나온 헬라어의 두 가지 단어가 고백과 시인의 의미로 쓰였다 (*호모로게오*와 *엑소모로게오*). 야고보서에 이 합성어가 쓰였는데, 같다는 의미의 *호모*, 말하다는 의미의 *레고*, 밖으로라는 의미의 *엑스*라는 요소로 구성된다. 기본의미는 같은 것을 말하다 혹은 동의하다 이다. 덧붙여진 말 *엑스*는 공격 시인을 뜻한다.
- 나. 영어성경에서 이 단어는 아래와 같이 번역되었다
 - 1. 찬송
 - 2. 동의
 - 3. 선언
 - 4. 인정
 - 5. 고백
- 다. 위의 단어들은 서로 상반되는 것 처럼 보이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1. 찬송하기(하나님)
 - 2. 죄를 인정하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죄있음을 인간이 자각함에서 이 두 가지가 발전했을 것이다. 한 진리를 깨닫는 것은 두 쪽을 다 깨닫는 것이 된다.
- 라.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의 용법은 다음과 같다
 - 1. 약속하기(참조, 마 14:7; 행 7:17)
 - 2. 동의를 나타내기(참조, 요 1:20; 눅 22:6; 행 24:14; 히 11:13)
 - 3. 찬송하기(참조, 마 11:25; 눅 10:21; 롬 14:11; 15:9)
 - 4. 시인하기
 - ㄱ. 사람을(참조, 마 10:32; 눅 12:8; 요 9:22; 12:42; 롬 10:9; 빌 2:11; 요일 2:23; 계 3:5)
 - ㄴ. 진실을(참조, 행 23:8; 고후 11:13; 요일 4:2)
 - 5. 공격 선언을 하기(법적 의미가 종교적 확인으로 발전됨, 참조, 행 24:14; 딤편 6:13)
 - ㄱ.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참조, 딤편 6:12; 히 10:23)
 - ㄴ. 죄를 인정하는 경우(참조, 마 3:6; 행 19:18; 히 4:14; 약 5:16; 요일 1:9)

3:6 2:7의 설명을 보라.

개역개정 3:7-13

⁷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⁸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⁹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¹⁰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¹¹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¹²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¹³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7 “거룩하고 진실하사” 7 절에는 야웨에 대한 호칭을 사용하여 예수를 설명하는 4 개의 절이 연속해서 나온다. “거룩하신”은 이사야서에서 야웨를 나타내기 위하여 30 회 사용한 용어이다. 요한은 “의로운”을 사용하여 이 단어를 대신하고 있다(참조, 15:3; 16:7; 19:2). “진실하신”은 종종 야웨께 대해 사용된 단어이다(참조, 사 65:16; 렘 10:10; 요일 5:20; 계 15:3; 16:7; 19:2). 이 처음 두 단어인 “거룩하시요”와 “진실하신”이 계 6:10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또 다시 사용되었다. “진실한”이라는 헬라어는 “거짓과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진실함”을 뜻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신실한 혹은 믿을 수 있는”을 의미한다. 예수께서는 두 가지 의미에서 다 진실하시다(참조, 3:14; 19:11; 21:5; 22:6).

☐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이것은 다윗 왕의 계보에서 나올 메시아에 대한 삼하 7 장(부분적으로는 사 22:22)의 암시이다. 후자의 본문에서 바로 이 표현이 나왔다.

☐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것은 복음을 전파함을 나타낸다(8 절의 설명을 보라).

특별주제: 신약에서 사용한 “문”의 용법

신약에서 “문”은 여러 의미를 갖는다.

1. 문자적
 - ㄱ. 집의 문, 마 6:6; 막 1:33; 2:2; 11:7; 골방, 요 20:19,26
 - ㄴ. 성전의 문, 행 3:2; 21:30
 - ㄷ. 감옥의 문, 행 5:19,23; 12:6; 16:26-27
 - ㄹ. 무덤의 문, 마 27:60; 28:2; 막 15:46; 16:3
 - ㅁ. 양의 문, 요 10:1,2
 - ㅂ. 안뜰의 문, 요 18:16; 행 12:13
2. 은유적
 - ㄱ. 시간이 압박함, 마 24:33; 막 13:29; 행 5:9; 약 5:9
 - ㄴ. 참된 믿음에 들어가는데 따르는 제약, 마 7:13-14; 눅 13:24; 계 3:20
 - ㄷ. 구원얻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 마 25:10; 눅 13:25; 계 3:7
 - ㄹ. 구원얻는 믿음의 기회, 행 14:27; 계 3:7
 - ㅁ. 사역의 기회, 고전 16:9; 고후 2:12; 골 4:3; 계 3:8
 - ㅂ. 계시, 계 4:1; 19:11
3. 예수님의 호칭, 요 10:7,9

3:8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과 완료 수동 분사이다. 이 문장은 다음을 뜻할 것이다

1. 설교의 기회(열쇠들, 참조, 마 16:19)
2. 메시아가 베푸시는 잔치에 들어감(흰 옷을 입음, 참조, 4 절)
3. 하나님께서 주신 섬김의 기회(참조, 행 14:27; 고전 16:9; 고후 2:12; 골 4:3)

▣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것은 예수께서 놀랍게 기회의 문을 열어 주신 세 가지 이유 가운데 처음 이유이다. 이 교회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어떤 부정적인 내용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 **“내 말을 지키며”** 이 동사의 시제(부정과거 능동 직설법)는 어떤 특정한 박해의 시기 혹은 결정적인 순종에 대해 시사한다. 그들이 “작은 믿음”을 가졌지만 이를 잘 사용하였다!

▣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각 지역에 있는 황제 숭배의 지지자들인 콘실리아의 요구로 인한 박해를 가리킬 것이다(참조, 2:13).

3:9 “사탄의 회당...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이것은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대를 나타낸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다.

▣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이것은 사 45:14; 49:23; 60:14 에 대한 암시이다. 이 내용은 원래 유대 나라에 나아오는 이방인들에 대한 것인데, 소위 유대인으로 불리는 이들이 메시아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와서 절하게 되는 일은 이방인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참조, 사 43:4,9). 이것은 신약 전반에 걸쳐(특히 요한이)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구약의 예언을 어떻게 적용시켰는가를 잘 나타내 보여준다. 요한은 야웨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회복된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오는 것에 대한 본문을 사용함으로써 의의 새 시대에는 이러한 지리적 정치적 표상이 확대되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나아와 절하게 되는 믿는 세상(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세계화시키는 일은 계시록이 유대 민족에 대한 구약 예언의 문자적 성취를 뛰어넘어 이를 변형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참조, 엡 2:11-3:13). 이것은 “여러 세대에게 감추어진 복음의 신비”이다!

3:10

NASB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NKJV, NJB

“네가 인내하라는 나의 명령을 지켰은즉”

NRSV

“네가 참고 인내하는 나의 말씀을 지켰은즉”

TEV

“네가 견디라는 나의 명령을 지켰은즉”

이것은 요 8:51 혹은 17:6 에 대한 말씀이다.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박해 혹은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그의 교회들을 박해에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고 계시다.

10 절은 불신자들에게 대하여 전세계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킨다. 신자들이 믿음으로 견뎌야 하는 “환란”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회가 종말에 있을 이러한 심판에서 어떻게 보전될 것인가에 대하여 해석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

1. 그 박해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는 것을 보게된다고 어떤 이들은 생각한다(참조, 요 17:15)

2. 이러한 기간이 이르기 직전에 신자들이 비밀스럽게 휴거될 것이라고 어떤 이들은 생각한다

나는 1 항의 설명을 더 좋아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1 세기에 있었던 헬라-로마 안에서 일어난 박해와 죽음에서 고난을 받았으며 복음이 전파됨에 따라 계속되는 박해와 죽음도 감내해야만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새 시대의 도래에 있어 임하는 마지막 때의 산통을 신자들이 감내해야 한다. 박해는 항상 교회를 정화시켰고 또 강화시켰다!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을 다루는 2-3 장의 문학적 단락은 순교받은 교회에게 상이 있음을 말하는 천국의 단락으로 이어진다. “하나님의 진노”가 강하게 나타난다(인 - 1/4, 나팔 - 1/3, 대접 - 전체의 멸망). 각 단계마다 잃어버려진 자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목적을 가진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진노인 두 번째 사망과 불의 호수(참조, 계 20 장)는 더 이상 구속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완전한 처벌을 위한 것이다.

박해받은 교회는 승리의 교회가 되며 그들을 박해하던 불신자들은 박해를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2:2의 특별주제: 인내를 보라.

▣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구는 불신자들에 의한 반란의 상태가 정착되었음을 반복하여 줄곧 나타낸다(참조, 계 6:10; 18:13; 1:10; 12:12; 13:8,12,14; 17:8).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여 믿기를 원하신다(참조, 딤후 2:4; 벴후 3:9). 하지만 그들은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으로 확대되는 가운데에서 조차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2:2의 특별주제: 시험을 나타내는 헬라어 용어들을 보라.

3:11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것은 주께서 곧 오심에 대한 계속적인 강조를 나타낸다(참조, 1:1,3; 2:16; 22:7,12,20). 초대교회들은 주께서 즉시 오시리라 기대했었다. 이것은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소망이다. 1:3의 특별주제: 곧 오심을 보라.

▣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으로서 “계속하여 굳게 잡아라”를 나타낸다. 2:25에서는 부정과거 능동 명령이 사용되어 굳게 잡는 단호한 행동에 초점을 두었다(2:2의 특별주제를 보라). 신자들이 하나님을 굳게 잡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굳게 잡으실 것이다(참조, 갈 6:9).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에게 요구되는 응답에 대한 언약적 관계를 나타낸다!

구원은 최초의 결단에 따른 회개와 믿음(참조, 막 1:15; 행 3:16,19; 20:21)이 삶의 자세 가운데 나타나는 회개와 믿음, 순종, 섬김, 인내로 이어짐을 뜻한다. 이 모든 항목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필요하다.

▣ “면류관” 이것은 2:10에서 언급된 스테파노스(면류관)에 대한 또 다른 지칭이다. 이것은 신실함에 대한 상이다.

3:12 “이기는 자는” 2:2의 설명을 보라.

▣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에 위치했다; 기둥이라는 표현은 안정성을 나타낸다. 빌라델비아에 있는 신전의 기둥에는 유력한 시민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여기서 사용된 “성전”(나오스)은 “거주하다”라는 동사에서 왔으며, 신이 거주하는 바로 그 장소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용어였다. 이기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참조, 시 23:6; 27:4-6).
새 시대에는 성전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은유적 표현에 속할 것이다(참조, 21:22).

▣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12 절에서 “나의”를 5 번 반복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놀랍게 나타낸다. 이름은 소유권을 상징한다(참조, 7:3; 14:1; 22:4).

▣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계시록은 이사야서의 예언을 다룬다.

- 1. 새 일들, 42:9; 43:19; 48:6 (계 21:5)
- 2. 새 노래, 42:10 (계 5:9; 14:3)
- 3. 새 이름, 62:2; 65:15 (계 2:17)
- 4. 새 하늘과 새 땅, 65:17; 66:22 (계 3:12; 21:1).

하늘에 있는 새 도성인 예루살렘에 대하여도 이사야서에서 예언하였다: 40:2,9; 41:27; 44:20,28; 52:1,2,9; 62:1,6,7; 65:18,19; 66:10,13,20 (계 21:2,10).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심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다. 구약의 예언이 우주적으로 적용되었다. 새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의의 새 시대에 대한 약속을 나타낸다.

3:13 2:6의 설명을 보라.

개역개정 3:14-22

¹⁴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¹⁵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¹⁶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¹⁷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¹⁸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¹⁹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²⁰ 불지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²¹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²²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14 “아멘이시요” 이것은 야웨의 호칭에 대한 암시로서 사 65:16 에서는 “아멘의 하나님”으로 되어 있다. “아멘”이라는 용어는 “믿다” 혹은 “믿음”을 나타내는 구약의 단어이다(참조, 창 15:16; 함 2:4). 이것은 일반적으로 신실함이나 믿을 수 있음을 강조하여 말한다(참조, 1:6; 고후 1:20). 1:6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이것은 1 장에서 취한 또 하나의 구일 것이다(참조, 1:5). 70 인역에서는 이 두 형용사가 야웨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믿음,” “믿다,” 혹은 “신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히브리 단어인 *에뻬이 퍼스트스* (신실한)와 *알레세이아*(진리)로 번역되었을 것이다. 이 두 헬라어 용어는 계시록에서 종종 예수께 대하여 사용되었다(참조, 3:14; 19:11; 21:5; 22:6).

▣
 NASB, NKJV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이가”**
 NRSV **“하나님의 창조의 원천이신 이가”**
 TEV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의 원천이신 이가”**
 NJB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신 이가”**

이것은 창 1:1 과 요 1:1 에 대한 암시이다. “시작”(히브리어, *브레쉬*)과 “원천”(헬라어, *아르케*)은 두 가지 함축적 의미를 가진다: (1) 시작 혹은 (2) 원천, 기원.

이 구는 4 세기에 있었던 아리안과 아타나시우스의 논쟁(삼위일체에 관한)에서 사용되었다. 이것은 잠 8:22-31 에 대한 암시이다. 지혜는 야웨의 첫 피조물이었고 지혜를 통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이것은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에서 사용한 “말씀”의 기원일 것이다(참조, 요 1:1).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선재하심에 대하여(참조, 요 1:1; 8:57-58; 고후 8:4; 빌 2:6-7; 골 1:17), 창조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대리자이심에 대한(참조, 요 1:3; 고전 8:16; 골 1:15,18; 히 1:2) 가장 강력한 본문 가운데 하나이다.

특별주제: 아르케

“지배”라는 용어는 헬라어로 *아르케*인데 어떤 것의 “시작” 혹은 “기원”을 의미한다.

1. 창조된 질서의 시작(참조, 요 1:1; 요일 1:1; 히 1:10)
2. 복음의 시작(참조, 막 1:1; 빌 4:15; 살후 2:13; 히 2:3)
3. 처음 목격자들(참조, 눅 1:2)
4. 표적의 시작(기적, 참조, 요 2:11)
5. 권세의 시작(참조, 히 5:12)
6. 복음의 진리에 기초한 확신의 시작(참조, 히 3:14)
7. 시작(골 1:18; 계 3:14)

이것은 “다스림” 혹은 “권세”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 인간 정부의 관리
 - ㄱ. 눅 12:11
 - ㄴ. 눅 20:20
 - ㄷ. 롬 13:3; 딤후 3:1
2. 천사적 권세자
 - ㄱ. 롬 8:38
 - ㄴ. 고전 15:24
 - ㄷ. 엡 1:21; 3:10; 6:10
 - ㄹ. 골 1:16; 2:10,15
 - ㅁ. 유 6 절

거짓 교사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경멸했다. 그들은 무법적으로 방탕한 삶을 사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 천사, 공공적 권세와 교회의 지도력보다 자신들과 자신들의 욕구를 더 앞세웠다.

3:15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것은 이 도시의 주민들이 그 지역에 있는 온천을 인해 마셔야 했던 미지근한 물에 대한 암시이다. 비슷한 책망의 말씀이 사데 교회에게 주어진다(참조, 3:1).

3:16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2:5; 3:3,16,17 에 있는 경고가 1 세기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생각할 때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것은 구원의 상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사역을 상실함에 대한 것이다(참조, 3:19; 히 12:5-13).

3:17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17 절과 18 절은 라오디게아에 대한 역사적 암시이다. 이 도시는 은행업과 양모 염색 산업과 안약의 중심지였다. 그들의 부요함으로 인한 비극은 그들이 가진 것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아주 많이 가졌다고 생각했다는 점에 있었다(참조, 3:1).

특별주제: 부

I. 구약 전체의 관점

- 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 1. 창 1-2 장
 - 2. 대상 29:11
 - 3. 시 24:1; 50:12; 89:11
 - 4. 사 66:2
- 나.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재산의 청지기이다
 - 1. 신 8:11-20
 - 2. 레 19:9-18
 - 3. 욥 31:16-33
 - 4. 사 58:6-10
- 다. 재산은 예배의 일부이다
 - 1. 두 가지 십일조
 - ㄱ. 신 18:21-29; 신 12:6-7; 14:22-27
 - ㄴ. 신 14:28-29; 26:12-15
 - 2. 잠 3:9
- 라. 부는 언약에 충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로 말해진다
 - 1. 신 27-28 장
 - 2. 잠 3:10; 8:20-21; 10:22; 15:6
- 마. 다른 사람의 희생을 바탕으로 얻은 재물에 대한 경고
 - 1. 잠 21:6
 - 2. 렘 5:26-29
 - 3. 호 12:6-8
 - 4. 미 6:9-12
- 바.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재물은 죄악된 것이 아니다
 - 1. 시 52:7; 62:10; 73:3-9
 - 2. 잠 11:28; 23:4-5; 27:24; 28:20-22
 - 3. 욥 31:24-28

II. 잠언의 독특한 관점

- 가. 부는 개인의 수고의 영역에 따른다
 - 1. 나태함과 게으름에 대한 비난 - 잠 6:6-11; 10:4-5,26; 12:24,27; 13:4; 15:19; 18:9; 19:15,24; 20:4,13; 21:25; 22:13; 24:30-34; 26:13-16
 - 2. 열심히 일할 것을 격려함 - 잠 12:11,14; 13:11
- 나. 의로움 대 악함을 말하기 위해 가난함 대 부요함을 언급함 - 잠 10:1 이하; 11:27-28; 13:7; 15:16-17; 28:6,19-20
- 다. 지혜(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지식을 따라 삶)가 부모보다 더 낫다 - 잠 3:13-15; 8:9-11, 18-21; 13:18
- 라. 경고와 충고
 - 1. 경고
 - ㄱ. 이웃이 돈을 빌리는 것의 보증서기를 주의하라(보증인) - 잠 6:1-5; 11:15; 17:18; 20:16; 22:26-27; 27:13
 - ㄴ. 악한 방법으로 부를 얻는 일을 주의하라 - 잠 1:19; 10:2,15; 11:1; 13:11; 16:11; 20:10,23; 21:6; 22:16,22; 28:8
 - ㄷ. 빌리는 일을 주의하라 - 잠 22:7
 - ㄹ. 재물의 신속히 사라짐을 주의하라 - 잠 23:4-5

- ㄱ. 심판의 날에 재물이 도움이 되지 않음 - 잠 11:4
 - ㄴ. 재물은 많은 “친구”를 갖게 함 - 잠 14:20; 19:4
 - 2. 충고
 - ㄱ. 관대할 것을 권고함 - 잠 11:24-26; 14:31; 17:5; 19:17; 22:9,22-23; 23:10-11; 28:27
 - ㄴ. 의가 부요함보다 더 낫다 - 잠 16:8; 28:6,8,20-22
 - ㄷ. 풍요로운 삶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필요를 위한 기도 - 잠 30:7-9
 - ㄹ.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다 - 잠 14:31

III. 신약의 관점

가. 예수

1. 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신뢰하는 대신 우리 자신과 우리의 부를 신뢰하게 하는 독특한 유혹을 가져 온다.
 - ㄱ. 마 6:24; 13:22; 19:23
 - ㄴ. 막 10:23-31
 - ㄷ. 눅 12:15-21,33-34
 - ㄹ. 계 3:17-19
2.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공급하신다
 - ㄱ. 마 6:19-34
 - ㄴ. 눅 12:29-32
3. 씨뿌리는 것은 거두는 것과 관련이 있다(영적 및 물질적으로)
 - ㄱ. 막 4:24
 - ㄴ. 눅 6:36-38
 - ㄷ. 마 6:14; 18:35
4. 회개가 부에 영향을 미친다
 - ㄱ. 눅 19:2-10
 - ㄴ. 레 5:16
5. 경제적 착취를 정죄함
 - ㄱ. 마 23:25
 - ㄴ. 막 12:38-40
6. 마지막 때의 심판은 우리가 재물을 사용한 것과 관련이 있다 - 마 25:31-46

나. 바울

1. 잠언과 같은 실제적인 관점(수고함)
 - ㄱ. 엡 4:28
 - ㄴ. 살전 4:11-12
 - ㄷ. 살후 3:8,11-12
 - ㄹ. 딤후 5:8
2. 예수님과 같은 영적 관점(물건들은 덧없이 사라짐, 만족하며 살라)
 - ㄱ. 딤후 6:6-10(만족함)
 - ㄴ. 빌 4:11-12(만족함)
 - ㄷ. 히 13:5(만족함)
 - ㄹ. 딤후 6:17-19(관대할 것, 부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함)
 - ㅁ. 고전 7:30-31(물건들이 바뀔 것임)

IV. 결론

- 가. 부에 관한 조직적인 성서신학은 없다.
- 나. 이 주제에 대해 다룬 완벽한 본문은 없다. 따라서 여러 본문으로부터 자료를 모아야 한다. 당신의 견해를 가지고 서로 떨어져 있는 본문을 읽으려 하지 말라.
- 다. 지혜자들(현인)이 기록한 잠언은 성경의 다른 어떤 장르보다 더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잠언은 실제적이며 개인의 삶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부분의 내용은 다른 곳에 있는 성경 본문에 의해 균형이 취해질 수 있는데 반드시 그렇게 하여 균형을 취해야 한다(참조, 램 18:18).
- 라.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 부에 대한 견해와 실제 행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만일 자본주의나 공산주의가 우리의 유일한 지침이 된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잘못된 것이다.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성공하였는지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았는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다.
- 마. 부의 축제는 반드시 참된 예배와 책임있는 청지기의 삶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참조, 고후 8-9 장).

3:18 “내게서 . . . 사서” 이것은 사 55:1-3 에 대한 암시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공짜로 제시하시지만 값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다.

▣ “흰 옷” 3:4 의 설명을 보라.

▣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구약에서 벌거벗음은 패배와 심판과 가난함의 표였다.

3:19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엘레그코*라는 이 헬라어는 “고치거나 교정하기 위하여 드러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참조, 요 3:20; 엡 5:11-14).

▣ “징계하노니”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임을 나타낸다(참조, 욥 5:17; 잠 3:12; 시 94:12; 히 12:6).

▣ “열심을 내라”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이다. 이것은 3:15-16 에서 사용된 “뜨거운” 혹은 “끓는”(제스토스)과 같은 어근에서 왔다. 하나님을 알고 또 섬기는 일은 불타는 열정과 삶으로써 나타나야 한다.

▣ “회개하라”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명령이다. 이 일곱 편지 전반에 걸쳐 불신자 뿐 아니라 신자들도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와 성숙과 안정과 기쁨을 가져야 함’을 반복하여 제시한다(참조, 2:5,16,22; 3:3,19). 회개는 최초의 행동일 뿐 아니라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

3:20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것은 “내가 서 있되 계속하여 문 밖에 서 있다”를 뜻하는 완료 능동 직설법에 이어서 현재 능동 직설법(“그리고 계속하여 두드리고 있다”)이 연속되는 구조이다. 비록 이 교회가 어떤 칭찬의 말씀도 듣지 못하였음에도 따뜻한 초청을 받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초청이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생명력 있는 교제로 돌아오라는 초청이다. 이 절은 종종 문맥에서 벗어나 복음전도를 위한 구절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움을 가리키기 위해 “문”의 비유가 복음서에서 사용되었다(참조, 막 13:28-29; 눅 12:36). 3:7 의 특별주제: 문을 보라.

▣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으로서, 어떤 행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해 말한다. 여러 나라에서 문을 두드리는 일에 말로서 하는 인사가 수반한다. 의지적인 요소에 주목하라: 각 사람이나 교회가 반드시 이에 대하여 응답하고 문을 열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에 들어 있는 언약적 면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시며 그 내용을 정하여 놓으신다. 인간은 반드시 그 분께 응답해야 한다. 또한 그 응답이 단지 최초의 응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응답이어야 함을 주목하라. 구원은 어떤 산물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되는 관계를 말한다. 그것에 굴복이 있지만 실존적 교제는 아주 분명한 요소있다!

▣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화목제에 대한 암시로서(참조, 레 3 장, 7 장)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상징적으로 함께 잡수시는 때에 가지는 교제를 나타낸다. 다른 이들은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메시아의 만찬을 가리킨다고 이해한다.

여기서 음식을 말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는 하루의 끝에 먹는 음식 즉, 가족이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나누는 음식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동양에서는 식사하는 일을 항상 언약과 우정과 교제의 표로서 여겼다.

3: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것은 친밀한 교제와 그 안에 속함을 나타내는 강력한 회화적 표현이다. 신약에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에 대해 암시하는 많은 내용이 있다(참조, 2:26,27; 눅 22:30; 마 19:28; 고전 6:2 이하; 딤후 2:12; 계 20:4). 계 22:5 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다스릴 것을 암시하고 있다. 5:10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림을 보라.

▣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으며(참조, 요 16:33; 엡 1:21-22) 그가 성부의 우편에 이미 앉아 계시며(참조, 엡 1:20; 요일 2:1; 계 22:1) 그의 승리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아는 일은 놀라운 내용이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왜 마지막 때에 대한 요한의 예언이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또 일곱 뿐 아니라) 교회에 쓴 편지의 서두에 나오는가?
2. 왜 각 편지가 1 장에 있는 그리스도께 대한 묘사로 시작하는가?
3. 이 편지들이 오늘날의 교회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4. 이 교회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당신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5.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토록 구원받은 것”이라는 교리가 이 편지에 있는 ‘경고 및 인내에의 초대’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6. 왜 3:20 이 구원에의 약속이 아닌가?
7.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어 나오는 단락은 문학적으로 어떠한 단락인가? 하나님께서 1 세기의 신자들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신자들을 박해로부터 건져 주실 것인가?

요한계시록 4-5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⁴)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하늘에서의 예배	하늘에 있는 보좌의 방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에 대한 환상	하늘에서의 예배	하나님께서 세계의 미래를 어린 양에게 말기시다
4:1-6a	4:1-11	4:1-6a	4:1-6a	4:1-11
4:6b-11		4:6b-11	4:6b-8 4:9-11	
두루마리와 어린 양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다		두루마리와 어린 양	
5:1-14	5:1-7	5:1-5	5:1-5	5:1-5
	어린 양이 합당하시다	5:6-10	5:6-10	5:6-10
	5:8-14			
		5:11-14	5:11-14	5:11-14

독서의 세 번째 단계 (v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가. 이 두 장은 하나의 문학적 단락을 이룬다: 4 장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엘로힘의 함축적 의미, 창조자요 공급자요 모든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참조, 시 104 편)을 5 장은 하나님의 어린 양(예수)을 구속자로 나타낸다(야웨의 함축적 의미, 구원자요 구속자요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참조, 시 103 편). 이 문학적 대단락은 일곱 인을 때는 부분까지 이어진다. 한편 인 자체는 6 장에서 시작하여 8:1 까지 이어진다.

나. 4 장은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를 이룬다(야웨의 영광과 다스리심을 분명히 함). 하늘 보좌에 대한 장면은 히 8 장과 9 장에 나오는 하늘 장막의 장면과 비슷하다. 이 모티브(하나님의 하늘 영광)는 초기의 유대 신비주의에서 중심적 내용을 이루었다.

- 다. 계시록은 우선적으로 재림이 어떻게 또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책이 아니다; 이 책은 우선적으로 인간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다룬다. 이 두 장은 이 책의 나머지 부분 및 책 전체의 목적을 이해함에 있어서 핵심적 내용이다.
- 라. 이 두 장에서 살펴 볼 때 요한은 영적 진리를 묘사하기 위해 묵시적 용어를 사용하였음이 확실하다. 요한은 구약의 묵시적 본문에 있는 회화적 표현을 사용하였다-특히 겔 1 장과 10 장; 2:9,10; 단 4 장; 7:13-14; 또한 에녹 1 서와 같은 유대교의 신구약 중간기의 묵시적 글에서 수 많은 내용을 상징을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취하여 이 책을 해석을 위한 역사적 틀로 삼는 것은 아주 잘못된 접근이다. 특히,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 지리적 환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고대의 묵시적 책에 있는 세세한 내용에 일치시키는 일은 더욱 그러하다. 이 말은 계시록이 참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 전혀 아니다. 이 책을 역사적 기록처럼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 책의 해석을 위해 더 적합한 해석적 모델은 예수님의 비유가 될 것이다(피와 스투어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256 쪽을 보라)!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4:1-11
¹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르도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²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³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⁴또 보좌에 둘러 이십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⁵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렛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켄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⁶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⁷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⁸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⁹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¹⁰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¹¹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4:1
 NASB, NKJV "이 일들 후에 내가 보았다"
 NRSV "이 일 후에 내가 보았다"
 TEV "이 때에 내가 또 다른 환상을 가졌고 보았다"
 NJB "그 때, 내 환상 가운데 내가 보았다"

이 문법적 틀은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7:1,9; 15:5; 18:1 및 19:1 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환상의 연속이다. 구약에서 대부분의 예언적 환상은 언약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 즉, "만일... 그때에는"으로 되어 있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강조한다. 현재 이스라엘이 신실함이 그들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이것은 계시록에 있는 요한의 환상에서도 사실이다.

1. 예수께서 일곱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조건적이다. 그들이 예수님의 경고에 어떻게 응답하는가가 그들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2. 인과 나팔의 심판도 조건적이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우주적 구속계획(참조, 창 3:15; 15:12-20; 17:1-8, 또한 행 2:23; 3:18; 4:28; 13:29)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는 무조건적이지만 인간이 언약에 응답하여야 하는 면에서는 조건적이다(참조, 창 12:1; 계 2-3 장). 이 우주적인 구속계획은 4 장과 5 장에 나오는 하늘의 광경에서 드러나고 있다.

특별주제: 밤의 복음적 편향
 나는 독자인 당신에게 내가 이 점에 있어서 편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나의 조직신학은 칼빈주의나 세대주의의 것(즉, 마 28:18-20; 눅 24:46-47; 행 1:8)이 아니라 대위임에 기초한 복음주의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예, 창 3:15; 12:3; 출 19:5-6; 렘 31:31-34; 겔 18 장; 36:22-39; 행 2:23; 3:18; 4:28; 13:29; 롬 3:9-18,19-20,21-31), 즉 그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모든 이 (참조, 창 1:26-27)를 위한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믿는다. 구약의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된다(참조, 갈 3:28-29; 골 3:11). 예수님은 감추어져 계셨지만 지금은 드러난 하나님의 신비이시다(참조, 엡 2:11-3:13)! 성경의 열쇠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약의 복음이다.
 이러한 사전 이해는 내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갖고 있는 색채이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모든 본문을 읽는다! 이것은 정말 어떤 편향을 나타낸다(모든 해석자는 편향을 가진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 사실에 기초한 전체조건이다.

▣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것은 **완료 수동 분사**로서 하나님께 의해 열린 문(수동태)을 의미하며 또 그 문이 열린 상태로 있음을 뜻한다(완료 시제). 이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이다. 이것은 19:11; 겔 1:1; 마 3:16; 요 1:51; 행 7:55-56 과 비슷한 내용이다. 3:7 의 특별주제를 보라.

“하늘”이라는 용어는 요한의 글에서 50 회 이상 사용되었는데, 12:12 을 제외하고는 항상 단수형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단수형과 복수형**이 신학적으로 나타내는 차이를 분명히 하기는 어렵다. 랍비들은 3 층 혹은 7 층 하늘이 있다고 말했다(참조, 고후 12:2). 요한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하늘에 관심을 가진다; 그는 하나님의 영역을 바라보도록 이러한 표현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땅 위에는 혼동이 있을지라도, 하늘에는 그러한 혼동이 없다.

특별주제: 하늘들

구약에서 “하늘”은 대개 **복수형**(즉, *삼마임*)으로 되어 있다. 히브리 용어는 “높이”를 뜻한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시다. 이 개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뛰어난심을 나타낸다.

창 1:1 에 있는 “하늘들과 땅”의 복수형은 하나님께서 (1) 이 지구의 대기층 혹은 (2) 모든 실재(즉, 영적 및 물질적)를 창조하신 것을 뜻한다. 이러한 기본적 이해에 기초하여 다른 본문들이 천국의 여러 층을 뜻하는 말로써 인용되었다: “하늘들의 하늘”(참조, 시 68:33) 혹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참조, 신 10:14; 왕상 8:27; 느 9:6; 시 148:4). 랍비들은 하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측했다.

1. 이층 천(즉, R. 유다, 하기가 12b)
2. 삼층 천(레위의 증거 2-3; 이사야의 승천기 6-7; 시 114:1 의 미드라쉬 테힐림)
3. 오층 천(바룩 3 서)
4. 칠층 천(R. 시몬. 라키스; 에녹 2 서 8 장; 이사야의 승천서 9:7)
5. 십층 천(에녹 2 서 20:3b; 22:1)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물질세계와 분리되어 계심과 그의 뛰어난심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었다. 랍비들의 유대교에서 하늘에 대해 가장 많이 사용한 수는 일곱이었다. A. 코헨 (*모든 의의 탈무드*, 30 쪽)은 이것이 별들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일곱이라는 수가 완전 수라고 본다(즉, 창세기 1 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칠일에서 제 칠일이 하나님의 안식을 나타낸다).

바울은 고후 12:2 에서 “삼층” 천(헬라어로는 *우라노스*)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몸소 계신 위엄있는 장소를 표현한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가졌다!

▣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1:10 에서 언급되었다(설명을 보라). 얼핏 보기에 예수께서 이것을 말씀 하시는 것으로 보이지만, 4 장과 5 장이 한 문학적 단위를 이루고 있으며 또 예수께서는 5:5,9-1,12,13 에 이르러서야 등장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천사가 계시하는 내용일 것이다(이는 묵시문학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천사의 목소리와 나팔을 부는 일은 재림에 대한 바울의 묘사에서 함께 나타난다(참조, 살전 4:16).

▣ “이리로 올라오라” 세대주의자들은 계시록에 대해 가진 그들의 전체적 이해에 기초하여 이것이 교회의 비밀스런 휴거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즉, 구약의 모든 예언은 문자적으로 성취되어야 한다; 교회와 이스라엘은 완전히 분리되었다; 교회는 비밀스럽게 하늘로 들어 올려져 구약의 예언이 지상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성취된다). 이러한 해석은 종종 침묵에서 취한 논리에 기초한다. 그 이유는 계시록에서 “교회”라는 용어가 3 장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22:10 은 예외임). 한편, 요한 이외에는 누구도 하늘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암시를 본문에서 찾아볼 수 없다.

5 절의 “번개”와 “우렛소리”를 고려할 때, 이 내용은 모세가 시내 산에 불리워 올라가(참조, 출 19:20,24)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일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출 19-20 장, 특히 19:16,19).

하나님의 목소리가 출 19:19 에서 큰 나팔소리와 같았다는 언급에도 주목하라(1:10 의 특별주제: 이스라엘에서 사용한 나팔들을 보라).

▣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이 구는 단 2:29,45 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미래의 사건들이 아니라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을 가리킨다. 계시록은 1 세기 및 먼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책이다:

1. 모든 세대에 되풀이 하여 일어날 사건들(참조, 마 24:4-14)
2.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 기간(이 책의 일곱가지 문학적 단락)을 뜻한다

이 구는 1:1 에 있는 것과 유사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반드시(때이) 실현될 것이다. 여기서 시간적인 요소(즉, 임박한)를 말하지 않고 있지만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신 구속적인 계획을 성취하실 것이다!

4:2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요한은 1:10; 17:3; 21:10 에서 성령에 감동되었음을 말한다. 이것은 겔 8:1-4; 11:1 에서 에스겔에게, 마 4:8 에서 예수님께, 행 8:39-40 에서 빌립에게, 고후 12:1-2 에서 바울에게 일어난 일과 비슷한 내용일 것이다. 이것이 영적으로 황홀한 상태를 뜻하는지 혹은 신체가 옮겨진 것을 뜻하는지는 불확실하다.

▣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쓰로노스)는 이 책에서 47 회 사용되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늘에 대한 이 환상에서 중심을 이루는 주제이다(4 장과 5 장). 보좌는 야웨께서 역사를 모두 주관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상징적 및 묵시적 방법이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로서 영원하고 인격적인 영이시다; 그는 어떤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으시다(2:1 의 특별주제를 보라)!

예언적이고 묵시적인 장르를 사용한 목적의 하나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아시며 그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나타내는데 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이미 아신바 되었으며 목적을 가진다(헬로스, 참조, 마 24:14; 고전 15:24-28).

보좌는 “서 있는” 것으로 나온다. 이 **미완료 시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1) 이것이 항상 서 있다 (2) 이것이 방금 세워졌다. 이것은 단 7:9 의 암시일 것이다: “보좌가 세워졌다.”

4:3 “앉으신 이의 모양이” 요한이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사고에 의하면 이것은 극도로 부적절한 일이기 때문이다(참조, 출 33:17-23; 사 6:5).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 가지의 보석이 지닌 색으로써 묘사한다. 겔 28:13 에서도 보석을 사용하여 천상(하나님의 정원)의 모습을 묘사한다.



NASB, NKJV,
NRSV, TEV
NJB

**“벽옥”
“다이아몬드”**

고대의 글에 나오는 보석의 색과 이름을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다. 보석의 이름과 색은 나라마다 또 시대마다 달랐다. 벽옥은 출 28:17-21 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흉패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보석이였다. 이 보석은 투명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보석은 “유리 바다”와 관련을 가지게 된다(참조, 4:6; 15:2; 21:11,18,21). 이 보석은 우리가 말하는 다이아몬드일 것이다.



NASB, NKJV
NRSV, TEV
NJB

**“사르디우스”
“홍옥수”
“루비”**

사르디스는 붉은 피같은 보석이였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흉패에서 가장 나중에 나오는 보석이였다. 이 보석은 하나님께서 처음이며 마지막 이심을 유다 지파의 메시아에 강조점을 두며 암시한다(에머랄드빛 무지개). 이 두 돌은 각종 보석에 대한 요약으로 고대의 글에 나타나고 있다.

▣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은 대제사장의 흉패에서 유다를 상징하는 보석이다. 무지개에 대한 강조에 관하여 두 가지 이론이 있다.

1. 어떤 이는 이것이 창 9:16 에 대한 암시라고 이해한다. 무지개가 보호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며 폭풍이 지났음을 나타낸다; 심판의 한 가운데에서 약속과 공홍하심이 나타난다.
2. 다른 이들은 이것이 겔 1:28 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야웨의 영광을 상징한다고 설명한다.

무지개가 심판의 상징 또는 언약의 상징인지는 불명확하다. 하지만 이것은 특별한 무지개임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그 빛이 녹색이기에 일반적인 빛의 반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4:4 “또 보좌에 둘러 이십사 보좌들이 있고” 이십사 보좌들이 있는 것에 대하여 여러 설명이 제기되었다.

1. 어떤 이는 이것이 대상 24:7-19 에서 다윗이 세운 아론 자손의 제사장 제도와 관련을 가진다고 본다
2. 어떤 이는 이것이 왕상 22:19; 사 24:23; 단 7:9-10,26 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 천상의 회의에 대한 암시라고 말한다
3. 또 어떤 이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및 열두 사도의 함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한다고 본다 (참조, 21:12,14)

이 수가 신구약 중간시기에 속하는 묵시문학에서 나타나지 않는 점이 놀랍다.

▣ **“이십사 장로들이 . . . 앉았더라”** 이 장로들이 누군가에 대하여도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 주요한 두 이론은 다음과 같다:

1. 그들이 신자들을 대표한다:
 - 가. 흰 옷을 입고 있다(참조, 고전 9:25; 살전 2:19; 딤후 4:8; 약 1:12; 뵤전 5:4)
 - 나. 천사들이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다고 말한 곳이 결코 없다(참조, 4,10 절)
 - 다. 이들이 천사들을 따로 언급하고 있는 본문에 나온다(참조, 5:11)
 - 르. 벌게이트, 페쉬타, 후기에 속하는 공인성경의 5:9-10 에서는 구속의 노래에서 장로들을 포함시킨다
2. 그들이 천사들을 대표한다:
 - 가. 천사들이 흰옷을 입었다(참조, 마 28:3; 요 20:12; 막 16:5; 행 1:10; 계 15:6; 단 10:5,6)
 - 나. 이 장로들은 5:11,14 에서 항상 생물과 동일시 된다. 그 본문은 천사들의 세 부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 ㄷ. 그들 가운데 한 장로가 계시를 드러내는 천사의 역할을 감당했다(참조, 5:5)
- ㄹ. 사 24:23 에서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있는 천사가 “장로”로 불린다
- ㅁ. 5:10 에 대한 본문적 증거는 장로가 구속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에 자신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별주제: 장로

1. 천사들의 회의에서 구성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가리킨다(참조, 사 24:23). 이 용어가 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들에게 사용되었다(참조, 4:4,10; 5:5,6,8,11,14; 7:11,13; 11:16; 14:3; 19:4).
2. 구약에서 지파의 지도자들(자켄)을 가리킨다(참조, 출 3:16; 민 11:16). 후에 신약에서는 산헤드린으로 불리는 유대인의 최고법정을 이루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가리켰다(참조, 마 21:23; 26:57). 예수님 당시에 이 70 명의 지도자들은 타락한 제사장직에 의해 조종되었다.
3. 지역에 있는 신약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이것은 세 동의어 가운데 하나였다(목사, 감독, 장로, 참조, 딤후 1:5,7; 행 20:17,28). 베드로와 요한은 이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들을 지도자 그룹의 하나로 제시한다(참조, 벘전 5:1; 요이 1 절; 요삼 1 절).
4. 교회에 있는 노인들을 가리킨다. 그들이 항상 지도자였던 것은 아니다(참조, 딤후 5:1; 딤후 2:2)

▣ “**금관**” 성경 어디에서도 천사들이 관을 쓴 것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다(강력한 천사가 나오는 단 10 장에서도 그렇다). 9:7 에 나오는 바 심연에 있는 악한 영의 무리는 금관과 비슷한 어떤 것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제시된다.

4:5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렛소리가 나고**” 이것은 시내 산 위에 임하신 하나님 주위의 상황을 설명하는 출 19:16-19 과 비슷한 내용이다. 이 구는 하나님의 임재나 심판을 가리킨다(참조, 8:5; 16:18).

▣ “**등불 일곱이**” 이것은 일곱 가지를 가진 한 등잔이 아니라(참조, 출 25:37; 속 4:2) 각기 분리된 일곱 등잔으로 제시된다(촛불). 이 등불은 “일곱”으로 이루어진 다른 여러 항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

▣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 구는 1:4; 3:1; 5:6 에서 사용되었다. 이것은 종종 1:4 에 기초하여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구절도 그러한 해석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 구는 교회(일곱 별, 3:1; 일곱 등잔, 4:5) 혹은 어린 양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뜻한다(5:6). 1:4 의 특별주제: 일곱 영을 보라.

4:6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이 구와 관련하여 수 많은 이론이 제시되었다:

1. 이것은 성전에 있는 대야를 가리킨다(참조, 왕상 7:23; 대하 4:2-6)
2. 이것은 출 24:9-10 에 있는 수정바다의 개념과 관련을 가진다
3. 이것은 겔 1:22,26; 10:1 에 있는 하나님의 이동식 보좌인 수레의 일부분이다
4.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분리됨을 나타내는 상징이다(참조, 15:2)

이 바다가 계 21:1 에서 제거되었다. 인간의 죄와 분리에 대한 저주(참조, 창 3 장)가 가 제거됨을 가리킨다. 21:1 의 설명을 보라.

▣ “**네 생물**” 이 생물들에 대해 6-8 절에서 묘사한다. 그들은 겔 1:5-10; 10:1-17 에 나오는 그룹 및 사 6:2,3 에 나오는 스라빔과 함께 나오는 것이다. 그들의 날개와 얼굴 수는 다양했다. 인간/짐승/천사의 모습을 함께 가진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었다(참조, 4:6,8,9; 5:6,8,11,14; 6:1,3,5,7; 7:11; 14:3; 15:7; 19:4).

특별주제: 그룹들

- 가. 이들은 여러 천사적 존재의 하나이다. 이 특별한 종류의 천사는 성소를 지켰다(참조, 출 25:18-22; 왕상 8:6-7).
- 나. 어원은 확실하지 않다:
 1. 아카디아어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또는 “조정자”를 뜻한다
 2.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이 “전차” 와 “그룹이란 이름의 천사들”(참조, 겔 1 장, 10 장)과 관련된 단어유희일 것이다
 3. 어떤 사람은 이것이 “빛나는 형상”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 다. 육체적 모습—이에 대한 성경의 다양한 설명 및 동물 모양을 가진 인간에 대한 고대 근동의 다양한 기록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다음과 연결시킨다:
 1. 메소포타미아의 날개 달린 황소

2. “독수리 머리와 날개에 사자 몸을 한 괴물”이라고 불리는 이집트의 날개 달린 독수리 사자
 3. 두로 왕 히람의 왕좌에 있는 날개 달린 생물
 4. 이집트의 스�핑크스와 사마리아에 있던 아합 왕의 상아 궁전에서 발굴된 이와 비슷한 형상
- 라. 육체적 설명
1. 그룹의 모습은 사 6 장의 스랍과 연결된다.
 2. 다른 모습의 예들
 - ㄱ. 얼굴의 수
 - (1) 들—겔 41:18
 - (2) 넷—겔 1:6,10; 10:14,16,21,22
 - (3) 하나—계 4:7
 - ㄴ. 날개의 수
 - (1) 들—왕상 6:24
 - (2) 넷—겔 1:6,11; 2:23; 10:7,8-21
 - (3) 여섯(사 6:2 의 스랍과 같이)—계 4:8
 3. 다른 특징
 - ㄱ. 인간의 손—겔 1:8; 10:8,21
 - ㄴ. 다리
 - (1) 무릎이 없이 곧음—겔 1:7
 - (2) 송아지 발—겔 1:7
 4.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그룹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인정했다 (참조, *유대 고대사*, VIII.3:3).
- 마. 성경에서 이들이 언급되는 곳과 목적
1. 생명나무를 지키는 자, 창 3:24(아마도 겔 28:14,16 에서 사탄에 대해 은유적으로 사용하였을 것임)
 2. 성막을 지키는 자
 - ㄱ. 언약궤 위에; 출 25:18-20; 민 7:89; 삼상 4:4
 - ㄴ. 성막을 덮는 막 휘장에 그룹의 모양을 수놓음; 출 26:1,31; 36:8,35
 3. 솔로몬 성전을 지키는 자
 - ㄱ. 지성소 안에 둔 조각한 두 큰 그룹; 왕상 6:23-28; 8:6-7; 대하 3:10-14; 5:7-9
 - ㄴ. 내 외소 사방 벽에; 왕상 6:29,35; 대하 3:7
 - ㄷ. 돛 받침 수레들이 연결된 판 위에; 왕상 7:27-39
 4. 에스겔의 성전을 지키는 자
 - ㄱ. 벽과 문에 새겨짐; 겔 41:18-20,25
 5.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연결됨
 - ㄱ. 아마도 바람에 대한 은유; 삼하 22:11; 시 18:10; 104:3-4; 사 19:1
 - 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자; 시 80:1; 99:1; 사 37:16
 - ㄷ. 하나님의 움직이는 수레 보좌를 지키는 자; 겔 1:4-28; 10:3-22; 대상 28:18
 6. 헤롯 성전
 - ㄱ. 벽의 그림(즉, 지키는 자, 참조, 탈무드 “요마” 54a)
 7. 계시록의 보좌 장면(즉, 지키는 자, 참조, 계 4-5 장)

▣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것은 각 생물이 가진 네 얼굴에 있는 눈을 뜻하거나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나타내는 성경의 은유적 표현이다(참조, 8 절; 겔 1:18; 10:12).

4:7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것은 겔 1:6,10 에 대한 명백한 암시이다. 랍비들의 글에서 이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강한 종류에 속한다. 이레니우스(주후 120-202 년)는 네 얼굴을 사복음서의 저자들에게 대하여 사용하였지만(요한을 독수리로, 누가를 사람으로, 마가를 송아지로, 마태를 사자로 교회의 전통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설명은 상당히 주관적이고 우화적이다. 이 네 생물은 문자적인 묘사가 아니라 상징적인 내용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구약의 강조점을 고려할 때, 인간과 짐승이 함께 나타나는 것은 레위적 관점에서 볼 때 부정함을 뜻한다. 이것은 어떤 실제 사건이나 일에 대한 역사적인 서술이 아니라, 궁극적이고 영적인 진리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상당히 상징적인 장르에 속한다;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살아 계시며(8 절과 9 절) 거룩하신 분이시고(8 절)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나타낸다(11 절).

4:8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생물들은 사 6:2,3 에 나오는 바 슥이 부른 찬송을 반복하여 하고 있다. 이것은 계시록에 있는 여러 찬송 가운데 처음 것이다(참조, 4:8,11; 5:9-10,12,13; 7:12; 11:17-18; 12:10-12; 15:3-4; 16:5-7; 18:2-8; 19:1-3,6-7). 종종 찬송이 환상을 해석하는 도구가 된다. 유리바다와 같은 상징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히브리어의 최상급으로서 사용되었다.

▣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 세가지 칭호는 구약에서 하나님께 사용한 칭호이다(참조, 1:8)

1. 주 = 야웨(참조, 출 3:14; 시 103 편)
2. 하나님 = 엘로힘(참조, 시 104 편)
3. 전능하신 이 = 엘 사다이, 족장들이 부른 하나님의 이름(참조, 출 6:3)

1:8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라.

▣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구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칭호이다(참조, 1:4; 4:8; 1:4 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인 야웨와 관련을 가지는 언어유희이다. 이 이름은 “있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하였다. 이 주제가 9 절과 10 절에 있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라는 구에서 반복된다(참조, 10:6; 15:7).

4:9-11 이것은 헬라이어 본문에서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이 문장은 보좌에 앉으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궁극적인 예배를 드려야 함을 나타낸다(참조, 시 47 편; 단 4:34; 12:7). 이것은 천상의 회의에 참석한 천사들을 암시하거나(참조, 왕상 22:19; 욥 1:6; 단 7:10) 혹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천사의 임재”에 대한 암시이다(즉, 토빗 12:15).

4:9 “그 생물들이” 이 천사적 존재가 이 책에서 종종 언급된다(참조, 5:6,8,14; 6:1; 7:11; 14:3; 15:7; 19:4).

4:10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찬송과 영예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그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그들이 어떤 이유로 관을 가진 것이든지 간에, 그들은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했다!

4:11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장로들과 생물들은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 유지자, 공급자로서 찬양했다. 이것은 엘로힘이라는 이름에 둔 신학적 강조이다(참조, 창 1 장; 욥 38-41 장; 시 104 장). 이 장에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주요 이름의 신학적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 신약의 점진적인 계시는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그 대리인이셨음을 분명히 한다(참조, 요 1:3; 고전 8:6; 골 1:16; 히 1:2).

개역개정 5:1-5

¹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²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³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⁴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⁵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5:1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이 구의 적절한 해석은 “그의 오른손에”이다(람사가 영어로 번역한 페쉬타역 및 Amplified 성경).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책을 꼭 잡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 책을 받아 열게 하려고 들고 계시는 것을 나타낸다.

“그의 오른손에”라는 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 성경에서 사용한 신인동형적 표현이다(2:1의 특별주제를 보라).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 그는 지음을 받지 않으시고 또 영원하신 영적존재이시다(참조, 요 4:24).

▣ “두루마리” 이 단어는 헬리어로 “비블리온”으로서 후에 필사본(책)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책의 형태가 주후 2 세기 이전에는 없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파피루스 혹은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를 뜻한다고 본다(NKJV, NRSV, TEV, NJB). 이 책의 의미에 관하여 여러 설이 제기 되었다.

1. 겔 2:8-10 및 계 10:8-11 에 나오는 ‘화의 책’
2. 하나님께서 영적 소경으로 만들어 놓으셨기에 그렇게 된 사람들이 읽기 싫어하는 책(참조, 사 29:11; 롬 11:8-10,25)
3. 마지막 때의 일들(참조, 단 8:26)
4. 전통적으로 일곱 인으로 봉한 로마인의 유언이나 증언
5. 생명의 책(참조, 단 7:10; 12:1). 이 책은 계시록에서 매우 자주 언급된다(참조, 3:5; 17:8; 20:12,15)
6. 구약(참조, 골 2:14; 엡 2:15)
7. 에녹 1 서 81:1,2 에 나오는 하늘의 서판.

나의 개인적 견해로는 1 항, 2 항, 3 항의 설명이 가장 좋다고 본다; 이 두루마리는 인간의 운명 및 하나님께서 역사의 막을 내리심에 대해 기록한 책이다.

▣ **“안팎으로 썼고”** 이것은 고대에는 매우 드문 기록방법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가 겔 2:8-10 과 속 5:3 에서 언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파피루스의 뒤쪽에 기록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역사 및 인간의 운명에 대해 하나님께서 완전하고도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드러낸다.

이 두루마리에 대해 사용한 두 **분사**(기록되었고 인봉한)는 **완료 수동**의 형태이다. 처음 것은 성경이 영감으로 된 것임을 나타내는 독특한 문법적 형태이다(즉, 요 6:45; 8:17; 10:34 등). 다음 것은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며 간직하셨음을 나타낸다.

▣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일곱 인은 두 가지 경우에서 왔을 것이다.

1. 일곱은 창세기 1 장에 비추어 볼 때 완전수이다. 따라서 완전하게 인봉되었음을 뜻한다.
2. 로마인들의 유언은 일곱 인으로써 인봉되었다.

인은 왁스로 된 작은 얼룩으로서 그 주인의 인을 담고 있었다. 인봉은 책이나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곳에 위치했다(7:2 의 특별주제를 보라). 6:1-8:1 에서는 이 인을 떼는 일이 지구에 화를 가져옴을 말하지만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이 단락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이 책의 구조를 볼 때 일곱 번째 인은 일곱 나팔이 시작되게 한다. 일곱 나팔이 일곱 번째 인이다.

5:2 **“보매 힘있는 천사가”** 어떤 이는 어원적으로 “하나님의 강한 자”라는 뜻을 가지는 가브리엘과 관련을 시킨다. 또 다른 힘있는 천사가 10:1 과 18:21 에서 언급되고 있다. 천사인 중재자는 신구약 중간시대에 속하는 유대인의 묵시문학에서 자주 나온다.

▣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그는 모든 피조물에게 말하고 있다.

▣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합당하냐”는 천칭과 관련을 가지는 상업적 용어이다. 이 단어는 “~와 관련이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게 되었다. 어떤 것을 저울의 한 쪽에 올려 놓을 때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 다른 편에 올려놓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부정적 혹은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여기서는 죄없으신 구주의 무한한 가치를 뜻한다. 예수께서만 구속사역을 위해 합당하시다. 예수께서만 모든 것을 끝마치는 사역에 합당하시다. 오직 예수께서만 합당하시다(참조, 5:7,9-10,12).

5:3 **“하늘 위어나 땅 위어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것은 천사나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완전히 무능력함을 보여준다! 반역이 그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 피조물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아무도 합당치 않다!

5:4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것은 **미완료 시제의 동사**로서 어떤 행동의 시작 혹은 과거에 반복된 행동을 가리킨다. 이것은 고대근동의 특징적인 “큰 소리로 울음”을 뜻한다.

5:5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여기서 우리는 한 장로가 천사인 해석가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본다. 다니엘서에서도 그러하다. 4:4 의 특별주제: 장로를 보라.

▣ **“울지 말라”**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능동 명령**으로서,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추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유대 지파의 사자”** 이것은 창 49:9-10 에 대한 암시이다(참조, 제 2 에스드라서 12:31,32). 메시아는 유대 지파 출신으로서 정복하는 사자(왕)이다.

▣ **“다윗의 뿌리”** 이것은 삼하 7 장 및 사 11:1-10 에 대한 암시이다. 다윗 왕의 후손인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렘 23:5; 33:5 및 계 22:16 에 나타난다.

▣ **“이겼으니”**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으로서 성취된 내용을 나타낸다(즉, 갈보리와 빈 무덤). 사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정복하려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희생제물로써 나아감을 주목하라(참조, 6 절).

개역개정 5:6-10

⁶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⁷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⁸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⁹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¹⁰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5:6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희생제물인 어린 양(즉, 아기 양, 알니온)에 대한 이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속죄 및 부활을 나타낸다. 어린 양에 대해 계시록에서 줄곧 언급하고 있다(참조, 5:6,8,12,13; 6:1,16; 7:9,10,14,17; 12:11; 13:8; 14:1,4(2 회),10; 15:3; 17:14; 19:7,9; 21:9,14,22,23,27; 22:1,3). 희생제물에 대한 은유적 표현은 다음의 항목에서 왔다

1. 유월절 어린 양(출 12 장)
2.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드린 어린 양(계속적임, 참조, 출 29:38-46; 민 28:3,6,10,23,31; 29:11,16,19,22,25,28,31,34,38)
3. 사 53:7 혹은 요 1:7,29 에 나오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 은유적 표현은 두 가지의 구별된 의미로서 예수께 사용되었다: (ㄱ) 죄없는 희생제물 (ㄴ) 이기는 승리자(유대인의 묵시문학에서도 나옴, 참조, 예녹 1 서 90:9; 요셉의 증언 19:8-9). 신약에서는 단지 침례요한이 요 1:29,36 에서, 요한이 계 5:6,8,12,13; 16:1 에서 예수를 “어린 양”으로 언급한다(바울은 고전 5:7 에서 이러한 내용을 주장하지만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가 죽었으나 이제 살아 계시다. 메시아의 부활을 바다 짐승이 흉내낸다(참조, 13:3).

▣ “일곱 빨과 일곱 눈이 있으니” 처음 용어는 능력 혹은 전능함을 가리킨다(참조, 출 27:2; 29:12; 신 33:17 대하 18:10; 시 112:9; 132:17; 렘 48:25; 겔 29:21; 숙 1:18-21). 다음 용어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가리킨다(참조, 4:6,8; 겔 1:18; 10:12; 숙 3:9; 4:10). 이러한 상징은 단 7:13-14 의 것과 비슷하다.

▣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1:4 의 특별주제 및 4:5 의 설명을 보라.

5:8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예배함을 나타낸다(참조, 3 절). 예배는 계시록의 중요 주제이다.

▣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천사들은 신구약 중간기의 유대문학에서 기도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자들로 나타난다(참조, 토빗 12:15; 바룩 3 서 11 장). 향이 기도를 나타내는 개념은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온다(참조, 8:3-4; 시 141:2; 눅 1:10).

▣ “성도” “교회”라는 단어가 3 장 이후로 나타나지 않지만, “성도”라는 개념은 이 책을 통하여 계속 나타나며 하나님의 백성을 분명히 가리킨다. 신자를 “성도”로 표현하는 것이 계시록에서 자주 나온다(참조, 8:3-4; 11:18; 13:7,10; 14:12; 16:6; 17:6; 18:20,24; 19:8; 20:9).

특별주제: 성도

이것은 **야웨**께서 독점적으로 사용하시도록 어떤 사람, 물건, 장소를 구별한다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진 히브리어의 *카다쉬*와 같은 뜻의 헬라어이다. 이것은 영어에서 “신성한 자”라는 개념을 나타낸다. **야웨**는 그의 본질(스스로 영원히 계신 영)과 성품(도덕적으로 완전하심)에 의해 인간과 구별되신다. 그는 모든 것을 측정하고 심판하는 기준이 되신다. 그는 초월적인 분이시며 홀로 거룩하시고 우리와 전혀 다른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교제를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타락(창 3 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관계적이며 도덕적인 장벽을 만들었다. 하나님은 양심있는 피조물을 회복시키실 것을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신다(참조, 레 11:44; 19:2; 20:7,26; 21:8). **야웨**와의 믿음의 관계로 그의 백성은 그 안에 있는 그들의 언약적 자격으로 거룩하게 되지만 또한 그들은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는다(참조, 마 5:48).

이러한 거룩한 삶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또한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인해 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고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음의 역설적인 상황을 만든다.

1.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로 거룩하게 됨
 2. 성령의 임재하심 때문에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음
- 믿는 자들은 “성도”(하기오이)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1. 거룩하신 자(성부)의 뜻이 있으며
 2. 성자(예수님)의 사역이 있고
 3.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신약은 항상 성도를 **복수형**으로 지칭한다(한 번의 예외인 빌 4:12 에서조차도 문맥상 그것은 **복수형**이다). 구원받는 것은 가족, 몸, 건물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다! 성경적 믿음은 개인적인 영접으로 출발하지만 공동체적 교제에로 나아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강, 성장, 행복을 위해 각각 은사를 받는다(참조, 고전 12:7). 우리는 섬김을 위해 구원받았다! 거룩함은 가족의 특성이다!

5:9-10 헬라이어 사본에 커다란 변이가 **대명사** “우리를”과 관련하여 나타난다. NKJV 에서는 **대명사** “우리를”이 9 절과(“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10 절에서 나타난다(“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대부분의 현대역본(NASB, NRSV, TEV, NJB)은 “우리”를 두 절 모두에서 생략하고 있다. 만일 “우리를”이 두 절에 있다면 이것은 예수의 희생적인 죽으심이 천사적인 존재인 24 장로들도 포함하는 것이 된다.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의 죽으심이 천사들을 구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 또한 10 절에 있는 “그들을”(아우투스)은 문법적으로 “우리를”이 원래의 본문에 속하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세계성서공회의 제 4 판은 두 **복수형 인칭대명사**가 생략된 것에 “확실함”이라는 등급을 준다.

5:9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구약에는 새 노래에 대한 많은 암시가 있다(참조, 시 33:3; 40:3; 98:1; 144:9; 149:1; 사 42:10). 구약의 주요 시기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새 노래로써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송하도록 격려받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 안에서 계시하심’과 및 ‘모든 신자를 대신하여 메시아께서 행하신 구속의 일’을 인해 크게 노래하는 내용이다(참조, 9,12,13 절; 14:3).

“새” 것에 강조는 사 42-66 장에 나오는 새 시대의 특징을 이룬다.

1. “새 일,” 42:9
 2. “새 노래,” 42:10
 3. “새로운 일을 하다,” 43:19
 4. “새 일,” 48:6
 5. “새 이름,” 62:6
 6. “새 하늘과 새 땅,” 65:17; 66:22.
- 계시록에는 “새 것”이 여러 가지 나온다.
1. “새 예루살렘,” 3:12; 21:2
 2. “새 이름,” 2:17; 3:12
 3. “새 노래,” 5:9,10,12,13; 14:3
 4. “새 하늘과 새 땅,” 21:1

▣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 새 노래(9-10 절)는 어린 양의 합당하심에 대하여 다섯 가지를 말한다.

1. 대신 죽으심(참조, 5:6,9,12; 13:8; 뱀전 1:18-19)
2. 구속을 위한 값을 치르심(참조, 5:9; 14:3-4; 막 10:45; 고전 6:19-20; 7:23; 딤후전 2:6)
3. 모든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삼(참조, 5:9; 7:9; 14:6)
4. 신자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심(참조, 1:6; 5:10)
5. 그들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임(참조, 3:21; 5:10; 20:4)

▣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이것은 보편적인 사역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자주 사용되었다(참조, 7:9; 11:9; 13:7; 14:6). 이것은 단 3:4,7 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

▣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값을 대신 치르시고 이루신 구속을 명확히 가리킨다. 예수께서 죄를 위한 제물이시라는 이 개념은 계시록(참조, 1:5; 5:9,12; 7:14; 12:11; 13:8; 14:4; 15:3; 19:7; 21:9,23; 22:3)과 신약 전체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다(참조, 마 20:28; 26:28; 막 10:45; 롬 3:24-25; 고전 6:20; 7:23; 고후 5:21; 갈 3:13; 4:5; 엡 1:7; 빌 2:8; 딤후전 2:6; 딤후 2:14; 히 9:28; 뱀전 1:18-10).

특별주제: 속량하다/구속하다

I. 구약

가. 이 개념을 표현하는 중요한 히브리어 법적 용어가 두 가지 있다:

1. *가알*, 기본적으로 값을 지불하여 “자유하게 하다”를 의미한다. 이 단어에서 나온 *고엘* 은 일반적으로 가족의 일원인(즉, 친척인 속량자) 개인적 중재자의 개념을 추가한다. 물건, 동물, 땅(참조, 레 25, 27 장)이나 친척(참조, 룖 4:15; 사 29:22)에 대한 권리를 되돌리는 이 문화적 일이 신학적으로 사용되어 야웨께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속해 내심을 나타낸다(참조, 출 6:6; 15:13; 시 74:2; 77:15; 렘 31:11). 그는 “구속자”가 되신다(참조, 욥 19:25; 시 19:14; 78:35; 잠 23:1; 사 41:14; 43:14; 44:6,24; 47:4; 48:17; 49:7,26; 54:5,8; 59:20; 60:16; 63:16; 렘 50:34).
2. *파다*(BDB 804), 기본적으로 “구해내다” 또는 “구출하다”라는 뜻이다
 - ㄱ. 첫 태생의 속량(출 13:13,14; 민 18:15-17)
 - ㄴ. 신체의 속량은 영적 속량과 대조를 이룬다(시 49:7,8,15)
 - ㄷ. 야웨는 이스라엘을 죄와 반역으로부터 구속하실 것이다(시 130:7-8)

- 나. 신학적 개념은 다음에 나오는 여러 영역과 관련을 갖는다.
1. 필요, 속박, 상실, 감금의 상태가 있다.
 - ㄱ. 육체적
 - ㄴ. 사회적
 - ㄷ. 영적(참조, 시 130:8)
 2. 자유, 해방, 회복을 위해 반드시 값이 지불되어야 한다:
 - ㄱ. 이스라엘 민족의(참조, 신 7:8)
 - ㄴ. 개인의(참조, 욥 19:25-27; 33:28)
 3. 반드시 어떤 사람이 중재자로서 또는 후원자로서 행동해야만 한다. *가알*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이 역할을 한다(즉, *고엘*, BDB 145).
 4. 야웨는 종종 자신을 가족과 관계된 단어로 묘사하셨다:
 - ㄱ. 아버지
 - ㄴ. 남편
 - ㄷ. 가까운 친척인 구속자/보수자
 구속은 야웨의 개인적 대리인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값이 지불되었고 구속이 성취되었다!

II. 신약

- 가. 여러 단어가 이 신학적 개념을 나타낸다:
1. *아고라조*(참조, 고전 6:20; 7:23; 벧후 2:1; 계 5:9; 14:34). 이것은 어떤 것을 위해 값을 지불함을 의미하는 상업용 용어이다. 피값을 주고 사신 사람들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2. *엿싸고라조*(참조, 갈 3:13; 4:5; 엡 5:16; 골 4:5). 이것 역시 상업용 용어이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 성취할 수 없는 일인 행위에 기초한 율법(즉, 모세의 율법, 참조, 엡 2:14-16; 골 2:14)에 의한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는 우리 모두를 위해(참조, 막 10:45; 고후 5:21) 저주를 담당하셨다(참조, 신 21:23)!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한 용서, 받아들여짐,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융합된다!
 3. *뤼오*, “자유롭게 하다”
 - ㄱ. *뤼트론*, “지불된 값”(참조, 마 20:28; 막 10:45). 이 용어는 예수께서 자신이 지지 않은 죄의 빛을 갚으심으로써(참조, 요 1:29)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오신 자신의 목적을 생각하시며,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강력한 단어이다.
 - ㄴ. *뤼트루*, “해방하다”
 - (1) 이스라엘을 구속하심, 눅 24:21
 - (2) 백성을 구속하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심, 딤후 2:14
 - (3) 죄 없으신 대속물이 됨, 벧전 1:18-19
 - ㄷ. *뤼트로시스*, “구속, 구출, 해방”
 - (1) 예수님에 대한 스가랴의 예언, 눅 1:68
 - (2)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께 드린 안나의 찬양, 눅 2:38
 - (3) 예수님께서 단 번에 드리신 더 나은 제사, 히 9:12
 4. *아포리트로시스*
 - ㄱ. 재림 때의 구속(참조, 행 3:19-21)
 - (1) 누가복음 21:28
 - (2) 로마서 8:23
 - (3) 에베소서 1:14; 4:30
 - (4) 히브리서 9:15
 - 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속
 - (1) 로마서 3:24
 - (2) 고린도전서 1:30
 - (3) 에베소서 1:7
 - (4) 골로새서 1:14
 5. *안탈뤼트론*(참조, 딤후 2:6). 이것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예수의 대속적 죽으심으로 인해 놓임을 받게 됨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본문이다(딤후 2:14 에서와 같이). 예수께서는 “모든 자”를 위해 죽으시기에 합당하신 오직 유일한 제물이시다 (참조, 요 1:29; 3:16-17; 4:42; 딤후 2:4; 4:10; 딤후 2:11; 벧후 3:9; 요일 2:2; 4:14).
- 나. 신약이 내포하는 신학적 개념:
1. 인간은 죄의 종이 되었다(참조, 요 8:34; 롬 3:10-18; 6:23).

2. 죄에게 인간이 속박을 받음은 구약의 모세율법(참조, 갈 3 장)과 예수님의 산상수훈(참조, 마 5-7 장)에 의하여 드러났다.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사형이 선언되었다(참조, 골 2:14).
3. 하나님의 죄없는 어린양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참조, 요 1:29; 고후 5:21). 우리를 죄로부터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다(참조, 롬 6 장).
4. 함축적으로 말하면 야웨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시다. 이것은 가족적 은유의 연속이다(즉, 아버지, 남편, 아들, 형제, 가까운 친척).
5. 구속은 사탄에게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즉, 중세 신학) 하나님의 말씀 및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및 완전한 섭리와 화목을 이룸을 말한다. 십자가에서 평화가 회복되었고, 인간의 반역이 용서받았으며,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친밀한 교제 안에서 다시 완전한 기능을 하게 되었다!
6. 구속의 미래적인 면이 아직 남아 있다(참조, 롬 8:23; 엡 1:14; 4:30). 구속은 우리 몸의 부활 및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육체적 친밀함을 포함한다. 우리의 부활체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게 될 것이다(참조, 요일 3:2). 그는 육체를 가지셨지만 매우 특별한 차원에 속하는 면도 지니셨다. 고전 15:12-19 와 고전 15:35-38 에 나타난 역설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육체에 속한 땅의 몸이 있으며 하늘에 속한 영적 몸이 있다. 예수께서는 둘 다 가지셨다!

5:10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이것은 출 19:6 및 사 61:6 에 대한 암시이다. 이제 이 용어를 교회 곧 새 대위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용하고 있다(참조, 계 1:6; 20:6; 벰전 2:5,9). 1:6 의 설명을 보라.

▣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어떤 번역가들은 이것을 미래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어떤 번역가들은 이것을 현재에 일어나는 실제로 본다. 헬라어 사본에 나타나는 변이는 사본 **s, P** 에서는 **미래 시제**로, 사본 **A**(알렉산드리아 사본)에서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 만일 이것이 **현재적** 의미를 가진다면, 롬 5:17 과 엡 2:6 의 내용과 비슷하다. 만일 이것이 **미래적** 의미를 가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림을 가리킨다(참조, 마 19:28; 눅 22:30; 고전 4:8; 딤펴전 2:12; 계 3:21; 5:10). 이것이 **미래에 있을 통치**를 뜻하는 경우에도 이 내용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1. 계 20:4,6 에서는 이것이 천년왕국에서의 통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2. 계 22:5 에서는 이것이 영원한 통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시 145:13; 사 9:7; 단 2:44; 7:14,18,27)
3. 아마도 천년왕국은 영원함을 상징한다

UBS⁴ 는 **미래 시제**에 “A”등급(확실함)을 주고 있다.

특별주제: 하나님의 왕국에서 다스림

그리스도와 다스린다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불리는 더 커다란 신학적 주제의 일부를 이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왕이시라는 구약의 개념의 연장이다(참조, 삼상 8:7).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자손(참조, 창 49:10)인 이새의 후손(참조, 삼하 7 장)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다스리신다.

예수님은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약속대로 성취하신 분이시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성육신하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의 가르침에서 중심적인 기둥을 이룬다. 왕국이 그 분 안에서 전적으로 도래했다(참조, 마 10:7; 11:12; 12:28; 막 1:15; 눅 10:9, 11; 11:20; 16:16; 17:20-21).

그러나 왕국은 또한 미래적이기도 하다(종말론적). 왕국이 나타났지만 최종적인 단계의 것은 아니었다(참조, 마 6:10; 8:11; 16:28; 22:1-14; 26:29; 눅 9:27; 11:2; 13:29; 14:10-24; 22:16, 18). 예수님은 처음엔 고난받는 종(참조, 사 52:13-53:12)으로서 겸손하게(참조, 눅 9:9) 오셨지만 그는 왕 중의 왕으로서 다시 오실 것이다(참조, 마 2:2; 21:5; 27:11-14). “다스림”의 개념은 참으로 이러한 “왕국”신학의 일부분을 이룬다. 하나님은 왕국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셨다(눅 12:32 을 보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는 개념은 고려할 여러 측면이 있고 이에 따른 질문을 제기한다:

1.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자들에게 “왕국”을 주신 것을 말하는 구절은 “다스림”을 말하는 것인가(참조, 마 5:3, 10; 눅 12:32)?
2. 예수님께서 1 세기의 유대적 배경에서 처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대한 내용인가(참조, 마 19:28; 눅 22:28-30)?
3. 위의 경우와 대조되거나 혹은 이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바울이 이 세상에서의 다스림을 강조하고 있는가(참조, 롬 5:17; 고전 4:8)?
4. 어떻게 고난은 다스림과 관계가 있는가(참조, 롬 8:17; 딤펴전 2:11-12; 벰전 4:13; 계 1:9)?
5.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되는 주제는 영광스럽게 된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참여하는 것이다
 - ㄱ. 지상의, 5:10
 - ㄴ. 천년왕국의, 20:5,6
 - ㄷ. 영원한, 2:26; 3:21; 22:5; 단 7:14,18,27

개역개정 5:11-14

¹¹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¹²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¹³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¹⁴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5:11 “많은 천사” 이 절은 세 종류로 천사의 무리를 제시한다: (1) 많은 천사들(만만이요 천천이라) (2) 생물들(넷) (3) 장로들(이십사).

▣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것은 단 7:10 에 나오는 천상의 법정에 대한 암시로 여겨진다(5:1 의 설명을 보라).

5:12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이것은 천사들이 성자를 높이는 내용이다. “죽임을 당하신”은 **완료 수동 분사**(참조, 5:6; 13:8)로서 “과거에 죽임을 당하신” 것을 의미하여 ‘죽임을 당하신 그 흔적과 결과가 남아있음’을 나타낸다. 우리가 예수를 뵈게 될 때에 그는 십자가의 흔적을 여전히 가지고 계실 것이다. 그 흔적들은 그의 영광스런 상처가 되었다! 계시록에서는 십자가를 함축적으로 말하며 또 이것을 주요 주제로 제시한다. 5:9 의 설명을 보라.

이 절에는 천사들이 어린 양께 돌린 일곱 가지 내용이 나온다:

1. 능력
2. 부
3. 지혜
4. 힘
5. 존귀
6. 영광
7. 찬송

이러한 항목이 대상 29:10-12 에서 왔을 것이다. 그 본문은 헬라이어 사본의 전통에서 볼 때 마 6:13 에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예식적 결론을 제시하는 구약의 자료이다.

NASB 연구성경(1855 쪽)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세 가지가 4:11 에서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는 5:13 에서 네 가지가 나오고, 5:12 과 7:12 에서는 일곱 가지가 모두 나온다고 설명한다. 묵시문학이 상징적 수를 자주 사용한 정교한 구조를 가지는 장르임을 기억하라.

5:13 의식을 가진 모든 인간(아마도 가장 큰 규모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합창단)과 사람들(죽은 자와 산 자)이 13 절에서 성부와 성자께 4 중적인 찬송을 돌리며(참조, 14 절; 시 103:19-20; 빌 2:8-11), 천사들(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보좌 주위에서 찬송을 돌리고 있다(참조, 14 절).

5:14 “아멘” 이것은 보좌에 있는 네 천사(네 생물)가 확인하는 말이다. 1:6 의 특별주제를 보라.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4 장과 5 장은 이 책의 전체적 목적에 어떻게 부합하는가?
2. 4 장과 5 장의 문학적 장르는 무엇인가?
3. 어떤 자료에서 요한이 그의 회화적 묘사를 가져왔는가?
4. 장로들은 누구인가?
5. 4:7-10 에서 언급하고 있는 생물들은 그룹인가 스랍인가?
6. 5 장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호칭을 모두 말하라.
7. 5:9,10 에서 제시하는 메시아의 합당하심에 대한 오중적 묘사를 열거하라.

요한계시록 6:1 – 7:17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⁴)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인들	첫째 인: 정복자	첫 여섯 인을 뻗	인들	어린 양이 일곱 인을 떼시다
6:1-2	6:1-2	6:1-2	6:1-2	6:1-2
6:3-4	둘째 인: 지상에 있는 갈등 6:3-4	6:3-4	6:3-4	6:3-4
6:5-6	셋째 인: 지상에 일어난 결핍 6:5-6	6:5-6	6:5-6	6:5-6
6:7-8	네째 인: 지상에 죽음이 번짐 6:7-8	6:7-8	6:7-8	6:7-8
6:9-11	다섯째 인: 순교자들의 울음 6:9-11	6:9-11	6:9-11	6:9-11
6:12-17	여섯째 인: 우주적 환란 6:12-17	6:12-17	6:12-17	6:12-17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의 144,000 명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막간	이스라엘의 144,000 명	하나님의 종들이 보전될 것이다
7:1-8	7:1-8	7:1-8	7:1-8	7:1-8
각 나라에서 온 큰 무리	큰 환란에서 온 큰 무리		수 많은 무리	성도에게 사울 주심
7:9-12	7:9-17	7:9-12	7:9-12	7:9-12
7:13-17		7:13-17	7:13-17 7:14a 7:14b-17	7:13-17

독서의 세 번째 단계 (v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가. 이 단락은 문맥적으로 볼 때 4 장 및 5 장과 관련이 있다. 4 장과 5 장은 하늘에서의 사건을 다루고, 6:1-8:1 은 하나님께서 땅에 행하시는 심판에 대해 묘사한다. 사실상 4:1-16:21 은 하나의 문학적 단위를 이룬다.
- 나. 처음으로 나오는 말을 탄 자(참조, 2 절)가 누구인지 규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것이 악의 상징으로 본다면, 말을 탄 4 사람은 신자들이 타락하여 적대적인 세상에서 오는 박해에 직면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참조, 마 24:6-7). “환란”(쓰립시스)은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받는 박해를 전적으로 나타낸다.
12 절에서 시작되는 여섯번째 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묘사한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오르게, 참조, 16 절)에서 면제된다. 하지만 그들은 불신세계에서 오는 박해와 적개심에 직면한다.
- 다. 이 단락을 해석함에 있어서 세가지 주요한 질문이 생긴다.
1. 인과 나팔과 대접이 각각 역사와 어떻게 관련을 가지는가?
 2. 누가 7:4 에 나오는 144,000 명인가? 또 그들이 7:9 에서 언급하고 있는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3. 7:14 에서 언급하는 그룹의 사람들은 어떤 환란의 시기와 관련되며 어떤 종류의 환란과 관련을 가지는가?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6:1-2

¹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렛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²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6:1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이 절은 5 장과 6 장을 서로 연결시킨다. 책을 읽기 위해서는 이 인들이 먼저 떼어져야 한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그 인들이 각 세대마다 발생하는 문제를 대표한다고 추측한다(참조, 마 24:6-12). 한편,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어지는 것을 볼 때 어떤 이들은 이 인들이 ‘세상의 끝’을 즉각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바로 이것이 왕국이 **현재적**인 것인가 혹은 **미래적**인 것인가에 대한 해석적 긴장을 이룬다. 신약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유동성이 있다. 계시록 자체가 이러한 긴장을 잘 보여준다. 이것은 박해받는 제 1 세기(또한 각 시대의)의 신자들을 위해 기록되었지만, 예언적으로 볼 때 마지막 세대의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환란은 모든 시대에 공통적으로 있다!

일곱번째 인은 일곱 나팔이고, 일곱번째 나팔은 일곱 대접이다. 이미 밝혔듯이 뒤의 것이 앞의 것보다 더 강력하다. 처음 두 종류의 심판은 구속을 위한 목적을 지닌다. 각기 불신자가 회개하지 않음을 인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낸다. 따라서 마지막에 나오는 일련의 심판(즉, 대접)은 회개의 기회가 없고 오직 심판만이 있다! 한편 나로서는 여섯번째 인과 여섯번째 나팔이 마지막 때를 묘사하는 것으로 본다. 이 심판들은 본질적으로 서로 같은 내용이지 시간에 따른 순서를 말하지 않는다.

한 번 있는 재림이 세 차례 언급되었다: 인의 마지막 부분에(참조, 6:12-17), 나팔(참조, 11:15-18)에, 하지만 16:17-21 에 있는 대접의 마지막 부분에는 언급이 없고 끝으로 19:11-21 에서 다시 한 번 언급된다. 이것은 이 책의 구조와 관련이 있다. 이것은 묵시적 드라마가 여러 장면으로 제시되고 있다! 계시록의 서론에서 다항을 보라.

▣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렛소리 같이 말하되” 장로같은 네 생물은 천사인 피조물이다. 우렛소리 같은 이 목소리가 14:2 와 19:6 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 “오라 하기로” 이 용어는 “오라” 혹은 “가라”를 뜻한다. 고대 헬라이어 대문자체 사본인 시내사본(Ⲙ)은 “그리고 보라”(참조, KJV, NKJV 에서는 이것이 요한을 가리킴)를 추가시켰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 사본(A)에는 오직 “오라”만 있다(이것은 네 마리의 말을 가리킴). UBS⁴는 짧은 본문에 “B”등급(거의 확실함)을 주고 있다.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이 명령(**현재 명령**)은 요한이나 교회에 주는 명령이 아니라 네 명의 말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참조, 6:3,5,7).

6:2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이 문맥은 속 1:8(네 마리의 말)과 6:1-8(네 병거)에 대한 암시이다. 이 말탄 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해석의 범주는 광범위하여 예수(이레니우스)부터 적그리스도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종류의 혼동을 인하여 교리주의적 접근은 부적합하다. 어떤 이는 19:11-21 에 비슷한 묘사가 있음을 들어 이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믿는다. 그러나 비슷한 점은 말의 색에 불과하다.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이 복음의 전파를 나타낸다고 믿는다. 그들은 이 본문이 마 24 장; 막 13 장; 눅 21 장에 기록된 감람산에서의 가르침과 평행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따라서 이것은 마 24:14 및 막 13:10 과 관련을 가지는 내용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겔 39 장에 기초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항하여 군대를 이끌고 오는 곡에 대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적그리스도를 상징할 것이다(참조, 살후 2 장). 천사가 예수께 명하여 오라고 하는 일은 상당히 특이하게 보인다. 비록 예수께서 6 장과 19 장에서 관을 쓰고 계시지만, 헬라어 단어는 다른 종류의 단어를 사용하여 관을 각각 말하고 있다. 이 장이 아니라 19 장에서 예수를 “신실하고 참된” 분으로 부른다. 말탄 이의 정복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다. 6 장에서는 말탄 자가 활을 가진 것으로 묘사하지만, 19 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입에 양쪽에 날선 칼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유사성보다 차이점이 훨씬 크다. 이것은 구약에 기록된 한 가지 전염병일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암시는 레 26 장과 겔 14:21 과 연결되는데 8 절에서 언급되고 있다. 흰 색은 ‘의’뿐 아니라 로마 군대의 승리를 나타내는 색이기도 했다.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의 장군들은 네 마리의 백마가 끄는 병거를 타고 로마의 거리를 다녔다.

▣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활은 페르시아 군대의 궁수가 사용한 무서운 무기였다(그들은 흰 말을 탔다). 구약에서는 종종 활을 사용하여 야웨께서 전사이심을 나타낸다(참조, 시 45:4-5; 사 41:2; 49:2-3; 합 3:9; 속 9:13; 또한 창 9:13). 야웨께서 열방을 심판하심을 ‘그들의 활을 꺾으심’이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나타내기도 한다(참조, 시 46:9; 렘 51:56; 호 1:5).

▣ “면류관을 받고” 이것은 “스태파노스”(면류관)로서 승리자의 면류관을 뜻한다. 19:11 에서 그리스도께서 쓰신 면류관은 “디아데마”로서 왕이 쓰는 면류관을 가리킨다.

▣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1 절에서 제시하는 그림은 전쟁과 정복의 모습이다. 말탄 처음 사람과 둘째 사람이 비슷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기에, 어떤 이는 첫 사람을 전쟁의 정복자로, 둘째 사람을 내전과 관련을 가지는 사람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추측에 불과하다. 말탄 두 사람은 같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개역개정 6:3-4

³둘째 인을 때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⁴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6:4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이것은 군대가 사람들을 살육하는 것을 암시한다.

▣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것은 로마 군인이 사용한 단검으로서 “마카이라”로 불리는 칼이다. 그들은 허리띠에 이 칼을 차고 다녔으며, 로마 시민을 사형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참조, 롬 13:4). “서로 죽이게 하고”라는 표현이 흥미로운데, 그 이유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원수들을 패배시키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하셨기 때문이다(참조, 삿 7:22; 삼상 14:20; 대하 20:22).

개역개정 6:5-6

⁵셋째 인을 때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⁶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헤치지 말라 하더라

6:5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쟁 후에 따르는 기근에 대한 상징이다(참조, 마 24:7).

6:6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은 군인이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참조, 마 20:2). 우리는 헤로도토스의 글을 통해 이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식량의 양이 ‘어른 한 명이 하루동안 먹을 양’인 것을 안다. 이 사실은 기근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한 사람이 온 종일 일하여 겨우 자신이 먹을 양식밖에 살 수 없었다.

특별주제: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한 동전들

I. 동전

가. 케르마 - 작은 금액(참조, 요 2:15)

나. 칼코스 - 작은 금액(참조, 마 10:9; 막 12:41)

다. 앓사리온 - 로마의 동전으로서 한 데나리온의 1/16 의 가치(참조, 마 10:29)

- 라. *코드란테스* - 로마의 동전으로서 한 *테나리온*의 1/64 의 가치(참조, 마 5:26)
- 마. *렘톤* - 로마의 동전으로서 한 *테나리온*의 1/128 의 가치(참조, 막 12:42; 눅 21:2)
- 바. *콰드란스/화팅* - 로마의 동전으로서 작은 금액
- II. 은화
 - 가. *알구로스*(“은화”) - 구리나 청동으로 만든 주화보다 훨씬 큰 가치를 가짐(참조, 마 10:9; 26:15)
 - 나. *테나리온* - 로마의 은화로서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가치(참조, 마 18:28; 막 6:37)
 - 다. *드라크마* - 헬라의 은화로서 한 *테나리온*의 가치(참조, 눅 15:9)
 - 라. *디 드라크마* - 두 *드라크마*는 유대인의 돈인 1/2 세겔에 해당되었다(참조, 마 17:24)
 - 마. *스타테르* - 4 *테나리온*의 가치를 가진 은화(참조, 마 17:27)
- III. 금화 - *크루소스*(“금화”) - 가장 값진 주화(참조, 마 10:9)
- IV. 금속의 무게에 대한 일반적 용어
 - 가. *브나* - 라틴어의 *피나*, 100 *테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속의 무게(참조, 눅 19:13)
 - 나. *달란트* - 헬라의 무게 단위(참조, 마 18:24; 25:15,16,20,24,25,28)
 - 1. 은으로는 6,000 *테나리온*의 가치
 - 2. 금으로는 180,000 *테나리온*의 가치
 - 다. 세겔 - 구약에서 유대인이 은의 무게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함(참조, 창 23:15; 37:28; 출 21:32)
 - 1. *뿔* - 2/3 세겔
 - 2. *베카* - 1/2 세겔
 - 3. *게라* - 1/20 세겔

▣ “한 테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보리는 가난한 자의 주식이었다. “되”를 뜻하는 헬라어는 “코이닉스”로서 대략 0.9 리터에 해당한다.

▣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헤치지 말라” 많은 해석가들이 이 부분을 상세히 다루는 점이 놀랍다. 많은 이들이 사해사본의 성전 두루마리(Temple scroll)에 근거하여 이것이 유대인의 희생제사에 대한 암시라고 주장한다. 기름과 포도주는 지중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주식이었다. 이것을 헤치지 말라는 내용은 제한적인 기근을 나타낸다. 8 절에서도 그러한 제한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을 제한하사 불신자들이 하여금 회개할 시간을 갖게 하신다(참조, 16:9). 또한 이 두 가지가 의료용으로도 사용되었다.

개역개정 6:7-8

⁷넷째 인을 때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⁸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써 죽이더라

- 6:8
- NASB “젓빛 말”
- NKJV “회끄프레한 말”
- NRSV “담록색의 말”
- TEV “회끄프레한 색의 말”
- NJB “죽음을 암시하는 말”

헬라어에서 “청황색”이란 단어는 원래 노랑 빛을 가진 녹색 또는 미색을 가리킨다. 영어의 “chlorine”(염소수)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왔다. 이것은 아마도 시신의 색을 나타낼 것이다. 8 절에서 죽임의 도구를 열거하기에, 이것은 죽임을 당한 사람이나 들짐승을 가리킬 것이다. 구약에서는 이것은 저주였다(참조, 레 26:22; 렘 15:3; 겔 5:17; 14:21).

▣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것은 잠 5:5 혹은 호 13:14 에 대한 암시이다. 이것은 육신의 생명이 끝남을 의인화 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 두 용어는 계시록에서 세 차례 함께 사용되었다(참조, 1:18; 20:13-14).

“*하테스*”라는 용어는 구약의 “스울”과 동의어를 이룬다. 그곳은 “죽은 자가 머무는 장소”를 뜻한다. 1:18 의 특별주제: 죽은 자는 어디에 있는가를 보라.

▣ “그들이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 대명사 “그들이”가 말탄 네 사람을 가리킴을 주목하라. 나팔 심판에서 그 정도가 강화되고 있다(즉, 삼분의 일, 참조, 8:7,8,10,12); 대접의 심판으로 인한 완전한 파멸(참조, 16:1-21). 이러한 비율은

하나님의 심판이 구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문학적 기교이다(참조, 9:20-21; 14:7; 16:9,11). 그러나 타락하고 반역하며 강박한 사람들은 응답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아주 작은 수의 사람만 응답할 것이다, 참조, 11:13).

▣ **“죽이더라”** 말탄 네 사람은 구약의 언약에 따른 심판을 대표한다(참조, 레 26:21-26; 렘 15:2-3; 24:10; 27:8; 29:17-18; 32:24,36; 34:17; 겔 5:12,17; 14:21; 암 4:6-10). “검”이라는 용어가 4 절의 용어와 다르다. 여기서는 전투에서 사용한 큰 칼을 뜻하는 *롬파이아*를 사용하였다. 레 26:21-26 과 겔 14:21 에서는 심판으로서의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들짐승의 해를 다 언급한다. 언약에 따른 심판에 대해 신 27-29 장에서 분명히 다룬다. 그 심판의 목적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여 야웨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임을 기억하라. 심판은 여기서도 같은 목적 즉, 구속의 목적을 지닌다(참조, 9:20-21; 11:13; 14:7; 16:9,11).

개역개정 6:9-11
⁹다섯째 인을 때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¹⁰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¹¹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6:9 **“제단 아래에 있어”** 이것이 어떤 제단을 가리키는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제단”이라는 용어는 계시록에서 상당히 자주 사용되었다(참조, 8:3,5; 9:13; 11:1; 14:18; 16:7). 어떤 이는 이것이 레 4:7 및 바울이 빌 2:17 에서 언급하고 있는바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또 어떤 이는 이것이 회막에 있는 성소의 향단(참조, 8:3-5)이나 계 11:1 에 나오는 성전의 향단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다음의 여러 이유에 근거하여 볼 때, 이것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뜻할 것이다

1. 랍비들은 이 장소를 상당히 영예로운 장소로 여겼다
2. 이것이 순교자의 죽음(즉, 피)을 가리키고 있다.

“왜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모여 있는가?”라고 어떤 이는 질문할 것이다. 구약에서 “피”가 생명의 상징이었음을 기억하라(참조, 창 9:4; 레 17:11,14). 이스라엘의 희생제도에서 피를 제단의 뿔에 바른 것이 아니라 제단 아래로 부어 드렸다(즉, 출 29:12; 레 4:7,18,25; 8:15; 9:9). 따라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생명(즉, 영혼)이 제단의 아래쪽에 있었다.

▣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 영혼들은 순교를 당하여 몸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죽음과 부활의 사이에)의 신자들이었다(참조, 13:15; 18:24; 20:4). 이것이 히브리적 사고 보다는 헬라적 사고를 반영하기에 놀랍다. 만일 상황이 요구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당하여야 한다(참조, 2:10,13; 마 10:38-39; 16:24).

6:1-8 에 나오는 말탄 네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 것과 이 순교자들 사이에는 아무 관련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
 NASB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또 그들이 가진 증거를 인하여”
 NKJV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붙잡은 증거로 인해”
 NRSV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준 증거로 인해”
 TEV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과 그들이 신실하게 증거함을 인하여”
 NJB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것에 대한 증거를 인해”

이 구는 계시록에서 반복되는 주제이다(참조, 1:9; 12:11,17; 19:10; 20:4). 이것은 의미상 “이기는 자들에게”라는 구와 아주 비슷한 내용이다(참조, 2:6,11,17,26; 3:5,12,21). 그들이 활동적인 그리스도인이었기에 죽임을 당했다.

6:10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많은 주석가들은 이들이 수준이 낮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여긴다. 이 주석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불신자들로부터 오는 심각한 박해를 그들이 경험해 보지 않았기에 그러할 것이다.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이 원수 갚아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신 32:43 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참조, 계 19:2). 이러한 간구는 롬 12:19 에 나타난 바울의 훈계를 따르고 있다.

▣ **“대주재여”** “대주제” (*데스포테스*)라는 이 용어는 완전한 권위를 나타낸다. 영어의 “despot”(전제군주)는 이 헬라어에서 왔다. 이 단어는 눅 2:29 과 행 4:24 에서 야웨께 대하여 사용되었고 벧후 2:1 과 유 4 절에서는 예수께 대하여 사용되었다.

▣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것은 계시록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구이다; 이 구는 항상 불신자들을 가리킨다(참조, 3:10; 8:13; 11:10; 13:8,12,14; 17:2,8).

6:11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것은 “안식,” “축복됨,” “승리”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어떤 이들이 가지는 신학적 문제는 ‘어떻게 몸이 없는 영혼이 옷을 입을 수 있는가’이다. 묵시적 드라마를 해석함에 있어서 피상적인 문자주의를

주의하라! 주석가들이 이러한 종류의 논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이 책의 장르에 대해 모르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계시록을 일일이 세세하게 풀려고 하지 말라!

▣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책의 주요 진리의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참조, 8 절)을 주관하시며, 심지어 그리스도인 순교자의 죽음까지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다!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이나 행동이나 과정결과로 인해 당황하지 않으신다. 그럼에도 이 타락한 세상에는 아픔과 고통과 정의롭지 않음이 있다. 악의 문제에 대한 좋은 논의에 대하여는 존 W. 윌함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라*.

‘순교자의 충만한 수’라는 개념(참조, 예복 1 서 47:4)은 하나님의 지혜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이것은 바울이 말한 바 “이방인의 충만한 수”(참조, 롬 11:12,25)와 비슷하다. 그 개념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이방인들을 모두 알고 계심을 나타낸다.

개역개정 6:12-17

¹²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 같이 되며 ¹³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¹⁴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며 ¹⁵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¹⁶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¹⁷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6:12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 절은 마지막 때를 유대인의 묵시적 언어를 사용하여 말한 것이다(참조, 욥 2:30-31; 3:15-16; 사 13:9,10; 34:4; 렘 4:23-28; 학 2:6; 마 24:29; 모세의 승천 10:5). 12-14 절에 일곱 가지 항목이 나옴을 주목하라. 이 표현은 구약에서 주의 날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것이었다. 여기서 여섯째 인과 다음에 나오는 여섯째 나팔은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진다고 나는 생각한다. 즉 각각 일곱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연속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인 마지막 때가 임함을 나타낸다(참조, 6:12-17; 11:15-18; 14:14-20; 16:17-21; 19:11-21; 22:6-16). 계시록은 시간적 순서를 제시하지 않는다. 이것은 일곱 장으로 엮어진 한 드라마이다.

▣ “**큰 지진이 나며**” 이 책에는 지진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한다(참조, 8:5; 11:13,19; 16:18). 이 마지막 때, 곧 묵시적 사건에 관한 7 가지 면이 있음을 살펴보는 것이 흥미롭다. 15 절에는 7 가지 항목이 나온다(1:4의 특별주제: 성경의 상징적 수를 보라). 이것은 묵시적 글이 매우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참조, 5:12).

▣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 같이 되며**” 이것은 심판 날에 대한 구약의 암시이다(참조, 사 13:10; 24:23; 50:3; 겔 32:7; 욥 2:2,10,31; 3:15; 마 24:29; 막 13:24-25; 눅 21:25).

6:13 “하늘의 별들이 . . . 땅에 떨어지며” 이 은유적 표현은 두 가지에서 유래하였을 것이다:

1. 안정성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참조, 욥 38:31-33; 시 89:36-37; 사 13:10; 렘 31:35-36; 37:20-26; 예복서 2:1)가 하나님의 심판을 인해 흩어진다(참조, 마 24:29).
2. 별들이 떨어지는 일은 신구약 중간시기의 묵시문학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다(일반적으로 천사를 가리킴, 즉, 12:4; 단 8:10)

문맥상 1 항의 설명이 가장 적합하다.

6:14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고대인들은 하늘을 ‘펼친 가죽으로 된 단단한 둥근지붕’으로 이해했다(참조, 욥 22:14; 시 104:2; 잠 8:27; 사 40:22). 이것은 신이 자연 질서를 깨트리는 것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다(참조, 사 34:4).

▣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축복이나 심판)을 가지고 피조물을 찾아오시더라도 피조물이 몸부림침을 보여준다. 이 묘사가 종종 묵시적 용어로 되어 있다. 15-17 절에서는 믿지않는 박해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낸다(참조, 16:20). 구약에서는 산을 낮추고 강을 마르게 하는 등 하나님의 임재를 용이하게 하는 물리적 면을 가리키기 위해 이 같은 묘사를 사용한다(참조, 사 40:4).

6:15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박해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믿지 않는 박해자로부터 숨어야 했듯이(참조, 히 11:38), 이제는 부유하고 권세를 가진 이들이(아마도 시 2:2에 대한 암시임)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피난처를 찾고 있다(참조, 사 2:10,19,21). 이 절은 타락한 불신자들을 일곱 가지 방법으로 묘사한다. 일곱과 관련된 용법은 요한의 책에서 기본 패턴을 이룬다(1:4의 특별주제를 보라).

6:16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것은 호 10:8(참조, 사 2:19,21; 눅 23:30)에 대한 암시이다. 믿음의 가족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인해 개탄하시는 성부와 성자의 진노가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하라. 신실한 자들을 옹호하고 반역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하여 성부와 성자가 역사 가운데서 함께 행하신다(참조, 갈 6:7).

▣ “그 어린 양의 진노” 이것은 강력한 은유적 표현이다. 승리하는 어린 양에 대한 묘사는 유대인의 신구약 중간시대에 속하는 글에서 왔다. “진노”(오르케)에 대하여는 7:14의 설명을 보라.

6:17 17 절은 율 2:11 혹은 말 3:2에 대한 암시로 보인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목시적 사건들과 일련의 심판 동안 지상에 있는 신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막간인 7장이 주는데, 17 절은 7장을 위한 준비라고 본다. 주석가들 사이에는 6장에 나오는 인들이 구속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심판을 위한 것인가를 놓고 논란을 하였다(참조, 9:20-21; 14:7-8; 16:9,11). 6장은 믿기를 거부하는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다룬다. 이 심판은 세상의 1/4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시작하여, 1/3에 영향을 미치고, 최종적으로 대접의 심판에 이르러서는 믿지 않는 세계 전체에 미친다(참조, 습 1:14-18).

7:1-17에 대한 문맥적 통찰

- 가. 7장은 여섯번째 인 및 일곱번째 인을 여는 일 사이의 막간을 이룬다(참조, 8:1, 여섯번째 나팔과 일곱번째 나팔 사이에 있는 10:1-11:13도 그러함).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동안 신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을 이 장이 다룬다. 일곱번째 인은 일곱 나팔이 된다.
- 나. 이 막간은 두 그룹의 신자에 대해 다룬다
 - 1. 열두 지파에서 온 땅 위에 있는 144,000명(참조, 1-8절, 특히 4절)
 - 2. 전 세계에서 온 셀 수 없는 수의 사람들이 이제 하늘에 있음(참조, 9-17절, 특히 9절)
- 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대신하여 능력을 행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며 또 그들에게 확신을 주신다. 계시록에서는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 사이의 구별이 나타나지 않는다(참조, 롬 2:28-29; 3:22; 고전 12:13; 갈 3:28; 골 3:11). 구약에 있는 인종적 구별이 신자와 불신자라는 보편적 개념으로 바뀌었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7:1-3
¹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²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³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7:1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불지 못하게 하더라” 구약에서 4라는 상징적 수는 지구 전체를 가리킨다(참조, 사 11:12; 렘 49:36; 단 7:2; 습 1:8; 6:1,5; 마 24:31; 1:4의 특별주제를 보라).

- 이 네 바람의 해석에 있어서 여러 견해가 제시 되었다.
- 1. 랍비들은 네 바람을 악한 것으로 이해했다(참조, 행 27:14)
- 2. 어떤 이는 이것이 악한 바람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바람으로 본다(참조, 렘 49:36; 단 7:2)
- 3. 어떤 이는 이것을 습 1:8 및 6:5에 나오는 네 가지에 대한 암시로 본다. 그 본문에서는 네 명의 말탄자와 네 병거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제시되고 있다(참조, 마 24:31)

▣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것은 6:6,8에서와 같이 제한된 심판을 나타낸다(참조, 7:3; 9:4).

7:2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동쪽(해)은 생명과 건강과 새 날의 상징이었다.

▣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이 9:4; 14:1 및 22:4에서 언급되고 있다. 사탄의 인을 13:16; 14:9; 20:4에서 언급한다. 이 인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에게 미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탄의 인은 그에게 속한 백성을 구별하기 위한 것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계시록에서 “환란”(즉, *쉴림시스*)은 항상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박해함을 나타내고, 진노/분노(즉, *오르케* 혹은 *췌모스*)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불신자들에게 임하여 그들로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다. 심판이 가지는 이러한 긍정적 목적은 신 27-28 장에 나오는 언약에 따른 저주와 축복에서도 나타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구는 야웨의 칭호와 관련을 가지는 언어유희이다(참조, 출 3:14; 시 42:4; 84:2; 마 16:16, 1:8의 특별주제를 보라).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라는 맹세의 표현에서 이같은 언어유희가 종종 나타난다.

특별주제: 인

인은 다음의 내용을 나타내는 고대의 방법이었다

1. 진리(참조, 요 3:33)
2. 주인임(참조, 요 6:27; 딤후 2:19; 계 7:2-3)
3. 안전 또는 보호(참조, 창 4:15; 마 27:66; 롬 15:28; 고후 1:22; 엡 1:13; 4:30)
4. 이것은 또한 선물로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실재에 대한 표식일 것이다(참조, 롬 4:11; 고전 9:2).

이 인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사탄의 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사탄의 백성을 구별한다. 요한계시록에서 “환란”(즉, *쉴림시스*)은 항상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을 나타내고, 진노/노(즉, *오르케* 또는 *췌모스*)는 항상 믿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데 이것은 그들로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믿도록 돌이키기 위함이다. 심판의 이러한 긍정적 목적은 신 27-28 장에 있는 언약의 저주/축복에서 나타난다.

▣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 직설법이다. 하나님께서 땅과 불신자들에게 대한 심판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이유에서 제한적으로 심판을 행하신다:

1. 신자들이 심판으로 인하여 해를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2. 불신자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하여(참조, 9:20-21; 14:6-7; 16:9,11; 21:7 22:17)

7:3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것은 겔 9:4,6에 대한 암시이다(참조, 계 9:4; 14:1). 이러한 종류의 인은 사탄의 인 및 짐승의 표와 반대이다(참조, 13:16,17; 14:9,11; 16:2; 19:20; 20:4).

개역개정 7:4

⁴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7:4 “십사만 사천” 이와 같이 신비한 그룹이 14:1,3에서 언급된다. 이들이 누구며 이 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 수는 다음의 여러 이유에서 볼 때 문자적 의미의 수가 아니라 상징적 수이다.

1. 이 수 자체가 어림 수로서 모든 지파가 같은 수로 되어 있다(구약에서는 한 번도 그렇지 않았다)
2. 이 수는 12의 배수로서 조직(아마도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성경의 수이다. 성경에서 10은 완전함을 나타내는 수이다(1:4의 특별주제를 보라)
3. 7장은 묵시적 용어로 되어 있다
4. 이스라엘의 지파 순서가 약간 바뀌어 있다(단이 생략되었고, 요셉이 에브라임을 대신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이 수가 문자적인 것이 아님을 알았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누구를 뜻하는가에 대하여 가능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이들은 문자적으로 마지막 때의 믿는 이스라엘을 가리킨다(참조, 슄 12:10)
2. 이들은 교회가 비밀스럽게 휴거된 후에 남아 있는 새로 회심한 신자들을 가리킨다
3. 이들은 믿는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가리킨다(참조, 롬 11장)
4. 이것은 신약교회를 나타내는 호칭이다(참조, 1:6)

계시록에서 인침은 한 종류의 사람들에게만 있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주인이시며 또 그들을 보호하심을 나타낸다(참조, 2:20; 11:18; 19:2,5; 22:36). 사탄은 하나님께서 흉내내어(참조, 3:12; 7:3; 14:1; 22:4)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모두 인친다(참조, 13:16,17; 14:9,11; 16:2; 19:20; 20:4).

신약은 종종 교회를 이스라엘로서 표현한다(참조, 롬 2:28-29; 4:11; 9:6,8; 갈 3:29; 6:16; 빌 3:3). 특히 계시록은 1:6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교회를 나타내는데, 이 호칭은 출 19:4-6에 나오는 것이다(참조, 뵤전 2:5,9). 야고보서(참조, 1:1)와 베드로전서(참조, 1:1)에서도 “흠어진 자”를 사용하여 교회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팔레스타인이 아닌 곳으로 흠어진 유대인들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용어였다.

이 책을 연구하면서 나는 4절에 나오는 144,000명과 9절에 있는 “허다한 큰 무리”가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이들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인데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

특별주제: 열두

열두는 항상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조직을 나타내었다

- 가. 성경 이외에서
 - 1. 황도의 십이공도
 - 2. 일 년의 열두 달
- 나. 구약에서(BDB 1040 과 797)
 - 1. 야곱의 아들들(유대인의 지파)
 - 2. 그 반영
 - ㄱ. 제단의 열두 기둥, 출 24:4
 - ㄴ. 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열두 보석(각각 지파를 나타냄), 출 28:21
 - ㄷ. 회막에 있는 성소에 둔 떡 열두 덩이, 레 24:5
 - ㄹ. 가나안에 보낸 열두 명의 스파이(한 지파에서 한 명씩), 민 13 장
 - ㅁ. 고라의 반역 때 있는 열두 지팡이(각각 지파를 대표함), 민 17:2
 - ㅂ. 여호수아의 열두 돌, 수 4:3,9,20
 - ㅅ. 솔로몬의 열두 행정 구역, 왕상 4:7
 - ㅇ. 엘리야가 야웨께 쌓은 열두 돌, 왕상 18:31
- 다. 신약에서
 - 1. 선택된 열두 사도
 - 2. 열두 바구니의 떡(각각 사도를 나타냄), 마 14:20
 - 3. 신약의 제자들이 앉을 열두 보좌(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가리킴), 마 19:28
 - 4. 예수를 구출할 천사의 열두 부대, 마 26:53
 - 5.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한 상징
 - ㄱ. 24 보좌에 앉은 24 장로, 4:4
 - ㄴ. 144,000(12 x 12), 7:4; 14:1,3
 - ㄷ. 여자의 면류관에 있는 열두 별, 12:1
 - ㄹ. 열두 문, 열두 천사는 열두 지파를 나타냄, 21:12
 - ㅁ. 새 예루살렘의 열두 기초석, 그 위에 열두 사도의 이름이 기록됨, 21:14
 - ㅂ. 12,000 스타디온(새 도시인 새 예루살렘의 크기), 21:16
 - ㅅ. 벽이 144 규빗임, 21:7
 - ㅇ. 열두 진주 문, 21:21
 - ㅈ. 새 예루살렘에 있는 열두 과실을 맺는 나무(매달 한 종류 씩), 22:2

개역개정 7:5-8

⁵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일만 이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갓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⁶아셀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⁷시므온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잇사갈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⁸스블론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일만 이천이라

7:5 “유다 지파 중에” 5 절에 나오는 목록은 구약에 있는 20 여 목록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특별히 겔 48:2-7 의 목록과 다르다. 이 본문은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열거한다. 단이 생략되었고 유다가 가장 먼저 나온다. 에브라임이 빠졌고 요셉이 그 자리를 대신하며, 레위가 다른 지파들과 함께 나온다. 유대인들은 이 목록이 독특한 내용으로서 상징적 의미를 가진 것이었음을 누구라도 인식했을 것이다.

F. F. 브루스는 *질문에 대한 답*(139 쪽)에서 단 지파가 목록에서 생략된 이유에 대한 교회의 전통이 램 8:16 의 70 인역에 대한 이레니우스의 해석에 근거한다고 말한다. 그 해석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단의 빠른 말이 히잉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다: 온 땅이 그의 말들이 히잉하는 소리에 떨렸다; 또 그가 울 것이다, 와서 땅과 땅에 가득한 것을 삼킬 것이다; 그 도시와 그 안에 사는 자들도 그리할 것이다.”

이레니우스는 적그리스도가 단 지파에서 오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것은 추측일 뿐이지 석의에 의한 것이 아니다!

개역개정 7:9-12

⁹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¹⁰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¹¹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¹²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7:9 이 절에서 언급하는 큰 무리는 4 절에서 언급하는 144,000 명과 분명히 구별된다. 첫 그룹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에서 온 자들이었으나, 이 그룹의 사람들은 땅의 각 족속에서 온 자들이다. 이 두 그룹은 같은 사람을 다른 면에서 부르는 일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1-8 절이 믿는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면, 9 절은 모든 그룹의 사람이 포함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참조, 5:9; 11:9; 13:7; 14:6; 17:15).

한편 그들이 (1) 큰 환란에서 나왔고(참조, 14 절) (2) 보좌 앞에 서 있으며(참조, 9 절) (3) 흰 옷을 입고 있는 점(참조, 6:11)은 그들이 순교자의 모든 무리임을 나타낸다(참조, 6:11; 17:6; 18:24; 19:2; 20:4).

▣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많은 자손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

1. 땅의 티끌—창 13:16; 28:14; 민 23:10
2. 하늘의 별—창 15:5; 22:17; 26:4; 신 1:10
3. 바닷가의 모래—창 22:17; 32:12
4. 일반적인 진술—창 16:10

▣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어떤 이는 이 내용이 레 23:40 혹은 느 8:15 과 같은 내용으로서 기쁨과 승리의 표라고 주장한다. 어떤 이는 이것이 요 12:13 에 있는 유월절 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또 어떤 이는 이 본문이 광야방랑 시기(참조, 15-16 절)에 행해진 회막에서의 절기와 관련을 가진다고 말한다. 종려 가지는 단순히 승리의 상징일 것이다.

7:10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이것은 “구원”(소조에서 온 *소테리아*)을 뜻하는 일반적 헬라 단어이지만, “승리”(NEB)나 “완전히 이겼다”라는 뜻으로써 사용된 경우이다. 따라서 이 단어는 (1) 땅에서의 삶에 따르는 문제로부터의 구출 혹은 (2) 영적이며 영원한 구원을 가리킬 수 있다. 구약에서는(*야사*) 신체적 구출을 뜻한다(참조, 약 5:15). 이 용어가 계시록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세 찬송에서 사용되었다(참조, 7:10; 12:10; 19:1).

▣ “어린 양에게 있도다” 똑 같은 찬송이 야웨와 메시아께 돌려지고 있음을 주목하라. 이것은 성자의 신성을 강조한다.

7:11 여러 그룹이 구별되고 있음을 주목하라.

1. 천사들
2. 장로들
3. 네 생물

이들은 모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과 관련을 가진다. 그들은 144,000 명 및 큰 무리와는 구별이 된다. “장로들”에 관하여는 4:4 의 특별주제: 장로를 보라.

7:12 “이르되” 하나님(또한 메시아, 참조, 10 절)께 대한 7 중적인 축복을 주목하라. 이것은 5:12 에 기록된 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7 중적인 축복과 비슷하다.

▣ “아멘” 어떻게 축복을 시작하고 결론짓는가를 주목하라. 1:6 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7:13-17

¹³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¹⁴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¹⁵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¹⁶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¹⁷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7:14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이것은 천사인 전달자에 대한 인간의 공통된 반응이다(참조, 숙 4:5,13; 단 10:16). 장로들이 천사적 존재됨을 말해준다.

목시적 글에는 천사인 중보자와 해석자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해석은 상징적인 언어를 이해하고 규명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합창으로 드린 찬송의 경우처럼).

▣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것은 **현재 분사**이며, 요한의 시대에 박해받는 교회에 대한 암시이다(참조, 1:9; 2:9,10,22). 한편, 계시록에 있는 역사적 암시는 각 시대에서 박해받는 성도들 및 마지막 때에 강화되는 박해(참조, 단 12:1)에 대한 것임이 분명하다. 이것은 다음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1.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박해(참조, 마 24:21-22; 막 13:19; 살후 2:3 이하; 계 2:10; 단 12:1)
2.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참조, 살후 1:6-9; 계 3:10; 6:17; 8:2 이하; 16:1 이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고난을 받았다(참조, 요 16:33; 행 14:22; 롬 5:3; 뱀전 4:12-16). 이러한 사건들은 종종 의의 새 시대를 출산하기 위한 산통으로 불린다(참조, 마 13:8; 묵시적 책인 바록 2 서 25-30 장).

계시록에서 **쉴리스(환란)**라는 단어는 항상 불신자들에 의해 신자들이 박해당함을 나타낸다(참조, 1:9; 2:9,10,22; 7:14). **쉴로스(참조, 12:12; 14:8,10,19; 15:1,7; 16:1; 18:3; 19:15)**와 **오르케(참조, 6:16,17; 11:18; 14:10; 16:19; 19:15)**는 반역적이고 완고한 불신자들에게 성부 혹은 성자의 진노하심이 임함을 항상 나타낸다.

이 책이 환란을 당하는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라는 신학적 면을 고려할 때, 왜 어떤 해석가들은 장차 있을 박해에서 어떤 신자들을 면하게 하기 위해 비밀스런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고집하는가? 박해가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지도자들 및 각 세대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있었다. 그렇다면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장차 박해를 면할 수 있다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대환란 중에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믿음을 인하여 순교를 당한 자들을 분명히 가리킨다. 구속에 대한 이 얼마나 놀라운 은유적 표현인가(참조, 22:14)!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통하여 깨끗케 된다는 사상이 롬 3:25; 5:9; 고후 5:21; 엡 1:7; 골 1:20; 히 9:14; 뱀전 1:19; 요일 1:7 에 나타난다. 계시록에서는 십자가의 진리를 자주 암시하고 있다(참조, 1:5; 5:12; 7:14; 12:11; 13:8; 14:4; 15:3; 19:7; 21:9,23; 22:3).

그리스도의 공급하심과 인간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하는 두 가지 내용이 함께 감을 주목하라. 신약과 구약의 언약적 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공급하심을 주장한다. 하지만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가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하여야 함을 요청하신다(참조, 요 1:12; 막 1:15; 행 3:16,19; 20:21; 롬 10:9-13).

7:15-16 미래에 있을 축복과 하늘의 평화가 구약의 용어로 묘사되고 있다. 이것은 광야방랑 시기 및 회막에 대한 암시이다(참조, 출 40:34-38; 민 9:15-23). 이것은 또한 영광의 구름인 쉼키나에 대한 또 다른 암시인데, 이 구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심을 상징한다(참조, 사 49:10; 마 5:6; 요 4:14; 6:35; 7:37).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시기는 사실상 심판의 기간이었다. 한편, 야웨께서 이 심판의 기간 보다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하셨던 시기는 없었다. 랍비들은 이 시기를 야웨와 이스라엘의 밀월시기라고 종종 말한다.

7:15 “밤낮 하나님을 섬기때” 구약에서 이 표현은 레위인 제사장들에 대한 내용이다(참조, 시 134:1; 대상 9:33).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1) 박해받는 신자들 및 (2) 모든 신자들에게로 확장되었다. 더 이상 소수의 유대인들에게만 허용된 제사장직이 아니다!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다(참조, 뱀전 2:5,9; 계 1:6).

“밤낮”은 계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것은 계시록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다(참조, 4:8; 7:15; 12:10; 14:11; 20:10).

▣ **“그의 성전에서”** 이 본문(및 겔 40-48 장)을 계 21:22 과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다. 후자는 천국에 성전이 없다고 말한다. 어떤 이는 시간적으로 천년의 왕국과 영원한 통치를 구분지으려고 애쓴다. 이 책에 나타나는 은유적 표현과 시간적 구조는 유동성이 분명히 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영적 회막을 가리키는 내용일 것이다(참조, 히 9:23).

▣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친밀하게 거하심을 말로써 나타내는 표현이다. 장막은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과 나라에서 온 하나님의 새 백성과 영원히 계심을 나타낸다.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의도하셨던 일이 회복된다. 인류가 구속을 받는다(참조, 창 3:15).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다시 가능케 된다(즉, 창 3:8).

7:16-17 이것은 순교자 뿐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다(구약에서).

7:16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16 절은 사 49:10-13 에 대한 암시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공급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이다(참조, 마 5:6; 요 4:14; 6:35; 7:37).

▣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것은 38 년 동안의 광야방랑 시기동안 영광의 구름인 쉼키나로써 그들을 만들어 주셨던 일을 암시한다(참조, 시 121:5-7).

7:17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이것은 구약의 겔 34:23 에 대한 암시이다. 죽임을 당하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구속자께서 하나님의 구속 활동에 있어서 핵심에 계심을 주목하라. 요 10:11 에 나오는 선한 목자는 이제 모든 양떼의 목자가 되신다(참조, 요 10:16).

▣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은 항상 풍요와 생명을 상징하였다. 이것은 사 49:10 을 암시한다(참조, 시 23:2). 그 내용은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반복되고 있다(계 21:6; 22:1).

▣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 암시는 사 25:6-9 에 기록된 메시아의 잔치 및 하나님의 새 도시를 암시한다(참조, 계 21:4). 요한이 일하던 시대 및 각 시대에서 박해받는 신자들에게 이것은 정말로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누가 144,000 명인가? 계시록의 본문에서 당신의 답을 찾아 설명하라.
2. 144,000 명이 9 절에 나오는 큰 무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3. 왜 우리가 이 상징들을 해석하기 어려운가?
4. 6 장과 7 장의 핵심내용은 무엇인가?
5. 7 장이 막간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막간이 이 책의 어디에서 또 나타나는가?

요한계시록 8:1-9:21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⁴)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일곱째 인과 금향로	일곱째 인: 일곱 나팔의 전주	일곱째 인	일곱째 인	일곱째 인
8:1-2	8:1-6	8:1-2	8:1-2	8:1 성도들의 기도가 큰 날의 임함을 앞당기다 8:2-5
8:3-5		8:3-5	8:3-5	
나팔들		처음 여섯 나팔	나팔들	처음 네 나팔
8:6	첫번째 나팔	8:6	8:6	8:6-12
8:7	8:7	8:7	8:7	
	두번째 나팔: 인을 침			
8:8-9	8:8-9	8:8-9	8:8-9	
	세번째 나팔: 물을 침			
8:10-11	8:10-11	8:10-11	8:10-11	
	네번째 나팔: 하늘을 침			
8:12	8:12	8:12	8:12	
8:13-9:6	8:13	8:13	8:13	8:13
	다섯번째 나팔: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들	악한 황충으로 인한 재앙		다섯번째 나팔
	9:1-12	9:1-6	9:1-6	9:1-6
9:7-11		9:7-11	9:7-11	9:7-11
9:12	여섯번째 나팔: 유프라테스에서 온 천사	9:12	9:12	9:12
9:13-19	9:13-19	9:13-19	9:13-19	9:13-21
9:20-21		9:20-21	9:20-21	

독서의 세 번째 단계 (v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8:1-9:21 에 대한 문맥적 통찰

- 가. 일곱 나팔이 일곱째 인에서 나타남을 인하여 가지게 되는 질문은 “나팔과 인과 대접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이다. 적어도 부분적인 중복이 나타난다. 이들은 같은 시기에 대한 것이다. 이들은 같은 형태를 가지며 다른 것에서 나와 전개된다. 이들이 부분적으로 반복된다는 설은 제 3 세기에 페카우의 빅토리누스에 의해 제기되었다(*니케네 이전의 교부들*, 제 7 권 344-360 쪽을 보라). 그는 나팔과 대접이 평행되는 관계에 있음에 대해 언급하였을 뿐이다. 우리가 세 가지를 서로 비교해 볼 때, 이들이 마지막 때의 같은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묵시적으로 점진적인 파괴를 묘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섯번째 인(참조, 6:12-17)이 우리를 종말로 이끌듯이 일곱 나팔(참조, 11:15-19)과 일곱 대접(참조, 16:17-21)은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묘사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 나. 요한이 이러한 묵시적 환상들과 관련된 묘사들을 어디서 취하였는가? 이에 대하여 여러 이론이 제시되었다:
1. 구약의 여러 본문에 대한 암시가 있다. 특히 8 장과 9 장에서 이집트에 일어난 재앙 및 요엘 2 장에 있는 메뚜기의 공격에 대한 암시가 있다. 계시록에서는 대개의 경우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와 스가랴서에 있는 묘사가 기본적 배경을 이룬다.
 2. 신구약 중간시대에 속하는 유대인의 묵시문학 가운데, 예녹 1 서는 1 세기의 유대교 및 초대교회와 신약의 저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참조, 베드로후서 및 유다서).
 3. 1 세기의 역사적 배경, 즉 로마의 황제숭배 및 지역에서 일어난 박해.
이러한 묘사가 주로 어디서 온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이 두 장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만일 우리가 로마의 황제숭배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로마의 역사에 집어넣으려 할 것이다(과거주의자). 만일 우리가 유대인의 묵시적 언어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려 할 것이다(이상주의자). 만일 우리가 구약의 예언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마지막 때의 유대적 상황에 집어넣으려 할 것이다(미래주의자).
- 다. 이 두 장은 불신자들에 대하여 점점 강화되는 심판을 나타낸다. 한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심을 반드시 기억하여야만 한다(참조, 9:20-21; 14:7; 16:9,11). 따라서 심판이 신 27-29 장에 있는 언약에 따른 저주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라. 앞 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징주의가 매우 흥미하여 어떤 주석가는 이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것으로 돌리고 어떤 이는 이것을 사탄에 대한 것으로 돌린다. 상징이 가진 이러한 커다란 유동성을 인하여, 교리주의는 완전히 부적합하다. 해석가는 전체 환상을 하나의 중심진리로 요약해야만 한다. 이 중심진리를 가지고 세세한 부분을 해석하여야 하고, 중심적인 신학적 내용을 강조하여야 한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8:1-2

¹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²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8:1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예수께서 일곱째 인을 떼셨다. 이 때부터 계속하여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선언하는 일에 천사들이 참여한다.

▣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 침묵에 관하여 몇 가지 이론이 제시되었다. 랍비들은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가 들리게 하기 위한 침묵의 기간으로 본다

1. 어떤 이는 이것을 에스드라스 2 서 7:29-31 과 관련시킨다, 그곳에서 침묵은 새 시대의 시작을 이룬다
2. 어떤 이는 이것을 인간이 하나님께서 장차 오심을 인하여 침묵하는 것에 대한 여러 구약의 본문과 관련시킨다(참조, 합 2:20; 습 1:7; 습 2:13)
3. 어떤 이는 이것을 불신자들에 대해 장차 임할 강력한 심판에 대한 것으로 본다

4. 빅토리누스는 이것을 영원의 시작과 관련시킨다

8:2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천사”에 정관사가 사용되는 점이 흥미롭다. 랍비들의 유대교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일곱 천사의 이름을 토빗 12:15; 주빌리 1:27,29; 2:1-2,18; 에녹 1 서 20:1-7 에서 말한다. 그 이름은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마카엘, 사라렐 혹은 사리엘, 가브리엘, 레미엘이다. 다른 이는 이 구를 사 63:9 에 있는 메시아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 천사”에 해당함) 혹은 반역하여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참조, 사 63:10)과 연관시킨다. 출애굽과의 관련은 출 23:20-23; 33:12-16 에 나오는 천사에서 보여진다.

▣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나팔(참조, 6 절)과 일곱 천사가 관련을 가진다. 나팔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종교적 혹은 군사적 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참조, 출 19:16; 민 10:1-10; 사 27:13; 렘 4:5-9; 율 2:1; 습 1:16; 숙 9:14; 에스드라스 6:23, 1:10 의 특별주제를 보라). 나팔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공포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었다(참조, 마 24:31; 고전 15:52-53; 살전 4:16).

개역개정 8:3-5
³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⁴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⁵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8:3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이 본문과 5:8 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받아 드리는 자’라는 랍비들의 신학적 개념을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었다. 성경은 이 내용을 어떻게 세세히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이 상징적 본문들을 추측에 근거한 신학적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비전이다. 따라서 이 본문은 어떤 특정 천사들의 기능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해 준다.

제단은 성소에 있는 휘장 앞에 있는 향단(참조, 출 30:1-10) 혹은 제단(참조, 5 절; 9:13)으로 이해된다. 한편, 이 비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나 초기의 회막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대한 것이다(참조, 히 8:2; 9:11,24). 향단이 문맥상 가장 적합하다.

▣ “모든 성도의 기도” 이 성도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필요를 아시며 이에 응답하심을 분명히 나타낸다(참조, 출 3:7). 향은 기도의 상징이었다(참조, 시 141:2; 계 5:8). 향의 연기가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올라가면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성도”에 대하여는 5:8 의 특별주제를 보라.

8:4 레위기 전체에 걸쳐서 향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 말한다. 따라서 향은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를 나타내게 되었다.

8:5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이것은 겔 10:2 의 암시이다. 휘장 앞에 있는 향단에 사용되는 쉯은 원래 회막 앞에 있는 제단에서 가져온 불일 것이다(참조, 9:13; 레 16:11-13). 회막의 상징에 대하여는 그 의미에 있어서 유동성이 있다. 핵심적 신학적 관점은 이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러한 종류의 현상이 종종 야웨의 임재와 관련하여 나타난다(참조, 4:5; 11:19; 16:18; 출 19:16-19; 시 18:10-13).

개역개정 8:6
⁶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8:1-6 이 절들은 침묵의 시기에 행해진 일들을 나타낸다.

개역개정 8:7
⁷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삼분의 일이 타 버리고 수목의 삼분의 일도 타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 버렸더라

8:7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많은 종류의 내용이 이집트에 내리신 재앙과 관련을 가진다. 이 본문은 출 9:24 에 대한 암시이다. 이것은 또한 곡의 침략군을 물리치는 내용인 겔 38:22 에서 취한 내용일 것이다.

▣ “땅의 삼분의 일이 타 버리고” 이어지는 여러 장에서 제한적이지만 상당한 분량인 ‘삼분의 일’이 상당히 자주 언급된다 (참조, 8:7-8,9,10,11,12; 9:15,18; 12:4). 심판의 두 번째 내용들은 처음 것(참조, 6:8, 여기서는 사분의 일로 나온다)보다 훨씬 강화된 형태이다. 야웨께서 물질적 재앙을 통하여 죄인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시지만(참조, 출 7-11 장; 신 28-29 장), 그들은 회개와 믿음으로써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 “각종 푸른 풀도 타 버렸더라” 이것은 삼분의 일 지역에서 푸른 풀이 완전히 멸망함을 가리킴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푸른 풀이 9:4 에서 보호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역개정 8:8-9
⁸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⁹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깨지더라

8:8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또 다시 요한의 묘사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가 제기된다—로마, 유대인의 신구약 중간기, 혹은 구약.

1. 만일 이것이 구약에서 온 것이라면, 시 46:2 혹은 출 7:20-21 이 그 출처일 것이다.
2. 만일 이것이 유대인의 묵시문학에서 온 것이라면, 에녹 1 서 18:13-16 혹은 시빌린의 예언 5:158 이 그 출처일 것이다.
3. 만일 이것이 로마에서 온 것이라면, 베수비우스 화산의 폭발이 그 역사적 암시가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파괴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로마를 심판하신 것으로 이 사건을 해석했다.

요한이 사용한 비유적 표현의 정확한 자료를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내용은 반역한 피조물을 구속할 목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을 나타낸다.

▣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이것은 이집트에 내리신 재앙에 대한 또 다른 암시이다(참조, 출 7:20-21).

8:9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이것은 이집트에 내리신 재앙에 대한 또 다른 암시이다(참조, 출 7:21).

▣ “배들의 삼분의 일이 깨지더라” 구약과 묵시문학과 1 세기의 로마문학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 상업이 타격을 받아 상품과 양식이 부족하게 되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제한적이면서 점진적인 심판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심판이 강화되어(인에서는 사분의 일, 나팔에서는 삼분의 일) 대접에 이르러서는 회개의 기회가 지나가고 완전하고 철저한 심판이 행해진다.

개역개정 8:10-11
¹⁰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삼분의 일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¹¹이 별 이름은 쓴 썩이라 물의 삼분의 일이 쓴 썩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8:10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것은 사 14:12 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계 6:13 혹은 9:1 과 관련시키려 시도했으나, 그러한 일은 요한의 환상을 상당히 제한시키게 된다. 세세한 내용을 일일이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그림같은 환상이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묵시문학에서는 떨어지는 별이 천사를 가리킨다(즉, 9:1).

8:11 “이 별 이름은 쓴 썩이라” 구약에서 썩은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다(참조, 신 29:17-18). 이것은 또한 독과 섞여져 죽음을 의미한다(참조, 렘 9:15; 23:15; 암 6:12). 썩 자체(참조, TEV)는 쓰지만 죽게 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현대인들이 계시록의 세세한 내용을 자신의 취향대로 해석함의 부적합성을 보이는 좋은 예는 러시아의 체르노빌이란 지명이 썩이기 때문에 그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가 녹아 내린 일을 이 예언의 성취로 보는 경우이다. 성경을 조간 신문에 근거하여 해석하려는 관행은 지난 2000 년 동안 흔히 있었던 접근법으로서 우리가 매우 조심하여야 할 해석방법이다!

개역개정 8:12
¹²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삼분의 일과 달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타격을 받아 그 삼분의 일이 어두워지니 낮 삼분의 일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8:12 어두움은 항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표였다(참조, 출 10:21; 사 13:10; 34:4; 50:3; 겔 32:7-8; 욥 2:2,10,31; 3:15; 암 5:18; 막 13:24). 천체가 영적 힘을 가진 것으로 여겨 사람들이 이를 종종 숭배하였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으셨고(참조, 창 1:14-19; 사 40:26), 그것들의 이름을 지으셨으며(참조, 시 147:4; 사 40:26), 그것들을 다스리시고(참조, 사 48:13), 또 그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참조, 시 148:3).

개역개정 8:13

¹³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8:13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KJV 에서는 “독수리”대신에 “천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늦은 시기에 속하는 본문인 9 세기의 헬라어 사본에서 왔다. 시내 사본(N)과 알렉산드리아 사본(A)에서는 “독수리”로 되어 있다. 이것은 종종 죽음의 상징으로 사용된 독수리(참조, 겔 17:3; 합 1:8; 마 24:28; 눅 17:37)로서 다음의 내용을 뜻할 것이다

1. 겔 39:17-20; 호 8:1 에 있는 심판의 장면에 대한 암시
2. 신구약 중간기에 속하는 묵시 책인 바룩 2 서 77:21-22 에 대한 암시, 여기서는 독수리가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3. 로마 군대의 군기인데 그 위에 독수리 형상을 달았다
“공중에 날아가는”은 아마도 땅 위를 날며 먹이를 찾는 것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참조, 계 14:6; 19:17).

▣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것은 아마도 곧 있을 마지막 세 나팔을 가리킬 것이다(참조, 9:12; 11:14; 12:12). 이것은 또한 강도를 상징할 것이다(4:8 에 있는 “거룩, 거룩, 거룩”과 같음). 히브리어에서 3 중적인 반복은 최상급을 나타낸다(참조, 사 6:3 의 “거룩, 거룩, 거룩”). 구약에서 “화”는 죽음 및 심판과 관련을 가지는 시적인 애가를 나타낸다.

▣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것은 구속받지 못한 자들을 가리킨다(참조, 3:10; 6:10; 11:10; 13:8; 17:2).

요한계시록 9 장

개역개정 9:1-6

¹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²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³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⁵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쏘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⁶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9:1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천사로 불리는 이 의인화된 별이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하여 여러 이론이 제기되었다.

1. 동사가 완료 시제이기에, 이것은 과거에 떨어진 사탄이 계속하여 하늘에서 떨어짐을 뜻한다(참조, 사 14:12; 겔 28:16; 눅 10:18; 계 12:9)
2. 문맥상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섬기는 또 다른 종인 천사를 의미 할 뿐이다(참조, 20:1) 천사들을 땅에 떨어진 별로 말하는 것이 신구약 중간시대에 속하는 유대인의 묵시문학에서 자주 발견된다.

▣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열쇠”가 1:18 및 20:1 에서 언급되었다. 이것은 권세를 상징한다. 귀신의 무리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무저갱이라는 헬라 단어는 **알파가 어두에 첨가**되어 부정성을 나타내는 “깊음”을 뜻한다.

1. 이 단어는 70 인역(구약의 헬라역)에서 창조된 물의 깊이를 나타내기 위하여 창 1:2; 7:11; 시 42:7; 107:26 에서 사용되었다
2. 시 71:20 에서는 죽은 자들을 모아 두는 장소를 나타낸다.
3. 이것은 타락한 천사들을 일시적으로 또 최종적으로 가두는 감옥으로 말하는 예녹 1 서 18:12-16; 21:7-10; 108:3-6 에서도 마찬가지다.
4. 이것은 “**탈타루스**”라는 용어와 동의어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벨후 2:4; 예녹 1 서 21:7). 이곳은 악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곳으로 말해진다(참조, 눅 8:31; 유 6 절; 계 11:7; 17:8; 20:1-3; 예녹 1 서 10:4; 86:1; 88:1; 주빌리 5:6-11).
5. 바울은 이 용어(심연)를 롬 10:7 에서 죽은 자들의 장소로 말한다(참조, 사 24:21-22).
6. 랍비들은 후에 이것을 스올/하데스에서 불의한 자가 거하는 장소로 말하였다(1:18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받았더라” 이 8 장과 9 장에서는 여러 **수동태**가 사용되어 하나님께서 역사 및 귀신을 다스리고 계심을 강조한다(참조, 8:3,7,8,11,12; 9:1,3,4,5). 유대인 저술가는 종종 **수동태**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회적으로 말하였다.

9:2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이 용어는 구약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되었다:

1.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나온다(참조, 창 19:28)
2. 열방에 대한 심판에 나온다(참조, 사 34:10)
3.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나온다(참조, 출 19:18)

9:3 “황충” 이것은 종종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한다(참조, 출 10:12-15; 율 1:4; 2:1 이하). 그 이유는 이것들이 침공해 오는 군대를 상징하기 때문이다(참조, 7 절; 율 2:4-5,7-9).

9:4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러한 파괴적인 세력이 제한된 형태로 해를 끼친다. 이들이 어떤 식물도 해할 수 없다. 이들은 불신자들을 죽이지 않고 단지 그들에게 고통만 줄 수 있다(참조, 5 절, 7:4). 신자들은 하나님께 의해 보호를 받는다(이집트의 재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7:2 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 이것은 겔 9:4 에 대한 암시이다.

9:5 “다섯 달 동안” 어떤 이는 이 기간을 황충의 생애로 본다. 한편, 이것은 10 의 절반으로서 심판이 제한적임을 나타내는 또 다른 은유적 표현이다(참조, 6:6,8; 8:7-12).

▣ “전갈이 사람을 쏘 때에 곱게 함과 같더라” 전갈이 쏘는 것은 구약에 있는 은유적 표현이다(참조, 대하 10:11,14).

9:6 이것은 6:15-16 과 밀접하게 평행을 이룸으로써 인과 나팔과 대접이 반복되는 주제임을 입증하는 증거일 것이다. 이것은 렘 8:2-3 에 나오는 바 예루살렘에 사는 신실하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을 암시한다.

개역개정 9:7-11

⁷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⁸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⁹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¹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¹¹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이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이더라

9:7-9 “황충들의 모양은” 이 황충들의 모양이 율 2:4-9 에 있는 내용 및 아라비아인의 유명한 속담과 상당히 비슷하다. 그 속담은 “황충들은 말과 같은 머리를 가졌고, 사자와 같은 가슴을 가졌으며, 낙타와 같은 발을 가졌고, 뱀과 같은 몸을 가졌으며, 여인의 머리털과 같은 더듬이를 가졌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그 묘사에 있어서 요엘서에 대한 암시임이 분명하다:

1. 사자의 이빨(참조, 8 절; 율 1:6)
2.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참조, 9 절; 율 2:5)

9:8 어떤 이는 이것이 팔티안의 군대를 가리킨다고 말한다. 그들의 기병은 긴 머리털을 가졌다. 그들은 말탄 궁사로 잘 알려졌다. 로마인들은 야만족인 이들의 침공을 두려워 했다.

9:11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잠 30:27 은 메뚜기에게 왕이 없다고 말한다. 이 본문은 파괴적인 힘을 가진 군대를 뜻하는 것이지 메뚜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 “무저갱의 사자라” “무저갱”은 죽은 자의 영역을 나타낸다(참조, 9:1,2,11; 11:7; 17:8; 20:1,3; 롬 10:7). 9:1 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

▣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이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이더라” 히브리어(아람어)로는 “멸망”을 뜻하고 헬라이어로는 “파괴자”를 뜻한다. 히브리어로는 죽은 자가 거하는 장소인 스올과 같은 의미이다(참조, 욥 26:6; 29:22; 31:12; 시 88:11; 잠 15:11; 27:20).

로버트 B. 거들스톤은 자신의 책인 *구약의 동요어*에서 이 단어에 대해 흥미로운 설명을 한다: “이 단어는 약 100 곳에서 “멸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 단어가 사람에게 대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죽음을 뜻하고, 땅에 대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파괴를 뜻한다”(273 쪽).

욥 28:22 에서 이 단어가 죽음과 더불어 의인화되어 사용되었다. 이러한 의인화는 사해사본 및 신구약 중간시대에 속하는 유대인의 묵시문학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 내용이 약간 특이한 이유는 구약에서 죽음의 천사가 야웨의 종이거나(참조, 출 12:23; 욥 15:21) 야웨 자신의 의인화이기 때문이다(참조, 출 12:13,29). 그러나 여기서는 천사가 ‘감혀 있는 귀신의 무리를 지배하는 자’로 여겨진다. 이러한 묘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또 다시 나타낸다.

어떤 이들은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이 아폴로의 현현임을 주장하였다고 말한다. 이 헬라어 이름은 아볼루온에 대한 암시로서 그 이름이 변형된 형태에 속한다.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두 증거가 있다:

1. 황충들이 아폴로의 상징이었던 점
2. 아폴로와 아볼루온 둘 다 같은 헬라어 어근에서 온 점

개역개정 9:12

¹²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9:12 이 절은 11:14 와 12:2 을 연결시킨다.

개역개정 9:13-19

¹³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¹⁴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며 ¹⁵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¹⁶마병대의 수는 이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¹⁷이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향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향이 나오더라 ¹⁸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향으로 말미암아 사람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니라 ¹⁹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9:13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것은 회막에 있는 분향단에 대한 암시이다(참조, 출 30:2,3,10). 이 단락에서는 두 제단을 언급하고 있다: 번제단(참조, 6:9-11, 그 아래에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었다)과 분향단(참조, 8:3-5, 그 위에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놓여 있었다). 제단의 뿔은 구약에서 힘을 상징한다. 번제단과 분향단에 각각 뿔이 있었다. 8:3의 설명을 보라.

9:14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이것을 1 세기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암시로 보는 이들은 팔티안의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 바로 건너편에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즉, 로마 제국의 국경, 참조, 예녹 1 서 56:5-8). 한편 다른 이들은 이것을 구약에 대한 암시, 즉 수 1:8 과 6:1-8 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마지막 때에 네 마리 말에 대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네 천사는 타락하고 반역하는 세상에 심판을 가져오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나타낸다(참조, 7:1). 한편, 이 천사들이 결박되어 있기에 이들은 악한 천사일 것이다(참조, 유 6 절). 이 천사들은 인류의 삼분의 일을 죽인다(참조, 18 절).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인 북쪽은 약속의 땅의 북동쪽에 해당하는 지역이다(참조, 창 15:18; 신 1:7; 11:24; 수 1:4).

9:15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 “시”가 정관사와 함께 사용되어 시간을 나타내는 구가 정확히 어떤 시간을 뜻함을 나타낸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나타낸다(참조, 예녹 1 서 92:2). 이 사실은 꾀박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큰 힘이 된다.

9:16 “마병대의 수는 이만 만이니” 이것은 구속받지 않은 자들을 삼키는 악한 군대의 상징적 수이다. 이 수가 하나님을 섬기는 수 많은 수의 천사들과 대조를 이룬다(참조, 5:11; 신 33:2; 시 68:17; 단 7:10; 히 12:22; 유 14 절).

한편, 이 군대를 오늘날의 중국으로 말하는 것은 회화적인 문장을 현재의 역사에 뜬어 맞추려는 시도에 속한다.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의 모습을 발견하고 각 부분을 이에 맞추어 신비한 지식으로 이끌어 내려는 의도는 반복되어 일어나는 문제이다.

9:17-19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 말과 말탄 자들에 대한 설명이 하나로 합쳐져 나온다. 말들이 죽음과 고통을 가져온다(참조, 19 절). 말들의 색—붉은 빛(불), 파란 빛(푸른 보라색), 노란 빛(유향)—은 이 파괴적인 무리가 18 절에서 언급하는 세 가지의 재앙(불, 푸른 연기, 유향)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개역개정 9:20-21

²⁰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²¹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9:20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이 재앙들이 구속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제시한다(참조, 21 절; 14:6-7; 16:9,11; 21:7; 22:17).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재앙을 사용하신 동기는 (1)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으며 (2) 이스라엘로 하여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재앙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창조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들은 이를 거부했다. 그들의 완고한 불신앙이 반역을 고착시켰다(참조, 롬 1:24,26).

▣ “손으로 행한 일을” 이것은 구약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바(참조, 신 4:28; 28:36,64; 29:17; 32:17; 시 115:4-8; 사 2:8; 37:19; 40:19-20; 44:17; 렘 1:16; 10:3-5; 단 5:23; 미 5:13) 우상숭배에 대한 암시이다(즉, 귀신을 예배함, 참조, 신 32:17; 시 106:37; 고전 10:20). 신약에서 우상숭배가 귀신과 관련이 있음을 주목하라(참조, 16:14; 고전 10:20; 딤후전 4:1).

9:21 이 네 가지(우상숭배, 살인, 주술, 부도덕함)를 구약에서 정죄하였다(참조, 신 18:10-11,14,20; 출 22:18; 레 20:6). 그것들은 부도덕한 불신자들의 특징을 이루는 삶이었다(참조, 롬 1-2 장; 딤후전 4:1; 계 18:23). 회개하지 않는 이 불신자들을 포함한 자들이 13:15-17; 14:9; 16:2,9,11 에서 언급되었다.

▣
 NASB, NKJV, NRSV “주술”
 TEV “마술”
 NJB “마법”

“약”(pharmacy)이라는 영어 단어가 주술을 뜻하는이 헬라어에서 왔다(파말케이아, 참조, 갈 5:20). 이것은 앞서 언급된 쑥의 경우처럼(참조, 8:11) 마술적인 약이나 독을 뜻할 것이다. 고대 세계에서는 약을 종종 “종교적” 범주에서 사용하였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이 장들에 나오는 묘사의 자료가 다음 중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1) 구약 (2) 유대인의 묵시문학 (3) 로마제국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
2. 이 사건들은 (1) 1 세기 (2) 모든 세기 (3) 미래 가운데 어느 것을 가리키는가?
3. 이 장들을 문자적으로 취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묵시적으로 취하여야 하는가?
4. 8장과 9장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5. 8장과 9장에서 일곱 인과 일곱 대접이 어떻게 관련을 가지는가?
6. 재림이 있기 전에 왜 천사들과 귀신들의 활동이 증가하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10:1-11:19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⁴)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	두루마리를 가진 힘 센 천사	막간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	마지막 형벌이 가까움
10:1-7	10:1-7 요한이 작은 책을 먹다	10:1-7	10:1-4 10:5-7	10:1-7 보는 자가 작은 두루마리를 먹다
10:8-11	10:8-11	10:8-10 10:11	10:8 10:9 10:10-11	10:8-11
두 증인	두 증인	성전의 측량과 두 증인	두 증인	두 증인
11:1-13	11:1-6 죽임을 당한 증인들 11:7-10	11:1-3 11:4-6 11:7-10	11:1-3 11:4-6 11:7-13	11:1-10
	11:11-14	11:11-13 일곱째 나팔		11:11-13
11:14		11:14	11:14	11:14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나팔: 왕국이 선포됨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나팔
11:15-19	11:15-19	11:15-19	11:15-18 11:19	11:15-18 11:19

독서의 세 번째 단계 (v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가. 처음 막간(7 장)은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나타났다. 이 두 번째 막간(10:1-11:14)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나타난다.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 사이에는 막간이 없지만(16 장), 그 앞에 막간이 나타난다(12-14 장).
- 나. 이 막간은 7 장의 경우처럼 구약의 용어를 사용한다(희막, 제단, 예루살렘). 한편, 7 장에 있는 유대적 암시가 하나님의 신약백성인 교회를 가리키듯이 이 장에서 그러하다. 이 암시들이 단 9 장에서 가져온 것이지만 1 세기의 헬라와 로마 세계의 배경에서 사용되었다.
 여기서 알란 존슨의 *계시록 주석*을 일부 인용한다: “이 장을 10 장의 문맥과 연결시키며 인 사이의 막간에 나오는 병행구절과 연결시키고(7 장) 두 증인의 사역과 중요성에 일치시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계시록의 여러 장(특히, 12-13 장)에 연결시킴에 있어서 갖게 되는 어려움은 이 장과 유대인들과의 관련성을 지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11 장을 그리스찬 전체 공동체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104 쪽).
- 다. 알란 존슨이 7 장과 10 장 및 12-13 장과의 관계성에서 11 장을 이해하지만, 조지 래드는 이 장을 유대 민족을 보호하심과 그들의 최종적 구원과 관련을 가진 독립적 문단으로 이해한다(참조, 마 23:39; 눅 21:24; 롬 11:26). 그의 *요한계시록 주석*, 150-151 쪽을 보라.
 이 두 견해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는 쉽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인하여 마지막 때에 많은 혈통적 이스라엘 및 개종자인 이스라엘이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지는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참조, 슥 12:10); 이 점은 바울이 롬 11 장에서 강조하는 내용이다(스 12:10 에서 암시한 부흥이 1 세기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교회에서 일어났음도 확실하다). 한편 계 7 장, 10 장, 12-13 장의 문맥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 대한 보호하심 및 모든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전 세계적으로 있을 것임을 제시한다. 믿는 유대인에 대한 강조를 하거나 혹은 유대인 대 이방인의 관점으로 이 문맥을 접근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
- 라. 마지막 때에 두 명의 증인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상징적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한 명의 증인을 뜻하는가? 이 책의 상징을 해석함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기가 어렵다. 만일 요한이 그 내용을 문자적으로 취한 것이라면 그는 모든 세대에 속한 신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다른 장르를 사용했을 것이다.
 “두 증인”에 대한 언급이 박해(아마도 황제숭배)를 받는 1 세기의 신자들을 특별히 염두에 둔 것인가? 이것에 대해 우리는 결정적으로 답할 수 없다. 요한이 사용한 상징적 표현은 여러 자료에서 온 것이다: 구약, 묵시문학, 헬라와 로마 문화, 또한 때때로 근동의 신비주의(12 장). 원래의 청중이 그가 사용한 자료들과 상징주의를 완벽하게 또 철저히 이해했는가? 그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장르를 분명히 이해했다! 그들은 세세한 내용이 문자적 및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함에 있어서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 점은 구약의 예언적 내용을 영감받은 신약의 저자들이 어떻게 해석하였는가에 대한 것이다! 그들은 종종 그리스도의 삶에서 구약의 세세한 부분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았다. 이러한 성취의 어떤 내용은 랍비들의 언어유희 혹은 모형/원형적 상징들이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또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참조, 눅 24:13-35), 사도들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구약의 예언적 본문에 비추어 이해했다. 이 같은 일이 박해받는 마지막 세대의 신자들에게 발생할 것이다. 한편, 그 중간 시대에 속하는 해석가들은 신학 또는 해석학에 비추어 이러한 세세한 사항을 예언할 수 없다! 오늘날의 해석가들은 (1) 이 묵시적 본문이 자기들의 역사에 들어맞는 내용이 되게 강요를 하거나 (2) 매우 상징적인 이 장르에 나오는 세세한 모든 내용이 어떻게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는지를 발견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된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 마. 인과 나팔의 문학적 패턴과 상징성은 거의 일치한다. 둘 다 인간의 역사를 마지막 순간으로 이끈다(참조, 6:12-17; 11:15-19).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10:1
¹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²그 손에는 썩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 발은 땅을 밟고 ³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⁴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⁵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⁶세세토록 살아 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⁷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10:1 “내가 또 보니 힘 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요한이 4-5 장에 나오는 환상 이후에 땅으로 돌아와 있음을 주목하라(만일 4 장에서 요한을 부르는 하늘의 소리가 교회의 휴거를 뜻한다면, 이 내용은 교회의 떨어짐을 의미한다는 말인가?). 이 천사는 구약에서 야웨께 사용되고 계 1:12-20 에서는 그리스도께 사용된 용어로서 묘사된다. 이 사실을 인해 이 천사가 그리스도 자신을 뜻한다고 많은 이들이 주장한다. 하지만 다음의 여러 이유에서 볼 때 그러한 견해는 의심스럽다:

1. 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를 한 번도 천사로 부르지 않고 있다
2. 계시록에서 또 다른 힘 센 천사들에 대해 말한다(참조, 5:2; 18:21)
3. 이 천사가 6 절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다. 이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4. 단 10 장에 한 천사가 나오는데 그도 비슷한 용어로서 묘사된다.

이 정교한 묘사는 계 9 장에 나오는 무저갱의 천사와 이 빛의 천사를 서로 대조시킨다. 9 장에 나오는 천사가 인도하심을 받는데, 이 천사는 자기 스스로 행한다. 이것은 단 10:5-6 에 나오는 강력한 천사 혹은 미가엘(이스라엘을 지키는 천사로서 단 10:13; 12:1 에 나옴)에 대한 암시일 수 있다.

▣ “구름을 입고”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께서 타시는 독특한 이동수단이었다(참조, 시 97:2; 104:3; 단 7:13; 행 1:9).

▣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많은 이가 이것을 4:3 에 대한 암시로 이해하여, 이것을 신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호칭과 권위로 본다. 이것은 겔 1:28 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 거기서는 무지개가 야웨의 움직이는 보좌/병거로 나온다.

▣ “그 얼굴은 해 같고” 이것은 1:16 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로서 나온다(참조, 마 17:2).

▣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 묘사는 계 1:15 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과도 비슷하다.

10:2 “그 손에는 썩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이 책의 정체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어떤 이는 이것을 5:1 에 나오는 작은 책으로 본다. 그러나 여기서는 썩 있는 것으로 나오며, 두 곳에서 책에 대해 사용한 헬라어 단어가 각기 다르다(5:1, *비블리온*; 10:2, *비블라리디온*). 어떤 이는 이것이 겔 2:8-3:14 과 관련을 가진다고 여긴다. 이 책을 가지고 있는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천사이기에 에스겔서가 가장 맞는 암시일 것이다.

▣ “그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 발은 땅을 밟고” 이 천사의 크기는 이것이 전 세계에 대한 메시지임을 나타낸다. 랍비들(탈무드에서)은 ‘산텔폰’이라는 이름의 천사에 대해 말했다. 그는 다른 천사들보다 키가 800 km 나 더 컸다(참조, 하기가 13b).

10:3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부르짖다”(*피카오마이*)라는 이 용어는 대개 소의 목소리를 나타낸다(낮게 큰 소리로 울). 한편,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자의 부르짖음 같이 말씀하심에 대한 구약의 본문을 암시한다(참조, 렘 25:30; 호 11:10; 율 3:16; 암 3:8).

▣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 일곱 우레의 정체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이들은 다음을 뜻할 것이다:

1. 하나님의 일곱 “소리”에 대한 본문인 시 29:3-9 의 암시
2.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평행을 이루는 내용으로서, 구속의 취지를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행해지는 연속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냄(참조, 8:5; 11:19; 16:18)
3.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소리(참조, 4:5)
4. 이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관련을 가질 수 있다(참조, 1:4; 4:5; 5:6; 사 11:22)

10:4 “인봉하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계시를 드러내지 말라고 지시받은 경우’에 대해 말한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은 (1) 다니엘(참조, 단 8:26; 12:4,9)과 (2) 바울(참조, 고후 12:4)이다. 한편, 이것은 매우 놀랄만한 진술이다.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기록하라는 말씀을 들었다(참조, 1:11,19; 14:13; 19:9; 21:5). 요한은 22:10 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다. 여기에 있는 명령은 이 말씀에만 국한된다!

10:5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것은 맹세를 하는 자세이다(참조, 창 14:22; 출 6:8; 민 14:30; 신 32:40; 겔 20:15,28; 단 12:7). 이러한 형태의 맹세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형태이기에 매우 강력한 모습이다.

10:6 “세세토록 살아 계신 이” 이 특별한 호칭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가장 많이 사용한 두 칭호를 상기시킨다:

1. “~있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유래한 야웨(참조, 출 3:14).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는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이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자요 구속자이심을 강조하여 나타낸다(참조, 창 14:19; 출 20:11; 느 9:6; 시 146:6).
 2. 엘로힘, 이 이름은 창 1 장에서 창조자요 유지자이시며 또한 땅에 있는 모든 것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낸다(참조, 창 14:19; 출 20:11; 느 9:6; 시 146:6).
- 이 맹세는 천사의 메시지가 참된 것임을 주장하는 방법이다.

▣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6:10 에 나오는 순교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일 것이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 때(크로노스)가 더 이상 있지 않으리니”이다. 이 책에서 시간적 개념은 여러 이유에서 볼 때 상당히 유동적이다.

1. 시간을 말하는 두 헬라어 단어가 있다
 - ㄱ. 크로노스, 시간이 지나감(참조, 10:6)
 - ㄴ. 카이로스, 어떤 특별한 시간이나 계절 혹은 사건(참조, 1:3; 11:18; 12:12,14)
2. 여러 관용어들이 사용되었다:
 - ㄱ.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참조, 1:1; 22:6)
 - ㄴ. “때가 가까움이라” (참조, 1:3; 3:11; 22:10)
 - ㄷ. “내가 속히 오고 있다” (참조, 2:5,16; 22:7,12,20)
 - ㄹ. “내가 도적 같이 오리라” (참조, 3:3; 16:15)

이 모든 내용이 곧 일어남을 나타낸다(1:3 의 특별주제를 보라). 한편, 어떤 본문은 지체함에 대해 말한다(참조, 6:11; 10:6; 14:13). 또 다른 관용어는 심판과 보상의 날이 이르림에 대한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 졌다”(참조, 16:17; 21:6) 혹은 “때가 되었다”(참조, 11:18; 20:12).

이러한 유동성은 시간에 대한 어떤 면(1 세기, 각 세대, 마지막 세대)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다른 해석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 더욱 드러났다. 천사가 한 준엄한 맹세는 마지막 때의 사건이 지금 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순교자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 독자가 어떻게 이 내용을 이해하였는가에 의해 해석되어야 한다(존 브레이, *성취된 마태복음 24 장*을 보라).

10:7
NASB
NKJV
NRSV
TEV
NJB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 질 것이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밀스런 계획을 완성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 성취될 것이다”

이 표현은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를 지닌다

1.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속받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 표현을 사용하여 종종 나타낸다(참조, 엡 2:11-3:13, 4:1 의 특별주제를 보라).
2. 계시록은 종종 환상의 한 부분이 지닌 신비를 종종 나타낸다(참조, 1:20; 17:5,7).
3. 10:7 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계획을 가리킨다. 바울은 롬 16:25-26; 엡 2:11-3:13 에서 그것을 말하였다.

요한이 이 표현을 다니엘서에서 취하였을 것이다(특히 2 장에서, 참조, 2:18,19,27,28,29,30,47).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모든 것을 아시며 또 이를 주관하신다.

특별주제: 신약에 나오는 비밀

- 가.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비유에 들어 있는 영적 통찰력을 나타내기 위해 “비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 막 4:11
 2. 마 13:11
 3. 눅 8:10
- 나. 바울은 이것을 여러 의미로 사용한다.
 1. 이방인들을 포함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일부분이 완악하게 된 일. 이방인들이 이렇게 들어 온 일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언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영접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작용할 것이다(참조, 롬 11:25-32).
 2. 열방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아들여짐을 말하는 복음이 열방에 전파된다(참조, 롬 16:25-27; 골 2:2).
 3. 신자들이 재림의 때에 가지는 새 몸(참조, 고전 15:5-57; 살전 4:13-18).
 4.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으심(참조, 엡 1:8-11).
 5.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후사가 됨(참조, 엡 2:11-3:13).
 6. 그리스도와 교회의 친밀한 관계가 결혼이라는 용어로 설명됨(참조, 엡 5:22-23).
 7. 이방인들이 언약백성에 포함되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령이 거주하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을 가져 오, 즉 타락한 인간 안에 있는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참조, 창 6:5,11-13; 8:21)을 회복시키심(참조, 창 1:26-27; 5:1; 6:5,11-13; 8:21; 9:6; 골 1:26-28).
 8.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마지막 때(참조, 살후 2:1-11).
 9. 신비에 대한 초대 교회의 요약은 딤후전 3:16 에 나온다.

- 다. 요한 계시록에서 이 용어는 요한이 사용하는 묵시적 상징을 나타낸다.
1. 1:20
 2. 10:7
 3. 17:5,6

라. 이것은 사람들이 발견할 수 없는 진리를 뜻한다. 이러한 진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다. 이러한 통찰은 모든 사람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참조, 창 3:15).

▣ “선지자들”

특별주제: 구약의 예언

I. 서론

가. 들어가는 말

1. 어떻게 예언을 해석할 것인가에 있어서 믿음의 공동체가 일치하지 않는다. 예언 이외의 진리는 수 세기를 거치면서 정통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다.
2. 구약 예언의 여러 단계가 잘 정의되었다:

ㄱ. 왕정 이전:

(1) 선지자로 불린 사람들

- (ㄱ) 아브라함 - 창 20:7
- (ㄴ) 모세 - 민 12:6-8; 신 18:15; 34:10
- (ㄷ) 아론 - 출 7:1(모세의 대언자)
- (ㄹ) 미리암 - 출 15:20
- (ㄺ) 메닷과 엘닷 - 민 11:24-30
- (ㄻ) 드보라 - 삿 4:4
- (ㄼ) 무명 - 삿 6:7-10
- (ㄽ) 사무엘 - 삼상 3:20

(2) 무리로서의 선지자 - 신 13:1-5; 18:20-22

(3) 선지자의 무리나 조합 - 삼상 10:5-13; 19:20; 왕상 20:35,41; 22:6, 10-13; 왕하 2:3,7; 4:1,38; 5:22; 6:1 등

(4) 선지자로 불린 메시아 - 신 18:15-18

ㄴ. 책을 기록하지 않은 왕정시대의 선지자들(그들은 왕에게 말했다):

- (1) 갓 - 삼상 22:5; 삼하 24:11; 대상 29:29
- (2) 나단 - 삼하 7:2; 12:25; 왕상 1:22
- (3) 아히야 - 왕상 11:29
- (4) 예후 - 왕상 16:1,7,12
- (5) 무명 - 왕상 18:4,13; 20:13,22
- (6) 엘리야 - 왕상 18 장-왕하 2 장
- (7) 미가야 - 왕상 22 장
- (8) 엘리사 - 왕하 2:8,13

ㄷ. 책을 남긴 전통적 선지자들(그들은 왕은 물론 나라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사야-말라기(다니엘은 예외)

나. 성경의 용어

1. **로예**= “예언자,” 삼상 9:9. 이 용어는 **나비**로 바뀌어 사용되었다. **로예**는 “보다”를 뜻하는 일반적 용어에서 왔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이해했고,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를 찾아 갔다.
2. **호제**= “예언자,” 삼하 24:11. 이것은 기본적으로 **로예**의 동의어이다. 이것은 “보다”를 뜻하는 말로서 드물게 사용된 용어에서 왔다. 선지자를 가리키는데 이 단어의 **분사형**이 자주 사용되었다(즉, “보는 자”).
3. **나비**= “선지자,”는 아카디아어의 **동사 나부** = “부르다”와 아라비아어 **나바이** = “알리다”와 같은 어근을 가진다. 이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를 지칭하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이다. 이것은 300 번 이상 사용되었다. 이것의 정확한 어원은 확실하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부르다”가 가장 좋은 선택으로 보여진다. 아마 이 단어의 가장 적절한 이해는 아론을 통한 모세와 바로의 관계에 대하여 야웨께서

하신 설명일 것이다(참조, 출 4:10-16; 7:1; 신 5:5.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다(암 3:8; 렘 1:7,17; 겔 3:4).

4. 대상 29:29 에서 선지자직을 뜻하는 세 가지 용어가 모두 사용되었다; 사무엘 - 로애; 나단 - 나바; 갓 - 호제.
5. 이스 하엘로힘 “하나님의 사람”이란 구는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광의의 표현이다. 이것은 “선지자”라는 의미로서 구약에서 76 번 사용되었다.
6. “선지자”라는 영어 단어는 헬라어에서 유래되었다. 이것은: (1) 프로 = “앞에” 또는 “위해서” (2) 헤미 = “말하다”에서 왔다.

II. 예언의 정의

- 가. “예언”이란 용어는 영어보다 히브리어에서 더 넓은 의미의 범위를 가진다. 유대인들은 여호수아에서 열왕기 상하에 이르는 역사서를 “전기 예언서”로 부른다. 아브라함(창 20:7; 시 105:5)과 모세(신 18:18)는 선지자로서 불린다(또한 미리암, 출 15:20). 그러므로 영어에서 가정되는 정의를 조심하라!
- 나. “선지주의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참여의 관점에서 역사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주의로 정의할 수 있다.” *해석가의 성경사전* 제 3 권 896 쪽.
- 다. “선지자는 철학자나 조직 신학자가 아니라 언약의 증재자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에게 전하여 그들의 현재 삶을 개혁하여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도왔다.” “선지자와 예언,” *유대 백과* 제 13 권 1152 쪽.

III. 예언의 목적

- 가.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으로서, 그의 백성이 처한 상황에의 안내 및 그들의 삶과 세상의 사건에 하나님이 주장하심에 대한 희망을 공급한다. 그들의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적이다. 그것은 꾸짖고, 격려하고, 믿음과 회개를 야기시키며, 하나님 자신과 그의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언약에 충실하도록 유지시켰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대변자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예언이 종종 사용된 점도 함께 기억해야만 한다(신 13:1-3; 18:20-22). 궁극적으로 이 사람은 메시아를 가리킬 것이다.
- 나. 선지자는 자주 자신의 시대의 역사적 신학적 위기에 대한 메시지를 종말론적 상황으로 나타냈다. 이스라엘에서 역사에 대한 마지막 때의 관점은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적 약속과 더불어 독특하다.
- 다. 선지자직은 하나님의 뜻을 앞에 있어서 대제사장직과 균형을 이루고(렘 18:18) 그의 역할을 대신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림과 둠림은 하나님의 대변인이 전하는 구두 메시지로 대체되었다. 또한 선지자직은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400 년 후의 침례(세례)요한이 있기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신약에서의 “예언”의 은사가 구약에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신약의 예언자들(행 11:27-28; 13:1; 14:29,32,37; 15:32; 고전 12:10,28-29; 엡 4:11)은 새로운 계시나 성경을 계시한 자들은 아니지만, 언약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거나 예언하는 사람이었다.
- 라. 예언은 본질상 전적 혹은 우선적으로 예견하는 것은 아니다. 예견은 그의 직분과 메시지를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구약에서 예언의 2%도 안되는 것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다. 새 언약의 시대를 특별히 묘사하는 것이 5%도 안된다. 아직 오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관계된 것이 1%도 안된다”는 것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피와 스투어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66 쪽).
- 마.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대해 하나님을 대표한다면, 제사장은 하나님께 대해 사람들을 대표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진술이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하박국은 예외이다.
- 바. 선지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의 책이 어떤 구조를 갖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책들은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 책들이 주제별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상하는 것처럼 항상 그렇지는 않다. 종종 거기에는 역사적 배경과 시간의 틀이 분명하지 않으며 예언 사이의 분명한 구분도 없다. 이러한 책들은 (1) 단번에 전체를 읽는 일 (2) 주제를 따라 개요를 말하기 (3) 각 예언의 중심 진리나 저자의 의도를 알아내기가 어렵다.

IV. 예언의 특징

- 가. 구약에서 “선지자”와 “예언”의 개념이 발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선지자들의 교체는 이스라엘의 초기에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영향력이 강한 지도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때때로 “선지자의 아들들”이란 구절이 이런 무리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다(왕하 2 장). 선지자들은 황홀상태로 특징지어졌다(삼상 10:10-13; 19:18-24).
- 나. 그러나 이런 시대는 개인 선지자들의 시대로 빠르게 바뀌었다. 왕에게 인정받고 왕궁에서 살았던 선지자들(참 또는 거짓의)이 있었다(갓, 나단). 또한 독립적인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때때로 이스라엘인의 사회와는 전혀 관계 없이 지낸 선지자도 있었다(아모스). 선지자들은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다(왕하 22:14).
- 다. 선지자는 종종 사람의 즉각적인 응답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미래를 드러내는 자였다. 선지자의 임무는 종종 인간의 반응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을 드러내는

것이였다. 이 우주적 종말론적 계획은 고대 근동의 예언에서 독특한 것이다. 선지적 메시지의 두 가지 초점은 예견과 언약에 대한 충성이다(참조, 피와 스튜어트, 150 쪽). 이것은 선지자가 우선적으로 공동체에 초점을 두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그들은 대개 배타적이지 않게 나라들에 대해 말했다.

- 라. 대부분의 예언은 구술로 표현되었다. 예언은 후에 주제, 연대기, 혹은 현재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고대 근동의 다른 문학과 결합되었다. 그것이 구두로 되었기 때문에 기록된 글의 구조를 갖지는 않고 있다. 이 점은 특별한 역사적 배경을 알지 않고 예언서를 죽 읽거나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 마. 선지자들은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1. 법정외의 장면 - 야웨께서 그의 백성을 법정으로 데리고 가신다. 이곳은 야웨께서 종종 그 아내(이스라엘)의 불성실함 때문에(호 4 장; 미 6 장) 이혼소송을 하는 장소이다.
 2. 장례식 애가 - 이런 종류의 메시지와 그 메시지의 특징인 “슬프도다”와 같은 특별한 운율은 이 애가들을 특별한 형태로 분리시킨다(사 5 장; 함 2 장).
 3. 언약적 축복의 선언 - 언약의 조건적 본질이 강조되었고, 미래에 나타날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가 자세하게 설명되었다(신 27-28 장).

V. 예언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침

- 가. 역사적 배경과 각 예언에 대한 문학적 문맥을 주의해 보면서 원 선지자(편집자)의 의도를 발견하라. 보통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모세의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에 대해 말할 것이다.
- 나. 부분이 아닌 전체 예언을 읽고 해석하라; 내용에 따른 개요를 말하라. 그것이 다른 예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라. 전체 책의 개요를 만들어 보라.
- 다. 본문 자체에서 어떤 것이 비유적인 용법으로 사용되었는지 명확해지기 전에는 그 구절에 대하여 문자적 해석을 하라; 그 다음에는 비유적인 표현을 산문으로 나타내라.
- 라. 역사적 배경과 평행 구절에 비추어 상징적인 활동을 분석하라. 고대 근동의 문학은 서양문학이나 현대문학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라.
- 마. 조심스럽게 예언을 다루라:
 1. 그것이 저자의 시대에만 국한된 것인가?
 2.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실제로 성취되었는가?
 3. 그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인가?
 4. 그것이 그 시대에 성취되었지만 미래에도 성취될 것인가?
 5. 현대 저자가 아닌 성경의 저자가 당신의 답을 이끌게 하라.
- 바. 특별한 고려점들
 1. 어떤 조건에서만 그 예언은 적합한가?
 2. 누구에 대한 예언인지(그리고 왜 이 예언을 주는지) 확실한가?
 3. 이 성취가 성경과/또는 역사에서 여러 번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4. 영감받은 신약의 저자들은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지만 구약의 여러 곳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모험론이나 언어유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영감받지 않았으므로 예언에 대해 이러한 방법의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VI. 도움이 되는 책

- 가. *성경적 예언의 안내*, 칼 E. 아멘딩과 W. 와드 바스큐
- 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
- 다. *나의 종인 선지자*, 에드워드 J. 영
- 라. *보습과 낫: 성경적 예언과 계시에 대한 표현의 재고찰*, D. 브랜트 샌디
- 마. *새 국제 구약신학과 석의사전*, 제 4 권 1067-1078 쪽

개역개정 10:8-11

⁸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퍼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⁹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갓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 같이 달리라 하거늘 ¹⁰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갓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 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¹¹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10:8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 화자의 정체에 대하여 많은 추측이 있었다. 사람들은 이 화자가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혹은 힘센 천사 가운데 하나라고 추측한다.

11 절에 나오는 음성은 복수형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킬 것이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사용한 복수형 (엘로힘이라는 이름 및 창 1:26; 3:22; 7:11; 사 6:8 에 나오는 “우리”)은 여러 가지로 설명되었다.

1. “장엄함을 나타내는 **복수형**”으로 불리는 문법적 형태이다, 여기서는 **복수형**으로써 그 개념이나 용어의 뜻을 강화시킨다
2. 야웨께서 천사의 모임 전체에게 말씀하신다(참조, 왕상 22:19; 욥 1:6; 2:1; 렘 23:18; 단 7:10)
3.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개념의 초기적 형태(참조, 시 110:1; 숙 2:8; 17:10)

1:8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을 보라.

10:9 “갓다 먹어 버리라” 이것은 겔 2:8-3:14 혹은 렘 15:16-17에 대한 암시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하도록 임명받음을 상징한다. 작은 책은 신자에게는 확신을 주지만(꿀, 참조, 시 19:10-11; 110:103)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쓴 맛)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상징한다. 이 두루마리는 예수께서 6장에서 여신 것과는 다른 책이다. 이것은 힘있는 천사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가리킨다(참조, 7-11 절).

10:11 “그가 내게 말하기를” 힘 센 천사 혹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요한이 예언의 기록자요 전달자임을 확인시킨다.

▣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이 구는 불신자들(참조, 11:9; 13:7-8; 14:6; 17:15)과 신자들을 포함한다(즉, 심판의 날 이전, 참조, 7:9; 15:4; 심판의 날 이후, 참조, 21:24,26; 22:2). 이 절은 모든 민족에게(참조, 마 24:14; 막 13:10)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리키거나(참조, 10:11; 14:6) 하나님의 일시적인 진노의 심판이 앞으로 있을 것임을 예고한다.

요한계시록 11 장

개역개정 11:1-6

¹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²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³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짧은 베옷을 입고 천이백육십 일을 예언하리라 ⁴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⁵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⁶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되다

11:1 “지팡이 같은 갈대” 앞 단락에서 요한은 천사들이 행하는 일들을 지켜 보았다. 일곱째 나팔에서는 요한이 그 행위에 참여한다.

“갈대”(칼라모스, 이 의미로는 이곳에서만 나옴)는 강에서 자라는 갈대를 사용하여 선의 길이를 재는 도구로 사용한 구약에서의 용법을 반영한다(19:11의 특별주제: 의를 보라). 이것의 길이는 2.4 ~6 m에 이르렀다(참조, 겔 40:5-42:20).

▣ **“일어나서 . . . 측량하되”** 측량은 (1) 성장과 보호를 약속함의 표였다(참조, 렘 31:38-40; 계 21:15). 이것은 에스겔의 마지막 때의 성전(참조, 40-48 장) 혹은 스가랴의 새 예루살렘(참조, 1:16; 2:1-13)을 암시한다. 측량은 (2) 심판의 상징이었다(참조, 삼하 8:2; 왕하 21:13; 사 28:17; 애 2:8). 여기서는 7장의 인침과 같이 하나님께서 신자를 보호하심의 표로서 사용되었다. 만일 이 막간이 7장과 평행을 이룬다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말한다(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 그렇다면 이것은 12장과도 평행을 이룬다.

▣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이 성전의 정체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가진 해석적 전제에 따라 달라진다.

1. 요한이 사용한 상징이 겔 40-48장에서 온 것이라고 우리가 여긴다면, 이것은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마지막 때의 성전을 가리킨다(참조, 살후 2:4).
2. 그러나 이 상징이 숙 2장에서 온 것이라고 우리가 여긴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인 새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3. 하늘의 성전에서 온 것으로 본다면(참조, 7:15; 11:19; 15:58; 히 9:23), 7:9에 있는 큰 무리(교회 및 12장에 나오는 여인)가 초점을 받게 된다(참조, 21:15-16).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말씀을 요한이 받는 점이 흥미롭다. 이것은 특이한 경우이다. 이 상징적 묘사는 건물 이상의 내용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기 전에 신실한 자들을 불신자로부터 구분하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환상은 신자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표하는 것과 평행을 이룬다(참조, 7:3-4).

11:2 “성전 바깥 마당은” 바깥 마당이라는 개념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해로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구역을 가리킨다. 구역에는 이방인들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짓밟는 일에 대한 암시가 여러 곳에서 나온다(참조, 시 79:1-7; 사 63:18; 단 8:13; 70 인역의 숙 12:3). 예수께서는 눅 21:24에서 단 8:13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셨다.

▣ **“이방인”** 2:26과 10:11의 설명을 보라.

▣ “마흔두 달”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마흔두달

마흔 두 달의 숫자는 핏박의 기간에 대한 예언적 특징이다. 바깥 뜰을 짓밟는 것은 역사상 여러 시기에 걸쳐서 불신자들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이게 됨을 뜻하는 표현이다—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주후 70 년의 로마,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마흔 두 달, 또는 이것과 동등한 것,은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되었다. 다니엘서가 이것의 출처로 보인다.

1. 단 7:25; 12:7 은 “한 때, 두 때, 반 때” 또는 1277 일을 말한다(“때”가 일년으로 계산된다)
2. 단 8:14 은 2300 주야를 말한다
3. 단 12:11 은 1290 일을 말한다
4. 단 12:12 은 1335 일을 말한다. 비슷한 구가 요한계시록 12:6(1260 일)과 13:5(42 달)에 있다.

위의 사항을 모두 고려할 때 다양성은 숫자의 상징적인 특성을 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마흔 두 달의 근접한 수는 핏박의 기간에 대한 상징적 수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셋과 반은 일곱의 반이므로 이것은 핏박의 전체 기간이 감해진 것을 의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참조, 마 24:22; 막 13:20; 눅 21:24). 핏박은 심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정된다.

▣ “거룩한 성” 이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킬 것이다(참조, 사 52:1; 마 27:53). 한편, 계 3:12 에서 성전을 신약의 신자들로 말할 것을 따르다면, 이 구에 대하여서도 같은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계시록의 뒤쪽에 있는 장들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신약 백성을 가리킨다(참조, 20:9; 21:2,10; 22:19).

요한은 구약에서 은유적 표현을 가져와 하나님의 신약 백성들에게 이를 적용시키고 있다. 교회는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다. 계시록에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종적인 면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더 이상 구분이 없다(참조, 고전 12:13; 갈 3:28; 골 3:11).

11:3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8 절에서 예수께 대해 언급하기 때문이다(비록 헬라어 사본에 **대명사**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지만, 즉 P⁴⁷ 과 **κ**에서는 이것이 생략됨).

▣ “두 증인” 이 두 명의 강력한 설교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많은 이론이 제시되었다:

1. 속 4:3,11,14 에 대한 암시이다(참조, 4 절). 이것은 원래 다윗의 씨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의 씨인 여호수아가 돌아옴을 가리킨다. 이들은 성령에 의해 인도하심을 받는 지도자로서(두 감람나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자들(즉,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다.
2. 두 등잔(참조, 1:20)은 충성스러운 두 교회를 가리킨다: 서머나, 2:8-11,와 빌라델비아, 3:7-13.
3. 두 증인은 법정에서의 증거를 가리킨다(참조, 민 35:30; 신 17:6; 19:15).
4. 이 두 증인에 대한 묘사는 엘리야(6 절에서 하늘을 단음, 참조, 왕상 17:1; 18:1; 눅 4:25; 약 5:17, 불이 내려오게 함, 참조, 왕상 18:24,38; 왕하 1:10,12) 및 모세(6 절에서 물을 피가 되게 함, 참조 출 7:17-19). 이 두 인물이 예수님의 변화산에 나타났다(참조, 마 17:4).
5. 신구약 중간시기의 목시적 책인 에녹 1 서 90:31 과 이른 시기에 속하는 교부인 터툴리안과 힐포리투스 이 두 사람이 죽음을 맞보지 않은 구약의 두 사람인 에녹(참조, 창 5:21-24)과 엘리야(참조, 왕하 2:11)를 가리킨다고 주장했다.
6. NJB 의 각주에서는 이들이 네로의 치하에서 로마에서 순교한 베드로와 바울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435 쪽).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증인이라고 보는데, 이 이유는 일곱 인과 막간 및 일곱 나팔과 막간이 서로 평행을 이루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44,000 명(믿는 유대인)과 수 많은 무리(믿는 열방) 및 두 증인은 모두 교회를 가리킨다.

▣ “굵은 베옷을 입고” 이것은 (1) 슬픔과 회개의 표식(참조, 창 37:34; 삼하 3:31) 혹은 (2) 선지자의 일상적 의상을 나타낸다(참조, 왕하 1:8; 사 20:2; 속 13:4).

▣ “천이백육십 일을 예언하리라” 각 달이 30 일인 마흔 두 달은 천이백육십 일과 같다. 믿지 않는 열방에게 박해를 받는 이 기간 동안 복음이 선포될 것이다(참조, 마 24:8-14,21-22). 이 상징적 수는 단 7:25; 12:7 에서 온 것으로서 계시록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참조, 12:6; 13:5).

11:4 “두 감람나무” 이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다윗의 씨인 스룹바벨과 포로에서 돌아온 아론의 씨인 여호수아에 대한 암시이다(참조, 속 4:3,11,14). 마지막 때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왕인 메시아 및 제사장인 메시아에 강조점을 둔다(예수께서 왕이시고 제사장이심, 참조, 시 110 편; 히 1:3). 회개를 외치는 영감받은 이 두 설교가는 하나님의 빛(참조, 속 4 장)을 반역하는 세상에 가지고 온다(반역하는 이스라엘이 여기서는 반역하는 인류로 대치됨, 참조, 사 6:9-11; 43:8-13; 램 5:21-29; 겔 12:2).

11:5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 . .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이 두 문장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यो” 그들이 전파하는 메시지의 능력을 뜻하는 그들의 입에 있는 능력을 주목하라. 계시록에서 입은 무기로, 혀는 검으로 나타난다(참조, 9:17; 19:15; 히 4:12).

11:6 구약에 있는 이 행위는 엘리야(참조, 왕상 17:1)와 모세(참조, 출 7:17-19)를 상기시킨다.

개역개정 11:7-10

⁷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⁸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⁹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¹⁰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11:7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것이 단 7 장에 대한 암시라면, 이 짐승은 단 7 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네 짐승을 하나로 묶어 놓은 모습을 가진다. 단 7 장은 마지막 때에 있을 적그리스도에 대해 말한다(참조, 살후 2:3).

“무저갱”은 귀신들의 집이다(참조, 9:1; 20:1). 짐승에 대한 이 개념이 13 장과 17 장에서 발전되었다.

▣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것은 단 7:21 에 대한 암시로서 계 13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의 문체는 두 증인이 백성의 무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참조, 13:7; 즉,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박해와 죽음을 당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11:8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죽은 이의 시신을 길에 놓아 두는 행위는 경멸을 나타내는 방법이었다(참조, 9 절; 신 28:26; 시 79:2; 렘 7:33; 8:2; 16:4; 19:7; 34:20). 한편,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그들의 시신을 사용하사 놀라운 부활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며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참됨을 확인해 주신다.

▣ “큰 성” 이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로 여겨진다; 한편, 회화적인 문체는 지상의 왕국 대 하늘의 왕국 사이의 영적 싸움을 나타낸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그 큰 성”이라는 구는 바벨론 혹은 로마에 대하여 사용되었다(참조, 16:19; 17:18; 18:10,16,18,19,21).
2. 비록 겔 16:46-49 과 사 1:9-10 에서 예루살렘을 소돔으로 부르지만, 이 성은 한 번도 이집트로 불리지 않았다; 소돔과 이집트는 죄와 속박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으로 여겨진다.
3. “주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곳”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반대하는 이 세상의 왕국을 뜻하는 또 다른 묘사이다.
4. 9 절에서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는 다음의 내용을 나타낸다.
 - ㄱ. 전 세계가 있는 도시에 예루살렘보다 로마가 더 들어 맞는다.
 - ㄴ. “도시”가 반역적인 인류를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으로서 사용되었다(참조, 창 4:17; 10:8-10).
5. 10 절에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함”은 이 두 증인이 전한 메시지가 유대인들 뿐 아니라 믿지않는 전 세계를 향한 것임을 나타낸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왕국과 메시아의 왕국 사이의 계속되는 싸움을 묘사한다(참조, 11:15). 이러한 싸움은 특별히 단 2 장과 시 2 편에서 잘 드러나 있다.

11:9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10:11 의 설명을 보라.

▣ “사흘 반 동안을” 9 절에 있는 시간이 11 절의 시간과 합하여 일곱이라는 수를 만드는데, 이 수는 계시록에서 아주 자주 사용된 수이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에 일어났다.

11:10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어떤 이는 이것을 뒤바뀐 부림절로 본다(참조, 예 9:19,22). 이것은 요 16:20 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세상이 기뻐하리라”). 믿지 않는 세상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두 증인의 메시지가 가진 능력을 드러냄에도 불신자들은 회개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참조, 9:20-21; 16:9,11).

개역개정 11:11-13

¹¹삼 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¹²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¹³ 그 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칠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11:11 “삼 일 반” 이것은 다니엘서에 대한 암시로서 박해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11:9 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

▣ “하나님께서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이것은 마르 8 골짜기에 대한 꺾 37 장의 암시이다. 이것은 숨, 바람, 영이라는 뜻을 가지는 히브리 단어인 “루아흐”와 관련된 언어유희이다(헬라이어 단어인 프뉴마도 마찬가지로 역할을 함).

특별주제: 성경에 나오는 영

I. 헬라이어 용어

- 가. 프네오, 불다
- 나. 프노에, 바람, 호흡
- 다. 프뉴마, 영, 바람
- 라. 프뉴마티코스, 영에 관한
- 마. 프뉴마티코-스, 영적으로

II. 헬라 철학적 배경(프뉴마)

- 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용어를 출생 때부터 시작하여 자기 훈련의 시기까지 가지는 생명력으로 사용했다
- 나. 스토아학파는 이 용어를 오감 및 인간의 지성을 가리키는 말로서 프쉬케(혼) 또는 누스(마음)의 동의어로 사용했다
- 다. 헬라의 사상 - 이 용어는 신적 활동을 뜻하였다(즉, 신탁, 마술, 주술, 예언 등)

III. 구약(루아흐)

- 가. 유일신의 행동(즉, 성령, 구약에서 약 90 회 사용됨)
 - 1. 긍정적, 창 1:2
 - 2. 부정적, 삼상 16:14-16,23; 왕상 22:21-22; 사 29:10
- 나.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주신 생령력(즉, 하나님의 호흡, 참조, 창 2:7)
- 다. 70 인역은 루아흐를 프뉴마로 번역한다(70 인역에서 100 회 정도 사용됨)
- 라. 후기에 속하는 랍비들의 글, 묵시 문학, 사해사본에서는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 프뉴마를 천사들과 악령에 대해 사용함

IV. 신약(프뉴마)

- 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능력, 힘주심
- 나.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활동과 관련을 가지심
 - 1. 예언
 - 2. 기적행함
 - 3. 담대히 복음을 선포함
 - 4. 지혜(즉, 복음)
 - 5. 기쁨
 - 6. 새 시대의 도래
 - 7. 회심(즉, 마음을 열게 하심과 거주하심)
 - 8. 그리스도를 닮음
 - 9. 사역을 위한 특별한 은사들
 - 10. 신자들을 위한 기도

성령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망하도록 각성시킨다. 인간은 이 교제를 위해 지음받았다. 이 교제는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의 삶과 사역을 인해 가능하게 되었다. 새로운 영적 각성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과 섬김과 신뢰로 이끈다.

- 다. 이 영적 연속성의 한 쪽에 성령이 위치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영적 존재로서 이 지구에 사는 인간은 다른 한 편에 위치한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라. 바울은 성령/영에 대한 신학을 발전시킨 신약의 저자이다
 - 1. 바울은 성령을 몸(즉, 죄의 본질)과 대조시킨다
 - 2. 바울은 영을 육체와 대조시킨다
 - 3. 바울은 성령/영을 인간의 사고, 지식, 존재와 대조시킨다

- 마. 고린도후서에서 예를 들면
1. 성령, 12:3
 2.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성령을 통해 나타남, 2:4-5
 3. 하나님의 행하심이 신자에게 나타남
 - ㄱ. 새로운 마음가짐, 2:12; 14:14,32
 - ㄴ. 새 성전, 3:16; 6:19-20
 - ㄷ. 새 생명(즉, 도덕성), 6:9-11
 - ㄹ. 침례(세례)로 상징되는 새 생명, 12:13
 - ㅁ. 하나님과 하나됨(즉, 회심), 6:17
 - ㅂ.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2:12-15; 14:14,32,37
 - ㅅ. 모든 신자가 사역을 감당하도록 받는 영적 은사, 12 장과 14 장
 4. 영이 육체와 대조를 이룸, 9:11; 10:3; 15:44
 5. 영적 영역이 육체의 영역과 대조를 이룸, 2:11; 5:5; 7:34; 15:45; 16:18
 6. 인간의 영적/내적 삶을 육신과 구별하여 말할, 7:34
- 바. 인간은 창조된 세계의 두 영역에서 산다(즉, 물리적 및 영적). 인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떨어져 나왔다(창 3 장).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삶, 가르침, 죽으심, 부활하심, 약속하신 재림을 통하여 범죄한 인간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도록 권고하신다. 성령은 이 “세대”에 성부 하나님의 대리자와 성자의 옹호자로서 일하신다. 현재 세 시대가 도래했으나, 범죄하고 반역한 옛 시대가 아직 존재하고 있으므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지라도 성령께서는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꾸시고 계신다.

11:12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4:1 에서 요한이 하늘로 들려감에서 교회의 비밀스런 휴거를 어떤 이들이 주장하듯이, 이 절에서 두 증인에게 하늘로 올라오라는 내용에서 교회가 환난의 중간에 비밀스럽게 휴거한다고 어떤 이들은 주장한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가진 전제나 신학적 틀이 상징적이고 불명료한 본문의 해석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됨을 본다!

▣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동하시는 수단이다. 단 7:13 에서는 메시아께서 하늘의 구름을 타셨다. 예수께서는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다(참조, 행 1:9). 예수께서는 하늘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참조, 마 24:30; 26:64; 막 13:26; 살전 4:17; 계 1:7; 14:14).

11:13 “그 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계시록에서 지진에 대한 언급이 7 번 나온다(참조, 6:12; 8:5; 11:13,19; 16:18). 이것은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 심판이 계속적으로 있으며 제한된 범주에서 행해짐을 나타낸다. 이것은 겔 38:17-23 의 암시일 것이다.

▣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 남은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들은 다음의 경우에 속할 것이다

1.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이나(참조, 숙 12:10) 로마의 주민
2. 환란기 동안에 구원받은 자들, 즉 진심으로 회개한 자들
3. 롭 11 장에서 말하듯이 믿는 유대인들
4.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 같은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놀라기는 했지만 참되게 회심하지는 않았다.

9:20-21; 14:7-8; 16:10 을 고려할 때 4 항의 설명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16:9 에서는 영광을 돌리는 일이 회개와 관련을 가진다. 이 사람들(유대인들 혹은 이방인들)이 믿는 자들이 매우 확실하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지는 명백한 목적이다(참조, 9:20-21; 16:9,11).

개역개정 11:14

¹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11:14 이것은 전환점을 만들기 위한 기법이다(참조, 9:12; 12:12).

개역개정 11:15-16

¹⁵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¹⁶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이십사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1:15 “세상 나라가” KJV 와 NKJV 에서는 “이 세상의 나라들”로 되어 있다. 그런데 어떤 고대 헬라어 사본에서도 이것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지 않다.

▣ “되다” 이것은 부정과거 중간태(디포) 직설법이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 정부의 통치가 끝남과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됨을 말한다(참조, 12:10). 성령의 새 시대가 완전히 도래했다. 이 점은 세 가지 심판의 마지막 부분-인(참조, 6:12-17), 나팔(참조, 11:15-18), 대접(참조, 19 장)-마다 재림의 주제를 반복하여 다루고 있음을 입증한다. 계시록은 심판의 시간적 순서나 순차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각기 일곱 가지로 이어지는 일련의 심판이 같은 시기에 대한 것임을 드라마처럼 제시한다. 인과 나팔과 대접은 연속적이며 점점 강화되는 형태의 심판을 나타낸다(1/4, 1/3, 모든).

▣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성부께서 성자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계심을 주목하라(참조, 시 2 편). 또한 고전 15:24-28 과 엡 5:5 의 강조점이 이제 성취되었음을 주목하라. 어떤 이는 이것이 슥 14:9 에 대한 암시로 보는데, 이러한 견해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요한이 즐겨 사용하는 묵시적 이미지가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와 스가라서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천년동안 통치하심(참조, 계 20 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가리킨다(참조, 출 15:18; 시 10:16; 29:10; 사 9:6-7; 단 2:44; 4:34; 7:14,27; 슥 14:9; 눅 1:33; 살전 4:17; 벧후 1:11). 이것은 마 6:10 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실제로 성취됨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서와 계시록의 주요 주제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상황(후천년과 무천년) 및 왕국이 미래에 완성되는 일(역사적인 전천년과 세대주의적 전천년) 사이에 유동성과 긴장이 나타난다. 이 같은 유동성이 왕국의 지상에서의 측면(천년) 및 영원한 면 사이에도 나타난다. 어떤 주석가들, 학교들, 교단들은 이 유동성의 한 면만을 취하여 다른 면을 무시하거나, 자신들이 가진 전제들 및 신학적 교리에 다른 면을 꿰 맞추려 든다. 서구인들이 동양의 글 특히 묵시적 장르에 속하는 책에 나타나는 유동성과 회화적인 묘사 혹은 긴장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셨고 다스리고 계시며 또 다스리실 것이다; 세부적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메시아께서 어떤 기간동안(참조, 고전 15:23-28) 땅 위에서 다스리실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일부분을 이룰 것이다(참조, 롬 11 장). 그러나 계시록에 나타나는 인물들과 상징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체 교회에 대한 내용이다(참조, 단 2:34-35,44).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신 구약의 약속(참조, 사 9:6-7; 슥 12:10)과 하나님의 성품을 인하여(참조, 겔 36:22-38), 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을 이스라엘이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1:16 “이십사 장로” 4:4 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11:17-18

¹⁷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¹⁸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11:17-18 이 찬송의 기도는 NKJV, NRSV, TEV 에서는 시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NASB, NJB 에서는 산문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러한 기도와 찬송은 종종 이전에 나온 환상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자료가 된다(노래들과 천사의 해석도 같은 기능을 가진다).

11:17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사용한 세 가지 주요 칭호를 나타낸다.

1. 야웨, 구원자이신 언약의 하나님(참조, 출 3:14; 시 103 편)
2. 엘로힘, 공급자요 유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참조, 창 1:1; 시 104 편)
3. 엘 사다이, 강한 하나님 혹은 공활히 여기시는 하나님, 족장들이 하나님께 이 이름을 사용했다(참조, 출 6:3)

1:8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을 보라.

- ▣ NASB “지금 계시고 옛적에도 계신”
- NKJV “지금 계시고 옛적에도 계셨고 오실 분이신”
- NRSV “지금 계시고 옛적에도 계신 분들”

TEV “지금 계시고 옛적에도 계신 분이신”
 NJB “지금 계신 그 분, 옛적에도 계신 그 분”

하나님께 대한 이 일반적 서술에서 미래에 관한 측면이 들어 있지 않은데(16 세기에 속하는 일부 소문자체 헬라어 사본을 제외하고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세 가지 시대적 측면 가운데 마지막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결코 다시 언급되지 않는다. 왕국이 도래되었다(참조, 11:15-16)! 이것은 인과 나팔과 대접이 평행을 이루는 내용으로서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다룬다는 주장이 참임을 입증한다!

▣
 NASB “왜냐하면 당신께서 당신의 큰 권능을 잡으시고 다스리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NKJV “왜냐하면 당신께서 당신의 큰 권능을 잡으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NRSV “당신께서 당신의 큰 권능을 잡으시고 다스리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TEV “당신께서 당신의 큰 권능을 잡으시고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NJB “당신의 큰 권능과 다스림을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에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이 뒤따르는 구조이다. 능력이 항상 그의 것이지만, 그의 통치는 이제 시작되었다(**기동적 부정과거**).

11:18 “**이방들이 분노하매**” 이것은 시 2 편; 46:6; 겔 38-39 장에 대한 암시이다(또한 에스더에 대한 70 인역의 묵시적 서론도 이에 해당할 것임). 열방의 분노를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1. 타락한 세상의 체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한다
2. 하나님께 대한 마지막 때의 반역이 전쟁으로 나타난다(아마겟돈, 참조, 계 20 장)

▣ “**주의 진노가 내려**” 이것은 시 2 편 혹은 110:5-6 에 대한 암시이다. 이것은 **오르케라**는 헬라어이다. 7:14 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 “**때로소이다**” 주의 날이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상을 받는 날이다. 쌍을 이루는 이 두 측면을 마 25:31-46 과 계 20:11-15 에서 볼 수 있다. 모든 인간(큰 자와 작은 자)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삶에 대한 것을 계산하게 될 것이다(참조, 갈 6:7; 고후 5:10).

특별주제: 그 날

“그 날” 혹은 “그 날에”라는 이 구는 8 세기의 선지자들이 심판과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방문하심(임재)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었다.

호세아		아모스		미가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1:11	1:5	1:14 (2)		2:4	
	2:3	2:16		3:6	
2:15		3:14		4:6	
2:16		5:18 (2)			5:10
2:21	3:18 (2)	5:20			7:4
	5:9	6:3		7:11 (2)	
	7:5	8:3		7:12	
	9:5	8:9 (2)			
	10:14	8:10			
		9:11	8:13		

이것은 선지자들이 전형적으로 사용한 표현이다. 이윽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행동을 취하시려고 하신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자들에게 회개와 용서함의 날을 주신다! 구속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반영하는 백성을 갖게 되신다. 창조의 목적(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이 성취될 것이다!

▣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마지막 때의 심판이 마 25 장과 계 20 장에 나온다. 이 구는 일곱 장(장면)으로 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각 단위(인, 나팔, 대접으로 분명히 제시됨)의 마지막 부분이 마지막 때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해 준다.

▣ “**중 선지자들과**” 이 구는 10:7 에서 똑 같이 나온다. 요한은 자신을 선지자로 또 자신의 책을 예언서로 이해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가 “사도”라는 호칭을 대신한다고 말할 수 있다(참조, 10:7; 11:10, 18; 16:6; 18:20,24; 22:6,9). 16:6 의 특별주제: 신약의 예언을 보라.

▣ **“성도들”** “성도들”이라는 용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가지는 위치에 대한 것이지 그들이 죄없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 용어는 그들이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나타낸다. 이 용어는 빌 4:21 을 제외하고는 항상 **복수형**으로 나온다. 한편, 이 문맥에서도 이 용어는 집합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한 공동체와 한 몸과 한 가족의 일원이 됨을 뜻한다. 5:8 의 특별주제: 성도들을 보라. 이 호칭은 하나님의 신약 백성인 교회를 가리킴이 분명하다.

▣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이 절에서 단지 두 그룹의 사람들만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선지자들과 성도들). “작은 자와 큰 자”라는 구가 19:5 에서도 나온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자주 사용한 표현이었다(참조, 13:16; 19:5,18; 20:12; 19:5 은 시 115:13 에 대한 암시로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포함한다).

▣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타락한 인간의 이러한 특징은 창 3 장과 롬 8:18-22 을 반영한다. 악한 인간은 탐욕을 좇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남용하며 잘못 사용한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을 땅에 내리시도록 강요하는 자는 바로 악한 인류라고 해석할 수 있다(홍수, 창 6-9 장; 이집트의 재앙, 출 7-12 장; 언약적 저주, 신 27-28 장; 불로써 땅을 멸망시키, 벤후 3:10). 계시록에서 인은 1/4 을, 나팔은 1/3 을, 대접은 생명을 가진 ‘땅 위의 모든 것’을 멸망시킨다.

개역개정 11:19

¹⁹이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1:19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이 환상이 열려 있는 하늘의 문으로 시작됨을 기억하라(참조, 4:1; 15:5). 이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안 쪽에 있는 성소가 보인다(참조, 히 8:5; 9:23-28).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나타내었다(참조, 마 27:51; 막 15:38; 눅 23:45; 히 9:8; 10:20 에서 암시하는 내용). 이 같은 상징이 여기서 반복되어 나타난다. 모든 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의 내부가 이제 완전히 열려져 볼 수 있게 되었다.

▣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는 바벨론 포로시 어느 때에 없어졌다(또는 이집트의 바로 시삭의 시기에, 참조, 왕상 14:25). 이 궤는 이스라엘이 요단 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 온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약속의 상징으로서, 비밀(참조, 10:7) 곧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참조, 롬 16:25-26)을 나타낸다. 구약에서는 일년에 한 차례 곧 속죄일(참조, 레 16 장)에 대체사장만 이 거룩한 궤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 올 수 있게 되었다.

▣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은 출 9:24; 19:16-19 을 반영하는 8:5 및 16:18-21 의 내용과 상당히 비슷하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이 막간의 목적은 무엇인가?
2. 왜 상당히 많은 해석가들이 10 장에 나오는 천사를 그리스도로 보려고 하는가?
3. 10:7 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을 말하는가?
4. 요한에게 먹으라고 한 작은 책은 무슨 책인가?
5. 누가 두 증인인가?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
6. 11:9 은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반대하는 세상의 왕국을 나타내는가? 왜 그러한가?
7. 이 막간에 나오는 구약의 모든 암시를 나열하라.

요한계시록 12-14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⁴)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여인과 용	여인, 아기, 용	여인과 아기와 용의 환상	여인과 용	여인과 용의 환상
12:1-6	12:1-6 사탄이 하늘에서 내쫓김	12:1-6	12:1-2 12:3-6	12:1-6
12:7-12	12:7-12 여인이 박해를 받음	12:7-9 12:10-12	12:7-9 12:10-12	12:7-12
12:13-17	12:13-17	12:13-17	12:13-18	12:13-17
두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두 짐승	두 짐승	용이 자신의 능력을 짐승에게 줌
12:18	12:18	12:18		12:18-13:10
13:1-4	13:1-10	13:1-4	13:1-4	
13:5-8		13:5-8	13:5-8	
13:9-10	땅에서 나온 짐승	13:9-10	13:9-10	짐승의 노예인 거짓 선지자
13:11-18	13:11-18	13:11-18	13:11-17 13:18	13:11-17 13:18
144,000 명의 노래	어린 양과 144,000 명	막간	어린 양과 그의 백성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
14:1-5	14:1-5	14:1-5	14:1-5	14:1-5
세 천사의 메시지	세 천사의 선포		세 천사	천사들이 심판의 날을 선언하다
14:6-7	14:6-13	14:6-7	14:6-7	14:6-7
14:8		14:8	14:8	14:8
14:9-12		14:9-11 14:12	14:9-11 14:12	14:9-13
14:13		14:13	14:13 14:13b	
땅의 추수	땅의 추수를 거둠		땅의 추수	추수와 이방 포도 수확
14:14-16	14:14-16 진노의 포도를 거둠	14:14-16	14:14-16	14:14-16
14:17-20	14:17-20	14:17-20	14:17 14:18-20	14:17-20

독서의 세 번째 단계 (v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12:1-17 에 대한 문맥적 통찰

- 가. 또 다른 막간이 12:1 에서 시작되어 14:20 까지 이른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일곱 시리즈의 하나로 본다. 이 문학적 단위는 영적인 갈등을 이원론적 용어로 나타낸다
1. 두 왕국
 2. 두 도시
 3. 죽임을 당한 두 증인 및 그들을 죽인 자들
- 나. 1-6 절은 선과 악의 최종적(우주적) 싸움 dna 을 고대 근동 문화에서 취한 신화적인 용어로써 제시한다(참조, 그란트 오스본, *해석학적 나선*, 229 쪽).
1. 바벨론의 창조 설화 - 티아맛(혼돈, 일곱 머리를 가진 괴물로써 하늘에 있는 별의 1/3 을 던져 버림) 대 마르둑(바벨론 시의 우두머리 신, 티아맛을 죽이고 만신전의 우두머리가 됨).
 2. 이집트의 신화 - 셋(타이폰, 붉은 용) 대 이시스(하틀, 호루스를 낳음). 그는 후에 셋을 죽인다.
 3. 우가릿의 바알 신화 - 얌(물) 대 바알. 바알이 얌을 죽인다.
 4. 페르시아의 신화 - 아즈히 다바카(악한 용) 대 아후라 마즈다의 아들(선한 높은 신)
 5. 그리스의 신화 - 파이톤(뱀/용) 대 임신한 레토(그녀는 아폴로를 낳는다. 아폴로는 파이톤을 죽인다).
- 다. 이 장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어떤 이는 이것을 역사적 용어로 이해하지만 나는 이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왕국’ 대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새 시대의 왕국’ 사이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참조, 11:18; 시 2 편). 따라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역사적 암시인 동시에 메시아의 왕국이 움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개인(메시아)과 그룹(하나님의 백성) 대 개인(사탄)과 그룹(악령에 사로잡힌 불신자들) 사이의 이원론에 속한다. 이 같은 이원론이 이사야의 종의 노래에서 나타난다. 종은 이스라엘인 동시에(참조, 사 41-50 장) 메시아이시다(참조, 사 52:13-53:12).
- 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주이심을 골로새서 1-2 장에서 다룬다(또한 히 1:2-3 의 설명을 보라).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12:1-6

¹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²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³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⁴그 꼬리가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⁵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⁶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천이백육십 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1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것은 계시록의 “일곱 이적”의 시작을 나타낼 것이다. 여기서 특별한 신학 용어(*세메이온*)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자주 나온다(참조, 2:11,23; 3:2; 4:54; 6:2,14,30; 7:31; 9:16; 10:41; 11:47; 12:18,37; 20:30). 이것인 12:1 과 19:20 사이에 일곱 번 나온다—세 번은 하늘의 이적으로(참조, 12:1,3; 15:1) 또 네 번은 땅의 이적으로(참조, 13:13,14; 16:14; 19:20).

▣ “하늘에” 이것은 아마도 “공중에”를 뜻하지 하늘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다. 구약에서 하늘(들)이라는 용어는 땅 위의 대기층(참조, 창 1:1,8-9,17,20; 시 104:2-3) 혹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뜻한다(참조, 시 11:4; 103:19; 사 66:1; 고후 12 장). 이러한 모호성은 랍비들로 하여금 하늘의 갯수를 셋 혹은 일곱으로 상상하게 했다.

4:1의 특별주제: 하늘을 보라.

▣ “해를 옷 입을 한 여자가” 이 여인이 아름답게 묘사되어 17:4에 나오는 큰 음녀와 대조를 이룬다. 큰 음녀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제국을 상징한다—즉, 바벨론, 로마,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상의 체제. 요한이 사용하는 이미지의 원천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두 가지 이론이 제시되었다:

1. 창 3 장, 여기에는 여인과 뱀과 남자 아이가 나온다
2. “해산함”에 대한 구약의 여러 암시들(참조, 70 인역의 사 26:17-18; 사 66:7-13)

이스라엘이 출산하는 여인으로서 묘사된다(참조, 미 4:10). 따라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대표한다(참조, 1-6 절). 하지만 13-17 절에서 그녀는 용의 진노에서 도망하는 ‘하나님의 신약 백성’을 나타낸다. 다른 이론들에 대하여는 알란 존슨의 *계시록*, 117-119 쪽을 보라.

F. F. 브루스는 *질문에 대한 답*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이 여인이 메시아의 공동체 혹은 ‘하나님의 이스라엘’로서 특별히 팔레스타인에 위치한 교회이자 모교회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 . ‘그 여자의 남은 씨’가 세상 곳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13:7에 있는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다” (140 쪽).

조지 R. 비즐리-머레이는 *새 성경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고대 세계의 종교적 사람들은 해산하는 여인 안에서 황도대의 12 별로 된 면류관을 쓴 여신을 보았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녀를 어머니 시온으로 이해했을 것이다(사 26:16; 27:1; 49:14-25; 54:1-8; 66:7-9 을 보라). 하지만 요한은 그녀를 메시아 공동체, 곧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어머니”로 제시했다” (1441 쪽).

▣ “열두 별” 여기서 또 다시 우리가 가진 전제가 해석을 좌우한다.

1. 만일 전제가 구약이라면 이것은 유대인의 열두 지파를 가리킨다
2. 만일 전제가 신구약 중간기의 묵시문학이라면 이것은 황도대에 나타나는 이적들을 가리킨다
3. 만일 전제가 신약이라면 이것은 열두 사도를 가리킨다

열두 별은 조직을 의미하는 상징적 수로서 성경에서 자주 나온다. 7:4의 특별주제: 숫자 열두를 보라.

한편, 12 장의 의미가 ‘요한의 상징이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달려 있지않고, 문맥이 말하는 중심진리에 달려 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꼭 주의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세한 설명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2.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취하고 어떤 것은 상징적으로 취해서는 안된다
3. 우리의 해석을 우리가 처한 역사적 배경에 역지로 강요해서는 안된다

12:2 출산의 고통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1. 예상하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일
2. 예상한 사건과 관련하여 오는 아픔 혹은 문제
3. 큰 가능성을 가지고 어떤 일이 새롭게 시작됨

유대인들은 “새 시대”가 박해와 문제로 더불어 임할 것이라고 믿었다(참조, 사 13:8; 21:3; 26:17; 66:7-13; 마 24:8; 막 13:8; 살전 5:3). 요한은 이 개념을 사용하여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및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사이의 싸움을 묘사한다(참조, 사 66:7-24).

세상의 일들이 점점 더 악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이것은 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의 관점이다, 한편, 후천년주의는 세상의 역사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인 관점을 가진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박해 가운데서 보호하심을 입으며 일시적인 패배나 육체적 죽음 가운데서라도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참조, 요 16:20-21). 우리가 가지게 되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보호하실 것인가?”이다. 그들의 이마에 있는 하나님의 인이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할 것이지만 불신자들의 박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환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시며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12:3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이것은 크고 악한 힘에 대한 묘사이다(참조, 13:1; 17:3). 뿔과 머리는 완전한 힘을 상징하고(참조, 단 7 장) 왕관은 악한 자가 그리스도의 왕좌를 찬탈하려함을 나타낸다.

“용”이라는 용어는 구약의 내용을 상기시킨다

1. 창 3 장에 나오는 뱀
2. 혼돈을 다스리는 악한 두 괴물
 - ㄱ. 라합(참조, 시 89:10; 사 51:9-10; 욥 26:12-13)
 - ㄴ. 리워야단(참조, 시 74:13-14; 104:26; 욥 3:8; 7:12; 41:1; 사 27:1; 암 9:3)

신약에는 악한 자에 대한 여러 호칭이 나온다

1. “사탄,” 33 회 사용됨
2. “악마,” 32 회 사용됨

3. “시험하는 자,” (참조, 마 4:3; 살전 3:5)
4. “악한 자,” (참조, 마 6:13; 13:19; 요일 5:18)
5. “원수,” (참조, 마 13:39)
6. “귀신의 왕,” (참조, 마 9:34; 12:24)
7. “이 세상의 통치자,” (참조, 요 12:31; 14:30; 16:11)
8. “공중의 권세잡은 자,” (참조, 엡 2:2)
9. “이 세상의 신,” (참조, 고후 4:4)
10. “벨리알,” (참조, 고후 6:15)
11. “바알세불,” (참조, 막 3:22; 눅 11:15,18-19)
12. “용,” (참조, 계 12:3,4,7,9; 20:2)
13. “뱀,” (참조, 계 12:9,15; 20:2)
14. “참소자,” (참조, 계 12:10,15)
15. “반대자,” (참조, 뱀전 5:8)
16. “울부짖는 사자,” (참조, 뱀전 5:8)

특별주제: 사탄

이것은 여러 이유에서 매우 어려운 주제이다.

1. 구약은 사탄을 ‘선의 옛 원수가 아니라 야웨의 중’으로써 드러낸다. 이 중은 인간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고 또 인간의 의롭지 못함을 비난한다. 구약에서는 오직 한 분의 하나님(유일신 주의), 한 권세자, 한 분의 근원자—야웨만 나타낸다.
2. 하나님의 개인적인 옛 원수에 대한 개념은 신구약 중간시대(정경이 아닌)의 책에서 페르시아의 이원론적 종교(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 나타났다. 그 결과 이러한 생각은 랍비들이 이끄는 유대교와 에세네파(즉, 사해사본)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3. 신약은 구약의 주제를 간략하면서도 좁혀진 항목으로 놀랍게 발전시킨다.

만일 우리가 성서신학적 관점(각 책을 저자나 장르에 따라 연구하고 독립적인 개요를 제시하는)에서 악에 대한 연구를 한다면 악에 대한 여러 견해를 보게 된다. 한편 우리가 악에 대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성경 이외의 자료나 성경 밖의 세계 종교 또는 동양 종교의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우리는 신약의 많은 내용이 페르시아의 이원론과 헬라-로마의 강신술을 그 배경으로 함을 알게 된다.

만일 우리가 성경의 신적 권위를 기본적으로 인정한다면 신약에 나타난 내용을 점진적 계시로 이해해야만 한다. 유대인의 민족적 전승이나 서양의 문학(단테, 밀턴)이 이러한 개념에 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은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이 부분에 대한 계시에 있어서 분명히 신비함과 모호성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악이 패했음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지 악의 기원, 악의 발전, 악의 목적 등 악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신 것이 아니다!

구약에서 “사탄” 또는 “참소자”(BDB 966)는 세 종류의 그룹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1. 인간인 참소자(참조, 삼상 29:4; 삼하 19:22; 왕상 11:14,20,29; 시 109:6)
 2. 천사인 참소자(참조, 민 22:22-23; 욥 1-2 장; 슥 3:1)
 3. 악마적 참소자(참조, 대상 21:1; 왕상 22:21; 슥 13:2)
- 후기인 신구약 중간시대에 이르러서야 창세기 3 장의 뱀을 사탄으로 간주하였다(참조, *지혜서* 2:23-24; *예레미야* 27:31:3). 또한 이러한 개념은 좀 더 후기에 가서야 랍비들의 견해가 되었다(참조, *Sot* 9b 과 *Sanh.* 29a). 창세기 6 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레미야 1 서 54:6 에서 천사들로 해석되었다. 내가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러한 해석이 신학적으로 옳음을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렇게 개념이 발전해 온 모습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신약에서는 이러한 구약의 활동을 의인화된 악, 즉 천사에게로 돌린다(참조, 고전 11:3; 계 12:9).

의인화된 악의 기원을 구약에서 찾는 일은 어렵고 혹은 불가능하다(당신의 견해에 따라 다름). 그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진 강한 유일신 사상 때문이다(참조, 왕상 22:20-22; 전 7:14; 사 45:7; 암 3:6).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웨께 돌려져 야웨의 유일하심과 그의 우월하심을 나타내었다(참조, 사 43:11; 44:6,8,24; 45:5-6,14,18,21,22).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1) 욥 1-2 장, 이곳에서는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하나로 나온다(즉, 천사) 혹은 (2) 이사야 14 장과 에스겔 28 장, 이곳에서는 고대 근동의 교만한 왕들(바벨론과 두로)이 사탄의 교만을 예시하기 위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딤편전 3:6). 나는 이 연구에서 혼합적인 느낌을 갖고 있다. 에스겔은 두로의 왕을 사탄으로 나타내는 것 뿐만 아니라(참조, 겔 18:12-16) 이집트 왕에 대하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보는, 에덴동산의 은유를 사용하고 있다(겔 31 장). 한편 이사야 14 장, 특히 12-14 절은 천사들이 교만함으로 인해 반역을 일으킨 것에 대해 말하는듯이 보인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탄의 명백한 특징과 기원에 대해 알기를 원하셨다면 이 본문을 그러한 것으로 보기에 매우 간접적인

내용이다. 우리는 저자와 책과 장르가 각각 다른 신구약 성경의 어떤 짧고 애매한 본문을 서로 조합하여 하나님과 관련된 퍼즐의 작은 조각을 찾으려는 조직신학적 접근에 대하여 경계를 늦추면 안된다.

나는 랍비적 유대교가 페르시아의 이원론과 사탄적 관점에 의해 깊이 영향을 받았다는 알프레드 에더샤임(*메시아이신 예수의 생애와 시대* 제 2권, 부록 XIII[748-763 쪽]과 XVI[770-776 쪽])의 견해에 동의한다. 이 영역에 있어서 랍비들의 글은 진리에 대한 좋은 자료가 아니다. 예수님은 이 영역에 있어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말씀하셨다. 천사장이 야웨의 적이라는 개념이 이란의 이원론에서 말하는 두 높은 신에서 발전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랍비들은 *아키만*과 *올마저*를 야웨와 사탄에 대한 성경의 이원론으로 발전시켰다.

신약에는 의인화된 악에 대하여 점진적 계시가 분명히 나타나지만 이것은 랍비들이 구성한 내용과 다르다. 이러한 차이점을 나타내는 좋은 예는 “하늘에서의 전쟁”이다. 사탄이 떨어진 것은 논리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지만, 그 상세한 내역은 알려지지 않았다. 알려진 것조차 묵시적 장르에 의해 베일에 가려져 있다(참조, 계 12:4,7,12-13). 비록 사탄이 예수님께 패해 땅으로 쫓겨났지만 사탄은 여전히 야웨의 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참조, 마 4:1; 눅 22:31-32; 고전 5:5; 딤후 1:20).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호기심을 조절해야만 한다. 유혹과 악은 힘을 가진 인격적 존재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 하나님만 계시며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 여전히 책임이 있다. 구원 이전과 이후에 영적 전쟁이 있다. 승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오며 또 그 안에서만 가능하다. 악은 패했고 또 제거될 것이다!

12:4 “그 꼬리가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의 별들”이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종종 가리키기 때문에(참조, 창 15:5; 렘 33:22; 단 12:3), 어떤 이들은 이것이 성도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추측하는데, 문맥상 이것은 천사들을 가리킨다(참조, 단 8:10; 뱀후 2:4; 유 6 절). 땅에 떨어진 천사들(즉, 떨어진 별들)은 묵시 문학의 주요 소재였다(즉, 에녹 1 서).

사탄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들로 읊 1-2 장과 속 3 장에서 묘사된다. 그는 아마도 “덮는 그룹”이었을 것이다(참조, 겔 28:12-18). 에덴 동산의 은유를 사용하는 이 묘사는 두로 왕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 왕의 자랑과 교만함은 사탄을 흉내내는 표현이다(나는 이러한 접근에 아주 많이 불편한데 그 이유는 겔 31 장에서 이집트의 왕을 선과 악의 지식을 아는 나무로 묘사하기 때문이다. 에스겔은 왕들을 에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묘사한다). 구약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사람의 원수로 제시된다(참조, 12:10). 사탄은 피조된 악이 아니라 모든 선하고 거룩한 것의 주된 적이라는 개념으로 발전된 것이다(참조, A. B. 테빗슨의 *구약 신학*, 300-306 쪽). 여러 곳에서 그가 하늘에서 쫓겨났음을 말한다(참조, 사 14:12; 겔 28:16; 눅 10:18; 요 12:31; 계 12:9,12). 언제 그 일이 일어났는가 문제의 핵심이다. 그 일이 일어난 시기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구약의 시기에
 - ㄱ. 인간의 창조 전에
 - ㄴ. 율기 이후에, 그렇지만 겔 28 장 이전에
 - ㄷ. 포로기 중에, 그렇지만 스가랴서 이후에
2. 신약의 시기에
 - ㄱ. 예수께서 시험받으신 후에(참조, 마 4 장)
 - ㄴ. 70 인의 선교여행 중에(참조, 눅 10:18)
 - ㄷ. 반역의 마지막 때에(참조, 계 12:9). 12:7 의 특별주제를 보라.

사람들은 별들의 1/3 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사탄을 따르기로 선택한 천사들’을 가리키는가를 궁금해 한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신약의 귀신이 타락한 천사들과 관련있음을 제시하는 유일한 성경 구절이 될 것이다(참조, 12:9,12). 삼분의 일이라는 수는 어떤 특별한 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의 심판(참조, 8:7-12; 9:15,18)을 통해 제한된 멸망이 있음을 시사하는 표현일 것이다. 혹은 이 수가 사탄이 전투에서 천사의 얼마만큼을 물리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혹은 이 수가 단순히 고대 바벨론의 신화를 반영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 문맥적 통찰의 나향 1 번의 내용을 참조하라.

이 시점에서 이 주제가 흥미로운 것일지라도 ‘이 문맥에서 (1) 귀신의 기원 (2) 사탄의 타락 (3) 하늘에서 천사가 반역함을 논의하는 것’은 저자의 의도가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묵시문학에서 환상의 중심주제는 중요하지만, 이것의 문자적인 제시나 세세한 내용과 이미지는 드라마같고 상징적이고 가공적이다. 우리가 세세하고 논리적이고 교리적인 형태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호기심과 성경에 대한 존중심 때문이다. 세세한 내역에 답을 강요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묵시문학은 종종 상상적인 형태 안에서 참된 신학을 제시한다. 이것은 참된 것이지만, 상징적으로 제시된다!

▣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아이는 약속된 메시아를 가리킨다(참조, 12:5). 사탄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좌절시키기 원한다—그것이 우주적인 구속 계획(무조건적인 언약)이든 개인에 대한 구속계획(조건적인 언약, 참조, 마 13:19; 고후 4:4)이든.

12:5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것은 사 66:7-8 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 요한이 예수의 성육신에서 종말론적인 통치로 어떻게 옮겨 가는지를 주목하라. 그 사이에 들어 있는 모든 내용은 요한의 복음서이지 계시록이 아니다.

▣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것은 시 2:9 에 대한 암시로서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다. 계 19:15 에서는 이 구가 메시아에게 대하여 사용되었고 계 2:26-27 에서는 성도들에게 사용되었다. 여기에 메시아(개인)와 믿는 공동체(집합적) 사이에 유동성이 나타난다. 그 유동성은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에서도 그러하다(즉, 국가인 이스라엘, 참조, 사 42:1-9,19; 49:1-7; 50:4-11; 52:13-53:12). 악한 자가 이제 민족들을 다스리듯이, 새 지도자가 와서 어느 날 완전하게 통치할 것이다.

▣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어떤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천을 가리킨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이 역사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암시라고 너무 강조한다면, 우리는 이 문학적 단위의 핵심을 놓치게 된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예수의 지상 생애나 죽으심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성육신에서 승귀하심으로 건너 뛴다. 계시록의 초점은 영광스럽게 되시고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께 놓여 있다(참조, 1:4-20). 요한이 계시록에서 제시하는 복음은 회개 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중심적 역할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참조, 5:9,12; 7:14; 12:11), 영원한 왕국(참조, 고전 15:25-28) 곧 성부와 성자의 왕국을 그가 가져오심에 초점을 두기 위함이다!

12:6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많은 이들이 여기서 출애굽에 대한 암시를 발견한다. 이 암시는 이 문맥에 두루 나온다. 광야방랑 시기를 랍비들은 야웨와 이스라엘이 정혼한 기간으로 이해했다. 그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따라 공급하셨고 또 그들과 친밀히 함께 하셨다.

▣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비록 일반적 문맥이 광야방랑 시기를 반영하지만 이 구는 다른 역사적 암시를 나타낸다.

1. 그릿 시냇가의 엘리야(참조, 왕상 17:1-7)
2. 엘리야가 시내 반도로 도망함(참조, 왕상 19:1-14)
3. 신실한 칠천 명(참조, 왕상 19:18)
4. 주후 70 년에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시 도망한 사람들(참조, 마 24:15-20; 막 13:12-18)

▣ “천이백육십 일 동안” 이것은 다시금 고정되지는 않았지만 제한적인 박해의 기간을 나타낸다. 이 기간은 여러 면에서 삼년 반과 같은 기간이다.

1. “한 때, 한 때, 반 때”(참조, 단 7:25; 12:7; 계 12:14)
2. “2,300 저녁과 아침”(단 8:14)
3. “마흔 두 달”(참조, 계 11:2; 13:5); “1,260 일”(참조, 계 11:3; 12:6); “1,290 일(참조, 단 12:11); “1,335 일”(단 12:12).

칠은 히브리인의 수 개념에서 완전수이다(참조, 창 1:1-2:3). 칠에서 하나가 적은 수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나타내며 666(참조, 계 13:17-18)은 철저히 불완전한 사람 곧 적그리스도를 뜻한다(참조, 살후 2 장).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삼년 반은 상징적으로 제한된 기간으로서 고정되지 않은 길이의 박해기간을 나타낸다. 11:2 의 특별주제: 마흔 두 달을 보라.

개역개정 12:7-10a

⁷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⁸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⁹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¹⁰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12: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특별주제: 하늘에서의 전쟁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눅 10:18 과 요 12:31 에서 언급하셨다. 그러나 이 사건을 시대적 순서를 따라 제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1. 창 1:1 이전에 (창조 이전)
2. 창 1:1 과 1:2 사이에 (간격 이론)
3. 구약에서 욥 1-2 장 이후에 (사탄이 하늘에 있음)
4. 구약에서 왕상 22:21 이후에 (사탄이 하늘의 법정)에 있음)
5. 구약에서 슥 3 장 이후에 (사탄이 하늘에 있음)

6. 구약에서 사 14:12; 겔 28:15 및 예눅 2 서 29:4-5 (동방의 왕이 정죄받음)
7. 신약에서 예수님의 시험 이후에 (참조, 마 4 장)
8. 신약에서 70 인의 선교 사역 중에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짐을 봄, 참조, 눅 10:18)
9. 신약에서 예수님의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쫓겨남, 참조, 요 12:31)
10. 신약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참조, 엠 4:8; 골 2:15)
11. 마지막 때에 (참조, 계 12:7, 아마도 사탄이 아이를 찾기 위해 천국을 공격함)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하나님과 악한 자의 우두머리 사이의 영원한 싸움으로 보아야 한다; 이 갈등이 계속되다가 마침내 용과 그의 무리가 완전히 패하는 것으로 마치게 된다. 계 20 장에서 그들이 제거되고 격리된다!

▣ **“미가엘”** 성경에서 이름을 말한 천사는 단 두 명 뿐이다(즉, 미가엘, 가브리엘). 이 천사는 단 10:13,21; 12:1 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지키는 천사로 말해진다. 그는 유 9 절에서 천사장으로 불린다. 그의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이다. 어떤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러한 견해는 너무 멀리 간 생각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반역에 의해 결코 위협을 받지 않으신다. 성경은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처럼 이원론을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한 천사(사실상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말한다)를 사용하사 악한 자를 물리치신다. 법적인 표현에 의하면 미가엘은 변호사이고 사단은 검사이며 야웨께서는 재판장이시다! 미가엘은 다음 사항에 의해 소송에 이긴다

1.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참조, 12:16)
2. 교회의 충성스러운 증거(참조, 12:11b)
3. 교회의 인내(참조, 12:11c)

▣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정확히 누가 사탄의 천사들인가를 성경에서 찾기가 쉽다. 많은 수가 귀신일 것이다(참조, 마 25:41; 엠 6:10 이하). 그러나 탈라루스에서는 천사에 관한 성가신 질문이 항상 제기 되었다(참조, 뱀후 2:4).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주관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명백히 악한 천사들이다’라고 계 9:14 에서 이 천사들에 대해 언급한다. 천사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대부분에 대해 성경은 설명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참조, 단 10 장).

구약의 타락한 천사들과 신약의 귀신들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된다. 성경은 이 주제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창 6:1-4 에서 절반이 천사이며 절반이 인간의 자손인 자들이 ‘다시 거할 인간의 몸을 찾고 있는 신약의 귀신들’이라고 신구약 중간시대의 묵시문학(특히 예눅 1 서)에서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추측일 뿐이다. 이 자료는 이 주제에 관하여 1 세기 유대인들이 가진 일부분의 생각을 제시하는 것 뿐이다.

부정과거 부정사가 이 문맥에 들어맞지 않는다. 이것은 아마도 썬족어의 특징으로서 “싸워야만 했다”로 번역되어야 한다(참조, 알란 존슨, *엑스포지티브 성경 주석*, 제 12 권, “계시록,” 519 쪽의 각주 7 번. 이 책은 내가 계시록에 대한 주석으로서 좋아하는 책이다).

12:8 이것은 박해받는 교회에 주시는 여러 격려의 말씀 가운데 처음 것이다. 8 절, 11 절, 14 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위로를 준다. 그들은 1 세기 및 각 세대에서 지속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었다. 사탄은 이미 두 번이나 패했다: 한 번은 그 아기를 죽이려는 시도에서(참조, 4 절) 패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를 공격하려는 시도에 있어서(참조, 7-9 절) 패했다; 그는 또한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쓸어 버리려는 시도에 있어서 패하게 될 것이다.

▣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것은 사탄이 한 때 하늘에 있었음을 내포한다(참조, 욥 1-2 장; 숙 3 장; 왕상 22:21). 여기에 사용된 **복수형 인칭대명사**를 주목하라. 이것은 다른 천사들이 사탄과 연계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12:9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 절과 계 20:2(참조, 솔로몬의 지혜서 2:24)은 사탄을 창 3 장에 나오는 뱀과 명백히 같은 존재로 보는 특별한 본문이다. 이 내용이 고후 11:3 에서 암시된다. “마귀”라는 용어는 “참소자”를 뜻하는 헬라어이고, “사탄”은 “반대자”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이다(참조, 삼하 19:22; 왕상 11:14). 이들은 악한 자가 형제들을 고소하는 기능을 함을 강조하여 나타낸다(참조, 10 절). 구약에서 “사탄”이라는 용어(12:3 의 특별주제를 보라)는 일반적 명사가 아니다. 이것은 세 곳에서 사용되었다: (1) 욥 1-2 장 (2) 숙 3:1-3 (3) 대상 21:1. “내 쫓기니”에 대하여는 12:4,7 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

특별주제: 개인적 악

이것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다루기가 매우 어려운 주제이다:

1. 구약은 선에 대항하는 주요한 원수가 아니라, 인간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를 제공하며 사람들의 불의함을 고발하는 야웨의 중에 대해 말한다.

2. 하나님께 대항하는 옛 원수의 개념은 신구약 중간시대(정경이 아닌)의 글에서 페르시아 종교(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 발전했다. 이러한 사상은 이어서 랍비적 유대교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3. 신약은 구약의 주제들을 놀랍도록 뚜렷하면서도 선택적으로 또 관련된 항목별로 발전시켰다.

만일 누가 악의 문제를 성경신학의 관점(각 책 또는 저자별, 장르별로 연구하고 개요를 구별하는)에서 접근한다면, 매우 상이한 견해들을 얻게 된다.

그러나 만일 성경이외의 자료를 가지고 악에 대해 연구하거나 세계종교에 대한 성경이외의 자료나 동방종교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신약의 많은 부분이 페르시아의 이원론과 그리스-로마의 강신술로 설명됨을 발견하게 된다.

만일 우리가 성경의 신적 권위를 받아들인다면, 신약성경에 나타난 개념의 발전을 반드시 점진적인 계시로 이해해야만 한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유대인의 민속전승이나 서양문학(즉, 단테, 밀톤)이 이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경계해야 한다. 계시에는 어느 정도 신비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에 대해, 악의 기원에 대해, 악의 목적에 대해 모든 면을 다 알도록 하지 않으셨으나, 그는 악의 패배를 계시하셨다!

구약에서 사탄 혹은 고발자는 세 가지 종류로 사용된 것 같다

1. 사람인 고발자(삼상 29:4; 삼하 19:22; 왕상 11:14,23,25; 시 109:6)
2. 천사인 고발자(민 22:22-23; 숙 3:1)
3. 악령인 고발자(대상 21:1; 왕상 22:21; 숙 13:2)

신구약 중간시대에 이르러서야 창 3 장의 뱀이 사탄으로 알려졌다(지혜서 2:23-24; 예녹 2 서 31:3),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러한 해석은 랍비들의 주장이 되었다(참조, *Sot* 9b and *Sanh.* 29a). 창 6 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녹 1 서 54:6 에서 천사로 이해되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러한 신학적인 해석의 정확성에 대해 거론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발전되어 온 것임을 드러내려는 이유에서다. 신약은 이러한 구약의 활동을 천사로 의인화된 악(즉, 사탄)으로 묘사한다(고후 11:3; 계 12:9).

의인화된 악의 기원을 구약에서 찾는 것은 어렵고 불가능하다(당신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 이유의 하나는 이스라엘의 강한 유일신 사상때문이다(참조, 왕상 22:20-22; 겔 7:14; 사 45:7; 암 3:6). 모든 것의 원인은 야웨에게로 돌려져 그의 유일하심과 주권을 나타내고 있다(참조, 사 43:11; 44:6,8,24; 45:5-6,14,18,21,22).

가능한 자료인 (1) 욥 1-2 장에서는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즉, 천사) 중 하나로 나온다 (2) 사 14; 겔 28 장에서는 사탄의 자궁심에 비유된 근동 왕들(바벨론과 두로)의 교만이 나온다(참조, 답전 3:6). 나는 이러한 접근에 대해 교차되는 느낌을 갖는다. 에스겔은 두로왕을 사탄으로써 표현하고(참조, 겔 28:12-16) 이집트왕을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에 비유함(겔 31 장)으로써 에덴동산의 비유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사야 14 장 특히 12-14 절은 교만으로 일어난 천사의 반란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탄의 특별한 정체와 기원에 대해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다면 이 간접적인 본문은 그것을 다루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신구약의 명확하지 않은 부분, 혹은 각각 다른 저자, 다른 책, 다른 장르에서 취한 부분적인 내용을 가지고 신적인 퍼즐의 조각으로 재구성하려는 조직신학적 경향에 대해 경계해야만 한다.

알프레드 에더샤임은 그의 책 *메시아이신 예수의 생애와 시간* 제 2 권의 부록 XIII (748-763 쪽)과 XVI (770-776 쪽)에서 랍비들의 유대교는 페르시아의 이원론과 추론적인 귀신론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다. 랍비들의 저술은 이 부분에서 유용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회당의 가르침과 달랐다. 시나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는 일에 있어서 천사의 중재적인 역할과 반대적 역할에 대한 랍비적인 관념은 야웨와 인간의 적으로 나타나는 천사장의 개념을 갖도록 문을 열어놓았다고 나는 생각한다. 페르시아의 이원론에는 두 높은 신들이 *아키만과 오마자* 즉 선과 악이 나온다. 이 이원론은 유대교에서 야웨와 사탄과의 이원론으로 발전되었다.

신약에는 악의 발전에 대하여 점진적인 계시가 분명히 나타나 있다. 하지만 랍비들의 저술이 말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의 좋은 예는 “하늘에서의 전쟁”이다. 사탄이 떨어진 것은 논리적으로 필요한 내용이지만, 그 구체적인 사상은 알려지지 않았다. 기록된 내용마저도 묵시적 장르로 가려져 있다(참조, 계 12:4,7,12-13). 비록 사탄이 패하여 땅으로 쫓겨났지만, 그는 아직 야웨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한다(참조, 마 4:1; 눅 22:31-32; 고전 5:5; 답전 1:20).

우리는 이 영역에서 우리의 호기심을 제어해야만 한다. 시험을 하고 악한 힘을 나타내는 존재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다. 구원 이전과 이후에 각각 영적 전쟁이 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함을 통해 또 그분을 통해서만 승리가 온다. 악은 패배하였고 또 제거될 것이다!

▣ “은 천하를 피는 자라” 이것은 악한 자의 목적에 대해 말한다. 복음이 전 세계에 대한 것이듯이(참조, 마 28:18-20; 눅 24:47; 행 1:8) 복음이 아닌 것도 그러하다! 성경에서 사탄이 어떻게 종에서 적으로 바뀌었는가에 대하여 내가 읽은 책 가운데 가장 좋은 책은 A. B. 데빗슨의 *구약 신학*(300-306 쪽)이다. 사탄의 목적에 대해 고후 4:4; 뱀전 5:8; 계 13:14; 19:20; 20:3,8,10; 요이 7 절이 설명한다. 사탄을 하나님의 종으로 보기는 어렵다. 삼하 24:1 을 대상 21:1 과 비교하라.

▣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이 문맥에서 “내쫓기다”가 여러 번 나온다: 9 절에서 두 번, 10 절과 13 절에서 한 번씩. 이 표현은 19:20; 20:2,10,14,15 에서도 사용되었는데, 아마 사 14:12 혹은 눅 10:18; 요 12:31 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

땅이 사탄이 활동하는 장소가 되었다. 사탄의 타락에 대하여 12:4,7 에서 한 자세한 설명을 보라.

개역개정 12:10b-12

¹⁰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¹¹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¹²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12:10b-12 이것은 하늘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자의 메시지이다.

12:10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것은 문자적으로 11:15-18 과 똑 같은 내용이다. 마지막이 이미 제시되며,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이 내용은 극도의 박해 혹은 죽음을 당하는 신자들의 무리에게 매우 도움이 된다.

▣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것은 10 절이 천사의 소리가 아니라 신자들 아마도 6:9-11 에 있는 순교자들의 말임을 나타낸다.

사탄이라는 히브리어는 “참소자”를 뜻한다. 우리는 사탄의 이러한 역할을 욥 1:9-11 및 슥 3:1 에서 본다.

▣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소한다. 이 점은 이 장르가 가진 유희성을 나타낸다. 그의 권세가 깨졌지만 그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하지만 하나님께 의해 제한당한다, 참조, 욥 1-2 장).

12:11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하나님의 메시아께서 행하신 대속적인 속죄를 인하여 승리가 이미 이루어졌다(참조, 1:5; 7:14; 뱀전 1:18-19; 요일 1:7). 이 속죄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적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참조, 마 10:45; 고후 5:21)
2. 신자들이 믿음으로써 응답하여야 하며(참조, 6:9; 막 1:15; 요 1:12; 3:16; 행 3:16,19; 20:21) 믿음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야함(즉, 생활양식과 언어생활)

이 구는 14:12 과 상당히 비슷하다. 11 절과 17 절 사이에 커다란 유사점이 있다. 11 절은 구원에 대하여 말하고, 17 절은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인내에 대해 말한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천년왕국의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주목하라.

▣

NASB	“그리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NKJV	“그리고 그들은 죽음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NRSV	“그들이 죽음에 직면하면서도 생명을 붙들지 아니 하였기에”
TEV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버리고 죽기를 원하고 있었도다”
NJB	“왜냐하면 죽음에 직면하면서도 그들이 생명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로다”

일세기의 신자들과 그들의 가족은 무서운 죽음에 직면하고 있었다(각 세대에서도 많은 이들이 그러하다). 그들이 하나님께 인침과 보호하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신자들로부터 오는 박해를 받았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강하였다(참조, 2:10; 막 8:35; 13:13; 눅 14:26; 요 12:25).

12:12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것은 현재 중간태 명령이다(참조, 18:20). 이것은 시 96:11 혹은 사 49:13 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 하늘이 즐거워하는데 그 이유는 사탄이 쫓겨났기 때문이다. 땅에 화가 임할 것이다!

구약에서는 “하늘”이 복수형으로 되어 (1) 땅 위에 있는 대기권(참조, 창 1 장)과 (2)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를 나타낸다. 이 문맥에서는 2 항의 설명이 적합하다.

“거하다”(NASB, NKJV, NRSV) 혹은 “거기에 살다”(TEV, NJB)는 “회막”이라는 명사에서 왔다. 이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함을 내포한다(참조, 7:15; 12:12; 13:6; 21:3; 요 1:14 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

▣ “화” 7:14 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

▣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천(참조, 행 1:9-11)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가리킨다. 요한과 1 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간이 짧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기간은 이제 거의 2,000 년이 되었다;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언제라도 주께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신자들은 이 날이 지연되고 있음에 대해 데살로니가후서와 마 24:45-51 을 통해 경고받는다. 이 지연이 믿음을 경감시키지 않도록 조심하라(참조, 벵후 3:3-4).

특별주제: 언제라도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과 아직은 아닌 재림 (신약의 역설)

- 가. 신약의 종말론적 본문은 구약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구약의 예언적 통찰을 반영한다.
- 나. 마 24 장, 막 13 장, 눅 21 장은 여러 질문을 동시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에 매우 어렵다.
 - 1. 언제 성전이 파괴될 것인가?
 - 2.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징조는 무엇인가?
 - 3. 세상의 끝은 언제인가(참조, 마 24:3)?
- 다. 신약의 종말론적 본문에 대한 문학 형태는 묵시 문학과 예언적 언어의 결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언어는 의도적으로 모호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당히 상징적이다.
- 라. 신약의 여러 본문(참조, 마 24 장, 막 13 장, 눅 17, 21 장, 데살로니가 전후서, 계시록)은 재림에 대해 다룬다.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 1. 사건의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그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 2. 우리는 일반적인 때를 알 수 있지만 사건이 일어날 정확한 시간은 모른다
 - 3. 그 사건은 갑자기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일어날 것이다
 - 4.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고 맡겨진 일에 충실해야만 한다
- 마. 두 가지 일 사이에 신학적으로 역설적인 긴장이 있다. 곧
 - 1. 언제라도 일어날 재림(참조, 24:27,44)과
 - 2. 역사에서 어떤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사실
- 바. 신약은 재림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진술한다:
 - 1.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참조, 24:14; 막 13:10)
 - 2. 큰 배교(참조, 24:10-13,21; 딤후 4:1; 딤후 3:1 이하; 살후 2:3)
 - 3. “불법의 사람”이 나타남(참조, 단 7:23-26; 9:24-27; 살후 2:3)
 - 4. 막는 것/막는 자의 옮겨짐(참조, 살후 2:6-7)
 - 5. 유대인의 회복(슌 12:10; 롬 11 장)
- 사. 눅 17:26-37 은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이다. 마 24:37-44 에 있는 내용은 다른 공관복음의 내용과 부분적 평행을 이룬다.

개역개정 12:13-17

¹³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¹⁴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으며 ¹⁵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 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¹⁶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¹⁷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12:13 “여자” “여자”는 원래 믿는 구약의 공동체를 가리킬 것이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신약 백성을 가리킨다(참조, 17 절; 13:7). A. T. 로벳슨은 *신약의 워드픽처*, 제 6 권에서 이 여자를 “땅에 있는 참 이스라엘”로 부른다(395 쪽).

12:14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 독수리의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상징한다(참조, 출 19:4; 신 32:11; 시 36:7; 57:1; 63:7; 90:1,4; 사 40:31). 이것은 새 출애굽에 대한 또 하나의 암시일 것이다.

▣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광야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장소를 가리킨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광야 방랑 시기를 암시한다(참조, 6 절). 이 내용은 고통받는 교회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것은 단 7:25; 12:7 에 대한 암시이다 이 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11:2; 12:6 에서 보라.

12:5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 같이 토하여” 구약에서 이것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것은 호 5:10 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노 혹은 시 18:4; 124:4-5 에 있듯이 어려움과 슬픔에 대한 은유적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12 장이 고대 근동의 창조신화에서 상당히 많은 표현을 갖다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이 표현은 물과 관련된 혼란 즉 선 대 약, 질서 대 혼란 사이의 태고적 갈등을 나타내는 표현일 수 있다.

‘자연’이 바락과 드보라를 위해 싸웠다. 그들은 가나안의 도시인 하솔 및 그 군대 장관 시스라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었다: (1) 비가 그들의 병거를 멈추어 세웠다(참조, 사 5:4) (2) 별들(천사들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된)도 시스라에 대항하여 싸웠다(참조, 사 5:20).

12:17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고” 악한 자가 다음과 같이 메시아의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꾀한다

1. 메시아를 멸망시킴으로써
2. 모교회를 멸망시킴으로써
3. 메시아를 따르는 모든 자를 멸망시킴으로써

“싸우려고”는 영적, 정치적, 경제적 반대를 뜻한다. 이것은 단 7:21 에 대한 암시이다(참조, 11:7; 13:7). 박해는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승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된다(참조, 빌 1:28).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일곱째 나팔의 내용을 설명하라.
2. 왜 언약궤에 대한 환상이 1 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격려를 주었는가?
3. 12 장에 나오는 여자는 누구인가?
4. 하늘에서의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가?
5. 마귀의 천사들과 귀신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6. “한 때, 한 때, 반 때”라는 구가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7. 이 메시지가 박해받는 1 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위로하였는가?

계시록 13:1-18 에 대한 문맥적 통찰

- 가. 13 장은 12:13-17 에 나오는 환상의 자세한 내용이다.
- 나. 이 장의 배경을 이루는 구약의 본문은 단 7 장이다.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근동의 네 제국은 하나의 왕국 곧 전세계적이며 하나님께 대항하는 최종적인 왕국으로 합쳐진다.
- 다. 1 세기의 황제숭배(특히, 소아시아에서)는 짐승을 예배하는 일에 대한 역사적 성취의 한 가지 예이다. 이 일은 마지막 때에 인간이 범하는 죄가 될 것이며(참조, 데살로니가 후서). 단 7 장(참조, 8,11,20,25)에 나오는 작은 뿔은 네번째 왕국인 로마에서 나온다.
- 라. 짐승이 두 가지로 이해된다
 1. 계속해서 나오는 거짓 가르침/교사(들) (참조, 요일 2:18,22; 4:3; 요이 7 절). 이것은 **복수형과 단수형**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형과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
 2. 역사상 나타난 악한 사람들과 비슷한 실제 인물일 것이다(안티오쿠스, 로마의 황제들, 히틀러 등, 그러나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사람에 대한 의인화임, 참조, 살후 2:1-10).
- 마.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인간 정부

- I. 서론
 - 가. 정의 - 정부는 인간이 육신적 필요를 공급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간 스스로 만든 인간의 기구이다.
 - 나. 목적 - 하나님은 무정부 상태보다 질서가 있는 것을 원하셨다.

1. 모세의 율법 특히 십계명은 인간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예배와 삶에 균형을 가져다 준다.
2. 비록 고대 이스라엘의 신정정치는 하늘의 본을 기대하는 것이었지만, 성경은 정부의 어떤 형태나 구조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도 자본주의도 성경적 진리는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떤 정부 체계에 살고 있는지 적합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혁명이 아니라 전도와 사역이다.

다. 인간 정부의 기원

1. 로마 천주교는 인간의 정부가 타락 이전부터 갖고 있는 내재적인 필요라고 주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그는 말했고, 이 말의 의미는 정부가 “선한 삶을 증진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았다.
2. 개신교 특히 마틴 루터는 인간 정부가 타락에 따른 것으로 주장했다.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왕국의 원 편”에 있는 것으로 불렀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다루시는 방법은 악한 자가 주장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3. 칼 맑스는 소수의 엘리트가 대중을 주장하는 것이 정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종교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II. 성경의 자료

가. 구약

1. 이스라엘은 천국에 있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모본이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야웨는 왕이셨다. 신정정치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참조, 삼상 8:4-9).
2.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에 대해 주권을 갖고 계신 것은 다음 성경 구절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 ㄱ. 예레미야 27:6; 에스라 1:1
 - ㄴ. 역대하 36:22
 - ㄷ. 이사야 44:28
 - ㄹ. 다니엘 2:21
 - ㅁ. 다니엘 2:44
 - ㅂ. 다니엘 4:17, 25
 - ㅅ. 다니엘 5:28
3. 하나님의 백성은 심지어 침략하고 정복하는 정부라도 복종하고 존중해야 한다:
 - ㄱ. 다니엘 1-4 장, 느부갓네살
 - ㄴ. 다니엘 5 장, 벨사살
 - ㄷ. 다니엘 6 장, 다리오
 - ㄹ. 에스라와 느헤미야
4. 하나님의 백성은 국가의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 ㄱ. 예레미야, 28:7
 - ㄴ. 미스나, 아봇 3:2

나. 신약

1. 예수님은 인간 정부를 존중하셨다
 - ㄱ. 마태복음 17:24-27; 성전세를 내심
 - ㄴ. 마태복음 22:15-22,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 옹호하심으로 로마 정부의 권위를 존중하심
 - ㄷ. 요한복음 19:11, 하나님께서 공공의 권위를 주신다
2. 바울이 인간 정부에 대해 말한 것
 - ㄱ. 로마서 13:1-7, 신자는 정부의 지도자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 ㄴ. 디모테전서 2:1-3, 신자는 정부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 ㄷ. 디도서 3:1, 신자는 정부의 지도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3. 베드로가 인간 정부에 대해 말한 것
 - ㄱ. 행 4:1-31; 5:29, 산헤드린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이것은 정부에 대한 불순종을 나타낸다)
 - ㄴ. 베드로전서 2:13-17, 신자는 정부의 지도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4. 요한이 인간 정부에 대해 말한 것
 - ㄱ. 요한계시록 17 장,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께 적대적인 인간 정부를 나타냄
 - ㄴ. 요한계시록 18 장, 음녀 바벨론이 멸망당함

III. 결론

- 가. 인간 정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이것은 “왕권 신수설”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정부의 역할을 말한다. 정부의 어떤 형태가 다른 형태보다 더 낫다고 주장해서는 안된다.
- 나. 정부의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적절히 나타내는 것은 신자의 종교적 의무이다.

- 다. 신자가 세금과 기도로 인간 정부를 지원하는 것은 적합하다.
- 라. 인간 정부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있다. 그들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들이다.
- 마. 인간 정부는 궁극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제한적인 권위를 갖는다. 인간 정부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범위를 벗어날 때, 신자는 자신의 양심을 위해 이러한 정부의 권위를 거부해야만 한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주장하듯이, 우리는 두 영역인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시민이다. 우리가 양 쪽에 책임을 가지지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최종적인 것이다! 우리는 개인적 영역과 공동체적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해 책임있는 삶을 산다.
- 바. 우리는 민주적인 체제 안에서 신자들이 행정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가능하다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실행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 사. 사회적 변화는 반드시 개인의 회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에는 참되며 영속적이고 종말론적 희망이 없다. 인간의 모든 정부는 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이고 또 사용하시는 도구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인간 조직의 최악된 표현이다. 이러한 개념은 요한의 글에서 “세상”에 드러나 있다.

개역개정 13:1-6

¹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²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³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⁴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⁵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⁶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13:1 “용이 ... 바다 모래 위에서 있더라” NASB, NKJV, NJB 는 13 장을 이 구로 시작한다(즉, 12:18), 한편, TEV(및 개역개정)는 12 장을 이 구로 결론짓는다.

12:18/13:1 에 있는 “서 있다”라는 동사와 관련하여 사본적 변이가 나타나고 있다

1. “그가 서 있다”는 12 장과의 연관에서 짐승/용을 가리킨다—사본 P⁴⁷, **κ**, A, C (NASB, NRSV, TEV, REB, NET, NIV)
2. “내가 서 있다”는 13 장과의 연관에서 요한을 가리킨다—사본 P, 046,051 (NKJV, NJB)

UBS⁴ 의 본문 비평 위원회는 1 항에 “B”등급(거의 확실함)을 주고 있다.

“바다”는 단 7:2-3 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 이것은 다음에 대한 상징이었다

1. 전 인류(참조, 사 17:12-13; 57:20; 계 17:15)
2. 혼란의 힘(참조, 창 1 장; 사 51:9-10).

▣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참조, 13:14,15; 15:2; 16:13; 15:8)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자로서(참조, 17:8) 화려하지 않게 11:7 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이것은 요일 2:18a,22; 4:3; 요이 7 절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및 살후 2:3 에 나오는 “무법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짐승에 대한 같은 내용의 묘사가 12:3 과 17:3,8 에 있다.

“바다에서 나오는”이라는 구는 여러 가지로 해석되었다.

1. 문자적으로는 신구약 중간시기의 유대인의 묵시문학에서 보듯이 리위야단과 11 절에 나오는 베헤못을 뜻한다
2. 단 7 장에 대한 암시이다. 3 절에서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 오고 17 절에서는 땅에서 나온다. 두 가지가 다니엘서 7 장에서는 동의어적인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요한은 마지막 짐승을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악한 사람’을 나타내는 두 인물로 분리시켜 제시한다: 바다 짐승(1 절)과 땅의 짐승(11 절)
3. 타락한 인류의 상징(참조, 특히 계 17:15; 또한 단 7:2-3; 사 17:12-13; 57:20)

13 장의 두 짐승이 바다와 땅에서 나오는 이유는 (1) 이 장이 단 7 장을 매우 밀접하게 따르고 있기 때문이거나 (2) 그들이 함께 지구 전체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두 짐승이 사탄과 더불어 악한 세력의 삼위일체를 형성한다.

▣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이것은 용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참조, 12:3) 용과 매우 비슷하다(참조, 17:3,7-12). 열 뿔은 완전한 세력을 말하고, 일곱 머리는 악을 완벽히 드러냄을 말하고, 열 왕관은 왕임을 주장한다. 악은 종종 선의 반대쪽에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여러 풍자 가운데 처음 것이다.

▣ **“신성 모독 하는 이름들”** 헬라 사본에서는 복수형(사본 A)인 “이름들”(NRSV, NJB)과 단수형(사본 P⁴⁷, **κ**, C, P)인 “이름”(NKJV, TEV)을 지지하는 비중이 대등하게 나타난다. UBS⁴ 는 어느 것이 원래의 본문에 속하는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어느 쪽이 원래의 것이든 간에, 이것은 단 7:8,11,20,25; 11:36 에 대한 암시임이 분명하다. 신성 모독 하는 이름은 (1)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함 혹은 (2) 악한 이름(참조, 17:3)을 가리킨다.

13:2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 . . 곰 . . . 사자” 이 여러 짐승에 대한 언급은 단 7:4,5,6 에 대한 암시이다. 거기서는 여러 왕들에 대해 말하지만, 여기서는 상징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모든 조직을 한 사람으로 의인화시켜 제시하고 있다(참조, 단 7:24).

▣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것은 사탄에 의해 조종을 받는 권세에 대해 말하는 본문인 살후 2:9 과 평행을 이룬다. 짐승이 사탄은 아니다. 짐승은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의 출현 또는 사탄이 육신을 입고 나타난 것을 뜻한다(참조, 4,12 절). 이것도 그리스도를 흉내낸 경우에 속한다(참조, 5:6).

13:3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것은 완료 수동 분사로서, 구문적으로 볼 때 5:6 에 나오는 어린 양과 평행을 이룬다. 이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흉내낸 것이다.

▣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사탄이 이 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가? 아니면 이것은 단지 속임수와 눈속임과 흉내내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가(참조, 13:15)? 사탄은 그리스도를 일으킨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것은 “네로가 다시 삶”의 신화 즉 네로가 다시 살아나 동방의 큰 군대(팔티안)를 이끌고 와서 로마를 공격한다는 내용에 대한 암시이다(참조, 시빌린의 신탁, 3 권-4 권).

▣ “은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사탄은 믿지 않는 세계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게 확신시키려고 기적을 사용할 것이다(참조, 마 24:24; 막 13:22; 살후 2:9; 계 13:5; 17:8). 이것은 그리스도를 흉내낸 경우에 속한다. 세상이 계 11:13 에 있는 두 증인의 능력에 의해 감명을 받았다; 이제 그들이 짐승을 예배함을 통하여 그들의 번덕스러움을 본다.

13:4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악은 정치적 권력 뿐 아니라 종교적인 숭배도 받기를 원한다(참조, 8 절). 사탄은 예배를 원한다(참조, 13:12; 14:9,11; 16:2; 19:20; 마 4:8-9). 그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참조, 아마도 사 14:12-15). 의미적으로 이것은 뱀이 창 3:5 에서 한 말과 마 4:9; 눅 4:5-7 에서 한 말과 관련을 가진다.

▣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 구의 기원에 대하여 세 가지 견해가 제시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야웨의 칭호와 관련된 흉내, 출 15:11; 시 35:10; 113:4
2. 야웨를 흉내냄, 사 40:18-22; 43:11; 44:6,8,9-20; 45:6
3. 유대인의 묵시문학에 나오는 리위야단과 베헤못에 대한 언급(구약에서의 한 가지 예는 욥 41 장, 특히 33-34 절)

13:5 5-7 절 및 14-15 절에서 여러 수동태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그러한 허락이 사탄에 의해 이루어졌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참조, 욥).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사용하사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다! 악은 말과 행위로써 자신의 동기를 드러낸다.

▣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이것은 다음에 대한 암시이다:

1. “짐승,” 단 7:8,11,20,25; 11:36
2. 안티오쿠스 IV 에피파네스, 단 8 장 마카비 1 서 1:24
3. “죄의 사람,” 살후 2:4
4. “멸망의 가증한 것,” 마 24:15, 이 본문은 후에 황제가 된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 주후 70 년에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아 멸망한 일을 가리킨다

이 상징들의 역사적 초점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좋은 예이다. 다니엘 8 장에서 이것은 친구약 중간시대의 안티오쿠스 IV 에피파네스를 가리킨다; 마 24 에서 이것은 주후 70 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킨다; 다니엘 7 장(아마 11:36-39 도)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 “마흔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이것은 단 7:25 에 대한 직접적인 암시이다. 이것은 처음에 11:2-3 에서 언급되었다. 이것은 박해의 기간을 뜻하는 은유적 표현이다. 11:2 의 특별주제와 12:6 의 설명을 보라.

13:6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이 절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중 혹은 삼중적인 신성모독이 나온다. 그 수는 우리가 이 헬라이어 구를 어떻게 번역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개역개정 13:7-10

⁷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⁸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⁹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¹⁰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3:7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 . .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 직설법과 부정과거 능동 부정사이다. 수동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게 허락하셨음을 나타낸다. 우리는 이 일의 배경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분명히 나타낸다.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이 전쟁은 단 7:21,25 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육체의 죽음을 당하는 일을 가리킨다. 원수가 이기는 것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갈보리 사건과 같이), 계시록과 다니엘서는 이러한 승리가 일시적인 것임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게 보호하신다. 하지만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로부터 오는 화로부터는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심을 주목하라. 하나님은 악의 참된 의도와 속성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악에게 일시적인 승리를 허용하신다.

▣ “성도들” 5:8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또 권세를 받아 . . .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구는 (1) 계시록을 로마 제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해석하여야 함을 나타낸다. 그 이유는 이 구가 우주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또한 (2) 이것이 제국 전체에 걸쳐 일어나는 사건을 가리킴을 나타낸다.

13:8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이것은 불신자들에 대한 내용으로서 계시록에서 반복되는 구이다(참조, 3:10; 6:10; 8:13; 11:10; 13:8,12,14; 17:8).

▣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창세 이후로”라는 구가 (1) “기록된 우리의 이름”(참조, RSV, NRSV, TEV, NJB 와 17:8; 엡 1:4)에 대한 것인지 혹은 (2) “죽임을 당한 어린 양”(참조, KJV, NKJV 와 벰전 1:19-20)에 대한 것인지 문맥적으로 분명치 않다. 이 본문과 17:8 의 단어 순서는 이 구가 창세 전에 생명 책에 신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나타낸다!

“창세 전에”는 신약에서 여러 번 사용된 구이다(참조, 마 25:34; 요 17:24; 엡 1:4; 벰전 1:19-20). 이와 상당히 비슷한 구가 마 13:35; 눅 11:50; 히 4:3; 9:26; 계 17:8 에도 나온다. 이 구의 조합은 하나님의 구속적 행위가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있었음을 나타낸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참조, 7:4; 11:1; 13:8). 악은 주권자 하나님께 의하여 제약을 받고 있다(이 장에서 수동태가 많이 사용되었고 시간적 제약을 나타낸다). 단기적으로 볼 때 이것은 나쁜 일이다. 하지만 큰 그림을 바라보라!

▣ “생명 책” 단 7:10 과 계 20:11-15 을 통하여, 우리는 인간의 운명과 관련을 가지는 두 권의 은유적 책을 이해하게 된다:

1. 생명 책, 이 책에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이들(구약)과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신약)의 이름이 적혀 있다(참조, 출 32:32-33; 시 69:28; 단 12:1; 사 4:3; 34:16; 눅 10:20; 빌 4:3; 히 12:23; 계 13:8; 17:8; 20:15; 21:27)
2. 인간의 행위의 책, 이 책은 사람이 잘하고 잘못된 행위를 기록하고 있다(참조, 시 56:8; 139:16; 사 65:6; 말 3:16)

이 둘은 명백히 은유적인 표현방법이다. 하지만 이 책들은 하나님께서 누가 자신의 백성인지를 정확히 아시며, 또 자신을 거부한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이심을 나타낸다(참조, 갈 6:7).

▣ “죽임을 당한” 5:12 의 설명을 보라.

13:9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것은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제이다(참조, 2:7,17; 3:6,13,22). 이 문장은 9-10 절에 있는 구의 경우처럼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이 구가 교회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은 다음에 나오는 구(10 절)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것임을 제시한다.

13:10 이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렘 15:2 혹은 43:11 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 “죽이다”라는 동사와 관련하여 여러 헬라어 사본에 변이가 나타난다. 이 점은 이 절에 있어서 여러 영어본이 서로 다르게 번역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1. KJV 와 NKJV 는 이 구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자들과 연결시킨다.
 2. RSV 와 NRSV 는 앞의 문장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과, 뒤의 문장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박해자들과 연결시킨다.
 3. 가능한 세 번째 해석(TEV NJB)은 두 문장을 모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번역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사실은 이 본문의 뜻이 확실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은 명백한 영적 진리이다. 우리가 가지는 유일한 질문은 이 구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에 대한 것이다.
1.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 신실하도록 격려하기 위함이다(참조, 마 26:52; 빌 1:28)
 2. 박해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어느 날 그들이 택한 결정과 행동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함을 그들로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함이다



NASB
NKJV
NRSV
TEV
NJB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참음과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에 대한 견딜과 믿음의 부르심이 여기 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견딜과 믿음을 요구하느니라”
 “바로 이것이 왜 성도들이 반드시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니라”

9 절 및 10 절의 마지막 부분은 이 구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것임을 명확히 나타낸다(참조, 마 26:52). 이 절은 참신자들이 어떠한 자인지에 대하여도 말한다(참조, 14:12; 12:11,17). 그들에게 끝까지 견고히 붙들 것을 격려하고 있다(참조, 2:3,7,11,17,26; 3:5,12,21; 21:7). 인내는 참된 구원의 증거이다(참조, 요일 2:19). 2:2 의 설명과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13:11-18

¹¹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¹²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옴이니 ¹³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¹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¹⁵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¹⁶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¹⁷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¹⁸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

13:11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것은 단 7:17 에 대한 암시이다. 이 두 짐승이 11:13-14 에 나오는 하나님의 두 증인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한다. 또 어떤 이들은 용과 두 짐승은 삼위일체를 흉내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바다에서 올라 온 짐승이 리위야단에 대한 암시이듯이(참조, 욥 41:1-34),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브헤못에 대한 암시이다(참조, 욥 40:15-24). 앞의 짐승은 물의 혼란과 관련을 가진 고대의 힘센 동물이고, 나중 것은 땅 위의 괴물에 해당한다(이것은 결코 공룡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고대 동방 신화에 대한 것이다).

이 짐승들은 악(혼란)과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반역을 상징한다(참조, 시 74:12-14; 욥 3:8; 사 51:9-11; 암 9:3). 리위야단은 때로 *라함*으로 불렸다(“몸이 꼬여 있는 자,” 즉 뱀, 참조, 사 51:9). 또 다른 본문에서 *라함*은 이집트를 뜻하였다(나일 강, 즉 꼬이는 강, 참조, 시 87:4; 사 30:7; 아마도 겔 32 장, 특히 2-3 절).

□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명백히 그리스도에 대한 흉내이다(참조, 5:6). 그의 목소리와 메시지가 그의 참된 인격을 드러낸다. 계시록의 나중 부분에서 이 두 번째 짐승은 항상 거짓 선지자를 가리킨다(참조, 16:13; 19:20; 20:10). 그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짐승을 예배할 자들을 모집하고 있다(참조, 12 절). 이것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성령의 사역(참조, 요 14-16 장)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삼위일체를 본다:

1. 성부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사탄
2. 성자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바다 짐승
3.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땅의 짐승

13:13 “큰 이적을 행하되” 이것은 현재 시제 동사로서 그가 기적을 계속하여 행함을 나타낸다. 이 절은 마지막 때에 활동하는 거짓 교사들이 기적을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심을 받은 자라도 미혹되게 함을 시사한다(참조, 마 24:24; 막 13:22; 살후 2:9-11; 디다케 16:3,4). 기적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참조, 출 7:8-13).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흉내내는 모습이다.

□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것은 왕상 18:38 에서 엘리야가 한 일과 비슷하다. 엘리야가 행한 일은 11:5 에 나오는 두 증인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 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겔 38:22 혹은 39:6 에 있는 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떨어지는 불’을 가리킬 것이다. 이것은 다음 내용에 대한 흉내이다

1. 두 증인
2.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행하신 일
3. 사도행전 2 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

13:14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계시록에서는 “상하였다가”(플레게, 참조, 13:3,12,14)라는 단어를 대개의 경우 “역병”으로 번역하였다(참조, 9:18,20; 11:6; 15:1,6,8; 16:9,21; 18:4,8; 21:9; 22:18). NRSV 의 각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3 절에서는 “죽음의 역병”
2. 12 절에서는 “죽음의 역병에서”
3. 14 절에서는 “칼의 역병을 당한 자”

이러한 번역의 신학적 의도는 적그리스도가 어떤 개인이 아니라 세계적 조직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 용어는 “운명의 타격” 혹은 역병(참조, BAGD, 674 쪽)을 은유적으로 나타내는데, 그 기본적 의미는 ‘치는 행위나 상처’를 뜻한다.

“상하였다가 살아난”이라는 구는 짐승에 대하여 말하는 이 절들에 있어서 “역병”이 가장 좋은 번역이 아님을 나타낸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역하게 하는 일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서는 겔 38-39 장; 숙 14 장; 단 7:21-27; 9:24-27; 11:36-39 에; 신구약 중간기의 묵시문학에서는 시빌린 신탁 제 3 권; 에스드라스 4 서 5.4,6 및 바룩의 묵시록 40 에; 신약에서는 살후 2:3,8-9 에 나온다.

13:15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땅에서 나온 이 짐승은 항상 거짓 선지자로 불린다(참조, 16:13; 19:20; 20:10). 아마도 이 일은 생명을 불어 넣어(즉, 히브리어의 *루아흐*=숨) 움직이게 하는 일을 은유적으로 가리킨다(참조, 겔 37 장).

13:16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7:3 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인침을 받듯이(참조, 13:16; 14:9), 여기서는 악한 자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흉내내어 자신에게 속한 자들에게 표를 한다. 헬라어 단어는 동물에게 낙인을 찍는 것이나 정부 문서에 직인을 찍음을 뜻한다. 이 인침이 나오는 장소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다

1. 유대인의 성구함이 오용됨(참조, 신 6:8)
2. 1 세기의 로마 문화에서 노예에게 주인의 이름을 낙인함
3. 군인들이 자기들의 장군을 높이기 위해 문신을 한 일

13:17 이 짐승의 표는 양식을 구입하는 일 혹은 직업을 구하는 일과 관련을 가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경제적 궁핍에서 보호를 받지 않는다.

13:17-18 “그 이름의 수라” 고대의 언어에서는 알파벳의 한 자 한 자가 독특한 수를 나타내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히브리 자음의 합은 888 이다(참조, 시빌린 신탁, 1.324). 또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사탄인 짐승의 수는 666 을 이룬다. 숫자 6 은 완전 수인 7 에서 하나가 부족한 것을 뜻한다(참조, 창 1:1-2:3, 칠일 동안의 창조); 히브리어에서는 이 수를 세 번 반복함으로써 최상급을 이룬다(참조, 사 6:3; 렘 7:4).

6 이라는 수가 인간의 수이기 때문에, 이 수는 거룩하지 않은 영들—용(사탄), 바다의 짐승(적그리스도), 땅의 짐승(거짓 선지자)—로 이루어진 삼위일체의 각 존재를 나타내는 의인화일 것이다. 처음 짐승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정치적 체제를 나타내는 의인법이고, 두번째 짐승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종교적 체제를 나타내는 의인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17 장에서 큰 음녀가 나움을 보게 된다. 이러한 개요는 단 7 장에 나오는 바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계적 조직으로 나타난다. 고대의 바벨론이나 1 세기의 로마나 혹은 마지막 때에 있을 세계적 왕국 가운데 이 음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든 간에, 이것은 인간의 역사가 “이 세상의 신”(참조, 고후 4:4) 및 그의 추종자가 창조주 하나님 및 그의 메시아(참조, 시 2 편)와 벌이는 최종적인 싸움을 향해 나아가는 것임을 나타낸다.

13:18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 이 수가 무엇을 가르키는가에 대하여 일치된 견해가 없다. 수 많은 종류의 추측이 있었지만, 어느 것도 확실치 않다. 내가 보기에 가장 적절한 세 가지 답을 여기서 제시하고자 한다.

1. 사본적 변이가 666 과 616 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네로 황제를 가리킬 것이다. 히브리어로 번역된 헬라어 철자는 666 이지만 라틴어로 번역된 헬라어 철자의 수는 616 이다.
2. 삼중적인 반복이 히브리어에서 최상급을 나타내기 때문에, 666 은 가장 악한 사람을 뜻할 것이다.
3. 이 문맥이 삼위일체에 대한 흉내를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의 세 위격은 777 이지만, 이와 대조를 이루는 자는 666 이다.

계시록 14:1-20 에 대한 문맥적 통찰

가. 14 장은 12 장과 13 장에서 넘치고 있는 악에 대한 반응일 것이다. 마지막 때에 있을 이 두려운 박해 기간에 무슨 일이 성도들에게 일어날 것인가를 들은 독자들이 놀랐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 어떤이는 6-20 절에서 “일곱”으로 된 또 다른 문학적 구조를 발견한다. 일곱 천사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 구조는 신학적으로 볼 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

개역개정 14:1-5

¹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²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³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십사만 사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⁴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⁵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1 “어린 양” 이것은 메시아를 가리킨다(참조, 5:6,8,12-13; 13:8; 사 53:7; 요 1:29,36; 뱀전 1:18-19).

▣ “시온 산에 섰고” 이 구가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관하여 많은 이론이 제시되었다.

1. 이것은 모리아 산 및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위치한 지역을 가리킨다(참조, 사 24:23; 율 2:32)
2. 이것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킨다(참조, 히 11:10,16; 12:22-23; 13:14; 갈 4:26)
3. 이것은 정경이 아닌 에스드라 2 서 2:42-47; 13:35,39-40 에 나오는 묵시적 상징을 가리킨다
4.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때에 모일 것을 말하는 구약의 본문을 가리킨다(참조, 시 48 편; 사 24:23; 율 2:32; 미 4:1,7; 율 17 절과 21 절)
5. 이것은 이 단락에 나오는 여러 구절에서와 마찬가지로 배경을 이루는 본문인 시 2 편(특히 6 절)을 가리킨다. 주석가들이 이 환상의 각 부분을 다음과 연결시켜 설명함을 기억하라
 1. 구약의 본문들 혹은 팔레스타인의 장소들
 2. 신구약 중간기의 묵시문학
 3. 1 세기의 헬라-로마의 역사

나는 구약과 관련이 있는 환상이 6 장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이 환상들은 하나님의 신약 백성(믿는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 교회와 관련이 있다. 이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이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대한 암시이다(참조, 히 8:2; 9:11,24).

▣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서 있는데” 이들은 5:9 에 나오는 구속받은 자들과 7:4-8 에 나오는 인침을 받은 자들(7:4 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 및 7:14-17 에 나오는바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과 같은 무리이다. 따라서 내 견해로는 이들이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과 교회를 나타낸다. 144,000 의 정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7:4 에서 보라. 앞쪽에 있는 장에서는 그들이 인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박해를 받았으나, 여기서는 그들이 승리를 거두고 있다!

▣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것은 한 가지 이름인가 아니면 두 가지 이름인가? 이것은 사 9:6 에 나오는 호칭 즉 성부와 성자를 동시에 나타낼 것이다. 이들은 인침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참조, 계 7 장). 7:2 의 설명을 보라.

14:2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같더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하여 사용한 이러한 설명이 겔 43:2 에 나오고, 예수님의 목소리에 대하여는 1:15 에 나오며, 19:6 에서는 하늘에 있는 수 많은 자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구는 종종 화자가 하늘에 있음을 나타낸다(참조, 4:5; 11:19; 16:8).

14:3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것은 계 5:9 에 대한 암시이다. “그들”은 (1) 계 5:9 에서 노래를 부르는 천사적 피조물들 (2) 3 절의 마지막 부분과 15:2 에 나오는 144,000 명의 노래를 가리킬 것이다. 이 새 노래는 사 42:10 및 시 33:3; 40:3; 96:1; 98:1; 144:9; 149:1 을 암시한다. 성령의 약속된 새 시대가 도래하였다!

▣ “장로들” 4:4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이것은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 친척을 사서 놓아주는 구약의 개념을 말한다(고엘, 즉 룻과 보아스). 이 용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들’을 가리킨다(참조, 5:9; 7:14). 5:9 의 특별주제: 구속, 구속하다를 보라.

14:4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절의 의미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 이유는 이들이 7 장에 나오는 144,000 명 가운데 선택된 독신인 남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 구가 상징적 표현으로된 구약의 용법하기에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취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란 구를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1. 이것은 문자적으로 독신을 가리킨다
2. 이것은 짐승 혹은 큰 음녀와 영적으로 간음함을 가리킨다(참조, 14:8; 17:2; 18:9)
3. 이것은 일곱 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내용을 가리킨다(참조, 2:14,20,22; 3:4)

4. 이것은 예배나 전쟁에 앞서 행하는 구약의 예식적 정결을 가리킨다(참조, 출 19:14-15; 신 23:9-10; 삼상 21:4-5; 삼하 11:6-13)
5. 이것은 구약에서 “시온의 처녀 딸”로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참조, 왕하 19:21; 렘 18:13; 애 2:13; 암 5:2; 고후 11:2; 엡 5:27).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가지는 성행위가 비영적인 일로 간주되지 않았음을 잘 기억해야만 한다. 성생활(결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로서,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였다(참조, 창 1:28; 9:1). 금욕은 사역을 위한 영적 은사임이 분명하지만(참조, 고전 7 장), 그 자체가 더 거룩한 상태는 아니다. 헬라의 금욕주의는 성경적이지 않다(결혼 이전에 가지는 성행위 및 배우자가 아닌 자와 가지는 성행위도 성경적이지 않다)!

▣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것은 제자도와 섬김을 뜻한다(참조, 요 7:17; 10:4).

▣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이 용어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전 추수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다(참조, 출 23:19; 34:76). 신약에서 이것은 교회(참조, 히 12:23; 약 1:18) 즉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된 자들인 예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참조, 고전 15:20,23; 계 1:5).

14:5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이 은유적 표현의 기원에 관한 여러 설명이 있다:

1. 이것은 계 21:27; 22:15 에 있는 은유적 표현을 가리킨다
2. 이것은 황제숭배를 가리킨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시저가 주님이시다”를 고백하라고 강요함에도 그들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3. 이것은 상징적으로 구약에서 더럽게 됨을 가리킨다(참조, 시 32:2; 습 3:13)
4. 이것은 롬 1:25; 요일 2:22 에 있는 불신앙을 가리킨다

▣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흠이 없는”을 뜻한다(참조, 빌 3:6). 원래 이것은 제사로 드리는 짐승을 가리키는 용어 였는데 후에는 은유적으로 사람에 대하여 사용되었다(참조, 노아, 창 6:9,17 및 욥, 욥 1:1). 이 표현은 히 9:14 과 벰전 1:19 에서 예수께 대하여 사용되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참조, 레 19:2; 신 18:13; 마 5:48; 벰전 1:16).

특별주제: 흠없는, 무죄한, 죄없는, 책망받을 것 없는

가. 들어가는 말

1. 이 개념은 신학적으로 인간의 처음 상태(즉, 창 1 장, 에덴 동산)를 말한다.
2. 죄와 반역은 이 완전한 교제의 조건을 대폭 파괴했다(즉, 창 3 장)
3. 인간(남자와 여자)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사모했다(즉, 창 1:26-27).
4.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과 여러 면으로 관계하신다
 - ㄱ. 경건한 지도자들(즉,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 ㄴ. 희생 제도(즉, 레 1-7 장)
 - ㄷ. 경건한 삶의 본(즉, 노아, 욥)
5.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예비하셨다
 - ㄱ. 자신의 완전한 계시로서
 - ㄴ. 죄를 위한 완전한 희생으로서
6. 그리스도인들이 흠 없게 되었다
 - ㄱ. 법적으로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 ㄴ. 점진적인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 ㄷ. 기독교인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다(참조, 롬 8:28-29; 엡 1:4). 사실상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시 잃어버려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7. 천국은 에덴동산의 완전한 교회의 회복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정화된 땅으로(참조, 벰후 3:10)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다(참조, 계 21:2). 성경은 같은 주제로 시작하고 같은 주제로 끝 맺는다.
 - ㄱ. 하나님과의 친밀한 개인적 교제
 - ㄴ. 동산의 배경에서(창 1-2 장과 계 21-22 장)
 - ㄷ. 동물이 함께 있고 동반하여 나타나는 것에 대한 예언적 진술에 의해(참조, 사 11:6-9)

나. 구약

1. 히브리어의 많은 단어들인 완전함, 흠없음, 죄없음의 개념을 말하기 때문에 그 단어들을 모두 다루고 그 복잡한 관계를 모두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완전함, 죄없음, 혹은 무죄함의 개념을 뜻하는 주요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로버트 B. 거들스톤, *구약의 동의어*, 94-99 쪽):
 - ㄱ. *살롬* (BDB 1022)
 - ㄴ. *타맘* (BDB 1070)
 - ㄷ. *칼라* (BDB 478)
3. 70 인역(즉, 초대교회의 성경)은 많은 경우 이 개념들을 신약에서 사용한 코이네 헬라어의 용어로 번역했다.
4. 기본 개념은 제사제도와 관련이 있다.
 - ㄱ. *아모모스*(참조, 출 29:1; 레 1:3,10; 3:1,6; 민 6:14)
 - ㄴ. *아미안토스*와 *아스피루스*도 제사적 의미를 갖는다

다. 신약

1. 법적 개념
 - ㄱ. 히브리어의 법적 제의적 의미는 *아모모스*로 번역되었다(참조, 엡 5:27; 빌 2:15; 뱀전 1:19)
 - ㄴ. 헬라어의 법적 의미(참조, 고전 1:8; 골 1:22)
2. 그리스도는 죄없고 흠없으며 무죄한 분이시다(*아모모스*) (참조, 히 9:14; 뱀전 1:19)
3.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그를 본받아야 한다(*아모모스*) (참조, 엡 1:4; 5:27; 빌 2:15; 골 1:22; 뱀후 3:14; 유 24 절; 계 14:5)
4. 이 개념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 ㄱ. *아베클레토스*, “비난할 것이 없는”(참조, 딤후 3:10; 딤후 1:6-7)
 - ㄴ. *아네페렐토스*, “비난이 미치지 않는” 또는 “꾸밈을 받을 거리가 없는” (참조, 딤후 3:2; 5:7; 6:14; 딤후 2:8)
5. “더럽혀지지 않은”(*아미안토스*)의 개념은 다음 경우에 사용되었다
 - ㄱ. 그리스도 자신(참조, 히 7:26)
 - ㄴ. 그리스도인의 유업(참조, 뱀전 1:4)
6. “전체” 혹은 “전부”의 개념(*홀로클레리아*) (참조, 행 3:16; 살전 5:23; 약 1:4)
7. “흠없는” 죄없는 무죄함의 개념을 *아뎬토스*로 나타내었다(참조, 눅 1:6; 빌 2:15; 3:6; 살전 2:10; 3:13; 5:23)
8. “비난받을 여지가 없는”의 개념을 *아모메토스*로 나타내었다(참조, 뱀전 3:14)
9. “점 없는”과 “흠 없는”의 개념은 위의 여러 용어 가운데 하나를 사용하는 본문에서 종종 나타난다(참조, 딤후 6:14; 약 1:27; 뱀전 1:19; 뱀후 3:14)

라. 이 개념을 갖는 많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들은 이 개념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채우셨고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이 되도록 부르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하여 신자들은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옳은,” “바른,” “흠없는” 자라고 선언받았다. 이제 신자들은 자기의 신분을 갖도록 되어 있다. “그가 빛에 거하시듯이 빛 안에서 행하라”(참조, 요일 1:7).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참조, 엡 4:1,17; 5:2,15).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다. 친밀한 교제가 이제 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그러하기를 원하심을 기억하라. 우리는 거룩함 이외의 그 어떤 것을 위해서도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참조, 마 5:20,48; 엡 1:4; 뱀전 1:13-16). 하나님의 거룩함은 법적인 것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실제적 삶을 위한 것이다!

개역개정 14:6-7

⁶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⁷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14:6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8:13에서는 한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감으로써 전 지구에서 볼 수 있게 선언함을 함축적으로 나타낸다.

▣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이라는 이 구는 오직 여기에만 나온다. 계시록에서 복음을 종종 불신자들을 위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복음”이 여기서는 땅 위에 사는 자들(거주하는 자들)을 위한 것으로 제시됨이 중요하다. 어떤 이는 이것이 마 28:18-20 혹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여 마 24:14 과 막 13:10 의 성취라고 본다. 이 복음의 내용이 침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 또는 예수께서 마 4:10 에서 악한 자에게 하신 선언과 상당히 같다(참조, 눅 3:3-14). 심판의 메시지는 이 복음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6-7 절의 내용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 두 절이

‘잃어버려진 인류에게 대한 하나님의 이 모든 심판’의 목적이 구속의 목적을 가짐을 밝히기 때문이다(참조, 9:20-21; 16:9,11).

12 절에서는 참된 신자를 (1)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즉, **현재 분사**)과 (2)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즉, 똑 같이 **현재 분사**)로 설명한다.

▣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10:11 의 설명을 보라.

14:7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디포) 명령**과 **부정과거 능동 명령**이다. 7 절에는 **부정과거 명령**이 세 번 나온다. 믿음의 결단으로써 응답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하신다(참조, 요 1:12; 롬 10:9-13). 11:13에서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13 장에서 짐승이 행하는 이적에 의해 신속히 떠나간다(마 13 장; 마 4 장; 눅 8 장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땅에 뿌린 씨의 비유를 통하여 제시한다).

▣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시간”이라는 용어는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개념이다(참조, 2:4; 4:21,23; 5:25,28; 7:30; 8:20; 12:23,27; 13:1; 16:21,32; 17:1). 이것은 현재의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을 나타낸다(주님의 날, 참조, 14:15; 9:15).

특별주제: 그 때

“때”라는 용어는 복음서에서 여러 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1. 때의 의미로(참조, 마 8:13; 눅 7:21; 요 11:9)
2. 시험과 시련의 때에 관한 은유로(참조, 마 10:19; 막 13:11; 눅 12:12)
3. 예수님 사역의 시작에 대한 은유로(참조, 요 2:4; 4:23)
4. 심판의 때에 대한 은유로(즉, 재림, 참조, 마 24:36,44; 25:13; 막 13:32; 요 5:25,28)
5. 예수님의 수난에 대한 은유로(참조, 마 26:45; 막 14:35,41; 요 7:30; 8:20; 12:23,27; 13:1; 16:32; 17:1)

▣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것은 결정을 촉구하는 또 하나의 **부정과거 능동 명령**이다.

▣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이것은 행 14:15 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하다. 이 절은 창 14:19; 출 20:11 혹은 시 146:6 의 인용이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심을 욥 8-41 장에서 제시한다. “물들의 근원”이라는 특별한 표현을 어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1. 천사들을 통하여 앞에서 행한 역병과 관련을 가진다(참조, 8:10)
2. 마실 수 없는 바닷물에 대한 대조

개역개정 14:8

⁸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14:8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동사 뿐 아니라 헬라어 문장의 첫 단어가 반복되어 이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을 강조하고 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개념이 다른 곳에서 확장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11:7 에서 간략하게 짐승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13 장에 이르러서야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16:19; 17:1-18:24 에서 자세히 나온다.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한다(참조, 뱀전 5:13; 바룩 2 서 11:1; 67:7; 시빌린 신탁 5:143,159,424). 하지만 이 도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인간 사회의 모든 조직과 기능을 가리킨다(13 장 마항의 특별주제를 보라).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는 모습은 타락(참조, 창 3 장)의 직접적 결과이며 바벨탑 사건에서 처음으로 표현되었다(참조, 창 10-11 장). 세계의 제국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하나님을 거부하였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세계정부로 드러날 것이다(참조, 단 2:7-8). 이것은 사 21:9; 램 51:8 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

▣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것은 램 51:7-8 에 대한 암시이다(참조, 17:2,4; 18:3). “진노”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튀모스*”는 감정의 폭발과 관련이 있다(7:14 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참조, 17:2,3; 18:3).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은 하나님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참조, 9 절)!

개역개정 14:9-12

⁹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¹⁰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향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¹¹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되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¹²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4:9 “만일” 이것은 “경배하다”와 “받다”라는 두 동사와 함께 사용된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이다. 어떤 사람들(많은 이들)이 이러한 우상숭배를 행할 것이다. 이것은 7 절과 12 절에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영접함과 정반대되는 일이다.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겪을 것이다(참조, 10 절).

14:10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사람들은 영적으로 두 가지(하나님과 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오르케라*는 헬라어는 “정착된 반대”를 뜻한다. 7:14 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이것은 사 51:17 혹은 램 25:15-16 에 대한 암시이다(참조, 계 16:19; 19:15). 신자들은 바벨론의 진노를 당하게 되지만,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다(참조, 10 절).

이 이상한 조합(문자적으로는 “섞이지 않은 섞임”)은 하나님의 진노가 다른 요소들과 섞이어 극도로 취하게 함을 나타내는데 불과 섞이지 않은 부분은 물 밑에 가라앉음을 나타낸다. “잔”이라는 용어는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단어이다(참조, 사 51:17,22; 램 25:15-17,27-29; 시 75:8). 예수께서는 모든 이를 위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다(참조, 막 14:36). 불신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들은 모두 잔을 마시게 된다!

특별주제: 술과 술취함에 대한 성경적 입장

I. 성경적 용어

가. 구약

1. *야인* - 이것은 포도주를 가리키는 일반적 용어(BDB 406)로서 141 번 사용되었다. 이 어근이 히브리어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의 어원은 불확실하다. 이것은 항상 과일(주로 포도)의 즙을 발효시킨 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가 사용된 특별한 구절들은 창 9:21; 출 29:40; 민 15:5,10이다.
2. *티로쉬* - 이것은 “새 포도주”(BDB 440)이다. 왜냐하면 근동의 날씨에서 발효가 즙을 짜낸 후 6 시간이 되었을 때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 용어는 발효 중에 있는 포도주를 말한다. 다음의 특징적인 구절을 보라, 신 12:17; 18:4; 사 62:8-9; 호 4:11.
3. *아시스* - 이것은 분명히 알코올 음료를 말한다(“달콤한 술,” BDB 779, 예, 율 1:5; 사 49:26).
4. *세카* - 이것은 “독주”(BDB 1016)를 말한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 어근은 “술 취한” 또는 “주정뱅이”를 가리킨다. 이것은 좀 더 취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것을 첨가한 것을 말했다. 이것은 *야인*과 평행을 이룬다(참조, 잠 20:1; 31:6; 사 28:7).

나. 신약

1. *오니스* - 이것은 *야인*과 같은 뜻의 헬라어이다.
2. *네오스 오이노스*(새 포도주) - *티로쉬*와 같은 뜻의 헬라어이다(참조, 막 2:22).
3. *글레우코스 비노스*(달콤한 포도주, *아시스*) - 발효의 이른 시기에 있는 포도주(참조, 행 2:13)이다.

II. 성경에서의 사용

가. 구약

1. 포도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창 27:28; 시 104:14-15; 전 9:7; 호 2:8-9; 율 2:19,24; 암 9:13; 슥 10:7).
2. 포도주는 희생 제사의 일부이었다(출 29:40; 레 23:13; 민 15:7,10; 28:14; 신 14:26; 사 9:13).
3. 포도주는 약으로 사용되었다(삼하 16:2; 잠 31:6-7).
4. 포도주는 실제적으로 문제를 만들 수 있다(노아 - 창 9:21; 롯 - 창 19:33,35; 삼손 - 사 16:19; 나발 - 삼상 25:36; 우리아 - 삼하 11:13; 암몬 - 삼하 13:28; 엘라-왕상 16:9; 벤하닷 - 왕상 20:12; 지도자들 - 암 6:6; 부녀자들 - 암 4장).
5. 포도주는 남용될 수 있다(잠 20:1; 23:29-35; 31:4-5; 사 5:11,22; 19:14; 28:7-8; 호 4:11).
6. 포도주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었다(임무를 수행중인 제사장, 레 10:9; 겔 44:21; 나실인, 민 6 장; 지도자들, 잠 31:4-5; 사 56:11-12; 호 7:5).
7. 포도주는 중말론적인 배경을 나타내었다(암 9:13; 율 3:18; 슥 9:17).

나. 신구약 중간시대

1. 포도주를 적당하게 사용하면 매우 유용하다(집회서 31:27-30).
2. 랍비들은 “포도주는 모든 약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서 포도주가 없을 때 약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BB 58b).

다. 신약

1. 예수님은 많은 양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요 2:1-11).

2. 예수님은 포도주를 드셨다(마 11:18-19; 눅 7:33-34; 22:17 이하).
3. 오순절 때 베드로는 “새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 되었다(행 2:13).
4. 포도주는 약으로서 사용되었다(막 15:23; 눅 10:34; 딤후 5:23).
5. 지도자들이 술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완전히 금욕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딤후 3:3,8; 딤후 1:7; 2:3; 벘전 4:3).
6. 포도주는 종말론적 배경에서 사용되었다(마 22:1 이하; 계 19:9).
7. 술 취함을 깊이 누우쳐야 한다(마 24:49; 눅 12:45; 21:34; 고전 5:11-13; 6:10; 갈 5:21; 벘전 4:3; 롬 13:13-14).

III. 신학적인 통찰

가. 변증법적 긴장

1. 포도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2. 술 취함은 심각한 문제이다.
3. 어떤 문화권에서 신자는 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마 15:1-20; 막 7:1-23; 고전 8-10장; 롬 14 장).

나. 주어진 한계를 넘는 경향성

1.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다.
2.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넘음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남용해왔다.

다. 남용의 여부는 물질 자체가 아니라 사용자인 우리에게 달려 있다. 물질을 악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참조, 막 7:18-23; 롬 14:14,20; 고전 10:25-26; 딤후 4:4; 딤후 1:15).

IV. 1 세기의 유대 문화와 발효

가. 발효는 포도가 으깨어진 후 6 시간 정도 후부터 바로 시작된다.

나. 표면에 거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면(발효의 표시) 그것이 포도주를 십일조로 드리기 적당하다 (마 아세로쓰 1:7)고 유대의 전통은 말했다. 그것은 “새 술” 또는 “달콤한 술”이라 불렀다.

다. 첫 번째 격렬한 발효는 1 주일 후에 이루어진다.

라. 두 번째 발효는 40 일이 걸린다. 이 상태를 “숙성된 포도주”라고 간주하며 제단에 제사드릴 수 있다고 보았다(엔후요쓰 6:1).

마. 포도주의 앙금(오래된 포도주) 위에 있었던 포도주를 상품으로 여겼지만, 사용하기 전에 잘 걸러야 했다.

바. 보통 1 년 동안 발효된 포도주를 적당하게 숙성된 것으로 생각했다. 3 년은 포도주가 안전하게 저장될 수 있는 가장 긴 기간이었다. 이와 같은 포도주를 “오래된 포도주라 불렀고 반드시 물로 묽게 해야만 했다.

사. 최근 100 년 동안에서야 평균적 환경과 화학적 첨가제의 사용으로 발효기간이 길어졌다. 고대에는 발효의 자연적 진행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V. 맺음말

가. 당신의 경험, 당신의 신학, 당신의 성경해석을 가지고 예수님, 1 세기의 유대인, 그리고 혹은 기독교 문화를 깎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들은 분명히 완전한 금욕주의자들은 아니었다.

나. 나는 알코올의 사회적 사용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그리고 문화적/교파적 편견을 가지고 보다 나은 의를 주장해 왔다.

다. 로마서 14장과 고린도 전서 8-10 장 말씀은 나에게 통찰력을 주었고 안내서가 되었다. 이 안내서는 개인적인 자유나 판단하는 비평적 자세가 아니라, 모든 문화에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동료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했다. 만약 오직 성경만이 믿음과 실행의 근원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라. 만약 우리가 완전한 금욕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 이를 강요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또한 포도주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대 문화(예 - 유럽, 이스라엘, 아르헨티나)에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한다(참조, 창 19:24,28; 눅 17:29; 또는 일반적 의미의 심판, 참조, 시 11:6; 사 34:8-11; 겔 38:22). 고난은 두 짐승(참조, 19:20)과 악한 자(참조, 20:10)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참조, 20:15; 21:8)이 최종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운명이다.

불(16:8 의 특별주제를 보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구약의 은유적 표현이었다(참조, 민 9:15-16 등). 불은 깨끗하게 함(참조, 레 8:17,32; 9:11,24; 13:32,55,57 등)과 심판(참조, 레 10:1-2; 민 11:1-3 등)을 위한 도구였다. 이것이 심판과 가지는 관련성은 심판의 장소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쓰레기 하치장인 힌놈의 아들들의 골짜기(겔렐나)를 영원한 심판의 상징으로서 사용하셨다(참조, 계 20:10,14-15).

14:11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다” 나는 보편적 구원주의 혹은 복음에 응답할 제 2 의 기회가 주어짐을 믿고 싶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살아 있는 동안(참조, 히 9:27)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믿음으로써 응답해야만 함을 가르친다;

만일 그들이 응답하기를 거부한다면 최종적이고 영원한 결과가 이에 따른다(참조, 막 9:47-48; 막 25:46; 요 5:29; 행 24:15; 살후 1:6-9). 사악한 자에게 있을 영속적인 형벌은 성도들이 일시적으로 받는 고난과 대조를 이룬다. 이 점은 “누구든지 밤낮 쉬를 얻지 못하리라”에 의해 분명해진다. 한편 13 절에서는 성도들에게 쉬이 있음을 말한다.

이것은 다루기 쉬운 주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 및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한 형벌을 선언하심과 대조를 이룬다.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부분의 심판’은 이집트에 행하신 재앙 및 신 27-29 장에 있는 언약에 따른 저주의 경우와 같이 구속의 목적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거부하심은 영속적이다. 이것은 훈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징계적이다! 이 점을 이해하거나 감성적으로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 사실은 복음전도의 필요성을 강화시킨다!

다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이 주제에 대하여 내가 가진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다. 지옥이 인간에게 아주 나쁘듯이 지옥이 하나님께는 더욱 그러하다는 점이다. 하나님께서는 교제를 위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 창조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고 또 그들을 아시는 장이었다. 하나님은 아담의 모든 아들과 딸들을 사랑하신다(참조, 겔 18:32; 딤후 2:4; 뱀후 3:9).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매우 사랑하시라 자기 자신의 아들을 그들 대신 죽도록 보내기를 원하셨다(참조, 요 3:16; 고후 5:21).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반드시 ‘신뢰와 믿음과 회개와 순종과 섬김과 예배와 인내함’으로써 하나님께 응답하도록 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신다. 오로지 불신자들이 자신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다(참조, 요 3:17-21). 지옥은 ‘하나님의 가슴 속에 뿔려있는 피를 흘리는 상처’로서 이것은 결코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날”을 누리신다고 전혀 생각지 않는다. 아! 희생적인 사랑에도 불구하고 고집세게 반역함을 인하여 당하는 이 고통이여!

14:12 인내는 이 책 전체에 걸쳐 제시되는 주요 주제이다(참조, 1:9; 2:7,11,17,19,26; 3:5,10,12,21; 13:10; 21:7). 하나님의 백성은 환란의 한 가운데서 조차 신실함을 지켰다. 2:2 에 있는 자세한 설명과 특별주제를 보라.

▣ “성도들” 5:8 의 특별주제를 보라.

▣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신자들에 대한 비슷한 설명이 12:17 에 나온다. 각자가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가지는 개인적 관계에 ‘순종의 삶’이 뒤따름을 주목하라(참조, 12:17; 눅 6:46).

성숙한 기독교는 다음의 요소로 이루어진다

1. 영접하여야 할 분(그리스도와 의 인격적 관계)
2. 믿어야 할 분에 관한 진리(신약의 교리적 진리들)
3. 그 분과 같은 삶을 삶(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이 세 가지가 믿음의 성숙과 건강함과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

개역개정 14:13

¹³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14:13 “복이 있도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가지 복 가운데 두 번째 것이다(참조, 1:3; 14:13; 16:15; 19:9; 20:6; 22:7,14).

▣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순교자들을 가리킨다(144,000 명의 경우처럼). 하지만 이러한 죽음의 정확한 때에 대하여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을 요한의 시기로 말하고, 어떤 이는 이것을 마지막 때의 일로 말한다. 시기에 대하여는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성도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참조, 시 116:15).

이 그룹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순교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들을 “증인”인 신자들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1 세기에 살았던 모든 신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있을 환란에서 모든 신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께 반드시 신실해야 한다. 이 은유적 표현은 배제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

▣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신자인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효과적인 사역을 하도록 성령님에 의하여 은사를 받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의 역설을 이룬다(참조, 고후 12:7,11).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신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준비시키고 또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의 성령께서 그들로 감당하게 해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자신의 신실함과 섬김과 인내함을 인해 상을 받는다(2:10 의 특별주제를 보라). 신자들이 선행(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구원받는다(참조, 엡 2:8-9,10). 모든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이다(참조, 롬 8:29; 갈 4:19; 엡 1:4)!

개역개정 14:14-16

¹⁴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¹⁵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¹⁶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14:14-16 이 14-16 절과 17-19 절에서는 두 종류의 추수(참조, 에스라 4 서 13:10-11)를 설명하고 있다. 처음 것은 곡식의 추수이고 다음 것은 포도의 추수이다. 만일 이 차이를 유지한다면(요엘 3:13에서는 두 종류의 곡식이 한 가지 심판을 나타냄), 처음 것은 의인의 추수이고(참조, 마 9:37-38; 13:30,38; 막 4:26-29; 눅 10:2; 요 4:35-38), 두 번째로 언급된 포도의 추수(사 63:2-6; 랍 51:33; 애 1:15; 율 3:13; 계 19:15)는 악인의 추수를 가리킨다.

14:14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6장과 10장에 나오는 이의 정체에 대한 질문이 이 절에도 생긴다. 이것은 하나님인 메시아에 대한 묘사인가(참조, 단 7:13)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타난 천사를 뜻하는가? 나는 이것이 험센 천사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1. 이 내용이 여러 천사에 대한 일련의 언급 가운데 들어 있다(참조, 15,17,18 절)
2. 마 13:39,41-42,49-50에서는 천사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모으고 또 분리(어떤 이는 축복으로 또 어떤 이는 심판으로) 시킨다고 말함
3. 한 천사가 그에게 명령을 내림(참조, 15 절)

14:15 이것은 율 3:13에 대한 암시이다.

개역개정 14:17-20

¹⁷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¹⁸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려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¹⁹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²⁰성 밖에서 그 틀이 뿔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천육백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14:17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하늘에 있는 영적 장막을 가리킨다(참조, 히 8:2; 9:11,23-24).

14:18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천사들이 바람(참조, 7:1)과 불(참조, 14:18)과 물(참조, 16:5)에 대한 권세를 가졌다. 이것은 천사들이 자연 세계에 관여한다고 생각한 랍비들의 유대교적 개념을 나타낸다. 비록 신약이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이 책의 부정확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참조, 히 1:7,14).

14:20 “성 밖에서” 어떤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을 암시한다고 본다(참조, 히 13:12). 어떤 이는 이것이 부정한 자를 진 밖에 있게 하는 구약의 정결법을 암시한다고 본다(참조, 레 8:17; 9:11).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을 가리킨다(참조, 시 2:2,6; 단 11:45; 율 3:12-14; 슥 14:1-4; 신구약 중간기의 묵시책인 예눅 1 서 53:1). 여기서 무엇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무엇을 회화적으로 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한 해석적 문제로 또 다시 제기된다!

▣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천육백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이것은 뒤에 나오는 장들에 있는 큰 전쟁의 결과 또는 포도 주스의 색과 관련한 단순한 은유적 표현일 것이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문자적인 내용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내용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것이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묘사하는가 아니면 선과 악의 우주적인 전쟁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가? 이 문장의 장르는 후자를 지지하지만 마 24장과 막 13과 눅 2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전자를 지지한다.

그 길이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불확실하다. 사람들은 (1) 264 킬로미터 (2) 295 킬로미터(3) 320 킬로미터라고 각각 말한다. 이 길이는 6,600 펄롱(furlong)이다. 이것은 드물게 사용된 상징적 수이다. 어떤 이는 이 길이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의 거리를 가리키며, 따라서 성지 전체에 걸쳐 일어날 심판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포도주 틀”은 구약에서 심판을 가리키는 표현이다(참조, 사 63:3; 애 1:15). 이것은 붉은 포도 주스와 피의 비슷함을 인하여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19:15에서도 언급된다.

▣ “하나님의 진노” 7:14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7장과 14장에 나오는 144,000명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
2. 시온 산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3. 14:4에 나오는 특징은 선택된 금욕적인 그룹의 사람들에 대한 묘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 대한 묘사인가?
4. 왜 14:6과 7절이 중요하다.
5. 바벨론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혹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6. 지옥은 영원한 것인가?
7. 14:14-16에 나오는 '구름 위에 앉으신 이'는 누구인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요한계시록 15-16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⁴)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천사와 마지막 재앙	대접 심판의 서론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천사와 마지막 재앙	모세의 찬송과 어린 양
15:1	15:1-16:1	15:1	15:1	15:1-4
15:2-4		15:2-4	15:2-4	일곱 대접 재앙
15:5-8		15:5-16:1	15:5-8	15:5-8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16:1	첫 재앙: 악성 종양		16:1	16:1
16:2	16:2	16:2	16:2	16:2
	둘째 재앙: 바다가 피로 바뀜			
16:3	16:3	16:3	16:3	16:3
	세번째 재앙: 물이 피로 바뀜			
16:4-7	16:4-7	16:4-7	16:4-7	16:4-7
	넷째 재앙: 사람들이 그슬리다			
16:8-9	16:8-9	16:8-9	16:8-9	16:8-9
	다섯째 재앙: 어둠과 아픔			
16:10-11	16:10-11	16:10-11	16:10-11	16:10-11
	여섯째 재앙: 유프라테스 강이 마름			
16:12-16	16:12-16	16:12-16	16:12-14	16:12-16
	일곱째 재앙: 땅이 크게 흔들림		16:15	
			16:16	
16:17-21	16:17-21	16:17-21	16:17-21	16:17-21

독서의 세 번째 단계 (v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계시록 15:1-16:21 에 대한 문맥적 통찰

- 가. 일곱 대접이 15 장에서 시작되고 16 장에서는 삼 회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재앙의 세 번째 내용이 나온다. 이 재앙들은 구속을 목적으로 한다(참조, 9:20-21; 14:6-7; 16:9,11). 회가 진행되며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진다: 1/4, 1/3, 전체의 멸망(악에 대한 심판과 악의 분리). 이것은 신 27-28 장에 있는 “저주와 축복”의 단락에 기초할 것이다.
- 나. 세 그룹으로 행해지는 재앙 사이에 문자적 관련이 나타난다.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이다. 처음 네 나팔은 처음 네 인과 직접적인 평행을 이룬다.
- 다. 일곱째 대접은 바벨론의 멸망을 가져온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타락한 인간 사회의 조직과 기능’을 상징한다. 요한 당시에는 로마를 뜻했다. 단 2 장에서는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세계적 제국이 점점 더 하나님을 거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결국 하나님께 대항하는 마지막 세계 제국이 출현한다.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이 나라는 로마를 뜻한다(다니엘서 8 장에 대한 서론을 보라, www.freebiblecommentary.org).
- 라. 15 장과 16 장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출애굽에서 취한 모습을 제시한다(12-14 장도 그렇다). 마지막 때에 악에서 구출받는 이 일이 최종적 출애굽(즉, 구출)으로 제시된다.
- 마. 짐승들과 바벨론의 음녀(반역적인 인간 사회)가 아마겟돈에서 패한다(16:12-16). 사탄은 곡과 마곡(반역적인 인간들)과 더불어 마지막에 가서 패한다(참조, 20:7-10). 19 장의 내용인 그리스도의 재림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의 연장선에 있고 그 성취이다. 이것은 순교자들이 6:9-11 에서 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다.
- 바.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싸움들을 해석함에 따르는 어려움은 다음에 기인한다:
 1. 이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묵시적/예언적 형태의 문학 양식.
 2. 그 내용이 연속적인 단계, 회, 드라마의 막 같은 형태로 제시되는 점.
 3. 그 그룹들과 상징들의 유동성.
 4. 1 세기에 성취된 내용과 마지막 때에 성취될 내용을 구분지움에 어려움이 따름.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15:1-3a
¹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²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³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15:1 “하늘에” 이것은 요한이 본 하늘에서 일어난 일련의 이적 가운데 세 번째 것이다. 12:1 의 특별주제를 보라.

▣ “크고 이상한” 이 구가 여기서만 나오는데, 이것은 3 절에 있는 구약의 암시를 가리킨다. 그 내용은 여러 곳에서 왔을 것이다(즉, 신 32:3-4; 시 111:2; 139:14; 또는 호 14:9).
 3-4 절은 여러 곳에서 취한 것으로서 구약에 대한 긴 암시를 이룬다.

▣ “하나님의 진노가” 7:14 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 “마치리로다” 이것은 마치다 혹은 성취하다는 뜻을 가진 *텔레오*의 부정과거 수동 직설법이다. 대접은 완고한 불신앙에 대한 완전하면서도 최종적인 심판이다! 더 이상 회개와 믿음의 가능성이 없고 단지 심판과 격리만 있을 뿐이다!

신학적으로 볼 때, 인과 나팔과 대접으로 이어지는 재앙은 ‘인간이 회개할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심’을 보여준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과 제거와 격리하심이 정의로롭게 되었다! 지옥은 남아 있는 유일한 길이다.

15:2 “내가 보니...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것은 계 4:6 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계 21:1 의 용법을 고려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즉 죄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게 함에 대한 은유이다(즉, 하늘에 있는 물에 대한 은유적 표현일 것임). 어느 날 이 장벽이 제거될 것이다. 이것은 구약의 본문인 출 24:10 혹은 겔 1:22; 10:1 을 암시한다. 4:6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라.

□ “불이 섞인” 이것은 4:6 에는 없는 새로운 요소이다. 이에 대한 수 많은 설명이 제시되었다.

1. 이것은 인간의 역사에 태양이 비취게 함을 뜻한다
2. 이것은 불이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냄을 뜻한다
3. 이것은 순교자들의 피를 뜻한다
4. 이것은 홍해에서의 승리 및 모세의 노래와 관련을 가진다. 왜냐하면 15 장과 16 장에 대한 구약적인 배경은 출애굽의 재앙이기 때문이다(참조, 출 7-12 장; 15 장)

□

NASB	“승리하게 된 자들이”
NKJV	“승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NRSV	“정복한 자들이”
TEV	“승리를 거둔 자들이”
NJB	“대항하여 싸운 자들이”

이것은 얼핏 보기에 순교자들을 뜻하는 것 같지만, 12:11 은 이들이 짐승을 예배하지 않은 자들로서 자연사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음이 분명하다(참조, 20:4).

□

NASB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로부터”
NKJV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표시에 대항하여”
NRSV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TEV	“짐승과 그의 우상 및 어떤 숫자로 대표되는 자의 이름에 대항하여”
NJB	“짐승과 사람, 그의 조각상과 숫자인 그의 이름”

짐승은 11:7 에서 처음으로 언급된다. 13 장에서 볼 때, 두 들짐승이 있음이 분명하다: 하나는 사탄의 현현이고(즉, 그리스도에 대한 흉내) 다른 하나는 그의 거짓 선지자이다(즉, 성령에 대한 흉내). 13:18 을 통하여 그의 수가 666 임을 알게 된다. 이 수는 인간의 수라기 보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떠난 인간 사회(즉, 정부)의 타락성과 부적합성’을 나타낸다.

□ “유리 바다 가에 서서” 어떤 번역본에서는 “위에”(NASB, NKJV)로, 어떤 번역본에서는 “옆에”(NRSV)로, 어떤 번역본에서는 “가에”(TEV, NJB)로 되어 있다. 이 헬라어 전치사의 기본적 의미는 “위에”이다. 이 은유적 표현은 이긴 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을 나타낸다. 계시록에서 “바다”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피조물 사이의 분리를 나타낸다. 이 바다는 21:1 에서 완전히 없어진다. 거기서는 완전한 교체가 회복된다(즉, 에덴 동산에서의 교체가 회복됨).

“유리 바다”의 의미에 대한 해석적 견해에 대하여는 4:6 의 설명을 보라.

□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5:8 과 14:2 은 천사들이 거문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한다. 이 문맥에서는 이들이 14 장에 나오는 144,000 명과 동등적인 관계에 있는 신자들을 나타낸다.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음악으로써 예배하였듯이, 여기서도 승리를 거둔 신자들이 그렇게 한다!

15:3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이 구속의 노래에서 하나로 뭉쳐 나타낸다. 모세의 노래는 출 15:1-9 에 대한 암시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홍해에서 이기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한편 이것은 요한이 신 32 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첫 구가 신 32:3-4 에 대한 암시이기 때문이다. 어린 양의 노래는 5:9 과 14:3 에서 이미 나왔다. 이것이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에 관한 노래임을 주목하라 (참조, 창 3:15).

□ “하나님의 종” 이것은 구약에서 모세, 여호수아, 다윗과 같은 인물에 대하여 사용한 영예로운 호칭이다. 이것은 바울이 사용한 “그리스도의 종”의 어원적 배경일 것이다.

개역개정 15:3b-4

^{3b}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것은 시 40:5; 92:5; 111:2; 139:14 및 호 14:9 에 대한 종합적 암시이다.

▣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한 세 가지 주요 이름에 대한 암시이다(참조, 1:8; 4:8; 11:7; 16:7).

1. “주”는 구원자요 구속자이시며 언약의 하나님이신 야웨를 가리킨다.
 2. “하나님”은 창조자요 공급자이시며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의 유지자이신 엘로힘을 가리킨다.
 3. “전능하신 이”는 엘샤다이¹를 가리킨다. 이 이름은 족장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한 이름이다(참조, 출 6:3).
- 1:8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을 보라.

▣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성도들이 고난의 한 가운데서 한 이 찬송의 강조점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참조, 16:7). 이것은 호 14:9에 대한 암시이다.

▣

NASB, NRSV,

TEV, NJB

“만국의 왕이시여”

NKJV

“오 성도들의 왕이시여”

이 절에 있어서 현대 영어역본에 세 가지 종류의 번역이 제시되었다.

1. “세대의 왕”(ASV, NIV, REB), 이것은 고대 헬라어 사본인 P⁴⁷, ⁿ*², C에서 발견된다(참조, 딤페전 1:17; 에녹 1서 9:4)
2. “만국의 왕”(NRSV, TEV, NJB), 이것은 사본 ⁿ^a, A, P 및 여러 소문자체 사본에서 발견된다(참조, 4절; 램 10:7)
3. “성도들의 왕”(NKJV), 이것은 사본 296, 2049에서 발견된다(메츠거의 헬라어 신약 성경에 대한 본문 주석 753쪽). 이것은 후기에 속하는 라틴 본문이 잘못 해석한 것에 기인한다

2항이 원문의 것으로 여겨진다. UBS⁴는 이것에 “B”등급(거의 확실함)을 주고 있다.

15:4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그는 초월자로서 거룩하신 창조자이시다(참조, 14:7; 램 10:7-10).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구약의 예언에서는 모든 민족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 흘러 들어올 것에 대해 말한다(참조, 시 22:27; 66:4; 86:9; 사 2:2-4; 19:19-24; 27:13; 56:7; 66:19-24; 말 1:11). 요한은 구약의 예언과 표현을 사용하여 우주적인 구원을 묘사하고 있다. 구약 시대의 예루살렘은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하늘의 예루살렘이 되었다. 이 책은 구약에서 제시하듯 유대인 대 이방인의 관점이 아니라, 믿는 자 대 불신자의 관점을 견지한다(사 45:23을 빌 2:9-11과 비교하라). 이 주석의 앞 부분에 있는 중요한 서언을 보라.

개역개정 15:5-8

⁵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⁶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 띠를 띠고 ⁷네 생물 중의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⁸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15:5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4:1에서는 하늘에 있는 문이 요한을 위해 열렸다; 11:19에서는 성전에 있는 언약궤가 나타나 신자들이 볼 수 있었다. 이제는 하늘에 있는 장막 전체가 드러나고 있다(참조, 출 25:9,40; 38:21; 민 10:11; 17:7; 행 7:44). 이 구약의 암시는 히 8:5과 9:23에서 발전되었다. 이 문학적 단위에서는 출애굽과 광야방랑 시기를 구약적 배경으로써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속박(죄에 대한 속박)으로부터의 두 번째이자 최종적인 출애굽을 상징한다.

15:6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이 일곱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의 가장 안 쪽에서 나옴으로써, 하나님의 임재하심에서 나옴을 인하여 자신들이 가진 권위를 보여준다. 랍비들의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힘센 일곱 천사를 “임재의 천사들”로 부른다.

그들의 옷이 (1) “세마포”(리논 또는 리노운[P⁴⁷])로서 출 28:4에서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으로 묘사된다(UBS⁴는 “B”등급을 주고 있다) (2) ASV는 이것을 “보석”(리쑌)으로 번역하여 헬라어 대문자체 사본 A, C를 따른다. 이것은 겔 28:13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옷 입은 천사를 암시할 것이다.

만일 (1) 가장 어려운 본문이 원래의 본문일 것이다 (2) 여러 번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하는 본문이 원래의 본문일 것이다라는 본문비평의 두 가지 기본적 전제(부록을 보라)를 염두에 둘 때, “보석”이 원래의 것일 수 있다.

▣ “가슴에 금 띠를 띠고” 이것은 단 10:5에 나오는 천사 또는 계 1:18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매우 비슷하다. 이들은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아주 강력한 천사들이 분명하다.

15:7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이 얇은 금 대접들이 5:8 에서 언급된다. 거기서는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겼다. 이것은 계시록 전체를 통하여 박해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와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연결시킨다(7:14 의 설명을 보라).

▣ “영원토록 살아 계신” 이것은 야웨라는 용어의 어근과 관련을 가진 맹세이다(참조, 출 3:14). 야웨께서는 홀로 살아 계신 분이시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1:8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을 보라.
“영원토록”에 대하여는 1:6 의 특별주제를 보라.

15:8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구약의 일반적 묘사였다(참조, 출 19:18; 40:34; 왕상 8:10-11; 대하 5:13-14; 사 6:4). 이것은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영광의 구름인 *쉐키나*에 대한 암시이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이것이 대접과 관련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의를 간구하며 드린 기도의 향이 많음을 나타낸다.

특별주제: 영광(독사)

“영광”이라는 성경의 개념은 정의하기가 어렵다. 복음을 알고 영광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이 신자의 영광이다(참조, 1:29-31; 램 9:23-24).

구약에서 “영광”(카보드, BDB 217)을 뜻하는 가장 일반적인 히브리어는 원래 저울(“무겁다”)과 관련된 상업 용어였다. 무게가 나가는 것은 가치가 있거나 내재적인 가치를 가졌다. 종종 밝음의 개념이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여기에 첨가되었다(참조, 출 19:16-18; 24:17; 사 60:1-2). 하나님은 홀로 귀하시며 영예로우시다. 그는 매우 빛나시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그를 볼 수 없다(참조, 출 33:17-23; 사 6:5).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야웨를 알 수 있다(참조, 요 14:8-11; 골 1:15; 히 1:3). “영광”이란 단어는 애매 모호한 부분이 있다:

1. 이것은 “하나님의 의”와 평행을 이룬다
2.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혹은 “온전하심”을 가리킨다
3.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일컬을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참조, 창 1:26-27; 5:1; 9:6) 후에 반역 때문에 그것이 망가졌다(참조, 창 3:1-22). 이 용어는 광야 방랑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출 16:7,10; 레 9:23; 민 14:10 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것은 일단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된 후에는 아무도 이것을 멈출 수 없음을 뜻할 것이다. 이 진노를 16:9 및 11 절과 신학적으로 서로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다. 그 본문에서는 구축을 아직도 염두에 두고 있다. 심지어 대접의 재앙이 진행중인 때에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입었으나 타락한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 오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그러한 희망이 남아 있었다!

요한 계시록 16 장

개역개정 16:1

¹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하더라

16:1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계 15:8 은 이것이 하나님 자신의 목소리임을 밝힌다. 마지막 그룹에 속하는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을 멸망시킬 커다란 권세를 가졌다. 구약에서는 죽음의 천사와 멸망의 천사를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로 말한다.

▣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이것은 구약에서 믿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참조, 시 79:6; 램 10:25; 겔 22:31; 습 3:8). 이 용어는 종종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문맥에서 사용되었다. 다음의 일들을 인하여 진노하심이 있다

1. 그들의 신성모독을 인하여(참조, 9 절)
 2. 그들이 신자들을 박해함을 인하여(참조, 6 절)
 3. 그들이 완고하게 회개하기를 거부함을 인하여(참조, 9:20-21; 16:9-12)
-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는 7:14 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개역개정 16:2

²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16:2 이 처음 대접은 이집트에 행해진 재앙과 상당히 비슷하다(참조, 출 9:10-11). 어떤 이는 이것이 신 28:35 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그 본문은 모세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다루는 저주와 축복의 내용이다. 이집트에서 행해진 재앙처럼 이 재앙들도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개역개정 16:3

³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16:3-4 두 번째와 세 번째 대접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나팔과 평행을 이루며(참조, 계 8:8-11), 또한 출 7:17-21; 시 78:44 에 나타난 출애굽시의 재앙을 반영한다.

개역개정 16:4-7

⁴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⁵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⁶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⁷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16:5 “물을 차지한 천사” 이것은 신구약 중간시기의 유대 묵시문학적 용어로서 에녹 1 서 66:2 에 있는 내용을 반영한다. 계시록에는 바람을 주관하는 천사(참조, 7:1)와 불을 주관하는 천사(참조, 14:8)가 나오는데, 물을 주관하는 천사에 대한 내용도 그리 낮은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구약 중간기의 묵시문학에서는 천사들의 중재와 활동이 자주 언급된다. 우리는 현대 서구의 신학적 체계에서 제시하는 종말론으로서가 아니라, 그 시대의 고유한 장르로서 계시록을 이해해야만 한다.

▣ “의로우시도다” 이것은 신 32 장(특히 5 절)에 있는 모세의 노래 혹은 시 119:137 에 대한 암시이다.

▣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1:4,8; 4:8 에 미래적 요소가 전혀 없음을 주목하라. 그 본문들에는 미래 시제가 전혀 없다(참조, 11:17). 이것은 마지막이다! 이것은 의도적인 내용이다; 1:4 에 있는 삼중적 요소를 주목하여 보라. 시간은 더 이상 없다! 19 장 뿐 아니라 계시록 전체에서 끝(즉, *파루시야*)이 여러 번 계시되고 있다. 인과 나팔과 대접은 재림 및 역사의 절정으로 끝마친다. 나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계시록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책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다루는 것으로 이해함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16:6 “성도들” 5:8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선지자들” 구약의 예언에 대하여는 10:7 의 특별주제를 보라.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신약의 예언

- I. 이것은 구약의 예언(BDB 611)을 야웨로부터 받은 영감된 계시로 보는 랍비들의 견해와 같은 것이 아니다(참조, 행 3:18,21; 롬 16:26). 선지자들만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다
 - 가. 모세는 선지자로 불렸다(참조, 신 18:15-21).
 - 나. 역사서(여호수아 - 열왕기서[룻기는 제외])는 “전기 예언서”로 불렸다(참조, 행 3:24).
 -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전하는데 있어서 선지자들은 대체사장의 자리를 대신했다(참조, 이사야 - 말라기).
 - 라. 히브리 성경의 두 번째 부분은 “예언서”이다(참조, 마 5:17; 22:40; 눅 16:16; 24:25,27; 롬 3:21).
- II. 신약에서 이 개념은 여러 의미로 사용되었다.
 - 가. 구약의 선지자와 그들이 전한 영감받은 메시지를 가리킨다(참조, 마 2:23; 5:12; 11:13; 13:14; 롬 1:2)
 - 나. 공동체에 대한 것보다 개인에게 준 메시지를 가리킨다(즉, 구약의 선지자들은 주로 이스라엘에게 전했다)
 - 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침례(세례)요한(참조, 마 11:9; 14:5; 21:26; 눅 1:76)과 예수를 가리킨다(참조, 마 13:57; 21:11,46; 눅 4:24; 7:16; 13:33; 24:19). 예수님을 선지자들보다도 더 위대한 분으로 나타내었다(참조, 마 11:9; 12:41; 눅 7:26)
 - 라. 신약에서 언급한 다른 선지자들
 1.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초기 삶(즉, 마리아의 기억)
 - ㄱ. 엘리사벳(참조, 눅 1:41-42)
 - ㄴ. 사가랴(참조, 눅 1:67-79)
 - ㄷ. 시므온(참조, 눅 2:25-35)

- 르. 안나(참조, 눅 2:36)
2. 아이러니한 예고(참조, 가야바, 요 11:51)
- 마. 복음을 전한 사람을 가리킨다(말씀을 전하는 은사에 대한 목록은 고전 12:28-29; 엡 4:11 에 나온다)
- 바. 교회 안에서 계속되는 은사로서 언급된다(참조, 마 23:34; 행 13:1; 15:32; 롬 12:6; 고전 12:10,28-29; 13:2; 엡 4:11). 어떤 때는 이것이 여자에게 대해 사용되었다(참조, 눅 2:36; 행 2:17; 21:9; 고전 11:4-5)
- 사. 묵시적 책인 요한계시록을 가리킨다(참조, 계 1:3; 22:7,10,18,19)
- III. 신약의 선지자
- 가.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것(즉, 성경)과 같은 의미에서 영감받은 계시를 준 것이 아니었다. 행 6:7; 13:8; 14:22; 갈 1:23; 3:23; 6:10; 빌 1:27; 유다서 3 절과 20 절에서 사용된 “믿음”(즉, 완성된 복음이라는 의미)이라는 표현때문에 이러한 진술이 가능하다.
이 개념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완전한 표현이 사용된 유다서 3 절에서 분명하게 된다. “단번에” 주신 믿음은 기독교의 진리, 교리, 개념, 세계관과 관련된 가르침을 가리킨다. 이렇듯 “단번에”를 통해 나타난 강조는 신학적으로 영감을 신약 이후에 쓰여진 책이나 성경 이외의 책들에 대하여가 아니라, 신약의 기록으로 이를 제한시키는 성경적 근거가 된다. 애매하고, 확실치 않고, 불분명한 내용이 신약에 많이 있음에도, 믿음과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아주 분명하게 그 안에 기록되어 있다고 신자들은 믿음의 고백을 한다. 이 개념은 “계시의 삼각형”으로 불리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1.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역사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계시)
 2. 하나님은 인간 저자를 택하시 그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록하고 설명하게 하셨다(영감)
 3. 하나님은 인간이 마음과 생각을 열어 기록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셨다—이는 완벽한 것이라기보다는 구원과 효과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필요한 정도이다(조명)
요점은 영감이 성경의 저자에게만 한정된다는 사실에 있다. 성경 이외에 권위를 갖는 기록, 비전, 계시가 없다. 정경은 마쳐졌다. 우리는 하나님께 적합하게 응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 진리는 성경 저자들이 일치하고 있음에 반해 진실되고 경건한 신자들은 불일치하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오늘날의 어떤 저자나 강사도 성경의 저자들이 누렸던 정도의 신적 인도함을 갖지 못한다.
- 나. 어떤 의미에서 신약의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와 비슷하다.
1. 미래 사건의 예언(참조, 바울, 행 27:22; 아가보, 행 11:27-28; 21:10-11; 이튿날 언급되지 않은 다른 선지자들, 행 20:23)
 2. 심판을 선언함(참조, 바울, 행 13:11; 28:25-28)
 3. 상징적 행동으로 생동감있게 묘사된 사건(참조, 아가보, 행 21:11)
- 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어떤 때는 예언적 방법으로 전했다(참조, 행 11:27-28; 20:23; 21:10-11). 하지만 이 방법은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다. 고린도전서에서 예언은 기본적으로 복음전함을 뜻한다(참조, 14:24, 39).
- 라. 예언은 하나님의 진리를 각각의 새 상황, 문화, 시대에 적합한 실제적 적용을 하도록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방법이었다(참조, 고전 14:3).
- 마. 예언은 바울이 세운 초기의 교회에서 활발하게 행해졌고(참조, 고전 11:4-5; 12:28,29; 13:29; 14:1,3, 4,5,6,22,24,29,31,32,37,39; 엡 2:20; 3:5; 4:11; 살전 5:20), 디다캐(1 세기 말이나 2 세기 경에 쓰여진 책, 정확한 연대는 불확실함)와 제 2-3 세기에 북 아프리카에서 나타난 몬타니즘에서 언급된다.
- IV. 신약의 은사는 그쳐졌는가?
- 가. 이 질문은 답하기 어렵다. 은사의 목적을 정의함으로써 이 문제를 명확히 하게 된다. 은사는 초기에 행해진 복음 설교를 확증하기 위함이었는가 아니면 교회가 잃어버려진 세상과 자신에 대한 사역을 계속해서 지원하기 위함이었는가?
- 나. 이 대답을 위해서 교회사를 고찰할 것인가 아니면 신약성경 자체를 살펴볼 것인가? 신약에는 영적은사가 일시적이었던 언급이 없다. 사랑 이외에는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다는 고전 13:8-13 을 가지고 이 질문에 답하려는 사람들은 이 본문의 저자가 말하려는 의도를 오용하는 것이다.
- 다. 나는 교회사가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신약이 권위를 갖기 때문에 신자들은 반드시 은사가 계속된다고 보아야 된다고 말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한편 나는 문화가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어떤 구절은 명백히 다른 문화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예, 거룩한 입맞춤, 여자가 수건을 머리에 쓰는 것, 집에서 교회로 모이는 것 등). 만일 문화가 본문에 영향을 미친다면 왜 교회는 안되는가?
- 라. 이것은 단정적으로 답할 수 있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다. 어떤 신자들은 은사가 “그쳤다”고 말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할 것이다. 많은 해석적 문제와 같이 이 영역에서도 신자의 생각이 열쇠가 된다. 신약의 내용이 애매하고 문화적 영향을 나타낸다. 어떤 본문이 문화/역사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어떤 본문이 영원한 내용인지는 결정해야 할 어려운 사항이다(참조, 피와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4-19, 68-77 쪽). 이 부분을 다룸에 있어서 롬 14:1-15:13 과 고전 8-10 장에 나오는 자유와 책임이 중요하다. 우리가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 있다.

1. 각 신자가 반드시 자신이 갖고 있는 빛에 따라 믿음으로 걸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보신다.
 2. 다른 신자들이 자신이 가진 신앙의 이해에 따라 걷도록 각 신자가 반드시 서로 허용해야만 한다. 성경의 영역에 반드시 관용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원하신다.
- 마. 이 문제의 결론을 내리자면, 기독교는 믿음과 사랑하는 삶이지 완전한 신학이 아니라는 점이다. 명확한 이해나 완전한 신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과의 사귄다.

16:7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9:13에서는 제단의 뿔이 이미 말하였다. 이것은 (1)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참조, 6:9; 14:18) 혹은 (2)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참조, 8:3-5)를 가리킨다. 이것은 단순히 삽화적인 강조를 하기 위한 의인화일 것이다.

▣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15:3b의 설명을 보고, 1:8의 특별주제를 보라.

▣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이것은 시 19:9; 119:137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 이것은 매우 혹독한 박해에 직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참조, 15:4; 19:2). 하나님께서는 한 날에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이다!

개역개정 16:8-9

⁸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⁹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6:8 이 넷째 대접은 6:12에 나오는 여섯째 인과 비슷하며, 8:12에 나오는 넷째 나팔과는 상당히 비슷하다.

▣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해가 시 19:1-6에서와 같이 의인화 되었다. 하나님께서 천체를 주관하고 계신다(참조, 창 1:14-19). 그것들은 신이 아니다. 천체는 전달자(자연 계시)이며 계절을 알리는 표식이 된다(예배를 드리도록).

특별주제: 불

성경에서 불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가. 긍정적 의미

1. 따뜻하게 함(참조, 사 44:15; 요 18:18)
2. 빛을 비춤(참조, 사 50:11; 마 25:1-13)
3. 음식을 익힘(참조, 출 12:8; 사 44:15-16; 요 21:9)
4. 정화함(참조, 민 31:22-23; 잠 17:3; 사 1:25; 6:6-8; 렘 6:29; 말 3:2-3)
5. 거룩함(참조, 창 15:17; 출 3:2; 19:18; 겔 1:27; 히 12:29)
6. 하나님의 인도하심(참조, 출 13:21; 민 14:14; 왕상 18:24)
7.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심(참조, 행 2:3)
8. 보호하심(참조, 숙 2:5)

나. 부정적 의미

1. 태움(참조, 수 6:24; 8:8; 11:11; 마 22:7)
2. 멸망시킴(참조, 창 19:24; 레 10:1-2)
3. 화냄(참조, 민 21:28; 사 10:16; 숙 12:6)
4. 벌함(참조, 창 38:24; 레 20:14; 21:9; 수 7:15)
5. 거짓된 종말론적 표식(참조, 계 13:13)

- 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이라는 은유적 표현으로써 나타난다
1. 그의 진노가 불타고 있다(참조, 호 8:5; 습 3:8)
 2. 그가 불을 쏟고 있다(참조, 나 1:6)
 3. 영원한 불(참조, 렘 15:14; 17:4)
 4. 종말론적 심판(참조, 마 3:10; 13:40; 요 15:6; 살후 1:7; 벧후 3:7-10; 계 8:7; 13:13; 16:8)
- 라. 성경에서 사용한 다른 은유적 표현과 같이(즉, 누룩, 사자) 불은 문맥에 따라서 축복 혹은 저주를 나타낸다.

16:9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인과 나팔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은 구속을 위함이었다(참조, 9:20-21; 14:6-7; 16:9,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고 반역하는 자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했다. 대접에서는 회개의 기회가 지나갔다; 오직 심판만 남아 있을 뿐이다!

개역개정 16:10-11

¹⁰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¹¹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6:10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사탄의 보좌가 11:7 에서 짐승에게 주어졌다. 그의 능력이 13:2 이하에서 묘사된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그가 지배하는 세상 정부의 수도를 가리킬 것이다.

▣ “그 나라가”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왕국을 가지고 계시듯이, 사탄도 한 왕국을 가지고 있다. 이후에 나오는 장들에서는 줄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사역을 악한 자의 삼위일체가 흉내내고 있다. 사탄이 짐승을 통해 다스리는 왕국은 국제적인 왕국이다(참조, 13:14-17).

▣ “곧 어두워지며” 이것은 이집트에서 행한 재앙에 대한 또 다른 암시이다(참조, 출 10:21-23). 하나님께서 빛을 주관하고 계신다(참조, 8:12; 9:2; 창 1:5,14-18).

16:11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의 근원과 이유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회개하여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에 내리신 재앙은 이집트의 거짓 신들을 드러내고 또 이집트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신 27-28 장에 나오는 “저주”의 내용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믿음과 순종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었다. 심판은 구속적인 목적을 지닌다(마지막 심판을 제외하고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11:13 에서 이미 사용한 호칭이었다. 이것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인들이 사용한 신의 호칭으로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대해 종종 사용한 호칭이었다(참조, 2:18, www.freebiblecommentary.org 에서 내가 저술한 다니엘서 주석을 보라).

개역개정 16:12-16

¹²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¹³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¹⁴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¹⁵보라 내가 도둑 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¹⁶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16:12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이 강이 9:13-19 에서 언급되었는데, 거기서는 사람들을 고문하기 위하여 악한 영에 속한 군대가 그 경계를 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유브라테스 강의 발원지는 약속의 땅의 북쪽 경계에 있었으며 로마 제국의 경계 밖에 있었다. 악한 군대를 지칭하는 이 은유적 표현의 역사적 자료를 팔티안 기병에서 찾아볼 수 있다. 로마에 반대하는 이 무서운 침략자들은 로마 군대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 “강물이 말라서” 구약에서는 종종 물이 마르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한다. 그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1. 홍해(참조, 출 14:21)
2. 요단 강(수 3:17)
3. 예언서에 있는 여러 암시들(참조, 사 11:15-16; 44:27; 렘 51:36; 습 10:11)

이러한 물리적 행위는 마지막 때의 갈등을 절정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살후 2:6-7 (“무엇이/누가 막으리요”)과 평행을 이룬다.

▣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에 예비되었더라” 어떻게 12 절에 나오는 “동방의 왕들”이 14 절에 나오는 “온 세상의 왕들”과 관련이 있는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1. 그들은 같은 자들이다
2. 그들은 적대적인 자들이다(네로 레디비비우스 신화와 팔티안 군대)
3. 동방의 왕들은 하나님의 군대를 가리킨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바벨론에서 불러오심에 대한 암시이다(참조, 사 41:2,25; 45:1-3; 46:11). 문맥에서 볼 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짐승의 군대를 공격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임이 가능하다(즉, 로마를 공격하는 팔티안에 대한 역사적 암시). 그러나 14 절과 19 장과 20 장은 인간의 군대가 오직 하나만 있으며, 또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음을 밝힌다(참조, 시 2 편; 렘 25:15-26).

16:13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것은 두 번째 짐승(참조, 13:11)을 처음으로 “거짓 선지자”라고 일컫는 절이다. 이후부터 이 짐승은 줄곧 이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참조, 16:13; 19:20; 21:10).

이 셋이 사탄의 삼위일체를 가리킨다. 그들은 두 단계에 걸쳐 패한다: 두 짐승이 맛기도 골짜기에서 패하고(참조, 12-16 절) 사탄은 그리스도의 지상통치 마지막에 패한다(참조, 20:7-10).

▣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 “더러운”이라는 용어는 신약에서 귀신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왜 그들이 개구리로 묘사되는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1. 이것은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다(참조, 출 8:6)
2. 조로아스터교에서 개구리는 악의 궁극적인 상징이었다
3. 이것은 부정한 짐승을 가리킨다(참조, 레 11:10,31)

특별주제: 귀신(더러운 영)

- 가. 고대인들은 정령 숭배자들이었다. 그들은 자연의 힘, 동물, 자연물에 인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생명은 사람과 이런 영적 존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설명되었다.
- 나. 이와 같은 의인화는 다신교(많은 신들)로 나타났다. 보통 귀신(켄날)은 개별적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좀 더 낮은 신 또는 반신반인(좋거나 악한)이었다.
 1. 메소포타미아, 혼돈과 투쟁
 2. 이집트, 질서와 기능
 3. 가나안, W. F. 알브라이트의 *고고학파 이스라엘의 종교*(다섯 번째 개정판), 67-92 쪽을 보라.
- 다. 구약은 강한 유일신 사상으로 인해 낮은 신, 천사, 또는 귀신의 주제를 다루거나 이를 발전시키지 않는다(참조, 출 8:10; 9:14; 15:11; 신 4:35,39; 6:4; 33:26; 시 35:10; 71:19; 86:6; 사 46:9; 렘 10:6-7; 미 7:18). 구약은 이방 민족의 거짓 신을 언급하고 그것들의 몇몇 이름을 말한다.
 1. 세임(색마[바커스를 섬기는 반인반수의 숲의 신] 또는 털 많은 귀신, 참조, 레 17:7; 대하 11:15)
 2. 킬리쓰(여성, 부추기는 귀신, 참조, 사 34:14)
 3. 마웨트(지하의 가나안 신에게 사용한 죽음이라는 히브리 용어, *모트*, 참조, 사 28:15,18; 렘 9:21; 그리고 아마도 신 28:22)
 4. 레웨프(재앙, 참조, 신 33:29; 시 78:48; 합 3:9)
 5. 데베르(전염병, 참조, 시 91:5-6; 합 3:5)
 6. 아사셀(불확실한 이름이지만 아마도 사막 귀신이거나 장소 이름, 참조, 레 16:8,10,26)(이 예들은 *쥬다이카 백과사전* 제 5 권의 1523 쪽에서 취한 것이다.)
 어쨌든 구약에는 이원론주의 개념도 없고 야웨께로부터 독립하여 있는 천사는 없다. 사탄은 야웨의 종(참조, 욥 1-3 장; 숙 3 장)이지 적이 아니다(참조, A. B. 데이빗슨, *구약신학* 300-306 쪽).
- 라. 유대교는 바벨론 포로 기간(주전 586-538) 동안 발전되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조로아스터교의 인격화된 이원주의(*마즈다* 또는 *올마즈드*라고 불린 좋고 높은 신과 *아리만*이라고 불린 악한 적수의 신)을 신봉하던 페르시아에 영향을 받았다. 이것은 포로시대 이후의 유대교가 야웨와 그의 천사 및 사탄과 그의 악마로 인격화시킨 이원주의를 수용하게 했다.

인격화시킨 악에 대한 유대교의 신학은 알프레드 에더셰임의 *메시아 예수의 일생과 시간*(제 2 권, 부록 XIII[749-863 쪽]과 XVI[770-776 쪽])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잘 제시하고 있다. 유대교는 악을 세 가지로 인격화시킨다.

 1. 사탄이나 삼마엘
 2.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의도(*에트저 하라*)
 3. 죽음의 천사

에더샤임은 이것을 (1) 고소자 (2) 유혹자 (3) 처벌자라고 특징짓는다(제 2 권 756 쪽). 포로시대 이후의 유대교와 신약에서의 악에 대한 제시와 설명은 신학적으로 분명히 다르다.

- 마. 신약(특별히 복음서)은 사람에게와 악에게 대한 악한 영적 존재의 실재와 방해를 주장한다(유대교에서 사탄은 인간의 적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통치와 왕국을 반대한다.
 예수님은 이런 악마적 존재와 마주 대하시고 내쫓으셨으며 또한 사람으로부터 (1) 더러운 영(참조, 눅 4:36; 6:18) 또는 (2) 악한 영(참조, 눅 7:21; 8:2)을 불러 내셨다. 예수님은 병든 것(육체적 그리고 정신적)과 귀신적인 것을 명확히 구분하셨다. 예수님은 악한 영을 인식하시고 내쫓으시는 것을 통해 그의 능력과 영적 통찰력을 나타내셨다. 악한 영은 종종 예수님을 인식했고 예수님께 말하려고 시도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증언을 거부하시고 그들에게 조용히 할 것을 명령하셨으며 그들을 내쫓으셨다. 귀신을 내쫓는 일은 사탄의 왕국을 쳐부수는 표이다.
 신약의 사도들이 쓴 서신서에는 놀라우리만큼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이 적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영적은사 목록에 전혀 없고, 또한 사역자나 믿는 자들의 장래 세대를 위해 주어진 축사의 방법이나 절차도 없다.
- 바. 악은 실재한다; 악은 인격체이다; 악은 현존한다. 이것의 기원이나 목적은 전혀 계시되지 않았다. 성경은 악의 실재를 단언하고 그것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실제로 궁극적인 이원론은 없다. 하나님께서 전체를 주장하신다; 악은 패배하였고 심판받았으며 피조물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 사. 하나님의 사람은 악을 대적해야만 한다(참조, 약 4:7). 악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치할 수는 없지만(참조, 요일 5:18) 그들은 악에게 유혹받을 수 있고 그들의 증거나 영향력은 악에게 손상을 입을 수 있다(참조, 엡 6:10-18). 악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에 드러난 한 부분이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재 정의할 권리가 없다(루돌프 발트만의 비신화화); 악을 비인격화(폴 틸리히의 사회적 구조)하거나 그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완전하게 설명하려고 시도하지 말라(시그먼트 프로이트). 이것의 영향력이 퍼져 있지만 이것은 실패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16:14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이 이적과 기사가들이 모든 불신자들을 그릇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조금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은 상당히 흥미롭다(참조, 13:13; 마 24:24; 막 13:22; 살후 2:9-11). 이 마지막 문학적 단위(대접)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날 일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일어날 일을 비교하여 나타낸다.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평화를 가져오시기 위하여 진리와 의와 공훈의 말씀을 하시지만, 개구리 같은 귀신의 영은 거짓을 말하고 또 전쟁을 위하여 나라들을 불러 모은다.

▣ “은 천하 왕들에게 가서” 이것은 시 2:2 에 대한 암시로서, 계시록의 마지막 장들에 있는 묘사의 배경을 이룬다.

▣ “하나님 곧 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마지막 때에 있는 전쟁에 대한 묘사가 6:2-8; 11:7-10; 12:17; 16:14; 17:14; 19:19; 20:8 에 나온다. 이 모든 본문은 한 가지 전쟁을 여러 각도에서 묘사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즉, 평행법).

16:15 이 삽입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하신 말씀이다. 이것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일곱 축복 가운데 세 번째 내용이다(참조, 1:3; 14:13; 16:15; 19:9; 20:6; 22:7,14).

▣ “내가 도둑 같이 오리니”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참조, 마 24:43-44; 눅 12:39-40)은 이미 계 3:3 에서 나왔다. 이 내용은 살전 5:2 과 뱀후 3:10 을 암시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파루시아*(재림)의 때에 심판을 위해 어떤 순간이라도 갑자기 오심을 나타낸다.

특별주제: 재림

이것은 문자적으로 “*파루시아*까지”로서 “임재”를 뜻하며 왕의 방문을 나타내기 위해 쓰였다. 재림을 뜻하는 신약의 다른 용어들은 (1) *에피파네이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나타남” (2) *아포칼립시스* “베일을 벗김” (3) “주님의 날”과 이와 비슷한 구이다.

신약 전체는 구약의 세계관으로 쓰였으며 다음을 주장한다

1. 현재의 악하고 반역적인 시대
2. 오고있는 의의 새 시대
3. 이것은 메시아(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일을 통한 성령의 작용으로 초래되었다

신약의 저자들이 이스라엘의 기대를 약간 수정했기 때문에 점진적 계시에 따른 신학적 가정이 요구된다. 군사적이고 국가적(이스라엘)인 메시아가 오는 것 대신에 두 번의 오심이 있다. 첫 번째 오심은 나사렛 예수의 수태와 태어 나심을 통한 하나님의 성육신이였다. 그는 군인이거나 재판장으로서가 아니라 사 53 장에 있는 바 고난받는 중으로 오셨다. 또한 속 9:9 의 나귀 새끼(전쟁의 말이나 왕의 노새가 아닌)를 탄 겸손한 분이셨다. 그의 첫 번째 오심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를 열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약에서는 보이지 않거나 최소한 분명치 않은 두 시대에 대해 유대인들이 말한다. 메시아께서 두 번 오심 사이에 긴장이 있다. 이것은 유대인이 말하는 두 시대와 겹쳐진다. 사실상 메시아가 두 번 오심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야웨의 현신을 강조하여 드러낸다(참조, 창 3:15; 12:3; 출 19:5; 선지자들의 설교, 특히 이사야서와 요나서).

대부분의 예언이 첫 번째 오심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구약의 성취를 기다리지 않고 있었다(참조, *어떻게 성경을 빠르게 읽을 수 있는가*, 165-166 쪽). 믿는 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 바라던 의의 새시대가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일 곧 부활하신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께서 영광스럽게 오시는 일이다(참조, 마 6:10). 구약의 예언은 부정확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이다. 그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야웨의 능력과 권위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이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이것은 신약 전체의 세계관과 골격을 형성하는 개념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모두 바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과 그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과의 교제는 회복될 것이다. 악이 심판을 받고 제거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하지 않으며 실패할 수도 없다!

■ “깨어 자기 옷을 지켜...복이 있도다” 이것은 신실한 신자들에게 주시는 일곱 축복 가운데 세 번째 내용이다(참조, 1:3; 14:13; 16:15; 19:9; 20:6; 22:7,14). 이것은 막 13:33-37; 눅 12:37 에 나오는 바 종말에 대한 요약적인 경고의 말씀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만일 ‘교회가 이 박해의 때에 비밀스럽게 휴거된다는 설’을 받아들인다면, 이 절은 적절하지 않은 말씀이 되어 버린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 www.freebiblecommentary.org 에서 마 24:37-42 의 주석을 보라.

■ “별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이것은 계 3:18 에 대한 암시이다. 구약에서 별거벗음은 심판의 상징이었다(참조, 겔 23:29; 호 2:3; 암 2:16; 미 1:8). 그러나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림을 뜻하지 않는다. 이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자신들의 ‘활동적이지 않고 삶으로써 믿음을 드러내지 못함’을 인하여 부끄러워 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재판장과 정복자로서 오심에 대하여는 19:11-16 에 나타나 있는데, 바로 이러한 내용은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 기대한 바였다.

16:16 “세 영이... 왕들을 모으더라” 이것은 20:8 에서 반복되어 나타난다.

■ NASB “히브리어로는 하르-마켓돈이라 불린다”
 NKJV, NJB “히브리어로는 아마겟돈”
 NRSV “히브리어는 하르마켓돈이라 불린다”
 TEV “히브리어로는 아마겟돈이다”

이 단어는 여러 헬라이어 사본에서 다르게 표기되었다. 이 이름과 관련하여 여러 이론이 제시되었다(히브리어나 헬라이어로 된 어느 책에서도 이 이름이 나타나지 않음).

1. 이것은 “므깃도 산”을 가리킨다. 이곳은 므낫세 지파에게 할당된 도시로서 북쪽에 있는 산 위의 도시임
2. 이것은 “므깃도 시”를 가리킨다. 문제는 그 도시의 정확한 철자와 일치하지 않는 점에 있다
3. 이것은 사 14:13 에 나오는 “집회의 산”이라는 구를 번역한 것이다. 이곳은 사탄이 공격하는 바 ‘하나님께 철저히 속한 산’을 가리킨다
4. 이것은 약속의 땅 전체를 가리킨다(참조, “이스라엘의 산들”이 겔 38:8,20,21; 39:2,4,17)에서 언급됨
5. 이것은 “결실하는 산”을 가리키는데 상징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나타낸다. 마지막 때에 있을 선과 악의 최종 전쟁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다(참조, 요엘의 예언)
6. “므깃도”의 어근은 “자르다 혹은 공격하다”이다. 이것은 렘 51:25 에 나오는 “멸망시키는 산”을 뜻하고 상징적으로는 로마의 멸망을 나타낸다.

요한은 잘 알려진 도시의 철자를 조금 바꾸어 사용했다(메즈거의 *본문주석*, 755 쪽을 보라). 이것은 그가 7:5-8 에서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열두 지파의 이름을 부정확하게 제시한 것과 같은 경우이다. 이러한 상징적 해석은 9:11 에서 “히브리어로는”의 구를 사용하여 상징성을 나타내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이스라엘 골짜기 혹은 에스드렐논 평지에서 수많은 구약 시대의 전쟁이 있었음은 사실이다(참조, 사 5:19-21; 왕하 9:27; 23:29-30; 대하 35:22; 슥 12:11). 메소포타미아의 열강들이 이 북쪽 통로를 사용하여 침공해 온 일은 문화적으로 볼 때 악을 상징하였다(참조, 사 14:31; 렘 1:13-14; 4:6; 10:22; 46:20-24; 47:2-7; 50:3,9,41; 51:48; 겔 38:6,15; 39:2).

개역개정 16:17-21

¹⁷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¹⁸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¹⁸ 번개와 음성들과 우렛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¹⁹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²⁰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 없더라 ²¹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16:17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이것은 엡 2:2 에 나오는 바 사탄의 왕국을 가리킨다. 1 세기에 살던 사람들은 땅 위의 공중을 악의 영역으로 여겼다. 악과의 전쟁이 끝난다(참조, 17c-21 절).

16:18 이 표현은 계시록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다(참조, 4:5; 8:5; 11:19; 16:18).

16:19 “큰 성이” 어떤 이는 11:8 을 인하여 이 성이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본다. 그러나 나는 11:8 도 로마를 상징한다고 생각한다(참조, 11:8; 16:19; 17:18; 18:10,18-19,21). 로마가 큰 음녀 바벨론으로 묘사되고 있다(참조, 14:8).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고대 사회의 중심지였다. 요한의 시대에 로마는 교회를 박해한 황제숭배의 중심지였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마지막 때에는 또 다른 세계적 도시가 이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요한은 17-18 장에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타락한 인간 정부의 수도가 멸망할 것을 계속하여 말한다.

▣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것은 겔 5 장에 있는 바 철저한 패배의 환상에 대한 암시이다.

▣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이것은 우리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께 대항하는 타락한 인간의 연합정부가 패배함을 나타낸다(참조, 시 2 편). 10:11 의 설명을 보라.

▣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라”라는 구는 종종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참조, 18:5; 19:15). 이 특별한 심판의 겁에 대하여는 14:10 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술취함으로 말했다(참조, 시 60:3; 75:8; 사 51:17,22; 렘 25:15-16,27-28; 14:10 의 특별주제를 보라).

“진노”는 *오르케*라는 용어이다. 7:14 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

16:20 “각 섬도 없어지고” 이것은 여섯째 인과 비슷한 내용이다(참조, 6:14).

▣ “산악도 간 데 없더라” 이것은 구약에서 마지막 때에 있을 대 변동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다(참조, 시 97:5; 미 1:4; 나 1:5).

16:21 “큰 우박” 우박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다(참조, 수 10:11; 사 28:2). 이것은 이집트에 있었던 재앙을 가리키는 암시일 것이다(참조, 출 9:23-24). 겔 38:22 에서는 우박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원수에게 있음을 말한다. 우박의 무게는 다양하다.

▣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이것은 문자적으로 “한 달란트의 무게”를 뜻한다. 고대 근동에서 “달란트”의 무게는 22 kg ~ 62 kg 까지 다양했다. 그 정확한 무게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우박이 가져 올 피해와 죽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과장적인 무게로 여겨진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유리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2. 하나님께서 왜 요한에게 하늘에 있는 장막의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3.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과 이집트에 있었던 재앙 사이의 비슷한 점을 말하라.
4. 16:12 에 있는 동방의 왕들과 16:14 에 있는 온 땅의 왕들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
5. 아마겟돈은 무엇 혹은 어디를 말하는가? (16:16)
6. “큰 성”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16:19)

요한계시록 17-18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⁴)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큰 음녀와 짐승	자주 빛 여인과 자주 빛 짐승	바벨론의 멸망	유명한 음녀	큰 음녀
17:1-6a	17:1-6	17:1-6a	17:1-2	17:1-7
17:6b-14	여인과 짐승의 의미 17:7-18	17:6b-8	17:6b-8	짐승과 음녀의 상징성 17:8
17:15-18		17:9-14	17:9-11 17:12-14	17:9-11 17:12-14
바벨론의 멸망	큰 바벨론의 멸망	멸망한 도시에 대한 만가	바벨론의 멸망	한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다
18:1-3	18:1-8	18:1-3	18:1-3	18:1-3
18:4-8	세계가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함	18:4-8	18:4-8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망할 것을 명함 18:4-8
18:9-10	18:9-20	18:9-10	18:9-10	18:9-13
18:11-20		18:11-20	18:11-17a 18:17b-19	18:14 18:15-17a 18:17b-20
18:21-19:4	바벨론의 최종적 멸망 18:21-24	18:21-24	18:21-23 18:24-19:4	18:21-24

독서의 세 번째 단계 (v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계시록 17:1-18:24 에 대한 문맥적 통찰

- 가. 이 두 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이 내용을 14:8; 16:19 은 물론 18:2,21 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 주제가 서로 다른 문학적 단위인 12-14 장, 15-16 장, 17-19 장에서 각각 나타난다. 이것은 평행법 혹은 반복적으로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 나. 이 두 장에 대한 구약적 배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대의 도시의 멸망을 기뻐하며 기록한 만가에서 나타난다:
 1. 바벨론(참조, 사 13,14,21 장; 램 50-51 장)
 2. 두로(참조, 사 23 장; 겔 26-28 장)
 3. 니스웨(참조, 나훔)
 4. 사악한 예루살렘(참조, 사 1:1-26; 겔 16:51-52)
- 다. 타락한 세계적 조직이 하나님께 적대하는 이러한 개념이 시 2 편; 단 2 장; 7 장; 9:24-27; 마 24 장; 막 13 장; 눅 21 장; 요일 2:15-20 에서 제시된다.
- 라. 계시록은 요한 당시에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계적 제국인 로마의 멸망을 구약의 만가 형식을 사용하여 묘사하고 있다. 한편, 독립적이고 거만하고 물질주의적이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계적 제국은 어느 시대에도 있었다(참조, 요일 2:18). 이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마지막 때의 지도자’요 ‘세계적 제국’으로 드러낼 것이다(참조, 살후 2 장). 이 자세한 설명은 요한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독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또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다시 나타날 것임을 알려준다. 각 세대의 신자들이 계시록을 자신의 시기에 맞는 것으로 맞추려 하는데에 문제가 있었다!

이 책은 1 세기와 관련을 가지며, 각 세기와 관계가 있고 마지막 세기와도 관계가 있다. 그 세세한 사항에 일일이 답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의미를 가졌고(처음 독자들에게), 또 다시 의미를 가질 것이다(마지막 세대에게).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에게는 그 내용이 신비한 것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 책이 일곱 개의 문학적 단위로 중심진리를 제시한다고 이해함이 적절하다. 이 책은 영원토록 적합한 내용을 가진다! 만일 이 책의 내용이 박해받는 마지막 세대의 신자들에게 아주 문자적인 것이라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설명해 줄 주석가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 마. 윌리엄 헨드릭슨(*정복자들 이상으로*)은 계시록의 일곱 단락이 모두 평행을 이룬다고 주장한다(다 항을 보라, 10 쪽). 또한 그는 신자들의 적들이 멸망하는 것도 평행을 이룬다고 주장한다(사탄, 두 짐승,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리스도께 대항하는 세계 조직인 바벨론). 비록 그들의 멸망을 분리하여 다루지만(사탄, 20:7-10; 두 짐승, 19:17-21; 바벨론, 18:1-19:4), 그들은 인과 나팔과 대접의 경우처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다

여러 면에서 볼 때, ‘인(4-7 장)과 나팔(8-11 장)과 대접(15-16 장) 사이에 나타나는 명백한 평행법이 17-19 장 및 20-22 장에까지 연장된다’는 해석적 제시는 흥미롭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17:1

¹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²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³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났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⁴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 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⁵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 하였더라 ⁶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⁷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17:1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또 다른 천사가 21:19 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묘사된다. 16 장에서 대접을 쏟는 일 및 17 장과 18 장의 시간적 관계는

1. 대접을 쏟는 일이 17-18 장보다 나중에 속할 것이다
2. 17-18 장은 대접으로 인한 결과를 보다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이 영적 유혹자에 대하여 5 절에서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의 어머니”라고 하였고, 18:10 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부른다. 앞쪽에 있는 장에서 사용한 이 묘사들은 다음과 같은 모습의 타락한 세계적 조직을 가리킨다:

1. 다니엘 시대의 바벨론
2. 다니엘이 언급하는 신구약 중간기에 속하는 안티오쿠스 4 세
3. 요한 당시에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로마의 황제.

17 장에 나오는 이 사치스럽고 탐욕적이며 강력한 유혹자가 상업적 부를 가진 것으로 18 장에서 말한다. 구약에서는 세 도시가 음녀로 불렸다.

1. 두로(페니키아), 사 23:15-16
2. 니느웨(앗시리아), 나 3:4
3. 예루살렘(열매 없는 유다), 사 1:21; 겔 16:31,35; 23 장.

▣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구약의 램 51:11-14 에 대한 암시인 이 구는 고대 도시인 바벨론을 가리킨다. 이 도시는 유프라테스 강에 위치하였고(니느웨는 티그리스 강에 위치함) 사람이 건설한 긴 관개시설과 수송용 운하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15 절에 비추어 볼 때 이 구는 국제적 왕국으로 해석된다(참조, 단 7:2,3).

17:2

NASB

“그와 더불어 땅의 임금들이 부도덕한 행위를 하였고”

NKJV, NRSV

“그와 더불어 땅의 임금들이 간음하였고”

TEV

“땅의 임금들이 성적 부도덕을 행하였고”

NJB

“그와 더불어 땅의 모든 임금들이 자신들을 매춘하였고”

이 매춘은 두 가지 주요한 면을 가진다:

1. 상업적 연맹(참조, 두로, 사 23:13-18; 니느웨, 나 3:4)
2. 정치적 연맹을 맺고 이를 인준하기 위해 열방의 신들을 예배하는 일(참조, 예루살렘도 사 1:21 과 램 3 장에서 음녀로 불림)
3.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예배함

▣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것은 램 51:7 에 대한 암시이다. 이것은 14:8 에도 나온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구는 계시록에서 거듭 나오는 주제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타락한 사람들, 즉 새롭게 되지 않은 자들을 가리킨다(참조, 3:10; 6:10; 8:13; 11:10; 13:8,14; 17:8).

“취하다”는 심판을 가리키는 구약의 은유적 표현이다(참조, 시 75:6-8).

17:3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 구는 요한이 환상을 기술하려고 시작한 표현이다(참조, 1:10; 4:2; 17:3; 21:10). 많은 주석가들은 계시록의 구조를 이 환상에 기초하여 이해한다. 묵시문학이 매우 정교한 구조를 가짐을 기억하라. 그 구조가 해석에 있어서 열쇠가 되고 있다.

▣ “광야로” 이것은 다음을 뜻할 것이다

1. 안전한 장소를 뜻하는 은유적 표현(참조, 12:6,14, 이것은 이스라엘의 광야방랑 시기에 대한 암시이다)
2. 악과 귀신이 사는 장소(즉, 레 16:8; 17:7)
3. 사 21:1-10 에 나오는 바 고대 도시인 바벨론에 대한 암시, 이것은 심판을 나타냄

요한의 상징적 표현에 상당한 유동성이 있다. 1 절에서는 여자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데(유프라테스 강) 3 절에서는 그녀가 광야에서 자주 빛 짐승을 타고 있다.

▣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 빛”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가리킨다

1. 살인, 참조, 17:6-7
2. 사치, 참조, 18:12-16
3. 붉은 용인 사탄, 참조, 12:3

13:1-10 에서 자세히 짐승에 대해 묘사한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참조, 단 7:9-14; 9:24-27; 11:36-45; 살후 2 장; 요일 2:18).

▣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이것은 13:1,5-6 의 내용과 비슷하다. 이 호칭은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의 황제가 자신을 스스로 신으로 일컬은 일과 관련을 가진다. 그들은 “신,” “구원자,” “주”라는 호칭을 자신들에게 사용하였다. 짐승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의 정치적 권력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사탄의 대표자나 현현’(아마 사 14:13-14 및 겔 28:16-17 에서 제시된)으로서 예배를 받는 일에 있었다(참조, 단 7:8,20; 8:11,25; 9:36,37).

▣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이 묘사는 붉은 용(참조, 12:3)과 바다 짐승(참조, 13:1)에 대한 내용과 비슷하다. 이러한 유사성을 ‘하나님께 대항하는 서로 다른 인물의 연합’를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여기서 수자적 상징인 (1) 일곱 머리는 “완전한” 지식 혹은 마지막 때의 최종적인 세계 지도자를 뜻하며 (2) 열 뿔은 완벽한 권세나 세계적 통치력을 나타낸다(참조, 17:7,9,12,16).

17:4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이 색은 모두 왕의 지위(보라)와 불멸(자주 빛) 혹은 단순히 사치와 부와 풍요를 상징한다(참조, 18:12,16).

▣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이것은 세상적 및 영적 권세와 지위를 상징한다(에스겔은 두로 왕의 교만함을 에텐이라는 상징적 묘사를 사용함으로써 드러낸다, 참조, 겔 28:13).

▣ “금 잔” 이것은 바벨론 도시에 대한 암시이다(참조, 램 51:7).

17:5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세네카의 논란 1:2 및 주베날의 *세타이어즈* 6:122-123 에서는 로마의 음녀가 자신의 이름이나 주인의 이름을 적은 띠를 이마에 띠고 있었다라고 기록한다. 이것은 요한 당시나 계시록의 문맥에 대한 역사적 암시일 것이다; 이것은 불신자들이 이마에 표를 함으로써(참조, 13:16-17; 14:9,11; 15:2; 16:2; 19:20; 20:4)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인을 치신 일을 흉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7:2; 9:4).

▣

NASB	“한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NKJV	“비밀인 큰 바벨론이라”
NRSV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TEV	“비밀스러운 의미: ‘큰 바벨론이라’”
NJB	“한 이름, 비밀스러운 이름이라: ‘큰 바벨론이라’”

“비밀”이라는 용어가 호칭의 한 부분인지 아니면 이 호칭의 상징적 면을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하여 약간의 논란이 있다(참조, 7 절). 바벨론은 니므롯(바벨)에 의하여 초기 문명으로 시작된 기원을 가진다. 이들은 하나님께 반역했고 창 11 장에서 흩어진다. 이러한 배경 및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유다)을 사로잡아 간 사실에 근거하여 이 도시는 악한 제국을 뜻하는 동의어가 되었다. 요한의 시대에는 로마가 이러한 제국이였다(참조, 뱀전 5:13).

17:6 이 절은 신자가 받는 박해와 순교에 대해 말한다(참조, 11:7; 13:7; 단 7:21).

▣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KJV 는 이것을 “큰 동경을 가지고”로, NKJV 는 “내가 크게 놀라”로 번역하였다. 요한이 그녀를 동경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행위를 인하여 크게 놀랐던 것이다. 그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허락받았다(참조, 13:5,7,15; 11:7).

개역개정 17:8-14

⁸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⁹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¹⁰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¹¹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¹²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¹³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되라 ¹⁴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되다

17:8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시대적 순서에 대한 이 묘사는 주석가들에게 큰 놀라움을 주었다.

- 어떤 이는 이것이 네로가 돌아온다라는 전설을 특별히 지칭하는 역사적 의미로 이해한다.
 - 어떤 이는 단 2 장과 관련이 있는 세계 제국이 점차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마지막 때의 세계적 조직’으로 절정에 이른다고 말한다.
 - 어떤 이는 이것이 13:3,12,14 에서 묘사하는 ‘마지막 때의 짐승의 활동’과 관련을 짓는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흉내내거나 조소하는 행위이다.
 - 이것은 요한일서에 있는 바 각 세대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 일은 마지막 날에 있을 적그리스도로서 막을 내린다(참조, 요일 2:18,22; 4:3; 요이 7 절).
- 이것도 야웨의 이름을 흉내낸다(참조, 1:4,8).

▣ “무저갱” 이것은 알파가 첨부되어 “깊음”을 나타내는 헬라어이다. 이 단어는 앞서 9:1 과 11:7 에서 언급되었다. 이것은 악과 귀신이 거하는 장소를 회화적으로 나타낸다. 9:1 의 설명을 보라.

▣ “생명책에” 5:1 과 13:8 의 설명을 보라.

▣ “창세 이후로” 3:5 과 13:8 의 설명을 보라.

17:9

NASB, NKJV

“지혜를 가진 마음이 여기 있다”

NRSV

“이것은 지혜를 가진 마음을 요구한다”

TEV

“이것은 지혜와 이해를 요구한다”

NJB

“이것은 지혜로움을 요구한다”

이 구는 짐승의 이름의 수에 대한 구절인 13:18 과 비슷하다. 성경의 이 짧은 질문은 모든 이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이론을 짜내게 하였다! 한편, 해석의 다양성은 우리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음을 드러낸다!(참조, 고전 1:26-31). 나는 이것이 자신의 글이 지닌 신비롭고 상징적이고 수수께끼같은 특성을 나타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 (참조, 프랭크 스택, *신약 신학*, 317 쪽).

▣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이것은 로마에 대한 암시이다. 로마도 예루살렘처럼 일곱 산 위에 건설되었다. 이 구는 로마 시에 대한 고대의 여러 글에서 나타난다. 비록 17 장과 18 장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계적 조직을 전체적으로 분명히 암시하지만, 해석자는 이것을 로마 제국에 비추어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이 세계적 조직은 마지막 때에 활동할 것이며, 실제적으로는 모든 세대에 활동하고 있다.

17:10-11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을 일련의 로마 황제들로 말한다: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네로로서 이들은 “망한 다섯 명”으로 불린다. 베스파시안은 “현대적인 사람”으로, 티투스는 “잠간 후에 올 자”로 불렸다(참조, F. F. 브루스, *질문에 대한 답*, 141 쪽). 이러한 해석은 다소 주관적이다; 주후 68-69 년에 보좌에 올랐던 ‘세 명의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황제였던 자들’(갈바, 오토, 비텔리우스)은 생략되었다. 한편, 이것이 지닌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10 절과 11 절의 초점을 이루며 ‘네로가 소생하여 팔티안 군대와 더불어 로마를 공격하기 위해 돌아온다’는 신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이것은 16 절에 대한 설명일 것이다, 참조, 시빌리안의 신탁, 5:361-368).

다른 이들은 이 예언이 도미티안의 박해로 성취되었다고 본다. 이 해석에 수반하는 커다란 장애물은 다음과 같다:

1. 이 해석은 계시록이 베스파시안의 통치 기간에 기록되었어야함을 요구한다. 이 점은 ‘요한이 도미티안의 통치 때 계시록을 기록하였다’라는 교회의 오랜 전통과 차이를 이룬다
2. 이 책 전반에 걸쳐 사용된 상징적 수의 용법

왜 이 책이 역사에서 문자적으로 성취되어야 함을 주장하는가? 다시 말하건대, 요한은 자신이 본 환상의 상징적 면을 드러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에 적절한 형태를 취한 것이지, 그것이 어떤 역사적 시기에 딱 들어 맞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가능한 또 다른 해석은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이 된 일련의 제국들을 가리킨다는 주장이다. 그 제국은 이집트, 앗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다섯은 망하였고”), 로마(“하나는 서 있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마지막 때의 제국(“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함”)이다. 이 해석은 단 2:1-8 에 나오는 바 ‘하나님께 대항하는 여러 제국들’의 전체적 형태에 잘 들어 맞는다(참조, 조지 래드, *계시록*, 227-231 쪽).

가능한 또 하나의 해석은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수와 상세한 내용이 상징적인 면을 가진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단순히 하나님과 악한 자 사이에 있는 궁극적인 갈등의 예로서 이 장을 제시한다(참조, 알란 존슨의 계시록, 152-153, 157-161 쪽).

이것은 해석자로서 내가 마음 속에서 겪는 갈등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내가 존경하는 경건한 학자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처음 설명은 내가 좋아하는 F. F. 브루스의 견해이다. 다음 두 가지는 내가 좋아하는 계시록의 주석가인 조지 래드와 알란 존슨의 견해이다. 그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졌다! 중요한 질문은 이 본문이 1 세기 로마에 대한 암시인가(F. F. 브루스) 구약에 대한 암시인가(조지 래드) 아니면 묵시적인 표현의 암시인가(알란 존슨)이다. 나는 여기서 내가 개인적으로 한 연구에 비추어 존슨의 견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17:12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이것은 단 7:7,23-24 에 대한 암시이다. 단 7 장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이다. 어떤 이는 이것이 역사에서 로마의 봉신이었던 열 명의 왕을 가리킨다고 말한다. 또 어떤 이는 계 9 장에 나오는 귀신의 무리를 가리킨다고 말한다. 많은 이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숫자가 가진 상징적 성격을 고려할 때 ‘12 절이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있을 세계적 지도자들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상세하고도 문자적인 해석은 많은 경우에 10-12 절에 나오는 독특한 세부적 설명에 기초한다. 이 예언들이 매우 특정적이기에 마지막 때에 있을 문자적인 성취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문학 장르적 특징은 이 숫자와 세부 내용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도록 제시한다(우리가 박해받는 마지막 세대의 신자가 아닐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17:13 이 절은 악이 연합함을 나타내고, 15-16 절은 악이 불일치함을 나타낸다. 16:12 에서 보듯이, 악은 최종적으로 서로에게 적대적이 될 것이다.

17:14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이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편이다(참조, 마 25:35-40; 행 9:4).

▣ “어린 양은...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리스도의 승리와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가 함께 언급됨을 주목하라.

▣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이같은 호칭이 19:16 에서 사용되어 ‘오시는 메시아’를 드러낸다. 이 호칭은 (1) 신 10:17; 시 136:2-3 에 나오는 야웨께 대한 묘사 또는 (2) 단 2:37,47 에서 느부갓네살에게 사용된 바벨론의 호칭에서 기원했다. 이 구가 가진 수의 값은 아람어로는 777 이다. 하지만 본문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에 나타난 예정에 대한 암시를 주목하라. 또한 그들이 인내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임을 주목하라. 부르심과 믿음(시작 및 계속적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이다. 2:2 의 특별주제: 인내를 보라.

개역개정 17:15-18
¹⁵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¹⁶네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땅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¹⁷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¹⁸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17:15 이 절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께 대항하는 지도자와 그의 왕국’이 전세계를 지배할 것임을 나타낸다. 10:11 의 설명을 보라.

17:16 이것은 겔 16:39-40; 23:15-27; 28:18 에 대한 암시이다. 이것은 16:12 에서와 마찬가지로, 악의 세력들 사이에 있는 내적 다툼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암투는 하나님의 전략이었다(참조, 17 절).

17:17 “마음” 2:23 의 특별주제를 보라.

17:18 이 큰 도시가 11:8 과 16:19 에서도 언급되었는데, 이 도시는 예루살렘(세대주의자들) 또는 로마(예언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자들)를 가리킨다. 문학적 단락의 문맥에 의하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력의 조직체’를 상징화하여 도시로 나타내는 것이다. 어느 도시를 지칭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이 절의 핵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는 정부 조직이 있다는 점과 인간이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나가려 한다는 점에 있다(무신론적 인본주의).

요한계시록 18 장

개역개정 18:1-3
¹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 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²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³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18:1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 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천사는 굉장한 권세를 가진 천사였다. 계시록에서 “권세”(권세)라는 용어가 어떤 다른 천사에게 대하여도 사용되지 않았다. 요 5:27 에서 이 단어는 예수께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지칭하였다. 22:16 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대표로 보내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말하게 하신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8:2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따르는 어려움을 잘 드러내는 예이다. 어떤 환상의 한 부분에서 약간의 정보를 제시하고, 이것이 다른 측면에서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설명한 후에, 또 다른 환상에서 완전히 자세하게 제시한다(즉, 참조, 11:8; 14:8; 16:19-20; 또는 이것이 ‘일곱 개의 문학적 단위가 서로 반복되는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나타내는 실례일 것이다). 이것은 사 21:9 및 램 51:8 에 대한 암시이다.

▣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것은 고대 도시의 멸망에 대한 암시이다:

1. 바벨론(참조, 사 13:21-22; 14:23; 램 50:39; 51:37)

2. 에돔(참조, 사 34:10-15)

3. 니느웨(참조, 습 2:14)

구약에서는 종종 동물들이 파괴된 성읍을 배회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 이것은 파괴 및 악한 영이 거주함(참조, NEB)을 상징한다. 많은 경우 이 새들은 귀신을 나타낸다.

요한의 글에는 많은 유동성이 나타난다. 이 절에서는 도시가 황폐되어 귀신이 거주함에 대해서 말하고, 19:3에서는 불에 타서 그을린 것을 묘사한다.

18:3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이 구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구약 예언(참조, 렘 51:7)의 암시이다. 예레미야는 특별히 술취함(즉, “금잔”)을 부에 대한 탐욕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 **“진노”** 이것은 문자적으로 “화냄”(뉘모스)이다. 7:14의 특별주제를 보라.

▣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것은 ‘마지막 때 곧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계 정부의 자기 중심적 사고 및 물질주의’로 구현된 타락한 인간의 주요 문제를 암시적으로 나타낸다. 큰 음녀의 멸망을 슬퍼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온다:

1. 상인들(참조, 3,11-16 절)
2. 땅의 왕들(참조, 3,9-10 절)
3. 무역하는 뱃사람들(참조, 3,17-19 절)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인간의 세계적인 경제 시스템을 나타낸다.

개역개정 18:4-8

⁴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⁵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⁶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 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⁷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 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⁸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18:4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은 구약인 사 48:20; 52:11; 렘 50:8,28; 51:6,9,45; 습 2:6-7의 암시이다.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명령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타락한 세상의 조직에 사로잡히지 말 것을 긴급성 있게 나타낸다.

18:5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이것은 창 18:20-21 또는 렘 51:9의 암시이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을 회개가 아니라 죄를 행하는데 활용하고 있다(참조, 2:21; 롬 2:4).

▣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행위를 기억하실 때 그 결과가 종종 심판으로 나타난다(참조, 16:19; 시 79:8; 사 64:9; 렘 14:10; 17:1-4; 44:21-23; 호 7:2; 8:13; 9:9; 암 8:7).

18:6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이것은 ‘우리가 심은대로 거둔다’라는 진리를 암시한다(참조, 갈 6:7;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www.freecommentary.org에서 보라). 이 진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참조, 시 137:8; 렘 50:15,29; 마 7:2; 계 13:10).

▣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 주고”** 이것은 렘 16:18 및 17:18의 암시이다. 하지만 이 진리가 여러 문맥에서 나타난다(참조, 출 22:4-9; 시 75:7-8; 사 40:2). 다음 구와 더불어, 이 격언은 완전하고 가득한 심판이 있음을 뜻한다. 이 절은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한 격려가 되었을 것이다.

▣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잔”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구약의 은유적 표현이다(참조, 시 11:6; 60:3; 75:6-8; 사 51:17,22; 렘 25:15-16,27-28).

18:7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것은 특별히 습 2:15 및 사 47:7-8과 관련을 가진다. 이것은 오만함과 교만함을 암시하는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사탄이 타락하게 되었고(이것을 사 14장과 겔 28장에서 암시한다)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으며(참조, 창 3장) 마지막 때의 세계 정부도 타락하게 된다. 거만한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

“마음”에 대하여는 2:23의 특별주제를 보라.

18:8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이것은 특별히 사 47:9 에 대한 암시이다. ‘슬픔이 하루 동안에 그녀를 삼킨다’는 개념은 17-19 에서 반복되어 나타난다. 그 본문에서는 요한의 용어인 “시간”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

▣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이것은 레 21:9 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 16:8 의 특별주제: 불을 보라.

▣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것은 램 50:34 의 암시이다.

개역개정 18:9-10

⁹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¹⁰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18:9-10 “땅의 왕들이” 이들은 17:12,16 에서 언급하고 있는 왕들과는 다른 그룹일 것이다. 그 본문에 나오는 자들은 큰 음녀의 멸망과 타락에 관여하였다. 이 왕들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계 정부’와의 무역거래를 통하여 이윤을 남기던 상업국가들의 왕이었음이 분명하다. 이것은 강력한 상업도시였던 두로와 그 도시의 교만한 왕(겔 26-28 장)에 대한 암시이다. 18 장의 나머지 부분은 모든 타락한 세계 정부와 관련을 가진 상업국가들을 취하게 함을 말한다.

개역개정 18:11-20

¹¹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¹²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고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고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¹³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¹⁴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¹⁵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¹⁶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¹⁷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¹⁸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¹⁹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²⁰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18:11-19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이것은 겔 27 장의 내용과 비슷하다:

1. 11 절 - 겔 17:31,36
2. 12-13 절 - 겔 17:31,2,13,22
3. 15 절 - 겔 17:31,36
4. 17 절 - 겔 17:26-30
5. 18 절 - 겔 17:32
6. 19 절 - 겔 17:30-34

이것은 국제적 무역에 대해 기술한다:

1. 스페인에서 가져 온 은
2. 이집트에서 가져 온 세마포
3. 중국에서 가져 온 비단
4. 북아프리카에서 가져 온 시트론 목재
5. 아프리카에서 가져 온 상아
6. 스페인이나 흑해에서 가져 온 철
7. 인디아에서 가져 온 계피
8. 전세계적인 노예무역 관행

18:13

NASB, NKJV,

NRSV, NJB

“병거들”

TEV

“차고들”

이것은 전쟁에 쓰이는 전차가 아니라, 개인적 용도를 위해 네 바퀴 달린 호화로운 수레를 가리킨다.

18:14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 이것은 리파라(호화로운)과 람프라(빛나는)라는 헬라어 단어에 의한 언어유희이다.

18:17 이것은 겔 26-28 장(두로 성)의 암시이다. 그 도시에서 이러한 사치품들의 운송에 임하던 자들은 자신들의 삶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기에 슬퍼한다.

18:19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1:7의 특별주제: 슬픔의 의식을 보라.

18:20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비록 어떤 이들은 이것이 신 32:43(70 인역에서)을 가리킨다고 보지만, 이것은 램 51:48의 암시이다. 바벨론의 멸망을 인해 그와 경제적 협력관계에 있는 자들은 슬퍼하지만, 신자들은 도리어 기뻐한다!

▣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 책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심판이 연관을 가진다(참조, 6:10).

개역개정 18:21-24

²¹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²²또 거문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²³등불 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²⁴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18:21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이것은 램 51:63-64의 암시이다. 이것은 바벨론이 결단코 다시 보이지 않을 것임을 단호히 말하는 강력한 본문이다. 사실상 21-23 절에서 6회에 걸쳐 **중복되는 부정**이 사용되었다: “분명히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결코, 아주 결단코.”

▣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완전하고도 영속적인 파괴를 나타낸다(참조, 겔 26:21).

18:22-23 이것은 고대 근동의 일상생활에서 들을 수 있었던 소리였다. 하나님의 심판이 경건하지 않은 이 사회를 끝장낸다(참조, 사 24:8; 램 7:34; 25:10; 겔 26:13).

18:23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것은 나 3:4의 암시이다. 23-24 절에서 큰 도시의 멸망을 가져 온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1. 교만과 부(참조, 사 23:8)
2. 우상숭배와 복술(참조, 레 19:26,33; 신 18:9-12)
3.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함(참조, 16:6; 17:6)

18:24 이것은 램 51:49의 암시이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17장과 18장이 하나의 문학적 단위인가? 만일 그렇다면, 왜 그러한가?
2. 언제 바벨론이 망하는지를 해석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가?
3. 큰 읍녀인 바벨론은 요한의 시대에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인가? 오늘날은? 마지막 때에는?
4. 14:8; 17:2; 18:3에 나오는 부도덕함과 포도주가 어떻게 이 세상 정부와 관련을 가지는가?
5. 당신이 17:10-11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라.
6. 요한은 구약의 어떤 책에서 암시를 가장 많이 취하였는가?

요한계시록 19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⁴)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18:21-19:4)	하늘이 바벨론을 인하여 기뻐함	하늘에서의 찬송	(18:21-19:4)	하늘에서의 승리의 찬송
어린 양의 혼인 만찬 19:5-8 19:9-10	19:1-10	19:1-4 19:5-8 19:9-10	어린 양의 혼인 잔치 19:5-8 19:9 19:10a-b 19:10c	19:1-4 19:5-10
흰 말을 탄 자 19:11-16	흰 말을 탄 그리스도 19:11-16 짐승과 그의 군대가 패하다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의 하늘 군대 19:11-16	흰 말을 탄 자 19:11-16	최초의 종말적 전쟁 19:11-16
19:17-21	19:17-21	19:17-21	19:17-18 19:19-21	19:17-18 19:19-21

독서의 세 번째 단계 (v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요한계시록 19:1-21 에 대한 문맥적 통찰

가. 이 단락에 있어서 계시록의 단락 구분은 적절하지 않게 되었다(장의 구분, 구의 구분, 절의 구분, 대문자체, 쉼표는 영감을 받은 원래의 헬라 본문에 속하지 않는다). 17:1-18:24 에서 묘사한 큰 음녀의 멸망에 대하여 계 19:1-10 이 결론적인 언급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구약에서 사람들이 앗시리아와 바벨론의 멸망을 인하여 기뻐하였듯이, 이제 거룩한 천사들(참조, 4 절)도 18:20 에서 신자들이 한 것처럼 ‘음녀인 바벨론(즉 하나님을 떠난 인간 정부)의 멸망’을 인하여 기뻐한다.

나. 19:1-10 에 나오는 일련의 찬송은 18:20 에 대한 응답이다.

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하는 장으로 알려져 있다(참조, 19:11-16). 하지만 이 장이 심판의 다른 주기를 마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장에서 아주 유대적인 용어로서 묘사되어, 살후 4:14-18에서 바울이 묘사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게 보인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11-16 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였다. 신약은 재림을 다양하지만 서로 관련이 있는 모양으로 제시한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하신 강화(참조, 마 24 장; 막 13 장; 눅 21 장) 및 “죄의 사람”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참조, 살후 2 장)에 의거하여 이해한다.

라. 박해의 고난을 받는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께서 전사이시며,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재판장이시라는 사실은 위로가 되는 내용이었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19:1-5a

¹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²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³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⁴또 이십사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⁵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19:1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것은 램 51:48의 암시이다. 17-18 장은 주로 램 50-51 장(바벨론의 멸망)에서 가져온 표현이다. 이같은 구나 개념이 계 19:6 및 계 11:15(재림이 일곱째 나팔 이후에 있음)에서도 발견된다. 큰 무리의 정체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을 어떤 이들로 이해하든지—신실한 천사들의 군대 또는 구속받은 사람들 또는 양쪽 모두를 가리키는 것—모두 다 추측에 불과하다.

▣ “할렐루야” 이 히브리어는 “야웨를 찬양하라”(BDB 237 II 과 219)라는 뜻이다. 이것은 신약에서는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 이 문맥에서 이 단어가 네 번 나온다: 1,3,4,6 절. 이 단어의 구약적 배경은 유월절과 장막절에 사용한 찬양시편과 관련이 있다(참조, 104:35; 105:45; 106:48; 111:1; 112:1; 113:1; 116:19; 117:2; 125:1,21; 146:1,10; 147:1; 148:1,14; 149:1,9; 150:1,6). 5b 절에 이와 평행을 이루는 구가 나온다.

▣ “구원”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바램을 나타낸다(참조, 9:20-21; 14:6-7; 16:9,11; 21:7; 22:17; 겔 18:23,30-32; 요 3:16; 4:42; 딤후 2:4; 4:10; 벧후 3:9; 요일 4:14). 이것은 육체적인 구출을 가리키는 구약의 개념이지만, 아마도 믿는 각 사람 및 육체를 가진 모든 피조물이 전인적으로 영원히 우주적으로 구원받음과 관련을 가질 것이다(참조, 행 3:21; 롬 8:18-25; 골 1:19).

▣ “영광과 능력” 이 책 전체를 통하여 하늘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린다. 종종 이러한 찬송시는 그 본문과 인접해 있는 문맥을 이해함에 있어서 열쇠가 된다.

19:2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것은 시 19:9; 119:138,142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적절하며 공정하다(세 종류의 심판에서 보았듯이). 이것은 박해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격려가 되는 내용이었을 것이다(참조, 11 절; 15:3,4; 16:7).

▣ “큰 음녀” 하나님께 대항하는 타락한 이 세계 정부는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1. 큰 도시
2. 바벨론
3. 창녀(참조, 14:8; 16:19-21; 17:1-18:24)

1-4 절은 17 장과 18 장에 있는 문맥의 연속이다.

▣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이것은 물질주의, 우상숭배 또는 이교도의 부도덕한 다산숭배 또는 황제숭배를 가리킨다(참조, 2:14,20,21; 9:21; 14:8; 17:2,4; 18:3).

특별주제: 멸망시키다, 파괴하다, 부패하다(프췌이로)

프췌이로는 기본적으로 멸망시키다, 파괴하다, 부패하다, 또는 약탈하다를 의미한다. 이것은 다음의 사항을 가리킬 수 있다

1. 재정적 파탄(아마도 고후 7:2)
2. 육체적 멸망(참조, 고전 3:17a)
3. 도덕적 부패(참조, 롬 1:23; 8:21; 고전 15:33, 42, 50; 갈 6:8; 계 19:2)

4. 성적 유혹(참조, 고후 11:3)
5. 교육적 파괴(참조, 뱀후 2:12, 19)
6. 멸망해가는 인간의 전통(참조, 골 2:22; 고전 3:17b)

중중 이 용어는 이와 같은 문맥에서 부정된 반대쪽에 대해 사용된다(참조, 롬 1:23; 고전 9:25; 15:50,53).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는 육체와 우리가 천국에서 갖는 영원한 몸의 대조적 평행을 주목하라.

1. 썩을 것 대 썩지 않을 것, 고전 15:42,50
2. 불명예 대 영광, 고전 15:43
3. 약함 대 능력, 고전 15:43
4. 자연적 몸 대 영적 몸, 고전 15:44
5. 첫 아담 대 마지막 아담, 고전 15:45
6. 땅의 형상 대 하늘의 형상, 고전 15:49

▣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것은 신 32:43 또는 왕하 9:7 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참조, 롬 12:19).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하여 행하신다(참조, 6:9-11; 마 7:7-8; 21:22; 요 21:22; 14:13-14; 15:7,16; 16:23-24,26; 약 4:2; 요일 3:22; 5:14-16).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상 정부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참된 의도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악을 허용하신다(참조, 13:5,7,15).

19:3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것은 사 34:10 의 암시이다. 그 본문은 세상에 대한 심판을 말한다. 우리는 이 문학적 장르(묵시)에서 진리를 말하기 위해 상징을 사용하고 있음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려는 진리는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초점을 가진다:

1. 영원한 심판(참조, 6:10; 마 3:12; 25:41; 눅 3:17; 막 9:43,48)
2. 완전한 멸망(참조, 사 34:8-10). 이 내용은 계 14:11 에서도 나온다.

19:4 “이십사 장로” 4:4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아멘” 이 용어는 1:6,7; 3:14; 5:14; 7:12; 19:4; 22:20; 22:21 에서 사용되었다. 이것은 구약에서 “믿음”(에벳, 참조, 합 2:4)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의 형태이다. 이 단어의 어원적 의미는 “굳게 되다” 또는 “확실하다”이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뜻하는 단어로써 사용되었다. 한편 신약에서는 주로 의식상의 의미를 가진 “나는 동의한다” 또는 “나는 확증한다”를 나타내었다. 1:6 의 특별주제: 아멘을 보라.

특별주제: 구약에서의 믿다, 신뢰하다, 믿음, 충성됨(아멘)

I. 들어가는 말

신약에서 매우 중요한 이 신학적 개념이 구약에서는 명쾌하게 정의되지 않고 사용됨을 말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약에 이 개념이 분명히 있지만 몇 핵심 귀절 및 사람들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구약에는 다음의 내용이 섞여있다

가. 개인과 공동체

나. 개인적 경험과 언약에의 순종

믿음은 개인적 경험이고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양식이다! 이것을 사전적 형태(즉, 단어 연구)보다는 사람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이 더 쉽다. 이러한 개인적 측면은 다음의 경우에서 잘 드러난다

가. 아브라함과 그의 씨

나. 다윗과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남/경험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철저히 바뀌었다(완벽한 삶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의 면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시험이 그들이 가진 약점과 강점을 드러내지만, 믿음으로 시작된 관계는 생애를 거쳐 지속된다! 그들이 시험을 받고 정화되지만, 그들의 헌신과 헌신된 삶의 양식은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을 입증한다.

II. 사용한 주요 어근

가. 아멘(BDB 52)

1. 동사

ㄱ. 칼 형 - 지지하다, 공급하다(즉, 왕하 10:1,5; 예 2:7, 신학적 용어가 아님)

ㄴ. 니팔 형 - 분명히 하다 또는 확실히 하다, 달성하다, 확인하다, 신실하다 또는 충성스럽다

(1) 사람, 사 8:2; 53:1; 렘 40:14

(2) 물건, 사 22:23

(3) 하나님, 신 7:9,12; 사 49:7; 렘 42:5

2. **명사(남성형)** - 신실함(즉, 신 32:20; 사 25:1; 26:2)
 3. **부사** - 진실로, 참으로, 내가 동의하여, 그렇게 되기를(참조, 출 27:15-26; 왕상 1:36; 대상 16:36; 사 65:16; 렘 11:5; 28:6). 이 용법은 구약과 신약에서 “아멘”이라는 단어의 예식적 용법을 이룬다.
- 나. **에벨(BDB 54) 여성형 명사**, 단단함, 신실함, 진리
 1. 사람, 사 10:20; 42:3; 48:1
 2. 하나님, 출 34:6; 시 117:2; 사 38:18,19; 61:8
 3. 진리, 신 32:4; 왕상 22:16; 시 33:4; 98:3; 100:5; 119:30; 렘 9:4; 숙 8:16
- 다. **에두나(BDB 53), 굳음, 견실함, 충성됨**
 1. 손, 출 17:12
 2. 시간, 사 33:6
 3. 인간, 렘 5:3; 7:28; 9:2
 4. 하나님, 시 40:11; 88:12; 89:2,3,6,9; 119:138
- III. 바울이 사용한 이 구약 개념
 가.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일에 야웨와 구약에 대한 자신의 새로운 이해의 기초를 두고 있다(참조, 행 9 장; 22 장; 26 장).
 나. 그는 *아판*이라는 어근이 있는 구약의 두 가지 핵심 본문에 기초하여 자신이 말하려는 새로운 의미를 설명한다.
 1. 창 15:6 - 아브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인데 (창 12 장) 이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가져 왔다(창 12-22 장). 바울은 로마서 4 장과 갈라디아서 3 장에서 이 점을 암시한다.
 2. 사 28:16 - 믿는(즉,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견고히 머릿돌로 세우신 이를) 자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결코 보지 않는다
 ㄱ. 롬 9:33, “부끄러움을 당한다” 또는 “실망한다”
 ㄴ. 롬 10:11, 위의 내용과 같음
 3. 합 2:4 -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렘 7:28). 바울은 이 본문을 롬 1:17 과 갈 3:11 에서 사용한다(또한 히 10:38 의 설명을 보라).
- IV. 베드로가 사용한 구약의 개념
 가. 베드로는 단어를 합성하고 있다
 1. 사 8:14 - 벤전 2:8(걸려 넘어지는 돌)
 2. 사 28:16 - 벤전 2:6(모퉁이돌)
 3. 시 111:22 - 벤전 2:7(건축가들이 버린 돌)
 나. 그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독특한 표현인 “선택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을 다음에서 취하였다
 1. 신 10:15; 사 43:21
 2. 사 61:6; 66:21
 3. 출 19:6; 신 7:6
 또한 이것을 그리스도께 대한 교회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다(참조, 벤전 2:5,9)
- V. 요한이 사용한 구약의 개념
 가. 이 단어의 어원
 “믿다”라는 용어는 헬라어(πιστευω)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믿다,” “믿음,” 혹은 “신뢰하다”로 번역된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서 **명사형**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동사형**은 자주 사용한다. 요 2:23-25 에서 군중들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서 진실되게 고백했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믿다”라는 용어가 피상적으로 사용되는 또 다른 예는 요 8:31-59 과 행 8:13,18-24 에 나온다. 성경적인 바른 믿음은 초기에 나타내는 반응 이상의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제자도의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참조, 마 13:20-22,31-32).

나. 전치사와 함께 사용된 용법

1. *에이스*는 “안으로”를 뜻한다. 이것은 믿는 자가 그들의 신뢰/믿음을 예수님 안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는 독특한 구문이다
 - ㄱ. 그의 이름 안에(요 1:12; 2:23; 3:18; 요일 5:13)
 - ㄴ. 그 안에(요 2:11; 3:15,18; 4:39; 6:40; 7:5,31,39,48; 8:30; 9:36; 10:42; 11:45,48; 17:37,42; 마 18:6; 행 10:43; 빌 1:29; 뱀전 1:8)
 - ㄷ. 내 안에(요 6:35; 7:38; 11:25,26; 12:44,46; 14:1,12; 16:9; 17:20)
 - ㄹ. 아들 안에(요 3:36; 9:35; 요일 5:10)
 - ㅁ. 예수 안에(요 12:11; 행 19:4; 갈 2:16)
 - ㅂ. 빛 안에(요 12:36)
 - ㅅ. 하나님 안에(요 14:1)
2. *엔*은 “안”을 뜻한다, 요 3:15; 막 1:15; 행 5:14
3. *에피*는 “안” 또는 “위”를 뜻한다, 마 27:42; 행 9:42; 11:17; 16:31; 22:19; 롬 4:5,24; 9:33; 10:11; 딤펢전 1:16; 뱀전 2:6
4. 전치사 없이 쓰인 *여격*, 갈 3:6; 행 18:8; 27:25; 요일 3:23; 5:10
5. *호티*는 “믿다”를 뜻하는데, 무엇을 믿는지 밝힌다
 - ㄱ.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다(요 6:69)
 - ㄴ.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요 8:24)
 - ㄷ.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그 안에 계신다(요 10:38)
 - ㄹ. 예수님은 메시아다(요 11:27; 20:31)
 - 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요 11:27; 20:31)
 - ㅂ.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요 11:42; 17:8,21)
 - ㅅ.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다(요 14:10-11)
 - ㅇ.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왔다(요 16:27,30)
 - ㅈ.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의 언약적 이름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와 동일시 하였다(요 8:24; 13:19)
 - ㅊ. 우리는 그와 함께 살 것이다(롬 6:8)
 - ㅋ.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살전 4:14)

VI. 결론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약속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 일을 시작하신다(즉, 요 6:44,65). 한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화는 다음과 같은 인간의 응답을 필요로 하고 있다.

1. 신뢰
2. 언약적 순종

성경적인 믿음은 다음을 뜻한다

1. 개인적 관계(최초의 믿음)
2. 성경의 진리를 확인함(하나님의 계시를 믿음)
3. 그 진리에 대한 적합한 순종(매일의 믿음)

성경적인 믿음은 천국행 표나 천국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말한다. 이점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인간(참조, 창 1:26-27)과 창조에 대한 목적이다. “친밀함”이 핵심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학적 지위가 아니라 교제를 바라신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자녀들이 “가족”의 특성을 나타내기를 요구한다(즉, 거룩함, 참조, 레 19:2; 마 5:48; 뱀전 1:15-16). 타락(참조, 창 3 장)은 적합하게 응답해야 할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다(참조, 겔 36:27-38). 새 마음과 새 영은 우리가 믿음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갖게 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한다!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 세 가지를 가져야만 한다. 하나님을 알고(히브리어와 헬라어적 의미에서) 또 우리의 삶에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그 목적이다. 믿음의 목적은 앞으로 언젠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는 인간의 믿음, 인간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신뢰함에 있어서 인간의 진실함은 그 결과이지(신약) 그 기초가 아니다 (구약). 구원에 대한 신약적 관점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대해 인간이 처음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응답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보내셨고 공급하셨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한다(참조, 엡 2:8-9,10)! 진실하신 하나님은 진실한 백성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과 또 믿지 않던 자들이 각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

19:5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이라는 구(5b 절)를 고려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가 한 말이 분명하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한 번도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시 않으셨다(미카엘 마길, *신약의 번역*, 1011 쪽).

개역개정 19:5b-6a

^{5b}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⁶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것은 시 115:13; 134:1; 135:1 에 대한 암시이다. 이 용어는 **현재 능동 명령**이어서, 1,3,4,6 절에 나오는 “할렐루야”와는 다른 단어로 되어 있다. 한 천사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특별한데, 10 절에서는 천사들이 ‘종인 성도들’과 자신들을 동일시 할 뿐 아니라 ‘예수께 대하여 증거하는 성도들’과도 자신들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본다.

▣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이것은 시 115:13 에 대한 암시이다(이것은 계 11:18 에서 이미 나왔다).

19:6 이러한 묘사가 다음의 경우에 사용되었다

1. 하나님께 대하여, 겔 43:2
2. 힘센 천사에 대하여, 단 10:6
3. 그리스도께 대하여, 계 1:15
4. 구속받은 공동체에 대하여, 계 14:2
5. 이 문맥에서는 천사들의 합창단에 대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개역개정 19:6b-8

^{6b}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⁷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⁸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 사용한 이 삼중적인 호칭(야웨, *엘로힘*, *엘 사다이*, 4:8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을 보라)은 1:8; 4:8; 11:7; 15:3; 16:7,14; 19:15; 21:22 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의”라는 **대명사**가 천사가 한 말에 들어 있기에 매우 독특하다.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삼중적 호칭과 함께 사용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본문적인 증거는 강력하다.

1. “주 우리의 하나님”이 초기의 교정본인 사본 \mathfrak{n}^2 에 나온다(UBS⁴는 이 본문에 “C”등급을 주고 있다)
2. “하나님, 우리의 주”가 의 초기의 \mathfrak{n}^* 에 나온다
3. 후기에 속하는 어떤 소문자체 헬라이어 본문(사본 051 과 209)에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되어 있다
4. “주 하나님”(사본 A)
5. “주” (페쉬타와 콤팩트본들)

▣ “통치하시도다” 이 부정과거 시제의 동사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참조, 11:17). 어떤 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됨을 나타낸다고 말한다(**진입 또는 시작을 뜻하는 부정과거**, 참조, 시 93:1; 97:1, NJB).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통치하고 계신다(**지속성 또는 격언을 뜻하는 부정과거**, 참조, 시 99:1). 어떤 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통치하시듯이 이제 땅에서 통치하심을 뜻한다고 말한다(**최종적 또는 효과를 뜻하는 부정과거**, 참조, 마 6:10).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에 완성됨을 각 심판(인, 나팔, 대접)의 끝 부분에서 거듭 말하고 있다. 이 내용은 11:15 과 평행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사 24:23; 52:7 또는 미 4:7 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 5:10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림을 보라.

19:7 7 절의 처음 두 동사는 **가정법**이다.

1. 즐거워 하자 - **현재 능동**
2. 크게 기뻐하자 - **현재 능동**

세 번째 동사에 여러 변이가 나타난다.

1. **도소뵤(불규칙 부정과거 능동 가정법)** - 사본 P
2. **도소뵤(미래)**,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 사본 \mathfrak{n}^2 , A
3. **도뵤(부정과거 능동 가정법)** - 사본 \mathfrak{n}^*

1 항과 3 항은 처음 두 동사를 “우리가 영광을 돌리자”로 번역한 내용이다. 2 항은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로 번역한 경우이다(RSV). UBS⁴는 1 항에 “C”등급을 주고 있다; UBS³는 1 항에 “D”등급을 주고 있다. 이 위원회는 어느 것이 원래의 본문인지를 결정내리지 못하였다.

▣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것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함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일 것이다. 11:13 에서 이것은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행위의 결과로서 회개하여 신자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일 수 있다. 이 구는 14:7 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용되었고 16:9 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거부하는 고통받는 불신자들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어린 양”은 구약에서 제사를 함축적으로 나타냈다(참조, 레 1-7 장). 이 구는 제사적 요소와 공동체적 식사(화목제)의 요소를 연결시킨다. 이 혼인 잔치에 대한 암시가 마 8:11; 26:29; 눅 14:15; 22:16 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유대인의 혼인 관습 즉 약혼기간, 기다리는 기간, 7 일간 행해진 결혼잔치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가 아니라 하객으로 제시하고 있음이 흥미롭다(참조, 9 절 및 마 22:1-14). 이 은유적 표현이 21:2,9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새 예루살렘”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바뀐다.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혼인관계로 나타내는 표현이 구약의 사 54:4-8; 62:5; 렘 31:32; 겔 16 장; 호 2:14-19 에 나온다. 이 은유적 표현이 신약의 고후 11:2; 엡 5:21-31; 계 19:9; 21:2,9; 22:17 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예수께서 신랑으로 묘사되었다(참조, 마 9:15; 막 2:19-20; 눅 5:34-35; 요 3:29). 마태복음에 나오는 여러 비유에서 이 주제를 다룬다(참조, 마 22:1-14; 25:1-13). 결혼은 ‘성경의 언약적 개념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인간의 삶의 한 모습이다.

▣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이다. 어떤 이는 이것을 인간의 꼼꼼한 행위로 해석한다. 8 절의 부정과거 수동은 이러한 해석이 참되다고 지지하지 않는다. 이 문맥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심’(참조, 요 6:44,65)이 9 절에서 초청으로 나타나는데(이것은 완료 수동 분사임) 이에 대하여 ‘인간이 믿음으로 응답하여야 함’(참조, 막 1:15; 행 3:16,19; 20:21)이 서로 역설적인 관계에 있음을 확증한다. 이러한 역설적 관계가 빌 2:12-13 에서도 나타난다. 이 관계는 옷을 입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8 절에서도 지지 받는다. 옷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착한 행실(의로운 행위)을 가리킨다(참조, 14:13; 엡 2:10; 딤후 5:25).

A. T. 로벗슨(*신약의 워드북*)은 7 절에 관하여 흥미로운 설명을 한다. “여인들에 대한 세 가지 은유적 표현이 목시에 나타난다(12 장에 나오는 어머니, 13 장부터 19 장에 나오는 음녀, 여기서부터 끝까지 나오는 그리스도의 신부). ‘처음과 나중 것은 서로 다른 시기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며, 두 번째 것은 교회의 커다란 적수요 원수를 가리킨다(스위트)’”(449 쪽).

19:8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도” 이것은 “옳은 행실”(디카이오마)이 신약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다.

1.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행하심을 가리킨다(참조, 15:4)
2. 이것은 예수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신 일을 가리킨다(참조, 롬 5:16,18)
3. 이것은 신자들의 정의로운 삶을 가리킨다(참조, 19:8)
4. 이것은 법령, 법, 또는 규정을 가리키는데 일반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뜻한다(참조, 눅 1:6; 롬 1:32; 2:26; 8:4; 히 9:1,10).

가족을 나타내는 이 헬라어 용어들(*디카이오오*, *디카이오시스*, *디카이오스*, *디카오쉬네*)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요한 신학적 이슈는 어떻게 타락한 인간이 의롭게 되며, 의롭고, 바르며, 바르게 되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이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참조, 롬 3:21-30; 엡 2:8-9)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성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성자), 성령께서 이끄심이 있어야함(참조, 요 6:44,65)을 반드시 강조하여야만 하겠다. 인간은 완성된 결과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참조, 롬 5 장; 고후 5:21).

바른 관계에 서는 목표는 바른 삶 곧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지향한다(참조, 롬 9:29; 갈 4:19; 엡 1:4; 2:10). 의로운 삶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지(참조, 14:13) 그러한 관계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참조, 갈 3:1-3)! 19:11 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19:9-10

⁹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¹⁰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러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19:9 “복이 있도다” 이것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일곱 축복 가운데 네 번째 내용이다(참조, 1:3; 14:13; 16:15; 19:9; 20:6; 22:7,14).

▣ “청함을 받은 자들은” 이것은 완료 수동 분사로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조한다(참조, 17:14; 요 6:44,65).

▣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것은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가 진실됨을 강조하는 구이다(참조, 21:5; 22:6).

19:10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러 하니” 요한이 천사에게 예배하러 한 일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참조, 22:8). 아마도 요한은 이 내용을 일부러 포함시킴으로써 천사숭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참조, 22:9; 골 2:18). 요한이 이 힘센 천사에 의해 경외심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심을 그가 염두에 두고 있거나(참조, 창 16:7-13; 22:11-15;

31:11,13; 48:15-16; 출 32:4; 13:21; 14:19; 사 2:1; 6:22-23; 스 3:1-2; 눅 24:5) 또는 성령께서 육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심(참조, 22:8-9)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요한은 1:1 에서 자신을 이렇게 부른다. 천사가 자신을 하나님의 종(참조, 신 33:2; 시 103:21; 단 17:10) 및 구속받은 사람들의 종으로 부른다(참조, 히 1:14). 이 천사는 자신을 예수의 증언 곧 ‘천사보다는 성도를 일반적으로 뜻하는 표현’으로서 부른다(참조, 12:17).

▣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것은 독특한 구로서 다양하게 해석되었다. 이 의미는 다음을 나타낼 것이다

1. 예언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2. 성령의 새 시대에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표징으로써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참조, 1:2; 6:9; 12:17; 또 14:12 에는 이와 비슷한 구가 나온다)
3. 예수께서 바로 ‘예언의 호흡’이시다(딤후 3:16 에 있는 바 “하나님께서 영감하셨다와 비슷한 의미임)
그리스도를 신뢰한 자들은 성령에 의해 인도하심을 받음을 문맥이 밝힌다. 다음과 같은 성령의 사역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그리스도께 나아 올 수 없다

1. 성령께서 그를 이끄심(참조, 요 1:44,65)
2. 그가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우심
3. 그가 그리스도를 신뢰하도록 격려하심
4.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받게 하심
5. 그 안에 그리스도를 형성하심(참조, 요 16:8-11)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신다!

개역개정 19:11-16

¹¹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¹²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¹³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¹⁴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¹⁵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¹⁶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19: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것은 **완료 수동형 동사**로서 겔 1:1 과 관련을 가진다. 계시록에서는 요한에게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하늘이 열린 것(부분적으로)을 여러 번에 걸쳐 점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참조, 4:1; 11:19; 15:5). 3:7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백마” 앞 문단에서 등장한 신랑이 ‘항상 정복하는 전사’로서 계시되었다. 이것은 예수의 재림이 ‘유대인들이 메시아께 기대했던 바’처럼 ‘강력한 군사 지도자’로서 오심을 말한다. 이것은 바울이 살전 4:13-18 에서 설명하는 재림(파루시아)과는 약간 다르다. 이것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히 격려를 주는 표현이다. 해석가들은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기억해야 한다

1. 이것이 재림에 대한 자세하고 완전한 설명이 아니라는 점
2. 이것이 상징적이고 묵시적 언어로 기술된 점
3.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다시 오사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시며(참조, 요 14:2-3) 또한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참조, 갈 6:7)’이 참이라는 점

▣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비록 6:2 에도 백마가 나오지만, 이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과 진실”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어에서 믿을 수 있음을 뜻한다(참조, 계 3:14 및 1:5; 3:7).

특별주제: 요한의 글에서 말하는 진리

어떤 의미에서 요한은 로고스에서 그랬던 것처럼(참조, 1:1-14), *알레세이아*, “진리”에 대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배경을 결합시킨다. 히브리어에서 *에메쓰*(BDB 53)는 참이나 진리를 의미한다(종종 70 인역에서 *피스투오*와 연합하여). 헬라어에서는 그것은 플라톤의 실재와 실재하지 않는 것, 하늘과 땅과 연합된다. 이것은 요한의 이원론과 부합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아들 안에서 그 자신을 계시하셨다(*알레세이아*의 어원은 노출하다, 드러내다, 명백히 나타내다).

1. 명사, *알레세이아*, 진리
 - ㄱ.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다(참조, 1:14, 17 - 구약의 언약적 용어)
 - ㄴ. 예수님은 침례요한의 증거에서 초점이다(참조, 4:33; 18:37 -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 ㄷ.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신다(참조, 8:4, 44, 45, 46 - 계시는 명제적이고 개인적이다)
 - ㄹ.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참조, 14:6)
 - ㅁ. 예수님은 그들을 진리 안에서 성화시키신다
 - ㅂ. 예수님은(로고스, 1:1-3) 진리이시다(참조, 17:17)
 - 2. 형용사, *알레쎬스*, 바른, 진리의
 - ㄱ. 예수님의 증인들(참조, 5:31-32; 7:18; 8:13-14)
 - ㄴ. 예수님의 심판(참조, 8:16)
 - 3. 형용사, *알레쎬스*, 실제의
 - ㄱ. 예수님은 참 빛이시다(참조, 1:9)
 - ㄴ. 예수님은 참 떡이시다(참조, 6:32)
 - ㄷ.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다(참조, 15:1)
 - ㄹ. 예수님은 참 증인이시다(참조, 19:35)
 - 4. 부사, *알레쎬오스*, 진실로
 - ㄱ.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시다라고 증거한다(참조, 4:42)
 - ㄴ. 예수님은 모세 시대의 만나와 반대되는 것으로서, 참 음식이시며 음료이다(참조, 6:55)
- 진리란 단어와 그것의 파생어는 또한 예수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증거를 표현한다, *알레쎬스*
- ㄱ. 침례(세례) 요한의 증거는 참이다(참조, 10:41)
 - ㄴ. 요한(요한복음서의 저자)의 증거는 참이었다(참조, 21:24)
 - ㄷ.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보였다(참조 6:14; 7:40)
- 구약과 신약에서의 진리에 대한 훌륭한 논의를 위해 조지 래드의 *신학신약*을 보라, 263-269 쪽.

특별주제: 요한의 글에서 말하는 “참”

1. 성부 하나님
 - ㄱ. 하나님은 참/신뢰할 수 있는 분 이시다(참조, 요 3:33; 7:18, 28; 8:26; 17:3; 롬 3:4; 살전 1:9; 요일 5:20; 계 6:10)
 - ㄴ. 하나님의 길은 참되시다(참조, 계 15:3)
 - ㄷ.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다(참조, 계 16:7; 19:2)
 - ㄹ.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다(참조, 계 19:11)
2. 성자 하나님
 - ㄱ. 아들은 참/진리이시다
 - 1) 참 빛(참조, 요 1:9; 요일 2:8)
 - 2) 참 포도나무(참조, 요 15:1)
 - 3)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참조, 요 1:14, 17)
 - 4) 그는 진리이시다(참조, 요 14:6; 8:32)
 - 5) 그는 참이시다(참조, 계 3:7, 14; 19:11)
 - ㄴ. 아들의 증언/증거는 참되시다(참조, 요 18:37)
3. 이것은 상대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ㄱ. 모세의 법과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참조, 요 1:17)
 - ㄴ. 광야에서의 회막과 하늘의 성막(참조, 히 8:2; 9:1)
4. 요한복음에서 자주 그런 것처럼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한다(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묘사하기 위해 요한은 위격으로서, 말하는 분으로서, 또한 아버지와 아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전달될 메시지로서 이 모두를 사용했다(참조, 요 4:13; 19:35; 히 10:22; 계 22:6).
5. 요한복음에서 이 절의 두 형용사는 한 분이시고 오직 믿을만 한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를 묘사한다(참조, 5:44; 요일 5:20). 또한 단순한 지식적이고, 사실적이 아닌 구속의 목적을 위한 참되고 완전한 계시로서 예수님을 묘사한다!

▣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것은 사 11:3-5 에 대한 암시로서(참조, 사 9:7; 16:5; 32:1; 시 96:13) 의의 새 시대 곧 성령의 새 시대를 묘사한다. 다음에 나오는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의

“의”는 성경학도가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공평” 또는 “의”(BDB 841)로 설명된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단어는 강가에서 자라는 갈대에서 유래하였는데, 이것은 벽과 울타리가 수평적으로 곧은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건축도구로 사용되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용어를 은유적으로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평가하시는 곧은 날(자)이시다. 이 개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재판할 권리가 있음을 나타낸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참조, 창 1:26-27; 5:1,3; 9:6).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지음을 받았다. 창조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무대요 배경이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에 있어서 절정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셨다! 인간의 충성된 여부를 시험하셨으나(참조, 창 3 장), 최초의 부부는 이것에 실패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망가지는 결과를 낳았다(참조, 창 3 장; 롬 5:12-21).

하나님은 망가진 교제를 고쳐 회복하실 것을 약속으로 주셨다(참조, 창 3:15).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뜻과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신다. 인간은 이 단절을 회복시킴에 있어 무력하다(참조, 롬 1:18-3:20).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 행하신 첫 번째 일은 언약의 개념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초대와 인간이 회개하고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반응에 기초한다. 타락을 인하여 인간이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참조, 롬 3:21-31; 갈 3 장). 언약을 깨트린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일하셔야만 했다. 하나님은 주도권을 갖고 다음의 일을 하셨다

1.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심(즉, 법적인 의)
2.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에게 의를 거저 주심(즉, 전가된 의)
3. 의(즉, 그리스도를 닮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를 이루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사람들에게 제공하심
4. 에덴 동산에서의 교제를 회복하심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따른 반응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선언하시고(즉, 거저 주시고) 공급하시지만, 인간은 다음의 사항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1. 회개
2. 믿음
3. 삶에서 나타나는 순종
4. 인내

따라서 의는 하나님과 그의 창조의 걸작 사이의 언약적이고 상호 관계적인 행동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의 힘주심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각 사람은 개인적으로 또한 계속해서 적합하게 응답해야 한다. 이 개념은 “믿음에 의한 칭의”로 불린다. 이 개념은 복음서에 나타나지만 이 용어로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 개념은 주로 바울에 의해 정의되었는데 그는 헬라어 단어인 “의”를 여러 형태로 100 번 이상 사용하였다.

바울은 잘 교육받은 랍비로서 히브리적 개념인 *세덱*을 나타내기 위해 헬라 문학적 용례에서 단어를 택하지 않고 70 인역에서 사용한 *디카이오쉬네*를 사용했다. 헬라 저작에서 이 용어는 신과 상류사회의 기대에 들어 맞는 사람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히브리어적 개념에서 이 용어는 항상 언약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야웨는 공평하고,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신의 성품을 닮기 원하셨다. 구속받은 인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새로움은 경건함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삶의 양식이다(로마 카톨릭은 칭의에 초점을 맞춘다). 이스라엘은 신성국가로서 세속적인 것(사회적 규범)과 신성한 것(하나님의 뜻) 사이에 뚜렷한 구별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구분은 “정의”(사회와 관련된)와 “의”(종교와 관련된)의 경우처럼 히브리어나 헬라어 용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나타난다.

예수님의 복음(좋은 소식)이란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를 통하여, 성자의 삶, 죽음, 부활을 통하여, 성령의 간청과 복음으로 이끄심을 통하여 성취되었다. 칭의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졌지만, 반드시 경건함으로 나타나야만 한다(어거스틴의 입장은 종교개혁가들의 강조점인 거저주시는 복음과 로마 카톨릭의 강조점인 사랑과 신실함으로 나타나는 변화된 삶 두 가지 다였다).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의 의”를 **목적적 소유격**으로 이해했다(즉,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자들로 만드시는 행위[지위적인 성화])인 반면, 카톨릭은 **주격 소유격**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더욱 닮는 과정(경험적이고 점진적인 성화)이다. 사실상 두 가지 다 사실이다!!

내 생각에는 창세기 4 장부터 계시록 20 장까지 이르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에덴에서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에 대한 기록이다. 성경은 지상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배경으로 시작하고(참조, 창 1-2 장) 같은 배경으로 마친다(참조, 계 21-22 장). 하나님의 형상과 목적은 회복될 것이다!

위의 논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에 제시되는 헬라어 단어 그룹을 예시하는 신약성경의 구절들을 보라:

1. 하나님은 의로우시다(종종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제시된다)
 - ㄱ. 로마서 3:26
 - ㄴ. 데살로니가 후서 1:5-6
 - ㄷ. 디모데 후서 4:8
 - ㄹ. 요한계시록 16:5

2. 예수님은 의로우시다
 - ㄱ. 사도행전 3:14; 7:52; 22:14(메시아의 칭호)
 - ㄴ. 마태복음 27:19
 - ㄷ. 요한일서 2:1,29; 3:7
3.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의이다
 - ㄱ. 레위기 19:2
 - ㄴ. 마태복음 5:48(참조, 5:17-20)
4. 의를 제공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 ㄱ. 로마서 3:21-31
 - ㄴ. 로마서 4 장
 - ㄷ. 로마서 5:6-11
 - ㄹ. 갈라디아서 3:6-14
 - ㅁ. 하나님께서 주심
 - 1) 로마서 3:24; 6:23
 - 2) 고린도 전서 1:30
 - 3) 에베소서 2:8-9
 - ㅂ. 믿음으로 받음
 - 1) 로마서 1:17; 3:22,26; 4:3,5,13; 9:30; 10:4,6,10
 - 2) 고린도 전서 5:21
 - ㅅ. 아들의 사역을 통하여
 - 1) 로마서 5:21-31
 - 2) 고린도 후서 5:21
 - 3) 빌립보서 2:6-11
5. 하나님의 뜻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 ㄱ. 마태복음 5:3-48; 7:24-27
 - ㄴ. 로마서 2:13; 5:1-5; 6:1-23
 - ㄷ. 디모데 전서 6:11
 - ㄹ. 디모데 후서 2:22; 3:16
 - ㅁ. 요한일서 3:7
 - ㅂ. 베드로 전서 2:24
6. 하나님은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 ㄱ. 사도행전 17:31
 - ㄴ. 디모데 후서 4:8

의는 하나님의 특성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범죄한 인간에게 거저 주신 것이다. 이것은

1. 하나님의 선언이고
2. 하나님의 선물이며
3.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4. 이렇게 살아야 할 삶이다

그러나 거룩하게 됨의 과정은 활발하면서도 견실하게 추구해야하는 일로서 재림의 때에 하루에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구원을 받음으로 회복되지만 삶을 사는 동안 계속 진행되어 우리가 죽는 날 혹은 주님이 임하실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만남이 될 것이다!

여기에 이러한 논의에 대한 결론으로서 인용할 좋은 내용이 있다. 이것은 IVP 에서 출판한 *바울과 바울서신 사전* 에서 인용한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의가 관계에 미치는 면에 대하여 루터가 했던 것 보다도 더 강조했다. 루터가 이해한 하나님의 의는 면제의 측면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칼빈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갖는 놀라운 특징 혹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을 강조했다”(834 쪽).

나에게 있어서 신자가 하나님과 갖는 관계는 세 가지 측면을 갖는다:

1. 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다(동방 교회와 칼빈의 강조점)
2. 복음은 진리다(어거스틴과 루터의 강조점)
3. 복음은 변화된 삶이다(로마 카톨릭의 강조점)

위의 것은 모두 진실되며 건강하고, 바르며, 성경적인 기독교에 있어서 함께 있어야만 하는 내용이다. 어느 것이든 하나만을 더 강조하거나 어느 한 쪽을 빠뜨리면 문제가 생긴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영접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추구해야 한다!

19:12 “그 눈은 불꽃 같고” 이것은 1:14 과 2:18 에서 예수께 한 묘사이다. 이것은 천사에 대한 구약의 본문인 단 10:6 에 기초를 둔다.

▣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것은 왕이 쓰는 관을 가리킨다. 예수께서는 다음에 나오는 이들보다 더 많은 관을 가지셨다

1. 6:2 에 나오는 백마를 탄 자(이것은 상징적으로 대대적인 전투를 나타냄)
2. 사탄(12:3 의 붉은 용)
3. 13:1 의 짐승

▣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것은 계 2:17 에 대한 암시이다. 그런데 이 본문이 그것을 암시한다면 그 의미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가 된다. 어떤 이는 이것이 고대인의 신앙 곧 ‘신들의 이름을 아는 것이 그 신들에 대한 권세를 가지는 것’을 암시한다고 설명한다. 어떤 이는 이것이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본질을 완전히 알 수 없음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이 호칭에 대하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 책이나 이 단락에서 예수께 사용한 호칭(11 절에 있는 “충신과 진실” 및 13 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16 절에 나오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19:13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야웨의 심판을 나타내는 시이 사 63:3 의 암시이다. 이 본문을 15 절에서도 암시하고 있다. “담근”(사본 A, UBS⁴ 는 이것에 “B” 등급을 주고 있다) 또는 “뿌린”(사본 **κ**, P, 사 63:3)은 완료시제로 되어 있다;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에 대한 주석가들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는다

1. 그의 적들의 피, 이것은 이 문맥 및 창 49:10-11 에 대한 탈군을 반영하는 견해이다(그러나 이 문맥에서는 싸움에 대한 언급이 없다)
2. 그 분 자신의 구속적 희생제사인 피, 이 피로써 성도들이 자기들의 옷을 씻어 희게 됨(참조, 7:14)
3. 이것은 피에 대한 그 분의 증거로 볼 수도 있다, 그 증거는 그 분께 귀하다

문맥상 1 항의 설명이 가장 적합하다.

▣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것은 로고스라는 용어로서, 요한계시록과 사도 요한을 연결시키는 단어이다. 왜냐하면 요한이 이 명칭을 예수의 칭호로 사용한 유일한 성경 저자이기 때문이다(참조, 요 1:1,14; 요일 1:1).

복음은 그 분(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이신 예수)이시며 메시지이다(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이중적 면이 “믿음”이라는 용어의 용법에서도 나타난다. 즉 믿음은 예수를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교리적인 진리를 인식하여 믿는 믿음을 말한다(“믿음,” 참조, 유 3,20 절).

특별주제: 로고스의 히브리어 및 헬라어 배경

로고스라는 용어의 배경

1. 히브리어 배경
 - ㄱ. 말씀한 말의 능력(사 55:11; 시 33:6; 107:20; 147:15,18), 창조시(창 1:8,6,9,11,14,20,24,26,29) 및 족장들의 축복에서(창 27:1 이하; 49:1)
 - ㄴ. 잠 8:12-23 은 “지혜”를 의인화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창조하셨으며 또 모든 창조에 있어서 그가 대리자였다고 말한다(참조, 시 33:6 과 정경이 아닌 솔로몬의 지혜서 9:9)
 - ㄷ. 탈군(아람어로 된 역본 및 주석)은 로고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치하는데 그 이유는 신인동형적 용어의 사용에 대해 불편함을 갖기 때문이다
2. 헬라어 배경
 - ㄱ. 헤라클레투스—세상이 끊임없이 변화하였다; 인간이 아닌 신과 불변하는 로고스가 하나로 되고 변화의 과정을 이끈다
 - ㄴ. 플라톤--신(인간이 아님)과 불변하는 로고스가 행성이 궤도에 있게 하며 계절을 결정짓는다
 - ㄷ. 스토익학과--로고스가 “세계 이성” 혹은 관리인이지만 절반은 인간이다
 - ㄹ. 필로--그는 로고스를 인격화시켜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대제사장,”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다리” 혹은 “우주의 운행자가 모든 것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키 손잡이”로 말함(코스모크라텔)

19:14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되었다.

1. 17:14 및 이 절의 직접적 문맥인 8 절에 나오는 묘사를 고려할 때, 이 군대는 성도들을 가리킨다.
2. 구약의 배경인 신 33:2; 시 68:17; 슥 14:5 및 신약의 본문인 마 13:41; 16:27; 막 8:38; 13:27; 눅 9:26; 살전 3:13; 살후 1:7 를 고려하여, 많은 이들은 이들이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믿는다.

이같은 애매성이 여러 본문에 나타난다.

19:15 “그의 입에서” 이것은 사 11:4; 계 1:16; 2:16 의 암시이다. 심판을 뜻하는 이같은 은유적 표현이 유대인의 묵시문학에 나온다(참조, 에스드라 4 서 12:6; 솔로몬의 시편 17:10,45,49; 예녹 1 서 62:6).

▣ “예리한 검” 이것은 문자적 표현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다(참조, 창 1 장; 사 55:11; 요 1:1; 살후 7:8).

겔 38-39 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반역하는 인간 군대’의 멸망에 대해 말한다. 이 멸망은 (1) 검(참조, 겔 38:21; 계 19:15,21) 또는 (2) 하늘에서의 불(참조, 겔 38:22; 39:6; 계 20:9)에 의해 일어난다. 이러한 내용이 계 19 장과 20 장에서 평행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즉 국가들의 군대를 다른 방법으로 멸망시킴), 이 두 장은 겔 38-39 을 반영하는 내용으로서 그 주제를 반복하여 다루고 있는 것이다. 19 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20:1-10 에서 다른 표현으로써 반복하여 설명한다. 인과 나팔과 대접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이미 보았다.

▣ “만국을” 이 군대의 구약적 기원은 겔 38 장에 나오는 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국가들인데, 이들은 고대 근동 전체에 걸쳐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참조, 2,5,6,13). 요한은 겔 38-39 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전쟁(아마도 시 2 편)을 ‘선과 악 사이의 종말적인 전쟁’에 대한 표현의 소재로 삼고 있다! 예수께서 가장 큰 검을 가지고 계신다! 2:26 및 10::11 의 설명을 보라.

▣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것은 백마를 탄 자에 대한 세 가지 설명 가운데 두 번째 내용이다. 심판에 대한 이 묘사는 시 2:9 과 110:56 에서 온 것이다(참조, 계 2:27; 12:5).

▣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심판에 대한 이 세 번째 묘사는 사 63:2-3; 램 51:33; 애 1:15; 율 3:13 에 대한 암시이다(참조, 계 14:19-20). 으깨진 포도의 색은 고대 세계에서 피와 죽음과 전쟁을 상징시켰다!

7:14 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명을 보라.

19:16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그의 다리”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1. 이곳은 일반적으로 검을 매다는 장소였다
2. 이곳은 말을 탄 그분의 옷이 가장 명확히 보이는 장소였다
3. 이곳은 그의 신체 가운데 가장 힘센 근육이 있는 곳으로서 그분의 힘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것은 한 가지 이름인가 아니면 두 가지 이름인가? 계 17:14 에서는 이것이 한 가지 이름임을 나타낸다(참조, 딤후 6:15). 이 이름에는 두 가지의 구약적 배경이 있다:

1. 야웨께 대한 묘사(참조, 신 10:17; 예녹 9:4)
2. 바벨론 사람들과 그 이후에 페르시아 사람들이 사용한 신의 호칭이었는데, 이 호칭이 야웨를 지칭하는 것으로 바뀐(참조, 단 2:37)

이 구가 나타내는 수가 아람어에서는 777 인 점은 흥미롭다. 이 수는 짐승의 수인 666 과 대조를 이룬다. 곧 철저한 완전함이 철저한 불완전함과 대조를 이룬다.

개역개정 19:17-18

¹⁷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¹⁸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19:17 “모든 새를 향하여” 소름끼치는 이 단락은 전쟁의 장면을 다룬 두 구약 본문의 암시이다. 이 문맥은 16:12-16 에서 기록된 바 아마겟돈 전쟁을 다룬다. 약탈적인 새들을 전장에 모여들게 하는 내용은 삼상 17:46(참조, 마 24:28; 눅 17:37) 및 겔 39:17-20 에서도 나온다. 이러한 장면은 곡과 마곡이 일으키는 마지막 때의 전부이다. 요한은 종종 구약의 상징적 표현을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0 장에서는 천년 이후에 사탄이 일으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나타내고, 19 장에서는 천년 이전에 일어나는 전쟁으로서 들짐승과 그의 거짓 선지자가 일으키는 전쟁을 가리킨다.

▣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와서”로 번역된 단어는 부정과거 능동 명령 복수형의 의미로 사용된 부사로서, 두 번째 단어인 “모이랴”와 연결된다. 후자는 부정과거 수동 명령 복수형이다. 이것은 7 절과 9 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어린 양의 잔치와 대조를 이룬다. 어린 양은 잃어버려진 사람들을 초청하여 오게 하여 그들을 구원하고 또 자신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한다. 그러나 천사는 먹이감을 찾는 새들을 초청하여 오게 하여 마지막 때의 큰 전투에서 죽은 자들의 살(및 죽은 영혼들)을 먹게 한다(참조, 램 12:9; 겔 39:17).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적이며 ‘하나님의 원수들의 살을 먹이는 잔치’라는 상징으로써 묘사된다(참조, 사 34:6; 램 12:12; 46:10; 습 1:7).

19:18 이것은 사람들을 같은 유형으로써 언급하고 있는 종말적 배경인 6:15 을 가리킨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에 묻히지 않는 일의 공포는 상당히 컸다.

예수께서 승리자로서 돌아오심이 각 심판의 끝 부분에 나타난다: 인, 6:12-17; 나팔, 11:15-18; 대접, 19:1-21.

개역개정 19:19-21

¹⁹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²⁰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²¹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은 죽으매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19:19 실제 전투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시 2 편의 암시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특별한 전쟁을 문자적으로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선과 악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계시록의 장르는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이와 평행을 이루는 본문인 마 24 장; 막 13 장; 눅 21 장; 살후 2 장은 문자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애매성을 인하여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경건한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많이 다르다. 교리적 접근은 결단코 부적절하다!

19:20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는 두 번째 짐승이다(참조, 13:11-18; 16:13). 이 본문은 13:12-13 과 연결된다. 13 장의 본문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관계가 그리스도께 대한 성령의 관계를 흉내내고 있다.

▣ “짐승의 표를 받고” (참조, 13:16-17).

▣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불 붙는 못”이라는 구는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옥을 가리키기 위해 예수께서 아주 자주 언급하신 *케헨나*(1:18 의 특별주제를 보라)와 동의어를 이룬다. 이에 대한 구약의 특별한 암시가 사 30:23-33 및 단 7:11 에 나온다. 예언서의 여러 본문에서 심판을 불 또는 불탑과 연결시키고 있다. 영원한 불이라는 이 주제는 유대교의 묵시문학에서 발전되었다(참조, 예눅 27:1 이하; 54:1 이하; 56:3 이하; 90:26; 에스라 4 서 7:36; 바룩의 묵시 59:10; 85:13[이 목록을 조지 E. 래드의 *계시록* 258 쪽에서 인용함]). 이 구가 계 20:10,14; 21:8 에서 사용되었다. 이곳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장소인데,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도 이곳에서 그들의 최종적인 거처를 갖게 될 것이다. 이곳은 사탄이 최종적으로 거할 장소이다. 이 일은 하나님께 반역함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이며, 심연의 영속적인 형태인 장소이다(참조 마 25:46; 계 9:11; 11:7; 17:8; 20:1,3).

19:21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참조, 13:16; 14:9,11)은 신자들을 박해했던 바로 그 자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바다 짐승도 마찬가지다, 참조, 살후 2:8).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1-8 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그룹 및 그들이 찬송을 드린 이유를 말해 보라.
2.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개념이 어디서 온 것이며 또 그 함축적 의미는 무엇인지 말하라.
3. 10 절은 천사들에 대한 것인가?
4. 11-16 절을 그들이 그리스도께 적용함의 중요성을 설명하라.
5. 17-21 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전쟁에 대한 것인가? 마지막 때에는 몇 가지 전쟁이 일어나는가?

요한계시록 20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⁴)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천 년	사탄이 천 년동안 묶임	사탄이 묶이고 순교자들이 다스림	천 년	천 년의 통치
20:1-3	20:1-3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1,000 년 동안 다스림	20:1-3	20:1-3	20:1-3
20:4-6 사탄의 패배	20:4-6 사탄의 반역이 실패하다	20:4-6 사탄의 놓임과 최종 대결	20:4-6 사탄의 패배	20:4-6
20:7-10	20:7-10	20:7-10	20:7-10	20:7-10
큰 백보좌에서의 심판	큰 백보좌 심판	최종 심판	최종 심판	마지막 심판
20:11-15	20:11-15	20:11-15	20:11-15	20:11-12 20:13-15

독서의 세 번째 단계 (v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요한계시록 20:1-15 에 대한 문맥적 통찰

- 가. 20 장은 신학적으로 볼 때 19 장(제림) 및 21-22 장(영원한 왕국)과 분명히 관련을 가진다. 해석을 위해 우리가 할 질문은 제림이 그리스도의 천년의 통치에 앞서 있는가이다. 만일 그렇다면 천천년설을 불가피하게 취하여야 한다(만일 이것을 역사적인 기술로 본다면). 그러나 20-22 장이 17-19 장에서 다룬 내용을 반복하여 새롭게 다루는 것이라면(참조, W. 핸드릭슨, *정복자 이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변화는 인과 나팔과 대접에서 주제를 반복적으로 다루는 방법과 비슷하다. 따라서 이상주의적 해석 또는 무천년주의가 적합한 해석 방법이 된다.
- 나. 20 장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제시되지 않은 여러 가지 신학적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1. 두 단계에 걸친 부활
 2. 순교자들이 제한된 기간동안 다스림
 3. 메시아께서 1,000 년 동안 지상에서 다스리심

4. 메시아의 통치가 효과적이지 않은 모습(그리스도께서 1,000 년동안 통치하신 후에 사탄의 교사를 받아 사람들이 반역함)
5. 큰 백보좌 심판 이후에 불신자들과 벌이는 또 하나의 전쟁

다. 해석을 함에 있어서 따르는 어려움은 다음의 사항을 인함이다

1. 20 장의 신학적 독특성
2. 열쇠가 되는 여러 영역에 나타나는 애매성
 - ㄱ. 사탄이 결박됨, 2 절
 - ㄴ. 그룹의 수, 4 절
 - ㄷ. 첫 부활에 관련된 자, 5 절
 - ㄹ. 그리스도의 통치와 관련을 가지는 질문인 누구, 어디서, 어떻게, 6 절
 - ㅁ. 8 절에 나오는 “나라들”은 어디서 온 것인가
 - ㅂ. 9 절에 나오는 “그 사랑하는 성”의 의미와 장소
 - ㅅ. 누가 11-15 절에 있는 백보좌 심판에 관련되며, 이 본문이 마 25:31 이하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3. 경건하게 믿는 주석가 사이에 커다란 불일치가 나타난다. 심지어 같은 종류의 천년설을 따르는자들 사이에서도 그러하다. 천년설에 대해 우리가 가진 견해가 신약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바 물리적이고 문자적으로 임하는 재림의 실제에 하등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4.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의 글에서 인용한 좋은 글은 다음과 같다
 - ㄱ. 조지 E. 래드는 *제시록*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국의 복음주의는 천년왕국이라는 이 교리에 보증되지 않은 강조점을 두고 있다. . .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하다; 그(예수)가 영원한 질서가 ‘오는 세상’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일시적으로 땅에 있을 왕국’에 대하여 가르치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다.”
 - ㄴ. A. T. 로버슨은 *신약의 워드북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놀라운 책은 큰 환란의 시기를 사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지 그들에게 분쟁을 가져오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다” (457-458 쪽)
 - ㄷ. 레이 섬머는 *어린 양에게 합당하시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책을 접근함에 있어서 우리는 지극히 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하기 어려움을 인식하고, 교리적인 진술을 피하며, 다른 이들의 정직한 해석을 존중하는 마음으로써 임해야 한다. 이 장은 수 세기에 걸쳐서 그리스도인 사이에 가장 격렬한 논란이 된 본문이다” (202 쪽)
 - ㄹ. 로버트 H. 마운스는 *새 국제주석 시리즈*의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많은 저자들이 20 장의 첫 10 절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인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에 속함을 인정하게 된다. 많은 해석가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나타난 경향은 어떤 특정한 천년설의 변증자가 되어 버리는 모습이였다. 이 본문의 중요성을 부인해야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 최종적 심판과 모든 악의 제거, 영원한 국가의 영광 등과 같은 기초적인 주제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천년왕국과 관련이 있는 본문(1-10 절)을 주의 깊게 읽을 때, 비로소 ‘이 본문이 부활한 순교자들에 대한 내용인 것’과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상에서 다스리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음’과 ‘이것이 재림 이후에 일어나는 것’임을 알게 된다” (351 쪽).

라. 천 년의 다스림은 다음과 같은 것이 아니다

1. 메시아의 시대, 또는
2. 하나님의 왕국(1 항과 2 항은 영원하다, 참조, 단 7:14,27; 사 9:7; 눅 1:33; 벧후 1:11; 계 11:15; 22:5)

마. 그리스도와의 축복된 1,000 이라는 개념은 역사를 6,000 년으로 보는 견해 및 창 1 장에 있는 변형을 위한 안식적 쉼에서 왔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역사에서 이루어지는 천천년설)는 초기에 속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저술에서 일부 나타난다(참조, 바나바의 편지 15 장 및 에녹 2 서 33 장).

바. 이 장은 영감된 계시이며 신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이 그 목적인가?: (1)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개요를 제시하는가 또는 (2) 각 세대에 일어나는 영적 갈등에 관하여 영적 통찰력을 주기 위한 것인가?

해석가들은 요한이 제시한 관심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관심사를 본문에 밀어넣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호기심, 한 가지 수를 쓰는 자세, 어떤 신학적 입장이나 주창자에게 충성하는 자세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해석 및 나쁜 자세를 낳았다. 요한이 선택한 장르를 통하여 신약이 아니라 구약의 여러 본문을 통하여 제시하고 이루고자 의도한 목적은 은유적 상징에 있었다! 묵시적 문학을 문자적으로 취하는 일은 보수성의 표현이 아니라 잘못된 열정에 지나지 않는다! 왜 오늘날의 해석가들이 요한이 사용한 어떤 상징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또 어떤 상징은 회화적으로 취하는가? 그 모두가 회화적이다(이 말은 이 책이 사실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다)! 요한은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을 주로 구약적 구조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는 종말론에 대한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듯이 보인다. 구약과 신약의 저자들은 조직신학적인 종말론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들이 분명히 진리를 제시하고 있지만, 시대적 순서에 따라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환상에 나타난 중심 진리를 우리가 확증하되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교조주의적이어서는 안된다.

- 사. 이 장은 이 책 전체의 구조와 메시지에서 벗어난 신학적 내용을 감당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그러한 것은 저자가 강조한 내용이 아니다!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대하여 선구자적 역할을 한다. 계시록에서만 이 일시적인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 진리가 상징적 표현을 통하여 제시되고 있다. 나는 천년동안의 통치가 아니라(구약 본문에 비추어 볼 때) 다음의 내용을 인하여서 놀란다
1. 두 단계에 걸친 심판
 2. 부활한 성도들과 일반 사람들이 지상에서 함께 섞여 있음
 3. 메시아께서 긴 기간동안 다스리신 후에 반역이 일어남
사탄의 활동이 없는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동안에 ‘사람들을 의로 이끄심’에 있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 또는 인간의 한 없는 방탕을 명백히 보여주기 위해 사용한 상징적 표현인가?
-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22:18-19의 내용에 따라서 도우신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우리의 세대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선생들에 의하여 영향을 참으로 받고 있다!

도움이 되는 저자들

- 가. 알란 존슨, “계시록,” *엑스포지터스 성경주석*, 제 12 권
 나. 조지 E. 래드, *요한계시록*
 다. 레온 모리스, “사도 요한의 계시록,” *틴데일 신약주석*, 제 20 권
 라. 로버트 마운스, “요한계시록,” *신약구체주석*
 마. 레이 섬머스, *어린 양이 합당하시다*
 바. 크레이 블레이징과 대럴 북, *점진적 세대주의*
 사. D. 브렌트 샌디, *쟁기와 전정가위*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20:1-3

¹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²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 년 동안 결박하여 ³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20:1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천사는 9:1-2,11에 있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와 비슷하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천사가 사탄을 결박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 “무저갱의 열쇠” 우리는 계시록에서 두 가지 “열쇠”를 본다. 예수께서는 1:18에서 죽음과 하데스의 열쇠를 가지셨고, 9:1에서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열쇠”는 은유적으로 “~에 대한 권세”를 나타낸다. “무저갱”을 뜻하는 헬라어는 “깊음”에 알파 접두사가 함께 있어 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가리키는데 이에 대하여 9:1에서 다루었다. 이 장소는 귀신들의 감옥으로 보인다. 한편, 바울이 롬 10:7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이 절대적인 해석이 될 수는 없다. 이것은 악한 모든 영들의 장소인 “탈타루스”와 동의어를 이룰 것이다(참조, 눅 8:31; 유 6 절; 뱀후 2:4). 2-3 세기의 랍비적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하데스에서 불의한 자들이 거하는 장소로 생각했다.

20:2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악한 자에게 사용한 이 4 가지 호칭을 12:9에서 설명하였는데, 이것은 결박을 당하는 자가 누구이고 또 후에 불못에 던져질 자가 누구인지를 강조하여 드러내기 위함이다(참조, 10 절). 이것은 처음(참조, 창 3 장)과 나중(계 20-22 장)을 연결시킨다.

“용”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뱀”과 평행은 이룬다. 구약에서 사용한 히브리 용어인 *탄넨*은 다음을 가리킨다
 - ㄱ. 땅의 뱀(참조, 출 7:9,10,12; 신 32:33; 아마도 시 91:13)
 - ㄴ. 바다의 뱀(참조, 창 1:21; 시 148:7)
2. 전설적인 바다 괴물인 리워야단과 평행은 이룬다(참조, 욥 7:12; 시 74:13-14; 사 27:1). 이것은 하나님의 한 피조물을 묘사하기 위하여(참조, 욥 41 장; 시 104:24-26) 또는 악의 상징으로서(라합과 마찬가지로, 참조, 사 51:9) 사용되었다

3.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적의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 ㄱ. 이집트(참조, 시 87:4; 라합; 겔 29:3)
 - ㄴ. 바벨론(참조, 렘 51:34)
4.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에 나오는 무질서를 일으키는 괴물에게 사용되었다(참조, 계시록의 서론 12 번 나항, 특히 12:3 에서)

흥정역은 **탄닌**과 **탄남**(짓는 것 또는 자갈, 참조, 욥 30:29 시 44:19; 사 13:22; 34:13; 35:7; 43:20; 렘 9:11; 10:22; 49:33; 51:37; 겔 29:3; 믹 1:8)을 “용”으로서 번역하였는데 이 둘은 서로 관련이 없는 용어이다. 자갈은 **탄**의 복수형이다.

▣ **“천 년 동안 결박하여”**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선택의 결과로 인하여 공동체적으로 정죄를 받게 된 일에 대하여 항상 불공정하다고 여긴다. 악과 유혹을 이렇게 제거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 에덴동산의 환경과 유사한 상태가 되게 한다.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게 될 뿐 아니라 ‘영광스럽게 되신 메시아께서 함께 계심을 상당 기간동안 누리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스리심에 대하여 사람들이 반역하는 비극이 또 다시 일어나게 된다(참조, 20:7-9)!

유대인의 두 시대라는 구약의 개념은 선과 악의 갈등을 묘사하기 위한 방법이였다(제한된 이원론). 유대인들은 이 우주적 갈등이 마지막 때의 전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참조, 시 2 편). 요한은 이 그림을 사용함으로써 그 당시 및 각 시대에서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돕고자 했다. 명백한 상징으로 된 책 특히 1,000 년의 통치처럼 ‘반복하여 말하지 않고 따로 떨어져 제시하는 계시’인 이 책을 왜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 대답은 석의에 있지 않고 해석자가 가진 전제 때문이다.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성경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묵시적인 글을 해석함에 있어서 적절하면서도 일정한 해석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신자들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자 하여 (1) 이 책을 재림의 시간적 계시로 바꾸어 놓게 하며 (2) 그 세부 사항이 자기들의 역사 문화 및 해석적 신학적 틀에 적합한 설명이 되도록 본문에 강요를 한다. 우리가 만일 이것을 문자적으로 취한다면, 이 기간에 살았거나 죽은 그리스도인들만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되는 내용으로 된다(참조, 4-5 절)!

20:3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이름이 말해지지 않은 천사가 사탄을 결박하는 것과 관련하여 5 개의 동사가 나온다: (1) “붙잡고” (2) “그를 묶고” (3) “그를 던져 넣고” (4) “그것을 잠그고” (5) “그것을 인봉하였다.” 이 형태가 모두 **부정 과거 능동 직설법**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사탄의 영향력이 철저히 배제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 24:22 의 암시이다.

▣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미혹함은 악한 자와 그의 대리인들이 항상 추구한 목적이다(참조, 12:9; 13:11-14; 16:14; 19:19; 20:8).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에(참조, 12:12),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피조물 곧 남자와 여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반역하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추구하였다. 그는 또한 예수를 시험한 일에서 보여 주듯이 예배받기를 원한다(마 4:9; 13:4).

이 구의 해석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질문은 “만국”이 누구를 가리키는가이다. 믿지않는 나라가 이미 17:2; 18:3; 19:18-21 에서 멸망을 당하였다. 어떤 이는 이 만국과 그 나라들이 같은 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이들은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뜻하는 것인지 멸망한 그들의 군대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또 어떤 이는 이들이 다른 나라 곧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리스도께 대항하기를 공모함에 가담하지 않은 나라들을 뜻한다고 말한다. “만국”이라는 상징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2:26 과 10:11 의 설명을 보라), 그 이유는 사탄과 모든 불신자들이 망한 이후인 계 22:2 에서 그들이 다시 나타나기 때문이다.

19:11-21(즉, 17-19 장)이 20:1-10(즉, 20-22 장)에서 다시 다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19 장에 있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심판 이후에도 만국이 등장함’을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게 한다. “만국”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민족을 뜻한다(2:26 과 10:11 의 설명을 보라. 또한 데이브 매튜슨의 글, “20:1-6 에 있는 천년왕국에 대한 재고: 완성 및 주제의 반복,” JETS, 제 44 권 #2, 2001 6 월, 237-251 쪽을 보라). 사탄에 대한 20:1-10 의 기록은 눅 10:17-20(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남); 마 12:26-29(사탄의 왕국이 예수의 축사를 인하여 패함); 골 2:10,15(정사와 권세를 무장해제함)과 일치한다. 계 20:1-10 은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거두신 승리 및 그 승리의 결과가 그의 재림 직전까지 이르게 됨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진다(무천년주의).

만일 이 주제가 반복되는 것이 맞다면, 이 내용은 요한이 겔 38-39 장(및 시 2 편)에 기록된 바 ‘종말에 일어날 한 번의 전쟁’에 의해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요한은 구약에 있는 바 소아시아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국가들과의 대면을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종말적인 전쟁 곧 하나님의 백성 대 사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믿지 않는 백성 사이의 전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천 년이 차도록 . . .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사탄이 왜 “반드시”(필) 잠깐 놓이는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어떤 이는 반역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심에 있어서 정의를 나타내심이라고 이것을 설명하고, 또 어떤 이는 이것이 9:20-21; 14:6-7; 16:9,11 에 있는 바와 같이 더 많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아사셀(레 16:8,10,26 에 나오는 광야의 귀신)을 한 천사가 결박하여 백성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인 에눅 1 서 10:4-6,11-13 에 있는 유대인의 묵시적 묘사를 따라서, 사탄의 결박이 악의 최종적 패배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다. 감옥에 가두는 것은 심판 때까지 악한 천사들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사 24:21-22; 뱀후 2:4; 유 6 절에서 말하고 있다.

그가 풀려남이 마지막 때에 있을 최종적인 대면 곧 ‘하나님, 메시아, 성령, 그들을 따르는 자들’과 ‘사탄, 바다 짐승, 땅의 짐승, 그들을 따르는 자들’과의 싸움을 야기시킨다고도 볼 수 있다. 피조물에서 악이 제거될 것이다. 역사가 전쟁터가 되었다. 역사가 마지막 전쟁의 장면이 될 것이다. 구약의 주제가 시 2 편과 겔 38-39 장에서 온 것이다. 이같은 마지막 때의 심판이 19:19-21 에서 나타난다. 만일 이러한 해석이 맞다면, 17-19 장은 20 장과 평행을 이루며, 같은 기간 곧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에 대한 내용이다.

개역개정 20:4-6

⁴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⁵(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⁶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20:4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이것은 단 7:9 의 암시이다. 계시록에서는 여러 보좌를 언급하고 있다: (1) 하나님의 보좌(참조, 5:1,17; 6:16; 7:10,15; 19:4; 21:5); (2) 사탄의 보좌(참조, 2:13); (3) 짐승의 보좌(참조, 13:2; 16:10). 이것은 권세와 힘을 상징한다.

▣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이것은 단 7:22 의 암시이다. “앉은 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다니엘서에서는 천사의 무리나 성도들을 뜻할 것이다. 주석가들 사이에 이 절에서 언급하는 그룹이 몇 그룹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1. 어떤 이는 세 그룹이 나온다고 본다(보좌들에 앉은 이, 순교당한 그리스도인들, 짐승을 섬기지 않은 다른 그리스도인들)
2. 어떤 이는 두그룹이 나온다고 본다
3. 어떤 이는 한 그룹이 나온다고 본다

이들이 한 그룹이라면, 그들은 순교당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곳에서 순교자들이 제한된 기간동안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모든 성도가 다스릴 것을 약속하고 있다(참조, 계 3:21; 5:10; 22:5; 마 19:28; 눅 22:29-30; 답후 2:12). 5:10 의 특별주제를 보라.

어떤 이는 4 절의 뒷부분에 있는 짧은 구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에 근거하여 두 그룹이 나온다고 말한다. 19 장의 재림과 20:11 의 큰 백보좌 심판에 비추어 볼 때, 이 견해가 가장 적합한 해석으로 보인다. 만일 이러한 해석이 맞다면, 11 절 이하에 나오는 큰 백보좌 심판은 잃어버려진 자에게만 있는 일로서 마 25:31 절 이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

▣

NASB	“또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NKJV	“또 심판이 그들에게 위임되었다”
NRSV	“심판할 권세가 주어졌다”
TEV	“심판할 능력이 주어졌다”
NJB	“심판을 할 능력이 부여되었다”

이 헬라어 구는 (1)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림(참조, 2:26-27; 고전 6:2. 5:10 의 특별주제를 보라) 또는 (2) 그들이 정의로운 심판을 받음(참조, 6:9-11; 단 7:22)을 뜻한다.

▣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어떤 이는 이것이 몸을 가지지 않은 영들을 가리킨다고 해석한다(참조, 6:9). “목 베임”이라는 용어는 양 날을 가진 도끼를 가리킨다고 말한다. 이것은 로마 공화정에서 사형기구로 사용되었다(참조, 롬 13:4 및 요세푸스, *유대고대사*, 14:9:4). 이들은 순교당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

▣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앞의 구가 순교자들을 가리킨다면, 이 구는 같은 기간에 죽은 자들을 의미한다(참조, 13:15).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 대한 것이라면, 이 구는 모든 신자들에 대한 것이다. 만일 이것이 마지막 때에만 한정된 것이라면, 그 세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될 것이다.

▣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13:16-17 의 설명을 보라. 표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과 평행을 이룬다.

▣ “살아서” 이 용어(조ء)는 종종 육체의 부활을 가리킨다(참조, 마 9:18; 요 4:25; 행 1:3,9-11; 롬 14:9; 계 1:18; 2:8; 13:14). 4 절에 나오는 이 용어를 영적 부활로, 5 절의 것을 육체의 부활로 해석자들이 해석해서는 안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순교자들은 부활의 몸을 가진 것인가 아니면 썩을 육신을 가진 것인가? 만일 그들이 부활의 몸을 가진 것이라면, “만국”에 대하여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예수께서 다스리심에 대한 개념이 계 12:5; 19:5 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시 2:8-9 에 대한 암시로 보인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림에 대하여는 마 19:28; 눅 22:28-30; 딤후 2:12; 계 3:21; 5:10; 20:4,6; 22:5 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 다스림은 천 년 동안만 지속되는가 아니면 영원토록 계속되는가(참조, 단 7:14,18,27; 계 22:5)? 이것은 지상에서의 다스림 곧 팔레스타인에서 이루어지는 일인가 아니면 우주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가? 5:10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림을 보라. 부록 5 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낸 표를 보라.

만일 천 년이 교회시대(성육신부터 *파루시아*까지)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이 1,000 년(10x10x10 - 완전함을 나타내는 히브리 수의 최상급)은 영원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은 5-6 절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 어떤 해석적 접근 방법이 어떤 본문에는 적합하지만 모든 본문에 그러한 것은 아님을 여기서 잘 예시한다. 서로 다른 해석가들이 서로 다른 본문을 강조하며 또 각각 그러한 본문에서 택한 해석의 “열쇠”를 가지고 신약 전체를 읽으려고 하였기에 서로 다른 해석 방법이 제기된 것이다. 이 책에는 유동성이 있고, 애매모호함이 나타나며, 신비한 부분이 있다. 모든 것을 배제해 버리는 주의 및 교조주의로써 문제를 희석시키지 않도록 하자!

20:5 NRSV 와 TEV 는 5 절을 괄호 안에 넣어 번역하였다. 처음 부활에 누가 참여하는가가 20:11 이하에 나오는 심판에서 누가 참여하게 되는지가 결정될 것이다. “그 남은 죽은 자들”이 누군가는 다음의 항목 가운데 있을 것이다.

1. 잃어버려진 자들(참조, 6 절; 단 12:2)
2. 이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참조, 6 절; 딤후 2:12)
3.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로서 자연사한 이들(참조, 4c 절)

▣ “첫째 부활” 신약 전체에 걸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강조가 나타난다(참조, 요 5:28-29; 눅 14:14; 행 24:15; 고전 15:52; 빌 3:3; 살전 4:16; 살후 1:7-10). 그러나 이 절을 단 12:2 의 이중적인 부활(잃어버려진 자와 구원받은 자)에 대한 암시로 취하지 않는 한, 성경에는 신자가 두 번 부활함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비록 조지 래드가 요 5:29 과 고전 15:24-25 을 평행을 이루는 내용으로 취하고 있긴 하지만). 모든 신학적 체계(천 년의 통치를 문자적인 것으로 믿는 견해를 포함하여)는 이 분리된 부활에서 커다란 문제에 봉착한다: 휴거된 그리스도인들(참조, 살전 4:13-18; 계 4:11; 또는 11:12)이 천 년의 통치에 참여하는가? 구약의 신자들이 천 년의 통치에 참여하는가? 이들 가운데 구약의 순교자들이 들어 있는가? 아니면 마지막 때의 환란 기간에 순교한 자들만 여기에 참여하는가?

▣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이것은 출 19:5-6 의 암시이다. 이방에 대한 계시와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이스라엘을 일컫는 이 용어는 신약에서 모든 교회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참조, 뱀전 2:5,9; 계 1:6; 5:10).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성도들을 성전과 연결시키는 암시가 사용되었다(참조, 3:12). 이 표현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종’을 가리키는 것에서 ‘하나님과 의 친밀한 교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20:6 이 절은 해석에 있어서 어려움이 되고 있다. 왜 어떤 신자는 지옥을 나타내는 두 번째 죽음을 맞보지 않는가(참조, 6 절)? 순교자들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가 아니면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는가(참조, 1:6; 5:10; 뱀후 2:5,9)? 1 세기의 순교자들만 다스리게 되는가 아니면 구약의 순교자들도 함께 다스리게 되는가? 모든 세대의 순교자들이 포함되는가 아니면 신실하게 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는가?

개역개정 20:7-10

⁷천 년이 차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⁸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⁹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¹⁰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20:7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겔 36-39 장이 이 문맥의 배경을 이룬다.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유다 또는 예루살렘 또는 약속의 땅)이 종말적 상황에서 안전하게 거하지만 여전히 악한 나라(곡과 마곡)로부터 공격을 받게됨을 말한다. 랍비적 유대교에서는 이 두 직을 사용하여 ‘메시아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모든 원수’를 나타낸다. 원래 곡은 마곡의 땅에서 나온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이 용어가 쌍둥이인 두 명의 직을 지칭하고 있다. 요한은 1 세기의 독자들에게 적합한 내용이 되도록 ‘자신이 인용하는 구약의 내용’을 항상 바꾸어 사용한다.

20:8 “나와서 . . .미혹하고” 그리스도가 1,000 년 동안 다스리신 후에 사람들이 반역을 하게 되는 일이 흥미롭다! 이 나라들은 “불신자들”인가 혹은 “처음에는 믿는 자들”이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심은 인간 사회에 영속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가?

▣ **“곡과 마곡”** 이것은 불신국가들의 계속적인 반란을 암시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하여(참조, 겔 36 장) 약속의 땅에 회복이 된 이후에도, 그들을 다시 침략하려는 나라들을 인하여 여전히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마곡의 땅에 있는 “곡,” 로쉬와 메섹과 두발의 왕,” 겔 38:2). 이들은 침략군의 지도자의 이름이나 지역이름을 나타낸다; 겔 38:5-6,13 은 이들이 국제적 군대임을 나타낸다. 겔 38-39 장은 마지막 때의 일로써 제시한다(참조, 38:8,10,14,16,18; 39:11). 요한이 구약에서 마지막 때의 암시를 위해 취한 본문의 상당수가 이 장들에 들어 있다. 상황이 더 좋아지기에 앞서(새 예루살렘) 점점 더 나빠질 것이다(새 시대의 산통).

요한은 1 세기의 헬라-로마의 문화에 맞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인용하는 구약의 내용’을 어떻게 재구성하였는지를 주목하라. 곡, 마곡,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나 터키에서 오는 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가리킨다.

▣ **“땅의 사망 백성”** 이것은 미혹과 반란이 전세계적으로 있음을 분명히 말한다(참조, 7:1). “4”라는 수는 상징적으로 전세계를 나타낸다.

▣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 구는 원래 아브라함의 씨를 나타내었다(참조, 창 15:5; 22:17; 32:12; 히 11:12).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용어를 악한 자가 흉내내어 사용하는 예일 것이다. 한편, 9 절의 첫 구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상당히 많은 수의 군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0:9 이 절은 마지막 때에 군대가 팔레스타인의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진군함으로써 뜨겁도에서 실제로 일어날 전쟁을 가리키는가? 구약에는 이 일을 암시하는 여러 본문이 있다(참조, 시 2 편; 겔 38-39 장; 단 9:24-27; 숙 13-14 장). 한편, 예루살렘은 뜨겁도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은 일반적으로 (1) 바벨론의 경우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 사회의 조직과 기능을 의인화한 것임 (2) 역사적으로 볼 때, 요한 당시의 로마를 가리킨다(참조, 14:8; 16:19; 17:18; 18:2,10,16,18,19,21). 한편, 11:8 과 이곳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신약의 모든 저자들 특히 요한은 구약의 상징을 전세계적인 것으로 확대시켜 모든 사람과 관련시킨다. 계시록의 관심사는 유대인 대 이방인이 아니라 신자 대 불신자에 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6:15-16; 11:18; 16:12,14,16; 19:19 에 나타난 것과 같은 ‘마지막 때의 전쟁’이다(평행법).

▣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것은 겔 38:22 와 39:6 의 암시이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20:10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이곳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19:20 에서 던져진 장소이다. 이곳은 20:14 에서 사망과 음부가 던져질 곳이며, 20:15 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던져질 곳이다. 이것은 *게헨나*(지옥)와 동의어로서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영원히 분리됨을 나타낸다(참조, 막 9:43,48).

▣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것은 계 14:10-11; 19:5 의 내용과 매우 비슷하다. 영원한 분리의 개념은 마 25:46 을 암시한다. 그 본문에서는 같은 단어(*아이오 니오스*)가 천국과 지옥에 각각 사용되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대부분은 구원을 위한 목적을 가졌다; 이 절은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사실이다. 지옥에 대하여는 알려진 구원의 목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정의와 의를 회복시키기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다. 지옥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에서 악을 분리시킨다. 지옥이 인간에게 아주 무서운 곳이듯이 하나님께도 그러하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선택을 하게 허용하심으로(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한 모습), 상당수의 인간이 자아와 죄를 선택할 것임을 아셨다. 지옥은 하나님의 마음에 난 피흘리는 상처로서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이다. 지옥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공의의 역설이 지닌 비극적인 신비를 나타낸다!

개역개정 20:11-15

¹¹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¹²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¹³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¹⁴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¹⁵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20:11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이것은 단 7:9 의 암시이다. 크고 흰 보좌는 마 25:31-46 과 평행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본문이 잃어버려진 자들만의 심판이라면, 이것은 마 25 장과 평행을 이루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본문에서는 양(구원받은)과 염소(잃어버려진)가 함께 나타나기 때문이다.

▣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것은 단 7:9 의 암시이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재판장으로 삼으셨다(참조, 요 5:22,27; 9:39; 행 10:42; 17:31; 고후 5:10; 딤후 4:1; 뱀전 4:5). 한편 어떤 본문에서는 ‘자신이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참조, 요 3:17-21; 12:47-48).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것임에도, 사람들이 그를 거부하는 일은 그들 자신에게 심판을 가져 온다. 그렇다면 누가 이 보좌에 앉으시는가?

예수께서 앉으시는가? 마 25:31-46 특히 요 5:22 과 고후 5:10 을 고려할 때 예수께서 앉으시는 것으로 이해함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약의 대부분의 본문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보좌에 앉으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밝힌다(참조, 롬 14:10; 계 5:1,7,13; 6:16; 7:10,15; 19:4; 21:5).

▣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어떤 이는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반역하여 범죄하였을 때에 피조물에게 있던 저주가 제거됨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한다(참조, 창 3:17-19; 롬 8:19-22). 어떤 이는 벵후 3:10,12 에서 묘사하고 있듯이 현재의 물리적 질서가 완전히 파괴됨을 뜻하는 은유적 표현으로 이것을 이해한다(참조, 행 3:21; 롬 8:21).

이것은 (1)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에게로 오심, 참조, 시 114:3-6; 사 13:10; 24:19-20,23; 율 2:10,30-31; 3:15; 스후 14:6 또는 (2) 하나님께서 자신의 두 ‘영원한 증인’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으심, 참조, 민 35:30; 신 17:6; 19:15 을 강조하는 구약적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 문맥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를 뜻하지 않고 창 1:1 에서와 같이 땅 위의 대기층을 가리킨다.

20: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이 큰 그룹이 어떤 사람들인가가 불확실하다.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하여는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상세히 해석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하듯이, 각자가 가진 전제에 따라 달라진다.

“큰 자나 작은 자”라는 구는 (1) 신자들(참조, 시 115:13; 계 11:18; 19:5)이나 (2) 불신자들을 가리킬 수 있다(참조, 13:16; 19:18). 이 구는 이 문맥에서 마 25:31-46 의 “양과 염소” 혹은 빌 2:10-11 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평행을 이룬다.

▣ **“책들이 펴 있고”** 이것은 단 7:10 의 암시이다. 두 가지 책이 언급되고 있다: ‘행위 혹은 기억의 책’ 및 생명책이다(참조, 3:5; 13:8). 생명책에 대하여 출 32:32-33; 시 69:28; 사 4:3; 단 12:1; 눅 10:20; 빌 4:3; 히 12:23; 계 3:5; 13:8; 17:8; 20:15; 21:27 에서 말한다. 행위 혹은 기억의 책에 대하여 시 56:8; 139:16; 시 65:6; 말 3:16; 계 20:12-13 에서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을 공의롭게 대하실 것이다: 자신의 행동과 동기에 대해 인간에게 책임이 있으며 또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참조, 갈 6:7). 단 한 번의 심판이 있다.

▣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은 인간이 살면서 선택한 것에 대하여 행해진다(참조, 마 25:31-46). 우리는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둔다(참조, 갈 6:7).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음에 대한 신학적 진리가 예 17:10; 마 16:27; 고후 5:10; 계 2:23; 20:13 에 나온다. 2:23 에서 이에 대한 자료의 자세한 목록을 참조하라.

20:13 **“바다가 . . .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이것은 죽은 자들이 세 장소에 나누어 수용됨을 뜻하지 않는다. 평행을 이루는 이 표현들은 죽은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섬을 명백히 제시한다(참조, 빌 2:10-11).

20: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이미 6:8 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인간의 큰 적인 사망(참조, 히 2:14-15)이 패하여 제거된다(참조, 고전 15:26,54-55; 딤후 1:10; 계 1:18; 21:4).

▣ **“둘째 사망”** 성경은 죽음의 세 단계에 대해 말한다:

1. 영적 죽음, 참조, 창 3 장; 사 59:2; 롬 5:12-21; 7:10-11; 엡 2:1,5; 골 2:13; 약 1:15
2. 육체적 죽음, 참조, 창 5 장
3. “둘째 사망”으로 불리는 영원한 죽음, 계 2:11; 20:6,14; 21:8, 이것은 지옥을 가리킨다

20: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문장은 **조건절의 제 1 유형**으로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임을 나타낸다(이 표현은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은 자들을 가리킨다).

▣ **“생명책”** 13:8 의 설명을 보라.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왜 경건하며 성경을 믿는 많은 주석가들이 이 장의 해석에 있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2. 이 책이 상징적 문체(목시적 장르)로 기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장을 아주 문자적인 역사상의 일로 이해하는가?
3. 사탄이 왜 잠시동안 묶였는가? 3 절과 8 절에 나오는 국가들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4. 얼마나 많은 그룹이 4 절의 내용과 관련을 가지며, 또 왜 이 일이 중요한가?
5. 이 장에서 두 단계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이 왜 상당히 놀라운 일이 되는가?
6. 부활한 성도들이 어떻게 육체를 가진 나라들과 공존하는가?
7. 11-15 절에 있는 크고 흰 보좌 심판에서 누가 관련을 가지는가?

요한계시록 21-22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⁴)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새 하늘과 새 땅	모든 것이 새롭게 됨	새 예루살렘의 환상 (21:1-22:5)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의 예루살렘
21:1-4	21:1-8	21:1-4	21:1-4	21:1-4
21:5-8		21:5-8	21:5-8	21:5-8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도시의 측량	새 예루살렘	메시아의 예루살렘
21:9-14	21:9-21	21:9-14	21:9-21	21:9-14
21:15-21	새 예루살렘의 영광	21:15-21 강과 생명나무		21:15-22:2
21:22-22:5	21:22 생명의 강 22:1-5	21:22-22:5	21:22-22:3a 22:3b-5	22:3-5
그리스도의 오심	때가 가까움	후기	예수의 오심	
22:6-7	22:6-11	22:6 22:7	22:6 22:7	22:6-7
22:8-11	예수께서 교회에게 증거하시다	22:8-9 22:10-11	22:8-11	22:8-9 22:10-15
22:12-13	22:12-17	22:12-13	22:12-13	
22:14-15		22:14-15	22:14-15	후기
22:16-17		22:16-17	22:16 22:17a 22:17b 22:17c	22:16 22:17
22:18-19	경고 22:18-19 내가 신속히 오고 있다	22:18-19	결론 22:18-19	22:18-19
22:20	22:20-21	22:20 22:20b	22:20 22:20b	22:20 22:20b
22:21		22:21	22:21	22:21

독서의 세 번째 단계 (v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가. 계 20-22 장은 일곱째 단락을 이룬다. 계 21-22 장에서는 인간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떠한 결과를 갖는지 또 영원한 왕국(참조, 단 7:13-14,27; 고전 15:27-28)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드러낸다. 계 22:6-21 은 책 전체의 결론이다.
- 나. 이 두 장에 나오는 거의 모든 내용은 (1) 창 1-3 장 (2) 시 110 편 또는 (3) 신구약 중간기의 묵시문학에 대한 암시이다.
- 다. 이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특이한 내용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1. “나라”에 대한 언급 - 21:14; 22:2
 2. “땅의 왕”에 대한 언급 - 21:24,26
 3. “더러운 성 밖”에 대한 언급 - 21:27; 22:15
- 이 요소들이 포함된 이유로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요한이 구약의 예언들을 암시하고 있다.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의 경우처럼, 해석가들은 그 세부 내용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되고 중요한 강조점을 파악해야 한다.
 2. 요한의 목적은 구원받은 자들과 잃어버려진 자들 사이의 커다란 구분을 나타내는데 있다.
 3. 이 단락에서 언급하고 있는 “나라들”은 5:9; 7:9; 21:14; 22:5 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일반적인 민족적 의미를 나타낸다.
 4. 이러한 요소들을 인하여 어떤 이는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성 안에 있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성 밖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갈 3:29 및 엡 2:11-3:13 을 고려할 때 이것은 바른 신학적 이해가 될 수 없다.
 5. 나는 17-19 장과 20-22 장 사이에 같은 주제가 반복되어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이 견해는 왜 이 단락에서 주제가 반복되는지에 대한 좋은 설명이 된다.
- 라. 이 두 장에는 “일곱” 가지로 구성된 일련의 목록이 나온다. 그것은 더 이상 없는 것의 목록이다
1. 바다 - 21:1
 2. 죽음 - 21:4
 3. 슬픔 - 21:4
 4. 우는 일 - 21:4
 5. 고통 - 21:4
 6. 밤 - 21:25
 7. 저주 - 22:3
- 마.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을 가지는 심판이 세 극적인 환상(인, 나팔, 대접)으로 제시되듯이, 천국도 구약의 세 은유적 표현으로써 극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1. 장막, 21:1-8
 2. 새 예루살렘, 21:9-26
 3. 에덴동산, 22:1-5

이러한 점은 다음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서언(1:1-8)에서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1. 그리스도의 오심이 임박함
2.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
3.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가져야 함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21:1-4

¹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²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³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서 ⁴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21:1 “또 내가...보니” 이것은 시간적 간격을 나타내는데, 그 시간의 길이는 20 장에 나오는 “천년”을 당신이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 “새 하늘과 새 땅” “새”라는 이 헬라이어(*카이노스*)는 시간적 순서를 강조하지 않고 질적 차원을 강조한다(참조, 2:17; 3:12; 5:9; 14:3; 21:1,2,5). 이것은 구약의 주제인 재창조된 땅을 가리킨다(참조, 사 11:6-9; 65:17; 66:22; 또한 롬 8:18-25; 벧후 3:10,12 를 보라). 모든 신자는 이 새 왕국의 시민이며(참조, 빌 3:20; 엡 2:19; 히 12:23), 이 새 창조를 함께 누린다(참조, 고후 5:17; 갈 6:15; 엡 4:24). 이와 평행을 이루는 신학적 개념은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히 11:10,16; 12:22; 13:14 에 나온다.

새 창조는 처음의 창조와 같을 것이다. 하늘은 회복된 에덴동산을 의미할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과 짐승과 모든 피조세계가 함께 교체하며 또 다시 기뻐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과 짐승이 동산에서 완전한 교제를 갖는 것으로 시작한다(참조, 창 1-2 장).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정원에 있는 것으로 마쳐진다(참조, 계 21-22 장). 예언서의 내용에 의하면 짐승도 함께 있다(참조, 사 11:6-8; 65:25). 신자들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재창조되고 정화된 땅으로 하늘에서 내려온다(참조, 계 21:2).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금 함께 있는다(참조, 창 3:15; 사 7:14; 8:8,10; 계 21:3).

▣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더 이상 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참조, 바룩 2 서 37:6; 벧후 3:10-12; 계 20:11) 회복된 창조가 있을 것이다(참조, 행 3:21; 롬 8:21; 골 1:20).

▣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구에 대하여 여러 해석이 있었다(4:6 의 설명을 보라):

1.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하려고 4:6 에서 바다(이것은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을 구분시킨다)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는 여기서 바다를 배제시키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완전한 교제의 회복을 나타낸다고 이해한다
2. 계 20:13 에서 바다가 죽은 자들을 수요하는 세 곳 가운데 하나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죽은 자가 영원한 두 운명 가운데 하나에 처하게 됨을 나타낸다고 어떤 이는 이해한다
3. 계 13:1 에서 첫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기 때문, 이것은 사 57:20 의 악한 자들을 암시하는 바다이다. 이 구는 악한 자가 더 이상 있지 않음을 나타낼 것이라고 어떤 이는 이해한다
4. 계 17:15 이 물로써 사람들을 나타내는 사 17:12-13 의 인용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이 본문이 시 2 편에 있는 바와 같은 악한 국가들을 가리킨다고 이해한다. 나는 1 항의 설명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21: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 52:1 에서 “거룩한 도시”로 불린다(참조, 사 48:2; 64:10; 단 9:24; 느 11:1). 이 새 예루살렘은 3:12 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고 히 11:0; 12:22; 13:14 을 암시한다. 이 사실은 요한이 구약의 예언과 용어와 호칭과 약속을 취하여 하나님의 새백성에게 사용하고 있음을 잘 드러낸다. 이 도시는 어떤 천년주의자들이 가정하듯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옛 언약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언약에 따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두 번의 내려움이 나타난다: 하나는 2 절에 있고 또 하나는 10 절에 나타난다. 묵시적 표현은 매우 유동성이 커서 시간적 순서나 논리나 문자적인 구조를 따라 제시되지 않고 있다.

▣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은 사 61:10(참조, 19:7)의 암시이다. 이 마지막 장들에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여러 은유적 표현이 나타난다: (1) 신부(참조, 19:7; 21:2); (2) 혼인식 손님(참조, 19:9) (3) 성(참조, 21:22,9; 22:2).

야웨를 남편으로(참조, 특히 호 1-3 장) 또 이스라엘을 신부로 표현하는 구약의 용법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내는 것의 배경을 이룬다(참조, 엡 5:21-31).

21:3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 헬라이어 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심에 대한 구약의 약속을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 내용이다:

1. 이것은 야웨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막에 대한 암시이다
2.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내용은 사 7:14(참조, 요 1:14)에 나오는 “임마누엘”이 의미하는 바이다
3.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내용은 언약적 용어이다: 이제는 믿는 모든 백성이(참조, 요 10:16)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된다(참조, 레 26:11-22; 겔 37:23,27).

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이것은 사 25:8(참조, 마 5:4; 7:17)의 암시이다. 새 시대는 기쁨과 평화와 온전케 됨과 찬송의 시간이 될 것이다!

▣ **“다시는 사망이 없고”** 마지막 원수(참조, 계 20:14)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참조, 고전 15:26).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은 새 몸을 가질 것이다(참조, 고전 15:50-57; 고후 3:18; 살전 4:15-16; 요일 3:2).

▣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사 65:19의 암시이며 사 35:10을 반영한다.

▣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창조의 질서가 타락을 인하여 영향받았다(참조, 창 3 장; 6:5,1-12,13). 그러나 새 질서는 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참조, 히 12:27-28).

개역개정 21:5-8

⁵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⁶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⁷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⁸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절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21:5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계시록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온다(참조, 1:8; 또 16:1,17). 야웨와 메시아 가운데 누가 보좌에 앉아 있는가에 대하여 의도적인 애매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참조, 22:3). 20:11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 하나님께서(즉, 성부를 통하여 성자께서) 하신 말씀(참조, 창 1:3,6,9,14,20,24; 시 33:6,9)으로써 첫 창조가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창조도 그렇게 될 것이다.

▣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은 사 60-66 장에 있는 약속의 내용이다. 이것은 성령의 새 시대, 메시아의 새 시대, 의의 새 시대를 가리킨다. 이 새 시대는 예수의 초림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그의 재림 때에 완성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나타남의 확실성’을 의미하는 은유적 표현이다(참조, 1:19; 14:13; 17:17; 19:9).

▣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이 구는 (1) 예수님, 참조, 1:5; 3:7,14; 19:11 (2) 예수를 따르는 자들, 참조, 17:14 (3) 하나님의 말씀, 참조, 19:9; 21:5; 22:6 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종종 “의롭고 참되신”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한다(참조, 15:3; 16:7; 19:20). 이 헬라이어 구의 배경에 있는 히브리적 사고는 ‘믿을 수 있음’을 나타낼 것이다.

21:6 “이루었도다”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이다. 이 표현은 불신자에 대한 진노 및 신자의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함과 관련을 가진다(참조, 6:11; 10:7; 16:17). 또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진 초월성을 이 표현이 나타낸다(참조, 1:1,3; 3:11; 10:6; 12:12; 22:7,10).

▣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것은 사 44:6; 계 1:8 에서 하나님께 사용되었다. 한편, 성부께 사용한 이 호칭을 메시아(1:17; 22:13)께 대하여 사용하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 본문은 신약의 저자들이 하나님께 사용한 호칭을 성부께도 사용하는 경우이다.

하나님의 영원하면서도 독특한 존재하심을 묘사하는 여러 종류의 구가 있다:

1. “처음과 나중,” 참조, 사 41:4; 44:6; 48:12; 계 1:17; 2:8; 22:13
2. “시작과 끝,” 참조, 21:6; 22:13; KJV 의 1:8
3.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오실 이,” 참조, 1:4,8; 4:8

이 내용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인 야웨와 관련을 가진다. 이 이름은 “있다”라는 히브리 동사의 원인을 나타내는 형태이다(참조, 출 3:14; 사 43:10,13; 46:41; 시 90:2; 93:2).

▣ **“내가 생명을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것은 구약의 사 55 장에 대한 암시이다. 이 초청이 모든 이에게 주어지고 있으며 또 완전히 공짜이다(참조, 롬 3:24; 6:23; 엡 2:8)! 죄용서함에 대한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자신의 초청인가? 인간의 구속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서 항상 중심에 있다(참조, 9:20-21; 14:6-7; 16:9,11; 22:17).

구약에서 샘물은 종종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적 필요를 공급하심과 관련을 가진다(참조, 시 36:9; 사 12:3; 44:3; 49:10; 렘 2:13; 17:13; 또한 요 4:10).

21:7 “이기는 자는” 이것은 **현재 능동 분사**로서, 무서운 박해의 시기에 지켜주심을 나타내는 교리를 연속하여 가리킨다. 이 구는 일곱 교회에게 주신 편지에서 줄곧 사용되었다(참조, 2:7,11,17,26; 3:3,5,12,21). 이 구는 계시록의 앞쪽에 있는 장들과 결론 부분을 서로 연결시킨다. 2:2 의 특별주제: 인내를 보라.

▣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7 절에 나오는 상속의 상(참조, 뱀전 1:4,5; 롬 8:17)은 박해의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배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경고의 내용인 8 절과 서로 반대되는 주제이다. 사악한 배교(참조, 8 절)에 대한 여러 내용은 고전 6:9-10 에 있는 것과 상당히 비슷하다.

▣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은 구약에서 상당히 자주 언급된 언약적 표현이다(참조, 3 절; 출 6:7; 29:45,46; 레 26:11-12; 삼하 7:14; 시 89:26-27; 렘 7:23; 11:4; 30:22; 33:38; 겔 11:20; 14:11; 34:30; 36:28; 호 2:23; 숙 8:8; 13:9). 이 구는 신약에서도 사용되었다(참조, 고후 6:16,18).

언약이라는 주제는 성경을 하나로 묶는 주제이다.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소원하게 되었다(참조, 사 53:6; 롬 3:8-18,23). 인간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나서신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재결합은 언약의 한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신다(참조, 렘 31:3; 요 6:44,65); 그가 이 일을 의제로 삼으신다. 하지만 사람들은 반드시 그가 특별히 정하신 바를 따라 응답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내용 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아담/하와, 금하신 과일; 노아, 방주; 아브라함, 땅과 아들; 모세, 율법조항).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점,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신실해야 하는 점에서는 같았다(참조, 롬 4 장). 구약의 언약에 요구 사항이 있었듯이, 신약에서도 그러하다(참조, 막 1:15; 행 3:16,19; 20:21). 인간은 ‘초기에 가지며 또 지속적으로 가지는’ 믿음, 회개, 순종, 섬김, 예배, 인내로써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2:18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21:8 ‘심판이 이미 있어 악한 자들이 제거된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예수의 재림의 때에 있는 승리, 참조, 19:5-21; 흰 보좌, 참조, 20:11-15)에서 이러한 죄의 목록을 언급하는 것은 특별하게 보인다. 이 내용은 ‘어떤 신자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이러한 죄로써 특징지어지는 삶’이 아님을 나타낸다(참조, 요일 3:6,9). 이것은 ‘구원받은 자와 잃어버려진 자의 영원한 차이’ 또는 목시적 드라마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한 문학적 기교로 여겨진다(강조를 나타내는 반복).

▣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타는 못은 분명히 둘째 사망 또는 지옥과 동의어를 이룬다. 예수께서는 지옥을 게헨나로 부르셨다(이 헬라 단어는 계시록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1:18 의 특별주제: 죽은 자는 어디에 있는가를 보라.

개역개정 21:9-14

⁹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¹⁰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¹¹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¹²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¹³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¹⁴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21:9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이것은 15:1,6-8; 16:1; 17:1 에서 나오는 천사 즉 일곱 대접을 쏟은 천사에 대해 사용한 묘사와 아주 똑같은 표현이다. 랍비들의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섬기는 일곱 천사’가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는 천사가 각각 한 가지 재앙과 관련을 가진다.

21:10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것은 다른 환상을 제시하는 문학적 기교이다(참조, 1:10; 4:2; 17:3; 21:10).

▣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이것은 평지에 있는 큰 음녀와 정반대를 이루는 내용’이라고 많은 이가 말한다. 그러나 요한은 여러 구약 본문을 암시하였다. 따라서 그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살고 계신 신비한 북쪽 산’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참조, 겔 40:2; 사 2:2; 14:13; 미 4:1; 예녹 1 서 18:8; 25:3). 이 구는 마 4:8 에 있는 바 사탄이 예수를 시험한 일을 암시하는 내용일 수도 있다.

▣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은유적 표현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참조, 2 절). 땅에 있는 죄악된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을 11:1-13 에서 다루었다. 다윗의 수도가 ‘마지막 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장소’를 나타내고 있다(참조, 요 14:2-3).

21:11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그 성(참조, 11-27 절)은 귀한 재료로 이루어지고 도덕적인 아름다운 성으로 묘사된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부분에서와 같이 이 장은 상징적인 내용이다. 인간의 죄악되고 유한한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누리는 지고한 기쁨과 영광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참조, 고전 2:9). 보석 및 환상적인 고대 도시에 대한 언급은 은유적 표현이지, 그 표현이 실제인 것은 아니다! 천국은 그 분(예수)인 동시에 장소(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이다.

21:12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이것은 겔 48:31-34 의 암시이다. “열두”이라는 수가 이 장 및 22 장의 앞부분에서 거듭거듭 나온다. 이 수는 성경에서 조직(열두 달, 열두 지파, 열두 사도) 또는 하나님의 백성의 조직을 뜻하는 상징적 수이다. 7:4 의 특별주제: 숫자 열두를 보라.

▣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계 7:5-8 에 나오는 열두 지파의 이름은 그들의 상징적 면을 드러내기 위하여 약간 다르게 바뀌었다. 12 절에서 문으로써 묘사되는 하나님의 구약백성이 14 절에서 기초석으로 묘사되는 신약백성과 함께 결합되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라도 단 한 그룹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비는 복음서에 이르러서야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다(참조, 엡 2:11-3:13).

21:14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이 모든 은유적 표현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성전(참조, 겔 40-48 장)을 암시한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절이 ‘사도요한이 이 책의 저자가 아님’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한편, 바울은 비슷한 표현을 엡 2:20 에서 사용하였다.

개역개정 21:15-21

¹⁵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¹⁶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 이천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¹⁷ 그 성곽을 측량하며 백사십사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¹⁸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¹⁹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렸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²⁰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²¹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21:15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측량은 앞 부분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사용되었다(참조, 11:1-2; 램 31:38-40; 숙 2:1-5). 마지막 때에 대한 겔 40 장의 예언에도 측량이 나온다.

21:16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이것은 지성소에 대한 암시이다(참조, 왕상 6:19-20). 그곳의 모양은 정육각형이었다.

그곳에 성전이 없는 이유는(참조, 21:22)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본문은 요한이 겔 40-48 장과 같은 구약의 예언이 상징적인 것임을 말하며, 또 여러 면에서 예언이 다르게 성취되었음을 말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 “만 이천 스다디온”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만 이천 스다디온—백사십사 규빗”이다. 이 두 수는 12 의 배수로서, 어떤 도시를 문자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있는 영원한 기쁨과 교제의 독특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계심’을 나타내기 위한 완전한 측량을 가리킨다(참조, 요 14:2-3). 이것은 구약의 “지성소”의 경우와 같은 완전한 정육면체이다.

21:18-20 “성곽의 기초석” 이 일련의 보석은 다음을 나타낸다

1. 대제사장의 예봇 위에 있는 보석(참조, 출 28:17-20). 그러나 그 순서와 이름이 다르다. 이러한 점은 고대의 보석명이 나라마다 또 시대마다 바뀌었음을 고려할 때 이상한 일이 아니다
2. 사 54:11-17 에 있는 바 보석으로된 도성
3. 왕(또는 하늘)의 보석으로 둘러싸인 두로 왕(또는 사탄)의 영화, 겔 28:12-13
4. 반대 순서로 제시된 십이궁도(필로와 요세푸스)

21:21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상징적 표현이다. 이 내용은 “산헤드린 100a”으로 불리는 탈무드의 랍비적 전통을 가리킨다. 이 전통에서는 마지막 때의 성문의 돌의 높이가 15 m 에 이르는 돌들로 이루어지게 됨을 말한다.

▣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것은 상징적 표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이 인간적인 부유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의 측량할 수 없는 가치와 순수함을 상징하고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개역개정 21:22-27

²²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²³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²⁴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²⁵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²⁶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²⁷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중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1:22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대한 묘사가 있는 계시록의 수 많은 구절과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특별한 본문이다(참조, 3:12; 7:15; 11:1,2,9,19; 14:15,17; 15:5,6,8; 16:1,17). 하늘에 있는 성전에 대한 같은 종류의 언급이 히브리서에서 계시되었다(참조, 8:2-5; 9:11,23-24).

▣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여기에 또 다시 구약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한 세 가지 주요 호칭(야웨, *엘로힘*, *엘 샤패이*)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하여 함께 나타난다(참조, 1:8; 4:8; 11:17; 15:3; 16:7; 1:8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을 보라). 계 5 장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가까운 관계임을 주목하라. 두 분이 함께 다스리시며, 또 보좌가 하나 뿐이다(참조, 22:1,3).

21:23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성부와 성자의 영광이 필요한 모든 빛이다(참조, 시 36:9; 사 24:23; 60:19-20; 숙 14:6-7; 또한 계 22:5). 이것은 별을 숭배하는 행위를 강조하여 거부하는 표현일 것이다.

21:24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계시록에서 흰 보좌 심판 이후에 왜 “만국”을 아직도 언급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것은 단순히 시 72:10-11; 사 49:23; 60:3,15,16 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할 내용이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이다. 이것은 모든 족속과 만국에서 온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1:25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이것은 사 60:1 또는 숙 14:6-7 의 암시이다. 어두움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종종 은유적으로 악을 가리킨다(참조, 마 6:23; 8:12; 22:13; 25:30). 빛과 어두움은 요한에게 있어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대칭을 이루는 상징이었다(참조, 요 1:4-5,7-9; 3:19-21; 8:12; 11:8-10; 12:35-36; 요일 1:5-7; 2:8-11). 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음은 열려있음과 접근이 가능함 및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없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21:27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중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이것은 사 52:1; 겔 44:9; 숙 14:21 의 암시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악한 자의 백성 사이의 궁극적인 차이를 드러내기 위한 문학적 기교로 보인다(참조, 24 절). 새 시대의 특징을 완전한 의의 도시, 빛나는 도시, 열린 도시로써 제시한다. 악이 결코 있지 못하다!

▣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생명책”이라는 이 은유적 구가 계 20:12-15 에서도 나온다. 그 본문에서는 두 책을 언급하였다:

1. 생명책,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들이 기록된 책이다(참조, 출 32:32; 시 69:28; 사 4:3; 단 12:1; 눅 10:20; 빌 4:3; 히 12:23; 계 13:8; 17:8; 20:15; 21:27)
2. 행위의 책 또는 기록의 책, 이것은 악한 행위와 의로운 행위가 기록된 책이다(참조, 시 56:8; 139:16; 사 65:6; 말 3:16)

이 책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기억하심을 은유적으로 나타낸다.

요한계시록 22 장

개역개정 22:1-5

¹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²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³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⁴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⁵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22:1 “그가...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여기에서는 강의 구분이 있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에 대한 개념은 구약의 암시이다(참조, 시 46:4; 겔 47:1-12; 욥 3:18; 슥 14:8). 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영적 필요를 풍족하게 공급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써 자주 사용되었다(참조, 사 12:3; 44:3; 49:10; 렘 2:13; 17:13; 요 4:10-15; 계 7:17; 21:6). 오직 요한만 생명(조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부활한 생명’을 나타내고 있다.

▣ “수정 같이 맑은” 이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이 정결함을 나타낸다(참조, 4:6).

▣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보좌가 단 하나만 있다(참조, 21:22). 이것은 고대 동양 왕궁의 모습을 사용한 신인동형적 표현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영이시다. 물질로 된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다.

22:2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것과 같은 나무를 계 2:7 에서 암시한다. 이 전체 환상이 겔 47:1-12 에서 취한 내용이다(이곳과 12 절). 유대인의 여러 묵시문학에서 창 2:9; 3:22 에 나오는 생명나무에 대하여 말한다(참조, 에녹 25:2 이하; 에스드라 4 서 7:53; 8:52; 에녹 2 서 8:3). 아담이 하나님께 물수당했던 것들을(교제, 지식, 영생)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받은 자들에게 거저 주신다(참조, 빌 2:6).

▣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7:4 의 특별주제: 숫자 열둘을 보라.

▣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치료할 대상이 하나도 없기에 이것은 매우 특이한 내용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겔 47:12 의 인용으로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자(“만국”)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신학적 주제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본문일 것이다(참조, 사 2:3-4; 45:22-25; 60:3; 66:18-19; 슥 2:11; 8:20-23).

22:3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것은 창 3:17 및 슥 14:11 의 암시이다. 새 시대가 도래했으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참조, 롬 8:18,25; 갈 3:13; 엡 2:13,16)을 인하여 구약의 저주가 제거되었다(참조, 엡 2:15-16; 골 2:14). 계시록(4:6)에서 수정바다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거룩하심을 상징한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이제 그 바다가 제거되었다(참조, 21:1).

이 표현이 히브리어의 *하람* 즉 멸망됨 또는 완전히 멸망됨을 가리키는 표현일 수 있다(참조, 슥 14:11). 만일 이것이 구약을 암시하고 있다면, 이 절은 새 예루살렘의 안전함을 나타내며, 따라서 뻔전 1:4-5 의 약속과 같은 내용일 것이다.

▣ 이 구에 나타난 매우 특수한 문법적 특징을 주목하라. 한 보좌가 있는데 두 분이 그 위에 앉아 계시다(즉, 하나님과 어린 양). 한편, 종들이 “그 분”(단수형)을 섬긴다. 이것은 유일신 신앙과 성육신이 가진 신비를 나타낸다. 하나님이 한 분 이신데, 하나님이신 메시아께서 계시다(또 성령님이 계시다).

22:4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뵈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도록 허락을 받지 못했다(참조, 출 33:20). 하나님을 보는 일과 하나님과 거하는 일은 정결한 자들이 받는 상이다(참조, 시 11:7; 16:11; 17:15; 140:13; 마 5:8). 원래 의도하였던 에덴에서의 친밀함이 온전히 회복되었다(참조, 시 42:1-2)!

▣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사탄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표하였듯이(참조, 13:1-7; 14:9; 20:4)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백성에게 표를 하셨다(참조, 3:12; 7:3; 14:1). 이것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히며 또 안전을 상징한다. 7:2 의 설명을 보라.

22:5 “다시 밤이 없겠고” (참조, 21:23-25; 사 60:19-20; 슥 14:7).

▣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천년왕국에서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가? 20:4-5 에서는 마지막 박해의 시기를 산 그리스도인들로 제한하고 있지만, 계 2:26 과 5:10 에서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땅에서 다스릴 것임을 시사한다. 성경은 영원한 통치(참조, 단 2:44; 7:14,18; 사 9:7; 눅 1:33; 뻔후 1:11; 계 11:15)와 천년의 통치를 서로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다. 묵시적 본문에 근거하여 주요 교리를 주장하는 것은 해석학적으로 볼 때 부적절한 방법이다. 이 절은 영원한 통치를 시사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침략자들(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이다)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표현은 절 37-39 장에서 취한 내용이다. 요한은 이 내용이 문자적으로 해석되기를 결코 의도하지 않았다! 묵시적 표현을 역사상에 그대로 일어날 자세한 내역으로 바꾸어 놓는 일은 저자의 의도를 무시하는 일이된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며 또 미래에 대하여 많은 호기심을 가진 것을 인하여 ‘예언과 묵시문학을 해석함에 있어서’ 오늘날의 서구 교회가 이상스럽고 잘못된 방법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5:10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왕국에서 다스림을 보라.

개역개정 22:6

⁶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22:6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심판의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을 가리킨다(참조, 21:9; 22:1,8,9,10).

▣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구는 다음을 묘사한다

1. 예수(참조, 1:5; 3:7,14; 19:11)
2. 예수를 따르는 자들(참조, 17:14)
3. 하나님의 말씀(참조, 19:9; 21:5; 22:6)

하나님께서 “의롭고 참되시다”라고 종종 말한다(참조, 15:3; 16:7; 19:2). 이 구의 배경을 이루는 히브리어에서는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이것은 다음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1. 19:10에 대한 암시
2. 구약의 영감성을 가리킴(참조, 딤후 3:16; 벰후 1:20-21)
3. 신약의 영감성을 가리킴(참조, 벰후 3:15-16)
4. 요한 당시의 복음설교자들을 가리킴
5. 요한의 책을 가리킴(환상들)

원래의 헬라어 본문에서는 영이 대문자로 되어 있지 않다. 번역가들이나 해석가들은 “영”이 성령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인간의 영을 가리키는지를 종종 선택하여야만 한다. 이 본문에서는 인간의 영을 가리킨다(참조, 고전 14:32; 히 12:9).

▣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것은 1:1에 대한 암시이다. 이 마지막 장들에는 1장에서 나타난 것과 거의 동일한 주제들이 있다. 1장에서 사용한 전통적 형태의 개인서신 양식이 22장에서 또 다시 사용되었다.

▣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주께서 곧 임하심을 나타내는 일련의 암시가 나온다(참조, 1:1,3; 3:11; 6절[2회],7절, 10절,12절,20절). 2,000년이 늦추어짐을 신자들이 이해함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따르지만(이 지연이 데살로니가후서에서 계시되었다), 각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주께서 자신들이 사는 시대에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음에서 이 일의 지연을 잘 확인하게 된다. 신약에는 ‘주께서 언제라도 오심’과 ‘어떤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함’ 사이에 커다란 긴장이 나타나고 있다. 신자들은 활력을 유지하면서 계속 신실하여야 한다!

내가 저술한 마태복음 주석에서 다음의 내용을 간략히 인용하고자 한다.

1. 언제라도 일어날 재림(참조, 24:27,44)과
2. 역사에서 어떤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사실 사이에는 신학적으로 역설적인 긴장이 있다. 신약은 재림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진술한다:
 1.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참조, 24:14; 막 13:10)
 2. 큰 배교(참조, 24:10-13,21; 딤후 4:1; 딤후 3:1 이하; 살후 2:3)
 3. “불법의 사람”이 나타남(참조, 단 7:23-26; 9:24-27; 살후 2:3)
 4. 막는 것/막는 자의 옮겨짐(참조, 살후 2:6-7)
 5. 유대인의 회복(슌 12:10; 롬 11장)

이 책의 일곱 가지 문학적 단위 사이에 놀라운 평행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다른 관점에서 그 각 단락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각 시대를 나타낸다’고도 주장한다(즉, 윌리엄 헨드릭슨, *정복자들 이상으로*). 만일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곧 오심을 나타내는 본문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은 후에 이러한 예언이 시작된 것임을 뜻한다는 주장이 맞게 된다. 종말론의 공이 계속하여 구르고 있다!

개역개정 22:7

⁷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22:7 “내가 속히 오리니” 천사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참조, 12-15 절). 22:16 에서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특별히 하신다. 누가 17 절 및 18-19 절의 내용을 말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20 절에서 말씀하시고 요한은 21 절에서 말한다. 1:3 의 특별주제: 곧 오심을 보라.

▣ “복이 있으리라” 이것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일곱 가지 축복의 말씀 가운데 하나이다(참조, 1:3; 14:13; 16:15; 19:9; 20:6; 22:7,14).

▣ “예언” 이 책이 예언이기에 반드시 이것을 예언적 형태로 해석하여야 한다(참조, 9-10 절, 18-19 절; 1:3; 10:11). 이 책은 역사적인 서술이 아니다! 예언에는 항상 조건적인 요소가 들어 있다. 신약의 종말적 본문들은 구약의 예언적 통찰을 반영한다. 즉 ‘마지막 때를 ‘당시의 상황 및 믿음에 의한 응답’에 대한 것으로 제시한다. 많은 학자들은 묵시적 장르가 유대적 예언행위에서 온 것으로 이해한다. 1:3 의 특별주제: 신약에서의 예언을 보라.

개역개정 22:8-9

⁸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⁹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22:8 이것은 상당히 특별한 절이다. 이것은 19:10 에서 요한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문제이다. 분명히 그가 이 천사를 하나님으로 생각했음이 틀림없다.

22:9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기독교는 초기의 결단인 회개와 믿음 및 계속적인 회개, 믿음, 순종, 인내를 요구한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여진 계시록은 인내를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문화적으로 직면한 유혹은 육신적 박해가 아니라 ‘씩어 부패됨,’ 무관심, 실제적인 무신론, 물질주의, ‘축복은 매우 같구하지만 책임있는 자세는 전혀 없는 알파한 기독교’에서 오는 유혹이다!

개역개정 22:10-11

¹⁰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¹¹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22:10 “인봉하지 말라” 이 내용은 사 8:16; 단 8:26; 12:4,9 의 내용과 정반대이다. 예언이 성취될 때가 이르렀다. 불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및 신자에게 주시는 위로는 ‘지금’이다! 지금 결단이 요구된다! 왕국이 임하였다.

▣ “때가 가까우니라” 1:3 의 특별주제: 곧 오심을 보라.

개역개정 22:12-13

¹²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¹³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22:11-12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 반복되는 주제이다(참조, 욥 34:11; 시 28:4; 62:12; 잠 24:12; 전 12:14; 렘 17:10; 32:19; 마 16:27; 25:31-46; 롬 2:6; 14:12; 고전 3:8; 고후 5:10; 갈 6:7-10; 딤후 4:14; 벰전 1:17 계 2:23; 20:12). 이 타락한 세상의 구조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참조, 2:23; 20:12-13). 삶은 영적 실재와 속에 있는 믿음의 활력을 그대로 드러낸다(참조, 마 7 장). 인간은 생명의 선물에 대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그 일에 대해 회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의로운 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다.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및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된다. 우리가 가진 우선순위와 재물에 둔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속(심장)을 드러낸다!

22:11 이것은 단 12:10 의 암시이다.

22:12 “내가 속히 오리니” 1:3 의 특별주제를 보라.

22:13 이 절은 구약에서 야웨께 사용한 호칭을 암시한다(1:8 과 21:6). 그러나 여기서는 이 호칭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 구약 호칭을 예수께 사용함으로써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확증하여 나타내었다. 13 절에는 원래 영원하신

하나님께 사용했던 세 가지의 구약 호칭 또는 구가 나오는데(참조, 사 41:4; 44:6; 48:12), 여기서는 그것을 예수께 사용하고 있다(참조, 1:17; 2:8).

개역개정 22:14-15

¹⁴ 자기 두루마기를 찢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¹⁵ 개들과 짐승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22:14 “복이 있으니” 이것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일곱 축복 가운데 마지막 내용이다(참조, 1:3; 14:13; 16:15; 19:9; 20:6; 22:7,14).

▣ “자기 두루마기를 찢는 자들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다(참조, 7:14).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영접받는다(참조, 엡 1:6).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을 인하여 신자들이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인하여 신자들이 부활생명을 가진다!

이 구에 있어서 헬라이어 사본에 변이가 나타난다.

1. “그들의 두루마기를 찢다”가 사본 \aleph (4 세기)와 A(5 세기)와 벌게이트에 나타난다. UBS⁴는 이것에 “A”등급(확실함)을 주고 있다.
2. “계명을 지키다”가 사본 046(10 세기에 속하는 한 대문자체 사본), 12 세기의 소문자체 사본(1 과 94), 페쉬타(시리아역)에 나온다.

▣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을 누림을 나타내는 두 가지 은유적 표현이다. 하나는 창 2:9; 3:22 에 대한 것이고(참조, 계 2:7; 22:2,14,19) 또 다른 하나는 계 21:2,9-22:5 에 대한 것이다.

22:15 “성 밖에 있으리라” 만일 ‘이것이 불 못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 아니라면’ 이를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참조, 21:8).

▣ “개들” 이 책의 이 시점에서 볼 때 악인이 남아 있지 않기에 이것은 이상한 내용의 암시이다. 신 23:13 에서 이 용어는 가나안의 ‘풍요의 신’ 예배를 위한 남창을 가리킨다. 구약의 신약의 다른 부분에서 이것은 악한 자들을 가리킨다(참조, 시 22:16,20; 마 7:6; 빌 3:2). 나는 로버트 H. 마운스가 새국제 시리즈의 하나인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인용하고자 한다:

“이 절의 내용은 악한 자들의 영원한 상태가 단지 하늘의 성 밖에 사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절은 미래에 대한 내용을 현재의 그림을 사용하여 나타내는 것일 뿐이다. 신실한 자들이 받는 축복과 악한 자들의 운명이 대조되고 있다” (394 쪽).

개역개정 22:16

¹⁶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22:16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너희”가 복수형임을 주목하라. 이것이 2-3 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를 암시하고 있는 점은 매우 특별하다. 책의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이 편지라는 장르이지만, 환상은 예언(미래를 현재라는 렌즈를 통하여 봄)과 목시문학(상상적인 그림)이 결합된 선상의 어느 한 부분에 있다.

▣ “내 사자들” 종종 성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분으로 나온다(참조, 22:6, “하나님의 천사”). 여기서는 보내시는 이가 예수시다(“내 사자”). 이 구가 1:1 에서도 나오는데 그곳에서는 선행하는 대명사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 “교회들” 1:4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메시아가 다윗의 계보임’을 암시하는 본문이 구약(참조, 삼하 7:12-16; 사 11:1,10)과 신약(참조, 마 1:1; 9:17; 15:22; 21:9; 롬 1:3; 딤후 2:8; 계 5:5)의 여러 곳에 있다. 예수께서는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의 성취이시다.

특별주제: 나사렛 예수

신약에서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헬라이어 용어가 여러 개 있다.

1. 신약의 용어

ㄱ. 나사렛 - 갈릴리의 도시이다(참조, 눅 1:26; 2:4,39,51; 4:16; 행 10:38). 이 도시는 당시의 자료에서는 언급되지 않지만 후기의 비문에서는 나온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오셨다는 것은 찬사가 아니었다(참조, 요 1:46). 예수의 십자가 위에 있던 죄패에 기록된 이 지명은 유대인들의 경멸을 나타낸다.

ㄴ. 나자레노스 - 지형적 위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눅 4:34; 24:19)

ㄷ. 나조라이오스 - 도시를 가리키지만, 또한 히브리어에서 메시아를 뜻하는 “가지”와 관련된 언어 유희일 것이다(벧제르, BDB 666 [또한 이와 관련된 용어], 참조, 사 4:2; 11:1; 53:2; 렘 23:5 [BDB 855]; 33:15; 스 3:8; 6:12; 신약에서는 계 22:16). 누가는 18:37 과 행 2:22; 3:6; 4:10; 6:14; 22:8; 24:5; 26:9 에서 이 단어를 예수께 대해 사용한다.

ㄹ. ㄷ항과 관련이 있는 단어인 나지르스 “맹세로서 거룩하게 된 사람”을 가리킨다.

2. 신약 이외의 곳에서의 역사적 용법.

1. 이것은 유대인(기독교 시대 이전)의 이단 단체를 가리켰다(아람어인 나소라이야).

2. 유대인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을 일컫기 위해 사용하였다(참조, 행 24:5,14; 28:22, 노스리).

3. 시리아(아람어를 쓰는) 교회의 신자들을 가리키는 일반적 용어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은 헬라 교회에서 신자들을 뜻하는 용어였다.

4.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 어느 시점에, 바리새인들은 암니아에서 재조직되었고 회당과 교회의 공식적인 분리를 선포했다. 그리스도인에게 저주를 선언한 예는 벧라곳 28b-29a 의 “18 개의 축복”에 있는데, 여기서 신자를 “나사렛 사람들”로 부른다.

“나사렛인들과 이단에 속한 자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신실한 자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5. 순교자 저스틴이 Dial. 126.1 에서 이사야서의 벧셀인 예수를 말했다.

3. 저자의 견해

비록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서로 다른 철자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 용어의 철자가 매우 다양하게 있음에 나는 놀란다. 그럼에도 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이유를 인해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확실히는 모른다:

1. 메시아적 용어인 “가지(벧제르)”와의 관계 혹은 이와 비슷한 용어인 나지르(맹세로서 거룩하게 된 사람) 때문에
2. 부정적인 의미도 가진 갈릴리 때문에
3. 당시 갈릴리에 있던 나사렛 도시와 거의 혹은 전혀 관계가 없기에
4. 이것은 종말론적 의미에서 귀신의 입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즉, 당신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왔습니까?)

이 단어들에 대해 충실한 참고문헌으로서 코린 브라운(편저)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제 2 권 346 쪽 혹은 레이몬드 E. 브라운의 *출생* 209-213, 223-225 쪽을 보라.

▣ “광명한 새벽 별이라” 이것은 메시아의 호칭이다(참조, 민 24:17; 마 2:2; 벧후 1:19). 이것은 사 14:12 곧 ‘사탄에 대해 사용한 비슷한 구’와 관련을 가지는 언어유희이다. 계시록에서는 종종 악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냄을 말한다.

개역개정 22:17

¹⁷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22: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비록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견해가 제시되고 있지만,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필요를 가진 모든 이에게 주시는 복음의 초청’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제안에 응락하여야 함을 나타낸다. ‘구원받은 이를 격려하는 일’ 뿐 아니라 ‘잃어버려진 자로 하여금 성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저로 주시는 초청에 응답하도록 그들을 설득시키고 격려하는 일’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적으로 초점을 이룬다. “오라”의 사중적 용법(네 가지가 모두 잃어버려진 자들에 대한 것이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한 자들”의 지속적 사용; 또한 값 없이 누리는 엄청난 이 복된 소식(참조, 사 55 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며 또 그들로 하여금 응답하도록 이끌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것은 나로 하여금 요한 당시(또 모든 시대)에 살고 있던 자들을 회상하게 한다. 이것은 계 19-22 장에 나오는 바 특별한 요소들(잃어버려진 자들이 심판의 날 이후에 나타남)에 대한 설명이 될 것이다. 요한 당시의 상황을 회상시키는 7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계시록의 문학적 7 단위에 나타난 평행법에 의해 설명이 될 것이다. 그는 에베소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염두에 두고 글을 썼다(참조, 요한일서, 이서, 삼서).

특별주제: 삼위일체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한 문맥적 상황에서 각각 하시는 일을 주목하라.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터툴리안이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이 개념은 설득력이 있다.

- 가. 복음서
 1. 마태복음 3:16-17; 28:19(또한 이와 평행을 이루는 구절에서)
 2. 요한복음 14:26
- 나. 사도행전 - 행 2:32-33, 38-39
- 다. 바울
 1. 롬 1:4-5; 5:1,5; 8:1-4,8-10
 2. 고전 2:8-10; 12:4-6
 3. 고후 1:21; 13:14
 4. 갈 4:4-6
 5. 엡 1:3-14,17; 2:18; 3:14-17; 4:4-6
 6. 살전 1:2-5
 7. 살후 2:13
 8. 딤후 3:4-6
- 라. 베드로 - 벧전 1:2
- 마. 유다 - 20-21 절

하나님의 복수성을 구약에서 암시하고 있다

- 가. 하나님의 이름의 **복수형**
 1. 엘로힘이란 이름은 **복수형**이지만 하나님께 사용될 때 항상 **단수형 동사형**이다
 2. “우리,” 창세기 1:26-27; 3:22; 11:7
- 나. 하나님의 천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표자로 나타남
 1. 창세기 16:7-13; 22:11-15; 31:11,13; 48:15-16
 2. 출애굽기 3:2,4; 13:21; 14:19
 3. 사사기 2:1; 6:22-23; 13:3-22
 4. 스가랴 3:1-2
- 다. 하나님과 성령은 서로 구별됨, 창 1:1-2; 시 104:30; 사 63:9-11; 겔 37:13-14
- 라. 하나님(야웨)과 메시아(*아돈*)는 서로 구별됨, 시 45:6-7; 110:1; 스가랴 2:8-11; 10:9-12
- 마. 메시아와 성령은 서로 구별됨, 스가랴 12:10
- 바. 사 48:16; 61:1 에서는 3 위가 모두 언급됨

예수님의 신성과 성령님의 위격은 경직된 유일신을 믿는 초기의 신자들에게 어려움을 가져왔다.

1. 터툴리안 - 성자를 성부께 종속시킴
2. 오리겐 - 성자와 성령의 신적 속성을 종속시킴
3. 아리우스 -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부인함
4. 모나키안 주의 - 한 하나님께서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연속해서 나타나셨다고 믿음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의 자료에 기초한 사항을 역사적으로 발전시켜 나간 내용이다.

1. 주후 325년의 니케아 회의에서 예수의 완전한 신성과 그가 성부와 동등하심을 확인함
2. 콘스탄티노플 회의(주후 381년)에서는 완전한 위격과 신성을 가지신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에 동등하심을 확인함
3. 삼위일체의 교리는 어거스틴의 *데 트리니타테*에서 잘 설명된다.

여기에 커다란 신비가 있다. 한편 신약은 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 위격으로 나타나셨음을 확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개역개정 22:18-19

¹⁸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¹⁹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22:18-19 이 두 절은 최초의 회중 및 미래의 모든 독자/청중과 명백한 관련이 있다. 이것은 ‘허락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바꾸어 놓으려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경고를 발하기 위하여 구약에서 사용한 문학적 관행이다(참조, 신 4:2; 12:32). 이 내용은 문자적으로 취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꾸어 놓는 일의 심각성을 말하는 동양의 강력한 과장법이다. 이 본문의 핵심은 진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는 해석가나 서기관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레니우스가 *이단에 대항하여* 30:12 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성경의 말씀에 어떤 것을 더하고 바꾸고 제하는’ 거짓교사들에 대한 것이다. 성경의 어떤 본문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내용에 반하는 교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어떠한 한 절을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본문’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만일...만일” 이것은 둘 다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개역개정 22:20

²⁰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2:20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압박한 마지막 때, 곧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은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묵시적 책의 특징을 이룬다. 이 주제가 마 13:34-36; 24:43; 25:1-13; 눅 12:29; 살전 5:2,4; 벧후 3:10 에 나온다. 이 일이 2,000 년 동안 지연되었음에 비추어 우리는 이 내용을 시간적 면에서가 아니라 실존적 면에서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가 오고 계시다! 준비하고 있으며 살라. 1:3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아람어의 구인 *마라나타*이다(참조, 고전 16:22).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1. 만일 *마라나타*라면, 그 뜻은 “우리 주께서 오셨다”를 뜻한다
2. 만일 *마라나 타*라면, 그 뜻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를 뜻한다

1 항의 설명이 이 문맥에 더 적합하다. 우리는 *디다케* 10:6 에서 요한 당시에 이것이 주의 만찬 예식을 끝맺는 용어였음을 알고 있다.

특별주제: 마라나타

이것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초대 교회의 예식에서 신학적인 내용 즉 (1) 예수의 신성(시 110 편) 또는 (2) 예수의 재림(행 3:19-21)을 주장하기 위하여 사용한 아람어이다. 이 단어를 어떻게 나누어 읽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1.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즉, *마라나 타*)는 계 22:20 에 있는 바 **명령**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대부분의 역본에서는 이 본문을 이 의미로 해석한다. 만일 그것이 맞다면, 이것은 예수의 재림을 구하는 기도일 것이다.
2. “우리 주께서 오셨다” (즉, *마라나타*)는 아람어의 **완료형**이다. 이것은 크리소스톰(주후 345-407 년)이 즐겨 취한 번역으로서 예수의 성육신을 가리킨다.
3. “우리 주께서 오고 계시다”는 히브리어의 예언적 **완료형**을 반영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섬김에 있어서 그 동기를 나타낸다. 재림은 항상 모든 시대에 있는 신자들을 격려하는 내용이 되었다.
4. *디다케*(1 세기 말 또는 2 세기에 쓰여짐) 10:6 에서는 이 구를 주의 만찬에서 사용하였다. 그 예식의 기도에서는 예수의 현재적 임재와 미래적인 종말적 재림을 함께 강조하였다.

개역개정 22:21

²¹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2:21 주의 백성과 함께 있는 “주 예수의 은혜”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세대에게 제시하는 진리의 결론으로 나타나며 또 은혜가 모든 세대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됨을 주목하라.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신자들이 하늘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하늘이 정화된 지구로 돌아오는 것인가?
2. 계 21:3 이 어떻게 “임마누엘”이라는 용어와 관련을 가지는가?
3. 새 예루살렘에 왜 성전이 없는가(참조, 21:22)?
4. 21:24 에서 언급된 사람들은 누구인가?
5. 신자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유의하여야” 하는가(참조, 22:7)?
6. 만일 이것이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면, 22:15 에 있는 바 성 밖에 있는 악한 자들은 누구인가?
7. 왜 22:17 이 상당히 중요한가?
8. 22:18-19 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여야 하는가? 계시록을 잘못 이해한 신자들은 구원을 잃게 되는가?
9. 22 장에서는 세 번에 걸쳐서 “내가 곧 오리라”고 말씀한다(참조, 7,12,20 절). 왜 2,000 년이 되도록 그 일이 지연되고 있는가?

부록 1

헬라어 문법용어의 간략한 정의

종종 헬라적 그리스어로 불리는 코이네 헬라어는 알렉산더 대왕(주전 336-323)의 정복 시기부터 시작하여 800 년간(주전 300-주후 500) 지중해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언어였다. 이것은 간소화된 고전 헬라어였고 또한 여러 면에서 헬라어의 새로운 모습을 지니고 고대 근동과 지중해 연안의 지역에서 제 2 언어가 되었다.

신약의 헬라어는 어떤 면에서 독특한데 그 이유는 누가와 히브리서의 저자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주된 언어가 아람어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글은 아람어의 관용적인 표현과 구조적인 형태의 영향을 받았다. 또한 그들은 코이네 헬라어로 쓰여진 칠십인역(구약의 헬라어 역본)을 읽었고 인용했다. 그러나 칠십인역은 헬라어가 모국어가 아닌 유대 학자들에 의해 쓰여졌다.

이 점은 우리로 신약성경을 융통성없는 문법구조로 밀어넣을 수 없음을 상기시킨다. 신약의 헬라어는 독특하면서도 (1) 칠십인역 (2) 요세퍼스 등의 유대 저작 (3) 이집트의 파피루스에서 발견되는 것과 많은 공통점을 지닌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약성경의 문법적인 분석을 할 것인가?

코이네 헬라어와 신약성경의 코이네 헬라어의 문법적 특성에는 유동성이 있다. 여러 면에서 이 헬라어는 단순화한 문법의 시기였다. 문맥이 우리의 주요한 안내자가 될 것이다. 단어들은 오직 커다란 문맥에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문법적인 구조를 오직 (1) 저자의 특징적인 스타일 (2) 특별한 문맥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 헬라어 형태와 구조에 대한 어떤 확정적인 정의도 가능하지 않다.

코이네 헬라어는 우선적으로 동사적인 언어였다. 종종 동사의 종류와 형태는 해석의 열쇠가 된다. 대부분의 주절에서 동사가 맨 앞에 나오므로써 그 중요성을 보인다. 헬라어 동사를 분석함에 있어서 3 가지 사항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시제, 태, 법에 나타난 기본적인 강조점(어형론 또는 형태론) (2) 어떤 동사의 기본적인 뜻(사전적 의미) (3) 문맥의 흐름(구문론).

I. 시제

가. 시제나 시상은 동사가 완료된 행동 또는 미완료된 행동에 관련됨을 말한다. 이것은 종종 완료적 “미완료적”으로 불린다.

1. 완료적 시제는 한 행동이 일어남에 초점을 둔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외에는 다른 사항을 말하지 않는다! 그일의 시작, 계속, 또는 결과는 말해지지 않는다.
2. 미완료적 시제는 한 행동이 계속적인 과정에 있음에 초점을 둔다. 이것은 직선상에 일어난 행동, 지속적인 행동, 진행적인 행동 등으로 설명된다.

나. 시제는 저자가 그 일을 어떻게 되어진 것으로 보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1. 그 일이 발생했다 = 부정과거
2. 그 일이 발생하여 결과가 남아있다 = 완료
3. 그 일이 과거에 발생했고 결과가 남아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 과거완료
4. 그 일이 발생하고 있다 = 현재
5. 그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 = 미완료
6. 그 일이 발생할 것이다 = 미래

어떻게 이 시제가 해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는 “구원하다”의 경우에 잘 드러난다. 이 단어의 경우 몇 가지 다른 시제가 그 과정과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1. 부정과거- “구원받았다”(참조, 롬 8:24)
2. 완료- “구원받아 그 결과가 계속된다”(참조, 엡 2:5, 8)
3. 현재- “구원받고 있다”(참조, 고전 1:18; 15:2)
4. 미래- “구원받을 것이다”(참조, 롬 5:9, 10; 10:9)

다. 동사의 시제에 초점을 두면서, 해석자는 원저자가 왜 이러한 시제로 표현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 “아무 장식이 없는” 기본적인 시제는 부정과거이다. 이것은 보통의 동사형태로서 “특별하지 않고” “특별한 표시가 없는” 혹은 “약하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광범위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기에 문맥에서 그 정확한 뜻이 규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말한다. 과거의 시간은 직설법에서만 나타난다. 만일 다른 시제가 사용되었다면 특별한 어떤 강조점이 주어진다. 그러나 어떻게?

1. 완료시제. 이것은 결과로 남아있는 완료된 행동을 말한다. 어떤 의미에서 부정과거와 현재시제의 결합이다. 보통은 남아있는 결과 혹은 완료된 행동에 초점이 있다. 예: 었 2:5 과 8 절,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계속해서 구원을 받고 있다.”
2. 과거완료시제. 이것은 결과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완료와 같다. 예: “베드로는 문밖에 서 있었다”(요 18:16).
3. 현재시제. 이것은 끝나지 않았거나 미완료인 행동을 말한다. 보통 사건의 계속성에 강조가 있다. 예: “그의 안에 있는 자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것으로 난 자는 죄를 계속 짓지 않는다”(요일 3:6, 9).
4. 미완료시제. 이 시제가 현재시제에 대해 갖는 관계는 완료와 과거완료 사이의 관계와 유사하다. 미완료시제는 완료되지 않은 일이 지금은 그쳐졌거나 과거에 그 일이 시작된 것을 말한다. 예: “그 때에 모든 예루살렘이 그에게 나오오고 있었다” 혹은 “그때에 모든 예루살렘이 그에게 나오오기 시작했다”(마 3:5).
5. 미래시제. 이것은 미래에 일어나도록 되어있는 일을 말하기 위해 사용된다. 강조점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있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남에 있지 않다. 이 시제는 종종 어떤 사건의 확실성을 말한다. 예: “~자들은 복이 있나니”(마 5:4-9).

II. 태

가. 태는 동사의 행동과 주어와의 관계를 말한다.

나. 능동태는 일반적이고 예측되며 강조점을 두지 않는 방법으로 주어가 동사의 행동을 하고 있음을 말한다.

다. 수동태는 동사의 행동을 외부의 것에 의해 주어가 받는 것을 말한다. 신약성경 헬라어에서 행동을 유발하는 외부의 요인은 전치사와 격으로 표시된다:

1. 직접적으로 사람인 경우로 *ὑπο*와 탈격으로 표시됨(참조, 마 1:22; 행 22:30)
2. 간접적으로 사람인 경우로 *δι*와 탈격으로 표시됨(참조, 마 1:22)
3. 사람이 아닌 경우로 *ἐκ*과 기구격으로 표시됨
4. 어떤 때는 사람 혹은 사람이 아닌 경우로 기구격으로만 표시됨

라. 중간태는 주어가 동사의 행동을 일으키며 또한 그 동사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됨을 말한다. 종종 저자의 고조된 관심을 나타내는 태로 불린다. 이 형태는 절이나 문장의 주어에 어떤 면에서 강조점을 둔다. 영어에는 없는 태이다. 의미와 번역에 있어서 광범위한 융통성이 있다. 몇 가지 형태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재귀 - 주어 자신의 직접적인 행동. 예: “자신을 목 매달았다”(마 27:5).
2. 강조 - 주어가 자신을 위해 행동을 함. 예: “사탄이 빛의 천사들처럼 자신을 가장한다”(고후 11:14).
3. 상호작용 - 두 주어의 상호작용. 예: “그들이 서로 상의했다”(마 26:4).

III. 법(혹은 “모드”)

가. 코이네 헬라어에는 4 가지 법이 있다. 이것은 동사와 사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적어도 저자 자신의 생각속에 있는 것을 말한다. 법은 두 가지 큰 범주로 나뉜다: 사실을 나타내는 것(직설법)과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가정법, 명령법, 회구법).

나. 직설법은 적어도 저자의 생각에 어떤 일이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헬라어의 범중 유일하게 한정된 시간을 말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이러한 시상은 이차적이다.

다. 가정법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어떤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직설법 미래와 공통점을 많이 갖는다. 차이점은 가정법은 어느 정도의 의구심을 내포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종종 “했었을 지도” “였을 지도” “할 지도” “했을 지도”로 표현된다.

라. 회구법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희망을 나타낸다. 가정법보다 실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여겨진다. 회구법은 어떤 조건에서의 가능성을 말한다. 신약에서 드물게 나온다. 바울의 유명한 표현에서 나오는데, “~그럴수 없다”(흠정역,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말이 15 회 사용되었다(참조, 롬 3:4, 6, 31; 6:2, 15; 7:7, 13; 9:14; 11:1, 11; 고전 6:15; 갈 2:17; 3:21; 6:14). 다른 예는 눅 1:38; 20:16; 행 8:20; 살전 3:11 에 있다.

- 마. 명령법은 가능한 명령을 강조하지만, 주어의 의지를 강조한다. 이것은 의지적인 가능성만을 말하며 다른이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다. 기도와 3 인칭으로 한 요구에서 명령법은 특별한 용법을 갖는다. 신약에서 이러한 명령은 현재형과 부정과거 시제로만 나온다.
- 바. 어떤 문법가들은 분사를 또 하나의 법으로 본다. 이것은 신약 헬라어에서 매우 흔하며 대개는 동사적 형용사로 정의된다. 이것은 본 동사와의 관계에서 번역된다. 분사를 번역함에 있어서 많은 다양성이 있다. 이를 위해 여러가지 영어성경을 참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베이커사에서 발행한 *26번역본 성경*은 매우 유용하다.
- 사.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은 보통의 혹은 “아무 표시도 안한” 방법으로 어떤 일을 기록한 것이다. 이외의 모든 시제, 태, 법은 원저자가 나타내려는 어떤 특별한 해석적인 고려점을 갖고 있다.

IV. 헬라어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음의 책들은 필요한 도움을 줄 것이다:

- 가. 프리벡, 바바라와 디모티. *분석적 신약성경 헬라어*. 그랜드래피트: 베이커, 1988.
- 나. 마샬, 알프렌. *헬라어-영어 행간 신약성경*. 그랜드래피트: 존더반, 1976.
- 다. 마운스, 윌리엄 D. *분석적 신약성경 헬라어 사전*. 그랜드래피트: 존더반, 1993.
- 라. 섬머즈, 레이. *신약성경 헬라어의 핵심*. 내쉬빌: 브로드만, 1950.
- 마. 코이네 헬라어에 대한 학문적 과목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무디성경연구원에서 수강할 수 있다.

V. 명사

- 가. 구문적으로 명사는 격으로 구분된다. 격은 어떤 어형변화를 가진 명사가 한 문장에서 동사와 다른 품사와 갖는 관계를 나타낸다. 코이네 헬라어에서 많은 경우 격의 의미는 전치사에 의해 표현된다. 격변화는 여러가지 다른 관계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명확한 의미의 구분을 위해 전치사의 사용이 발달되었다.
- 나. 헬라어의 격은 다음의 8 가지로 구별된다:
 1. 주격은 이름을 말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대개 문장이나 절의 주어를 나타낸다. 이것은 또한 서술적인 명사나 형용사가 “~이다” 혹은 “~이 되다”의 동사와 사용된다.
 2. 소유격은 설명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것이 사용되는 단어의 속성이나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다. 이 격은 “어떤 종류?”를 묻는 질문에 답을 준다. 종종 “~의”란 의미를 갖는다.
 3. 탈격은 소유격과 같은 어형변화를 갖지만, 분리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시간, 장소, 자료, 기원, 정도 등에 있어 분리를 뜻하기 위해 사용된다. 종종 “~로 부터”에 해당한다.
 4. 여격은 사람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다. 이것은 긍정적, 부정적 면을 가질 수 있다. 종종 이것은 간접목적어를 나타낸다. 종종 “~에게”란 의미를 갖는다.
 5. 위치격은 여격과 같은 격변화를 갖는다. 위치, 공간적 장소, 시간이나 논리의 한계를 나타낸다. “안에, 위에, ~에, 가운데, 동안, 에 의해, 더불어” 등의 의미를 갖는다.
 6. 기구격은 여격 위치격과 같은 격변화를 갖는다. 도구나 협력관계를 나타낸다. 종종 “에 의해” 혹은 “와 함께”로 번역된다.
 7. 목적격은 행동의 결말을 나타내며, 한계를 표현한다. 이것은 주로 직접목적어로 사용된다. “얼마만큼?” 혹은 “어느 정도까지?”에 대한 답을 준다.
 8. 호격은 직접화법에서 사용되었다.

VI. 접속사와 관계사

- 가. 헬라어는 매우 많은 관계사를 갖고 있기에 매우 정확한 언어이다. 접속사는 생각(절, 문장, 문단)을 연결한다. 전치사없이 자주 나오기에 종종 석의에 있어 중요하다. 사실상 이러한 접속사와 관계사는 저자의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 지를 보여준다. 종종 접속사는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매우 결정적이다.

- 나. 여기에 몇가지 접속사와 관계사의 뜻을 제시하였다(이 자료는 주로 H. E. 다나 줄리어스 K. 만티가 공저한 *신약성경헬라어의 매뉴얼 문법*에서 발췌했다).
1.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 ㄱ. *에피, 에페이테, 호포테, 호스, 호테, 호탄*(주어) - “언제”
 - ㄴ. *헤오스* - “하는 동안”
 - ㄷ. *호탄, 에판*(주어) - “언제나”
 - ㄹ. *헤오스, 아크리, 메크리*(주어) - “까지”
 - ㅁ. *프리브*(부정사) - “이전에”
 - ㅂ. *호스* - “이래,” “언제,” “할 때”
 2. 논리적 접속사
 - ㄱ. 목적
 - (1) *히나*(주어), *호포스*(주어), *호스* - “하기 위하여,” “그래서”
 - (2) *호스테*(관사를 갖는 목적격 부정사) - “그래서”
 - (3) *프로스*(관사를 갖는 목적격 부정사), *에이스*(관사를 갖는 목적격 부정사) - “그래서”
 - ㄴ. 결과(목적과 결과를 나타내는 문법적 형태가 서로 가깝다)
 - (1) *호스테*(가장 많은 경우, 부정사) - “하기 위하여,” “따라서”
 - (2) *히나*(주어) - “그 결과”
 - (3) *아라* - “그래서”
 - ㄷ. 원인 또는 이유
 - (1) *카르*(원인/효과 또는 원인/결론) - “위하여,” “왜냐하면”
 - (2) *디오티, 호티* - “왜냐하면”
 - (3) *에페이, 에페이테, 호스* - “때문에”
 - (4) *다이*(목적격과) 그리고 (관사와 쓰인 부정사와) - “왜냐하면”
 - ㄹ. 추론의
 - (1) *아라, 포이눈, 호스테* - “그래서”
 - (2) *디오*(강한 추론적인 접속사) - “그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 (3) *운* -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다면,” “따라서”
 - (4) *토이눈* - “따라서”
 - ㅁ. 부사적 또는 대조
 - (1) *알라*(강한 부사) - “그러나,” “외에는”
 - (2) *에* - “그러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한편”
 - (3) *카이* - “그러나”
 - (4) *멘토이, 운* - “그러나”
 - (5) *플렌* - “그럼에도”(주로 누가복음에서)
 - (6) *운* - “그렇지만”
 - ㅂ. 비교
 - (1) *호스, 카소스*(비교절을 이끔)
 - (2) *카타*(합성어에서, *카소, 카스티, 타소스페르, 카사페르*)
 - (3) *호소스*(히브리서에서)
 - (4) *호스테*(가장 많은 경우, 부정사) - “하기 위하여,” “따라서”
 - (5) *에* - “보다”
 - ㅅ. 계속 또는 시리즈
 - (1) *테* - “그리고,” “지금”
 - (2) *카이* - “그리고”
 - (3) *테이* - “그리고”
 - (4) *히나, 운* - “그래서”
 - (5) *운* - “그 때”(요한복음에서)
 3. 강조적 용법
 - ㄱ. *알라* - “확실히,” “정말,” “사실상”
 - ㄴ. *아라* - “정말,” “확실히,” “정말로”
 - ㄷ. *카르* - “그러나 정말로,” “확실히,” “사실”
 - ㄹ. *테* - “정말”
 - ㅁ. *에안* - “조차”
 - ㅂ. *카이* - “조차,” “정말,” “사실”
 - ㅅ. *멘토이* - “정말”
 - ㅇ. *운* - “정말,” “결단코”

VII. 조건절

- 가. 조건절은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조건절을 가지는 문장이다. 이 문법적인 구조는 해석에 도움을 준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건, 이유, 원인을 제공하여 왜 본동사의 행동이 일어났는지 혹은 그것이 왜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를 말해주는 때문이다. 4 가지의 조건절이 있다. 조건절은 저자의 관점이나 목적에서 볼 때 사실로 여겨지는 것에서부터 단지 그가 바라고 있는 것 등 다양하다.
- 나. 조건절의 제 1 유형은 비록 “만일”이라는 말로 나타나지만 저자의 관점이나 목적에서 볼 때 사실로 여겨지는 행동이나 상태를 말한다. 여러 문맥에서 이것은 “~이므로”로 해석된다(참조, 마 4:3; 롬 8:31). 그러나 이 점은 모든 제 1 유형이 사실상 진실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종종 이것은 논쟁에 있어서 논쟁점을 드러내거나 오류를 뚜렷이 보이기 위해 사용된다(참조, 마 12:27).
- 다. 조건절의 제 2 유형은 “사실에 반대되는 것”으로 종종 불린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논지를 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로서는:
1.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인지 알았을 텐데 그는 선지자가 아니라 모르고 있다”(눅 7:39).
 2. “만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는 나를 믿었을 텐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아 나를 믿지 못하고 있다”(요 5:46).
 3.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전혀 아닐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으며 나는 그분의 종이다”(갈 1:10).
- 라. 조건절의 제 3 유형은 가능한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이것은 종종 그 행동의 개연성을 예측한다. 대개 우연히 일어남을 내포한다. 본동사의 행동은 “it”절에 있는 행동에 부수하여 일어난다. 예로서는 요일 1:6-10; 2:4, 6, 15, 20, 21, 24, 29; 3:21; 4:20; 5:14, 16 이 있다.
- 마. 조건절의 제 4 유형은 한층 더 가능성을 제거하고 있다. 신약에서 드물게 사용된다. 사실상 이런 조건이 모두 딱 들어맞는 조건절의 제 4 유형은 없다. 뱀전 3:14 의 앞 부분에 제 4 유형의 부분적인 예가 나온다. 행 8:31 에서는 뒤 부분에 제 4 유형이 부분적으로 나온다.

VIII. 금지

- 가. 현재 명령형과 함께 사용된 *ἵνα* 불변화사는 종종(그러나 항상은 아님) 이미 진행중인 어떤 행동을 멈추는 것을 나타낸다. 예로서는: “땅위에 너의 재물 쌓기를 멈추어라”(마 6:19); “너의 인생에 대해 걱정하기를 멈추어라”(마 6:25); “너의 육체의 부분을 잘못함의 도구로 죄에게 드리는 것을 멈추어라”(롬 6:13);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기를 멈추어라”(엡 4:30); “포도주에 취해 있기를 멈추어라”(5:18).
- 나. 부정과거 가정법과 함께 사용된 *ἵνα* 불변화사는 “어떤 행동을 시작하는 것조차 하지 않게”하는 의미를 갖는다. 예로서는: “이라고 가정하기 시작조차 말라”(마 5:17); “근심하기를 결코 시작하지 말라”(마 6:31); “너는 결코 수치로 여기지 말라”(딤후 1:8).
- 다. 이중부정과 함께 사용된 가정법은 부정을 매우 강하게 강조한다. “결코, 절대로 아니” 또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아니.” 예로서는: “그는 결코, 절대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요 8:51); “나는 결코, 절대로 아니...”(고전 *13).

XI. 관사

- 가. 코이네 헬라어에서 정관사 “그”는 영어의 관사와 유사하다. 이것의 기본적인 기능은 “지시하는 것”으로서 단어, 이름, 또는 구에 관심을 끌게한다. 신약에서 저자마다 그 사용법이 많이 다양하다. 정관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시대명사처럼 대비를 하는 기능
 2. 이 전에 나온 주체나 사람을 가리키는 기능
 3. 문장에서 주어를 해당되는 동사에 연결시키는 기능. 예: “하나님은 영” 요 4:24; “하나님은 빛” 요일 1:5; “하나님은 사랑” 4:8, 16.
- 나. 코이네 헬라어는 부정관사(a, an)를 갖지않는다. 정관사가 없는 경우는
1. 어떤 것의 특징이나 특성에 초점이 있다

2. 어떤 것의 그룹적 성격에 초점이 있다.

다. 신약의 저자들이 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XI. 신약성경 헬라어에서 강조점을 나타내는 경우들

가. 신약에서 저자들이 강조점을 나타내는 방법은 다양하다. 누가와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보다도 일정하고 격식적인 어법을 사용하고 있다.

나. 우리는 이미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이 보통의 혹은 “아무 표시도 안한” 방법으로 어떤 일을 기록한 것과 그 이외의 모든 시제 태 법은 어떤 특별한 해석적인 고려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이말은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에 아무런 문법적인 고려점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예: 롬 6:10(2 회).

다. 코이네 헬라어의 어순

1. 코이네 헬라어는 여형변화가 있는 언어로서, 어순이 영어처럼 고정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저자는 기대되는 일반적인 어순과 다음의 이유에서 달라질 수 있다

- ㄱ. 저자가 독자에게 강조하기 원했던 것을 나타내기 위해
- ㄴ. 저자가 생각하기를 독자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
- ㄷ. 저자가 깊이 느끼고 있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2. 헬라어의 일반적 어순에 대하여는 아직 논란이 있다. 그러나 추정되는 일반적 어순은 다음과 같다:

- ㄱ. 연결동사에서
 - (1) 동사
 - (2) 주어
 - (3) 보충어
- ㄴ. 타동사에서
 - (1) 동사
 - (2) 주어
 - (3) 목적어
 - (4) 간접 목적어
 - (5) 전치사 구
- ㄷ. 명사 구에서
 - (1) 명사
 - (2) 수식어
 - (3) 전치사 구

3. 어순은 석의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예:

- ㄱ. “오른손을 그들이 주었다 나에게와 바나바 교제의”(갈 2:9). 이 구에서 “교제의 오른손”이 나뉘어져 있어 그 중요성을 말한다.
- ㄴ. “그리스도와”(갈 2:20)이 맨 앞에 나온다. 그의 죽으심이 중심에 있다.
- ㄷ. “그것은 조금씩 많은 다른 방법으로”(히 1:1)가 맨 앞에 나온다. 하나님의 계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가 대비되고 있다.

라. 일반적으로 강조의 강도는 다음에 의해 나타난다

- 1. 동사의 어형변화에 이미 나타나 있는 대명사의 반복. 예 “나, 나 자신이 너희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다”(마 28:20).
- 2. 예상되는 접속사의 부재 혹은 단어 구 절 문장을 잇는 연결용어의 부재. 이것은 접속사의 생략으로 불린다. 연결용어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그것이 없음으로서 주의를 끈다. 예:
 - ㄱ. 산상수훈, 마 5:3 이하(항목을 강조)
 - ㄴ. 요 14:1(새 주제)
 - ㄷ. 롬 (:1(새 단락)
 - ㄹ. 고후 12:20(항목을 강조)
- 3. 단어 혹은 구를 같은 문맥에서 반복함. 예: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엡 1:6, 12, 14). 이 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의 사역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 4. 관용어 혹은 언어(소리)유희를 이루는 용어의 사용
 - ㄱ. 완곡어법 - 타부시 되는 주제를 대신하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죽음대신 “잠”(요 11:11-14) 혹은 남성 성기대신 “발”(룻 3:7-8; 삼상 24:3).

- ㄴ. 둘러서 표현하기 - 하나님의 이름대신에 “하나님의 왕국”(마 3:21) 혹은 “하늘에서의 소리”(마 3:17)로 표현.
- ㄷ. 수사법
 - (1) 불가능한 과장(마 3:9; 5:299-30; 19:24).
 - (2) 다소의 과장(마 3:5; 행 2:36).
 - (3) 의인화(고전 15:55).
 - (4) 모순(갈 5:12).
 - (5) 시적 본문(빌 2:6-11).
 - (6) 단어들의 발음을 사용한 언어적 기교
 - ㄱ) “교회”
 - 1) “교회”(엡 3:21)
 - 2) “부르심”(엡 4:1, 4)
 - 3) “부르심을 입은”(엡 4:1, 4)
 - ㄴ) “자유로운”
 - 1) “자유한 여인”(갈 4:31)
 - 2) “자유”(갈 5:1)
 - 3) “자유한”(갈 5:1)
- ㄹ. 관용적 언어 - 대개 문화와 언어에 독특한 표현법:
 - (1) “음식”에 대한 묘사적인 표현(요 4:31-34).
 - (2) “성전”에 대한 묘사적인 표현(요 2:19; 마 26:61).
 - (3) “미워함”은 히브리어의 불쌍히 여김에 대한 관용적 표현임(창 29:31; 신 21:15; 눅 14:36; 요 12:25; 롬 9:13).
 - (4) “모든” 대 “많은.” 사 53:6(“모든”)을 53:11, 12(“많은”)과 비교하라. 이 용어들은 롬 5:18, 19에서처럼 동의어적으로 사용된다.
- 5. 한 단어 대신에 완전한 언어적 구를 사용하기. 예: “주 예수 그리스도.”
- 6. 아우토스의 특별용법
 - ㄱ. 관사와 함께(설명적 위치에서) 사용될 때는 “같은”으로 번역된다.
 - ㄴ. 관사없이(서술적 위치에서) 사용될 때는 강화된 재귀대명사로 번역된다—“그 자신,” “그녀 자신,” 또는 “그 자신.”
- 마. 헬라어 성경을 읽지 못하는 학생들은 여러 사항들에서 강조점을 발견할 수 있다:
 - 1. 분석적 사전과 헬라어/한국어 행간 성경.
 - 2. 여러 현대 번역본, 특히 다른 번역이론을 가진 번역본의 비교연구. 예: “축어적 번역본”(KJV, NKJV, ASV, MAB, RSV, NRSV)와 “등가번역본”(윌리엄스, NIV, NEB, REB, JB, NJB, TEV). 베이커사에서 발행한 *26개 언어 성경*은 많은 도움이 된다.
 - 3. 요셉 브라이언트 로더햄의 *강조 성경*(크레겔, 1994)의 사용.
 - 4. 매우 문자적 번역본의 사용
 - ㄱ. 1901년판 *미국표준역*
 - ㄴ. 로버트 영이 쓴 *영의 문자적 번역 성경*(가디안 출판사, 1976).

문법의 연구는 지루하지만 적절한 해석을 위해 필요하다. 위의 간략한 정의, 설명, 예들은 헬라어를 모르는 독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이 책에서 제공한 문법적 사항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위함이다. 이 정의들은 너무 간략한 것이 사실이다. 이 정의들은 교조적이고 융통성없게 사용될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신약의 구문을 이해하는데 앞으로 나아가도록 징검다리역할을 할 뿐이다. 바라기는 이 정의들이 신약성경과 관련된 전문적인 주석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의 본문에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우리의 해석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문법은 이런 항목 중 가장 유용한 내용이다; 다른 항목들은 역사적 상황, 문학적 문맥, 그 당시의 단어 사용법, 병행되는 성경구절이 있다.

부록 2

본문비평

이 주제는 본 주석에 나오는 본문비평적 용어를 설명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개요를 사용할 것이다

- I. 성경의 본문비평 자료
 - 가. 구약
 - 나. 신약
- II. “본문비평” 혹은 “하등비평”으로 불리는 이론과 문제점에 대한 간략한 설명
- III. 더 깊은 연구를 위한 자료 소개

I. 성경의 본문비평 자료

가. 구약

1. 맛소라본문(MT) - 히브리 자음 본문은 주후 100 년에 랍비 아퀴바에 의해 고정되었다. 모음 부호, 악센트, 난외주, 삽표, 본문비평 각주는 6 세기에 첨가되기 시작했고 9 세기에 완성되었다. 이 일은 맛소라로 알려진 유대인 학자의 가족에 의해 되었다. 그들이 사용했던 본문의 형태는 미쉬나, 탈무드, 탈군, 페쉬타, 별게이트의 것과 같은 종류였다.
2. 칠십인역(LXX) - 전통은 70 명의 유대학자들이 프톨레미 2 세(주전 285-246)의 후원 아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위해 70 일 동안 번역을 하여 마쳤다고 말한다. 이 번역본은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 나와 있다. 칠십인역은 자주 랍비 아퀴바의 본문(MT)과는 다른 히브리어 본문에 기초한다.
3. 사해사본(DSS) - 사해사본은 주전의 로마시대(주전 200-주후 70)에 “에세네파”로 불리는 유대교 분리주의파에 의해 쓰여졌다. 사해주변의 여러 곳에서 발견된 히브리어 사본은 맛소라사본과 칠십인역을 뒷받침하는 히브리어 본문과는 약간 다른 계열로 보인다.
4. 어떻게 이들 본문이 구약을 이해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예는
 - ㄱ. 칠십인역은 번역가와 학자들이 맛소라본문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 (1) 칠십인역의 사 52:14, “많은 이가 그를 보고 놀라게 되듯이.”
 - (2) 맛소라본문의 사 52:14, “많은 이가 너를 인해 당황하게 되듯이.”
 - (3) 사 52:15 에서 칠십인역의 대명사적 차이는 확인된다
 - ㄱ) 칠십인역, “그래서 많은 나라가 그를 보고 놀랄 것이다”
 - ㄴ) 맛소라본문, “그래서 그는 많은 나라를 흠을 것이다”
 - ㄴ. 사해사본은 번역가와 학자들이 맛소라본문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 (1) 사 21:8 의 사해사본, “그 때 보는 자가 외쳤다, 내가 파수대위에 섰다.”
 - (2) 사 21:8 의 맛소라본문, “그리고 나는 외치기를 사자! 내 주여, 나는 낮에 ... 계속해서 파수대 위에서 있습니다.”
 - ㄷ. 칠십인역과 사해사본이 사 53:11 을 명확하게 한다
 - (1) 칠십인역과 사해사본, “그의 영혼이 구로한 후에 그는 빛을 보게 된가, 그는 만족하게 된다”
 - (2) 맛소라본문, “그는 보게 된다... 그의 영혼의 구로, 그는 만족하게 된다.”

나. 신약

1. 5,300 개가 넘는 헬라이어 신약성경 사본의 전체나 일부분이 현존한다. 85 개 정도가 파피루스에 쓰여졌고 268 개는 전체가 대문자로(언설)로 된 사본이다. 후기인 9 세기 경부터 흘림체(소문자체)가 사용되었다. 헬라이어 사본이 기록된 형태의 숫자는 약 2,700 개이다. 우리는 또한 성구집이라 불리는 예배에 쓰인 대략 2,100 개의 성경 필사본의 목록을 갖고 있다.
2. 신약의 일부분을 포함하는 대략 85 개의 헬라이어 사본이 파피루스에 쓰여졌고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어떤 사본은 2 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대부분은 3-4 세기의 것이다. 어떤 사본도 신약 전체를 갖고 있지 않다. 신약의 가장 오래된 사본들이라고 자동적으로 적은 변이를 갖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지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급하게 쓰여졌다. 그 과정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많은 변이를 갖는다.
3. 시내사본은 히브리 자음 **א**(알레프) 혹은 (01)로 알려져 있는데, 티센도르프에 의해 시내산에 인는 캐서린 수도원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은 주후 4 세기의 것이며 구약의 70 인역본과 헬라이어 신약성경을 갖고 있다. 이것은 “알렉산드리아 본문”에 속한다.

4. “A” 혹은 (02)로 알려진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5 세기의 헬라이어 사본으로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발견되었다.
5. “B” 혹은 (03)로 알려진 바티칸 사본은 로마의 바티칸 도서관에서 발견되었으며 4 세기 중엽의 것이다. 이것은 구약의 70 인역본과 헬라이어 신약성경을 포함한다. 이것은 “알렉산드리아 본문”에 속한다.
6. “C” 혹은 (04)로 알려진 에프라미 사본은 5 세기의 사본으로 부분적으로 손상되었다.
7. “D” 혹은 (05)로 알려진 베자 사본은 5-6 세기의 사본이다. 이것은 중요한 “서방 본문”이다. 이것은 많은 첨가를 갖고 있고 흠정역본의 기초가 되는 주요 헬라이어 사본이다.
8. 신약의 사본들은 세 그룹 또는 네 그룹으로 대별되며 그룹의 공통적인 특징을 함께 갖는다.
 - ㄱ.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본문
 - (1) P⁷⁵, P⁶⁶(주후 200 경), 복음서
 - (2) P⁴⁶(주후 225 경), 바울서신
 - (3) P⁷²(주후 225 경), 베드로서 유다서
 - (4) B 사본으로 불리는 바티칸 사본(주후 325 경), 구약과 신약 전체
 - (5) 오리겐은 이 본문그룹을 인용한다
 - (6) 이 그룹에 속한 다른 사본들은 **Ⓝ**, C, L, W, 33
 - ㄴ. 북 아프리카의 서방 본문
 - (1) 북 아프리카의 교부인 터툴리안, 사이프리아의 인용과 고대 라틴역
 - (2) 이레니우스의 인용
 - (3) 타티안의 인용과 고대 시리아역
 - (4) 베자 사본(D)은 이 그룹에 속한다
 - ㄷ. 콘스탄티노플의 동방 비잔틴 본문
 - (1) 이 본문 그룹에 속한 사본은 5,300 사본의 80%에 이른다
 - (2) 시리아 안디옥의 교부인 캅바도시안, 크리소스톰, 데오오렛의 인용
 - (3) C 사본, 복음서만
 - (4) E 사본(8 세기), 신약 전체
 - ㄹ. 네 번째로 가능한 그룹은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랴 본문”이다
 - (1) 이것은 주로 마가복음에만 있다
 - (2) P⁴⁵와 W가 이에 속한다.

II. “본문비평” 혹은 “하등비평”의 이론과 문제점

가. 어떻게 변이가 생겼는가

1. 부주의 혹은 실수(아주 많은 경우가 해당됨)
 - ㄱ. 손으로 옮겨 쓰는 과정에서 두 비슷한 단어의 두 번째 단어로 눈이 옮겨져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글자를 놓치게 되는 것(비슷한 단어 탈락)
 - (1) 중복되는 글자나 구를 보지 못하고 빠트리는 것(중자탈락)
 - (2) 헬라이어 본문의 구나 문장을 반복하는 실수(중복오사)
 - ㄴ. 귀로 듣고 필사하는 과정에서 철자가 틀리는 것. 종종 철자의 오류는 헬라이어의 비슷한 소리로 인한 것임을 의미한다.
 - ㄷ. 이른 시기의 헬라이어 본문은 장이나 절의 구분이 없었고, 마침표가 전혀 혹은 거의 없었고 단어사이의 구분도 없었다.
2. 고의적
 - ㄱ. 필사자의 본문에서 문법적인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변화
 - ㄴ. 다른 귀절들과 일치시키기 위해 본문에 만들어진 변화(병행귀절의 조화)
 - ㄷ. 차이를 보이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본문을 하나로 길게 조합하는데서 만들어진 변화(합성)
 - ㄹ. 인식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 본문을 고치는 것에서 만들어진 변화(참조, 고전 11:27; 요일 5:7-8)
 - ㅁ. 이전의 서기관이 난외에 기록한 본문의 역사적 상황이나 적절한 해석에 도움이 되는 부수적인 자료를 그 다음 서기관이 본문으로 생각하여 생기는 변화(참조, 요 5:4)

나. 본문비평의 기본 원리(본문에 상이점이 있을 때 원래의 본문을 결정하기 위한 논리적 지침)

1. 가장 이상하거나 문법적으로 일상적이지 않은 본문이 대체로 원래의 본문이다.
2. 가장 짧은 본문이 대체로 원래의 본문이다.
3. 다른 것은 모두 같은 수준에 있을 때, 가장 오래된 본문이 역사적으로 원본에 더 근접하기에 더 무게가 있다.
4. 지역적으로 변이를 보이는 본문이 대체로 원래의 본문이다.
5. 요일 5:7-8의 삼위일체 같은 신학적으로 주요한 논제를 다룬 시기의 사본적인 다양성이 있는 경우에, 교리적 색채가 약한 본문이 더 선호되는 본문이다.
6. 다른 본문에 있는 상이점들의 기원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본문이 대체로 원래의 본문이다.

7. 이러한 어려운 차이점들을 다룸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인용을 두 가지 소개하면
- ㄱ. J. 해롤드 그린리의 책, 신약의 본문비평 개론, 68 쪽:
 “어떤 기독교 교리도 논란이 되는 본문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신약학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영감받은 원래의 본문이야말로 가장 정통이고 교리적으로 강하기 위해 그가 가져야 할 본문이라는 것이다.
 - ㄴ. W. A. 크리스웰은 *버밍햄 뉴스*의 그렉 개리슨에게 그(크리스웰)는 “적어도 오늘날의 대중에게 전해지기까지 수 세기에 걸쳐 번역가들을 거친 성경의 모든 단어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영감되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크리스웰은 말하기를 “나는 본문비평을 대단히 신뢰한다. 따라서 나는 마가복음 16 장의 마지막 절반은 이단적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영감되지 않았고, 단지 조제되어졌다...당신이 그 사본들을 고찰해 볼 때, 마가의 책의 결론은 그러한 것을 갖고 있지 않다. 누군가 그것을 첨가했다...”
 남침례교단의 주요 순회전도자도 주장하기를, 예수께서 베테스다 못가에서 병자를 고치신 내용인 요 5 에서도 명백히 “삽입”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다의 자살(참조, 마 27 과 행 1)에 대한 두 가지 다른 기록에 대해 말한다: 크리스웰은 말하기를 “이것은 자살에 대한 다른 견해이다. 만일 이것이 성경에 있으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다. 성경에는 유다의 자살에 대한 두 가지 기록이 있다.” 크리스웰은 덧붙이기를 “본문비평은 놀라운 과학 자체이다. 이것은 단명하지 않는다, 부적절하지도 않다, 그것은 역동적이고 중심적이다...”

III. 사본의 문제(본문비평)

가. 더 깊은 연구를 위한 자료 소개

1. R. H. 해리슨의 *성경적 비평: 역사적, 문학적, 본문적*
2. 브루스 메츠거의 *신약성경의 본문: 전승, 개약, 회복*
3. J. H. 그린리의 *신약본문비평 개론*

부록 3

용어해설

고등비평. 이것은 성경의 어떤 책에 대한 역사적인 상황과 문학적 구조에 초점을 두는 성경해석의 방법이다.

고의적 다의성. 이것은 동시에 두 가지나 그 이상의 뜻을 갖거나 혹은 두 가지나 그 이상의 것을 가리키는 결과를 낳는 표현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말한다. 요한은 일부러 다의성(두 가지 뜻)을 지닌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공인성경. 이것은 1633년에 발행된 엘제빌의 헬라이어 신약성경에 적용되었다. 이 역본은 기본적으로 후기의 몇 헬라이어 사본과 에라스무스(1510-1535)의 라틴어 역본, 스테타누스(1546-1559), 엘제빌(1624-1678)에 기초한 헬라이어 신약성경이다. *신약성경의 본문비평개론*, 27 쪽에서 A. T. 로벳슨은 말하기를 “비잔틴사본은 실제적 공인성경이다.” 비잔틴사본은 초기의 헬라이어 사본의 세 계열(서방, 알렉산드리아, 비잔틴)에서 가장 가치가 적다. 이것은 여러 세기에 걸쳐 손으로 쓰여지는 과정에서 많은 오류를 갖고 있다. 한편, A. T. 로벳슨은 또한 말하기를 “공인성경은 근본적으로 정확한 본문을 우리들을 위해 보존해 왔다”(21 쪽). 이 헬라이어 사본전통은(특히 1522년에 출판된 에라스무스의 3 판) 1611년에 출판된 흠정역의 기초를 이룬다.

관용적 표현. 이 단어는 다른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서 각 단어의 일상적 의미와는 맞지 않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구의 사용을 가리킨다. 현대적 예로서는: “그것은 상당히(끔찍하게) 좋았다” 혹은 “당신은 나를 정말 웃긴다(죽인다)”이다. 성경 역시 이러한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계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개념을 위해 사용되었다. 완전한 의미는 대개 세 가지 용어로 표현된다: (1) 계시—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서 행하셨다 (2) 감동—하나님께서 자신의 행하심과 그 의미에 대한 바른 이해를 성경의 기록을 위해 택하신 어떤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다 (3) 조명—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기계시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구문. 이것은 문장의 구조를 가리키는 헬라이어 용어이다. 완전하게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어떤 문장에서 각 품사가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 가를 다룬다.

귀납법. 이것은 논리나 추론의 방법으로서 부분에서 출발하여 전체로 나아간다. 이것은 현대 과학의 경험적인 방법이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한 접근방법이었다.

그리스도 중심적. 이것은 예수님의 중심 되심을 나타낸다. 나는 이 용어를 예수께서 모든 성경의 주님이시다는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다.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그는 성경의 완성이요 목적이시다(참조, 마 5:17-48).

동의어. 이것은 어떤 단어들에 정확하게 혹은 매우 비슷하게 같은 뜻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비록 어의적으로 어떤 두 단어도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서로 깊이 관련되어 있기에 어떤 문장에서 의미의 변함없이 단어들에 서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히브리시의 세 평행법 가운데 하나를 일컫는다. 즉 시의 두 행이 같은 사실을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참조, 시 103:3).

네스토리안주의. 네스토리우스는 5세기 콘스탄티노폴의 대주교였다. 그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훈련받았고, 예수께서 완전히 인간이시고 완전히 하나님이신 두 본질을 가지셨다고 주장했다. 이 견해는 알렉산드리아의 정통적인 교리인 한 본질과 달리하는 것이었다. 네스토리우스의 주요 관심사는 마리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칭호에 있었다. 네스토리우스는 알렉산드리아의 시릴과 그 자신이 교육받았던 안디옥학파의 연루에 의해 반대되었다. 안디옥은 역사적-문법적-본문중심의 성경해석의 본산지였고, 알렉산드리아는 4중해석(우화적)의 본산지였다. 네스토리우스는 완전히 면직되었고 추방되었다.

디아스포라. 이것은 지리적으로 약속의 땅을 벗어나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일컫기 위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사용한 특별한 헬라이어 용어이다.

랍비적 유대교. 이것은 바빌론 유수(주전 586-538)기간에 유대인들에게 시작되었다. 제사장들과 성전의 영향이 사라지면서 각 지역에 있던 회당이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지가 되었다. 유대문화, 사교, 예배, 성경연구의 장이 된 회당은 국가적으로 종교생활의 중심점이 되었다. 예수님 당시 이 “서기관들의 종교”는 제사장들의 종교와 쌍벽을 이루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바리새인들이 주도하고 있던 서기관적 종교는 유대인들의 종교생활의 지주를 이루었다. 이것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토라(탈무드)의 실제적이고 율법적 해석으로 특징을 짓는다.

맛소라본문. 이것은 9세기히브리 구약성경 사본으로서 유대 학자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왔으며 모음부호와 다른 본문주석과 관련된 참고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오늘날의 구약성경에 기초를 이룬다. 이 사본은 역사적으로 여러 히브리어 사본들 특히 사해사본 이사야서 본문의 지지를 받고 있다. 약어로 “MT”라고 불린다.

무라토리안 단편. 이것은 신약의 정경목록이다. 주후 200년 이전에 로마에서 기록되었다. 기독교의 신약성경과 똑같은 27 권을 제시한다. 이것은 로마제국의 서로 다른 지역에 있던 지역교회들이 4세기에 있었던 주요 교회회의 이전부터 이미 “실제적으로” 정경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모형론. 이것은 특별한 해석방법이다. 유추적인 심볼에 의해 구약의 성경귀절과 연관되는 신약의 진리를 일반적으로 일컫는다. 이것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주된 해석방법이었다. 이것의 오용을 막기 위해서는 신약에 기록된 명확한 경우로만 그 사용을 한정지어야 한다.

묘사적 표현. 이것은 구약을 기록함에 있어서 사용된 관용적 표현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오감으로 알 수 있게 우리의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고, 그것을 의도하지도 않았다.

목시문학. 이것은 유대문학에서 독특하게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세계열강들이 유대를 공격하여 지배하던 시기에 비밀스런 형태로 기록된 글을 뜻한다. 이것은 인격적이고 구속의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세상의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 문학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한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고 있다.

이것은 비밀스러운 많은 용어들로 인해 매우 상징적이고 환상적이다. 이 방법은 진리를 여러 가지의 색, 숫자, 환상, 꿈, 천사의 중계, 비밀 암호같은 단어들, 선과 악의 날카로운 이원론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장르에는 (1) 구약에서 에스겔 (36-48 장), 다니엘 (7-12 장), 스가랴 (2) 신약에서 마 24; 막 13; 살후 2 와 계시록이있다.

문단. 이것은 산문으로 된 문학형태의 기본적 해석단위이다. 이것은 하나의 중심주제와 그것의 전개를 포함한다. 만일 우리가 중심적인 것에 관심을 둔다면 미미한 점들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혹은 원저자의 의도를 놓치는 커다란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

문자적. 이것은 안디옥에서 출발한 본문중심의 역사적 해석방법을 일컫는 또 다른 말이다. 이것은 비유적인 용법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석이 인간 언어의 정상적이고 분명한 의미와 연관됨을 뜻한다.

문학장르. 이것은 시나 역사적 이야기체처럼 사람의 의사전달이 취하는 독특한 표현을 가리킨다. 모든 종류의 문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들 외에 각 문학장르마다 독특한 해석학적 절차가 있다.

문학단락. 이것은 성경의 어떤 책에 대한 주요 개념에 따른 구분을 지칭한다. 단락은 몇 절, 몇 문단, 혹은 몇 장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한 가지 중심주제를 갖는 독립적인 단위이다.

바티칸역. 이것은 주후 4세기의 헬라어 사본이다. 바티칸의 도서관에서 발견되었다. 원래 구약 외경 신약을 모두 포함했다. 그러나 일부본은(창, 시, 히, 목회서신, 몬, 계) 유실되었다. 이것은 원본의 글자를 확인하는데 매우 유용한 사본이다. “B”로 표시된다.

벌게이트역. 이것은 제롬이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의 이름이다. 로마천주교회의 기본적 또는 “공통의” 역본이 되었다. 주후 380년에 번역되었다.

반대의. 이것은 히브리 시행의 평행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세 가지 설명적인 용어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은 반대되는 뜻을 가진 시행의 관계를 나타낸다(참조, 잠 10:1; 15:1).

배자사본. 이것은 주후 6세기의 헬라어와 라틴어로 된 사본이며, “D”라고 명명된다. 이 사본은 복음서, 사도행전과 공동서신의 일부를 포함한다. 이 사본은 서기관의 수 많은 추가기록으로 특징을 이룬다. 이 사본은 “공인성경”의 기초를 이루며, 흠정역본의 배후에 있는 주요 헬라어 사본이다.

변증론자(변증론). 이것은 “법적방어”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왔다. 이것은 기독교신앙의 증거와 이성적인 논증을 제시하기 위한 신학의 한 분야이다.

변증법. 이것은 서로 모순되거나 역설적으로 보이는 것을 그 긴장을 유지하면서, 역설적인 양면을 포함하는 통일된 답을 구하는 사고방법이다. 많은 성경적 교리는 변증법적 짝을 이룬다, 예정—자유의지; 안전—성도의 견인; 믿음—행위; 결단—제자도; 기독교인의 자유—기독교인의 책임감.

병행귀절. 이것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성경자체가 역설적인 진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해석자이며 균형을 가져다 준다는 개념에 기초한다. 이 방법은 불확실하거나 이중적인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유용하다. 이것은 어떤 주제에 관한 성경귀절을 모두 확인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주제에 대해 가장 명확한 본문을 파악하게 돕는다.

본문비평. 이것은 성경사본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 원래의 본문이 남아있지 않고 사본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본문비평이 요구된다. 이것은 상이점들을 설명하고, 구약과 신약의 원본(가능한 한 가장 가까운)을 파악하려고 한다. 종종 “하등비평”이라 불린다.

분석적 사전. 이것은 신약에서 사용된 헬라어의 모든 형태를 제시함으로써 연구를 돕는다. 헬라어의 알파벳 순서를 따라 각 단어의 변화와 기본의미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행간에 번역이 들어가 있는 성경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도 신약성경의 헬라어 문법과 구문적 형태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본. 이것은 헬라어 신약성경의 여러 사본들을 일컫는 말이다. 대개 다른 종류로 구별하는 방식은 (1) 사본이 기록된 재료(파피루스, 가죽) 혹은 (2) 글자자체의 형태 (대문자체 혹은 흘림체)이다. 약어로는 “MS”(단수) 혹은 “MSS”(복수)로 나타낸다.

사해사본. 이것은 1947년에 사해근처에서 발견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진 일련의 고대사본들을 가리킨다. 이 사본들은 1세기 유대 분파의 종교 도서관에 소장되었던 사본들이었다. 로마의 점령으로 인한 압력과 열심당원들이 60년대에 시작한 전쟁은 그들로 두루마리 사본들을 동굴이나 구멍속에 있는 항아리에 밀봉하여 은밀하게 감추어졌다. 이 자료들은 우리가 1세기의 팔레스타인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도록 돕고, 맛소라 사본이 매우 정확하며 주전의 이른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감을 확인해 준다. 이 사본들은 “DSS”라는 약어로 표현된다.

석의. 이것은 어떤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행해지는 어떤 접근법을 의미하는 전문적 용어이다. (본문으로부터) “읽어 내음”을 뜻하는 말로서 우리의 목표가 역사적 상황, 문자적인 문맥, 구문과 당시의 단어 의미에 비추어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선협적. 이것은 “전제”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기준에 받아들여진 정의나 원리 혹은 사실이라고 가정되는 견해에 기초한 논리전제를 말한다. 이것은 어떤 점검이나 분석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내용을 가리킨다.

성경의 유추. 이것은 성경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있고, 따라서 성경은 서로 상반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 보충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러한 전제적 확신은 성경에서 평행되는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기초가 된다.

성경적 권위.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용어이다. 이것은 원저자가 그의 시대 사람들에게 한 바를 이해하는 것과 이 진리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경적 권위는 성경자체를 우리의 유일한 권위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부적절한 성경해석에 비추어 볼 때, 나는 그 의미를 제한하여 역사적-문법적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성구사전. 이것은 성경연구를 위한 유용한 도구이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사용된 용어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성구사전의 유용성은 다음과 같다: (1) 한글성경의 어떤 단어를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나 헬라어 단어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게 한다 (2) 같은 히브리 단어나 헬라어 단어를 포함하는 절을 비교 할 수 있게 한다 (3) 히브리 단어나 헬라어 단어가 한글성경의 어디에서 같은 단어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4) 어떤 단어가 성경의 어떤 책, 혹은 저자별로 얼마만큼 자주 사용되는지를 보여준다 (5) 성경에서 어떤 절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참조, 월터 클락의 *어떻게 신약성경헬라어 연구자료를 사용할 것인가*, 54-55 쪽).

세계이해와 세계관. 이것은 서로 같이 사용되는 용어들이다. 둘 다 창조와 연관된 철학적 개념이다. “세계이해”는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세계관”은 “누가” 창조했는지를 말한다. 이 개념은 어떻게 창조가 이루어졌는가가 아니라 누구에 의한 창조인지를 우선적으로 말하는 창세기 1-2장의 해석에 있어 중요하다.

시내사본. 이것은 주후 4세기의 헬라어 사본이다. 이 사본은 독일 학자인 티첸도르프에 의해 전통적으로 시내산으로 알려진 예벨 무사에 세워진 성 캐서린 수도원에서 발견되었다. 이 사본은 히브리어 자음의 첫 글자인 “알레프”[א]로 명명되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전체를 포함한다. 이것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대문자 사본가운데 하나이다.

신인동형. “인간과 관련된 특성을 갖는”의 뜻을 지닌 이 용어는 하나님과 관련된 우리의 종교적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사람을 일컫는 헬라어 단어에서 왔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말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말한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인간과 관련된 육체적, 사회적, 심리적 용어으로써 표현되고 있다(참조, 창

3:8; 왕상 22:19-23). 물론 이것은 유추일 뿐이다. 하지만 인간과 관련된 용어외에는 달리 우리가 사용할 용어가 마땅히 없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참되지만 제한적이다.

아리안주의. 아리우스는 3 세기와 4 세기 초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교회에서 장로였다. 그는 예수께서 선재하신 분이심을 인정했으나 아마도 잠 8:22-31 에 기초하여 신성은 부인했다(성부와 같은 본질이 아님). 그의 견해는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에 의해 거부되었는데, 그 주교는 주후 318 년에 시작되어 여러해 동안 계속된 논쟁을 일으켰다. 아리안주의는 동방교회의 공식적 신조로 받아들여졌다. 주후 325 년의 니케아회의에서는 아리안주의를 정죄하고 성자의 신성과 그가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는 고대 헬라의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플라톤의 제자였고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다. 그의 영향은 오늘날까지 많은 영역에 미치고 있다. 이것은 그가 관찰과 분류에 의한 지식을 강조했다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학적 방법의 특색을 이룬다.

안디옥학파. 이 학파의 성경해석법은 주후 3 세기에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시작되었는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기원한 우화적 방법에 대한 대응이었다. 이방법의 핵심은 성경의 역사적 의미에 초점을 두는 점이었다. 이들은 성경을 인간의 일반적인 문학작품으로 이해했다. 이 학파는 그리스도께서 두 본질을 갖고 계신지(네스토리안 주의) 혹은 한 본질을 갖고 계신지(완전히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인간이신)에 대한 논쟁에 연관이되었다. 이들은 로마카톨릭교회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되어 페르시아에 다시 정착했지만 영향력은 미미했다. 이들의 해석학적 기본원리는 후에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해석의 원리가 되었다(루터와 칼빈).

알렉산드리아학파. 이 학파의 성경해석방법은 주후 2 세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발전되었다. 이 방법은 플라톤주의자였던 필로의 해석학적 원리에 기초한다. 이것은 종종 우화적 방법으로 불린다. 종교개혁 때까지 이 방법이 횡횡했다. 오리겐과 어거스틴이 이 학파의 대표적 인물이었다. 모이셋 실바, *교회가 성경을 잘못해석했는가?* (아카데미사, 1987)을 보라.

알렉산드리아 사본. 이것은 5 세기의 헬라어 사본으로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쓰여졌으며, 구약, 외경, 대부분의 신약성경을 포함한다. 이것은 헬라어 신약성경 전체에 대한 주요 사본중의 하나이다(마태복음 일부분과 요한복음, 고린도후서를 제외한). “A”라고 칭해진 이 사본과 “B”(바티칸사본)이 일치할 때, 많은 학자들은 대부분 그 내용을 원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야웨(여호와).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름이다. 출 3:14 에서 그 의미가 정의되고 있다. 이것은 “~이다”의 뜻을 갖는 히브리 동사의 원인을 야기하는 형태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의하게 부르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 이름 발음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로 대신하여 사용했다. 이것이 이 언약적 이름이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된 이유이다.

양자론.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초기의 견해중 하나였다. 이 견해는 예수께서 모든 면에서 보통 사람이었으나 그의 침례시(참조, 마 3:17; 막 1:11) 혹은 부활시(참조, 롬 1:4) 하나님에 의해 특별한 방법으로 양자되었다고 주장한다. 예수님은 이런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침례, 부활) 예수님을 그의 “아들”로 양자삼았다(참조, 롬 1:4; 빌 2:9). 이것은 초대교회와 8 세기에 소수의 사람들이 가졌던 견해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성육신)을 바꾸어 놓아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이 되셨다!

이 견해는 성자이시고 선재하신 하나님인 예수께 그의 모범적인 삶을 인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상 주시고 그를 높이셨는가를 말하기가 어렵다. 만일 그가 이미 하나님이셨다면, 예수께서 어떻게 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 만일 그가 선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다면, 어떻게 그가 더 명예를 얻게 될 수 있겠는가? 비록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부의 뜻을 그가 온전히 이루심을 인해 성부께서는 어쨌든 어떤 특별한 의미에서 예수를 영예롭게 하셨다.

어원론. 이것은 어떤 단어의 원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한 단어 연구를 말한다. 어원적인 뜻을 앎으로써 특별한 용례에 따른 의미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석에 있어서 주요 관점은 어원론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단어가 동시대에 지닌 뜻과 용례에 있다.

어의론적 세계. 이것은 한 단어와 관련된 뜻이 미치는 범위 전체를 통털어 지칭한다. 같은 단어라도 다른 문맥에서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역동적 등가번역. 이것은 성경번역의 한 이론이다. 성경번역은 어떤 한글 단어가 이에 상응하는 히브리어나 헬라어 단어만을 사용하는 “축어적” 일치 또는 원어의 글자나 구에 상관없이 개념에 초점을 맞춘 “의역”사이의 연속선에서 행해질 수 있다. 이 두 이론의 중간에 위치하는 “역동적 등가번역”은 원어의 본문을 매우 중시하면서도 현대적인

문법형태나 관용어에 맞게 번역하려고 시도한다. 이런 다양한 번역이론에 대한 좋은 논의는 피와 스투어트의 *어떻게 성경을 충실하게 읽을 것인가*, 35 쪽과 로버트 브렛처의 TEV 서론에 나와 있다.

역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반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둘 다 사실이면서 서로 간에 긴장이 있는 진리를 가리킨다. 역설은 반대방향에서 진리를 제시한다. 성경의 많은 진리는 역설적(혹은 변증적) 짝으로 나타난다. 성경적 진리는 따로 떨어져 있는 별들이 아니라, 여러 형태를 이루는 별들로 구성된 성단과 같다.

연역법. 이것은 논리에 의해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특별한 적용으로 나아가는 논리나 사고방법이다. 이것은 귀납법과 반대되는데, 귀납법은 관찰된 특별한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이론)으로 나아가는 과학적인 방법을 뜻한다.

영감.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하고 명백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개념이다. 이것의 완전한 의미는 대개 세 가지로 표현된다: (1) 계시—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서 행하셨다 (2) 감동—하나님께서 자신의 행하심과 그 의미에 대한 바른 이해를 성경의 기록을 위해 택하신 어떤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다 (3) 조명—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기계시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영지주의. 이 그룹에 대한 우리의 대부분의 지식은 2 세기에 쓰여진 영지주의 작품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것의 초기적인 모습은 1 세기(혹은 그 이전에) 나타나고 있다.

2 세기의 발렌티안과 세린티안 영지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물질과 영은 상호-영적(존재론적 이원론)이다.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영이신 하나님은 악한 물질을 사용하여 어떤 것을 형성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2) 하나님과 물질사이에 유출(에너지 혹은 천사적 수준의)이 일어난다. 가장 마지막 혹은 가장 낮은 존재는 구약의 야웨인데, 그는 우주(코스모스)를 형성했다 (3) 예수는 야웨와 같은 유출의 결과이지만 좀 더 높은 계급, 즉 참 하나님과의 보다 더 가까운 존재였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그를 가장 높지만 아직 하나님에 비해 낮고, 성육신한 신은 확실히 아니었다(참조, 요 1:14).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는 인간의 몸을 가질 수 없었고 아직 신적 존재였다. 그는 영적 환영(참조, 요일 1:1-3, 4:1-6)이었다 (4) 구원은 예수를 믿음과 더불어 특별한 지식을 요구하는데, 이 지식은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 지식(암호)은 천상의 영역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하다.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는 유대 율법주의 또한 요구되었다.

영지주의의 거짓교사들은 두가지 상반되는 윤리적 가르침을 전했다; (1) 어떤 이는 말하기를, 삶의 방법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들을 위해 구원과 영성이 천사적인 영역(에너지)을 통과하여 비밀스런 지식(암호)으로 합쳐졌다 (2) 다른 이는 말하기를, 삶의 방법은 구원에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금욕적 삶을 참된 영성의 증거로 강조했다.

영해. 이것은 성경귀절의 역사적 문학적 문맥을 무시하고 다른 기준으로 해석하는 점에서 우화화와 동의어이다.

왜곡. 이것은 어떤 사물이나 관점에 대한 강한 선입견을 말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것은 어떤 사물이나 관점에 대하여 공평한 견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한 마음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선입관적 입장을 취하게 한다.

우화. 이것은 원래 알렉산드리아의 유대교에서 출발한 성경해석방법이다. 이것은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에 의해 대중화되었다. 성경을 자신의 문화나 철학적인 체계에 상응시키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아래 성경의 역사적 상황과/혹은 문학적 배경을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성경의 모든 본문 뒤에 감추어진 영적인 뜻을 찾으려고 했다. 예수께서 마 13 장에서 바울은 갈 4 장에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우화적 방법을 사용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화가 아니라 모형적인 해석방법이다.

원저자. 이것은 성경을 실제로 기록한 저자/사람을 의미한다.

율법주의. 이것은 규정이나 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태도이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기 위하여 인간의 규율을 지키는 강조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관계를 덜 중요시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기록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사이의 언약적 관계에서 둘 다 중요한 요소이다.

의역. 이것은 성경번역의 한 이론이다. 성경번역은 어떤 한글 단어가 이에 상응하는 히브리 단어나 헬라어 단어만을 사용하는 “축어적” 일치 또는 원어의 글자나 구에 상관없이 개념에 초점을 맞춘 “의역”사이의 연속선에서 행해질 수 있다. 이 두 이론의 중간에 위치하는 “역동적 등가번역”은 원어의 본문을 매우 중시하면서도 현대적인 문법형태나 관용어에 맞게 번역하려고 시도한다. 이런 다양한 번역이론에 대한 좋은 논의는 피와 스투어트의 *어떻게 성경을 충실하게 읽을 것인가*, 35 쪽에 있다.

인용을 위한 성경사용. 이것은 성경의 어떤 절을 그것의 문학적 단위가 갖는 직접적 포괄적 문맥을 무시하고 인용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원저자의 의도로부터 그 절(들)을 빼내게 되고, 대개 자신의 개인적 견해에 성경의 권위를 부여하여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읽어 들어가기. 이것은 석의의 정반대 방향이다. 만일 석의가 원저자의 의도를 “읽어 내는 것”이라면, 이 용어는 이질적인 생각이나 견해를 가지고 “읽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계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한 방법이다. 이것은 자연질서(롬 1:19-20)와 도덕적 의식(롬 2:14-15)을 포함한다. 이것은 시 19:1-6 과 롬 1-2 에서 말해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특별하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특히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는 특별계시와 구별된다.

이 신학적 용어는 크리스찬 과학자(예, 휴지 로스의 글)들의 “헌 지구”운동에 의해 재 강조되었다. 그들은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말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했다. 자연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으로 인도하는 열린 문이다; 이것은 특별계시(성경)와 구별된다. 이러한 생각은 현대의 과학자들이 자연질서를 자유롭게 연구하도록 했다. 내 생각으로는 이점은 현대의 서구의 과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놀라운 새 기회이다.

장르. 이것은 문학의 다른 종류를 뜻하는 프랑스어이다. 이 용어의 핵심은 공통적 특징을 공유하는 형태로 문학작품을 구별짓는 것에 있다: 역사적 이야기체, 시, 잠언, 묵시문학, 법률.

전제.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해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이해를 뜻한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이슈에 대해 성경자체를 확인하기도 전에 우리의 견해나 판단을 가지고 있다. 이 전제는 왜곡, 선협적인 생각, 가정, 또는 기존 지식 등으로 불린다.

정경. 이것은 독특하게 영감되었다고 믿어지는 글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일컫는다.

조명.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개념을 위해 사용되었다. 완전한 의미는 대개 세 가지 용어로 표현된다: (1) 계시—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서 행하셨다 (2) 감동—하나님께서 자신의 행하심과 그 의미에 대한 바른 이해를 성경의 기록을 위해 택하신 어떤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다 (3) 조명—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기계시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조직신학.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하나의 이성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해석의 단계를 의미한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학을 단순히 역사적으로 진술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항목별(신, 인간, 죄, 구원 등)로 제시한다.

종합. 이것은 히브리시의 세 가지 평행법 가운데 하나를 지칭한다. 이 용어는 어떤 것에 추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시행이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때때로 “점증적”인 평행법으로 불린다(참조, 시 19:7-9).

주석. 이것은 특별한 형태의 연구도서이다. 이것은 성경의 각 책에 대한 일반적인 배경을 설명한다. 또한 그 책의 각 부분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어떤 책은 적용에, 어떤 책은 보다 더 전문적인 방법으로 본문을 다루고 있다. 이 책들은 유용하지만, 반드시 자기 스스로 기초적인 공부를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어떤 주석을 사용하든지 그 주석가의 해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결코 안된다. 다른 신학적 견해를 가진 여러 종류의 주석을 비교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지혜문학. 이것은 고대 근동(그리고 현대)에서 사용된 공통적인 문학형태이다. 기본적으로 시, 잠언, 짧은 글 등을 통하여 자라가는 세대에게 성공적인 삶을 위한 지침을 주기 위해 쓰여졌다. 그 내용은 공동체 보다는 개인들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역사에 대한 암시를 사용하지 않고, 삶의 경험과 관찰에 근거한다. 성경에서 욥기 부터 아가서 까지 야웨의 존재와 그분께 대한 예배를 전제하고 있지만, 인간 경험의 모든 경우에 이러한 종교적 사상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일반적 진리를 말하는 장르이다. 이 장르는 모든 특정한 경우에 사용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일반적 진술로서 각각의 특별한 경우에 항상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현인들은 인생의 어려운 질문들을 탐구했다. 그들은 종종 전통적인 종교적 견해에 도전했다(욥기와 전도서). 그들은 인생의 비극에 대한 가벼한 견해들에 대항하여 균형잡히고 긴장이 느껴지는 답을 주고 있다.

취사선택. 이것은 본문비평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것은 다른 헬라이어 사본들로부터 원래의 필사본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지는 본문을 찾기 위해 본문을 선택하는 관습을 말한다. 이 방법은 어느 한 헬라이어 사본의 계열이 원본의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배격한다.

친필본. 이것은 성경의 원본을 말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맨 처음 손으로 쓰여진 원본은 모두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단지 사본들의 사본들만 남아 있다. 이 사실은 히브리어와 헬라이어로 쓰인 사본들과 고대 번역본들에 나타나는 본문의 상이점들에 대한 원인이 된다.

칠십인역. 70 인역은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헬라이어 번역본이다. 전통에 의하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을 위해 유다의 70 명의 학자들이 70 일동안 마쳤다고 한다. 전통이 말하는 연대는 주전 250 년 전후(사실상 그 번역이 모두

완성되기까지는 100년 이상이 걸렸을 것이다). 이 번역본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1) 이 사본은 히브리 맛소라 사본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고대 역본이다 (2) 이 사본은 주전 2-3 세기에 유대인들이 해석한 내용을 보여준다 (3) 이 사본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기 전에 이해했던 유대인들의 메시아사상을 알게 한다. 약어로 “LXX”로 칭한다.

탈무드. 이것은 경전화된 유대 구전전통을 일컫는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구두로 이 내용을 주셨다고 믿는다. 사실상 이것은 오랜 시간을 걸친 유대 교사들의 지혜를 집대성한 것이다. 탈무드에는 두 가지 다른 본문이 있다: 바빌론 탈무드와 짧으면서 미완성의 팔레스타인 탈무드.

토라. 이것은 “가르침”을 뜻하는 히브리어 용어이다. 이것은 모세의 책(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을 일컫는 공식적인 명칭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히브리 성경에서 가장 권위있는 부분이다.

파피루스. 이것은 이집트에서 생산된 책의 재료이다. 강에서 자라는 갈대로 만들었다. 그 위에 가장 오래된 헬라이어 신약성경이 기록되었다.

편협. 이것은 지역에 따른 신학적/문화적 배경으로 둘러싸여 생기는 왜곡을 의미한다. 이것은 문화를 뛰어넘는 성경진리의 이해와 그 적용에 장애를 준다.

플라톤. 그는 고대 헬라의 철학자였다. 이집트의 알렌산드리아 학자들과 후기의 어거스틴을 통하여 그의 철학은 초대 교회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는 지구상의 모든 것을 환영으로 이해했고 영적 원형의 복사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신학자들은 후에 플라톤의 “형태/개념”을 영적 세계와 동일시했다.

하등비평. “본문비평”을 보라.

해석학. 이것은 석의를 하는 원리들을 일컫는 전문적 용어이다. 이것은 구체적인 지침들과 예술/은사의 조합이다. 성경해석학은 대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일반적 원리들과 구체적인 원리들. 이 원리들은 성경에 있는 다른 문학적 종류에 기인한다. 각기 다른 타입(장르)에 적합한 지침들이 있지만 어떤 공통의 전제들과 해석의 과정을 공유한다.

행간삽입성경. 이것은 성경원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뜻과 구조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자료이다. 한글로 된 성경을 원어마다 그 바로 밑에 해당되는 뜻을 제시한다. “분석사전”과 더불어 사용함으로써 이 책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형태와 기본적 뜻을 제공한다.

환유법. 이것은 어떤 사물의 이름이 그것과 관련있는 것을 나타내도록 하는 수사법이다. 예를 들면, “주전자가 끓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는 “주전자 안에 있는 물이 끓고 있다”는 뜻이다.

부록 4

교리적 선언

나는 믿음의 어떤 특별한 선언이나 신조에 관심이 있지 않다. 나는 오히려 성경 자체의 진리를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나는 믿음의 진실이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교리적 입장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는 수 많은 신학적 오류와 속임을 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나의 신학의 간략한 요약은 제시하려고 한다.

1. 구약과 신약은 모두 영감되었고 오류가 없으며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다. 성경은 초자연적 인도하심아래 사람에게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진리와 그의 목적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자료이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교회의 믿음과 행함을 위한 유일한 자료이다.

2. 오직 한 분이신 영원하시고 창조주 이시며 구속주 하나님이 계신다. 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시다. 그는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면서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는 구별되는 세 인격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 진실로 분리되면서도 그 본질에 있어 똑 같으시다.

3. 하나님은 그의 세계를 능동적으로 주관하고 계신다. 창조에 대한 그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계획과 더불어,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하는 개인에 초점을 둔 계획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지식과 허락없이 아무것도 일어 나지 않으면서도, 또한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다.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선택을 받으신 분이시고,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 그 안에서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미리하시는 것은 인간이 이미 쓰여진 각본을 따라 사는 것으로 전락시키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책임있는 자들이다.

4.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죄없는 상태로 지음을 입었지만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택했다. 비록 초자연적 존재에 의해 유혹을 받았지만,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들의 반역은 인류와 창조에 영향을 미쳤다. 아담과 우리가 함께 처한 상황과 우리 자신이 개인적인 의지로 반역한 일로 인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공훈과 은혜를 필요로 한다.

5.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위해 용서와 회복의 길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시고, 죄없는 삶을 사시고,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회복과 교제를 위한 유일한 길이 되신다. 그가 성취하신 일을 믿음으로서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길이 전혀 없다.

6. 우리 각자는 예수님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올바른 관계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제안을 받드시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결심과, 자신이 알고 있는 죄로부터 결심하고 떠남으로써 이루어진다.

7.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둔 우리의 신뢰와 죄의 회개에 기초하여 완전히 용서받고 회복됨을 누린다. 또한 이렇게 새로워진 관계의 증거는 변화되었고 또한 계속 변화를 경험하는 삶으로 드러난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앞으로 언젠가 하늘에서 있을 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진정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비록 때때로 죄를 짓게 될지라도 믿음과 자백을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할 것이다.

8. 성령은 “다른 예수님”이시다. 그는 잃어버려진 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일하신다. 성령의 열매는 구원을 받을 때에 주어진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서 예수의 삶과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자세와 동기를 기본적으로 반영하는 은사는 성령의 열매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아야 한다. 성경이 기록되던 때에 성령이 활동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성령이 활동적으로 일하시고 계신다.

9. 성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의 심판자로 세우셨다. 그는 온 인류를 심판하기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를 믿고 자신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의 재림 때에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기를 거부한 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질 것이다. 그들은 악마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완전하거나 자세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신학적인 맛을 여러분께 주리라 기대한다. 나는 이 말을 좋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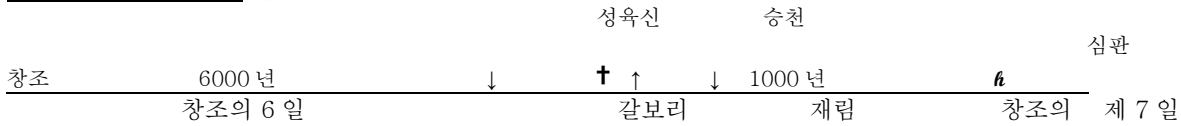
“본질적인 내용에는—일치를, 그 외의 것에는—자유를, 모든 일에 있어서는—사랑을”

재림에 대한 여러 견해

서론

- 가. 이 주제는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나. 그 일이 어떻게 또 언제 일어날 것이가는 불확실 하지만 이 사건은 분명히 일어난다!
 다. 당신이 믿는 내용을 어디서 얻었는가?
 라. 재림의 목적은 무엇인가?
 마. 성경이 조직신학적 종말론을 가르키는가?
 바. 왜 오늘날 사람들이 재림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가?
 사. 예수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심을 말하는 모든 이론은 보수적인 견해에 속한다.

초대 교회의 전천년설 (역사상의 전천년설)



전제

1. 지구의 역사는 창조의 6 일과 같다(바나바의 서신, 이레니우스, 메쏘디우스)
2. 각 날이 1000 년을 나타낸다 (벧후 3:8; 시 9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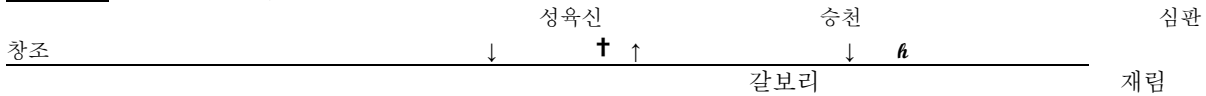
옹호자

1. 파피아스 이레니우스, 순교자 저스틴, 터툴리안, 율포리투스, 메쏘디우스
2. 조지 래드(역사상의 전천년주의자)

장점

1. 어떤 사건들은 분명히 파루시아 이전에 일어난다
 - ㄱ. 복음이 모든 나라에(마 24:14)
 - ㄴ. 이스라엘의 회개(롬 11:25 이하)
 - ㄷ. 대환란(마 24:21)
 - ㄹ. 죄의 사람이 나타남 - 적그리스도(살후 2:3)
- 눈에 보이는 전세계적 휴거와 재림

무천년설 (실현된 또는 시작된 천년설)



전제

1.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갈 3:9,29; 6:16; 롬 2:5,9,28-29; 계 1:6; 벧전 3:6)
2. 한 언약(옛 언약과 새 언약, 롬 4 장 - 아브라함은 믿음에 의한 칭의를 설명하기 위해 바울이 사용한 예)
3.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간적이지 않음(요 18:36)
4. 한 재림
한 부활
한 심판
영원한 왕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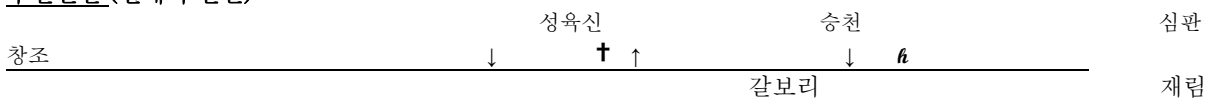
옹호자

1. 초대 교회의 일부 교부들
2. 어거스틴
3. 썬빙글리
4. 칼빈(장로교)
5. 레이 섬머스(침례교)
6. 제이 아담스(개혁)
7. 대부분의 그리스도의 교회

장점

1. 천년왕국에서가 아니라 갈보리에서 승리가 이루어졌다
2. 사탄이 이제 묶여있다
3.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통일성 있는 계획

후천년설 (현재의 천년)



(천년왕국[1000년])

전제

1.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이 이르게 한다(벧후 3:12; 마 6:10)
2. 모든 일들이 점점 더 좋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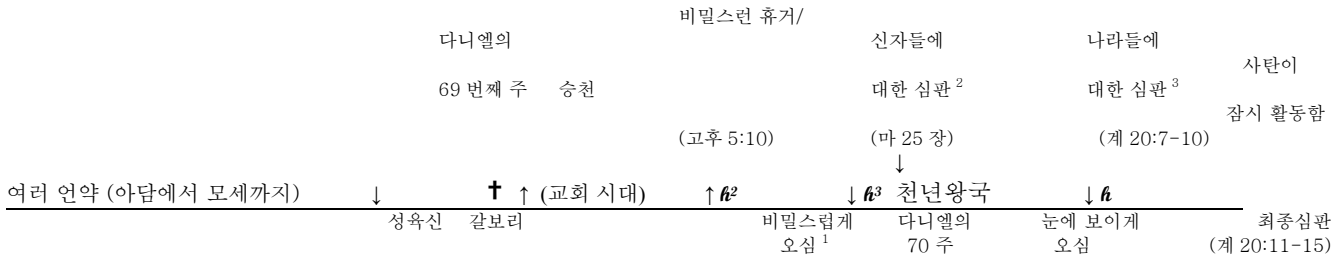
옹호자

1. 조나단 에드워드
2. A. H. 스트롱
3. W. T. 코너
4. 19 세기의 대부분의 학자들

장점

1. 제림을 중요시 함
2.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임
3. 현재의 문화에 대해 낙관적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¹ 이 비밀스럽게 오심에 대하여 세 가지 견해가 있다:
 1) 그 일이 환란 이전에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
 2) 그 일이 환란 중간에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
 3) 그 일이 환란 이후에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
² 신자들에게 대한 심판(고후 5:10)
³ 나라들에 대한 심판(마 25 장)

전제

1. 성경이 7 개의 구분된 세대로 나누어 진다
2.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약의 모든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임
3. 교회와 이스라엘은 완전히 분리됨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거부하였을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제 2 의 방법이다
4. 교회는 환란 이전에 비밀스럽게 휴거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제 5 장 이후는 유대적이다
5. 신약을 구약의 예언에 비추어 해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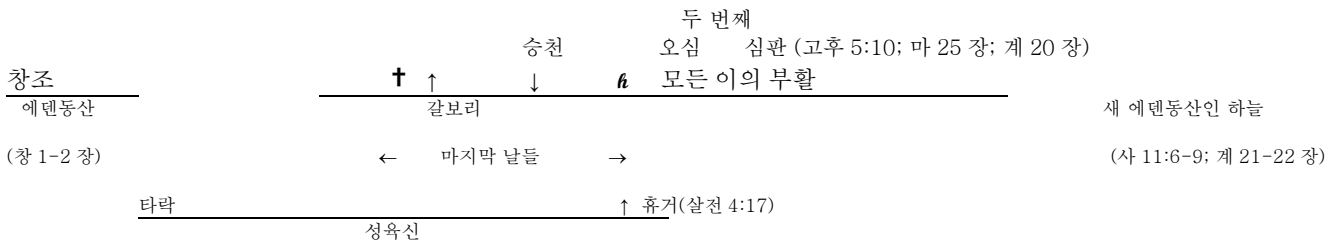
옹호자

1. 요한 달비(플라이어머스 형제회)
2. 클라렌스 라킨
3. D. L. 무디
4. C. I. 스코필드(연구성경)
5. 달라스 신학교(펜테코스트, 라이리, 왈부드)
6. W. A. 크리스웰(남침례교)
7. 할 린시
8. 팀 라하이
9. 성경교회들(달라스 신학교)

장점

1. 성경의 예언을 중요시함(특히 다니엘서)
2. 어느 때에라도 있을 제림(마 24:40-42)

말의 입시적인 견해 (역사상의 전천년설/후기의 대환란/무천년설)



전제

1. 한 가지 계획(창 3:15)
2.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 (롬 2:28-29; 4 장; 창 3:29; 6:16)
3. 다니엘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의 묵시적 성격 (문학적 장르)

변증법적 긴장

1. 구약 언약의 예언적 모델과 신약 언약의 사도적 모델 사이의 긴장
2. 성경의 유일신론(모든 이에게 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선택(특별한 한 민족) 사이의 긴장

- | | |
|--|--|
| <p>4. 구약은 한 번 오심(두 시대), 눈에 보이는 한 번의 오심에 대해 말함</p> <p>5. 눈에 보이는 한 번의 오심(마 24:27)
한 번의 휴거(살전 4:13-18)
한 번의 부활
한 번의 심판(마 25 장; 계 20 장)
영원한 왕국</p> | <p>3. 성경에 있는 언약과 약속의 조건적인 면(“만일...그때에는”)과 범죄한 인간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신실하심 사이의 긴장</p> <p>4. 근동 문학의 장르와 현대 서구 문학적 모델 사이의 긴장</p> <p>5. 하나님의 왕국의 현재와 ‘아직 미래’ 사이의 긴장</p> <p>6.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믿음과 어떤 일들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믿음 사이의 긴장</p> |
|--|--|

결론

1. 존 칼빈은 요한계시록에 대해 “하나님만 이 책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아신다”라고 말했다.
2. 재림에 관하여 인증받은 견해나 대다수가 찬동하는 견해가 없다.
3. 모든 세대에 속한 신자들은 자기들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성경이 들어맞는 내용이 되도록 강요하였다.
4. 신약에는 어떤 조직신학적 종말론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단지 우리로 하여금 “준비 되고” “활동적이 되도록” 진리가 계시되었다.
5.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만 이 주제를 가지고 서로 싸운다.
6. 자신이 사는 동안에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는 일은 각 시대의 신자들에게 희망과 격려와 동기부여를 주었다(막 13:33-37).

관권 © 2000 밥 어틀리
 마샬, 텍사스, BIBLE LESSONS INTERNATIONAL
 모든 권한을 보유함.

요한 계시록

이 신비한 계시록은
나로 하여금 약간 두렵게 한다.
그러나 곧 이 책은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나의 상상력을 고무시킨다.
그러나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 책의 메시지를 보아야 함을 배웠다,
즉 교조주의적으로 되지 않아야 함을 분명히 하고
주의 깊게 본문을 석의하여야 하는 것을.
나는 이 표현이 상징이기에
내가 해석함에 있어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해석하는 안되며
또 애매모호한 부분을 무시해 버려서는 안되는 것을 알고 있다.
장르가 중요한 것임을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하며
내가 가진 답이 결코
적합한 유일한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나는 성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소망한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람들에게 그가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심을 보여 주면서,
그 다음으로 내가 지상에서의 내 역할을 감당할 때
매일 싸우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라네

팻 버거론 1999년 7월 21일